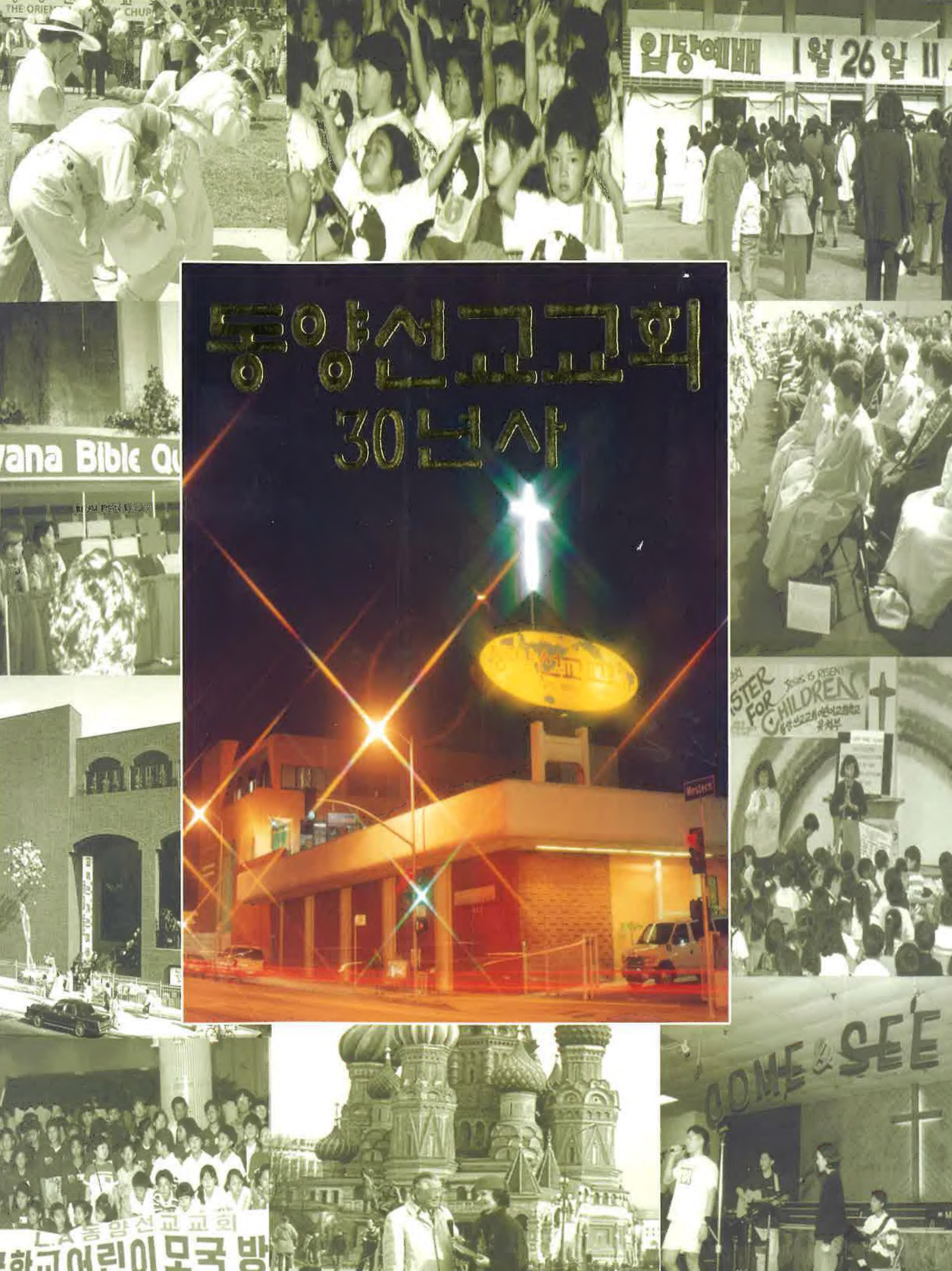
동양선교교회
30년사


입당예배 1월 26일
Bible
FOR CHILDREN
JESUS IS RISEN
COME & SEE
L.A 동양선교교회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가 서른살의 성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의젓하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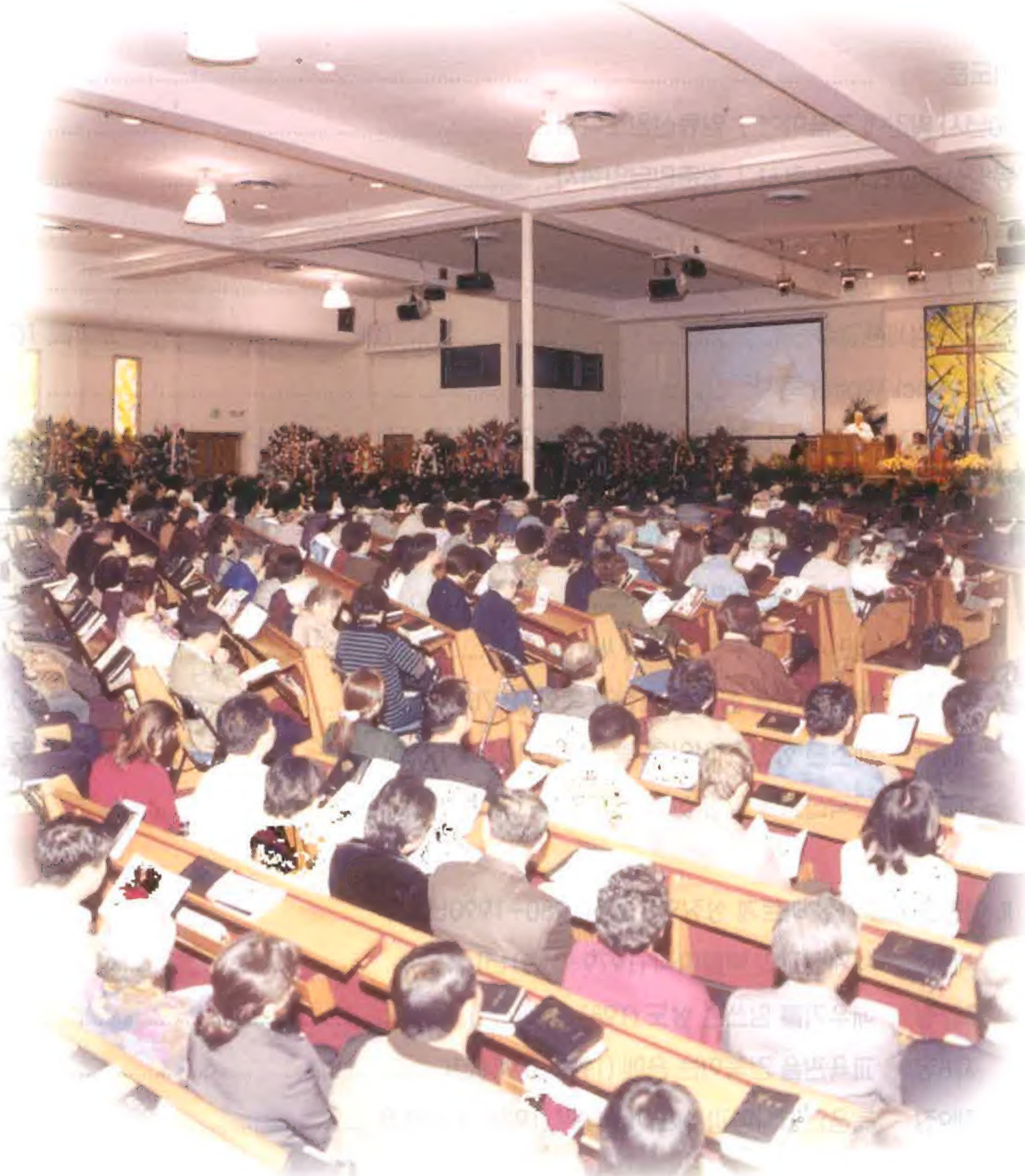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각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베푸는 신앙,
정죄보다는 용서하는 신앙,
의무적인 신앙보다는 자발적인 신앙,
소극적 신앙보다는 용기있는 신앙,
환경에 지배되기 보다는 다스리는 신앙,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가정적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유일신의 신앙,
순종의 신앙,
제단 쌓는 신앙,
관대한 신앙,
손님대접의 신앙,
십일조의 신앙,
헌신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회적으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디옥교회와 같이 국제적인 교회,
상호 협력하는 교회,
금식으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중심의 교회,
인재 양성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됨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원로목사

동양선교교회 30년사



30년사 편찬위원회

동 / 양 / 선 / 교 / 교 / 회 / 3 / 0 / 년 / 사 / **차 / 례**

기도문 1

3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 임동선원로목사 6

동양선교교회 30년 역사 / 강준민담임목사 7

축사 / 김장환목사 8

축사 / 최종진총장 9

축사 / 김세윤교수 10

축사 / Rick Warren목사 11

역대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지역교회 및 선교사 인물 사진 13

I. 선교 • 교육 • 봉사 사역을 실천한 10년 (1970~1980년)

제1장 인류역사는 이민의 역사 51

제2장 이민사회에 뿌린 복음의 씨 (1970년) 73

제3장 꿈과 희망을 심어준 초창기 목회 (1970~1973년) 93

제4장 웨스턴 성전 구입의 축복 (1973~1976년) 137

제5장 모국선교에 앞장 선 교회 (1976~1979년) 181

II. 이민교회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년 (1980~1990년)

제6장 세계선교의 부름따라 (1979~1981년) 227

제7장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1981~1984년) 271

제8장 교육관을 건축하는 은혜 (1984~1986년) 323

제9장 복음연합사업과 월드미션대학 (1986~1990년) 381

III. 시련과 연단, 새로운 부흥을 향한 10년 (1990~2000년)

제10장 4 • 29 폭동과 봉사 사역 (1990~1993년) 439

제11장 러시아, 중국, 북한을 위한 선교사명 (1993~1999년) 487

제12장 새 천년 새 목회 새 비전 (2000년~) 541

IV. 부록

1. 임동선목사의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573
2. 외부에서 본 동양선교교회 30년 614
    1) 김찬희박사
    2) 유의영박사
    3) 신선묵박사
3. 동양선교교회 30년 연혁 621
4. 통계와 자료로 보는 30년사 646
5. 헌법 714
6. 집필자의 글 724
7. 편찬위원장의 글 725



30 년 사 발 간 에 즈 음 하 여 . . .

동양선교교회 30년을 돌아보며

임동선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창1:1)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1970년 7월 사가에서 30명의 성도가 모여 개척예배를 드린후 첫 한달간 모아진 헌금 400달러 전액을 모국 농촌 미자립교회에 선교비로 보내었고 이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교회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6대주에 30여개의 지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라는 교회의 표어아래 30년간 동양선교교회는 선교비 1천만달러, 교육비 1천만달러, 그리고 구제비로 7백만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는 성경말씀을 실천하고자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으로는 본당, 제1 교육관, 제2 교육관, 주차장 등 시가로 1,500만달러 이상의 교회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교회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우리교회 출신 목회자를 비롯하여 유능한 40여 목회자가 배출되어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훌륭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교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6개 신학교가 세워져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교들을 세워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배출된 것에 대하여 큰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을 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삼상7:12)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의 동양선교교회가 있기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역대 동역자들, 당회원들, 제직들, 그리고 온 교우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제 1교육관을 지을 때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건축헌금에 동참하였던 것은 저의 마음속에 영원한 감동과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금번 동양선교교회 30년사를 편찬하려는 것은 자연인 사람을 자랑하거나 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체계 있게 정리하고, 이것을 글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역사 편찬에 물질적으로 지원해 준 당회와 제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잊혀진 자료들을 발굴하느라 바쁜 이민 생활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편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발간사

동양선교교회 30년 역사

강준민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의 역사도 사도행전과 같이 인물 중심의 교회사입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의 역사속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바울로 세우신 임동선목사님를 통해 이루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임목사님과 함께 동양선교교회를 세워오신 훌륭한 동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룬 일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동시에 성령행전인 것 같이, 동양선교교회의 30년사도 인물중심의 행전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의 역사는 이민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복판에 세워진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자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일해 왔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단순한 개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동양선교교회도 한 때는 분리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동양선교교회는 그 고난 중에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핀 꽃처럼, 시련을 통과한 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은 뿌리깊은 나무처럼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30년사 출판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잠시 잃어버렸던 동양선교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 원하는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에 피와 땀과 눈물로 양떼를 섬기신 임동선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년의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오늘의 동양선교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 주신 모범과 헌신과 열정을 따라, 동양선교교회를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사를 집필하신 민병용집사님과 30년사 출판의 총 책임을 맡아 섬기신 김성곤장로님과 30년사 편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 사

이민교회의 좋은 모델

김장환
극동방송 사장

동양선교교회의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담임이신 강준민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해 지금의 동양선교교회가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치신 임동선 목사님께도 아울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 교회의 모델입니다. 동양선교교회가 설립된 지난 1970년대는 현재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국 땅에서의 정착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민 사회를 하나로 묶고, 약소국의 설움과 아픔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던 곳이 있었다면 바로 이민 교회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같은 역할을 잘 감당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종전 신자의 신앙 성숙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 주의 일꾼을 길러내고, 봉사를 통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 해외에 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에 힘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마침내 미국내의 2900여 이민 교회는 물론 전세계 3700여 이민 교회의 좋은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분명 이같은 일은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의 목회와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강준민목사님이 부임하신 동양선교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또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동양선교교회와 함께 하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민 사회도 1세대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고, 1.5세와 2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들이 1.5세와 2세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전승해줌으로써 이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의 장점은 바로 언어 구사에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양선교교회가 1.5세와 2세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와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이민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바야흐로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함께 협력해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동양선교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동양선교교회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최 종 진 박사
서울 신학대학교 총장

축 사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늦가을 탐스럽게 피어있는 국화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되기까지는 이른 봄부터 소쩍새가 낮에는 그늘에서 자고 밤이면 나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꽃이 만개할 날을 기다리며 그 울음소리는 무더운 여름이 오자 울부짖음으로, 찬 바람이 부는 가을로 들어서자 핏빛 통곡으로 변하였습니다.

목놓아 울다가, 통곡하다 소쩍새는 목에서 터져 나오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기인 긴 날 애처로운 소쩍새 울음소리 그치던 이른 아침, 바로 그 자리에 맑은 이슬 함초롬히 머금고 청징한 모습으로 한 송이 국화꽃이 활짝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국화꽃을 위해서도 이런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면, 오늘의 동양선교교회가 이룩되기 까지는 지난 30년간의 소쩍새의 역할을 했던 귀중한 분들의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에 그 소쩍새 역할을 한 분들이, 물을 주고 믿음과 꿈을 심어주었던 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셨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성장시키느라 수고하신 임동선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울부짖음과 통곡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무서운 희생이 있어 이뤄진 것입니다.

첫째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확실히 했던 교회를 축하합니다. 70년대부터 많은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 물들어 있을 때, 복음적 신학과 보수적 신앙을 유지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우러나와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둘째로, 30년 역사동안 흔들리지 않고 세계선교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것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교회시작에서 부터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세계선교 그것도 특별히 동양선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동양선교교회라 하여 선교지향적 교회을 천명한 이래 줄곧 이 입장을 고수하며 본래의 사명을 다해 왔기에 칭송을 받을 만 합니다.

셋째로,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삶의 자부심을 주어온 교회였기에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교회의 구체적인 사명과 존재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실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감사로 역사기록의 결론을 맺었으면 합니다. 인류역사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때마다, 길목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기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동양선교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을 사용하셨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그 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역사기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양선교교회 30년사를 읽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월드컵 한국과 미국 축구시합일
성주산 기슭,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실에서



축 사

동양선교교회 선교의 열정

김 세 윤
풀러신학대학원 교수

동양선교교회 30년사가 발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양선교교회의 성도들께 축하하며 미주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동양선교교회는 한인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줄곧 한인 타운의 중심에 자리잡고 남가주 한인들의 영적 지주와 사회적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동양선교교회 30년사는 곧 미주 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그 이름에 벌써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는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선교하여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선교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동양선교교회의 영향은 미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의 이러한 선교 열정과 전략은 미주의 여러 한인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고 모델을 제공해 왔습니다.

동양선교교회 사역중 한인 이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 또한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사업이나 여타 긴요한 공동 사업을 벌일 때마다 우리 한인들은 제일 먼저 임동선목사님과 동양선교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동양선교교회의 너그러운 참여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교회들을 선도해 왔습니다. 한인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타인종들에게도 적극 봉사하는 동양선교교회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계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온 교회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동양선교교회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에 대한 양육에 힘씀은 물론이려니와, 월드미션대학을 통한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선교교회에서 자란 인재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게 되었으며, 월드미션대학에서 양성된 교역자들이 미주와 해외의 어려운 선교지들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의 이러한 역사가 출판되어 많은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고, 많은 목회 후배들로 하여금 임목사님의 리더십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목사들이 비난 받으며 일부 교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이 때에 동양선교교회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양선교교회 30년사 발간을 계기로 동양선교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앞으로도 이민사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노릇을 충실히 하고 미주 한인 교회들에게 만형 노릇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빕니다.

축사

SADDLEBACK CHURCH



Pastor Joshua Choon-Min Kang
The Oriental Mission Church
424 N.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04

Dear Pastor Kang,

On behalf of the pastors, staff and members of Saddleback Church, we offer our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e thirty year history of the Oriental Mission Church. You have made a tremendous impact for God in Los Angeles. We rejoice with you.

May God continue to richly bless you and your ministry in the future!

Sincerely,

Rick Warren
Senior Pastor
Saddleback Church

새들백 교회 온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대표해 동양선교교회 30년사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귀 교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큰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우리는 귀 교회와 함께 이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귀 교회의 한없는 축복과 선교의 열정이 계속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릭 워렌
새들백교회 담임목사

역대 • 현재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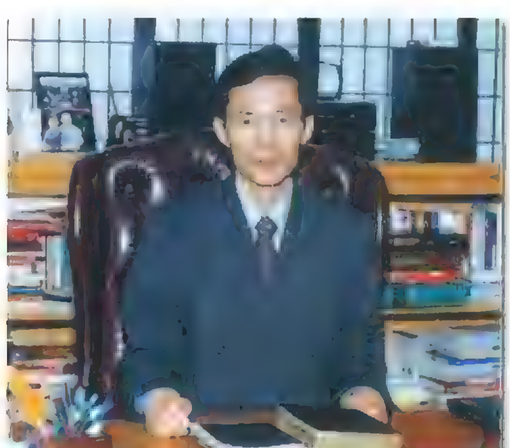
임동선 창립 담임목사



이병희 2대 담임목사



박광철 3대 담임목사



강준민 4대 현 담임목사

현재 부목사



황재륭
(수석부목사, 행정)



김용식
(청년, 교구)



김은철
(교육, 교구)



정우송
(교구)



정운철
(음악, 교구)



정종원
(열린예배)



조관호
(선교, 교구)



홍남표
(성인교육, 교구)



이태규
(영어예배)



<교역자 일동>
뒷줄 왼쪽부터 이태규목사, 김은철목사, 조관호목사, 권안수전도사, 한희숙전도사,
김추자전도사, 정종원목사, 김용식목사, 데니스김목사,
앞줄 왼쪽부터 정운철목사, 황재륭목사, 강준민목사, 정우송목사, 홍남표목사

현재 협동목사



이 성 원



임 성 진



최 호 춘



<교육담당 교역자들>
뒷줄 왼쪽부터 김창국, Joshua Hong, Sean Yu, Jason Kim, Peter Lee, Zach Han, Howard Min전도사,
앞쪽 왼쪽부터 노영희, 이정민, Jessica Bach전도사, Dennis Kim목사, 김은철목사,
박준규목사, 석희정전도사, 오소영전도사



<음악사역자>
뒷줄 왼쪽부터 이한길집사(새벽예배 찬양인도), 최명용집사(2부 지휘),
김성화선생(핸드벨콰이어 지휘), 임정선권사(4부 피아노),
박은하집사(3부 피아노), 최왕성집사(3부 지휘), 홍순태집사(1부 지휘),
앞줄 왼쪽부터 강자혜선생(1부 피아노), 이귀임권사(4부 지휘),
곽정란집사(2부 피아노), 심선희선생(1부 올갠), 임세은선생(2/4부 올갠)



<사무직원>
뒷줄 왼쪽부터 이병걸집사, 서영학집사, 김영배집사,
앞줄 왼쪽부터 곽에스더집사, 최임식자매, 주문경집사

역대 부목사



황재열



오봉운



이천영



김상규



박장균



박용장



허경삼



송정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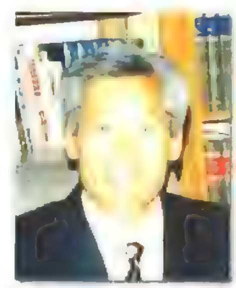
이기홍



이요한



이중용



석태운



이원희



오태상



정완기



안용식



임병택



손주영



강신욱



김건태

역대 부목사


윤 한 두


채 현 철


조 갑 수


현 용 수


차 재 완


이 성 원


홍 동 섭


안 영 호


주 명 훈


노 창 수


임 성 진


전 길 성


송 창 현


김 명 삼


최 진 기


강 일 준


이 청 근


허 번


이 태 종


이 요 나 단

역대 부목사


김 성 학


김 경 환


정 진 우


박 형 준


한 진


이 유 식


박 종 각


김 학 진


주 인 석


엄 재 헌

현재 • 역대 시무장로


김용서


한건수


명재덕


박천흠


김주영


오해훈


한인남


이경택


홍순웅


이재권


김몽학


강영구


박계로


조웅래


김병곤


김재권


오수남


오철훈


이정배


정문섭

현재 • 역대 시무장로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조영근


신윤철


안정현


조규철


김광락


온성철


이성호


황재룡


방조영


유문규


백영두


윤근섭


서완석


김용일


오수훈


백형권


조인식

현재 • 역대 시무장로


김동규


최만삼


김경태


이성은


이건기


탁찬효


신상우


조상희


조정현


김광돈


임진수


황종구


김여근


김명균


정중섭


김석환


김지수


김성곤


김상정


임스티브

현재 • 역대 시무장로


노재희


백윤조


엄한광


김기성


홍성환


김중훈


장 진


김영재


조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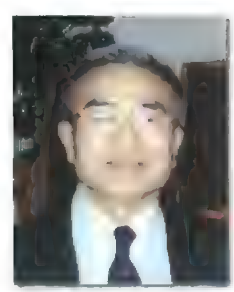

김덕영


조영일


노성찬


박승원


신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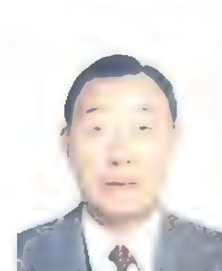

한긍리


김세웅


이 조


한승수


강모세


정봉모

현재 • 역대 시무장로


김채광


이병주


전용석


오재선


원석복


정영식


최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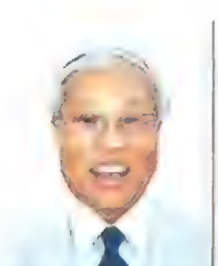
현재 협동장로


최경호


강종홍


이규현


구자원


오광찬


조택순


백성용


방미철


박한기

시무 안수집사


강 광 희


계 춘 영


곽 건 준


곽 병 재


구 경 훈


금 재 연


김 강 일


김 경 수


김 국 한


김 권 집


김 동 원


김 삼 중


김 성 권


김 영 만


김 영 수


김 영 욱


김 영 호


김 종 준


김 진 호


김 청 익

시무 안수집사


김충일


김해룡


김홍일


김희구


남상현


노인호


라철삼


마사웅


박명관


박정언


박제임스


박창국


박창문


박창섭


박태호


박 환


배영하


송석주


송성훈


신동순

시무 안수집사


신 부 남


신 재 권


안 광 석


안 의 식


양 승 달


엄 문 섭


엄 창 웅


오 명 엽


오 상 헌


오 용 기


오 윤 화


오 정 택


원 재 수


유 대 선


유 정 수


윤 여 춘


윤 태 중


이 경 동


이 광 휘


이 길 홍

시무 안수집사


이명진


이병인


이상용


이세훈


이영세


이영송


이영이


이용훈


이장윤


이종수


이종용


이찬봉


이창석


이충식


이태식


이한길


이효성


임승광


임승천


임승표

시무 안수집사


임헌건


전광일


전영식


전완수


정만혁


정한석


정화관


진병엽


차귀동


채승희


채홍인


채희길


최수남


최영진


최창진


한규환


한동열


한병철


한영길


한춘석

시무 안수집사


함재목


홍동성


홍성식


황덕성

(이상 가나다순)

현재 협동 안수집사


심대복


오정수


윤응섭


이승직


이평재


전의웅


한상준

(이상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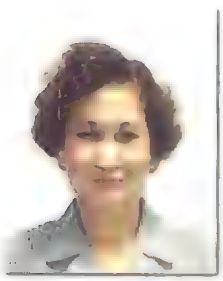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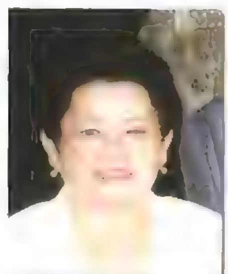

강복순


강봉익


강순례


강애순


강혜원


계정자


고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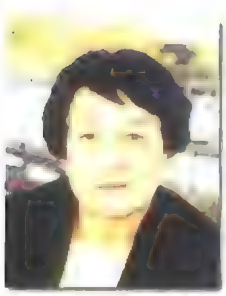

고옥재


고주현


공정자


곽광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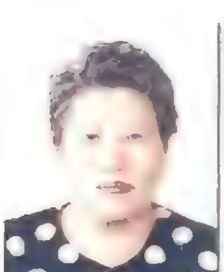

곽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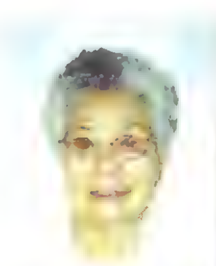

구선화


권길완


권영렬


권옥엽


권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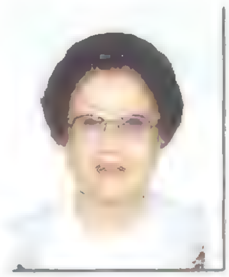

금남이


김경순


김금례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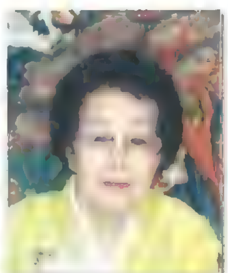

김기옥


김남수


김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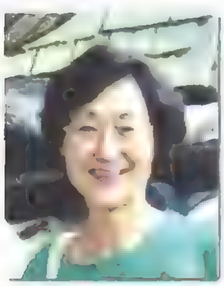

김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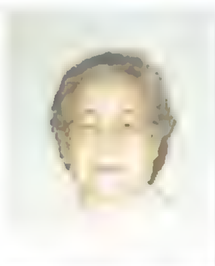

김민희


김병숙


김봉태


김성모


김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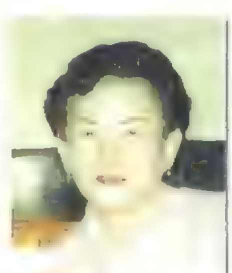

김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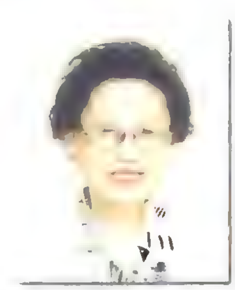

김순애


김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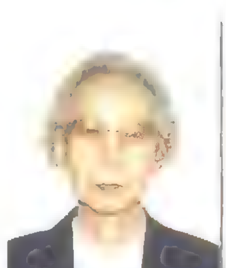

김애순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애


김영애


김옥용


김옥자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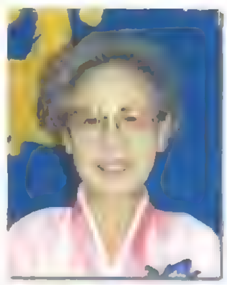

김옥저


김인곤


김재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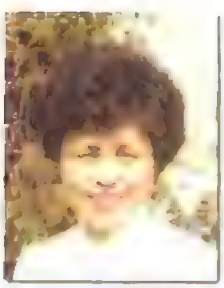

김재한


김정희


김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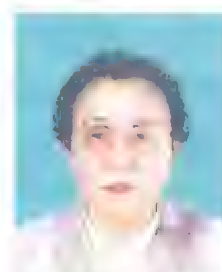

김창례


김춘혜


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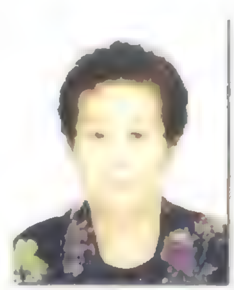

김혜연


남진교


노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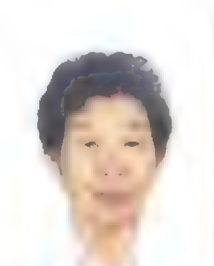

노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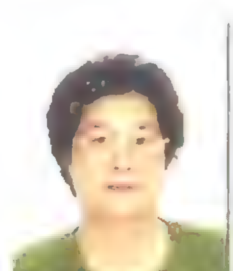

노홍복


마봉녀


문동숙


문순남


문유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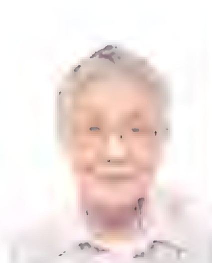

문은자


문태정

현재 권사


박경선


박금연


박논세


박덕희


박영자


박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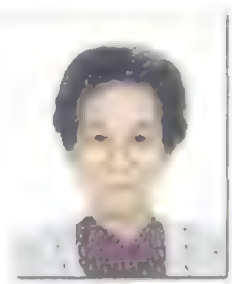

박옥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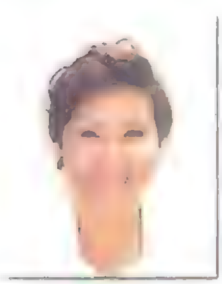

박유선


박은동


박임수


박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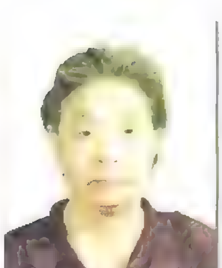

박희임


방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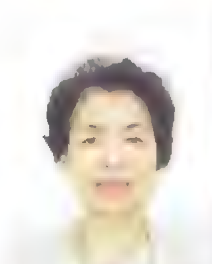

백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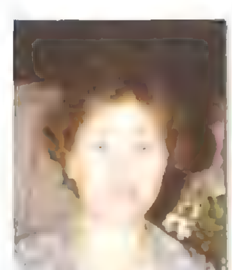

백미섭


백현님


서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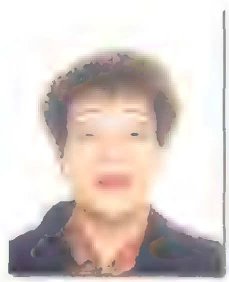

서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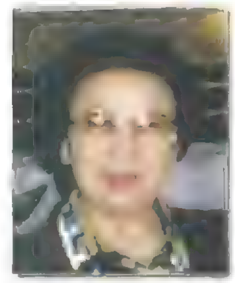

성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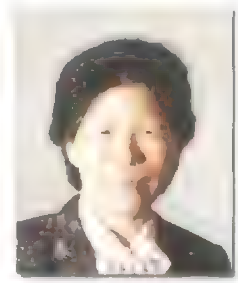

성병현

현재 권사


성 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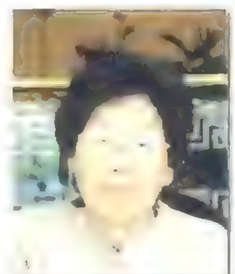

손 정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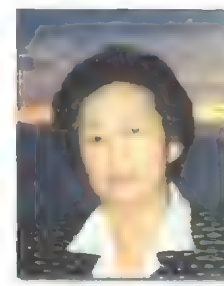

손 홍 심


송 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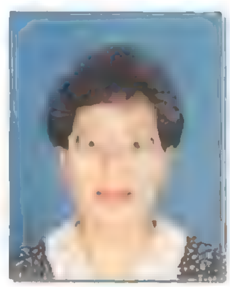

송 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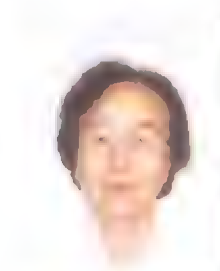

송 도 현


송 옥 희


송 용 점


송 의 자


송 정 숙


송 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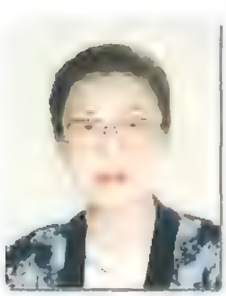

신 복 수


신 봉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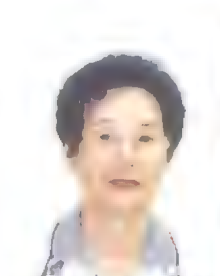

신 상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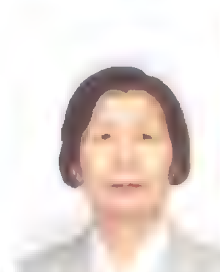

신 애 자


심 성 례


심 옥 선


안 종 순


양 승 열


양 은 숙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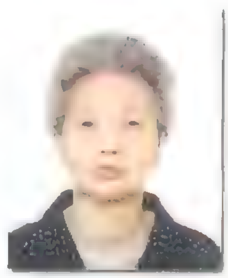

엄귀자


염혜경


오재순


원준옥


유근수


유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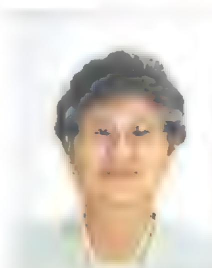

유정숙


유청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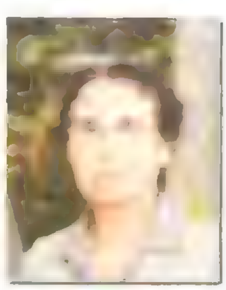

유현숙


윤경홍


윤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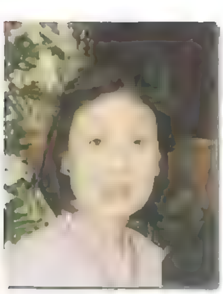

윤종순


윤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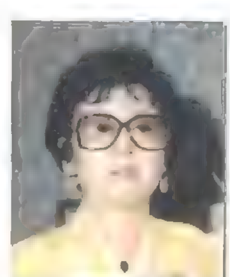

윤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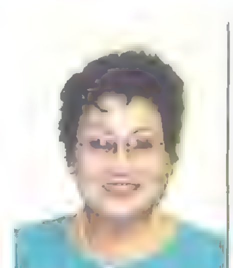

이경순


이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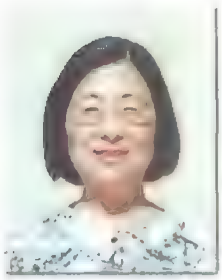

이경자


이광숙


이교봉


이귀임

현재 권사


이금자


이금헌


이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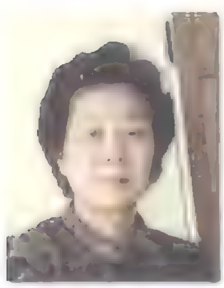

이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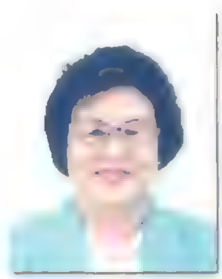

이덕희


이명순


이복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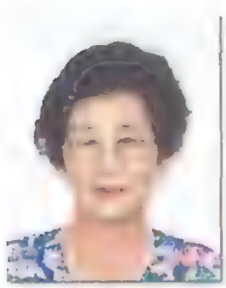

이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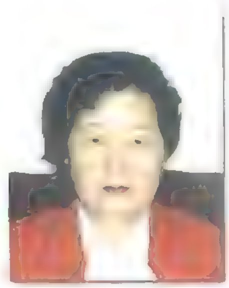

이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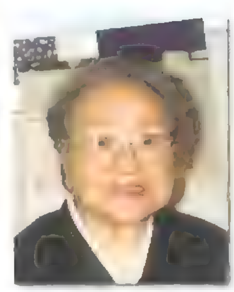

이송자


이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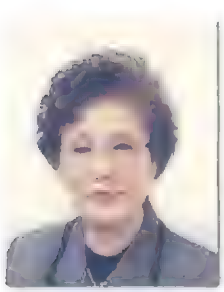

이영덕


이영숙


이영애


이옥엽


이용삼


이인숙


이재희


이정숙


이정순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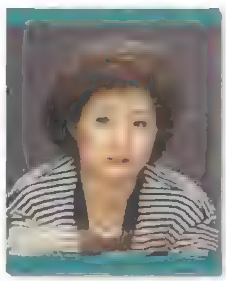

이정순


이정순


이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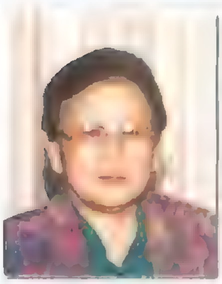

이청자


이향순


임경희


임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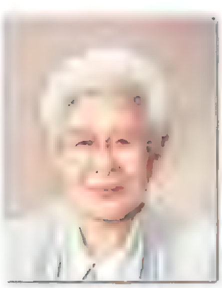

임옥분


임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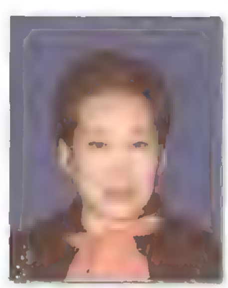

임은화


임정숙


임정자


장례옥


장선제


장세정


장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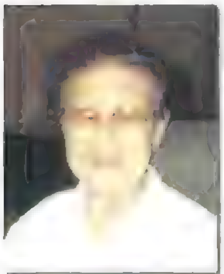

장정숙


장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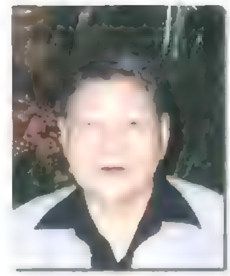

전순자


정경혜

현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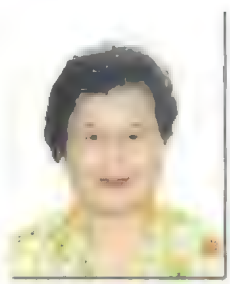

정득선


정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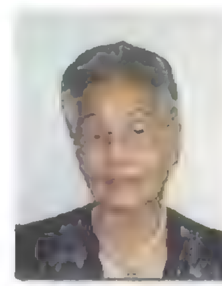

정순옥


정순자


정연숙


정혜숙


정효숙


조규경


조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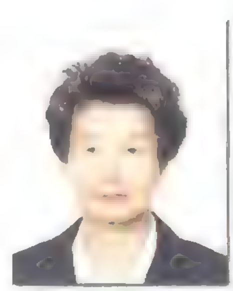

조명화


조명희


조민자


조순례


조순애


조순자


조옥녀


조정간


조지현


조춘희


조현희

현재 권사


주 보 배


주 화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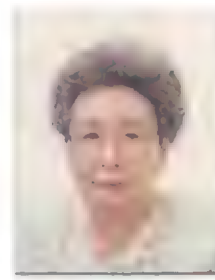

지 우 성


진 영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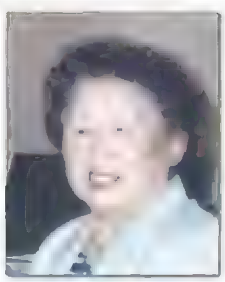

진 화 숙


채 은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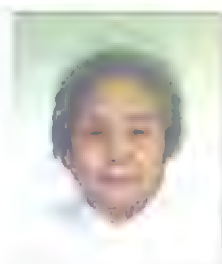

천 희 완


최 경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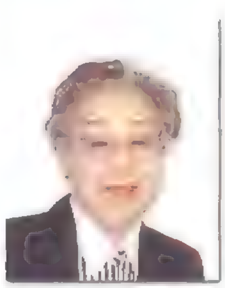

최 기 미 자


최 복 희


최 삼 중 자


최 성 자


최 영 숙


최 옥 현


최 용 숙


최 운 봉


최 정 분


하 애 도


한 계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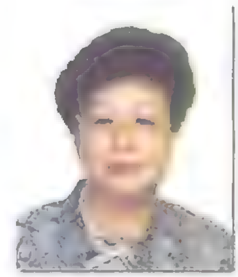

한 금 자

현재 권사


한복순


한안나


한영숙


한옥순


한정현


함규자


허순덕


홍기영


홍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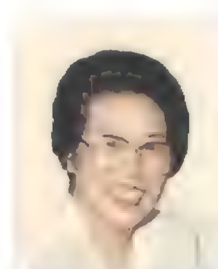

홍복순


홍미현


홍순옥


홍영숙


홍재은


홍정혜


황금수

(이상 가나다순)

지역교회(미주)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석태운목사

중부 동양선교교회





김진광목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이태종목사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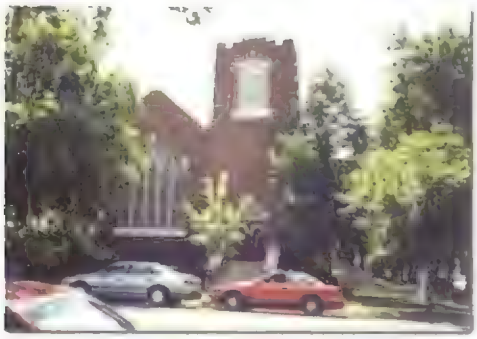




임병택목사

지역교회(미주)

로간 동양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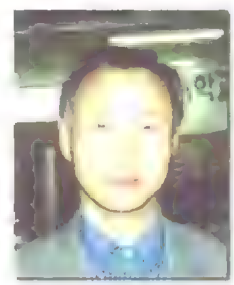




조항목목사

유타 동양선교교회





손주영목사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윤경호목사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이중용목사

지역교회(미주)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이승인목사

애나하임 동양선교교회





윤기성목사

뉴저지 동양선교교회





이승환목사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반만열목사

지역교회(남미)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브라질)





황은철목사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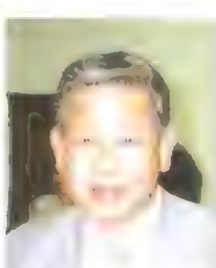




강두호목사

보고타 동양선교교회(콜롬비아)





김용식목사

리오 동양선교교회(브라질)





한인승목사

지역교회(남미, 카나다, 아프리카)

과야낄 동양선교교회(에콰돌)





김재선목사

알젠틴 동양선교교회





권오묵목사

포트 무디 동양선교교회(카나다)





김인수목사

아프리카 선교교회





이상훈목사

지역교회(유럽)

뷔츠부룩 한인교회(독일)





강성구목사

로마 한인교회





한평우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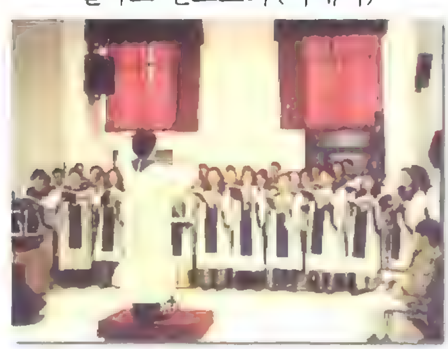
밀라노 한인교회(이태리)





최창범목사

밀라노 선교교회(이태리)





박상연목사

지역교회(러시아, 호주)

모스크바 동양선교교회





이인검목사



레일라목사

빠르티잔스크 동양선교교회





황성국목사

두란노선교교회(호주)





송기태목사

시드니 동양선교교회(호주)





최병길목사

선교사


조바나바


황등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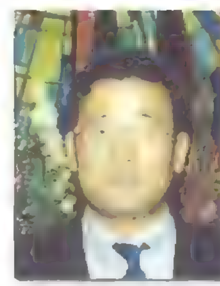

김주연


이아굴라


남윤희


이명수


이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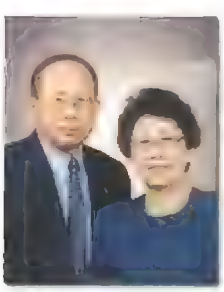

장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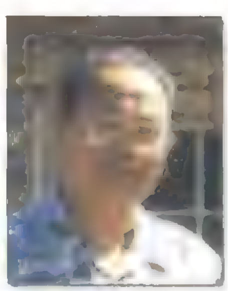

최영희


함상배


Ezra Sargunam


박서윤


백영두, 미섭


안맹호


홍성호, 현숙 선교사 가족


Harrison Yazzie


김재록

동양선교교회

제1장
인류 역사는 이민의 역사

- 꿈을 가진 이민자 이야기
- 이민은 문화 영토의 확장
-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첫 이민 길
- 인천 등 네 곳에서 7천여 노동자 모집
- 400여 기독교인이 하와이 이민에 함께
- 첫 이민자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도착
- 초기 하와이 한인 노동자의 삶과 꿈
- "교육이 바로 생명", 사진신부의 교육관
- 미주에서 35년간 독립운동
- 민족지도자와 애국의 한길 걸어
- 농장마다 한인교회부터 설립
- 선교사가 초기 LA 한인교회 설립 도와
- 1950년대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
- 하와이 이민 50주년 축하행사
- 개정 이민법 발효와 새 이민의 물결
-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 1970년대 이전의 한인 이민교회



꿈을 가진 이민자 이야기

인간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찾으면 이동을 했다. 비옥한 땅, 기후가 좋고 아름다운 곳, 안전한 지역을 삶의 최적지로 생각하면서 살았다. 원시시대부터 계절 따라 새 농경지를 찾아 나선 유목민들은 바로 이민시대를 열어간 선구자들이다.

점차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오갔고 특히 종교나 경제 그리고 개인적 자유와 능력을 맘껏 펴기 위해 미지의 새 천지를 찾는 삶의 이동을 계속해 왔다. 이민자에게는 낯선 자연과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이 따랐고, 떠나온 곳의 가족을 그리워 하면서 살아가야 했다. 그래서 이민사는 의지와 도전, 꿈을 가진 사람의 역사로 기술한다. 원시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이민역사는 인간역사와 한 맥락을 이룬다. 이민사와 인간역사는 같은 뿌리, 한줄기이다.

흉년과 기근, 나라를 잃어가는 통한속에 7천여명의 선구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이민을 떠났다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민(移民)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가난과 외침이 한 많은 유랑민(流浪民)을 만들어 냈고 눈물 속에 태(胎)를 묻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이방의 삶으로 이어져 나갔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전후, 백제인 3천1백여명은 망국의 설움과 실지 회복의 뜻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①] 그후 임진왜란으로 3만여명의 무고한 조선 백성이 강제로 일본 땅으로 붙잡혀 갔고 병자호란 때에도 수만의 왕실인사와 관리, 백성과 아녀자들까지 중국 땅으로 끌려간 슬픈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다.[②] 이조 말에도 북방 변경의 민초(民草)들이 흉년과 기근을 견디다 못해 만주와 연해주로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약 1백65만의 개척민들이 1869년 이후 가난과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중국 동북삼성(길림성 · 흑룡강성 · 요녕성)으로 삶의 터를 옮겨 뿌리를 내리며 살았다.

한국의 초기 이민사는 유민(流民) · 월경개척민(越境開拓民) · 유이민(流移民)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주로 가족 단위 이민이었고 조정(朝廷)이 모른 채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서양의 개화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882년 한미수교를 전후한 때였다. 열강들은 폐쇄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에 개방을 요구해 왔고 힘이 없던 조정은 준비 없이 서양에 문을 열면서 나라는 점차 기울어져 갔다.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이 세차게 밀어닥치는 20세기초 흉년과 기근, 나라를 잃어가는 통한 속에 7천여명의 선구자들이 새 천지, 새 날을 위해서 태평양 상의 낙원이라는 하와이 군도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이민을 떠났다.

1903년 1월13일은 한국 역사상 아메리카 합중국으로의 공식 이민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날이다. 하와이 노동이민부터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인은 오대양 육대주로 퍼져나가 살게 되었고, 한국인의 해외 이민 인구는 5백만에 이른다. 가난에서 시작된 한국이민은 가족이민, 전문직 이민으로 계속되었고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세계 속에서 그 꿈을 펴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한국은 세계 이민의 선진국이 되었다.

①현규환, 「한국유이민사」 하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6 4). p 98

②위의 책, p 311

이민은 문화 영토의 확장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민은 떠나는 나라(出國)와 받아 들이는 나라(入國)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민은 출입국의 구별로 보면 출이민(出移民: Emigration)과 입이민(入移民: Immigration)으로 표현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경우, 한국으로서는 이출민(移出民)이고, 미국으로서는 이입민(移入民)이 된다.

사회학자들은 이민을 물결(Wave)로 표현한다. 파도처럼 이민의 물결이 밀려 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온 유럽 이민자들은 몇 차례의 큰 물결을 이루며 정착을 했다.

이민의 원인은 시대와 때에 따라 다르다.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이민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항상 자녀교육을 우선시했다. 사회적, 종교적인 전쟁으로 인한 이유의 이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호보완 관계로 이민의 목적이 나타난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한국인의 세계 이민시대 문을 열어놓았다

이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이민은 이민족(異民族) 사회에 가서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것이다."
"자기가 묻힐 곳을 찾아서 태어난 땅을 떠나는 것이 이민이다."
"외래인(外來人)이 도래(渡來)하여 본래의 국적을 바꾸며 사는 것이 이민이다."
"이민은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한 형태이다."
"이민은 바로 문화 영토의 확장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는 100년후를 내다보고 씨를 뿌리는 농부이다."
"이민은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다. 이식수(移植樹)가 바로 이민자이다."
"이민은 농사와 같다. 1세가 씨 뿌리고, 2세가 가꾸고, 3세가 수확을 거둔다."

이민의 일반적인 추세는 못사는 나라(後進國)에서 잘사는 나라(先進國)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즉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안정된 나라로, 자연 환경이 나쁜 나라에서 환경이 좋은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것이다. 이민은 바로 기회이자 꿈을 찾아 떠나는 삶의 한 선택이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해보려는 하나의 도전이다.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100년전부터 한국인의 세계 이민 시대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첫 이민 길

미국땅 하와이는 자연이 아름답다. 상하의 낙원으로 불리며 파인애플 · 바나나 등 특산물이 풍부하다. 사탕수수는 야생으로 하와이 각 섬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제일의 수입원(收入源)이었다. 하와이가 처음으로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추출하기 시작한 것은 1802년이고, 돈을 벌기위해 농업으로 개발한 것은 1830년 이후이다.

하와이 정부는 1867년 미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와이 산물이 미국 본토에 면세로 통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탕농업이 크게 발전했고 하와이 경제의 으뜸이 되었다. 그런데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은 전적으로 외국에서 불러들인 인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1852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대량의 노동자를 수입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포르투갈, 일본에서 들여왔다. 하와이 정부는 1896년 11월 2일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문제를 토의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를 알아차리고 중국에서 선박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던 미국인 보드맨(G. E. Boardman)은 1898년 9월 29일 한국인 농업 노동자 700명을 모집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협회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한국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첫 시도였다.

1898년의 첫 한국인 하와이 농업노동자 모집 계획 그러나 실현은 안되고 해외 이민의 첫 시도로 기록될 뿐이다

그 당시 한국인 노동자를 하와이로 보내주는 조건으로는
- 1인당 여행경비를 50달러씩 주고
- 매월 12달러의 임금을 현지에서 주며
- 도착 후 병원비 등 일체의 경비는 농장주가 부담하고
- 숙소 및 식사를 마련 해주며
- 귀국 비용으로 임금에서 매달 2달러씩을 떼어 적금에 넣고
- 노동계약은 3년으로 하며
- 매월 26일씩 노동을 하며 하루 사탕수수 농장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초과 때에는 10센트를 더 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를 않았다.

인천 등 네 곳에서 7천여 노동자 모집

다시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가 데슐러(David Deshler)를 한국에 보내면서 하와이 이민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3] 고종황제가 하와이 노동이민을 허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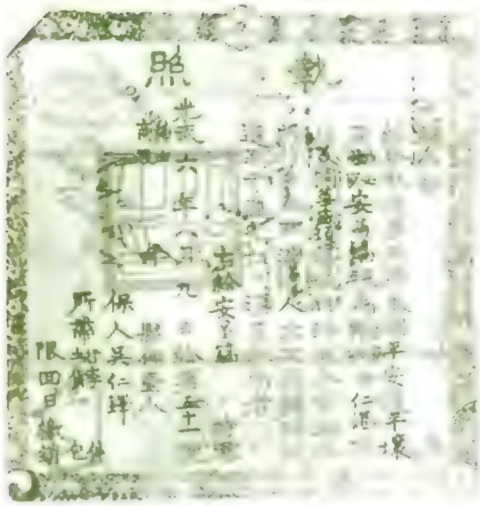
첫째는 한국내의 사정 때문이었다.

그 당시는 은둔과 폐쇄정책으로 한국인이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때였다. 그러나 1901년 겨울, 심한 기근을 겪은 조정은 백성이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많은 쌀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조정

③Seong Hyong Lee, Tae Hwan Kwak, 「Koreans in North America」, (Seoul, Kyung Nam Univ. Press, 1988), p.18

의 관리는 이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고종황제는 중국인만이 미국 땅에 이민을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조선백성이 잘사는 나라 미국에 갈 수 있다는데 상당히 고무되었고 기뻐했다.



도산 안창호가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 가지고 온 집조, 오늘의 여권이다.

고종황제는 하와이로 갈 이민업무를 담당할 직제인 수민원(綏民院) 설치를 허락했다. 최초 한국의 이민기구였던 수민원 설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있다.[4]

"한국정부는 1902년 11월 6일에 수민원 관제를 반포하고 민영환(閔泳煥)을 총재에 임명했으니 이는 외국 이주민에 관계되는 사무를 관리하기 위함이요, 수민원이라는 의미는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관부(官府)라 함이니 당시에 황해도 일대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이산(移散)하고 구체적인 구조 방침이 없어서 적당한 생활의 방도를 지도하기 위하여 외국 이주를 권장하게 되었는데 최초에는 이주민 여행권도 수민원에서 발급했다."

이민 모집은 미국인이 설립한 동서개발회사(East West Development Company)라는 이민 알선 대행업체가 맡았고 여권인 집조(執照) 발행은 수민원이 전담하는 등 하와이 이민은 2원화 구조속에 이루어졌다. 이 당시 동서개발회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서울, 부산, 원산 등지의 항구도시에 지사 형식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하와이 이민 모집에 나섰다.[5] 당시 이민 선전 및 노동자 모집광고는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하와이 이민모집에 나선 동서개발회사 인천,서울,부산, 원산 등지서 노동자를 모집했다

· 하와이 군도(群島)로 일신이나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살기를 원하는 자
· 기후가 온화하고
· 학교에서 영문을 가르치고
· 농부가 아무 때나 직업 얻기가 편리하고
· 월급은 미국 돈으로 15달러
· 집과 식수, 치료는 주인이 부담함.

400여 기독교인이 하와이 이민에 함께

수민원과 동서개발회사가 합동으로 내건 이민공고문의 내용을 본 백성들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 기후가 좋고, 일거리가 있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좋은 조건을 내세웠지만 외국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 백성들로서는 하와이 이민을 결단하기가 어려웠다. 오랫동안 유교사상에 젖은 백성들은 조상이 묻힌 고향을 등지고 떠나간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불효라고 생각을 했다.

④노재연 「在美韓人史略」상권, (미국 나성 아메리카인 새호사, 1951.10) p.1

⑤김규환 「한국유이민사」 하,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6.4), pp.793-799

그 당시 이민의 설득에 나선 이가 바로 인천 내리(內里)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존스(George H. Jones 趙元時, 1867~1919)선교사였다. 존스목사는 감리교의 첫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한국에 온지 3년이 되는 1888년 한국에 와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한 문서사업을 전개한 선교사였다. 그는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인천지방 선교사업을 책임지고 내리감리교회의 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다.⑥ 존스목사는 교인 가운데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슐러의 동서개발회사에 가서 일하게 했고, 또한 교인들을 설득하여 하와이에 개척이민의 길을 떠나도록 권고했다. 그는 "교인으로서 하와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각지에서 응모한 이들 중 121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1902년 12월 22일 미지의 땅 하와이를 향해서 첫 이민선이 떠났다. 첫 이민자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민영환총재 등 수민원 관리들이 제물포 항구에 나왔다.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은 고향을 등지는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친척들과 기약없는 작별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첫 이민선이 떠나는 날, 12월 22일은 음력으로 동짓달 스므나흘, 제물포 부두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서 가뜩이나 긴장되고 서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제 1진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부두노동자 그리고 농민들로 수민원에서 발행한 오늘의 여권과 같은 집조(執照)를 손에 쥐고 떠났다.

인천 내리감리교회 존스 담임목사 한인의 하와이 이민을 주선한 선교사였다 "교인으로서 하와이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득했다

이민자들은 일본 나가사끼에 도착, 첫 신체검사를 받았고 14여명이 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107명이 통역원과 함께 미국상선 S.S. Gaelic호로 갈아타고 호놀룰루까지 20여일에 이르는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긴 항해 길에 올랐다.⑦

첫 이민자 102명이 1903년 1월 13일 도착

첫 이민선인 S. S. Gaelic호가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닻을 내린 것은 1903년 1월13일 아침. 여기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와이 보건당국은 정밀검사를 해서 눈병을 앓고 있는 5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결국 선실에 남아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처음 출발은 121명이었으나 하와이 땅을 밟은 이민자는 102명이었다. 이민모집 회사가 이처럼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한 이유는 사탕수수농장 노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를 이겨 낼만한 체력을 가진 노동자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기 전 단발을 한 이들이었고 상투를 그대로 틀고 도착한 이들도 있었는데 상투를 자르지 않고 간 이들은 돈만 벌면 즉시 귀국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역이민을 생각하고 떠난 이들도 있었다.

첫배로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오아후섬 와일루아농장 목골리아 동네에 가서 사탕수수 재배 등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1903년에는 모두 16차례의 선편에 1,133명의 이민자가 도

⑥Bong Youn Choy, 「Koreans in America」. (Nelson-Hall Chicago 1979), pp 98 99

⑦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미국 리들리, 김호, 1959 3) p 6

착했고, 1904년에는 33차례의 선편에 3,434명, 그리고 1905년 7월 초까지 16차례의 이민선에 2,659명이 새 땅에 닿았다. 3년에 걸쳐 7,226명의 이름없는 선구자들이 꿈의 나라 하와이에 도착했고, 제2의 고향을 만들어 가면서 기약없는 이국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 후 한국인의 하와이 노동이민은 중단되었다.


한국인 첫 이민자를 태운 첫 이민선 S.S. Gaelic 호가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항에 닿았다.

1903년~1905년 한국인의 하와이 노동이민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

첫째는 한국 역사상 첫 미국으로의 공식이민이었다는 점이다. 과거 역사속의 유이민(流移民)은 북만주 등으로 떠난 개인적인 삶의 이동이었지만 하와이 이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집단이민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와이 이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서민층이 서구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첫 이민자는 노동을 이겨낼 만한 체력 조건을 필요로 해서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받았다

셋째는 초기이민을 주선한 이가 선교사이고, 기독교인 특히 감리교인이 하와이 이민에 적극 참여를 했다.

넷째는 한국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하와이는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하와이 첫 노동이민을 시작으로 일제시대에는 전쟁노무자로, 1960년대는 서독 간호사와 탄광 노무자, 남미이민 그리고 1970년 중동노무자 등으로 대규모 한국인의 해외 인력송출 시대가 열렸다.

1903년 하와이로 가는 1만리 뱃길의 첫 한국 이민선이 울렸던 고동소리는 그후 한국인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새 이민시대를 알리는 출발의 신호가 되었다.

초기 하와이 한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하와이에 도착한 초기이민자들은 뜨거운 여름 사탕수수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밤이면 농막에 들어가 밤을 지샜다. 너무 심한 일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이 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일부 노동자는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일터를 떠나 방황하며 타락한 생활을 했다.[8]

매일 10시간씩 농장일을 하고 하루 임금은 69센트를 받았다. 노예와 같은 힘든 생활이었다. 하와이 노동이민은 처음 일정한 계약에 얽매여 있었지만 어느정도 자유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한국인 노동자의 문제들이 커지자, 급기야는 사탕수수

⑧현규환, 「한국유이민사」 하,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6.4), p.815

농장주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했다. 특히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노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노총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남자들끼리 밥이나 해먹고 무료한 생활 때문에 자연히 술과 노름에 빠져들게 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고심을 하다가 한국 노총각들을 결혼시켜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갖도록 하는데에 착안했다.

떠나온 고향, 한국의 여자들을 초청해서 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사진을 교환하면서 처녀 총각이 선을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진결혼제도와 사진신부(Picture Bride)가 생겨나게 되었다.[9]

1905년 하와이 이민이 중단된 후에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사진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하와이 한인사회의 안정은 물론 2세, 3세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사진결혼으로 미국에 온 한국의 처녀들은 신랑보다 비교적 유식했다. 사진신부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자녀교육에 모든 삶을 다 바쳤다. 이때 약 950명의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 왔다.

"교육이 바로 생명", 사진신부의 교육관

"교육이 바로 생명이다" 사진신부들은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사진신부들은 바로 "교육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믿으며 살았다. 이들의 교육열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온 한인2세, 3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자랑스럽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 하와이 사진신부의 후손 중에서 자랑스런 코리언 아메리칸으로는 하와이주 대법원장인 문대양판사 (미국이름 Ronald Moon), 그리고 미국연방정부의 선물교역위원장을 역임한 웬디리박사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사위원장 알프레 송변호사, 올림픽에서 2차례 금메달을 받은 새미리 박사(이비인후과 의사) 등으로 모두 사진결혼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잘 받은 후손들이다.

한숨과 눈물에 젖은 노동생활이 계속되었지만 뜻있는 지도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초기 단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노동이민자중 지도적 인물들은 앞장을 서서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생활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첫째는 자치적인 회(會)를 조직해 나갔다. 동회의 목적은 근심과 고난을 서로 돕고 서로 잘 살기를 다짐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정치적인 사회단체의 조직이었다. 지도자들은 하와이에 이민온 동포들의 지식을 개발하고, 한인공동산업에 힘쓰며 더 나아가서 조국의 정치쇄신을 목표로 단체를 만들었다.

셋째는 교회운동이었다. 기독교운동을 통하여 동포들의 정신적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⑨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미국 리들리, 김호, 1959.3), p.28



1915년 한인여자학원의 학생들, 이승만박사는 한인여자학원을 한인여자 성경학원으로 바꾸고 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한인 기독학원의 전신이다.

또다른 이민자는 묵국이라는 멕시코 애니깽농장으로 이민선을 타고 떠났다

인간회복을 도모하려 했다. 외로움과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도록 인도했다.

하와이 노동이민자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를 하기 시작한 1905년, 또다른 한국의 백성들은 이민 알선업자에 속아서 멕시코 유카탄반도로 노예이민을 떠났다. 그들은 한많은 세월속에 남미 어느 하늘아래서 고국에 대한 원망과 눈물로 삶을 마쳐야 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이다.

한국에서 멕시코 이민 노동자를 모집한 것은 하와이 이민 보다 2년 늦은 1904년 12월이었다. 그 당시 우매한 백성들은 하와이와 멕시코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만 알고 이민 응모를 했다. 한국인의 멕시코 이민은 존 마이어스라는 영국인과 대정관일(大庭貫一)이라는 일본인의 합작으로 1회성 사기극을 벌여 무지한 백성을 모집해서 멕시코로 보냈다.[10] 7차례의 이민 광고를 본 조선백성 1,033명은 1905년 4월4일 그 당시 묵국(墨國)이라고 부르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애니깽(선인장의 일종) 농장으로 이민선을 타고 떠났다. 이들은 혹독한 4년의 노예 이민 계약이 끝나고서야 자유인이 되었고 멕시코시와 티화나 등지로 이주를 할 수 있었다. 1921년에는 또다시 멕시코에서 살던 2백여 노동자들이 정처없이 쿠바로 흘러 들어갔다. 멕시코보다 쿠바가 살기 좋을 것이라고 믿고 무작정 떠난 이민자였다.

이렇게 해서 7,226명이 하와이로 이민(1903~1905)을 떠났고, 1,033명은 멕시코(1905) 로 노예 이민선을 탔다. 그리고 다시 쿠바까지 흘러 들어갔다. 하와이 및 미주, 멕시코, 쿠바의 초기 이민후예는 오늘 이민 5세대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⑩현규환. 「한국유이민사」 하.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6 11), pp.817-818

미주에서 35년간 독립운동

구한말, 뜻을 세운 민족의 지도자들이 새 문물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속속 도착을 했다. 특히 나라를 빼앗긴 1910년 후에는 정치적 망명과 독립을 위해서 미국을 찾는 선구자들이 늘어났다. 유학 및 망명의 초기 인물로는 도산 안창호(1902년 미국 도착), 우남 이승만(1904년) 그리고 우성 박용만(1904년)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 보다 앞서 1885년에는 용재 서재필이 미국으로 건너 왔다. 비록 몸만은 이역만리 미주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민족의 큰 지도자들은 자나깨나 조국의 독립을 향한 마음뿐이었다.

하와이 및 미주동포들은 이승만의 외교노선, 박용만의 군사노선, 안창호의 민족계몽운동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11] 특히 애국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 등에 지원하는 일에 너나없이 참여를 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국에 온 초기 노동자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민족의 지도자를 지원하고 애국금을 모으는 일을 하며 살았다.

초기 이민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든 이는 바로 장인환 전명운의사였다. 두 애국지사는 1908년 3월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외교 고문인 미국인 더함 스티븐스(Durham Stevens)를 저격했는데 이로부터 미주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3•1운동을 전후해서 한인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더욱 불타 올랐는데 이 시기에는 특별히 군사활동이 활발했다.

독립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독립기금을 모으는데 열심이었던 미국내 초기 이민자들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한말로 말하면 단체조직 및 재정적인 지원이었다. 3•1만세사건 후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 출처는 바로 미주 동포들이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독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갔다. 독립기금으로는 기독교의 십일조를 따른 이십일조 예금(수익의 5%를 냄)과 애국금, 혈성금, 국민부담금으로 불렀고 노동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정액수를 냈다. 이 독립기금은 주로 원동(遠東)과 구미 각지의 외교활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지와 군사운동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보내졌고 해방이 될 때까지 미주에서 약 300만달러가 모금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2]

한편 초기 이민의 어머니인 한인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다. 초기 여성들은 1919년 3•1운동 소식이 전해진 후 하와이와 본토에서 여성단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남자들처럼 독립기금을 모으는 일에 나섰다. 한인부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고기먹지 않는 날, 일본인들이 만들어 파는 간장 먹지 않는 날로 정하고 근검절약하면서 독립운동 후원금을 모았다. 하와이 부인구제회가 애국사업에 바친 후원금이 20만달러를 넘었고, 로스앤젤레스의 대한여자애국단도 4만 6천달러를 보낸 기록이 나와 있다.

미주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많이 나온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여 고국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며, 독립의연금을 모으는 일에 솔선수범하였다. 또한 각

⑪유정식,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988 8), p 32

⑫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미국 리들리, 김호, 1959.3), p 8

지방마다 독립을 위한 민족행사를 거행했는데 이때에는 순서 중에 "빨리 나라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와 연설과 만세삼창이 꼭 들어가 있었다.

3·1운동 소식이 전해진뒤 미주내 동포들은 아침6시, 정오, 저녁 7시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3·1운동 소식이 전해진뒤 교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각 교회로 보내면서 독립운동을 격려했다.

> "우리동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되 매일 세번씩 아침 6시, 정오, 저녁 7시에 각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30분 이상씩 기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은 독립운동에 희생된 동포,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동포, 우리 운동에 힘쓰는 동포,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옵소서."[13]

북미한인교회 공의회
회장 민찬호
서기 한승곤

민족지도자와 애국의 한길 걸어

미주에서 독립운동 시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눈다.

첫 시기는 1905~1910년이다. 이때 초기 이민자들은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애국단체를 만들면서 항일의 의지를 모았다. 나라를 잃은 분노를 잉태한 이 시기에 발생한 애국적인 첫 사건이 바로 장인환 전명운의사의 스티븐스 저격이다. 1908년 3월 23일에 장인환 전명운 두 의사가 미국 외교고문 더함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조선합방은 정당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컸다.

무엇보다 미주 내 첫 항일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중근의사가 1909년 10월26일 하르빈에서 이등박문을 저격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멕시코 이민사회는 물론 전 미주에서 8,390달러의 변호비를 모아 애국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는 애국금 모금을 통한 첫 독립운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것이 큰 성과였다.

두번째 시기는 1910년대로서 대한인국민회(1909년 2월10일)·흥사단(1913년 5월13일) 대한여자애국단(1919년 8월5일)이 창단되었고, 1919년 3월 15일 미주·하와이·멕시코 등의 재류동포가 전체회의를 열고 독립운동 방침을 결정했다. 1919년 4월14일 필라델피아에서는 서재필박사 이승만박사 등이 한인자유대회를 열었다.

세번째 시기는 1920년대로 독립의지가 다른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이승만박사는 동지회(1921년 7월)를 창립했고, 도산 안창호는 1926년 독립운동을 위해 원동으로 떠났는데 이 길이

⑬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 (미국: 유일인쇄. 1976 11), p.33

미주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네번째 시기는 1930년대로서 이승만박사의 구미외교부 활동이 미약하지만 체계화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교를 통한 독립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독립운동을 편 시기이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2차대전이 일어나면서 해외한족대회가 1941년 4월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1세들은 OSS 침투훈련에 참가했고 2세들은 직접 미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미주초기 이민사회의 독립운동은 지역별로 활기를 띠었다. 이승만박사의 활동무대는 초기이민의 1번지인 하와이와 워싱턴 DC 였고, 도산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박용만은 네브라스카와 하와이, 그리고 서재필박사는 필라델피아를 떠나지 않았다.

한국정부 학계는 미주지역의 초기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역사적 사실 정리, 애국지사 포상을 해오고 있다

미주지역에서 독립기금 모금은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외교 및 정치적인 독립운동은 워싱턴에서 꽃을 피웠다. 35년간 계속된 독립운동 중 초기이민사회에서는 민족의 큰 지도자 역할이 눈부셨고 초기 동포들은 광복 일념으로 어떠한 고생이라도 마다 않고 참여를 했다. 해방으로부터 오늘까지 한국정부나 학계는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역사적 사실 정리와 애국지사 포상 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농장마다 한인교회부터 설립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몇 년간 땀 흘려 일하던 초기 이민자 중에는 더 큰 꿈을 펴기 위해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초기 유학생들도 계속 들어왔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는 1905년 이후 하와이 다음으로 초기이민자들이 새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낯선 미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초기 이민자에게 떠나온 고국으로 부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 왔다. 일제가 1910년 한일합방을 하고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는 뉴스였다. 나라없는 백성이 된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은 이제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다. 망국의 슬픔은 신앙생활을 열심이 하는 배경이 되었고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나갔다.

하와이 노동이민은 한국기독교인의 큰 이동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민생활의 중심역할을 맡았다. 처음 사탕수수 농장이민을 설득한 이가 바로 미국인 존스목사였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이다.[13] 노동 이민자 중에는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만도 50여명이나 되었고, 인솔자는 바로 동서개발회사의 총무일을 보던 장경화전도사였으며 통역은 안정수권사가 맡았다. 거기에 또한 내리감리교회가 선교의 목적으로 파송한 홍승하전도사가 하와이 이민대열에 동행을 했다. 이민온 동포 중 기독교인이 약 400여명에 달했고, 그중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사가 30여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이민이 자리잡은 농장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며 동포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

⑬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미국 리들리 김호, 1959.3). p.40



1905년 4월 30일 하와이 농장에 건립된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는 김영식목사였다

한인교회 설립은 하와이 초기이민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민사회에 끼친 공헌은 참으로 컸다

배당과 학교설립에 힘썼다.

한인교회 설립은 하와이 초기이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이민사회에 끼친 공헌은 참으로 컸다. 첫 한인 예배처소는 1903년 7월4일에 마련되었다.[⑮] 하와이 목골리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김이제전도사 인도로 첫 예배를 드렸고 이 해 11월 10일에는 호놀룰루에서 홍승하목사가 전도회를 조직했다. 이로부터 재미한인 사회의 토대는 예수의 정신위에 세워졌고, 사회단체와 교회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한인 목회자가 초기 사회단체의 회장을 겸임하기도 하고 단체장이 설교를 맡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리고 단체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예배처소에서 독립을 위한 집회를 하는 것이 초기 이민사회의 한 모습이 되었다.

에바농장 지역에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한인교회를 세웠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처럼 초기노동자들도 이민 도착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제 2의 청교도처럼 신앙의 길을 걸었다.

> "1905년 4월30일 오아후섬 에바농장에서 한인 예배당 헌당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호놀룰루에서 워드만(John W. Wadman)목사가 와서 순서를 지휘했고 윤병구목사는 농장주 George F. Ritten씨가 성의껏 찬조한 것을 감사하였으며 당일에 참석한 인원이 110인이요, 이는 오아후섬에서 최초로 건축한 한인 예배당이더라."[⑯]

1905년 12월 28일 호놀룰루 미국인 감리교회당에서 해밀턴 감독 주재로 제1회 감리교회연

⑮노재연, 「在美韓人史略」상권,(미국 나성: 아메리카인 쇄회사, 1951 10), p 28~29

⑯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미국 리들리, 김호, 1959.3), pp 63~65

회가 열렸다. 2개월간의 회무를 처리했고 한인교회의 각지방 목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 받은 목회자들은 모두가 한인 교계의 지도자이자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

▲ 호놀룰루: 민찬호목사
▲ 와이파후: 김이제목사
▲ 스프렉 클스빌: 신판석목사
▲ 엘리엘리 골로아: 이경식목사
▲ 교회 월보 주필: 윤병구목사
▲ 야학교 및 복음회 감찰: 이지성목사[17]
▲ 에바: 김영식목사
▲ 와일루아 가후쿠: 임정수목사
▲ 리휘 하나말루: 현순목사
▲ 힐로 올라: 홍치범목사
▲ 동 발행인: 송헌주목사

선교사가 초기 LA 한인교회 설립 도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은퇴, 미국에 온 셔만(Sherman)부인의 주선으로 처음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셔만부인은 1904년 3월11일 남가주감리교회 선교부의 보조를 받아서 매그놀리아 스트릿에 미션(Mission)을 설립했다. 초기 한인들을 기숙시키며 밤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LA한인연합감리교회 설립이다. 이 교회에는 당시 남가주대학에서 공부하던 신흥우가 전도사로 봉사를 했다.

초기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예수교인이었다 1900년대초 한인 이민사회는 신앙으로 시작되었다

1906년 5월10일 장로교 노회 선교부에서 리처드 목사를 파송하여 한인장로교 미션을 설립했는데 LA한인연합장로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초기 이민교회를 세운지 처음 10년이 지난 1915년경에는 하와이에 한인 예배당이 39개로 늘어났고 교인은 2,800여명이나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각 지방에도 한인예배당 7곳에 교인은 452명이나 되었다. 이민자들의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입교하지 않은 동포들도 사회 흐름에 따라 교회사역에 협력했다. 특히 자녀들을 예배당에 보내어 기독교 수양을 받도록 했는데 이때를 초기 한인교회 설립의 전성시대로 보고있다. 예배당마다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2세를 교육하면서 부모의 나라 한국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다.

1907년 하와이 감리교회 연보에 감리사 워드만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18]

> "하와이로 온 모든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족속이다. 다른 동양인들은 그들의 재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며, 따라서 그들의 사제들이 뒤를 따라 입국하여 불당이나 신사들을 세운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민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재래종교

⑰유동식.「하와이의 한인과 교회」.(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1988 8), p 33

⑱유동식.「하와이의 한인과 교회」.(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1988.8), p.253

에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이민자들은 재래 종교에 매여있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 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눈길 끄는 감리교 보고서

점차 늘어가는 초기 한인교회들은 초기 이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첫째로는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교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는 신자나 비신자나 가리지 않고 교회를 찾았다. 교회에서 만나 서로 한주간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며 살았다. 교회는 이들을 보살펴 주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신앙의 샘터가 되었다.

둘째는 민족의 큰 지도자인 서재필,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기 이민자들이 애국지사를 따르는 일은 바로 신앙생활이자 독립운동이 되었다.

셋째는 교회는 바로 초기이민사회의 배움의 터였다. 교회학교는 고전무용과 한국어 교육 등 2세 교육에 힘썼다.

특이한 것은 7천여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노동자들로 왔지만 한국의 전통종교인 불교 사찰은 한곳에도 세워지지 않았다. 예배당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어려운 초기이민 생활을 이겨 냈음을 알 수가 있다.

1950년대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

1945년 8월15일,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땅에서 민족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떠나온 조국이 일제 36년의 질곡에서 벗어났고, 한국이 독립국가로 새롭게 태어났다. 2차대전 동안 미주에 사는 초기이민 1세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적극 미국을 지원하면서, 한국이 독립되기를 자나깨나 기원했다. 또한 초기이민 2세들은 직접 미군에 입대, 유럽 전선으로 나가서 태어난 나라 아메리카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다.

미국에서 40년간 독립운동의 외길을 걷던 이승만박사는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0월16일 귀국했고,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지도자로 구성된 재미한족대표단이 신생 독립국가 건설을 자문해 주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 자유와 민주국가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대한민국은 1949년 1월1일 미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다. 초대 주미대사 장면박사는 1949년 3월25일 워싱턴에 부임했고, 그리고 존 무초대사는 1949년 4월29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서울에 닿았다.

비록 분단된채 독립을 한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미국을 동반자 관계를 넘은 혈맹관계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갔다.

1945년 이후 재미 한인 인구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 당시 70%에 해당하는 7천여명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고, 3천여명이 로스앤젤레스 · 샌프란시스코 · 뉴욕 · 시카고 등지에 소수그룹으로 분산되어 살았다. 1만명의 동포 중 약 반수는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초기 사탕수수

농장 출신의 2, 3세들이었으며, 타민족과 결혼하는 2세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났다. 1950년부터 1964년 사이 한인수는 다시 15,049명으로 늘어났는데 공식적 이민 · 혼혈아 및 전쟁고아 입양 · 유학생 · 국제결혼 등이 새 이민의 그룹을 형성해 나갔다.[19] 미주 한인사회가 커지면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2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하와이에는 공직에 진출하는 2세들이 많아졌다.

해방이후 재미 한인수가 처음 1만명 넘었고 광복의 기쁨도 잠깐 6 · 25의 비극으로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야했다

한국은 비록 분단된채 독립을 했지만 미주 동포들은 나라있는 민족의 후예로서 떳떳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지원했다. 광복의 기쁨이 채가시기전에 재미 한인사회는 민족의 비극 6 • 25를 미국땅에서 보면서 이민자들은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동족상잔으로 인한 민족 최대 비극에 동포들은 직접 구호의 손길을 펴서 한국돕기운동에 나섰다. 한편 초기이민 2세들은 1950년 미군으로 한국전쟁에 나가 부모의 나라를 지켰고 그중 몇명은 목숨을 잃었다. 초기 2세 김영옥대령은 유럽전투와 한국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950년대 후반 미주 한인사회는 다시 안정속에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새 그룹과 함께 지역분산과 인구 증가 추세를 꾸준히 나타내면서 발전해 나갔다.

하와이 이민 50주년 축하행사

1950년대 후반 미주 한인사회 구성은 초기 이민자 및 그 후손, 한국동란 후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부인 및 입양아 · 유학생이 주축을 이루었다. 새 이민자들은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교회에 열심이었고 인종차별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힘쓰며 그 뿌리를 착실히 내려갔다. 1950년대 미주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민의 4대 그룹은 다음과 같다.

1903~1905년 대한제국의 여권인 집조를 가지고 노동자로 하와이에 이민 온 1세 및 그 후손, 주로 하와이와 서부지역에 살았다.

1905~1945년 상해에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망명 온 1세 및 후손, 사진신부 950명 그리고 일본 여권을 가지고 온 목사 및 신도학생 9백여명, 사업가 1세 및 그 후손들.

1945~1952년 미군정청에서 일하다가 미정부 고용원으로 온 사람과 대한민국 유학생.

1952~1965년 미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100명의 이민쿼터를 할당함으로 이민 온 1세 및 자녀, 미국인과 결혼한 전쟁부인 및 혼혈자손, 유학 온 1세 및 후손들.

이때부터 초기이민(First Wave) 그룹과 해방 후 도착한 그룹(Second Wave)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시대별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하와이 초기 노동이민은 반세기를 맞았다.

1953년 11월 15일부터 일주일동안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호놀룰루에서 거행되었고, 함태영 부통령이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해서 초기 이민자의 뜻을 더욱 기렸다. 함태영 부통령은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달래 주었고 그리고 독립운동 및 한국전쟁 구호품 전달의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했다.[20]

⑲현규환, 「韓國流移民史」 下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6 11), p 898

⑳노재연, 「在美韓人史略」 下.(미국 나성: 아메리카인쇄소사, 1963 5), p 93

1950년대 하와이 및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특징은 새 이민으로 계속되는 인구 증가 추세와 새 학문을 배우고, 주류사회에 진출해서 한국인의 이름을 빛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찾아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의 새 흐름(New Wave)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개정 이민법 발효와 새 이민의 물결

아메리칸 드림을 찾는 한국인들이 미국이민의 새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965년 10월3일, 존슨대통령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역사적인 새 이민법에 서명했다. 케네디대통령이 제안하고 존슨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바로 이 개정 이민법(The 1965 Amendments)이 한국인의 미국으로의 가족 이민시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아일랜드계의 캐톨릭 신자였던 케네디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과거 미국 이민법에 차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역사적인 수정작업에 나섰고 이를 이루어 냈다. 개정 이민법은 케네디 이민법 또는 하트 셀라법(Hart Celler Act)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법의 특징은 종전의 국가별, 인종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와 직업, 기술에 의하여 이민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21]

한국인이 미국을 향한 대량 이민의 새 분수령이 된 개정 이민법 때문에 매년 2만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가 있었고 한국사회에서 미국 이민이라는 새 사회풍조를 만들어 냈다.

개정 이민법의 발효전에는 1952년에 제정된 월터 맥케랜 이민법이 있었지만 이 법은 국가별 원천에 기준을 둔 할당제도로 서반구에는 이민의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22]

1965년의 새 이민 및 개정 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 Amendments)은 일곱가지 항목의 우선 순위제(New Seven Category Preference System)가 특징을 이룬다. 각 우선 순위는 친족관계를 재결합하도록 했고 그 비율은 각 항마다 해당자의 신청 순위와 특수재능 혹은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허락한 것이다. 개정 이민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용하게 된 것은 3년후인 1968년부터였다. 이때부터 미국에 이민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 이민자가 몰려왔다. 한국인이 이 당시 미국으로 이민 온 뜻은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교육 그리고 정치적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더욱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 법으로 가족이민이 전성을 이루면서 1970년대 중반기 이후에는 매년 한국인이 3만명 이상씩 미국에 들어왔다. 이들 모두는 한국과 미국의 법적인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에 들어온 한국인의 이민자수는 모두 472,492명이다.

㉑이광규, 「재미한국인」, (서울, 일조각, 1989 2), p 53

㉒노재연, 「在美韓人史略」 下,(미국 나성, 아메리카인쇄회사, 1963.5), p.83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황금의 땅 캘리포니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상업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예로부터 동서양의 만남이 많은 도시이다. 그리고 태평양시대를 활짝 꽃피워 갈수있는 미래형 도시이자 서부의 관문이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의 발효로 연 2만명 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새 물결을 이루며 미국에 도착했고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바로 로스앤젤레스였다.
태평양 바다를 그림처럼 선을 그으며 이루어진 로스앤젤레스는 한국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몇가지 지정학적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새 이민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자자손손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다. 그래서 지도에 없는 또 하나의 한국이 1970년초 부터 새 이민자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 이민자들은 천사의 도시를 마치 21세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복지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맘껏 펴나갈 축복받은 땅으로 생각했다.

한국인의 이민폭발 기폭제가 된 개정 이민법 연간 수만명이 이민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정착을 시작한 동포들의 얼굴 및 그룹 또한 다양한 모습이다. 1970년 전후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의 첫 보따리를 푼 한국인들의 그룹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번째 그룹은 1950년대나 1960년대에 유학온 유학생 출신들이다. 이들은 미국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영주권을 받은 뒤 자연스럽게 이민자가 된 이들로 주로 지식계층을 이루었다.

두번째 그룹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제결혼을 해서 미국에 입국한 한국 여성들이다.

세번째 그룹으로 가장 많이 온 이들은 개정 이민법에 따라 가족초청이나 전문직 직종으로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그룹들이다. 이들은 한인 이민사회의 주류층을 이루었고 집단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다음 그룹은 월남에 가서 근무하던 기술자와 그리고 간호사, 미국 상사 지사원들과 그 가족이다.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사들이 계약을 끝내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 노동력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들이다.

마지막 그룹은 남미로 농업이민을 갔다가 다시 미국을 이민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제3국을 통해 들어온 동포들이다.

처음부터 이민사회의 계층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이 한인 커뮤니티의 특징이다.

이 당시 한국 이민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어느 소수민족 보다 최고의 학력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민자의 학사학위 보유율은 50%로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경우 12% 보다 4.1배가 높았다. 이러한 고학력의 이민자들은 한인사회 발전을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 잡(Job), 세 잡을 가리지 않고 뛰면서 노동을 했고, 다음의 꿈으로는 내 사업을 갖는 것이었다. 이민와서 2년, 3년 또는 몇년이 지난 한국 이민자들이 이 당시에 뛰어든 스몰 비즈니스는 주로 유태인 소유 사업체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의 10대 사

업체로는 가발업, 주유소, 식품점, 음식점, 청소회사, 바느질공장, 태권도도장, 무역회사, 청소업, 보험업, 페인트업을 들수가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인구의 성장으로 올림픽가에는 코리아타운(Koreatown)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한인 비즈니스의 숫자는 다른 어느 소수민족 보다 빠르게 늘어 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에는 약 3만개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거대한 한인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전의 한인 이민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교회 설립은 1904년 초기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시대부터 새 이민사회에 이르는 지난 한세기 동안 교회가 이민자와 한인사회에 준 영향은 참으로 크다.

한국이민자의 학사학위 보유율은 50%, LA시민의 12%에 비해 4.1배가 높은 고학력자로 한인사회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에 이민 온 사람중에는 기독교인이 많았다. 그들은 낯선 미국생활 속에서 제2의 청교도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다. 도착과 함께 기도를 통해 미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것을 기원했다.

하와이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는 LA한인연합감리교회로 1904년 3월 11일 첫예배를 드렸다. 2년 뒤인 1906년 5월 10일에는 제퍼슨한인연합장로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다.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약 2,000명의 초기노동자들이 하와이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중가주, 로스앤젤레스 등 본토로 이주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주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퍼슨한인연합장로교회는 옛 코리아타운인 남가주대학 근처에 1938년 새 성전을 지었다.

이 두 한인교회는 초기이민자를 위한 감리교와 장로교를 대표하는 남가주 최초의 한인교회로 한국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창립을 도와주었다. 두 초기교회는 미주 한인사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창립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1936년 9월1일에는 이승만박사를 따르는 동지회 사람들이 대한인 기독교회를 설립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3번째 초기 이민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1941년 1월17일 제퍼슨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한때 사역을 담당했던 김중수목사가 기독교 가정교회를 세움으로 초기 이민자를 위한 4번째 한인교회가 생겨났다. 이들 초기 네 교회가 1904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초기이민자들을 위한 한인교회였다. 1948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김동명목사는 한국전쟁 후에 미국에 오는 유학생을 위한 한인교회를 1957년 설립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오늘의 LA한인침례교회로 5번째로 창립된 한인교회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새 이민자들을 위한 한인교회가 하나 둘 창립되었다. 이로부터 10년동안 남가주 지역에 약 300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세워졌고 한인교회는 새 이민자의 도착이 크게 많아지면서 날로 늘어났다. 1970년대 한국인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서 문화충격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은 안식처가 바로 한인교회였다. 교회는 이민생활 정착을 도와주고 친교를 나누며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을 맡았다.

그 당시 한인 이민교회의 창립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창립하고 목회자를 초빙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창립하는 경우이다. 동양선교교회는 임동선목사가 이민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창립한 경우이고, 나성영락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를 초빙한 교회이다. 처음에는 10~30명의 교인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1970년대 교회설립의 모습이었다.

1970년 7월 26일 동양선교교회가 창립되기 이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교회와 창립일자는 다음과 같다.

1. LA한인연합감리교회: 1904년 3월 11일
2. 제퍼슨한인연합장로교회: 1906년 5월 10일
3. 대한인 기독교회(일명 동지회 교회): 1936년 9월1일
4. 기독교 가정교회 (창립: 김중수목사): 1941년 1월 17일
5.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창립: 김동명목사): 1957년 3월 10일
6. 독립장로교회(창립: 손순열목사): 1959년 4월 첫주일
7.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나성중앙한인교회: 1962년
8. 한국인 연합교회 (창립: 노의선목사): 1965년 4월
9. 베다니한인교회 (창립: 김학철목사): 1965년 9월19일
10.성바울교회 (창립: 김요한목사): 1966년 3월
11. 한인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박규현목사): 1966년 8월
12. 나성 한인천주교회 (창립: 로렌스 리 신부): 1968년 8월 6일
13. 포모나한인교회 (창립: 김익환 목사): 1968년 4월
14. 나성복음성서교회 (창립: 한병혁목사): 1969년 3월
15. 한인 중앙교회 (창립: 장시화목사): 1969년 7월
16. 한인선교교회 (창립: 고원용목사): 1969년 8월
17. 웨스트민스터 한인장로교회 (창립: 차남진목사): 1970년 1월
18. 윌셔한인장로교회 (창립: 정시우목사): 1970년 3월
19. 동양선교교회 (창립: 임동선목사): 1970년 7월 26일
20. 나성성결교회 (창립: 안수훈목사): 1970년 11월 7일

**문화충격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은
안식처가
바로 새 이민자를 위한
한인 교회였다**

제2장
이민사회에 뿌린 복음의 씨

- "새 이민의 시대가 온다"
- 동양선교교회 창립의 세가지 배경
- 1970년 7월 26일 주일에 창립예배
-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신앙으로
- 27명 성도가 창립예배에 참석
- 창립예배 장소는 임동선목사 자택
- 이천영목사, 이민교회 창립을 권유
- 교회이름 "동양선교교회" 탄생의 뜻
- 미국에서 초교파 독립교회로 창립
- "선교 교육 봉사"를 교회 3대 목표로
- 창립 한달 헌금, 한국에 선교금으로
- 창립후 한달사이 교인이 2배로
- 개인부흥, 교회부흥, 사회부흥을 위해 기도
- 상부상조하는 이민교회
-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불길
- 코리아타운 형성에 기여한 교회
- "첫 주일부터 설교 잘하시는 목사"
- 창립일은 7월 29일이 아닌 7월 26일

"새 이민의 시대가 온다"

임동선목사가 1970년 7월 26일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할 때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는 약 7천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주로 초기 이민자와 그 후예들 그리고 유학생과 개정 이민법으로 들어 온 새 이민자들이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인인구가 많지를 않아서 식당이나 마켓에서 같은 한인을 만나면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인들은 남미와 서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로 들어왔고 그 숫자는 늘어갔다. 1970년초에 미국은 월남전으로 전쟁 경기가 활발했고 남가주 동포들도 군수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다.

LA국제공항에 새 이민자들이 계속 도착했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남자들은 청소나 주유소 등 주로 노동에 종사했고 한국 여성들은 바느질 공장에 나가서 힘든 일을 했다. 그때 동포사이에 유행한 말이 바로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 중에서 조금 일찍 도착한 동포들은 가발업소, 주유소나 청소 비즈니스를 경영했다.

OMC 창립 당시 LA 거주 한인은 7천여명 같은 한인을 만나면 가족을 만난것 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절이었다

유학중인 임동선목사는 이 때 앞으로 10년~20년후에는 한인 이민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가족이민으로 들어오는 새 이민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민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몇 밤이고 기도를 드렸다. 대량 한인 이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임동선목사는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미국안에 한인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고 갈수록 크게 성장해 나아갈 코리언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생각이었다. 주일저녁 예배, 새벽예배, 한글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 청교도정신에 맞는 한인교회를 세워 갔으면 하는 이민자를 위한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밤낮으로 일을 하는 새 이민자들을 위해 임동선목사는「교회다운 교회」,「믿음과 신앙을 잘 인도하는 교회」,「선교를 하는 교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어느 교단의 신자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편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었다.

동양선교교회 창립의 세가지 배경

그당시 임동선목사는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 학생이었다. 낮에는 Parker & Son이라는 다운타운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밤엔 신학교에 다녔다. 주일이면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회 경험을 쌓고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1970년 5월, 미국 유학의 목적대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리고 2달 후인

1970년 7월 26일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임동선목사는 신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한때 가지고 있었지만, 이민교회 창립을 하라는 이천영목사(서울신학대학교)의 권고에 순종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새 이민사회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임동선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뜻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이천영목사(서울신학대학교수)의 권유 때문이었다.

1969년 6월 로스앤젤레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이천영목사는 "나의 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는다. 내 자녀와 앞으로 새 이민사회를 위해서 이민교회를 세우라"고 권유를 했다.

두번째는 임동선목사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더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박사학위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이민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 미국 유학 때의 맘껏 공부를 하고 싶다는 높은 뜻을 꼭 이루고 싶었다. 훌륭한 미국인 교수와 좋은 도서관 및 그 많은 귀한 자료들이 임동선목사에게 더욱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충실한 부흥사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공부는 물론 이번 유학 기회에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갖고 탄생한 교회가 바로 OMC였다

세번째 이유는 1970년대 이전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으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다. 그리고 제 3의 특수 목장인, 새 이민사회에서 「희망의 목회」를 해보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기존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성서적인 교회를 마음에 두었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수요일 저녁예배와 매일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이 살아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고 2세 교육을 하는 교회, 노동을 하는 동포와 유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교회,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언가 크게 봉사하는 교회가 특수 목장인 로스앤젤레스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천영목사의 권유, 자신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새 이민사회에 세워야겠다는 세가지 큰 뜻으로 동양선교교회가 1970년 7월 2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되었다.

1970년 7월 26일 주일에 창립예배


1970년 9월 20일 임동선목사 자택에서의 예배 모습
왼쪽은 황재열목사, 그리고 임동선담임목사와 임재순사모

동양선교교회는 1970년 7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역사적인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동선목사 자택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은 1층 리빙룸 화이어플레이스 쪽의 임시강단을 향해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 앞에 선 임동선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 예배는 묵도와 기원 찬송 신앙고백(사도신경), 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창립설교, 감사기도, 광고, 축도 순서로 기쁨과 감격속에 마쳤다. 피아노 반주는 첫째 딸 임승혜가 맡았고, 둘째 딸 임승향은 2층에서 유치반 어린이 5명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쳤다.

임동선목사는 시편 126장 5~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창립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속에 40분간 제2의 청교도인 한인 이민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첫 설교를 했다.

이민의 확신, 성공의 확신을 심어준 임동선목사의 창립 첫 설교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우리 이민자들은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농부는 항상 부지런하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밤늦도록 땀을 흘린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 씨를 뿌린 대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여름에 흘린 땀의 댓가이다.

한인 이민자들은 농부처럼 정직하게 살아나가자. 이민사회에는 정직이 자본이 된다. 정직하게 살면 실패를 해도 남이 도와준다. 한인 이민자들은 새 땅에 와서 사는 농부들이다. 가정문제, 자녀문제, 직업문제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자. 이민자로서 좋은 자세를 가지고 살면 성공한다. 그리고 미국 이민 와서 살면서 항상 조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자. 절약하면서 이웃을 도와주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처럼 한인 이민자들도 이민이라는 꿈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 땅, 황무지 같은 땅에 와서 살지만 정직하게 씨를 뿌리면 큰 곡식, 큰 결실을 얻는다. 이민의 확신,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자."

희망에 가득찬 설교를 해서 참석교인 모두가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다. 잘 준비된 목회자로서의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부름을 받은 날로 생각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창립예배였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신앙으로

1970년 7월 26일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이민교회로 창립을 한날 교인들은 하루 종일 감사와 은혜로 가득찼다. 전날인 7월 25일 토요일에는 창립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임동선목사 자택에 모여서 준비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창립예배 순서를 위한 각자가 맡은 일들을 확인했다. 오철훈집사는 부인 오순자와 밤늦게 까지 첫 주보를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 오철훈집사는 홍사단에서 등사기를 빌려왔고 부인 오순자는 주보 내용을 타자로 쳤다. 평소 글씨를 잘 쓰는 오철훈집사가 창립 첫 주보를 만들게 된 일은 기쁨속의 봉사였다.

임동선목사 가정의 리빙룸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전 이태식(현재 동양선교교회 안수집사)은 의자 30개를 9가와 Fedora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빌려왔다. 임동선목사 큰 아들 임승광은 예배 전에 차로 교인들을 픽업해오는 일을 기쁨으로 맡았다. 막내아들 임승천은 예배전 새 예배당인 리빙룸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임재순사모는 예배 안내를 맡았다. 큰 딸 임승혜는 창립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둘째딸 임승향은 창립예배날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임승향집사는 교회 창립날부터 오늘까지 교사로 헌신적인 봉사하고 있다.

첫 주보를 만들고 의자를 빌려오고 교인을 차로 픽업하는 등 기쁨으로 봉사를 했다

예배 후에는 참석했던 전교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속에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특별히 임재순사모와 오상숙, 오순자, 이문자 등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왔다.

엷은 곤색 양복을 입은 임동선목사는 창립예배를 위해서 며칠간 준비의 피곤함이나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민사회를 향한「교회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와 소명으로 가득차 있었다. 한달전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고 새 이민목회에 그저 감사 할뿐이었다.

7월의 무더운 캘리포니아 계절이었지만 이날만은 날씨가 유난히 시원했고 참석교인들은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했다. 특별히 창립예배후에는 어른과 어린이 등 참석자 모두가 첫 창립예배를 드린 임동선목사 자택(926 S. Irolo St.) 앞 계단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오철훈집사 본인은 사진을 찍느라고 창립교인 모두가 한자리에서 찍은 사진에 얼굴이 나와 있지를 않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예배 후에 광고를 통해서 동사목사로 사역했던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은 그 교회에 충성을 하라"고 강조했다. 동사목사로 근무했던 교회 입장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말했다.

창립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하루종일 "초대교회 성도처럼" 선교의 모범이 되는 동양선교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27명 성도가 창립 예배에 참석

동양선교교회 첫 예배날 출석한 성도는 임동선목사와 임재순사모 그리고 임승광, 임승혜, 임승향, 임승천 등 가족 6명, 오해훈집사와 부인 오상숙과 오정규, 오중규 어린이 등 4명, 오철훈집사와 부인 오순자 등 2명, 이성호집사와 부인 이문자와 이화동 어린이 등 3명, 김준호와 부인과 준원, 수희어린이 등 4명, 이성원, 이태식, 원치항과 부인 박숙현, 명호순과 그의 부인, 그리고 임종희 등이었다. 임동선목사댁 리빙룸에서 성인 15명과 어린이 12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 이들 창립교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부터 임동선목사를 알고있거나 한국에서 성결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다.

창립예배 날 출석한 교인들의 근황이다.

▲임동선목사 :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임재순사모 : 투병후 쾌차
▲임승광집사 : 사업
▲임승혜집사 : 한국 거주
▲임승향집사 : 변호사, 주일학교 교사
▲임승천집사 : 변호사
▲오해훈장로 : 미주성산교회
▲오상숙권사 : 미주성산교회
▲오철훈장로 : 미주성산교회
▲오순자권사 : 미주성산교회
▲이성호장로 : 미주성산교회
▲이문자권사 : 미주성산교회
▲이성원목사 :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
▲명호순집사 : 작고
▲김준호 : USC 공학박사, 뉴멕시코 알바커키거주
▲이태식집사 : 동양선교교회
▲원치항집사: 열린문교회 장로

성인 15명, 어린이 12명 등 27명이 참석한 임동선목사댁에서의 창립예배

창립예배 장소는 임동선목사 자택

새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개척하기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임동선목사와 몇몇 교인들은 창립전 예배처소를 찾는 일에 나섰다. 예배드릴 교회 건물을 1개월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지역 미국인 교회와 오래된 한인교회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1970년 7월 26일 창립예배 전주일 까지도 끝내 교회당을 찾지 못했다. 초교파 독

립교회라고 교단에 속한 미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았다.

임시로 임동선목사 2층 주택의 1층 리빙룸에서 교회 개척에 따른 준비와 창립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동양선교교회 첫 예배는 임동선목사가 구입해서 살고 있던 9가와 올림픽가 926 S. Irolo St.의 1층 리빙룸에서 드렸다. 임동선목사 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은 1층과 2층의 50년된 오래된 목조건물이나 실내가 무척 넓었다. 그 당시 1층에는 임동선목사 가족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USC에서 공부하던 김준호 가족이 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이민을 오는 친지나 교인들이 같이 살기도 했던 집이다.



1970년 7월 26일 OMC 창립예배를 드린 926 S. Irolo St.의 당시 임동선목사 자택

임동선목사가 이 집을 구입한 것은 1969년인데 참으로 우연한 기회였다. 당시 임동선목사는 신학생으로 공부하며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동사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수중에 50달러 밖에 없을 때 이 집을 구입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모두 2백50달러를 가지고 있던 임동선목사는 아껴 모은 그 돈 중에서도 모교인 숭실대학에서 채플을 짓는다고 해서 2백달러를 선뜻 헌금했고, 나머지 50달러만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이 집을 사서 한인타운 중심부로 이사 오기전 임동선목사 가족은 하일랜드 파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마침 주인이 방을 내달라고 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집을 판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창립예배 전주일까지도 예배처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임목사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한인사회에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던 죠지 최씨가 926 S. Irolo St.에 있는 2층집을 보여주면서 2만5천달러에 나와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다운페이를 5백달러만 하고 다음해에 1천5백달러, 그 다음해에는 2천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30년 동안 매월 1백50달러씩 내라는 조건이었다.

임동선목사는"내가 가진 돈은 50달러밖에 없다"고 하니까 죠지 최 국제부동산 사장은"목사님이 사신다고 하면 제가 다운페이 할돈 4백50달러는 꾸어드리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의 권고를 듣고 임동선목사는 계약서를 쓰고 이 집을 샀다. 뜻밖에 사게된 2층의 이 집이 바로 동양선교교회의 창립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예배처소가 된 것이다.

이천영목사, 이민교회 창립을 권유

이천영목사(당시 서울신학대학 교수)는 1970년 7월 13일 여름방학을 맞아 막내 아들 이성원(현재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임동선목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온 이천영목사를 몇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이민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이천영 선배목사는 그때마다 "우리 두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유리하는 양떼들을 모아서 이민사회라는 푸른 초장에서 잘 지도해 달라"면서 이민교회 창립을 위한 간곡한 부탁을 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에게 "공부를 마치더라도 한국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이민자를 위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몇번이고 강조를 했다. 동양선교교회 태동기에 산파역을 맡은 분이 바로 이천영목사였다. 한인교회를 창립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1970년 초부터 기도 중에 있던 임동선목사에게 한국에서 온 이천영목사의 교회창립 권고는 큰 확신을 심어 주었다.

"유리하는 양떼들을 모아서 이민사회라는 푸른 초장에서 잘 지도해 달라"

2000년 9월 인터뷰 때 임동선원로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창립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이천영목사께서 1969년과 1970년 여름, 아들 방문차 도미를 했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하니 공부를 하는 동안이나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유리하는 양떼들을 모아 지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셨다. 그리고 내 주위 친지 및 교인들의 간절한 간청도 있고해서 여러날 기도 끝에 적은 교인으로 교회 창립 발족회를 가졌다. 예배처소를 한인교회와 미국인 교회에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우선 우리 집 1층 리빙룸에서 드리기로 했다."

교회 창립 첫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이야기이다.

이성원목사(창립 당시 유학생 · 현재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의 말이다.

"1970년 7월 아버님(이천영목사)이 로스앤젤레스 도착 후 임동선목사님을 댁에 가서 만났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임동선목사님에게 우리 두 아들도 있고 한국사람이 새로이 이민을 많이 올텐데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마침 임동선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실 뜻이 계셨고 아버님을 만나서 교회 창립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으셨다. 아버님이 결정적인 때를 알려주셨던 것 같다."

이성호장로(창립 당시 교인 · 미주성산교회)는 다음과 같은 기억을 들려주었다.

"아버님(이천영목사)이 임동선목사님에게 교회 창립을 서두르라고 하셨다. 시간을 끌지 말라고 말하셨다. 성결교 교인이 이곳 저곳에 흩어진 상태이다. 한국에 나가서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성결교회의 목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 임동선목사님은 이를 구체화 시키려고 노력했다."

교회이름 "동양선교교회" 탄생의 뜻

특수목장인 이민사회에 한인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임동선목사는 교회 이름을 동양선교교회(The Oriental Mission Church)라고 지었다. 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라고 교회이름을 정하기 전부터 새로 설립하는 교회는 "선교 · 교육 · 봉사" 의 이민교회 3대 목표를 결정했고 초대교회인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은 "동양사람이 동양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선교한다" 는 선교사명을 제일로 펴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다. 특별히 동양에서 이민와서 미국 땅에 동양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임목사의 목회 의지와 철학이 가득 담겨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양과 전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해야한다는 선교 지상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양선교교회는 미주 내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선교(Mission)라는 두 글자를 교회 이름 중에 사용했다. 흔히 1960년대 미주이민사회에는 한인장로교회, 한인감리교회, 한인침례교회 등 교회 명칭 중에 교파의 이름을 넣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라는 두 글자를 처음으로 이민교회 이름 가운데 넣었는데 이는 선구적이면서도 성경적임을 알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란 단어를 교회이름으로 처음 사용해서 창립 당시 참으로 선구적이었다

동양선교교회라고 교회이름을 짓게된 또다른 배경 이야기이다. 동양선교교회를 영어로는 The Oriental Mission Church 로 쓴다. 영어약자는 OMC가 된다. 한국에 성결교단을 처음 들여간 미국의 동양선교회는 영어로 Oriental Missionary Society로 표기하며 약자로는 OMS로 부른다. 동양선교교회의 OMC라는 약자와 동양선교회라는 OMS 사이에는 선교라는 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임동선목사는 성결교의 서울신학교를 졸업했고 공군 군종감으로 제대를 한 뒤 1965년 미국으로 2번째 유학을 왔다. 그 당시 임동선목사를 초청한 기관이 바로 미국 성결교 선교기관인 동양선교회(OMS)였다. 임동선목사가 1965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양선교회의 헤인스선교사와 길보른선교사가 공항에 직접 나와 환영을 해주었다. 임동선목사는 몇주동안 OMS 본부 선교사 댁에 여장을 풀었고, OMS에서 영주권을 마련해 주었다. 그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 임동선목사가 동양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미국 성결교 선교단체인 동양선교회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결교단을 처음 한국에 세우고 자신을 미국에 초청한 동양선교회라는 미국선교기관의 이름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인용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창립교인들은 동양선교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게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오해훈장로(창립당시 집사 · 미주성산교회)

"동양선교교회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동양에서 우리들이 왔지만, 앞으로 미국 그리고 동양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한 선교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 임동선목사님이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잇는 선교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어서 교회 이름에 선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고있다. 한국

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는 농어촌교회에 관한 선교를 강조한 뜻이다. 무엇 보다도 선교라는 말이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 교회에서 처음 나왔고 미주 이민교계에서 아주 선구적인 일로 받아 들여졌다."

▲이성원목사(창립 교인 ·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

"동양선교교회 선교의 큰 뜻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특별히 동양을 위한 선교라는 지상명령이 담겨 있다. 동양을 위한 선교의 등대가 되고 지구촌 시대의 선교에 횃불을 높이 든다는 뜻이 창립때 부터 오늘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이다."

1990년대에 와서 동양(Oriental)이란 단어가 주류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교회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미국에서 초교파 독립교회로 창립

더 큰 이민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처음부터 초교파 독립교단으로 출발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처음부터 동양선교교회를 초교파 독립교회로 창립하기로 정했다. 동양선교교회를 초교파 독립교회로 창립한 뜻은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초교파 교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앞으로 미국 안에서 한인교회로 교파를 초월, 크게 성장 부흥시켜 나가고 싶은 임동선목사의 목회비전이 담겨 있다. 초교파 독립교회로 이민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새로 오는 한국 이민자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의 특정교파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출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의 나라,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민교회를 설립함으로 신자들이 출석하려는 교회를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국 선교를 하는 때에나 구제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펼 때에 초교파 독립교단 교회가 더욱 큰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임동선목사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세울 때 성결교단에 속한 성결교회를 세울 뜻은 없었다. 미국 성결교회들은 이미 초교파 교회로서 부흥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동선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초교파 교회로 창립할 때 이천영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성결교단에 속하는 성결교회로 세울 것을 바랐다. 하지만 임동선목사는 성결교회로 세우면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나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임동선목사가 초교파로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또다른 배경으로는 한국성결교단의 부흥목사로서 가장 존경을 받고있는 이성봉목사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다. 한국성결교단의 부흥목사로 이름을 크게 날린 이성봉목사는 교파를 초월하여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성봉목사 집회는 언제나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교단 간섭이나 영향력 없이 자체적으로 교회행정을 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한 이민교회의 현실에서 종속성을 뛰어넘은 초교파 독립교단 교회를 창립함으로써 대

형 이민교회로 발전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미리 내다 본 것이다. 처음부터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교회를 독립적으로 세우고 발전시켜 나간 한인교회로서 출발한 것이 다른 이민 한인교회와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동양선교교회에는 창립 때부터 한국에서 이민 온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등 모든 교인이 다 출석을 했다. 이민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출석을 했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

동양선교교회를 초교파 독립교회로 세운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립때부터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등
모든 교인이 출석한
동양선교교회

▲황재열목사 (베이커스필드한인교회 원로목사)
"초교파 독립교단으로 교회를 세운 뜻은 당연하다. 미국 같이 넓은 곳에 와서는 교단을 가진 교회를 창립하는 것보다는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이민사회의 특성이나 성장에 좋은 동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김용서장로(창립당시 집사 · 임마누엘선교교회 원로장로)
"그때 상황으로는 임동선목사님이 초교파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건수장로(창립당시 집사 · 동양선교교회 원로장로)
"초교파로 교회를 세우신 뜻은 공군 군종감으로 계셨고 군에서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을 오는 군출신들이 교파를 가리지 않고 동양선교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안수훈목사(나성성결교회 원로목사)
"처음 임동선목사님이 초교파 독립교회의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에서 성결교단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선교 · 교육 · 봉사"를 교회 3대 목표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 35)

임동선목사는 이민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목표를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를 세워야 겠다고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것도 선교요, 제자 훈련도 선교이고, 떠나실 때 유언도 선교였기 때문이었다. 선교를 제일로, 그리고 교육과 봉사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라는 3대 목표는 마태복음 9장35절 말씀을 근거로 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교육), 복음을 전파하시며(선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봉사)"가 교회 3대 설립 목적이 되었다.

1970년 7월 14일 교회 창립 발족회가 모였고 창립 발족회는 1. 교회명칭(동양선교교회) 2. 교리와 신조(웨슬레 신앙) 3. 교회 설립목적을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한국 교회와의 교량 역할로 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성호장로(창립교인 · 미주성산교회)

"선교 · 교육 · 봉사라는 교회의 3대 목회철학이 창립예배 전에 이미 앞으로 동양선교교회의 가는 길이 될 것으로 정해졌다."

▲스티브임장로(창립교인 · 동양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이름을 정하기전에 선교 · 교육 · 봉사를 교회의 3대 목표로 정하고 참으로 모두가 이를 좋아했다."

창립 한달 헌금, 한국에 선교금으로

창립 첫 4주간 헌금액은 모두 453.65달러 헌금 전액을 한국 농어촌 교회로 보내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신앙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후 실천하는 교회로서 모범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창립예배부터 첫 한달간의 감사 및 일반헌금 등을 한국의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회에 보내면서 선교를 직접 실천해 나갔다.

동양선교교회 창립 예배부터 첫 한달간 헌금 총액은 453.65달러였다. 7월26일 창립 주일에 167.50달러(출석교인 27명), 8월2일 주일에 42.50달러(출석교인 32명), 8월9일 주일에 171달러(출석교인 52명), 8월16일 주일에는 72.65달러(출석교인 55명)의 헌금이 집계되었다.

1970년 8월2일 2번째 주보에는 "특별히 첫 한달의 헌금 전액은 한국 농어촌의 가난한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나와서 그 당시 한인 교회와 언론, 커뮤니티에서 크게 눈길을 끌었다. 8월23일자 제5호 주보에는 "여러 성도들께서 지난 한달동안 하나님께 바치신 헌금은 우리가 이미 결정한대로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300달러는 농촌 빈약한 교회에 전해달라고 크리스찬신문사에 송금했으며 100달러는 현재 대전에 신축중인 노회 여교역자 수양관 건축 보조금으로 보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와있다.

창립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인사 및 교회성장을 위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처음 선교부가 만들어 질때에도 임동선목사가 직접 선교부장을 맡으면서 선교를 교회 설립 목표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원치항장로(창립교인 · 열린문교회)는 "임동선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때부터 존경을 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창립예배를 드렸고 그때 오철훈집사가 주보를 만드느라 수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하다. 초창기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동양선교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임동선목사의 선교열정은 첫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창립후 한달사이 교인이 2배로

1970년 7월 26일 창립 예배후 한달 사이 새 교인들이 꾸준히 늘어났다. 담임목사와 교인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헌신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새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

창립 한달간 교인 증가 추세를 보면 첫 예배 날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8월 2일 둘째 주일에는 32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때 새로 한건수집사 가족 4명이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창립 3번째 주일에는 성인과 아이 등 52명이 출석을 했다. 김효순전도사와 정하경목사 가족, 이경철 가족, 김정호, 임종희, 이종경, 김정우 가족 등이 새로 등록을 했고 조인식 가족이 나왔다. 창립 한달째가 되는 4번째 주일인 1970년 8월23일에는 장년과 유년학생 등 55명이 예배에 나왔다. 새로 등록한 교인들은 한국에서부터 임동선목사를 알고 있던 교인들과 갓 이민을 온 동포, 그리고 다른 교회에 나가던 교인 등 다양했다. 창립예배 한달만에 교인은 2배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임동선목사의 설교때문이었다. 새 이민자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를 들으러 곳곳에서 교인들이 출석했다.

27명 성도가 창립 1개월만에 55명으로 급성장한 배경은 임동선목사의 희망찬 설교때문이었다

8월 2일 주일에는 동부를 다녀온 이천영목사가 「하나의 진리」(엡 4: 1-6) 라는 제목으로 창립축하 설교를 했다. 8월 9일 3번째 주일 예배 때에는 임동선목사가 「교회 부흥의 비결」(행 9: 31)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4번째 주일 설교는 「고난의 의미」(롬 8: 3~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임동선목사는 "미국의 조상들이 1620년 대서양을 배를 타고 두달만에 도착, 배에서 새 땅에 뛰어 내리자 마자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다음이 학교이며 그다음이 자기 집"이라는 청교도의 역사를 예로 들어가며 설교를 했다. "이민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있는 삶을 갖자"는 내용 등 항상 희망적이며 생활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던 교인들에게 샘물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창립때 부터 동양선교교회가 앞으로 목표로 하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비록 이민 초기에는 교인 숫자가 적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밤낮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새로 이민오는 교인, 새 이민자들을 위해서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바랐다. 이민자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남가주 한인사회를 밝게 비추는 동양선교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해 나갔다. 이를 위한 임동선목사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했고 구체적이었다.

개인부흥, 교회부흥, 사회부흥을 위해 기도

임동선목사는 열심히 모이고,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개인부흥과 교회부흥 그리고 사회부흥을 이룩하는 동양선교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동양선교교회는 창립후 한달간 교회의 공식적인 의결기구로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창립예배전부터 이미 집사들로서 당회 기능을 대신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7명의 운영위원으로는 임동선목사, 이경철, 원치항, 오해훈, 이성호, 김준호, 오철훈 등이 봉사를 했다. 1970년 8월16일 첫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선교와 이웃 구제에 쓰기로 하는 일 등 재정 및 인사에 대한 일들을 결정했다.

OMC 첫 공식 의결기구였던 임시 운영위원회, 당회 기능을 대신한 운영위원회는 처음 7인으로 구성되었다

창립 2번째 주일인 8월2일 주일 예배 때부터 동양선교교회에 성가대가 첫선을 보였고 이성원(현재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이 성가대를 지휘했다. 성가대 피아노 반주는 임동선목사의 큰딸 임승혜가 맡았고 처음 성가대 대원으로는 오철훈집사, 김준호와 부인, 명호순과 부인, 임승광, 이성호와 부인 이문자 등 10여명이었다. 첫 동양선교교회의 성가대원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참으로 은혜스러웠고 헌신적이었다. 첫 성가대 지휘자였던 이성원목사는 "모두가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기쁨에 몇밤을 기도로 준비했다. 창립예배 날에는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처음 악보를 만드느라 이곳 저곳에 연락을 한 기억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상부상조하는 이민교회

동양선교교회는 창립때부터 이민교회로서 새로운 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번째가 주일 아침예배 순서에 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다. 임동선목사는 교회 창립 때 부터 헌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교회 출석신자는 2/3가 이민와서 노동과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고, 1/3이 유학생들이었다. 부인들은 주로 바느질을 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라고 들어오는 문앞에 헌금함을 놓았다."

헌금함을 교회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건수집사와 오해훈집사가 임동선목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유학생 생활을 직접해온 임동선목사는 누구 보다도 이민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주일예배순서에 헌금순서가 예배의식에 들어가 있지않고 교회 입구에 헌금함을 놓았는데도 헌금액은 언제나 예상과 같았다.

한건수원로장로는 "동양선교교회는 주일 예배때 헌금대를 돌리지 않은 첫교회였다. 초창기

교인들은 헌금을 낼 형편이 되지를 못했다. 그런대도 헌금함의 헌금과 헌금대를 돌렸을 때 헌금액수가 똑 같았다. 크렌셔교회로 온 뒤 "교회의 의식에 헌금순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한국에서 온 부흥목사가 말해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예배에 헌금순서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일헌금은 교회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헌금은 계속 한국의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동포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데 썼다.

창립 당시 출석교인 2/3는 노동자 직장생활 1/3은 유학생 신분, 신자에게 헌금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 임동선목사 생각이었다

>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행 2:44~45),

>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 32),

>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 11: 24~25)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처음부터 실천을 해나갔다.

초대 교회와 같은 신앙의 불길

임동선목사는 교회를 창립한 날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집 앞에 달았다. 지금도 옛모습 그대로 한인타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주택이 바로 미주이민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동양선교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역사적인 건물이다. 임재순사모는 창립예배 때를 "이 집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불길이 타올랐다"고 감사를 했다.

1970년 8월 2일(창립 2번째 주일)과 9일(창립 3번째 주일) 주보에는 계속해서 새 예배처소가 될 교회 건물을 빌리고 있다는 소식이 알림으로 실려있다.

> · 교섭 중에 있는 교회(예배 처소)는 8월 10일에 결과가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8월 2일 주보)
> · 교섭 중인 교회(예배 처소)는 내일 (8월 10일) 결과가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교회 건물을 찾는 일이 쉽지않다고 판단했고 당분간 임동선목사댁에서 주일예배

를 드리면서 서서히 새 건물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회 개척 한 달간 교인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임동선목사와 사모 그리고 교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일예배 출석교인 숫자가 4개월 후 100명으로까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1970년 11월 1일 임동선목사댁에서 창립예배를 드린지 4개월만에 Santa Barbara Blvd(현 Martin Luther King Blvd)에 있는 볼드윈힐 미국인 침례교회(Baldwin Hills Baptist Church)로 이전을 했다.

코리아타운 형성에 기여한 교회

1970년대부터 올림픽가에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진데에는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담임목사의 역할이 컸다. 임동선목사는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동사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이층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했다.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동명담임목사는 San Marino St.과 Berendo St.가 만나는 곳에 살고 있었다. 임목사가 주택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동명목사는 가능하면 올림픽가 근처에 있는 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고 얼마후 임동선목사는 926 S. Irolo의 이층집을 사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많은 친지나 교인 등 새 이민자들이 자연히 올림픽가 근처의 임동선목사의 자택을 방문했고 몇몇 친지는 이층방에서 살았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50달러를 들여서 구입한 임동선목사 주택, 예배처소가 되었다

1970년대의 올림픽가는 시내버스가 동서로 다니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새 이민자들은 이지역에 아파트를 얻어 살기를 좋아했다. 특히 1970년대는 월남전 때문에 군수산업이 LA지역에서도 활발했다. 한국 이민자들은 다운타운이나 웨스트LA에 있는 미국인 통조림 공장이나 기계공장에 근무를 할때 출퇴근 교통이 편리한 올림픽가에 아파트를 얻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올림픽가가 본격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에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신복씨 가족(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교인)의 영향이 적지않다. 이신복씨는 올림픽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에 있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식품점을 구입한 후 한국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했다. 한인 상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이희덕씨가 이신복씨 식품점을 사서 올림픽식품점으로 본격적으로 경영하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갔다.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는 1975년 코리아타운에 처음으로 1백만달러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면서 한인타운이 더욱 발전해 나갔다.

임동선목사는 코리아타운 안에서 이민교회를 시작한 한인목회자이고, 동양선교교회는 코리아타운 중심부에서 태어난 교회이다. 임동선목사가 926 S. Irolo의 집에 살때 둘째딸 임승향은 코리아타운인 올림픽과 호바트가 만나는 곳에 있는 호바트초등학교를 졸업한 첫 한국인 학생이다. 한인타운 형성에 기여한 동양선교교회는 항상 코리아타운을 사랑하며 코리아타운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 그런면에서 한인 공동체와 가장 가까운 이민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이다. 허경삼

목사(동양선교교회 시무 · 오렌지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는 "926 S. Irolo St.에 있는 임동선목사의 주택은 코리아타운을 형성한 곳으로 기억될만하고 임동선목사는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개척자와 창립자로서의 공로가 컸다"고 말했다.

"첫 주일부터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

임동선담임목사의 초창기 설교내용은 참으로 희망적이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초 코리아타운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임동선목사 자택

김주영장로(초창기 교인 · 나성영락교회)는
"임동선목사님 설교는 이민자들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실생활에 맞는 실화나 예화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하신다. 군목을 오래 하셨고 부흥사적인 목사님이셔서 설교를 참으로 잘하셨다. 임동선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억했다.

노수정장로(초창기 교인 · 동양선교교회)는
"임동선목사님의 창립초기 때 설교에는 힘과 용기, 삶의 활력이 넘쳤다. 갓 이민와서 사는데 임동선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 진다. 긍정적인 내용의 설교를 항상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임동선목사는 초창기에 한 주일설교 내용에 대해서
"1970년 교회 창립때 ⅔는 이민자이고 ⅓은 유학생이었다. 그래서 설교의 ⅔는 이민자의 자세, 노동의 신성, 땀 흘리는 대로 거둔다, 이민 가정문제, 자녀문제등 희생, 근면, 정직, 인내, 확신, 기쁨등에 대해 설교했고, 유학생들에게는 큰 길, 숭고한 목적, 초지일관, 불굴의 노력, 결실의 기쁨 등을 강조했다" 고 말했다.

■ 창립일은 7월 29일이 아닌 7월 26일

동양선교교회 창립 일자는 1970년 7월 26일 주일이다. 하지만 동양선교교회 몇몇 기록에는 1970년 7월 29일(수)로 나오는데 7월 26일이 정확한 창립일자이다.

동양선교교회 창립일을 7월 26일로 정한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1970년 6월부터 교회창립 준비회가 임동선목사 자택에서 여러 차례 모였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 기도를 드리고 한달후인 7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창립을 하기로 결정했다.

둘째는 이천영목사가 1970년 7월 13일(토) LA에 도착을 했고 7월 19일에는 베다니한인교회에 임동선목사와 함께 나가서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한주 뒤인 7월 26일 주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7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서둘렀는데 그날이 바로 7월 26일 주일이다.

1970년 7월 26일이 창립주일이 되는 또 다른 근거로는

1. 1970년 7월 29일은 수요일이다. 수요일은 교회의 창립주일이 될 수 없다.
2.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 30년사 편찬을 위한 특별 인터뷰(2000년 9월 1일)에서 창립주일은 "1970년 7월 26일"이라고 밝혔다.
3. 창립예배에 출석한 오해훈장로, 오철훈장로, 이태식집사, 이성원목사 등은 "창립주일은 1970년 7월 26일"이라고 인터뷰때 말했다.
4. 동양선교교회 주보 제 2호는 1970년 8월 2일자로 나왔다. 7월 26일 창립예배후 1주일 후인 8월 2일 주일에 정확하게 주보 제 2호가 발행되었다.

제 2 호 1970. 8월 2일

동 양 선 교 교 회

526 아이보로 스트릿, 엘에이
캘리포니아 90006 (전화 387-1353)

아 침 예 배

11시	사회	임동선목사
묵 도		주 악
기 원		사 회 자
찬 송	1	일 동
신앙고백	사도신경	일 동
기 도		오해훈집사
찬 송	50, 새70	일 동
성경봉독	미가서 4장1-6	사 회 자
특별찬송	사 중 창	
설 교	하나의 진리	이천영목사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05, 새470	일 동
감사기도	(헌금이 끝난)	사 회 자
환영, 광고		사 회 자
송 가	583	일 동
축 도		임동선목사

오늘의 성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요 4.24)

알 리 는 말 씀

1. 건설중에 있는 교회(예배처소)는 8월 10일에 감사가 될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쓰고 있는 의자는 하성 일본인 성결교회에서 빌려 주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해 달라고 합니다.
3. 우리 교회 헌금은 자유 의사에 따라 헌보함을 이용하게 되어있읍니다. 특히 첫 한달의 헌금 전부는 한국 농촌의 가난한 교회에 보내기로 했읍니다.
4. 감사 헌금 하신분들...김춘오선생, 오해훈집사 그리고 무명씨
5. 오늘 강단의 꽃은 임재순씨의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쳤읍니다.
6. 지난주일 통계
   출석 ... 27 명
   헌금 ...주일헌금 37.50 불
   감사헌금 130 불 합계 167.50불

동양선교교회 주보 제2호(1970년 8월 2일)

(동양선교교회 창립일인 1970년 7월 26일자 주보 제 1호는 아직 찾지를 못했다.)

5. 1995년 1월에 발행된 동양선교교회 헌법 5페이지에는 교회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7월 26일이 창립주일이라는 또 다른 기록이다.

   "복음주의 신앙을 같이 하는 30여명의 교우가 주후 1970년 7월 26일 926 South Irolo Street, Los Angeles 에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해 전력하기로 하다."

6. 1991년 발행된 동양선교교회 선교의 발자취(1970~1992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1970년 7월 26일: 926 S. Irolo St. L.A.(임동선목사 자택)에서 교우 27명이 모여 창립예배"

제3장
꿈과 희망을 심어준 초창기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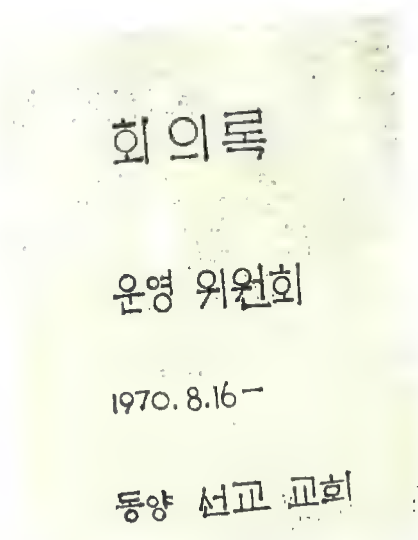
- 선교를 적극 지원한 운영위원회
- 교회를 섬긴 초창기 주의 종들
- 처음부터 교회성장이 빨랐다
- 예배처소를 볼드윈힐 미국교회로
- 1970년 11월1일 이전 예배
- 청교도 생각하며 첫 추수감사 예배
- 『이민교회는 바로 인생 복덕방』
- 임재순사모의 헌신적인 교회봉사
- 창립 1주년 부흥회 및 장로 장립예배
- 이민목회는 희망을 주는 목회
- 「한국을 돕는 선교교회」로 이름나고
- 임동선목사, 첫 남미 부흥회 다녀와
- 크렌셔 치과의사협회 건물 구입 논의
- 새 이민교회로 처음 자체건물 구입
- 1971년 12월 5일 크렌셔 새 성전 입당예배
- 유농장 배추로 김치 만들어 기금 모금
- 새 성전에서 창립 2주년 기념예배
- 임동선목사, 한국에 나가 부흥회 인도
- 장년 성경공부와 철야 기도회 시작
- 김계용목사 초청 심령부흥회 개최
-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적 봉사
- 운영위원회와 제직회 거쳐 당회 구성
- 당회장 정년을 65세로 하는 헌법 제정



선교를 적극 지원한 운영위원회

첫 한 달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 4백50달러 중 3백달러는 농촌 빈약한 교회에 전해 달라고 한국의 크리스찬신문사에 송금했다. 그리고 1백달러는 대전에 신축중인 연로한 여교역자 수양관 건축 보조금으로 보냈다. 운영위원회는 8월 교회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헌금은 계속 한국교회를 돕는 일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있는 동포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다.

한 달이 지난 9월20일 주일예배 후에 모인 정기운영위원회는 또다시 9월 헌금 중 1백50달러를 한국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고 로스앤젤레스 구제사업에 쓰기로 정했다. 10월 헌금도 9월과 같이 한국선교와 동포를 위한 구제사업에 쓰는 일을 하도록 정했다.


회의록

운영 위원회

1970. 8.16 —

동양 선교 교회

동양선교교회 첫 회의록

동양선교교회는 창립 때에 운영위원들이 선교를 위한 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았고 오늘까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길을 걷고 있다.

한국에 보낸 첫 헌금 300달러는 9곳 농어촌 교회에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창립 헌금을 선교비로 받은 한국의 교회

1. 금화성결교회 2. 당미성결교회 3. 망원성결교회
4. 석산장로교회 5. 장천장로교회 6. 산추감리교회
7. 동막감리교회 8. 하곡장로교회 9. 기론교회

선교비는 한교회에 40달러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당시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창립 네번째 주일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첫 결정이 바로 선교에 대한 재정지원이었다

교회를 섬긴 초창기 주의 종들

동경 YMCA 총무로 있던 황재열목사가 1970년 9월18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임동선목사와 서울신학교 동기동창이자 처남인 황재열목사는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그러나 임동선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황재열목사는 공부보다 먼저 교회 사역을 협력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해군군목으로 제대한 황재열목사는 동경 YMCA 총무로 임명되어 1957년에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에서 13년간 목회와 한국 YMCA 일을 마칠 즈음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했고 임동선목사가 황재열목사를 초청해서 온 것이다.

황재열목사는 초창기 첫 협동목사로서 신자들을 심방하고 안내하고 픽업하고 설교하는 사역



1970년 성탄예배후
오철훈집사 황재열목사 임동선목사 명호순집사 (왼쪽부터)

임동선목사의 신학교 동기이자 처남인 황재열목사는 OMC 초창기 협동목사로 헌신했다

을 맡아서 헌신했다. "특별히 임동선목사는 설교를 잘 하셨고, 교회 분위기는 보수적이거나 너무 폐쇄적이지 않았었다"고 초창기를 회고한 황재열목사는 "임동선목사의 신앙자세는 빈손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1970년 7월26일 창립이후 초창기에 헌신한 목회자들은 정하경목사와 김효순전도사였다. 정하경목사는 1970년 8월16일 한국에서 100권의 성경책을 받아 왔다. 구세군목사로서 예비역 공군 군목이었다. 9월20일 주일예배와 10월18일 주일 예배때 축도 순서를 맡았고, 10월25일 주일예배에는 "삶의 차원을 높이자" 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창립 3번째 주일인 8월9일 주일예배에는 김효순전도사가 기도를 드렸다. 김효순전도사는 평생을 성결교단의 교회와 고아사업을 위해 헌신한 여종이다. 창립 첫 한 달은 임동선담임목사, 이천영목사, 정하경목사, 김성선목사, 이종만목사, 김효순전도사 등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1970년 11월1일 볼드윈힐교회로 이전한 후 목회자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았다.

▲ 담임목사 - 임동선
▲ 협동목사 - 황재열
▲ 청년부 목사 - 정하경
▲ 영어부 목사 - 김성선
▲ 교육부 목사 - 이종만

처음부터 교회 성장이 빨랐다

창립때부터 매주일 교인이 늘어났다. 창립 2개월이 지난 1970년 9월에는 어른과 아이 등 97명이 출석했고 매달 평균 20명의 새 교인이 증가를 했다. 로스앤젤레스지역의 한인과 교인 숫자가 적을 때인데도 동양선교교회 교인수는 한 주가 다르게 늘어났다.

1970년대초 교회가 성장한 이유들이다.

첫번째로 임동선목사의 은혜스럽고 힘을 주는 설교를 새 이민자들이 좋아했다.

임동선목사의 주일설교는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데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의 내용이 쉽고 대중적이면서도 은혜와 용기의 메시지가 항상 담겨있다. 성도답게 사는

길,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삶의 용기가 솟아나게 하는 내용들이다. 임동선목사는 설교 때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주의를 강조했다. 애국적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임동선목사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 한 주간을 사는데 청량제가 됐다. 이민자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목회자가 바로 임동선목사였다. 임동선목사는 미국에 와서 고학생 생활과 동사목사의 경험 때문에 이민자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두번째로는 임동선목사의 헌신이 목회의 바닥에 깔려 있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교인들을 다 도와주었다. 임동선목사는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간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놀라운 기억력은 교인들이 감탄할 정도였다. 임동선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한 후 수고는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다. 교인을 참으로 사랑했다. 교회안은 물론 이민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었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새 이민교회 담임목사로 임동선목사 같은 분이 없었다"고 창립초기에 나온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은 한목소리로 말을 했다.

세번째는 초교파 독립교회로 다른 교파에 속한 성도들도 출석을 할 수 있었다.

네번째로는 한인타운 중심부에서 창립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해서 찾아오기가 쉬웠다. 코리아타운안의 교회이자 한인이 사는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이민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임동선목사의 은혜스러운 말씀, 임동선목사의 리더십, 임동선목사의 추진력, 작은 일에도 참으로 열심이었던 것이 동양선교교회의 첫 모습이자 성장요인이었다.

「은혜와 힘있는 설교, 임목사의 열심, 초교파 독립교회,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 급성장의 배경으로 평가되는 요인이다

예배처소를 볼드윈힐 미국교회로

창립 초기부터 교인이 크게 늘어나자 운영위원회는 1970년 10월4일 주일예배때부터 새 교회로 이전을 논의했다. 임동선목사댁 1층 리빙룸에서 100명의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다. 임동선목사가 새 교회 건물을 찾아 나섰다. 교회라는 곳은 다 방문하면서 예배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견수집사와 오해훈집사 그리고 오철훈집사와 함께 한인 교회와 미국인 교회 등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교파와 교단이 없는 무소속 교회라고 교회 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끝내 빌리지 못했다. 이때 교회에 출석하던 명재덕장로가 "사위인 이종만목사를 통해서 미국인 교회 건물을 알아보겠다"고 나섰다. 이때 명재덕장로의 많은 가족이 교회에 출석했고 미국 공립학교 교사인 이종만목사는 미국인 볼드윈힐 침례교회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1970년 10월18일 주보에 새 교회 건물을 찾는 일이 잘되고 있다는 첫 알림이 나와 있다.

"기도 중인 예배처소 이전건은 금주안으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합심기도를 바랍니다. 예배처소의 협소(임동선목사 댁)에 상관치 마시고 교우들의 열심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25일 볼드윈힐 미국 침례교회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약도가 주보에 실려 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새 예배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1월1일 주일부터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탁아소와 주일학교 교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70년 10월25일 임동선목사 자택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는 어린이 성인 등 모두 98명이 출석, 창립 4개월동안 주일예배를 은혜와 축복중에 드렸다. 전교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한번 감사기도를 드렸다. 온 성도와 임동선목사의 기도의 힘으로 더 넓은 예배처소로 이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1백여명 성도가 예배 드리기엔 너무 좁아진 1층 리빙룸 창립 4개월간의 은혜와 축복생활을 정리하고...

볼드윈힐 미국인 침례교회로 이전하게 된 당시를 임동선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몇 곳을 찾아 문의했으나 교회사용 허락을 못 얻고 있던중 남쪽 볼드윈힐 침례교회가 허락해 주었으므로 지역적으로 멀고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지만 시급한 상황이라 가게 되었다."

1970년 11월1일 이전 예배


두번째 예배장소인 Baldwin Hills Baptist Church, 1년동안 예배를 드렸다

미국인 교회인 Baldwin Hills Baptist Church는 본당과 교육관이 따로 있고 동양선교교회는 2층 교육관을 빌려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건물은 아름답고 장소가 넓었다.

이전할 당시 교회 주소는 4700 W. Santa Barbara Blvd.이었지만 지금은 거리 이름이 바뀌어서 4700 W. Martin Luther King Junior Blvd.(크렌셔와 만나는 곳)로 변했다. 볼드윈힐 침례교회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흑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다.

1970년 11월1일 오전11시 동양선교교회는 새 건물에서 이전감사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전예배는 황재열목사가 기도순서를 맡았고 임동선목사가 「재건의 선구자」(느 1: 1~

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한영옥선생의 특별찬송과 임동선목사 축도로 첫 날 예배를 감사와 기쁨속에 드렸다. 첫 이전 예배의 참석자는 장년 106명 유년 47명으로 모두 153명이었다. 이날 오후 6시 첫 주일 저녁예배에는 임동선목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모두 22명의 교인이 출석을 했다. 이전 첫 주일 헌금액은 모두 132.30달러였다.

1970년 11월1일 새 예배처소로 이전한 동양선교교회는 이날부터 "한사람이 한사람씩"이라는 교인 배가운동을 시작했다. 주보(제15호)에는

> "예배 처소를 빌려주신 본 교회에 감사하오며 매사에 그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라는 알리는 말씀이 실려있다.

교회당 건립이나 새 건물로의 이전은 바로 교회의 부흥인데 이날부터 동양선교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위치는 조금 멀었지만 새 교인이 계속해서 등록을 했다.

부인회와 청년회, 학생회 조직

이민교회중 처음으로 저녁예배 시작 볼드윈힐 교회로 옮기면서 넓은 공간확보가 교회 활동 활성화를 가져왔다

새 예배장소는 성인이 1백여명 이상 앉을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친교실, 주일학교 시설 등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이 많았다. 2층 복도를 따라 가면 넓은 교육관인 예배당이 있고 이 교육관이 바로 동양선교교회의 2번째 예배처소가 된 곳이다.

볼드윈힐 미국교회로 이전하면서 처음으로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주일 낮과 주일 저녁예배 등 하루에 2번 공 예배를 드렸다. 다른 이민교회에서는 저녁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였다.

1970년 11월1일 첫번째 저녁예배를 알리는 내용이 주보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 "오늘 저녁 6시부터 저녁 집회를 가집니다. 첫날 저녁 제단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볼드윈힐 미국교회로 이전 한 후 교회에 몇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났다. 처음으로 주일예배 안내위원 명단이 주보에 실리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1일 이전 예배날 안내는 오철훈집사 내외가 봉사를 했고 11월8일 주일에는 이경철 내외가 봉사를 담당했다. 임동선목사댁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는 온 성도가 한국음식으로 오찬과 친교를 나누었으나 미국인 볼드윈힐 교회로 이전한 후에는 김치냄새가 나는 한국음식 대신 도넛과 커피 쥬스 등으로 오찬 메뉴를 바꾸었다.

교회 각 부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제일 먼저 1970년 11월15일 부인회를 조직하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명순봉 ▲부회장: 하애도 ▲총무: 원숙현 ▲서기: 오에스더
▲회계: 오상숙 ▲전도부: 정순복 ▲봉사부: 김수영 ▲미화부: 김재숙

1970년 11월29일 청년회가 조직했다.

▲회장: 장동환 ▲부회장: 김익자 ▲총무: 명호순
▲서기: 이성원 ▲회계: 강대원 ▲선교부장: 김수일
▲문화부장: 김정우 ▲봉사부장: 명인선 ▲고문 : 정하경목사

청년회는 매주일 차편이 없는 교인을 픽업하는 일을 자원해서 나섰다.

동양선교교회 학생회는 1971년 2월14일 처음 조직되었다.

▲회장: 김영민 ▲부회장: 임승향 ▲총무 및 서기: 정요한
▲전도부장: 김정희 ▲봉사부장: 최은기 ▲찬양부장: 인밀리
▲체육부장: 임승천

학생회를 인도해줄 박천흠선생이 1971년 2월12일 한국에서 도착했고 1971년 5월9일부터는 박태경목사가 중 고등부 학생회를 지도했다. 그리고 김재권 선생을 중등부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했다.

부인회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회 등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헌신적 봉사를 했다

창립 1년을 맞이한 부인회는 1971년 11월21일 정기총회를 갖고 제2기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병숙 ▲부회장 김상옥 ▲총무 김재숙 ▲서기 오에스더
▲부서기 노정열 ▲회계 오상숙
▲부회계 권숙현 ▲전도부 김보근, 이탄실
▲봉사부 김수영, 박영자 ▲후생부 김영순, 정원규
▲미화부 이정복, 이순정 ▲섭외부 한정현, 김영순
▲고문 황재열목사

초창기 임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담당했다.

청교도 생각하며 첫 추수감사 예배

1970년 11월22일 주일은 임동선목사가 이민의 땅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 교회를 개척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였다. 영국에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 처럼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은 볼드윈힐 미국인 침례교회에서 그당시 모습을 생각하며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11월22일 오전 11시 추수감사절 주일예배는 황재열목사가 기도를 드렸고, 임동선목사는 "감사의 고귀성" 이라는 제목으로 "제2의 청교도인 한국 이민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뿐"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이성원선생이 지휘하는 성가대가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356장을 은혜스럽게 불렀다. 그리고 학습 · 세례 · 헌아 · 입교 · 성찬 예배순서를 거룩하고 기쁨속에 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창립후 첫 추수감사절 예배날 학습을 받은 교인은 김영길, 박수영, 김정우, 유현근, 유창원, 김수영, 김연성, 김용희이고 김준호, 황순화, 임승혜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헌아예식은 이철우, 김준원, 한혜련, 박선영, 이기동 어린이를 위해서 베풀었다.



볼드윈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추수감사절 예배후에는 1층 친교실에서 볼드윈힐 미국인 교인을 초청, 합동으로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첫 추수감사절 주일예배에는 어른 112명이 출석했고 어린이 45명이 출석했다.첫 추수감사절 헌금으로는 감사헌금이 861달러, 주일헌금 106.65달러, 유년부가 36.05달러로 모두 1,003.70달러나 되었다.

그리고 1970년 11월25일 수요일 밤 7시30분에는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볼드윈힐 교회와 공동으로 감사절 축하 저녁예배를 처음으로 아름답고 은혜롭게 드렸다. 이날 부인회원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와서 미국인 교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맛있게 들었다.

첫 추수감사절 예배 거룩하고도 기쁨의 잔치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1971년 신년 축하예배와 부서장 임명

동양선교교회는 새로 이전한 미국인 교회당에서 1971년 희망의 새해를 맞았다. 1971년 1월 3일 첫 주일예배는 새 이민교회로서 선교와 교육, 봉사를 다짐하는 예배였다. 이날 주일예배때 명재덕장로는 신년맞이 기도를 드렸고, 김종일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의 특별찬송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교인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임동선목사는「신년의 기도」(마 7: 7-12)라는 제목으로 새해 맞이 축하 설교를 했다. 이민자로서 새 출발, 새 결심을 위한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를 했다. 주일 저녁예배때 임동선목사는 다시 「복있는 자」(시 1:1-6)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1965년부터 6년간 일하던 Parker & Son이라는 미국인 인쇄소를 그만두고 1971년 첫주부터 풀타임 담임목사로 교회와 교인, 이민목회사역만을 위해서 헌신했다.

1971년 1월 첫 주일 목회자 및 제직명단

▲ 목사: 임동선, 황재열, 정하경, 김성선, 이종만

▲ 전도사: 김효순

▲ 장로: 명재덕, 한연수
▲ 권사: 김상옥
▲ 집사: 한건수, 오해훈, 이경철, 원치항, 오철훈, 김준호, 이성호, 김수일, 김용서, 김종일, 서인준, 서찬봉, 이성구, 김순희, 김영순, 김재숙, 명순봉, 오상숙, 이정복, 이화옥, 하애도, 한정현, 이경택, 한인남

처음으로 조직된 각부서 명단

▲ 당회장: 임동선
▲ 서기: 오철훈, 부서기 김준호
▲ 회계: 오해훈, 부회계 김용서
▲ 멤버십부: 황재열(장), 한연수, 김효순, 원치항, 이성호, 김준호, 오상숙, 하애도, 한정현
▲ 교육부: 정하경(장), 이경철, 김종일, 이성구, 김영순, 이정복
▲ 주일학교: 이종만(장), 김에스더
▲ 재정부: 명재덕(장), 한건수, 오해훈, 서인준, 김용서, 명순봉, 김재숙
▲ 봉사부: 김성선(장), 오철훈, 김수일, 서찬봉, 김상옥, 이화옥, 김순희
▲ 선교부: 임동선(장), 황재열, 정하경, 김성선, 이종만, 명재덕, 김효순, 김상옥

창립 6개월만에 새해 예산 1만5천달러 1971년 이민교회 규모로는 대단한 액수였다

특별히 선교부 책임은 임동선담임목사가 직접 맡았고 협동목사들이 모두 선교부에 참여를 했다. 그 만큼 선교에 큰 비중을 두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믿고 모두가 실천을 먼저 생각했다.

1971년 예산은 모두 15,000달러로 책정했다. 창립 6개월이 된 당시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대단한 액수였다. 이중 선교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민목회를 위해 부름 받은 종

1970년대초 한인 이민교회 담임목사의 사역은 1인 5역이었다. 그야말로 강단에 올라갈 때에만 목사이지 강단을 내려오면 새로 오는 이민자를 위해 운전사, 교육자, 이민관계 상담자 등 이것 저것을 가리지않고 도와주어야 했다. 새로 이민오는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정착을 위한 온갖 시중을 다 들어 주는 희생적인 목회를 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민자를 위해서 가정 심방으로 부터 안정될 때까지 1~2년간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하지만 몸은 고달파도 새 이민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민

목회자는 큰 기쁨을 얻는다. 이민목회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깊어야 하고 저마다 홍길동과 같은 새 이민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나가야 이민목회가 성공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임동선목사는 "나는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회를 했고 주님 제일주의로 이민목회를 해나갔다"고 회상했다. 미국 초원에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고 길러서 세계로 우뚝서는 이민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이 어느 목회자 보다도 투철했다.

임동선목사는 이미 5년간 유학생활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 이민사회를 위한 목회자로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쳤다. 임동선목사는 이미 준비된 목회자로 건강과 헌신적인 봉사가 참으로 특별했으며 부름받은 목회자였다. 이민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헌신이었다. 끝까지 교인의 입장과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고, 미워하는 교인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민 목회였는데, 임동선목사가 바로 그런 목회를 해나갔다. 창립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임동선담임목사의 목회 모습이다.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회에 전념 주님 제일주의로 이민 목회를 해나갔다"

▲한건수장로(창립교인)

"임동선목사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 목사님은 고생이 몸에 배인분이시다. 없는 사람과 슬픈 사정이 있는 이민자의 고통을 항상 함께 하셨다. 병이 난 사람, 싸우는 교인 가정이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셨다. 갓온 이민자들에게는 앞으로 삶이 좋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확신을 항상 심어 주셨다."

▲스티브임장로(창립교인)

"임동선목사님은 머슴이셨다. 이민국에서 비행장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다니셨다. 목사님댁의 냉장고는 항상 텅비어 있었다. 어묵, 국수 밖에 없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대접했기 때문이다."

▲김용서장로(창립교인 · 임마누엘선교교회)

"임동선목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민사회를 위한 종이셨다."

▲김재권장로(창립후 출석)

"임동선목사님은 갓 이민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갖가지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하셨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보근권사 (창립후 출석 · 미주성산교회)

"목사님도 애쓰시고, 사모님도 애쓰셨다. 목사님은 사례도 안받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셨다. 동양선교교회 창립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았다. 사모님은 새 신자가 오면 항상 식사대접을 하셨다."

한국에서 이민자가 LA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면 공항으로 픽업을 나갔다. 그리고 아파트를 정해주고 차를 사주는 일을 며칠이고 맡았다. 자녀들의 학교등록과 운전면허를 받고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는 일까지 2달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첫 이민 정착을 돕는다. 취직을 도와주고, 자녀들 학교 입학을 시켜주고, 아프면 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고, 사업을 한다면 재정보증까지 서주었다. 때로는 유학생을 결혼 시켜주고, 아버지 노릇까지 했다.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이 바로 이민자를 위한 생활정착을 돕는 일이었다. 가게를 잘못 샀다고 호소하는 새 교인을 찾아가서 리스문제를 해결 해 준적도 여러번 있다. 한편 이민을 와서 생활 안정이 안되어서 부부간 싸움도 잦았다. 그때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밤 2시라도 부르면 임동선목사는 급히 달려갔다. 첫 이민목회는 어떻게 보면 가정사역 그 자체였다. 한번은 임동선목사가 싸우고 있는 교인집을 찾아 급히 가느라고 프리웨이 출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생명을 내놓은 목회가 이민목회였다.

『이민교회는 바로 인생 복덕방』

한국에서 오는 새 이민자들은 가장 먼저 한인교회를 찾고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이민은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은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다. 서구적인 이민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만, 정적인 삶을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처음에는 적극적이지를 못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량이민은 그 모습이 다양했다. 이민의 목적과 방법에서 더욱 그러했다. 우선 1970년대초 미국에 이민온 많은 한인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한국을 무작정 떠나고 싶어서 이민을 결정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다 한국의 국내정세가 계속 불안했고 북한관계는 항상 위협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계획이나 별 준비없이 온 이민자들이 많았다. 사전에 충분한 이민에 대한 지식이나 돈없이 무작정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적지않은 문제에 부딪쳤다. 한국 문화와 가치관과 미국 문화가 상충되면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심했다. 그리고 새 삶을 위한 도전에서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민생활은 한국에서 씨를 뿌려 자라는 나무를 갑자기 미국에 옮겨다 심은 나무처럼 (移植樹) 뿌리가 없는 생활로 외롭고 방황하기 쉽다. 그리고 문화충격을 많이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생활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고독, 갈등과 고뇌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삶의 지혜와 길을 안내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민목회의 중심을 두었다. "갓 이민온 한국인들은 생활 정착을 위해 두잡 세잡 바쁘게 뛰게 되고 교회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임동선목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이민교회의 과제와 사명을 한마디로 개척자의 정신과 개척자의 신앙으로 요약하고 목회를 해나갔다. 타고난 열심, 책임감 그리고 건강으로 이민목회를 하는데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기도와 설교 준비는 밤시간을 활용했다.이민목회 현장에는 밤낮이 없었다. 임동선목사는 「이민목회는 바로 인생복덕방」이라고 표현했다.

임동선목사는 1970년 초 이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자녀들을 미국사회에서 큰 인물로 교육시켜 보려는 목적

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민 커뮤니티의 성격을 교육을 위한 이민으로 규정한 뒤 교회의 역할을 여기에 맞추어 갔다. 그리고 새 이민자를 위해서 첫째는 신앙지도, 둘째는 자녀교육과 뿌리교육, 셋째는 직업알선과 사회적응을 위한 봉사활동, 넷째는 가정문제를 위한 각종 상담에 많은 시간을 배려했다."

임재순사모의 헌신적인 교회봉사

이민사회라는 특수 목양터에 세운 동양선교교회에는 헌신적인 성도와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았다. 특별히 임재순사모의 역할은 임동선목사 다음으로 컸고 밤낮없이 교회를 섬겼다. 교회를 창립하기 이전부터 전도부인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절대로 앞에 나서지를 않고 주일예배 준비를 자상하게 도와 드렸다. 임동선목사가 심방을 다닐 때에는 항상 동행을 했다. 처음 이민온 교인들을 자택으로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했고 기도의 사모로 새 교인들에게 큰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었다.

교역자의 아내는 전적으로 희생 될 때에 만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임재순사모는 1인4역을 맡았다. 그리고 할 수있는 일이라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맡아서 했다. 밤낮으로 교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교회가 성장하고 봉사사역이 많아졌지만 몇년째 계속해오던 바느질 공장은 쉬지않고 나갔다. 가정의 경제권을 임재순사모가 책임졌기 때문이다. 낮에는 바느질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저녁과 주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봉사를 맡았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남다른 열심이었다. 네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미국 주류사회로 뻗어나갈 수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했다. 임재순사모는 한국에서 임동선목사가 공군에 있을 때에도 자녀교육을 책임맡아 네자녀를 모두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한인 이민 여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임재순사모는 어느 교인이나 이민자에게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지도는 물론 이민상담과 정착을 뒤에서 도왔다.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임동선목사를 위해 기도로 돕는 일을 가장 보람으로 생각했다. 임재순 사모는 "내가 자녀문제를 전담하고 돈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었지만 마음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 고 창립 시절을 감사해 했다.

다른 여느 교역자의 아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정히 속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했다. 한마디의 말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 와전되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일에 조심스러워 했다. 교역자 아내는 일생이 전적으로 희생될 때에 만이 교역자 아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고 임재순사모는 기쁨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남편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4남매를 위해 갑절로 노력했으며, 재정면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은 내가 책임지고 내힘으로 해보려

고 노력했다. 목사가 물질에 신경을 쓰면 영적인 면에 지장이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 행로에 있어서 교역자 아내의 길이란 참으로 눈물 없이 못가는 길, 희생 없이는 못가는 길이다. 때로는 쓰러지고 후회할 때도 있는 길을 임재순사모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었다.

▲오해훈장로 (창립교인 · 미주성산교회)

"사모님은 직장(봉제공장)에 그대로 다니셨다. 교회 창립때 부인회 일을 많이 도와주셨고, 새로 이민 온 여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뒷받침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 임동선목사님과 심방을 같이 다니시고 참으로 힘든 모든 일을 잘 해내셔서 모두가 사모님을 고마워했다. 임동선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셨다."

기도 힘으로 1인 4역을 감당한 사모

임재순사모의 모친 장갑성권사의 권유로 이루어진 임동선목사와의 결혼, 장래를 믿고 일생을 맡긴 결정이었다

임재순사모가 동양선교교회가 창립될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1인4역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임사모는 서울신학교에서 고학을 하는 남편 임동선목사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믿고 있다.

임재순사모는 1924년 7월 태백산 줄기 깊숙한 분지에 자리잡은 소도시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보통학교를 나온 뒤 신명여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신명여학교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학교였다. 어머니 장갑성권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임사모의 신명여학교 입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고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대구 신명여학교 시절의 임재순 사모

임사모의 어머니 장갑성권사는 성경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 자신이 다녀보지 못한 학교에 자녀들을 꼭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다 해주기 원했다. 장갑성권사는 주위의 극심한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굳은 의지와 투지력으로 밀고 나가서 외동딸 임재순사모를 공부시켰다. 장권사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면서 신학생인 아들 황재열에게 빨래와 음식도 전해주며 장사도 하셨다. 하루는 "서울신학교 기숙사에서 동생(황재열)과 같이 방을 쓰는 임동선이라는 신학생이 있는데 신앙도 좋고 장래성도 있어 보이더라"고 은근히 딸에게 칭찬을 했다.

임사모의 동생 재열이도 방학중 고향 예천으로 내려와서 임동선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좋은 분이라며 결혼을 넌지시 권했다. 어머니 장갑성권사도 임사모에게 결혼할 것을 권유했다. 임재순사모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란 모험이 아닌가, 젊으니 고생하면서 기독교의 진가를

맛 볼 수 있지 않은가! 어떠한 고생이라도 견딜 수 있으므로 고학생이라도 결혼할 수 있으리라" 며칠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다. 그 신학생이 바로 남편이 된 임동선목사이다. 임재순사모가 망설일 때 어머니 장갑성권사가 결혼의 길을 택해주셨다. 1948년이었다.

임동선 신학생과 결혼한 임재순사모는 결혼과 함께 서울신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굳은 각오를 하고 신학과정을 공부했다. 임동선 신학생은 자립한다는 정신으로 신혼때부터 지게품팔이로 나섰다. 건장한 남편의 체격이었지만 배고픔을 참으며 지게품팔이를 하기에는 힘든 노동이었다. 시골에서 때때로 임사모의 어머니 장갑성권사가 얼마의 식량을 보내 주셨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때로는 굶어야 할 때도 많았다. 밥 한그릇이 절실할 때였다. 그때마다 신학생의 길은 그리스도의 군병되는 훈련기간으로 알고 임재순사모는 불평없이 견디어 냈다. 그것은 신앙의 힘이자 기도의 응답이었다.

처음으로 교회 신축과 이전 논의

볼드윈힐 미국침례교회로 이전한 4개월 뒤 임시 제직회의에서 교회 신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임동선목사는 미국인 볼드윈힐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왔다. 1971년 5월5일 제직회는 교회건축 대지 구입에 대하여 처음으로 토의했다. 제직들은 언젠가는 또다시 미국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새 교회당을 신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총 8만5천달러로 대지 구입에 3만5천달러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신축을 위한 다운페이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71년 6월6일 정기제직회는 처음으로 교회건축위원회를 구성했고 건축위원장에 임동선목사, 건축위원에 김용서집사, 오해훈집사를 임명했다. 모금 방법은 교회가 교인가정에 공식문서를 발송하고 1인당 5백달러 정도를 건축기금으로 헌금하도록 했다. 이때 교회에서는 9가와 노르만디가 만나는 곳에 있는 빈땅을 새 교회건축 부지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지가 좁기 때문에 교회를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교회 건축 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건축위원이었던 오해훈집사(미주성산교회 장로)는 "한인타운 안에 동양선교교회를 신축하고 싶은 생각으로 노르만디의 대지를 검토했으나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창립 1주년 부흥회 및 장로 장립예배

1971년 7월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서울 신촌성결교회 최학철목사를 초청,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첫 부흥집회를 가졌다. 교회 창립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강사를 초청,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교인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7월2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창립1주년 기념 장로 장립 및 취임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임동선목사가 맡았고 최창도목사는 창립 한돌을 맞는 감사기도를 드렸다. 김종일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초청강사 최학철목사는 이날 「예수의 3대 인력」(요 10:15-16)이라는 제목으로 창립 1주년 기념 주일예배 설교를 했다. 황재열목사는 교회 창립1주년 약사보고를 했고, 유복형집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독창을 했다. 이어서 명재덕장로 취임과 김용서, 한건수 두 장로에 대한 장립 안수예식이 거행되었다.

▲ 장로취임: 명재덕
▲ 장로장립: 김용서, 한건수

창립 1주년 감사 기념예배 1년간 인도해 주심과 교회성장을 갈망하는 온 교우의 기도로 하루를 보냈다

이계무장로는 신임 장로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고 고원용목사(미주선교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했다. 그리고 감리교 류형기감독이 축사를 했다. 이날 장로로 장립된 한건수장로는 장로를 대표해서 답사를 했고, 김성락원로목사의 축도로 1주년 창립행사를 은혜와 감사 축하속에 마쳤다.

창립 1주년 예배 후에는 새로 임명된 장로들이 베푼 잔치를 통해서 이민교회 1년에 대한 이야기와 임동선 담임목사에 대한 헌신적인 사역을 치하했다. 그리고 전교인이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해 주심과 앞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또한 이날 오후 7시30분 예배 때에도 최학철목사가 「육체의 남은 때를… 」(벧전 4:1-3)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념 설교를 했다.

이민목회는 희망을 주는 목회

이민교회 업무에는 예배, 성찬예식, 설교, 교육, 선교, 개인상담, 친교, 봉사, 심방, 행정 등 10대 사역이 있다. 10대 사역에 착오가 생기면 이민목회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건전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가 없다. 임동선목사는 목회사역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도록 열심이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씨름하여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이민목회자였다.

임동선담임목사가 초창기부터 갖고 있는 목회자의 자세는 다섯가지였다.

첫째는 확고한 소명감을 지니고 목회를 해나갔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울처럼.

둘째는 철저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회개의 체험, 중생의 체험, 사죄의 체험,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좋은 목회자이다.

셋째는 목회자에게는 성령충만이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할 수 없다.

넷째는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
즉 지적인 성장과 인격적 성장, 영적인 성장이 따라야 한다.

다섯째 목회자는 순교적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듯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민교회란 메마른 심령에 영적지도와 이민생활의 지도와 봉사가 중요하다.

임동선목사의 목회자상은 확고한 소명감 철저한 체험 성령충만 지적,영적 성장 순교 각오였다

임동선목사는 이민목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유의했다.
1. 무조건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2.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도록 노력을 했다.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 13: 4)

3.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임동선목사는 "이민신학은 복음적이어야 한다. 이민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쓰리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신학이 바로 이민신학"이라고 믿고 목회를 해나갔다.

안디옥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뒤에 언제나 안디옥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로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국제적인 교회였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처음 듣게된 교회이며 세계선교의 새 현장을 연 역사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다. 동양선교교회는 제2의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동양선교교회는 미래를 향해

1. 국제적 교회가 되자.

>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

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 13:1~2)

예루살렘교회를 유대인들만의 민족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교회는 유대사람, 로마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교회였다.

2.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행11:25~26)

교육은 중요하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3년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킨후 세상에 내보냈다. 안디옥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3. 금식하는 교회가 되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행13:2)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갈망한 동양선교교회,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교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다. 모세도 40일씩 금식기도를 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씩 금식기도를 했으며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 성도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4.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행 13:2)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다.(롬8:9) 성령이 없으면 주를 주라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재림의 주를 신랑 예수로 맞이 할 수가 없다. 안디옥교회는 성령이 있는 교회였다.

5.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2~3)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안디옥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교회 존립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선교를 통해서 인간개조가 될 때에 만 이 사회와 국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6. 봉사하는 교회(구제하는 교회)가 되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행11:29~30)

안디옥교회는 흉년과 가난에 고통하는 예루살렘 모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돈을 거두어 구제금을 보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는 많은 봉사를 하셨다.

7.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6)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시작은 안디옥교회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교회 가운데는 책망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 두 종류가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데교회, 라오디게아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는 칭찬을 받았다. 교회는 진실과 사랑과 일치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

8.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11:21)

안디옥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 수다한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회가 국제적이며 서민적이고 평등하고 일치한 교회였다.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함을 열망하고 계신다.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120명(행 1:15)에서 3천명(행2:41), 5천명(행4:4) 등 수가 더 심히 많아 지더라(행6:7)고 말했다.

교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병행하여 성장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모국을 멀리 떠나 이역만리 미국에 와서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이 큰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자리잡은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모범적인 안디옥교회를 본받기를 바랐다. 임동선 목사는 세계를 향하여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교육에 힘쓰고 금식하고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적 사역을 담당

「한국을 돕는 선교교회」로 이름나고

교회창립후 첫 한달간 헌금을 한국 농어촌교회와 선교기관에 전달한 동양선교교회는 계속해서 모국을 돕는 선교를 실천해 나갔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서서 한국의 선교사를 도왔고, 교인들은 숭의여자고등학교 강당 건축기금 보내기 운동을 폈다. 또한 한국을 위한 구호품 모집, 한국직업학교 지원, 한국 여학생회에 장학금 지급, 수재민 피해 돕기운동, 일선지구 교회돕기, 성탄절 선물보내기 등의 이름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 사역에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볼드윈힐 미국인 교회로 이전한 후 첫 1년동안 각종 이름으로 한국을 도운 선교와 사랑의 손길은 아름답기만 했다. 초창기 주보에 실린 모국 선교내용이다.

▲1970년 11월29일 주보 (제19호)

"우리교회 주일학생들이 지난 6월부터 한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리차드 한 선교사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1971년 1월3일 주보 (제24호)

"서울에 있는 숭의여자고등학교(교장 · 이신덕여사)에서 대강당을 세우는데 본 교회에서도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모금을 위하여 음반(거룩한 성 · 성가곡과 한국민요 10권)을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선물용으로 많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1월10일 주보 (제25호)

"모국에 보내기 위하여 구호품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3월14일 주보 (제34호)

"3월 정기 제직회에서는 스티브임 소위(현재 예비역 미군대령)가 추진 중인 한국의 실직자와 윤락여성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는 일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년부에서는 한국에서 선교중인 리차드 한목사를 돕는 일 외에 복음을 전하는 천전도사에게도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 건축기금 지원, 구호품 수집, 장학금 모금, 성탄 구호품 등 한국내 각 기관으로 사랑의 손길

▲1971년 3월21일 주보 (제35호)

"우리 교회 부인회에서는 한국의 여학생 한사람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1971년 8월8일 주보 (제55호)

"1971년 7월26일 한국 충남, 호남지방에 약 70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호우가 내렸습니다. 본 교회에서도 이런 때에 구호의 손길을 펴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원치항집사께서 구호품을 보내왔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1971년 8월15일 주보 (제56호)

"구호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국에서는 태풍으로 이번에는 영동지방에 큰 피해가 있어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1971년 8월22일 주보 (제57호)

"모국의 수해당한 동포들에게 보낼 구호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사오니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9월26일 주보 (제62호)

"본 교회에서 모국내 일선 지구에 있는 약한 교회에 매월 30달러씩 보내는 선교비는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에 배당하였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1971년 10월3일 주보 (제63호)

"본 교회가 모국교회를 돕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처음으로 부탁드렸던 일선지구인 양구교회 김말준목사로 부터 앞으로 계속 인제교회의 개척을 위하여 선

용하겠다는 소식과 인제교회 김신목사로 부터 감사의 편지와 아울러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1971년 10월10일 주보 (제64호)

"오는 성탄을 기하여 모국에 구호품을 모아 보내고자 합니다. 힘껏 노력하셔서 많이 보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임목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1971년 11월7일 주보 (제68호)

"그동안 수집 중이던 구호품은 오는 셋째 주일까지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내 교회보다 선교를,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를 먼저 생각한 이민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교회 창립 1년사이 교인은 2백명으로

4700 Santa Barbara Blvd.에 있는 미국인 Baldwin Hills Baptist Church로 이전한 뒤 교인 배가운동을 벌여나갔다. 전 교인이 열심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임동선담임목사의 뛰어난 설교와 헌신적 봉사가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교인 증가는 더욱 빨랐다. 하루가 다르게 새 교인이 등록을 했다. 1970년 10월말 임동선목사 자택에서의 예배 때까지 교인이 평균 100명이던 것이 볼드윈힐 미국인 교회로 이전한 뒤에는 200명 교인 시대가 왔다. 1971년 2월14일 주일예배에는 장년 127명, 유년 57명, 저녁 예배 39명, 학생부 17명 등 모두 240명이 출석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3월14일 주일에는 장년 136명, 유년 55명, 저녁예배 39명, 학생부 16명 등 모두 246명이 출석을 했다. 1971년 4월18일 주일에는 다시 어른 교인이 크게 늘어나서 장년만도 168명이나 출석을 했다. 볼드윈힐교회 시절 교인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창립 1년도 되기전에 교인은 2백명을 넘어섰다 은혜넘치고 가족과 같은 교회 분위기로 예배장소가 이미 좁아질 정도였다

첫째, 임동선담임목사의 말씀과 헌신적인 봉사를 교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다.

"임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은혜적이셨다. 그 당시에 누구나 한번 설교를 들으면 이민 생활에 큰 힘이 생겨났다.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두번째로는 볼드윈힐에 있는 동양선교교회가 거리는 비록 한인타운에서 멀었어도 교회 전체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각 부서가 하나씩 생겨나고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니까 모두가 열심이었다. 특별히 유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출석하기 시작했다. 볼드윈힐교회로 이전한 후 얼마가지 않아서 다시 예배장소가 좁다"고 느껴졌을 정도로 교인이 많이 출석했다고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다.

창립교인 이성원목사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인들을 청년회원들이 차로 픽업해서 예배에 모셔온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창립교인인 오해훈장로는 1971년 볼드윈 교회시절에 교인이 계속 증가한 것은 한마디로 임동선목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목회사역 때문이라면서, "그 당시 LA에는 임동선목사님만한 담임목사가 안계셨다" 고 설명했다.

볼드윈힐 교회때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이종만목사는 "동양선교교회가 미국인 교회로 이전해 온 후 교인이 크게 늘어 났다" 고 회상했다.

재정부장을 맡았던 명재덕장로는 "사위인 이종만목사가 성경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쳤고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고 옛 기억을 전했다.

"담임목사님은 교계지도자로서 본받을 만한 목회자였다"

1970년부터 1971년까지 1년간 한달에 새 교인이 8명씩 늘어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초대 청년회 회장을 지냈던 장동환집사는"창립교회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임동선목사님의 지도력으로 전교인이 함께 뭉쳤다. 임동선목사님은 비전이 특별하셨고 교계 지도자로 본받을 만한 목회자였다. 참 목회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여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적극 협력을 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30년 전 초창기 시절을 회상했다.

30년사 인터뷰때 임동선원로목사는 볼드윈힐교회 때 크게 부흥 성장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 사랑의 뜨거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 전도, 봉사,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가대



초창기 교회를 섬긴 성도들

1971년 1월3일 성가대 새 지휘자로 김종일집사를 임명했다. 김종일집사는 경희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도미한 직후였다. 한국에서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선명회 합창단을 지휘했고,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을 와서는 잠시 제퍼슨한인연합장로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김종일집사가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성가대로 자리를 잡아갔다. 볼드윈힐교회를 빌려서 사용할 때 성가대원은 15~20명 선이었으나 1971년 봄부터 30~40명으로 늘어났다. 성가대가 초창기 교회 성장에 큰 몫을 차지했다.

한건수장로는 "볼드윈힐교회로 이전한 후 잊혀지지 않는 두가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헌금을 주보 순서에 넣지않고 성전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갈 때에 각자가 헌금함에 헌금하도록 했는데 헌금 액수는 계속 해서 늘어났다. 아직 정착을 못한 이민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선교교회가 미주 이민교회로서 처음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11월1일 주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알림이 나와있다. "본 교회의 헌금은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헌금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초창기 훌륭한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이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건수 장로는"성가대를 지휘한 김종일집사는 신앙심도 높았고 성가대를 지휘할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었다" 고 칭찬을 했다. 그 당시 성가대 연습은 금요일마다 임동선목사댁인 926 S. Irolo 에서 했다. "김종일 지휘자 집사님은 너무 좋으셨다. 항상 친절하시고 연습을 하다가 틀려도 나중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해준 기억이 남아있다"고 첫 성가대원들이 말했다. 성가대원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전교인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교회 성장에 큰 몫을 차지한 초창기 성가대 예배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되었다

김종일집사는 1971년 12월5일 동양선교교회가 크렌셔로 이전할 때 사임을 하고 나성영락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옮겨갔다. 그후 1980년 한국으로 나가서 신학을 전공한 뒤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서울 영락교회 갈보리성가대 지휘자로 있다가 다시 1985년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김종일집사는 한인교회에서 음악목사로 사역하다가 1989년 1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임동선목사, 첫 남미 부흥회 다녀와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속에 마친 임동선담임목사는 처음으로 남미 부흥집회를 다녀왔다. 1971년 8월1일 임동선목사는 3주간 일정으로 브라질 쌍파울로 한인연합장로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고 떠났다. 처음으로 남미 한인교회의 부흥회를 떠나기전 임동선목사는 몇가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첫째는 알젠틴과 브라질 한인교회를 위한 부흥회 인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두번째로는 남미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동양선교교회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떠났다. 임동선목사는 한국이나 다른 어느 지역 부흥회 초청보다 먼저 남미를 선택했는데 이는 성경의 땅끝까지의 선교지로 남미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동선목사는 브라질에 도착, 쌍파울로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다음으로 한인성결교회 집회를 인도했다. 그리고 알젠틴으로 가서 다시 두곳 한인교회 부흥회를 은혜속에 마쳤다.



임동선목사의 첫 해외 부흥회 인도. 쌍파울로 김계용목사 담임의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1971년 8월15일자 주보에는 남미부흥회 집회를 떠난 임동선목사의 동정이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브라질로 부흥회 인도차 여행중이신 임동선목사께서는 오늘까지 그곳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내일 알젠틴으로 가 그곳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71년 8월29일 주보에 실린 임동선목사에 관한 소식이다.
"임동선목사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로 남미선교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화요일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 남미 브라질 · 알젠틴 · 페루 · 멕시코 여러나라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3주간 남미선교의 목적을 가진 부흥회를 마친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속에 1971년 8월22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임동선목사가 선교여행 중에는 황재열목사가 3주간 주일예배 설교를 했다.

크렌셔 치과의사협회 건물 구입 논의

미국인 볼드윈힐 침례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6월 어느날 이었다. 6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우리는 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뭡박질을 안했는데 미국인 교인이 우리가 했다고 야단을 했어요. 우리가 낙서를 안했는데 벽에 낙서를 했다고 야단 맞았어요"라고 울먹였다.
이때 임동선담임목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교회 이전을 결심을 했다.

미국인 교회를 빌려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임동선목사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

"우리도 어려서 피지배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피어나는 꽃봉오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날부터 "동양선교교회를 다른 곳

으로 이전하든가 새로 건물 하나를 살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얼마후 임동선목사는 903 S. Crenshaw에 있는 미국인 치과의사협회 2층 건물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당시 13만5천달러라는 대단한 가격으로 나와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한건수장로, 김용서장로, 한인남장로, 오해훈집사 등 운영위원과 상의를 했다. 그랬더니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시원하게 응답을 하지 않았다. 아직 이민초기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동을 하고 있었다. 부인들은 주로 바느질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였다. 그때 새차를 가진 성도나 더우기 자기집을 가진 성도는 한 가정도 없었다.

임동선목사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으로 내자"고 임재순사모와 네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 "미국에 처음 온 청교도들도 교회를 먼저 짓고 다음에 집을 마련 했으니 우리가 이 집을 팔아서 1만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드리자"는 요청에 온 가족이 기쁘게 찬성을 했다. 임동선목사에게 큰 힘이 생겨났다. 처음 집을 살 때 소개해 주고 커미션까지 내주었던 죠지 최 국제부동산 사장에게 다시 집을 팔겠다고 내놓았다. 하지만 집이 빨리 팔리지를 않았다.

임동선목사는 며칠간 눈물로 금식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이민자에게 예배 처소를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언제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가대가 맘껏 연습 할 우리의 교회당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밤낮으로 드렸다. 그리고 전체 교인들도 한마음으로 철야기도회를 시작했다.

자유롭지 못한 2세들의 교회생활 미국인교회 더부살이에서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계기였다

임동선목사는 크렌셔건물 구입과 이전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70년 11월1일 볼드윈 교회, 2층 교육관 (150명 수용)으로 이전하고 1년쯤 되니 꽉 차서 부득이 이전 장소를 찾아야 했다. 특히 6세쯤 되는 소녀가 그 교회 백인 신자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때에 큰 자극을 받고 속히 예배 장소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다. 재정상 교회 신축은 불가능했다. 그때 장소를 찾던 중 903 S. Crenshaw Blvd의 백인 남가주 치과의사협회 회관건물이 13만5천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여러 번 회의 끝에 3만5천달러 다운하고 나머지는 매월 페이먼트 하는 조건으로 구입했다. 장소도 한인타운이고 2층건물로 아래 좌석이 150명, 2부로 예배를 드리면 300명 수용이 가능하고 2층의 교육방 5개와 부엌, 주차 50대…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는 적합했다. 그 때 모성도의 한 가정이 자기 집을 내 놓은 것이 동기가 되어 모두 힘써 구입했고, 자기 집을 바친 가정은 지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새 이민교회로 처음 자체건물 구입

볼드윈힐 미국인 침례교회로 이전한 후 10개월쯤 지나자 30~40대의 젊은 성도들이 많이 출석했다. 그리고 매주일 이민오는 가정들이 새 교인으로 등록했다. 점차 새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볼드윈힐교회 2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엔 장소가 너무 좁았다. 빌려쓰던 미국교회는 한국 교인이 크게 증가를 하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뜻을 알려왔다.

1971년 10월10일 제직회는 교회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축헌금 구좌를 개설했다. 이때부터 임동선목사는 1971년 12월5일 크렌셔에 있는 미국인 치과의사협회 건물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날까지 볼드윈힐 강대상에서 눈물의 기도를 밤낮으로 드렸다. 전교인들이 나서서 기도와 건축 모금을 위한 헌금을 시작했다. 11월7일 미국인 친구가 처음으로 건축헌금을 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모두를 건축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헌금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1971년 11월21일… 교인 이수봉씨는 건축헌금으로 금일봉 기탁
1971년 11월28일… 추수감사절 특별헌금 1,130달러를 건축헌금으로 전달, 김익자씨는 새 교회에 대형 시계 기증, 유천근 유행원씨가 새 교회에 의자를 기증, 김주영집사가 새 교회에 전화 한 대를 기증.

자기집을 가진 신자가 하나도 없던 이민 초창기 시절 자체 교회를 갖게 해달라는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1971년 11월21일자 주보에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 실려있다.

>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넓은 예배 처소를 주십사라고 기도한 일이 응답되어 내 달 첫 주일부터 다음 장소로 옮겨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 새교회 주소: 903 S. Crenshaw Blvd."

한국에서 회사 경영하는 옛 사병에 전화

임동선목사는 1971년 9월 사천비행장 공군 군종실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한국의 손석효사장(현재 한국 아가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석효사장은 천안 성결교회 출신으로 별명이 맥아더장군으로 불렸던 사병이다. 공군에 복무 당시 임동선 공군 군목은 손석효 사병이 정비병과에 있는 것을 인사국에 말해 군종과 사병으로 특기를 바꾸고 군목실에 복무를 하도록 해주었다. 공군 군종실로 온 손석효사병은 주일예배 때 피아노를 치고 공군기지 유치원의 교사 일을 하는 등 믿음이 좋고 무슨 일에나 열심이었다.

손석효 사병은 제대후 사업을 시작했다. 몇년이 지난 후 앙골라 모피와 실을 염색하는 공장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였다. 임동선목사는 무조건 "내가 교회를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1만달러만 꾸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전화를 받은 서울의 손석효사장은 "목사님께 돈을 스

미또모 은행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즉각 대답했다. 손석효사장은 곧바로 1만3천달러를 송금해 왔고 1천달러는 특별히 새 교회당을 사는데 헌금으로 내겠다며 함께 보내왔다.

손석효회장은 "임동선목사님을 목사님 중의 목사님"으로 부르며 존경한다. 사천비행장으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임동선목사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다. 임동선목사는 크렌셔교회를 구입한 이후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손석효회장은 2001년 4월 한국에서 30년사를 위한 인터뷰 때

> "그 당시 나의 신앙으로는 돈을 빌려 줄 수가 없었다. 내가 임동선목사님의 전화를 받고는 평생 처음으로 부탁을 하시는데 꼭 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방법만을 물어 보았을 뿐이다.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제와서 생각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생각뿐이다.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전화 한마디에 선뜻 거금을 송금해준 옛 부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었다

손석효회장은 1999년에 상트페드로 구락부(전 러시아 레닌그라드)에서 전 공군 군목감실 차장으로 일하던 김재경목사가 필요로 하는 신학교 건물 구입을 위해 20만달러라는 거액을 헌금했고, 또다시 2001년 동양선교교회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 구입에 15만달러를 헌금했다. 2001년 6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월드미션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임동선목사가 남미 브라질 부흥회 때 받아온 사례금과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한 1만5천달러 등 다운페이를 할 돈이 마련되었다. 이때까지도 장로와 집사 등 몇 명은 너무 무리하게 새 교회당을 산다고 반대를 했다.

다운페이를 하고 13만 5천달러의 첫 교회당 건물을 구입했다. 이민사회에서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으로 성전을 구입한 것이다. 전교인들은 너무나 기뻐했으며 연세가 많은 권사나 일반 교인들은 내 교회 성전에서 언제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좋아했다. 그후 새 성전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에 더 많은 권사와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 교회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동양선교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1971년 12월 5일 크렌셔 새 성전 입당예배

임동선목사가 새 이민과 함께 코리아타운에서 교회를 창립한지 1년반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성전을 구입했다. 아름다운 2층 건물로 올림픽과 크렌셔가 만나는 한인타운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이 안전해서 교회 위치로서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 당시

출석인원은 장년이 161명, 유년부 48명, 학생부 23명 등 모두 230명이었다.

1971년 12월5일 주일 은혜와 감사 속에 크렌셔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오전 11시 주일 대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집」(왕상 8:27-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처음으로 새 성전을 구입해 이사한 크렌셔 교회 건물

임동선목사는 이날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민교회로서 자체 건물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뿐"이라는 내용으로 입당설교를 했다. 그리고 교회를 구입하는 데에 한마음으로 참여를 한 모든 제직과 교인들,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입당 예배후 청년부 회장 장동환집사가 다과회를 베풀었고 전교인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후 6시30분 저녁예배때에는 김상규목사가 「화평한 교회」(고전 1:1-4)라는 제목으로 새 성전입당을 감사하는 설교를 했다.

창립 1년반만에 자체 교회 마련 1971년말 은혜와 감사속에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는 새 교회에 하몬드 올갠을 기증했다. 교인들은 계속해서 건물 구입에 따른 헌금을 했다. 특별히 1971년 12월19일 제직회는 22,350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12월26일 전교인들은 4,387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제직과 일반교인이 드린 헌금은 모두 27,287달러로 부족액은 5,713달러였다. 동양선교교회는 1972년 2월14일 약정된 중도금을 모두 지불했다.

1972년 3월 12일 LA 카운티 당국으로 부터 903 S. Crenshaw Blvd.에 있는 교회당의 소유증서를 전달 받았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을 받아"

크렌셔에 새 교회당을 구입하고 입당예배를 드린 후 온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황재열목사

"크렌셔 새 교회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 가깝게 자리잡고 있어서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와 성장에 대한 큰 축복을 받았다. 교회구입 전후에 임동선담임목사의 수고는 참으로 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나서서 다 처리하시는 등 너무나 열심이셨다."

▲한건수장로

"처음 치과의사협회 건물을 교회당으로 구입하기로 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페이먼트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를 구입한 뒤에는 북쪽, 차로 2시간 가는 맥파랜드에 있는 유농장에 가서 무우, 배추를 가져다가 김치를 만들어 파는 등 참으로 열심인 교인들이 많았다. 처음 걱정보다는 크렌셔 교회로 이전한 뒤에 동양선교교회는 더욱 발전하는 축복을 받았다."

▲김용서장로(임마누엘선교교회 원로장로)

"나는 처음에는 교회를 사는 데 반대를 했다. 교회를 살때에는 시험에 들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달에 1,100달러씩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임동선목사님은 원래 그릇이 크신 분이다. 그런 분이 추진해 나가시는 데에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동선목사님은 참으로 열심이셨고 크렌셔 새 교회당을 구입해 이사온 뒤에도 하루가 짧다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셨다."

어려움이 많았던 첫 건물 구입 그러나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오해훈장로(미주성산교회)

"볼드윈힐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된것이다. 크렌셔 교회로 오면서 교세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 이유는 임동선목사님의 말씀이 좋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서들이 참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다."

▲임승향집사

"크렌셔 교회로 이전한 뒤에는 모두가 기뻐했다. 우리의 자체 교회를 가졌다는 마음과 좋은 프로그램을 맘껏 펴 나갈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크렌셔교회때부터 동양선교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다."

좋은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 지도

새 교회 건물로 이전하면서 부인회는 유치원을 시작했다. 이때 유치원에는 약 30여명의 교인 자녀들이 나와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배은산, 노영자 두 선생이 수고를 했다.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주차시설 등으로 인해서 얼마 후에는 유치원보다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나갔다. 초창기부터 어린이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71년 12월5일 첫 주일학교 교사 명단

▲교장 :임동선

▲부장 :박천흠

▲교사 :김상규, 윤순환, 주성진, 함순화, 임승향

새 교회로 이전한 뒤에 청년회 회원들이 더욱 늘어났다. 특별히 젊은이가 많았는데 USC 재학생들이 많이 출석을 했다.

1971년 12월5일 청년회는 총회를 갖고 새 임원과 각부 부장을 선임했다.

▲회장: 장동환	▲부회장: 유천근, 김익자	▲서기: 이성원
▲회계: 강선희	▲전도부장: 김종성	▲봉사부장: 김시용
▲사교부장: 심재현	▲문화부장: 오철훈	▲총무: 노수정

새 교회 이전을 계기로 유학생 등 청년회원이 크게 증가, 주일학교 학생지도에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청년회 총무 노수정집사(현재 장로)는 크렌셔 새 교회건물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직접 맡았다. "새 교회를 산 기쁨과 이민교회로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다. 특별히 주변의 건물로부터 동양선교교회를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동양선교교회는 1971년 12월1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교회 비영리단체 챠터인가(21260호)를 받았다.

신앙부흥과 화목단결을 교회 목표로

크렌셔 새 교회로 건물을 사서 이전한 뒤 1972년 1월2일 신년 첫 주일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날 오전 11시 주일 예배때 임동선담임목사는 「새해와 새사람」(엡 4: 17-32) 이라는 신년 축하 설교를 했고 오후 6시30분 저녁예배 때에는 「새해에 새마음 가짐」(고후 5:16-20)이라는 설교로 전교인들에게 "승리로 한해를 이끌어 나가자"는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전했다.

1972년 교회 목표로는 신앙부흥, 화목단결, 배가운동, 사회정의 실현 등 4가지를 정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질적 부흥을 위하여", 2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3월 "더욱 큰 은혜를 받자"로 정하고 전교인이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초창기 동양선교교회의 제직들

1972년 처음으로 시무집사를 임명했다.

▲남자집사 … 오해훈, 박천흠, 김주영, 오철훈, 이성호, 서찬봉, 노상도, 노수정, 장동환, 심재현, 김준호

▲여자집사 … 김재숙, 한정현, 오상숙, 김병숙, 노탄실, 문유심, 김보근, 박영자, 박영희, 강금자

1972년 목회자및 각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원부 … 황재열(부장), 노수정(서기), 오철훈, 심재현,박환철(성가대 지휘), 김병숙, 김재숙, 강태량, 노탄실(부인회)
▲재정부 … 김용서(부장), 오철훈(서기), 한건수, 김주영, 노상도
▲교육부 … 한건수(부장), 김상규, 김준호, 박천흠, 장동환, 오해훈, 오상숙, 한정현
▲봉사부 … 박천흠(부장), 김상옥, 이성호, 문유심, 노수정, 서찬봉, 김복근, 박영자, 박영희
▲선교부 … 임동선(부장), 황재열, 김용서, 한건수, 김상옥, 김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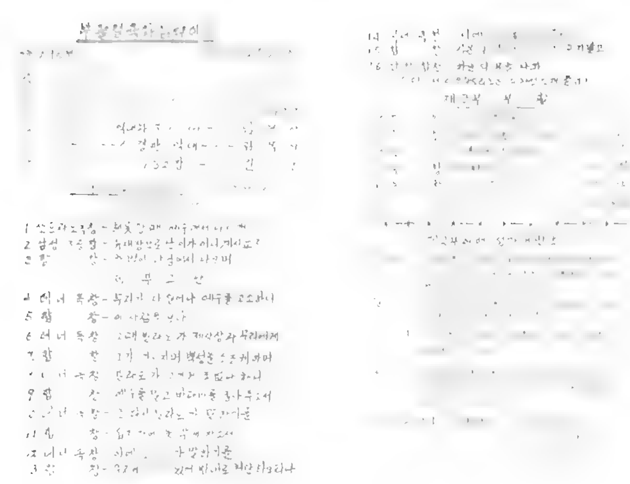
1972년 3월12일 처음으로 장년 성경공부반을 시작했다. 장년 성경공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로 임동선담임목사가 가르쳤다.

이민교회 성가대로는 음악수준이 참으로 높고 은혜스러웠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이었다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로 큰 은혜

크렌셔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 박환철집사가 새로 성가대 지휘자로 부임했다. 그 당시 박환철 새 성가대 지휘자는 UCLA에서 음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총무에는 심재현집사를 임명했다. 1972년 3월26일 동양선교교회 2부 성가대는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민교회 성가대로서는 음악 수준이 참으로 높고 은혜스러웠다. 그 당시 성가대 대원 및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휘 … 박환철, 반주 … 배은산
▲소프라노 … 노정열, 장영실, 최혜산, 김명자, 정성주, 함순화, 정신혜, 황규희, 이효일, 조누리, 윤공순, 김지자, 김수영
▲앨토 … 김향숙, 임승혜, 심미자, 김영애, 김경순, 명영애, 최혜정, 이순자
▲테너 … 김경학, 한우영, 김종성, 김동규, 명호순, 김여근, 김일수
▲베이스 … 김광돈, 조규훈, 노동준, 정영석, 심재현, 이성원, 임승광, 배신일, 윤순환, 염충엽, 김명균, 김준호



1972년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순서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초창기 성가대원들의 근황은 다음과 같다.

▲박환철장로: 현재 서남장로교회 성가대 지휘
▲배은산집사: 선교사로 북한선교 사역 담당
▲심재현장로: 한국으로 영주귀국, 조각가로 광주 시민공원 작품 제작
▲함순화권사: 권사로 임직된 후 소천
▲김향숙사모: 교육부 조성신전도사(현 침례교회 목사)와 결혼
▲임승혜집사: 이신우박사와 결혼 한국 거주
▲김여근장로: 장로 임직후 소천
▲배신일집사: 소천
▲김명균장로: 현재 크리스찬헤럴드 발행인(미주성산교회)
▲김준호장로: USC에서 박사학위 받은 뒤 뉴멕시코주 알바커키 거주
▲김광돈장로: 시무 장로로 사역
▲이성원목사: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
▲장영실집사: 김성곤장로와 결혼. 현재까지 성가대원으로 봉사

유농장 배추로 김치 만들어 기금 모금

유농장으로 무우 배추를 뽑으러가던 모습은 옛 추억이 되었다

1972년 1월16일 중가주 맥파랜드(Mcfarend)에 사는 유복형집사 부부가 교회건축 기금으로 소 2마리와 무우 5트럭 기타 채소 건조물을 전달했다. 그 당시 유농장 주인 유복형집사는 LA에서 150마일 떨어진 중가주 맥파랜드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소농장과 채소농장을 경영했다. 그는 아현성결교회 출신으로 임동선목사가 전도사로 아현성결교회 학생을 가르칠때 배운 학생이다. 그리고 임동선목사가 공군 군종감으로 숭실대학을 다닐 때에는 함께 이 대학을 다녔다. 크렌셔 교회 건물을 구입한 후 재정이 어려울때 임동선목사와 사모, 여전도회 회원들은 주말만 되면 교회에 모여 자동차를 몰고 유농장에 무료로 제공하는 배추 무우를 싣고 왔다. 채소를 싣고 오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전도회 회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김치를 담갔다. 한번 김치를 담글 때에는 100병이 넘은 적도 있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밤늦게까지 마늘을 까고, 고추를 찧는 수고를 기쁨으로 맡았다. 임재순사모는 무우와 배추가 필요한 교인 집으로 직접 배달까지 해주었다. 이때 김치를 만들어 팔면서 들어오는 수익금도 적지 않았다.

1972년 봄 교인들이 유농장에서 무료로 가져온 야채를 판 총 수익은 850달러나 되었다. 교회측은 유복형집사에게 씨앗값 200달러를 다시 주었다. 유농장에서 무우 배추를 가져다가 파는 일은 1974년 4월7일까지 계속되었다. 유복형집사는 1974년 1월 한인타운에 농장야채 직매소를 설치한 적도 있고 이때에 동양선교교회에 피아노 한대를 기증했다. 현재는 미국교회 장로로 중가

주 Earlimart 지역에서 벼농사 및 밀농사를 짓고 있다.

초창기 교회의 한 모습으로 유농장의 무우 배추를 가져다가 김치를 만들어 팔 당시를 이야기했다.

▲김주영장로(창립교인 · 나성영락교회)

"여집사님과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치를 만들어 팔았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김치를 담그던 모습이 생생하다."


중가주 "유농장"에서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배추를 뽑고 있다.

▲오해훈장로(창립교인 · 미주성산교회)

"유복형집사가 농장을 처음 시작했는데 잘되지를 않았다. 농사지은 것 중에서 무우, 배추를 무료로 많이 주어서 김치를 담그고 교인은 물론 마켓에 까지 팔아서 건축 기금으로 유용하게 썼다."

▲스티브임장로(창립교인 · 동양선교교회)

"그 당시 일본인들이 하와이에서 재배한 무우 배추를 가져다가 팔았다. 그러나 가격이 비쌌다. 마침 유농장에서 무우, 배추를 무료로 기증해서 교인들이 김치, 장아찌 등을 만들어 팔았는데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여전도회에서 크게 수고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임재순사모는 무우와 배추가 필요한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수고까지 맡았다

▲김재권장로(창립교인 ·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목사님과 함께 유농장에 가서 채소를 실어다가 열심히 김치를 담그던 일들은 신앙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김보근권사(창립교인 · 미주성산교회)

"나는 유농장에 많이 다녀왔다. 유농장에 가면 무우 배추를 가득 실어준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 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들이 김치를 담그고 올림픽 마켓에 팔때 임재순사모님과 함께 돈을 받으러 다녔다. 사모님이 직접 다니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민망했다. 다른 교회에서까지 김치를 사러 우리 교회에 왔다."

새 성전에서 창립2주년 기념예배

1972년 7월25일부터 공주성결교회 차보근목사를 초청, 창립 2주년 부흥집회를 열었다. 부흥강사 차보근목사는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전 교인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새 성전 마련후 가진 첫 부흥회로 차보근목사의 설교가 참으로 좋았고 온 교인이 감사해 했다.


1972년 창립 2주년 기념예배 때 임동선목사

차보근목사는 축복받는 비결을
첫째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하므로
셋째 십일조 헌금을 잘 드리므로
넷째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흥회때에 설교를 했다.

김재권장로(초기교인 · 동양선교교회)는 "1972년 크렌셔교회때 차보근목사님의 부흥회는 너무 은혜스러웠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임했다.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창립 2주년을 맞아 1972년 7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기념 및 장로 장립예배를 온 교우의 축하 속에 드렸다. 임동선목사 사회로 진행된 창립기념예배는 성가대의 「주를 찬양하라」는 합창과 맥코이목사 가족이 가족창을 불러 온 교우에게 은혜가 되었다. 이날 김계용목사는 「참 교회의 모습」 (행 2:1-4)이라는 제목으로 창립 2주년 기념 설교를 했다. 이어 한건수장로의 교회약사보고가 있었고 임동선목사 집례로 김주영장로와 박천흠장로의 장로장립식을 가졌다.

새 성전 마련후 첫번째로 가진 차보근목사 초청 부흥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장로장립: 김주영, 박천흠

최창도목사는 신임장로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고, 변홍규목사는 본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했다. 예물 증정과 답사에 이어 류형기감독의 축도로 장로 장립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고 두 장로는 더욱 충성스런 봉사를 온 성도 앞에서 서약했다. 예배 후에는 신임 장로가 베푼 점심을 함께 들면서 지난 2년간 이처럼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처음으로 14개 구역 조직, 구역장 임명

903 S. Crenshaw에 있는 새 건물을 구입한 동양선교교회에는 갓 이민 온 교인들이 계속 새신자로 등록을 했고 유학생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 4개월째가 되는 1973년 2월18일 주일예배에는 장년이 모두 205명, 저녁예배에 장년이 86명, 주일 학교 및 중고등부 학생들이 41명 출석했다. 매주일 3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빠르게 성장했다.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친목과 성경공부, 이민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교회 봉사 등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모두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구역장을 임명했다. 이러한 구역 조직은 새 이민교회로서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 시작했다.

1973년 2월18일자 주보에는 14명의 첫 구역장 명단이 실렸다.

김상옥, 강금자, 오해훈, 박천흠, 김병숙, 김준호, 노상도, 노동준, 김치용,
김용서, 홍순웅, 한건수, 김주영, 박환철

각 구역장은 매주 구역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혹 유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목사에게 연락했다. 구역장은 10~20명으로 조직된 구역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매주 한두차례씩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교회와 이민생활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임동선담임목사와 총무부, 교육부, 선교부장과 오봉운목사 등이 구역조직과 활동을 연구해 나갔다. 이때 구역회는 친목과 교인간의 연락, 구역예배를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신앙이 좋고 활동성있는 사람을 구역장으로 임명했다.

오해훈장로(미주성산교회)는 "구역은 올림픽가와 크렌셔 교회지역, 다운타운 지역, 밸리지역, 윌넛과 하시엔다를 중심한 동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구역예배 인도는 임동선목사, 황재열목사, 김상규목사와 한건수장로, 김주영장로, 오해훈장로 등이 맡았다.

10여명의 교회 청년들 미군에 입대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1970년대는 미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많았다. 특별히 미군에서는 새로 이민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자원입대 케이스로 받아들이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다.

1971년 3월2일 임동선목사의 장남 임승광이 미육군에 입대했고, 월남전까지 참전했다. 그리고 3년 복무 후인 1973년 12월23일 제대를 했다. 유학생중에는 1971년 12월 처음으로 이도승, 그리고 1972년 1월 김재권, 이성원이 미군에 들어갔다. 그리고 청년 교인인 조규훈, 심영보, 심창보는 1973년 9월에 입대했다. 1974년 1월20일 김기찬, 2월17일에는 송준, 3월24일에는 김기선이 각각 미군에 입대했다. 1971~74년까지 조인권 등 모두 10여명의 교인이 미군에 입대, 한국 청년으로 미국의 자유와 국방의 일익을 담당했다. 특별히 갓 이민 온 소수민족의 청년들이 미육군에 입대를 한 후 3년간 복무를 마치면 정부에서는 대학교육, 직장 알선, 영주권 신청 등의 기회를 부여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항상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드렸다, 또한 군에 복무 중인 교인들은 교회로 자주 문안편지와 헌금을 보내와서 주보에 게재가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중등부교사로 봉사하다 군에 가있는 김재권집사에게 1973년 5월 31일 "개인외교와 천국대사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확립하라"는 격려 편지를 보낼 정도로 자상함을 보였다.

임재순사모는 장남 승광이가 미군에 입대할 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미군에 입대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간호사였던 전문직 교인들이 이민 온 뒤 미국 간호사 시험(RN)에 합격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여성교우 중 1974년 2월3일 윤공순, 4월7일 김송실, 김영애 그리고 5월19일에는 이길복, 임옥자, 김영임, 김종남, 이경자, 김사정, 전규돌 등이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

격하는 기쁨을 가졌다. 교인 간호사들은 1년에 한두차례 건강 검진으로 교회에 봉사를 했다. 그리고 간호원회를 구성하고 교인을 위한 무료건강 행사를 주최했다. 초창기부터 전문직교인들이 교회봉사에 열심이었다.

임동선목사, 한국에 나가 부흥회 인도

20년만에 다시 동래온천교회를 방문 감격어린 부흥회를 인도했다

임동선목사는 1972년 가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1972년 9월18일 떠났다. 처음 차보근목사가 시무하는 공주성결교회에서 9월 25일~30일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그리고 10월 2일~4일 상도동교회, 10월 9일~14일 신촌성결교회, 10월 23일~26일 청주, 10월 27일~30일 인천 그리고 10월 31일~11월 3일 한국전쟁후 임동선목사가 목사안수를 받고 시무를 했던 부산 동래온천교회에서 감회어린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임동선목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한 후 다시 20년만에 피난시절 목사안수를 받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던 동래온천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그 교회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1월 12일~15일 군산교회, 11월 16일~19일 대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11월 22일 무사히 돌아왔다. 임동선목사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정진경목사(서울신학대학 학장), 변홍규목사, 황재열목사, 김순일목사(태국 선교사), 최성곤목사(초대 공군 군목실장), 황규석목사(전 연합총회 총무), 김상규목사 등이 주일 설교를 맡았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71년 여름에는 브라질 선교 집회를 다녀왔고 1972년에는 한국에서 약 2달에 걸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 이때부터 한국과 남미선교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는 「선교하는 세계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와 준비를 했다. 선교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가 임동선목사였고 한국과 남미선교를 먼저 시작한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이다.

새 이민교회로 교회 버스를 구입

크렌셔 교회 시대에 동양선교교회는 다른 한인교회보다 앞서가는 일들을 많이 시작했다. 날로 늘어나는 새 이민교인과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 버스를 구입하는 운동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다.

소형버스 구입하는 운동에 참여한 기관과 교인 명단이 1972년 4월23일 주보에 실렸고 학생부, 청년회, 장동환, 조인식, 한건수, 노상도, 박환철, 유천근, 김익자, 심재현, 김상규, 부인회, 무명, 황복수 등이 버스구입 헌금을 했다.


주일 예배때 교인 픽업을 위해 구입한 교회 밴

처음 교회버스는 당시 노수정집사가 글렌데일에 있는 딜러에서 사용하던 Chevy Van을 1천달러를 주고 사왔다. 이때 교인들이 교회버스 구입을 위해 낸 성금은 모두 824달러였고 1972년 5월14일 구입을 했다. 하지만 이 버스는 고장이 자주 났다. 1973년 8월5일 정기당회는 새 교회버스를 다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김주영장로와 노수정집사에게 의뢰를 했다. 새로 산 교회버스는 1974년도 Dodge Van으로 구입가격은 5천5백달러였다.

교회버스는 주일예배 전후 올림픽과 버몬트 지역을 정기운행 코스로 정하고 오전과 오후 두차례 교인들을 픽업했다. 주일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때에 운행을 했다. 또한 교회버스를 출퇴근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산 버스 좌우 양쪽에는 동양선교교회라고 크게 쓰고 다녔는데 이 버스가 코리아타운을 순회하며 교인들을 픽업할 때에는 다른 한인교회에서 부러워했다.

새 교회버스를 산 뒤에 교인들은 잔금 지불을 위해서 이종택, 편애진, 이도승, 한매, 박천흠, 홍순웅, 최중관, 김중완, 배석원, 박환철 등이 버스 헌금을 드렸다.

새 이민교회로는 처음으로 교회버스를 샀다 동양선교교회라고 쓴 버스는 교인들을 픽업하는데 사용

1972년 12월3일 교회버스 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안내를 했다.

1. 교회버스는 타인에게 대여치 않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 대여한다.
2. 개인이 쓰는 경우에 사고가 나면 사용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3. 교회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부담을 한다.
4. 관리는 노수정집사가 한다.

김주영장로(초창기교인 · 나성영락교회 원로장로)는"교회버스를 LA에서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으로 구입을 했다. 나와 노수정집사가 닷지 딜러에 헌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만 길에 서버렸다. 겨우 운전을 해서 딜러에 갔는데, 헌 버스를 후하게 쳐주었고 새 버스 가격을 크게 낮춰줘 너무나 감사했다. 새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까지 왔다. 후에 동양선교교회라고 양쪽에 크게 쓰고 다녔는데 선교와 교회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해했다.

장년 성경공부와 철야 기도회 시작

이민교회로서 교인들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성경공부 시간을 마련했고 그 첫번째로 장년 성경공부반을 시작했다. 1972년 3월12일 주일부터 시작된 장년 성경공부반은 임동선목사 황재열목사와 교역자들이 담당했고 성경공부 시간은 주일예배가 시작되기전인 오전 10시~10시 50분까지 였다. 1972년 7월16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철야기도회를 시작했고 매주 일요일 아침 5시부터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들이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다.

창립 3년만에 주일 예배를 2부로 드렸다 주일학교도 2부 예배로 나누는 등 자체건물을 갖고 급성장했다

8월20일부터 주일예배 때에 헌금순서를 처음으로 주보에 넣었다. 교회가 창립된 1970년 7월26일부터 2년간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하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헌금을 하도록 해왔었다.

1972년 8월20일 주보에는 "오늘부터 종전의 연보방법을 변경하여 수전대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배 의식을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실려 있다.

매주일 예배 때 400여명 이상이 출석하는 이민교회로 급성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 드리기 시작했다. 2부제 예배의 여론조사 결과 57세대 중 42세대가 찬성해서 1973년 3월부터 실시했다. 이민교회로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이었다. 그 동안 주일예배는 오전 11시에 그리고 주일 저녁예배는 오후 6시 30분 두차례 예배를 드렸는데 1973년 3월25일 주일부터 1부예배는 오전 9시~10시까지, 2부예배는 오전 11시~12시까지 드렸다. 2부제로 예배를 드린 첫날 교인의 출석은 1부에 장년 67명, 2부에 장년이 214명, 저녁예배에 장년이 78명, 주일학교 40명, 중고등부 34명, 새벽기도 15명 등 모두 448명이 출석을 했다. 그리고 주일헌금은 231달러, 감사헌금 162달러, 십일조 80달러, 건축헌금 360달러 등 모두 833달러를 헌금했다.

1973년 9월2일부터 새벽기도회를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간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기도회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예배를 드렸다. 자체성전을 가진 감사 속에 새벽예배에 모두가 열심히 참석했으며 한국에서 처럼 수요예배에도 많은 성도가 출석을 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자 1973년 9월2일부터 주일학교도 2부제로 수업을 했는데 1부는 오전 9시~10시, 2부는 오전 11시~12시까지 예배를 드렸다.

헌신적인 각 부서 책임자 임명

한인타운 안에서 자체 건물을 가진 초교파 독립교회로 그 이름이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특별히 임동선담임목사의 은혜와 용기를 가득 심어주는 설교,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각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교회는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동

양선교교회였다. 청년회, 부녀회, 성가대, 주일학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1973년 1월7일 임명된 집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 노상도, 오해훈, 오철훈, 노수정, 김준호, 심재현, 장동환, 홍미현, 김택일, 박환철, 김광돈, 김중완, 홍순웅, 김덕영, 김치용, 노동준, 명호순, 김재권, 이성원

▲여: 오상숙, 한정현, 김재숙, 문유심, 노탄실, 김병숙, 김보근, 강금자, 박영자, 김영희, 하애도, 김명숙, 김경순, 황관오

▲권사: 김상옥, 장갑성, 김재순

주일학교

▲장년부: 김상규

▲고등부: 윤순환

▲중등부: 김재권

▲유년부: 김상규, 윤순환, 조성심, 노명자, 오에스더, 함순화, 김종숙, 염미영, 임승향

헌신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직들이 바로 초창기 교인 모습이었다

1973년 1월14일 제직회 회계에 노수정, 서기에 김광돈집사를 임명했다.

▲총무부: 김상규(장), 김재순, 노탄실, 강태량, 김명순, 심재현, 김광돈, 김덕양, 명호순

▲선교부: 김용서(장), 이경택, 장갑성, 김택일, 김병숙, 하애도, 장동환, 이성원

▲교육부: 박천흠(장), 손소봉, 오해훈, 홍미현, 한정현, 오철훈, 박환철, 노동준, 김재권

▲재정부: 한건수(장), 김주영, 문유심, 김보근, 김병숙, 오해훈, 노수정, 홍순웅

▲관리부: 김주영(장), 노상도, 김상옥, 김준호, 김중완, 김시용, 김재숙, 오상숙, 박영자, 김영희, 황관오

부인회는 1972년 11월19일 총회를 갖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상옥 ▲부회장: 손소봉 ▲총무: 김재숙 ▲서기: 김영희
▲회계: 박영자 ▲전도부: 김재순 ▲봉사부: 김보근 ▲섭외부: 강금자
▲미화부: 김경순

청년회는 1972년 12월17일 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준호 ▲부회장: 정영석, 김향숙 ▲총무: 오철훈
▲서기: 김영애 ▲회계: 명호순 ▲전도부: 노수정, 장영실
▲문화부: 이성원, 심미자 ▲사교부: 김경학, 정성주
▲봉사부: 원상훈, 임승혜 ▲체육부: 배신일, 노정열 ▲음악부: 심재현, 최혜산

저녁 성가대(3부)는 1973년 1월28일 다음과 같은 명단을 주보에 발표했다.

김경학, 송은섭, 김준호, 정영석, 한정현, 김수영, 한우영, 박영자, 김향숙,

김영희, 김영호, 임승혜, 김광돈, 노수정, 최혜산, 김영애, 임승광, 장영실, 김경순, 김재권, 오해훈, 김정숙, 윤순환, 오상숙, 임승향, 박환철, 김재숙, 함순화, 심재현, 염미영, 심미자, 염경업

청년회는 1973년 11월11일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오철훈집사 ▲부회장(남): 김명균집사 ▲부회장(여): 김향숙
▲총무: 조성신 ▲회계: 명호순, 오미례 ▲서기: 조인식, 장영실
▲전도부: 김종성, 편애진 ▲음악부: 김광돈, 박환철
▲문화부: 이성천, 최혜산 ▲체육부: 서일성, 김덕영
▲봉사부: 함순화, 임승혜 ▲친교부: 심재현, 허선숙

부인회는 1973년 11월11일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재숙집사 ▲부회장: 김경순집사 ▲총무: 오상숙집사
▲서기: 조동희 ▲회계: 김희숙 ▲부회계: 황관오
▲전도부: 손소봉 ▲봉사부: 박영자 ▲재정부: 김보근
▲미화부: 강금자 ▲교육부: 한정현 ▲섭외부: 김영희
▲후생부: 장수자

담임목사에 처음으로 사례금 지급

창립 3년만에 담임목사 사례금 지급했다 임동선목사는 자립할 때까지 사례금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

제직회는 1972년 12월31일 임동선담임목사에게 처음으로 사례금으로 월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금은 197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되는 것이며 6월이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임동선목사는 1970년 7월26일 교회를 창립한 후 무보수로 사역을 담당하다가 처음으로 받는 사례금이었다. 임동선목사는 교회를 세울 때에도 자신의 자택에서 시작을 했고 볼드윈힐 교회 시절과 크렌셔로 새 건물을 구입해 온 뒤에도 무보수로 교회를 섬겼다. 1971년 교회의 1년 예산은 1만 5천달러에 이르렀으나 임동선목사는 "교회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서 담임목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동선목사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특별히 임재순사모는 미국에 도착한 1967년부터 봉제공장에 나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가계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했다.

임동선목사는 "개척교회이고, 신자가 노동자와 학생들이라 교회재정이 넉넉치 않았다. 나도 인쇄소에서 일하고 아내는 바느질공장에서 일했다. 교회 개척 후 3년부터 처음으로 200달러, 300달러씩을 받았다. 모두가 어려운데 목사도 다 같이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함 이었다"고 사례비에 대해서 말했다.

김계용목사 초청 심령부흥회 개최

1973년 10월 브라질 선교사인 김계용목사를 초청,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했다.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 심령부흥회는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등 하루에 세차례씩 김계용목사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전교인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1973년 10월21일 김계용목사는 1부(오전 9시) 예배와 2부 예배 때 「영적 계산법」(마 25:19~30)이라는 설교를,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3부 예배에서「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심령부흥회를 인도한 김계용목사

1971년 브라질 쌍파울로 연합장로교회 초청으로 부흥회를 마친 후 임동선목사는 담임인 김계용목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1974년 가을 김계용목사는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로 로스앤젤레스로 부임해 왔다. 임동선목사와 김계용목사는 남가주 한인사회 교계 지도자로 가까운 사이로 크고 작은 일들을 협력하며 지냈다.

김계용목사가 1990년 북한가족을 방문할 때에도 처음에는 임동선목사와 함께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동선목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함께 평양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김계용목사는 가족방문 중 북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가장 슬퍼한 동역자가 바로 임동선목사였다. 그후 나성영락교회는 김계용목사 기념관을 세웠다.

새로 산 교회건물을 위한 단장에 목회자, 성도 구분없이 모두가 열심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적 봉사

처음으로 한인타운 안에 새 교회 건물을 마련한 후 임동선담임목사와 협동목사, 제직들은 신앙과 기도생활에 열심이었다. 교인들은 새로 산 교회건물의 단장 및 시설 관리에도 한 마음으로 봉사에 나섰다. 성령이 충만한 이민교회였다. 화가인 심재현집사는 교회 입구에 동양선교교회라는 간판을 써서 붙였다.

새 교회건물 구입에 따른 한달 페이먼트는 1,100달러였으나 교인들이 특별헌금을 해서 페이먼트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시 주일 1부와 2부예배에 250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자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주 교회주보에는 "제직들은 주차장을 양보해 줄것"을 바란다는 알림이 나왔다.

1973년 2월4일 교회는 898, 912 Victoria Blvd.에 있는 주택 2채를 구입하고 주일학교와 주택으로 사용했다. 교회 뒷편에 있는 898 Victoria Blvd.에 있는 집은 3만달러, 912 Victoria Blvd. 집은 2만달러에 각각 구입했다. 교회 뒤에 있는 주택 두채를 산 후 교육관으로 활용을 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한 신앙을 위한 배움의 터로 사용하면서 교육에 열심을 보인 교회가 되기 시

작했다. 특별히 임동선목사의 2세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노력으로 두채의 집은 배움의 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임동선목사는 크렌셔 교회 시절을 다음과 같이 감사해했다.

> "내 교회라는 기쁨, 내가 주인이라는 자부심, 내 교회라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집회를 언제나 제약없이 할 수 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세미나, 예배 후 음식을 만들어 친교, 음식과 김치를 담가 파는 바자회, 2부로 드리는 낮 공예배, 저녁예배, 주중예배, 교육방에서 자녀들 분반 공부 등 참으로 좋았다. 무엇보다도 온 교우가 일치 단결, 순종, 기도, 상호 격려, 순교적 결사 전도, 봉사 희생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크렌셔 교회 때의 신도들은 "정말로 안디옥교회 신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 교인이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와 제직회 거쳐 당회 구성

창립 첫해엔 운영위원회, 1971년에는 제직회, 1973년부터 당회가 구성되어 교회의 치리기구가 되었다

동양선교교회가 처음 창립되었을때 담임목사와 장로 집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1970년 12월27일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했다. 1971년 1월3일 제직회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었다. 1971년도 제직회 명단은 임동선목사, 황재열목사, 정하경목사, 김성선목사, 이종만목사, 김효순전도사, 명재덕장로, 한건수집사, 오해훈집사, 이경철집사, 오철훈집사, 김준호집사, 이성호집사, 김용서집사, 김종일집사 등이다. 제직회는 1971년 1월3일부터 1971년 12월19일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했다.

1973년 1월6일 당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첫 당회원으로는 임동선목사, 황재열목사, 한건수장로, 김용서장로, 김주영장로, 박천흠장로, 이경택장로 등 7명이었다. 임동선목사 자택에서 예배를 드릴 때엔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행정과 관리를 맡았고, 볼드원힐교회 때에는 제직회가 인사 등 모든 주요 결정을 했다. 그리고 크렌셔교회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회가 교회의 치리기구로서 사역을 잘 담당하고 있다.

당회장 정년을 65세로 하는 헌법 제정

당회는 1973년 3월6일 초교파 독립교회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임동선목사와 황재열목사에게 초안 작성을 일임했다. 헌법 기초위원들은 "협동장로는 시무장로가 될수 없다. 신임장로 후보는 당회에서 선정하고 사무총회에서 피택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회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10월6일 당회는 헌법 초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

1.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헌법을 토대로 만든다.
2. 주로 성결교회 헌법을 사용한다.

오해훈장로는 "교회헌법 기초 및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당회에서 보고를 했고, 12월25일 당회원 4명과 집사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축조 심의를 했다. 12월 열린 당회에서 헌법 심의를 했고 1973년 12월30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1974년 1월13일에 열린 공동회의에서 첫 헌법을 통과시켰다. 7차례에 걸쳐 수정을 한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1973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창립 3년만에 교회 헌법을 제정했고 65세의 정년 등이 교회헌법의 주요 내용이었다

동양선교교회가 제정한 첫 헌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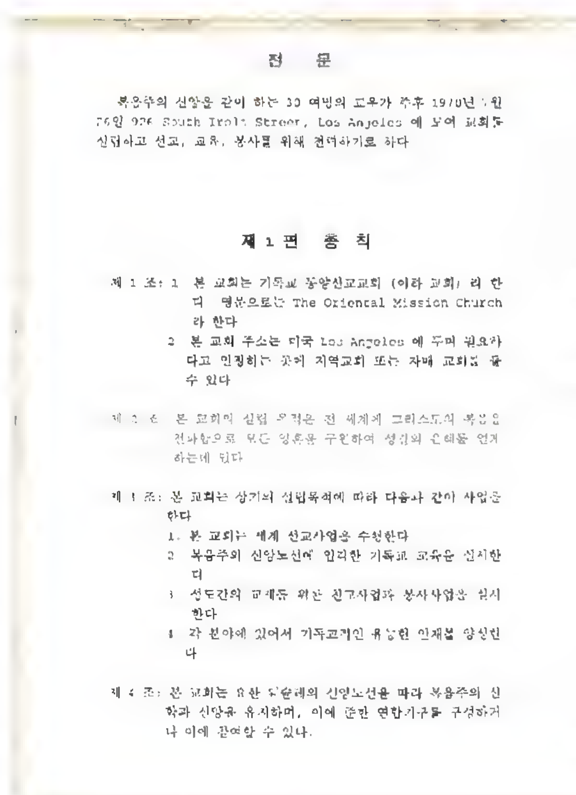
1. 당회장의 시무 정년은 65세로 한다.
2. 장로의 자격은 45세 이상으로 하고, 65세를 시무 정년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들이다.

헌법을 기초한 김상규목사(초창기 협동목사 · 안디옥교회 담임목사)는

> "장로교회와 성결교회 헌법을 기초로 동양선교교회 헌법을 제정했다. 무엇보다도 이 헌법의 특징은 한국에서는 없는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을 65세로 한것으로 이는 미국의 헌법을 따른 것이다. 아마 동양선교교회의 헌법이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로서 처음으로 담임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1974년 10월 주보를 통해 "교회헌법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라고 알리고 있다.

노수정장로(창립교인)는 "한건수장로, 김주영장로, 김용서장로와 김광돈집사 등과 함께 헌법 기초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1973년에 만든 헌법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헌법의 90% 골격을 이룬다. 미국교회에서 65세를 목회자와 장로의 은퇴시기로 정하고 있어서 미국 교회법을 참고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도 40세를 생각했지만 너무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한국 이민교회의 정서상 고려해야 될 것 같아 45세로 정한 기억이 있다. 첫 헌법에서 설립목회자의 연령을 꼭 65세로 제한할 특별한 뜻은 없었다. 후에도 설립 당회장의 시무 연령을 70세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여러번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 문

복음주의 신앙을 같이 하는 30 여명의 교우가 주후 1970년 ?월 ?6일 926 South Irolo Street, Los Angeles 에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해 전력하기로 하다

제 1 편 총 칙

제 1 조: 1 본 교회는 기독교 동양선교교회 (이하 교회) 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Oriental Mission Church 라 한다

2 본 교회 주소는 미국 Los Angeles 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지역교회 또는 자매 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조: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하는데 있다

제 3 조: 본 교회는 상기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본 교회는 세계 선교사업을 수행한다
2. 복음주의 신앙노선에 입각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한다
3.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친교사업과 봉사사업을 실시한다
4. 각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제 4 조: 본 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신앙노선을 따라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며, 이에 준한 연합기구를 구성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 첫 헌법

임동선목사는 첫 헌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 "우리교회는 성결교가 아니고 성결교단과는 형제지간이라 보겠지만 완전히 초교파 독립교회이다. 처음부터 성결교와 장로교의 행정을 많이 참고했다.우리는 한국교회도 아니고, 미국교회도 아닌, 제3의 교회이므로 이에 맞는 독자적인 헌법과 교리와 행정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장의 65세 정년퇴임 조항은 후에 많은 논란이 되었다.

제4장
웨스턴 성전 구입의 축복

- 창립 3주년 예배 및 임직 예배
- 「노동의 신성」을 강조, 그리고 사업 권유
- 초창기 협동목사의 헌신적 사역
- 모국 수재민 돕기 위해 전교인 헌금
- 야외에서 드린 어머니 주일 예배
- 교회 창립 4주년 심령부흥회 및 기념예배
- 처음으로 성가대를 1부와 2부로
- 중고등부에서 40여명이 성경공부
- 이중용전도사 전담으로 주일학교 큰 성장
- 「한인 이민자의 사명과 미래」를 설교
- 꿈나무 위한 여름 성경학교 개설
- 주일학교 교장 각부서장 임명
- 웨스턴 랄프 마켓 구입 위해 기도
- 전교인이 나서서 새 성전 건축 헌금
- 100년 후를 내다본 새 성전 구입 계획
- 성전 구입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 1975년 1월26일 웨스턴 성전 입당예배
- 기도하는 집, 꿈이 있는 동양선교교회
- 2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 황재경목사 초청 창립 5주년 기념 부흥회
- 어린이 및 가족 찬송 경연대회
- 청년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 임동선목사의 선교철학은...
- 모국선교 지원 교회 더욱 늘려



창립 3주년 예배 및 임직예배

1973년 7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 예배를 온 성도의 축하와 은혜속에 드렸다. 임동선목사 사회로 진행된 창립 기념예배에서 성가대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을 은혜롭게 불렀고, 유복형집사가 「십자가의 군기」를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윤찬목사는 「성전의 일꾼」(엡 2: 19~3: 7)이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 축하설교를 했다. 한건수장로의 약사보고 후 장로취임 및 장립예식을 거행했다. 임동선목사가 서약을 받았고 안수위원들이 이경택장로와 한인남장로 취임과 오해훈집사 장로장립 안수를 거행했다. 박윤선목사는 신임장로에게 주는 충성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그리고 안수훈목사는 본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했다. 박천흠장로와 김상옥권사는 교회에 예물을 증정했고, 오해훈장로는 답사를 했다.

▲ 장로 취임: 이경택장로, 한인남장로
▲ 장로 장립: 오해훈장로

황재열목사의 축도와 김주영장로의 환영 및 광고의 말씀 등 은혜중에 마쳤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민교회로 더욱 부흥성장 해 나가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노동의 신성」을 강조, 그리고 사업 권유

임동선담임목사는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꽃피워 나가는 동포들에게 항상 노동의 신성과 사업할 것을 강조한 목회자이다. 1971년 11월7일 주일 설교때 임동선목사는 「노동은 신성하다」(마 6:34)는 제목으로"이민자로서 미국과 가정,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자"는 것을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는 항상 성서의 노동관을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다.

노동자로서
미국과 가정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강조한 임동선목사

볼드윈힐 교회를 거쳐 크렌셔 교회로 이전하기까지 사업을 하는 교인들이 계속 많아졌다. 그 당시 동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가발, 주유소, 청소 등이었고 봉제업을 하는 동포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1973년 9월16일 정기당회는 "주보에 광고의 범위와 교인들의 사업광고를 차별없이 한 번씩은 해야할 것"이라고 결정할 정도로 사업을 지원했다.

1974년 1월13일 주보에는 유복형집사, 최덕화, 이평재 가정의 비즈니스 오픈 알림이 나와 있고 염의승, 김태식집사, 최재일, 변성수, 임종칠, 임영, 박동원, 최장용, 하워드권, 노수정집사, 온수복, 현창빈, 윤석창, 조신호, 홍경필 교인 등이 식품점과 주유소, 식당, 양복점, 바디샵 등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실려있다.

임동선목사는 초창기에 교인들에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라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그때 노동자의 한 시간당 최저 임금이 1달러 65센트였다. 그러나 기술자는 4달러 50센트를 받았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기술자는 전문분야에 취직하여 봉급생활을 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무슨 장사든 비지니스를 하라고 말했다. 옛말에 장사는 화수분이라 했다. 장사는 자유롭고 자기가 주인이기때문에 의욕과 발전이 있다."

기술없는 사람은 무슨 장사든 각기 사업을 하라고 임동선목사는 조언했다

특별히 임동선목사는 직업선택, 친구선택, 배우자선택, 종교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회자이다.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리커스토어 경영을 반대한다는 것도 여러번 설교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교회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승 차지

새 이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된 1970년대 초부터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과 만남의 자리가 많았다. 고등학교대항 야구대회, 교회대항 축구대회, 교회대항 농구대회, 연합대학 동문회 배구대회 등이 연중행사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에는 젊은 층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대항 체육대회때마다 출전을 했고 임동선담임목사와 당회원 그리고 전교인들이 시합때마다 나가서 응원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 전통처럼 되어 있었다.

특히 김주영장로는 체육을 통한 선교, 커뮤니티와의 협력, 친목을 위해서 각종 교회대항 경기대회에 나갈 것을 적극 지원했고 때로는 선수로 뛸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했다. 1972년 중등부 대항 농구시합에서 동양선교교회팀이 첫 승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1972년 9월10일 개최된 나성 각교회 대항 배구대회에서 청년회팀이 한인캐톨릭교회와 함께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김향숙은



초창기 동양선교교회 축구팀은 우승을 많이 차지했다.

여자 우수선수로 선발되었다.

당회는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특별히 유니폼을 만들어 주었다. 1973년부터 교회대항 축구대회에 출전을 했고, 교회대항 농구대회, 남가주기독청년연합회 주최 교회대항탁구대회에도 나갔다. 8월26일에는 배구팀이 2등을 차지했는데 여자 우수상에 오미례양이 뽑혔다. 1974년 5월10일 열린 나성 각 교회대항 친선 축구시합에서 동양선교교회 팀은 지난 해에 이어 또 우승을 차지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운동경기가 있는 날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서 직접 선수들을 위해 열심히 응원을 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항상 선수를 위해서 경기전에 꼭 기도를 인도했다.

또한 교회에서 야유회를 나갈 때에는 각부서 대항 친선운동경기를 통해서, 교인들의 친목과 건전한 체력 그리고 신앙심을 길러 나갔다. 교회선수들은 LA 시내에서 열리는 각종 교회대항 경기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가장 많이 차지했고 스포츠를 통해서 교회 이름을 크게 빛냈다. 동양선교교회는 스포츠를 사랑한 교회였다.

초창기 협동목사의 헌신적 사역

황재열목사는 행정 및 심방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천영목사는 장년부 성경지도를 맡았고 오봉운목사는 대학부를, 김상규목사는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다. 김상규목사는 1972년 1월 협동목사로 임명된 뒤 중등부지도를 7월까지 맡았다. 그후 김재권선생이 군에 입대할 때까지 중등부지도를 책임졌다. 2세교육, 신앙교육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했고 교육사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황재열,이천영, 오봉운, 김상규목사 OMC 초창기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한 협동목사들의 이름이다

사업을 하면서 협동목사로 봉직한 오봉운목사는 1974년 4월28일 저녁 예배때 성지순례후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오봉운목사는 웨스턴 랄프마켓을 구입할 때 특별 건축헌금을 하면서 새 성전 이전을 지원했다.

당회는 1973년 4월1일 베이커스필드 윗쪽에 있는 농장지대 맥파랜드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김창호목사를 임명했다. 동양선교교회의 첫 지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맥파랜드 교회의 김창호목사는 5개월 후인 9월1일 사임했다. 맥파랜드에서 농장을 경영한 유복형집사는 "처음 김창호목사가 부임한 후 우리 집에서 몇차례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6~7가정 뿐이어서 오래 가지를 못했다. 미국 교회를 잠시 빌렸으나 교인이 늘지 않아서 김창호목사는 다시 LA로 내려갔다"고 회고했다.

2년간 협동목사로 봉직하던 오봉운목사는 1975년 5월25일 롱비치 미국형제교회 한어부(한국인 담당) 담당목사로 부임했고 교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요기도회와 영어부 예배 시작

당회는 1973년 10월29일 삼일기도회(수요기도회) 문제를 정식 토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수요기도회를 실시하는 때와 방법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이날 수요기도회 개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당회는 폭넓은 토의를 거쳐서 이를 결정했다.

▲나성에서 현재 5개의 한인교회가 수요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몇 교회는 기도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교인 몇 분이 삼일기도회를 원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회합을 자주 갖고 있다.

▲우리 교회도 11월부터 삼일기도회를 실시한다.

삼일기도회를 매 수요일 오후 7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교회는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버스편을 제공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초창기부터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창립 4년째가 되는 1974년 1월 27일부터 처음으로 영어부 예배를 시작했다. 영어부 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참석자는 주로 고등학생들이었다. 이때에는 영어부를 담당할 만한 지도교사가 부족했고 학생수가 적었다. 교육부는 새 이민교회로서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때부터 영어예배부를 설치하는 등 이중언어 예배시대를 준비해 나갔다.

오해훈장로(창립교인 · 미주성산교회)는

> "동양선교교회는 한국말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때부터 늘어나는 2세들을 위해 영어 예배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처음으로 이중언어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판단하고 영어예배를 시작했지만 학생수가 적어서 그때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5년후쯤부터 영어예배가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평신도연합회에서 주최한 성경퀴즈 대회에 나가서 조성신, 김향숙, 임승혜선생이 우승을 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좋은 교회」로 이름이 더욱 알려졌다.

1974년도 교회예산은 5만 5천달러

운영위원회는 1971년 예산을 1만 5천달러로 책정했다. 예산에 대한 지출로는 인건비 8천4백달러, 기타 비용 3천6백달러, 선교비 1천달러, 건축비 2천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창립 2년째 교회예산 중에서 선교비를 1천달러나 책정한 것은 "동양선교교회는 앞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당회장과 전교인의 뜻이 담겨있다. 제직회는 처음 크렌셔 새 교회를 구입한 뒤인 1972년

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0%가 증가한 2만달러로 책정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한 예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을 정도로 헌금이 늘어났다.

당회는 1973년에는 전년도 보다 100%가 증가한 4만8천4백달러로 예산을 정했다. 이러한 예산은 크렌셔 교회때에 가장 교회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197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가 증가한 5만5천달러였고 424 N. Western Ave.에 있는 랄프마켓을 사서 이전한 1975년 예산은 또 한번 100%가 증가한 11만8천4백달러로 남가주지역의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그리고 1974년 12월22일 당회는 신년도 예산총액을 11만8천4백달러로 책정했는데 월 평균 9천8백70달러의 헌금을 예상한 것이다.

처음부터 선교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1년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선교예산을 책정했다

1974년도 예산위원장에 한건수장로를 임명했다. 그리고 1975년도 예산편성위원은 김용서, 박천흠, 김주영, 오해훈, 한인남, 홍미현, 김은신, 김병숙, 김중완, 김명균, 김태식 등이 봉사를 했다. 회계는 노수정집사(창립 때)에 이어 김중완집사가 책임을 맡았다.

모국 수재민 돕기 위해 전교인 헌금

모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교인들은 한국에서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먼저 폈다. 한국에서 수재가 났다는 보도를 본 제직회는 1972년 8월27일 주일예배 때 전교인을 대상으로 수재민 구호품을 모집했다. 이날 주일에 모아진 의류 약 7,000점(76상자)과 수재의연금 325달러를 한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어려운 한국 피해 주민에게 보냈다.


1972년 8월 수재민돕기 구호품을 모집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1973년에 들어서도 모국 선교비를 꾸준히 모아서 전달했다. 부인회는 1973년 7월29일 서울 성덕교회에 120달러, 대전 드보라교회에 100달러를 보냈다. 특별히 대전 드보라교회는 동양선교교회가 창립될 때 시무했던 김효순전도사가 한국에서 개척한 교회로 부인회는 계속해서 선교기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1974년 1월20일 임동선담임목사는 주일 설교 때 특별히「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금년도에도 한국은 물론 남미와 멕시코 지역 선교를 더욱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선교교회가 새 이민교회로 이처럼 많이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때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선교를 통해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1월 들어 영등포 제일장로교회에 250달러, 군산 해방동 성결교회에 200달러를 선교비로 보냈다. 한편 중등부에서도 서울고아원에 보조금을 보내는 등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를 했다.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앞두고 1974년 6월9일 선교위원회는 모두 9곳의 한국교회를 선정, 선교비를 보냈다.

모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은 한국에서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먼저 펼쳤다

1. 천호동 서부장로교회(개척교회): 홍선기강도사
2. 홍천 성경교회(개척교회): 최원실전도사
3. 경기 장봉감리교회(개척교회): 원동현전도사
4. 북아현 순복음교회(개척교회): 김민희전도사
5. 인천 감리교회(개척교회): 강성일전도사
6. 경북 달지장로교회(개척교회): 이봉춘전도사
7. 대전 중앙그리스도의 교회(개척교회): 서복선전도사
8. 신흥 제일장로교회(미자립): 김홍배목사
9. 하성 성결교회(미자립): 이근영전도사

선교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들 한국교회에는 매월 30~50달러의 선교기금을 보냈는데 선정 기준으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부는 부산 신망애양로원에, 고등부에서는 부평 맹아원에 각각 보조금을 보냈다. 한편 한국의 피선교 교회에서는 선교금을 받은 후에는 답신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1974년 12월29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후 멕시코 빈민들에게 의류 5천여점(트럭 2대분)을 직접 가서 전달하고 돌아 왔다. 이때부터 이웃나라인 멕시코 선교가 시작되었다.

야외에서 드린 어머니 주일 예배

1970년대초 새 이민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 도착, 적지않은 문화 충격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고국에 대한 향수에 젖었고 두고온 가족에 대한 마음이 떠날 날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들 끼리 만나면 더욱 반가워했고 이웃처럼 지냈다. 이러한 때에 한인동포들에게 교회는 바로 이민생활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갓 이민온 동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한인교회였다. 일주일간 두잡, 세잡(Job)을 뛰다가 주일 교회에서 같은 신앙의 벗들을 만나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뿐아니라 이민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었고 신앙심을 키워나가는 샘터가 되었다.

창립 1년째가 되는 1971년 6월20일, 전교인은 패사디나에 있는 브룩사이드 공원으로 첫 야외예배를 나갔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가정주간을 축하하는 야외예배는 이종만목사의 기도에 이어 임동선목사는 「아버지의 은덕과 보은의 길」(엡 6:1~5)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런 설교를 했다. 장년 116명과 어린이 54명 등 모두 170명이 참석한 야외예배를 위해 부인회 회원들이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청년회가 마련한 흥겨운 2부 여흥순서를 갖고 이민자의 외로움을 신앙으로 달랬다.

야외예배에는 동양선교교회 교인은 물론 갓 이민온 비신자들도 참석해서 신앙을 통한 한가족이 되었다. 특별히 장동환 청년회장과 회원들은 차편이 없는 교인들을 위해 픽업하는 봉사를 맡았다. 이민교회로서 첫 야외예배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마친 후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연례적으로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이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했다.


초창기 야외예배날 임동선목사와 사모,교인들의 즐거운 모습이다.

다음 해인 1972년 5월14일에는 전교인이 랜초팍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이날 야외예배는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는 순서를 특별히 가졌다. 황재열목사의 사회로 오전 11시 시작된 야외예배는 서울 복음신문사 사장 김영민장로의 기도에 이어 임동선목사는 「어머니의 신앙」(딤후 1:3~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서 전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 랜초 팍 야외예배에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255명이 참석, 싱그러운 5월 하늘 아래 교회에 대한 감사와 신실한 신앙을 위한 다짐, 그리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맘껏 가졌다. 야외예배를 위해 부인회 회원이 불고기와 갈비, 김치 등 푸짐하게 한국음식을 마련,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부인회 회원들이 불고기와 갈비, 김치등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5백여 성도, 자연에서 신앙과 친목 다져

1973년 5월27일 그리피스 공원에서 3번째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대자연에서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낀 야외예배에는 어른과 어린이 등 모두 305명이 참석했다. 이민교회로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예배였다. 오전 11시 김주영장로의 기도에 이어 임동선목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시 121:1~8)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미국에 이민와서 사는 한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서 전교인에게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음식은 각자가 준비를 했다. 그리고 혼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각 제직 가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민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헌신적인 교회생활을 다짐했다.

1974년 5월19일 주일에는 그리피스 팍으로 전교인이 야외예배를 나갔다. 모두 5백여명이 참

석한 주일 야외예배는 김상규목사의 기도에 이어 임동선목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창 22:1~15)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날 예배 후에는 전교인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었고 이어 박천흠장로가 총지휘를 하는 운동과 오락 경기를 갖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를 보냈다. 부모와 자녀들이 티없이 맑은 하늘 아래 하루를 보내면서 이민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그리피스 공원으로 야외예배를 나간 성도들이 임동선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있다

초창기부터 시작된 야외예배, 교인은 물론 비신자들도 참석해서 신앙을 통한 한가족이 되었다

창립 5년째 되는 1975년 5월18일 그리피스 공원에서 야외 주일예배를 드렸다. 모두 264명의 교인이 참석한 야외예배는 김주영장로의 기도와 임동선목사는 「조물주의 예술의 극치」(시 19:1)라는 설교를 통해서 "자연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인이민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예배후에는 전교인이 점심식사를 한자리에서 한 후, 2부 순서는 청년회 주관으로 각종 운동과 여흥프로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야외 주일예배는 전년도와는 달리 주일 저녁예배를 다시 같은 장소에서 드렸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야유회 저녁예배는 김상규목사의 사회로 이천영목사가 「자연과 인생」(롬 1:18~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하루를 아름다운 자연에서 맘껏 보냈다.

1976년 가정의 달 야외예배는 5월23일 다저스 스태디움 옆에 있는 엘리시언 공원에서 드렸다. 1977년 5월15일 어머니주일을 맞아 엘리시언 공원으로 야외예배를 나갔고 임동선목사는 「이상적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날 야외예배에는 모두 536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1978년 5월21일 엘리시언 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고 설교제목은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이었다.

김주영장로(초기교인 · 나성영락교회)는 "교회의 역할 중에서 성도의 교제는 스포츠와 야유회를 통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순수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했다.

교회 창립 4주년 심령부흥회 및 기념예배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1974년 8월 11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창립기념예배를 예년보다 2주후에 뒤에 드리기로 한 것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초량장로교회 최동진목사를 강사로 초청, 심령부흥회를 먼저 갖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8월 4일 주일 오후 7시에는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음악예배를 드렸다. 기념 음악예배는 임동선목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엡 5: 15~21) 라는 설교를 했고, 박환철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물을 요동케 하리라」, 「시편 137편」, 「거룩 거룩하신 주」 라는 찬양으로 온 교우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창립 4주년이 되는 해 당회원 및 제직의 첫 합동수양회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8월 6일(화)부터 11일까지 최동진목사가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하루 세차례씩 심령부흥회를 인도했다. 8월 11일 주일 오전 11시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오해훈장로의 기도와 임동선목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부흥강사 최동진목사는 「이적의 기점」 (시편 23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오후 7시 30분 저녁 예배에는 최동진목사가 「인간 상식과 기독교」 (마 22: 1~14)라는 제목을 끝으로 한 주간에 걸친 심령부흥회를 은혜와 감사 속에 마쳤다. 1974년 창립기념예배 때에는 장로 취임과 장로 장립이 없었다.

처음으로 성가대를 1부와 2부로

크렌셔 새 성전으로 이전한 뒤 주일 아침예배 중에 특별 찬양순서를 통해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30여명의 성가대원들은 바쁜 이민생활 중에 매주 금요일 오후 교회에 모여 찬양 연습을 했고 은혜가 되는 성가대가 되기 위해 항상 기도를 드렸다. 1971년 2월14일 주일에는 「피난처 된 주의 품에」, 다음 주일에는 「주여 내가 신자 되고자」, 그리고 「날로 더욱 귀함」이라는 찬양을했다.

1973년 3월25일 오전 9시 30분 1부예배와 오전 11시 2부예배로 나누면서, 박환철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는 1부와 2부 예배때 찬양으로 더욱 은혜스러웠다. 1부 성가대 반주는 김남형, 2부 성가대 반주는 배은산이 맡았다. 1973년 4월22일 부활절 축하예배는 2부 성가대가 출연하는 오라토리오 "그리스도"(멘델스존 작곡)를 공연했다. 제1부는 탄생, 제2부는 고난, 제3부는 부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1973년 6월16일 당회는 1부 성가대 총무에 명호순집사, 2부에 심재현집사, 3부(저녁예배)에 홍순웅집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8월12일에는 오해훈장로를 1, 2, 3부 성가대 고문으로, 이귀임선생을 3부 지휘자로 임명했다. 1974년 1월5일 당회는 성가대 총무에 신덕수, 김향숙, 김일수, 홍순웅, 김종성, 반주자로는 배은산, 김남형, 김사정을 임명했다. 그리고 1, 2부 성가대 지휘는 박환철집사가, 3부는 이귀임선생을 임명했다. 1975년도 성가대 지휘자로는 박환철집사를, 배은산을 주 반주자로, 김남형을 부 반주자로 각각 임명했다. 동양선교교회 성가대는 남가주에 있는 한인교회중에서 가장 성가대원 숫자가 많았다. 음악 수준이 높아서 다른 한인 이민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박환철집사는 1975년 11월29일 척추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서 성가대 지휘자의 사임을 원했고 1976년 1월4일 당회는 이를 수리했다. 그리고 배은산선생은 서울코랄 반주자로 떠났다.

당회는 1976년 1월18일 한병철 집사를 성가대 새 지휘자로 임명했다.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던 한병철 새 지휘자는 성가대의 화목과 신앙을 강조했다. 당회는 1976년 5월2일 처음으로 음악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음악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연구 협의하기로 했다. 당시 음악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성가대장, 김용서장로
▲위원: 박장균목사, 한병철지휘자, 조규철총무, 이귀임, 이성호,
이은주, 이득애, 백경준

1,2부 예배에 이어 성가대도 1,2부로 분리 운영 특별 찬양순서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성가대는 처음으로 1976년 8월27일~28일 박태준박사, 박재훈박사, 임동선목사를 강사로 초청, 성가대를 위한 수양회를 은혜속에 마쳤다.

중고등부에서 40여명이 성경공부

1971년부터 갓 이민온 자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인학생들이 적어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공부를 했고 중등부와 고등부에는 각각 10여명의 학생들이 출석해서 성경을 배웠다. 교사들은 영어 보다는 우리말로 가르쳤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학생들이 갓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영어가 미숙했기 때문이다.

동양선교교회 교육위원들은 처음부터 자녀교육에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했다. 한 두분 장로는"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영어로 지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제직들은"영어로 교육하는 것이 아직은 이르므로 한글로 지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점차 숫적으로 성장하면서 1973년부터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했고 출석 학생수는 4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에서부터 중고등부를 지도해온 김상규목사는"이민사회는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 미국 학교에 가서도 더욱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잘하는 것이 이민사회의 앞날을 위한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으로 동양선교교회 중고등부를 지도해 왔다"고 말했다. "교회에서는 현실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신앙을 삶의 모범으로 보일 때 교육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1971년~1975년 초창기 동양선교교회에서 교육사역을 담당했던 김상규목사는

"교회와 한인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 했을 때 동양선교교회는 참으로 큰일을 많이 담당했다. 임동선목사님의 헌신은 참으로 특별하셨고 사모님과 목사님의 봉사는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임동선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면서 유농장에 다녀온 일과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지만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한 일이 오늘도 기억에 남는다"고 2001년 6월 인터뷰때 말했다.


초창기 시절 교육에 헌신한 김상규목사(앞쪽 중앙)와 중고등부 교사들

김상규목사는 대구 계명대학을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교를 마친뒤 한국 평안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했고 수완슨선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다가 유학차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김상규목사는 1975년 6월 1일 남가주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회는 김상규협동목사에게 부목사직을 요청했지만 1975년 8월 사임, 안디옥교회를 창립하고 이민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다.

이중용전도사 전담으로 주일학교 큰 성장

교육부 유년부 교사였던 이중용전도사(피닉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했다. "신앙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꼭 동양선교교회로 보내 달라"는 열성을 갖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개발해냈다.

이중용전도사는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짰다. 교재는 미국 교재를 사용했고 처음부터 교사훈련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부터 주일학교 교육, 특별히 유치부를 전담한 이중용전도사는 동양선교교회가 이민교회로는 처음으로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각 교실마다 경험이 많은 교사를 배치했다.

여름방학중에 오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다

동양선교교회는 초창기 주일학교 학생 증가를 위한 돌격대를 만들었다.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한인마켓에 나가서 전도지를 배부했고, 자녀들을 동양선교교회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했다. "오고싶은 교회 · 재미있는 교회" 라는 목표로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민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하기학교 학생모집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에 내기도 했다. 당시 이중용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는"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을 통한 기초가 튼튼할때, 중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일반 성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한다"는 신앙교육의 방법론으로 자녀교육을 실시했다.

1975년 이후 주일학교 교사들은 소규모의 남가주 한인교회를 방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자녀교육을 잘하는 교회」라는 이미지 때문에 남가주지역

학부모들도 동양선교교회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비율이 높아졌다.


주일학교 유아부 교육모습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장소가 협소했다. 교실 배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교회는 충분한 재정이 없어서 자녀교육을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주일학교 교실의 칸막이를 만드느라 교사들이 밤을 세워가며 일을 했고 당회원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자주했다.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뒤 전체 출석 학생 중에서 60~70%가 주일학교 학생이 차지할 정도로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남가주교계에서 이름이 났다.

이중용전도사는 "교회성장은 바로 유치부 학생이 많을 때에 일반 교인이 함께 크게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일학교 교육에 크게 헌신봉사를 했다.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낸 이중용전도사,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했다

절기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말씀

크렌셔 새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집을 가졌다는 감사로 더욱 열심히 목회를 했다. 그리고 이민교회 성도들을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와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했다. 담임목사로서 주일예배 때 더 좋은 은혜에 찬 설교를 하기위해 며칠 밤을 기도로 설교제목을 정했다. 임동선목사는 낮에는 교인을 위한 심방과 취업안내, 영주권 취득, 자녀 학교 입학, 결혼 주례, 교인 픽업, 교회 사찰 등 어느 하나 열심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교인을 사랑하고 설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회생활의 전부였다.

특별히 3•1절과 6•25 그리고 광복절에는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민족 사랑을 심어 주었다. 1974년 6월26일 11시 2부예배 때에는 「6•25와 공산주의」(암 5:24~2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날 오후 7시 예배에는 「고난의 의미와 극난의 자세」(롬 5: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애국자이며 민족주의자라는 평을 들었다. 1975년 6월29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때에는 「6•25의 역사적 의미」(대하 20: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8월10일 광복주일에는 「민족 해방과 모세」(출 14:26~3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강한 이민자, 단결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강조했다. 1975년 8월24일에는 「재미 한국교회의 미래」(행 13:1~3)라는 제목으로 비전의 설교를 했다.

「한인 이민자의 사명과 미래」를 설교

자신이 이민자이면서 이민자들을 위한 특수목회에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임동선목사는 항상 이민자를 주제로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 특별히 "청교도처럼 신앙으로 시작하는 이민의 길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제2의 청교도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이민생활을 승리로 이끌자"고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미주한인교회의 미래와 이민자의 사명 등에 대해서도 항상 비전의 설교를 통하여 이민신앙의 방향을 제시했다.

1975년 9월14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이민자의 의무」(창 12: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 희망을 심어 주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민의 사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출생지 갈데아우르를 떠나, 하란과 세겜의 개척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사회에 동화되었고, 문화를 소개하고, 각 방면에 크게 공헌함으로, 지대한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땅에 이민 온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가지 의무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하는 이민은 성공할 수 있다" 제2의 청교도 처럼 신앙을 통해 이민생활을 승리로 이끌자는 설교

첫째는 미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는 일입니다.

어느나라 사람이건 그들이 딴나라에 가서 살고자 하면 먼저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언어, 풍습, 제도 등을 잘 알아서 그대로 따라 가야만 호감을 주고, 친숙해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영혼과 문화와 풍습은 멸시치 말라는 계시를 받았고,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가하다 했습니다. 오늘 동포사회에 일어나는 각양의 불상사는 이민 온 동포들이 이 사회에 아직 동화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민족의 고유문화를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많은 대접과 학문을 연마하고, 높은 지위와 마침내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까지 그가 지닌 얼을 빼앗고 유일신의 신앙을 박탈코자 했으나, 다니엘은 일편단심, 백절불굴 그 민족의 문화와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 왕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단6:26).

미국 13주가 연합해서 적백의 13줄과 푸른 바탕에 흰별 13개를 놓아 성조기를 만든 것은, 미국, 이태리, 스위스, 터키, 벨기에,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프랑스, 아이리쉬, 알바니아, 폴랜드, 인디아 등 13개국 문화 결합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민들은 이 세계의 중심인 미국땅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풍양속을 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 사회에 공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이민온 이태리 사람들은 정착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무학한 노동자들만 이민을 보냈으므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 백안시 당했으나, 그들은 단결해서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근면과 성실히 일을 함으로 차차 인정을 받고, 오늘날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 교량, 대소 주택, 공장시설에는 이태리 사람이 아니면 도저

히 할 수 없다고 자타가 시인함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부터 두터운 신임과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노예에서 일약 애굽 총리대신이 되어 7년 대흉년에서 애굽과 본국을 구제한 공로는 지금도 그 자취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조국의 배신자나 비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자녀교육과 보다 더 많은 자유와 새로운 가치를 찾아 선량한 국제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조국의 배신자도 비굴한 도피자도 아니며 오히려 선각자요 선구자임을 자부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이민자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회에 동화되고 문화를 소개하고 또한 공헌이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재삼 자각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에 성실과 희망속에서 힘찬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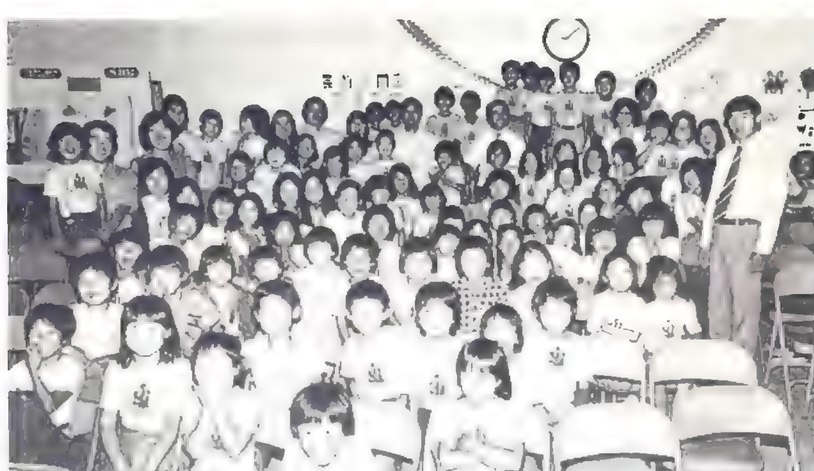
부흥사로 이름난 임동선목사 주요 도시 한인교회에서 부흥강사로 초청하는 횟수가 더욱 늘어 났다

임동선목사는 큰 꿈을 가진 목회자로 동양선교교회를 미주 안에서 최대의 이민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목회를 했다. 1976년 2월1일 오후 6시 저녁예배에 「미국 최대교회 부흥의 원인」(렘 28:29) 이란 설교제목으로 미국에서 제일 큰 아크론 교회의 성장 원인을 모델로 설명했다. 또한 1976년 2월15일 저녁예배 때는「미국 테네시주 최대교회」(마 28:18~25)에 대해 설교를 했다.

한국에서부터 부흥사로 이름난 임동선목사는 미주 한인교계에서 그 이름이 더욱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도시 한인교회에서는 임동선목사를 부흥사로 초청하는 횟수가 더욱 늘어 났다.

꿈나무 위한 여름 성경학교 개설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을 교육 목표로 정해놓고 유년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공부 시간을 많이 만들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1973년도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는 한인교회에서 가장 이름이 났다

여름 처음으로 하기 아동성경학교를 시작했다. 1973년 8월30일~9월1일까지 계속된 제1회 하기 아동성경학교에는 약 30명의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성경이야기를 배웠다.

그리고 1975년 8월26일~30일 하기 성경학교를 개설,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성경, 예능, 체육을 가르쳤다. 1976년 8월24일~28일 유년 하기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6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리말과 영어로 성경을 공부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온 교인들을 위해 동양선교교회는 1976년 6월27일 방학기간 중에 유년주일학교 사친회(PTA)를 만들었다. 이날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녀들의 신앙, 학교교육, 이민생활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시간을 가졌다.

1973년 시작된 하기 아동성경학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1974년 대학생회를 창립, 「한소리」 창간

당회는 1973년 12월1일 대학생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하고 오봉운협동목사에게 대학생회 조직을 맡도록 했다. 오봉운목사는 대학생에게 성경을 지도해왔다. 1974년 2월10일 대학생회가 처음 조직되었고 초대 회장에 임승광, 부회장에 오미례를 각각 선출했다. 이어 9월22일 대학생회는 총회를 갖고 임원 개선을 했는데 회장에 박영철, 부회장에 임승혜, 총무 추재성, 서기 임승향, 회계에 오미례를 뽑았다.

대학생회는 선교와 친목을 위해 1975년 9월7일 「한소리」라는 회지를 창간, 교인들에게 배부했다.

1975년 새 회장단을 선출했는데 회장 김영재, 부회장 김경려, 총무 홍성호, 서기 김재용, 회계 정성주, 신앙부 임승향, 전도부 김주원, 봉사부 변유성, 체육부 강종원, 도서부 김경주, 사교부 김치용, 문화부 임승혜를 선출했다. 대학생회는 1975년 12월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웨스턴과 할리웃이 만나는 거리에 나가 처음으로 전도지를 배부하며 노방전도를 했다.

1976년 2월27일~28일 1박2일 일정으로 젊은이를 위한 겨울 수양회를 빅베어 호수에서 가졌다. 강사는 임동선목사와 박장균 대학부 담당목사가 맡았고 참석한 남녀 대학생들은 큰 은혜속에 겨울 수양회를 마쳤다.

1976년 3월14일 대학생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 김재용, 총무 백중필, 회계 강영희, 부회장 정선주, 서기에 김경주를 뽑고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와 선교를 다짐했다. 특별히 대학생회에는 갓 이민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좋은 회원들이 많았다. 초창기 교회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모임이 바로 대학생회였


크렌셔교회때 대학부 담당목회자와 회원들

다. 대학생들의 기도소리가 끊이지를 않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대학생이 많았다. 이민사회의 어려움을 대학생은 교회생활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갔다.

주일학교 교장 각 부서장 임명

크렌셔 새 교회당으로 이전한 후 1974년 1월6일 정기당회는 이천영목사, 김상규목사, 오봉운목사를 협동목사로, 그리고 윤순환전도사를 학생부 교사로 임명했다. 또한 김중완집사를 회계로, 최우영집사를 부회계로 임명했다. 서기에는 이성호집사, 부서기는 심재현집사가 맡았다.

당회는 1974년 1월20일 각부서장과 부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임동선목사
위원 이천영목사, 김상규목사, 이경택장로, 한인남장로, 박환철집사
▲재정부: 부장 김용서장로, 차장 한인남장로, 부원 김중완, 홍순웅, 김보근, 김병숙, 김명균, 김덕영, 장동환, 조인식, 황관오, 한우영, 노상도
▲선교부: 부장 한건수장로, 차장 이경택장로, 부원 손소봉, 김용서, 오해훈, 김재권, 김택일, 손진창, 문유심, 장갑성, 송득현, 이인근, 하애도
▲총무부: 부장 박천흠장로, 차장 김광돈집사, 부원 한우영, 김재숙, 백영자, 오상숙, 최귀순, 김영희, 김병숙, 김일수, 홍순주, 이성호, 노탄실,
▲관리부: 부장 김주영장로, 차장 노수정집사, 부원 오철훈, 명호순, 한우영, 김치용, 김경순, 한정현, 김상옥, 강금자, 김낙도, 김종성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해훈장로, 부원 심재현, 노동준, 김준호, 조성신, 김태식, 이천영목사, 김상규목사, 오봉운목사, 김창호목사
▲주일학교 : 교장 임동선목사, 장년부장 이천영목사, 대학부장 오봉운목사, 고등부장 김상규목사, 중등부장 김창호목사, 유년부장 김태식집사
▲여전도회: 고문 임동선목사 ▲장년회 고문 이천영목사 ▲성가대 고문 김용서장로 ▲청년회 고문 김주영장로

기도를 많이하는 모임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하는 대학생들이 많았던 초창기 OMC

1975년 12월 14일 새해 협동목사로 이천영목사, 오봉운목사, 김상규목사를 그리고 박계로장로를 협동장로로 임명했다.

1976년도 집사로 임명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금자, 김경순, 김광돈, 김낙도, 김명균, 김병숙, 김보근, 김영희, 김일수, 김재숙, 김종성, 김준호, 김중완, 김태식, 노동준, 노수정, 명호순, 문유심, 박영자, 박환철, 이성호, 이인근, 이옥조, 장동환, 조성신, 조인식, 최귀순, 한정현, 홍순웅, 홍순주, 황관오, 홍미현, 원재수, 이성천, 배신일, 이재권, 조영근, 김병곤, 황종구, 원상훈, 정상근, 조규철, 홍철웅, 김광식, 추수은,

원준옥, 최용숙, 박채란, 성인호, 계정자, 조동희, 장세정, 심준정, 정희선, 권정숙, 송문순, 김시용

다시 교회 건물구입과 신축 논의



임동선목사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티없이 밝은 얼굴들

1971년 12월5일 903 S. Crenshaw Blvd.에 있는 미국 치과의사협회 건물을 구입 이전한 뒤 새 교인들이 날로 증가했다. 처음 출석 교인수가 230명선이었으나 1년이 지난 1973년 1월에는 교인수가 400명을 넘어 섰다.

1973년 3월25일부터 11시 주일 아침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렸다. 새 이민교회로 동양선교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고 처음으로 2부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때 성가대도 1부와 2부로 나누었다. 하루 2회 주일예배를 드릴 때 출석교인수는 모두 46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크렌셔교회 본당은 모두 200명~2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런데 교인은 500명을 넘어섰다. 교인들은 점차 예배장소와 주일학교, 주차장 등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30일 송년 당회때 다시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자는 안건을 토의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주일예배를 드리는데도 교인이 계속 증가하자 1974년 3월3일 정기당회는 교회대지를 구입,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과 큰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방안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오봉운협동목사는 "앞으로 동양선교교회는 1천명 이상 교인이 들어가는 건물을 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렌셔 교회당은 크리스찬 메디칼센터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74년 5월12일 정식으로 교회확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임동선목사, 오봉운목사, 오해훈장로, 김용서장로, 김주영장로를 임명했다. 교회확장추진위원회는 1974년 6월2일 이름을 건축위원회로 바꾸고 김주영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그리고 오해훈장로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총무: 박천흠, 박길복
▲ 서기: 김광돈, 편애진
▲ 기술: 김병곤, 김수문, 조영근
▲ 섭외: 김명균, 조동희, 스티브 임
▲ 재정: 오봉운, 김용서, 홍미현
▲ 자문: 이경택, 한건수, 한인남, 김상규, 임동선, 정형조, 김병숙, 김재순, 박계로, 이천영목사

창립 3년만에 1, 2부 예배로, 또다시 새성전 논의되기 시작

1974년 5월26일 주일 출석 교인수는 모두 658명으로 늘어났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처소가 협소했다. 새 교인이 계속 늘어나자 주차문제도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제직들은 특별히 교회 밖에 차를 세워줄 것을 바랐다. 당회는 다시 교세확장을 위한 건축위원회 5인을 선정(임동선목사, 오봉운목사, 김용서장로, 김주영장로, 오해훈장로), 구체적인 새 건물 구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임했다.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이었던 조영근목사(현재)는 당시 새 성전 건축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현장소를 재개발하는 방안.

둘째는 교회건물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방안.

셋째는 일반건물을 구입 개축해서 교회로 사용하자는 방안.

넷째는 새 터전을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교회신축을 하자는 방안.

그때 임동선담임목사는 새교회는 꼭 윌셔 북쪽으로 구입해서 이전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달이 지난 1974년 6월30일에는 교회출석인원이 주일예배 470명, 주일 저녁 103명 주일학교 80명, 중 · 고등부 37명, 대학부 17명, 주일 새벽 25명, 수요기도 32명 등 모두 764명으로 늘어났다. 헌금은 주일헌금이 106달러, 십일조 414달러, 감사헌금이 358달러, 건축헌금이 10달러, 기타 50달러로 매주일 헌금총액이 평균 1,200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웨스턴 랄프마켓 구입 위해 기도

온 교인들은 1974년 1월부터 자진해서 새 성전 구입을 위한 건축 헌금을 매주일 드렸다. 이때 교회는 건축헌금을 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새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는 교인 때문에 새 건물로 이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교인사이에 뜨겁게 일어났다. 특별히 권사들은 새벽예배에 나와서 새 성전 구입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1974년 강춘식씨가 20달러의 건축헌금을 처음 드렸고, 이어서 편애진, 송태익, 오철훈, 한건수, 김재순, 원상훈, 최중관, 최귀인, 김병곤 등이 건축헌금을 냈다.

1974년 7월14일 당회는 교회건축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새 건물을 구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마침 424 N. Western Ave.에 있는 랄프마켓을 판다는 소식이 전해들었다. 당회는 시가 65만달러의 이 건물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교회 예산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높은 가격이었다. 제직들은 이 건물을 살 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축헌금은 당회원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로 했다. 8월18일 전교인이 교회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렸다.

또다시 협소해진 자체건물 교회 1천명 수용 가능한 교회 건물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교인이 급증했다

8월18일 주일예배때 임동선목사는 「5주년을 내다보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를 했다. 저녁 예배때에도 「내 아버지의 집」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건축에 나서기로 마음을 정했다. 성도 모두가 새 건물 구입을 바라는 마음에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졌고 교회건축을 위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일 대예배 때에는 364명이, 주일 저녁예배에는 112명이 건축헌금에 참여를 했다. 이날 기도를 하는 중에 낸 건축헌금은 모두 1,491달러나 되었고 1974년 8월25일 주일에도 1, 2부 예배에서 또다시 교회 건축헌금을 드렸다.

전교인이 나서서 새 성전 건축 헌금

1974년 9월14일 당회는 새 성전구입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새 교회 건물로 424 N. Western Ave. 의 미국인 소유 랄프 마켓을 구입한다.

1. 마켓측에서 요구하는 가격 65만달러는 62만5천달러로 조정한다.
2. 30%의 다운페이를 20%로 낮춘다.
3. 20년 상환을 30년으로 연장 상환한다.
4. 오퍼로 1만달러를 지불한다.

건축위원회는 다운페이 12만달러는 특별건축헌금과 크렌셔 교회 건물 매각 대금, 채권 발행

등을 합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새 교회의 구입을 위해 유가증권 형식의 무상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여전도회는 5백달러를 교회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렸고, 또다시 5백달러를 헌금하겠다고 나서서 전교인들에게 교회 구입의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974년 9월15일 당회, 제직회, 건축위원회는 전체 합동회의를 갖고 웨스턴 랄프 마켓을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리고 전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속 건축헌금에 동참해 줄 것과 기도를 요청했다. 9월20일 당회는 교회구입 교섭위원 10명을 임명했는데 임동선목사, 김주영장로, 한건수장로, 오해훈장로, 오봉운목사, 박천흠장로, 조영근집사, 김명균집사, 노동준집사, 심재현집사 등이다.

전교인의 기도와 참여로 새 교회건물 구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일 예배후에 전교인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를 알렸다. 그리고 1974년 10월13일 주보에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어 424 N. Western Ave.에 있는 랄프 마켓을 새 교회 장소로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5년 1월22일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적인 알림이 실려 있다.

현재 교회건물인 웨스턴 랄프 마켓 구입계획을 세웠는데 가격은 65만달러로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다

당회는 1974년 12월22일 주일까지 교회건축 헌금을 해 줄것을 바라면서 교회 이전을 위한 전교인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온 성도는 크렌셔 교회당에서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를 갖고 새 성전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

새 교회 구입교섭 10인위원회를 해체하고 3개 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기존 건물 처분 위원: 한인남, 김주영, 노수정, 김중완, 김명균
▲ 유치원 신설 연구위원: 한건수, 오해훈, 김명균
▲협동조합 연구위원: 오봉운, 박천흠, 김재숙, 김보근

건축채권 발행으로 4만5천달러 모금

교회는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은 교인들이 건축기금을 교회에 헌금하면, 이 기금을 웨스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채권 발행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채권 금액은 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이때 발행된 채권 총액은 4만5천달러였다.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기금과 성도들의 건축헌금 그리고 교회 뒤에 있는 주일학교로 쓰던 두 채의 주택을 판매, 1974년 12월28일 12만 5천달러를 다운페이로 무난히 완납했다. 교회는 어려운 때에 선한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매주 주보에 광고했다.

1975년 2월16일부터 당회장이 서명한 채권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민교회로 성전 구

입을 위해 처음 발행한 채권제도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채권을 산 교인들은 주로 목회자와 사업을 하던 장로, 집사 등 제직이었다.

건축위원장 김주영장로는

> "그 당시 랄프 마켓 구입가격인 62만 5천달러라는 액수는 이민사회에서 천문학적이었다. 세탁소를 사는데 1만5천달러, 마켓도 1만달러, 집도 2-3만달러로 살 수 있을 때였다. 하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고 건축헌금을 냈다. 그래도 다운페이를 할 돈이 부족하자 당회가 유가증권과 같은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1월26일 새로 산 건물로 이전하기에 앞서 당회원과 제직들이 예배용 의자 헌납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때 의자 한 개의 가격은 6달러 50센트였다. 김지수 내외가 처음으로 의자 15개를 교회에 헌납했고, 교인들 모두가 총무부장인 박천흠장로를 통해 계속 교회에 의자를 헌납했다.

1975년 1월12일 교회이전에 앞서 성전 구입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해체하고 건물 개조 및 관리 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새 교회 위 대형간판 제작은 심재현집사에게 일임을 했다.

성전구입을 위해 처음으로 발행한 건축 채권은 교인의 관심이 높아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심재현장로(초창기 동양선교교회 집사)는 성전위에 우뚝선 대형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작 과정을 이야기 했다.

> "동양선교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다름아니라 세계지도가 그려진 지금의 교회건물 위 노란색의 간판은 정성을 들이고 땀을 흘려 제작한 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1974년 현재의 교회 건물을 구입한 뒤 임동선목사님과 김명균집사가 밤중에 우리 아파트를 찾아 오셨다. 당시 랄프 마켓이 쓰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해도 간판제작 회사에서는 6천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형편이 어려워 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동선목사님의 설명이었다. 임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일주일 동안 아예 가게문을 닫아걸고 오봉운목사님 자제인 오대호를 조수로 삼아 교회 간판 제작에 들어갔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가운데 넣은 세계지도를 그린후 한국지도 위에 십자가를 세워 한국의 세계선교를 상징케 했으며 그 밑에 「동양선교교회」라는 글씨를 써 가지고 붙인 뒤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약 1천달러 정도가 소요된 간판을 보고 간판회사에서는 "2년 이상을 못 넘길 것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만든 간판은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를 상징하는 표상처럼 우뚝 서있다."

100년 후를 내다본 새 성전 구입 계획

성전 구입을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의 대장이 되었던 임동선목사는 크렌셔교회 이후 두 번째로 웨스턴가에 성전을 세우는데 참으로 헌신을 다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당시 임동선목사가 랄프 마켓을 100년 후를 내다보고 구입한 데에는 다음 3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교회가 자리잡을 지역을 먼저 고려했다.

웨스턴 지역은 한인타운과 가깝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한 것을 생각했다. 임동선목사는 앞으로 새 이민사회는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동양선교교회는 한인타운과 함께 성장하고 한인타운을 위해 봉사하고, 한인 이민자를 위한 신앙의 안식처가 될 먼 훗날을 내다보았다. 날이 갈수록 웨스턴가가 한인타운의 중심가가 된다는 비전을 그 당시에 이미 갖고 있었다.

새 교회의 선택배경은 지리적 이점, 교회 발전 규모, 선교 교육 봉사 센터가 될 것을 고려했다

두번째 교회의 발전 규모를 특별히 고려했다.

랄프 마켓을 새 성전으로 새롭게 단장할 경우 1,500명의 교인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차시설이 300대가 될 것을 생각했다.

세번째는 새 천년에는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담당하는 세계선교센터가 될 것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이 건물을 구입하기까지는 수많은 곡절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일부 집사들의 반대였다. 반대 이유는 도저히 건물구입 후 매월 페이먼트에 대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랄프 마켓 자리는 아무리 잘 가꾸더라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앙심이 깊은 어느 한 집사는 "이 교회를 살 때, 임동선목사님 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3개월간 검토한 끝에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피를 뽑아



웨스턴가에 신앙의 보금자리가 된 동양선교교회

팔아서라도 좋은 성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직회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 그때 임동선목사는 큰 용기를 얻었고 더욱 열심히 목회와 심방을 다녔다.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어느 곳이라도 마다않고 뛰어 다녔다. 한번은 시카고에서 부흥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 새벽과 아침 선교집회를 마치고는 그날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준 사례금을 전액 건축 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했다. 임동선목사의 열심으로 교회의 건축헌금은 매주일 늘어났다. 이때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나타났다. 어느 백인은 우연히 교회 옆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서 3천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내고 가기도 했다.

임동선목사는 저서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에서 새 성전 이전 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교회를 이전한 후 3개월 동안은 교역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음에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몇 천달러씩 모자랐다. 젊은 집사 몇분은 지금이라도 이 건물을 팔고 우리 재력에 맞는 장소로 옮겨가지 않으면 조만간 파산을 하고 교회가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 싶었다. 교회 이전 후 3개월간 돈을 꾸러 다니는데 어느 집사는 "목사님이 영웅심과 허영심을 가지시고 하는 일로 목사님은 크게 망신을 당하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임재순사모도 "이 교회를 처음 사기로 할 때에 참으로 해낼 수 있는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이민목회자의 아내」라는 저서에 쓰고있다.

> "하지만 열심인 교인들이 많아 건물구입이 가능했다. 그 당시 랄프 마켓을 산다고 할 때 임동선목사가 미쳤다고 말하는 이까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새 성전 구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었다. 주차시설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도 난관이 많았으나 오히려 크렌셔 교회를 살 때에 비하면 애로가 적었다."

새성전은 좌석이 8백석으로 크렌셔 교회때의 250석보다 3배나 더 넓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50대에서 150대가 들어갈 수가 있었다.

성전 구입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새 성전을 구입할 때 당회원과 제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의 힘은 놀라왔다. 당시 청년회 부회장 김명균집사는 미국부동산회사 세일즈 퍼슨(중개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교회가 새 건물로 확장하는 방안을 토의하고 있는 동안 김명균집사는 밤낮으로 새 교회건물을 알아보러 뛰어 다녔다. 하루는 건축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임동선목사님을 댁에다 모셔다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김명균집사의 손을 잡고 차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새 교회로의 이전 문제였다.

그날 김명균집사는 집에 들어가 밤을 새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갑자기 랄프 마켓이 떠올랐다. 랄프 마켓의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부동산 책임자를 알고 지낼 때였다. 다음날 아침 바로 랄프 마켓 본사로 출근을 했다. 마켓 책임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교회로 사고 싶다고 설명을 했다. 그후 한달 이상을 책임자를 만나고 또 만났더니 그들에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임동선목사에게 귀띔을 해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건물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이다. 드디어 어느날 마켓 책임자에게서 희소식의 전화가 왔다. 랄프 마켓을 한인교회로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선교교회와
모든 교인을 사랑하시어
이민사회에 길이 남을
웨스턴가에
새 성전을 주신 것이다**

랄프 마켓 본사가 이 건물을 팔게 된 또 하나의 설명이다.

랄프 마켓은 비교적 로스앤젤레스 안의 좋은 위치에 있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수퍼 마켓 안에 생쥐가 생겨나고 음식물은 물론 건물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회사측은 그렇다면 이 마켓을 팔고 3가와 버몬트 코너의 랄프 마켓을 본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갑자기 내렸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마켓이 변하여 한인 이민교회의 새 성전이 된 또 하나의 배경뒤엔 생쥐 소동도 이야기 되고 있다.

이 건물을 구입할 때 가격조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최종가격은 62만 5천달러로 나왔는데 12만 5천달러의 다운페이에다 매월 5천7백달러씩 페이먼트는 크게 무리였다. 당시 교인은 모두 7백여명에 이르렀으나 이 교회를 구입 관리할 수 있기에는 1,500명의 교인이 출석해야 수입과 지출 예산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기도의 힘은 위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만 같이 생각하던 웨스턴 랄프 마켓을 구입하게 되었다. 새 성전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전 대청소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일부 제직들은 결국 새 교회를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양선교교회와 임동선목사 그리고 모든 교인을 사랑하시어 이민사회에 길이 남을 웨스턴가에 새 성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903 S. Crenchaw Blvd에 있는 옛 교회건물은 소망교회(담임 김경서목사)가 12만 5천달러에 구입했다.

1975년 1월26일 웨스턴 성전 입당예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陰府)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1975년 1월26일 주일 하나님의 은총과 온 교우의 감사와 기쁨 속에 웨스턴 새 성전 입당 기념예배를 드렸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입당 기념예배는 임동선담임목사가 사회와 설교를 맡았다. 오해훈장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 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리는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박환철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반주 최은산)는「저 하늘이 주 영광 드러내고」라는 신령한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임동선목사는「교회의 사명」(마 16:13~18)이라는 제목의 입당설교를 통해서"새로 마련한 성전에서 이민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앞으로 더욱 잘 감당해나가자"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귀임집사는「여호아는 나의 목자」라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건축위원장 김주영장로는 랄프 마켓을 새 성전으로 구입하고 입당예배를 드리기 까지의 경과보고를 했다. 성전 입당예배는 이천영목사의 축도로 감격과 은혜가운데 마쳤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새 성전 입당 기념예배 후 출석한 621명의 전 교인들이 성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 이민교회로 계속 성장해나가는 본교회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대형 수퍼마켓이 한인교회로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다



1975년 1월 26일 감격속에 웨스턴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오후 6시 저녁예배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중인 허경삼목사(서울 신학대학교 교수)가「그리스도의 생활」(엡 5:8~21)이라는 제목의 축하 설교를 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가 축도순서를 맡았다. 새 성전 입당기념 예배 날 성도들은 모두 4,794달러의 건축헌금을 드렸다.

새 성전 이전을 기뻐하는 교인들은 어느 정도 불편한 점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보냈다. 한국에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에 열심이었던 김보근권사, 김재순권

사, 강금자권사, 이옥엽권사 등 기도의 어머니들은 새 성전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다. 내집 마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를 새벽마다 감사기도로 보답했다. 성전 이전때에 오대호(오봉운목사 아들)와 김수문집사 등이 참으로 크게 수고했다.

내집 마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를 새벽마다 감사기도로 보답했다

동양선교교회가 웨스턴가에 있는 랄프마켓을 구입, 이민교회 성전으로 사용한 후 한인사회에서는 교회당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처음 마켓을 교회당으로 산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교회건물은 기존교회를 사든가 새롭게 교회당을 짓는 다는 생각에서 주택, 사무실, 공장 등을 구입해서 개조함으로 새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했다. 상가에 까지 교회당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변화가 동양선교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웨스턴 성전 입당예배 후 임동선목사와 성도들이 건물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새 성전 비품 구입을 위해 전 성도 참여

웨스턴 새 성전을 구입하고 입당예배를 드린 후에는 수많은 봉사자의 헌신이 있었다. 청년회 회원들은 마켓 진열장을 다시 조립한 후 종이를 둘러서 강단을 만들었다. 급조 강단에서 임동선담임목사가 설교를 했다. 그리고 10여년 묵은 마켓바닥의 때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야로 닦아서 깨끗한 새 성전을 만들었다.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전 성도가 "내 교회 하나님의 집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찼다.

입당예배 후 랄프 마켓 건물을 구입하기까지 수고해왔던 건축소위원회 부위원장 오해훈장로가 사임하고 재정부장이던 조영근집사가 맡았다. 그리고 재정부장은 홍미현집사, 전기시설 감독에 노수정집사를 임명했다. 새 성전을 위해 각종 비품들을 기증하는 교인들이 늘어났다. 김용서장

로는 대형 커피통 2개를, 오봉운목사는 마이크 1대를, 김광락집사는 앰프 1대를 교회에 헌납했다. 또한 김태식집사도 마이크 1대를 교회에 기증했고, 이옥엽권사는 공사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새 성전에서는 매일 새벽 5시30분 이천영목사가 인도하는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수요일 오후 7시부터는 임동선목사가 묵시록을 강의하는 수요예배를 드렸다. 유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와 성가대는 주일 오전 10시~10시40분 성경공부를 했다. 1975년 2월16일 홍두희, 이인근, 노영석, 장세정, 홍순웅, 김종성, 추수은, 배수웅, 이성호, 김주영, 강금자, 원상훈, 신영선, 김병곤, 강춘식 등이 부족한 교회의자를 기증했다. 입당예배까지 모두 180개의 철제의자가 마련되었다.

1975년 3월23일 주보에는

> "의자가 찼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석이 필요하오니 방석을 교우 각자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실려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정마다 방석 가져오기를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돈 빌리러 다닌 고통의 3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입 3년만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74년 여름부터 웨스턴가에 있는 미국 대형 수퍼마켓을 새 교회당으로 구입한 후 부채 압박에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3년간 남모르는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구입한지 3년만에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새 교회를 구입한 후 재정 문제로 고통을 받았지만 1977년 5월8일 한 무명 성도와 전 교우들의 협조로 다운페이를 모두 청산할 수가 있었다.

그후 철제의자가 예배때 소리가 나서 2년후인 1977년 6월12일 주일예배 때 새 성전에 나무의자와 카펫을 깔기 위한 특별헌금을 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나무의자가 1977년 8월14일 대예배당에 들어왔다. 새로 만든 긴 나무의자 67개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나무의자를 위해 기도와 헌금을 했다. 모두 8천달러의 헌금으로 나무의자를 완전히 마련했다. 그리고 주일학교 칸막이를 위해서 5천달러의 헌금을 내서 학교시설을 완전히 갖추었다. 전교우들은 자진해서 부족한 의자 구입 기금과 교회 칸막이 시설, 부엌 설치를 위한 헌금을 했다. 오철훈집사는 교회강단 마이크 장비와 직접 시설까지 담당했다. 1978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전교인의 참여로 주일학교 교실을 위한 칸막이와 부엌시설을 완전히 갖췄다.

기도하는 집, 꿈이 있는 동양선교교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은 청교도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가정과 사업체를 돌보았다. 동양선교교회가 미국의 대형 수퍼마켓을 성전으로 구입한 것은 바로 신앙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는 이민자의 꿈과 믿음이었다. 웨스턴가에 자리잡은 새 성전은 미국과 한국, 남미 그리고 제 3세계를 위한 선교를 맘껏 할 수 있게 신앙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장소가 넓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설교때에 자주 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를 이루어 주셨다.

처음 동양선교교회가 웨스턴가로 이전하기전 이 지역은 매춘 등 인식이 좋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이 된 뒤 한인상가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오늘날 교회 근처는 주택지역으로나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커뮤니티로 더욱 발전해 나갔다. 동양선교교회 타운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동양선교교회가 웨스턴가에 자리잡은 후 이지역은 주택과 상가로 더욱 좋아졌다 훗날 동양선교교회 타운을 만들었다

황재열목사(창립때 협동목사)는

"웨스턴가의 랄프 마켓을 산 것은 동양선교교회 역사 중에 참으로 큰 일이었다. 임동선목사님의 신앙이 좋았던 것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고, 전교인이 하나처럼 참여를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마침 한인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가능했다. 한인사회 공동체로서 동양선교교회 역할이 이때부터 더욱 커졌다"고 감사해 했다.

김용서장로(창립교인 · 임마누엘선교교회 원로목사)는

"나는 크렌셔 건물을 구입할 때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동양선교교회가 랄프 마켓을 사갈 때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첫 2년동안 페이먼트에 부담이 되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큰 성전을 구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처음 웨스턴교회로 이전한 후 임동선목사님은 소파에서 여러 날 주무셨다"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건수원로장로는

"웨스턴 건물을 새 교회당으로 산 뒤 월 5700달러의 페이먼트를 제때에 낼 수가 없었다. 3개월간 돈을 못낸적이 있었고 Foreclose Notice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임동선목사와 김주영장로, 그리고 나와 셋이서 3가에 있는 랄프 마켓 본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 집사는 Bankrupcy를 하자고 했지만 온 성도들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가자"며 더욱 열심히 기도를 했고 어려움이 차차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명균장로(미주성산교회)는

"임동선목사님은 비전이 있는 목회자이시다. 그렇게 큰 건물을 산다는 것은 일반 목회자로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목사님께서는 한번 결정된 일은 열심히 밀고 나가시는 의지와 추진력이 있다.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동양선교교회가 랄프 마켓을 산 것은 참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도 임동선목사님과 함께 랄프 마켓 안에 들어가 둘러본 뒤 채소 파는 코너 앞에서 임동선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웨스턴가 랄프 마켓 구입은 교회 역사중 참으로 큰 일이었다" 커뮤니티 교회 역할이 이때부터 더욱 커졌다

임동선목사는 웨스턴 성전 구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우리 교회가 축복 받은 이유 중의 2가지는 창립 첫 주일 헌금 전액을 모국 농촌교회에 보냈다는 것과 둘째는 아무도 자기 집이 없을 때지만 먼저 성전을 사서 마련한데 있다고 본다. 크렌셔 교회 때는 내 교회라는 관념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고, 더욱 열심을 내어 3년만에 2부로 예배를 드려도 좁게 되었다. 첫 번째 교회를 믿음으로 구입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큰 교회건물을 사기로 결심을 했다. 1975년 1월에 현재건물을 62만 5천달러를 주고 이전해 왔다. 이전해온 후 한 1년 동안은 매달 5천7백달러씩 내는 페이먼트에 큰 곤혹을 치르었다. 목사가 매달 돈꾸러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부터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다."

기도와 봉사에 앞장선 여전도회 회원

여전도회 회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 특별히 웨스턴가에 새 성전을 구입할 때에는 건축헌금 모금에 앞장을 섰고 새 건물을 구입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한다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참으로 크고 많았다. 언제나 교회의 모든 행사에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폈다. 교회대항 체육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할 때에는 음식과 음료수 등을 준비했고 임동선목사가 심방을 다닐 때에도 동행을 했다. 구역장으로 구역예배를 열심으로 인도했고 무엇보다도 여전도회는 모국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앞장을 섰다.

1974년 11월17일 여전도회는 총회를 갖고 봉사를 해나갈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은신 ▲부회장: 김재숙 ▲총무: 박영자
▲서기: 오상숙 ▲부서기: 박현숙 ▲회계: 김희숙
▲부회계: 이득애
▲전도부장: 김보근, 차장 이윤숙

▲재정부장: 한정현, 차장 박채련
▲문화부장: 김경순, 차장 장세정, 계정자, 채정희
▲봉사부장: 강금자, 차장 홍순주

1975년 12월7일 여전도회는 총회를 갖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고문: 이윤숙, 임재순
▲회장: 박현숙 ▲부회장: 오상숙
▲총무: 김희숙 ▲부총무: 홍은경
▲서기: 김성실 ▲부서기: 한정선
▲회계: 성인호 ▲부회계: 박영자
▲종교부장: 김재숙 종교부 차장: 황관오
▲봉사부장: 배종연 봉사부 차장: 최남숙
▲문화부장 :김경순 문화부 차장: 한정현
▲미화부장: 계정자 미화부 차장: 조동희
▲음악부장: 장세정 음악부 차장 :송문순

동양선교교회
여전도회는 바자회를
많이 갖고
교회를 힘껏 도왔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던 초창기 여전도회 회원들

여전도회는 1975년 12월21일 크리스마스를 맞기에 앞서 모두 1천8백43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여전도회는 새 성전을 구입하기 전에도 4천달러를 교회건축기금으로 헌금했다. 또한 1976년 5월8일(토) 여전도회는 교회 부엌시설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전도회 회원들은 음식, 의류, 전기제품 등의 품목을 팔았고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교회 부엌시설을 마련했다.

조영근목사(초창기 교인)는

"교회의 발전을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교회의 여성도들의 숨은 공로를 잊지 못할 것 같다. 교회 월부금 마련을 위한 김치담그기, 소비조합 운영, 바

자회실시 등 도움이 되는 일이면 밤잠을 설쳐가며 일부 교인의 빈축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일을 해냈던 그 당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머리가 숙연해 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오상숙권사 (미주성산교회)는
"여전도회에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았다. 그분들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바자회를 많이 한 교회가 아마 동양선교교회일 것이다. 바자회를 통해서 모은 기금을 선교비나 교회 건축, 그리고 장학금을 마련하는데 썼다. 특별히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에는 여전도회에서 음식을 마련했고 그때 남은 돈을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2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선교, 교육, 봉사의 설립 3대 목표 중 임동선목사는 2세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임동선목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이민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부는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등을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초창기 중등부는 조성신집사, 고등부는 김상규목사, 대학부는 오봉윤목사 그리고 장년부는 이천영목사가 책임을 맡아서 헌신적인 교육지도를 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한 자녀교육을 잘 해나가야 한다

1974년 5월5일 어린이 주일 임동선목사는 「자녀교육의 근본 문제」(신 6:1~9)라는 설교를 통해 "이민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한인교회가 좋은 2세 교육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축복받는 자녀가 나온다"고 설교했다.

6월16일 교육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서울 신학대학교 이도재학생, 축산대학의 안경필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학자금을 보내주었다. 교육부는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매월 한차례씩 갖는 등 신앙 교육에 헌신적이었다.

1975년 10월19일 당회는 교육위원회를 인사, 행정, 지도자 훈련 등 부서를 세분화해서 2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갔다. 고등부는 1년에 한차례씩 레이크 에로우헤드에서 수양회를 갖고 좋은 신앙으로 이민생활을 더 보람되게 이루어 나가기로 합심 기도를 했다.

1974년도 고등부 임원명단

▲회장: 임승천	▲부회장: 장명희	▲총무: 김학진
▲서기: 이화진	▲회계: 박혜란	▲문화부장: 염헌맥

▲봉사부장: 김완태 ▲신앙부장: 조은옥 ▲친목부장: 김상훈

1975년도 고등부 임원명단

▲회장: 염헌맥 ▲부회장: 이화진 ▲총무: 김학진
▲서기: 김순미 ▲회계: 백정희 ▲종교부장: 임승천
▲문화부장: 임인경 ▲친목부장: 김정주 ▲봉사부장: 김대수

1975년도 중등부 임원명단

▲회장: 박영란 ▲부회장: 원문철 ▲총무: 심혜진
▲서기: 김용훈 ▲회계: 김연정 ▲종교부장: 최원경
▲봉사부장: 노창수 ▲문화부장: 조은영 ▲체육부장: 김성주

매주 출석교인 1천명으로 성장

1975년에 모두 2만5천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새 이민자로 입국했다. 새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민교회들이 증가했고 이민자들은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한인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교회생활과 이민생활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 모습이었다.

창립 5주년을 맞은 동양선교교회는 남가주 지역에서 새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갔다. 웨스턴의 새 성전은 위치가 한인타운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살든지 교회에 출석하기가 쉬웠다. 무엇보다도 임동선담임목사의 설교와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한국 선교사역으로 이민자들이 꼭 출석하고 싶은 한인교회로 이름이 났다. 1974년 크렌



1970년대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와 성전전경

셔 교회 때 출석교인이 매주일 800명이었고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에는 출석 교인이 주일예배, 수요예배, 주일 저녁예배,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 및 대학생 등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교회이전은 바로 부흥이다」는 말처럼 웨스턴가의 랄프 마켓을 교회당으로 구입한 뒤 동양선교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1976년의 출석교인은 1월18일에 1,025명, 2월8일 1,330명, 4월25일 1,012명, 5월9일 1,101명, 5월16일 1,014명, 7월4일에는 1,229명이었다.

1천명 교인시대를 맞아 제직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렸다.

▲김재권장로(초창기 교인)

"1970년대 후반기는 우리교회 발전에 절대적인 기간이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유로는 첫째 초교파의 교회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교인이 다 출석할 수가 있었다. 두번째로는 임동선목사님의 성령에 가득찬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으러 원근 각처에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 교회 분위기는 자연스러웠고 누구나 와서 편안한 교회라는 것이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세번째로는 교회의 위치가 좋은 것을 들 수가 있다. 끝으로는 자녀교육을 위해 한글학교 프로그램 등 교육에 크게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화목과 단합이 눈에 띄인 때였다."

창립 5년만에 새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남가주 한인교회로 성장했다

▲이성원목사(창립교인)

"임동선목사님의 이름이 한국에서 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목사님을 아는 교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다. 목사님과 교회가 새 이민자들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도 동양선교교회가 이민교회로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오철훈장로(미주성산교회)

"동양선교교회 성장요인을 크게 세가지로 본다. 첫째는 임동선 목사님의 설교때문이다. 그 바쁘신 중에도 설교준비를 참으로 열심히 하셨다. 말씀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셨다. 설교때마다 새 이민자를 위해서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거뜬히 살았다. 두번째는 좋은 교육프로그램때문이다. 제직중에 교육전문가들이 많았고, 2세에 대한 교육열이 참으로 높았다. 초창기부터 교육을 강조한 교회, 교육을 열심히 한 교회였다. 세번째는 교회위치때문이다. 처음부터 한인동포들이 많은 곳에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자고 했었다."

임동선목사의 설교 중 특유의 위트와 풍부한 해학은 우선 책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했다. 평상시에 임동선목사는 "목사직이 좋은 것은 영적인 새 지식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방 즉, 골방(기도), 책방, 심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75년도 각 부서에서 헌신한 책임자들

1975년 당회는 각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부흥하는 이민교회로서 교인을 위한 신앙 활동을 더욱 체계있게 펴나갔다. 그 당시 좋은 성도, 좋은 제직이 많은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1970년대 제직은 여가 생활 없이 교회만을 위해 살 정도로 신앙생활에 헌신적이었다

1975년 1월5일 각 부서 및 부서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용서장로, 차장 박계로장로
임동선, 이천영, 오봉운, 김상규, 이경택, 박환철
▲총무부: 부장 박천흠장로
부원: 김재숙, 김영희, 김일수, 박영자, 오상숙, 김종성, 이성호, 최귀순, 홍순주, 조인식, 한정현, 이옥엽, 황종구, 김광식, 조동희, 심순정, 원준옥, 박채란, 성인호, 정희선, 송문순
▲재정부: 부장 한건수장로, 차장 홍미현집사
부원: 김중완, 김보근, 김명균, 김병숙, 장동환, 홍순웅, 황관오, 이옥조, 배신일, 홍철웅, 추수은
▲선교부: 부장 김주영장로, 차장 홍순웅집사
부원: 김재순, 문유심, 손소봉, 오해훈, 이인근, 장갑성, 이성원, 장세정, 원재수, 최용숙, 권정숙
▲관리부: 부장 한인남장로, 차장 원상훈집사
부원: 김상옥, 김시용, 김경순, 김낙도, 강금자, 명호순, 오철훈, 노수정, 김병곤, 정상근, 계정자, 조규철, 김광돈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해훈장로, 차장 김준호집사
위원: 이천영, 오봉운, 김상규, 김태식, 조성신, 노동준, 심재현, 이재원, 박동원, 조갑부, 조영근, 이중용
▲주일학교: 교장 임동선목사
▲장년부장: 이천영목사, 차장 박동원
▲대학부: 오봉운목사
▲고등부: 김상규목사, 차장 조갑부
▲중등부: 조성신집사
▲유년부: 김태식집사, 차장 이중용

교회 각 기관 고문:

▲여전도회 고문: 임동선목사
▲장년회 고문: 이천영목사
▲청년회 고문: 오봉운목사, 김주영장로, 한건수장로, 최순달, 정형조
▲성가대 고문: 한건수장로

당회는 1975년 6월8일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협동목사: 이천영목사, 김상규목사
▲협동장로: 박계로장로

1970년대 제직들은 신앙생활과 교회봉사가 이민생활의 전부였다. 제직들은 교회생활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온 것 같이 살았다. 한인사회 단체 참여나 여가생활 없이 교회만을 위해서 지낼 정도로 교회생활에 헌신했다. 그리고 열심인 집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황재경목사 초청 창립 5주년 기념 부흥회

1975년 7월27일 창립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창립주간인 7월23일~27일 워싱턴한인교회 황재경목사를 초청, 창립기념 특별 부흥회를 개최했다. 황재경목사의 심령부흥회는 5일동안 성령중심, 전도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새 이민교인들이 황재경목사의 은혜스러운 설교와 갖가지 악기 연주를 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다.

7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를 임동선목사의 사회로 드렸다. 웨스턴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가진 창립기념예배는 김주영장로의 기도와 성가대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황재경목사의 「솔로몬보다 큰 이」 (마 12: 38~42)라는 설교에 이어 여섯권사의 시무권사 취임식을 임동선담임목사 집례로 거행했다. 이날 김재순, 이옥엽, 장갑성, 강금자, 김병숙, 김보근 권사가 시무권사로 취임을 했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축하를 했다.

여섯분의 시무권사는 초창기부터 교회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기도의 어머니들이었다

여섯분의 새 시무권사들은 초창기부터 교회에 출석했다.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교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했고 새벽기도의 단을 쌓았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여종들이 시무권사로 취임하면서 교회는 더욱 성장을 했다. 예배후에는 새 권사들이 마련한 떡 잔치를 별관에서 가졌다.

동양선교교회의 첫 시무권사로 취임한 권사들의 현재는 다음과 같다.
▲김재순 권사: 동양선교교회 출석
▲이옥엽 권사: 시애틀 거주
▲장갑성 권사: 1978년 소천. 임재순 사모의 모친
▲강금자 권사: 2000년 소천.
▲김병숙 권사: 동양선교교회. 김치용집사의 모친
▲김보근 권사: 미주성산교회 출석. 김창무집사의 모친

창립 기념행사를 은혜 속에 마친 교회는 전교인을 위해 앞으로 성경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나가기로 하고 매주 오후 7시 수요예배에는 임동선목사가 직접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9월 9일~13일 처음으로 4일간 평신도 신학 특강을 개강했다. 매일 오후 7시~9시30분 실시된 신학 특강의

제목과 담당목사는 다음과 같았다.

▲선교신학: 장중열목사
▲목회신학: 임동선목사
▲기독교신학: 이천영목사
▲성서신학: 박장균목사
▲교육학: 오해춘장로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민교회로 더욱 이름이 났다

처음으로 가진 평신도 신학 특강은 일반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성경공부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동양선교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는 교인이 되기 위해 각부서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넓혀 나갔다.

어린이 및 가족 찬송 경연대회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는 이민교회로서 교인들에게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특별히 새 성전으로 이전한 뒤 찬양을 통한 이민생활과 교회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발전시켜 나갔다. 1975년 5월25일 주일 저녁예배는 청년회 주최로 음악 헌신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어느 때 찬송을 할까」(행 16:25~26)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했으며 교인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다짐했다.

주일학교가 주최하는 어린이 찬송경연대회는 11월2일 예선을, 11월9일 본선을 가졌다. 예선을 거친 심혜진, 황순영, 김준희, 송지연, 심효진, 윤종현, 송정훈, 홍재현, 계홍주, 오주하, 심경진, 한선영, 최영주, 김신화양 등 1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청년회는 12월14일 저녁 예배 후에 당회장 컵 쟁탈 가족 단위 크리스마스 캐롤 대회를 가졌다. 지정곡으로는「고요한 밤, 거룩한 밤」,「기쁘다 구주 오셨네」,「그 맑고 환한 밤중에」중 출연자가 한곡을 선정, 부르도록 했다. 이날 청년회 주최 성탄 캐롤대회 입상자는

▲단체우승: 유년 주일학교
▲각 가족 우승: 1등 이득애 집사
2등 이천영 목사
3등 김병숙 권사

1등을 한 이득애집사 가족은 주일예배 헌금시간에 나와서 특별 찬송을 불렀다.

1975년부터 해마다 가족 찬송대회를 갖고,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민교회로서 더욱 유명해졌다. 1976년 5월16일 주일 저녁 예배때 가족 찬송대회를 갖고 전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배워온 찬송을 불러서 온 교인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해마다 교인 주소록 펴내

동양선교교회는 1974년에 이어 체계적인 교인주소록을 1976년에 펴냈다. 박장균, 김명균, 김광제, 최만삼, 안정현, 김근, 남상수, 김영재, 김치영, 이성숙, 임승혜 등 편찬위원의 큰 수고로 1976년도 판을 발행했다. 그리고 해마다 교인 주소록을 펴내서 구역예배와 교인들을 위한 이민과 신앙생활의 안내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교회주소록, 교회달력을 해마다 발행해오고 있다.

1975년 7월20일 여전도회는 교인 가정을 위한 생필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이민교회로서는 처음 시작했다. 여전도회는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강당 뒤편에다가 생필품 판매 장소를 설치했다. 협동조합위원회는 수요일 오후 6시~ 9시, 금요일 오후 7시~10시, 토요일 오후 5시~10시 생활 필수품, 음식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교인들에게 판매했다. 처음에는 많은 교인들이 생필품을 와서 샀고, 여전도회는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교회에 헌납을 했다. 교인 가정의 이용이 줄어들자 당회는 협동조합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1976년 발행한 교인 주소록

청년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청년회는 해마다 수양회와 가족순방 성경공부, 헌신예배, 구역별 캐롤대회 등을 주최했고, 교회 성장을 위한 일에는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30대 회원들은 교회의 힘든 일에 언제나 기쁨으 로 나섰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나갔다.

1975년 1월5일 선출된 청년회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청년회 고문: 오봉운, 김주영, 최순달, 정형조
▲회장: 김명균 ▲부회장: 이성천, 이승숙
▲총무: 김종성 ▲서기: 김향숙 ▲회계: 임승혜
▲종교: 신덕수 ▲체육: 남상수 ▲문화: 최만삼
▲음악: 김광돈 ▲친교: 이성우

1976년 1월26일 선출된 청년회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안정현 ▲부회장: 임승광, 김주원 ▲총무: 김동규
▲문화: 김근 ▲체육: 최만삼 ▲종교: 김재권
▲음악: 조규철 ▲재무: 신덕수 ▲친교: 이성천
▲서기: 이승숙



자체 도안 된 첫 주보. 제255호.
1975년 6월 1일자

청년회는 1976년 4월16일~17일 1박2일 일정으로 빅베어 레이크에서 봄철 수양회를 갖고 교회 성장을 위한 방안, 헌신과 봉사, 신앙생활 등 토론 순서를 가졌다. 특별히 청년회는 5월9일부터 매월 2회씩 토요일마다 회원을 위한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다. 임동선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청년회 가정을 순방하면서 성경공부를 했다. 청년회 회원들은 전도와 봉사를 잘 감당하는 교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에 열심이었다. 청년회도 회원 주소록을 만들어서 교회 봉사를 위한 연락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해나갔다.

1976년 10월10일 저녁 6시 예배를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배경천 목사(피코알링턴교회 시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골 3:5~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신앙으로 새 삶을 사는 청년들이 이민사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청년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11월14일 교회내 탁구대회를 청년회에서 주최했는데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고등부
▲남자부: 박광원 ▲여자부: 안복희
▲혼합복식부: 남상수, 김경녀

1976년 12월 청년회는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안정현 ▲부회장: 김동규, 오용애
▲총무: 원덕영 ▲서기: 김영재, 김주원
▲재무: 원종규 ▲문화: 최만삼, 김경녀
▲종교: 김재권, 이상기 ▲음악: 조규철, 임승혜
▲체육: 박영철, 김치용 ▲친교: 임승광, 조병헌
▲자문: 이중용, 조성신

청년회는 수양회, 가족순방 성경공부, 헌신예배, 구역별 캐롤대회 주최 등 교회성장에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

1977년 10월 30일 청년회는 총회를 갖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동규 ▲부회장: 조규철, 오용애
▲총무: 김영제 ▲회계: 정수선
▲체육: 마장섭, 박영철 ▲종교: 박광원, 김경녀
▲문화: 김치용, 조병헌 ▲친교: 최만삼, 이만열
▲음악: 임승혜, 박은애 ▲교육: 추영희, 최화실
▲자문위원: 조성신, 조갑부, 이중용, 송정명, 김여근, 오철훈, 김명균, 안정현, 김재권, 원덕영, 채미원

임동선목사의 선교철학은...

임동선담임목사는 1970년 7월 26일 교회를 창립하면서 두가지 선구적인 결정을 했다. 첫째는 이민교회 목회자로 처음으로 교회이름 중에 선교라는 두글자를 넣고 이를 실천했고 두번째는 창립예배와 함께 첫 한달 헌금을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로 보내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 일이었다.

동양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이 난 것은 바로 임동선목사의 선교철학의 실천이었다.

「창립 첫날부터 선교비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선교비전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질문에 함께 선교사역을 담당했던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송정명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동선목사님은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어촌은 바로 임목사의 고향이며 자신을 길러서 오늘을 만들어 준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모국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한국선교로 더욱 싹이 텃으리라고 생각된다."

초창기 임동선담임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오늘의 OMC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이요한목사 (뉴저지 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동선목사님은 사심이 없으신 목회자이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하셨다. 선교는 주는 것인데 첫 헌금부터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하셨을 것이다. 동양선교교회를 처음부터 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 특별히 임동선목사님에게는 임재순사모님의 영향이 참으로 컸다. 임동선목사님이 되신 것은 사모님의 영향 때문으로 안다. 사모님도 누구에게나 주고싶어 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 첫날부터 시작하셨다."

▲이용신목사(서호교회 원로목사)

"임동선목사님은 교회보다는 선교를 먼저 생각하신 목회자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선교로 발전하신 것으로 본다. 임동선목사는 설교은사, 목회은사, 선교의 은사가 계셨다."

모국선교 지원 교회 더욱 늘려


선교비를 지원받는 한국농촌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교회 설립목표로 정한 동양선교교회는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 뒤 선교활동이 더욱 꽃을 피워 나갔다. 1975년전에는 매월 11개의 모국교회에 선교비를 보냈는데 1975년 3월23일 농어촌 교회인 부평교회 한곳을 더 선정, 모두 12개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했다. 선교비는 교회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매월 30~60달러를 정기적으로 한국으로 보냈다.

1975년 4월6일 초창기 교회에서 성경지도를 담당하다가 대학교수로 귀국한 김명혁박사를 통해서 학생 선교비로 최경림양(장로교총회 신학대학 종교음악과 2학년)에게 등록금을 보냈다.

매월 선교비를 받은 한국 교회들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교회는 이를 주보에 실려서 더 많은 교인들이 모국 선교에 나서도록 했다.

새해초 선교비 작정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교인의 선교요원화 캠페인을 함께 벌였다

1976년 1월11일 당회는 「금년에는 교우 한분이 한분 이상 전도를 하실 것을 목표로 하시고 많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란다」는 선교지원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전교인들이 선교비를 작정하고 매 주일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1976년 2월15일 처음에는 전도비의 이름으로 주일 특별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주일 50달러~100달러의 헌금이 집계되었다. 선교부는 4월 18일 교인들의 선교 열의가 높아지고 참여가 늘어나자 다시 한국에 선교비를 보낼 교회를 더욱 추가 선정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1976년은 모국 및 미국 내 선교에 대한 전교인들의 참여와 관심, 기도의 열의가 참으로 높았다. 선교 활동도 체계적이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등 가장 활발한 선교의 한 해였다. 선교부는 모국선교와 함께 한인동포를 위한 전도, 그리고 백인들을 위한 노방전도에 힘썼다. 1976년 4월18일 주일예배 후 선교부 주최로 할리웃 거리에 나가서 영어로 만든 전도지를 배부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백인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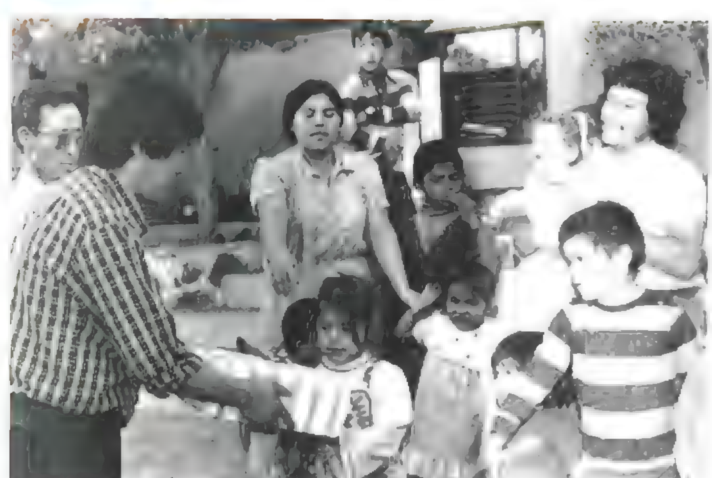
1976년 10월3일에는 모국 선교지원 교회가 모두 21개로 늘어났고, 전 교인들이 선교 회원이 되는 캠페인을 벌여나갔다. 특별히 해마다 성탄절에는 선교부가 앞장서서 이웃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의류와 식료품 현금 등을 전달했다. 1976년 12월26일 선교부 회원들이 밴트럭에 의류와 식료품 그리고 현금 등을 가지고 멕시코 티화나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사

랑의 성탄선물을 전달했다.


멕시코 선교방문 때 임동선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선교부회원과 멕시코 어린이

교인들의 높아진 선교열기 선교비지원 한국내 교회 추가 선정하기도


송정명전도사가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있다

제5장
모국선교에 앞장선 교회

- 박장균목사를 1차 단기 선교사로 파송
- A형, B형, C형으로 선교회원 분류
-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장립
- 2차 모국 단기 선교사에 이중용전도사
- 미주 한인교회 초청 부흥회 인도
- 전 성도가 성경공부와 기도 열심
- 전도와 봉사에 앞장 선 장년회
- 새 성전 마련 후 새해 첫 사경회
- 뉴욕타임스 "이민사회의 안내자 동양선교교회"
- 허경삼목사 부임, 헌신적인 사역 담당
- 시무장로 자격을 헌법에서 보완
- 창립 8주년 심령부흥회 및 기념예배
- 3차 한국 단기 선교사에 송정명전도사
- 임동선목사 한국 일본 부흥성회 인도
- 제1회 모국 피선교 교회 대표자 세미나
- 최고 인기의 유년 주일학교 교육
- 목회의 길 가기로 헌신한 대학부 회원
- 「Come & See」, 캠퍼스 선교에 선구적
- 이기홍목사를 행정목사로 청빙
- 창립 9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 4차 모국 단기 선교사에 이요한전도사
- 구역을 교구로 확대, 심방 사역에 열심



박장균목사를 1차 모국 단기 선교사로 파송

1976년 7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은혜와 감사속에 드렸다. 특별히 윤철주 목사를 초청 기념부흥성회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쳤다. 창립 6주년 기념부흥성회와 기념예배를 마친 뒤 처음으로 단기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는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박장균 단기 선교사는 40일간 일정으로 도서 · 농촌 · 어촌에 있는 선교 지원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7월 31일 한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21개의 선교비 지원교회를 찾아 전국을 순회했다. 모국선교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선교 피지원 교회를 모두 방문한 박장균목사는 9월10일 무사히 LA로 돌아왔다. 단기 선교사 박장균목사는 1976년 9월26일 주일 오후 6시 「모국선교와 보고의 밤」예배에서 「받는 교회와 보내는 교회」(행 11:19~3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모국선교교회 슬라이드 상영 및 설명을 통해 생생하게 한국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고했다.

모국선교지원 교회 실태파악차 박장균목사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 40일간 21개교회를 일일이 방문했다

2001년 5월 인터뷰때 박장균목사는 다음과 같이 첫 단기 선교사로 모국선교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 "1976년 동양선교교회가 모국을 지원한 교회는 21개였고 숫자가 계속 늘어 갔다. 한국교회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평이 나왔고, 과연 모국 선교가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당회에서는 풀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를 직접 모국에 파견, 현지 사정을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현지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선교 방향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따르게 된 것이다. 전국의 피지원 교회를 모두 다녀온 뒤 보고를 했다. 지원만을 받기 위한 목적의 교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지원금으로 목회자와 교회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상 교회 선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 선교 지원교회 39개로 늘려

1976년부터 한국 선교를 위한 믿음의 불길이 불기 시작했고, 1977년 한국 선교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선교부는 그동안 23개 교회를 지원해 왔는데 1977년에 모두 10개를 추가 선정, 모두 33개 교회로 늘렸다.

1977년 3월27일 새롭게 선교 지원 대상이 된 한국교회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충남 수석교회 2. 경남 애양교회

3. 경기 세류교회	4. 제주 함덕교회
5. 전북 선위도교회	6. 경북 낙평교회
7. 경기 서부교회	8. 경남 견내량교회
9. 경기 광복교회	10. 경남 유지교회


선교지원비를 받은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천막교회 모습

선교부는 1977년 새해초 온 성도가 선교 헌금액을 작정해 줄 것과 선교 대상 교회를 추천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을 주보에 게재했다. 선교부장 김용서장로와 홍순웅집사, 신덕수집사 등이 선교활동 지원 및 선교헌금 작정 업무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했다. 고등부 학생들은 1977년 2월13일 주말 세차를 해서 휴전선 부근에 있는 염천감리교회 야간 중학생 20명에게 80달러를 학생 전도비로 보냈고, 선교부는 4월10일 제주도 인간개발 후보지인 광영 마을을 위해서 150달러를 송금했다.

고등부학생들은 세차를 해서 한국 야간 중학교 학생에게 전도비를 보냈다

1977년 9월 한 달을 특별히 선교의 달로 정하고「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마 28:19)라는 제목으로 전교인이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9월11일 주일 아침 1부와 2부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선교의 중요성」(겔 3:16~2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교회는 21세기를 향한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충실히 하자"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9월까지 다시 6곳의 한국 선교 지원교회가 늘어나서 피선교 교회는 모두 39개가 되었다.

A형, B형, C형으로 선교회원 분류

선교부는 1977년 9월11일 처음으로「선교부 소식」이라는 회지를 펴냈다. 2페이지의 선교부 소식에는 선교 대상교회, 선교 회원의 종류, 헌금 방법, 후원하는 교우들의 명단이 실려있다.

선교부는 모국 선교를 위한 회원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교인들의 참여를 원했다.

▲A형(교회가 선정한 교회) 선교회원: 1달러 이상 모국 선교헌금을 내면 선교부는 피선교 정책 규약에 의거 심의하고 매월 1회씩 송금한다.

▲B형(교인의 지정헌금으로 선정된 교회) 선교회원: 매월 20달러 이상 헌금하는 교인은 한국에 피선교 교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교회라도 즉시 선교비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출된다.

▲C형 선교회원: 장기 자립 대책의 일환으로 100달러~150달러 이상을 일시에 헌금을 하는 경우 한 교회를 추가 선정하여 자립하도록 할 수 있으며 700달러가 될 경우 선교비를 대상 교회에 보내게 된다.

1976년과 77년도 모국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후원한 선교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용서, 김광락, 김중완, 김희숙, 김몽학, 김봉환, 김탁재, 김보근, 김옥인, 김명제, 김병숙, 김형순, 김현순, 김성곤, 김동윤, 김재휘, 김치용, 김성주, 김영옥, 강금자, 강영구, 박길복, 박승일, 박승열, 박성길, 박용장, 박장균, 박요셉, 백중필, 백중용, 신재권, 신동윤, 신석철, 송태익, 성희숙, 신덕수, 송정명, 안정현, 오해훈, 오숙희, 원덕영, 유병덕, 윤종구, 윤선옥, 이성호, 이성원, 이명진, 이득애, 이천영, 이귀임, 이옥엽, 임동선, 임승혜, 임승광, 이원열, 이중용, 이행자, 장정애, 정순주, 정성주, 장정숙, 조영근, 조갑부, 조영애, 조병헌, 조규철, 조봉윤, 조성신, 중등부, 채미원, 최만삼, 최용숙, 최상집, 장갑성, 한병철, 한건수, 황종구, 홍종구, 홍순웅, 한인남, 함순화

체계화되고 세분화 된 선교지원 사역 자전거 보내기 캠페인은 이때 벌인 선교사역이었다

1977년 9월 선교의 달에는 모국 농어촌 교회의 전도자 위하여 자전거를 보내는 선교헌금 캠페인을 벌였다. 그 당시 자전거 1대 가격은 60달러였는데 9월에만 모두 7대의 자전거를 선교지에 보냈다. 그리고 한국의 섬 어린이들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를 9월부터 3개월간 전교인으로부터 수집한 후 12월초 한국으로 보냈다. 선교부는 4월17일부터 모국 선교를 위한 폐품(깡통과 병, 신문)을 연말까지 수집하기 위해 큰 박스를 교회 입구에 설치했다. 교인들은 모국 선교를 위해 집에서 폐품들을 가져다가 이 선교 박스에 갖다 넣었다.


자전거를 전달받은 농촌교회 전도자가 기뻐하고 있다

▲성기윤원로장로(당시 선교부장)

"동양선교교회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모국교회는 다 도와주었다. 어느 정도 재정이 마련된 농어촌 교회는 3년간을 도와 주었고 어려운 교회는 5년간 계속해서 지원했다. 성도 한사람씩 지원하는 B형 선교교회가 많았던 이유는 온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이다. 모두 178개 교회까지 한국농어촌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이는 동양선교교회 선교역사에 자랑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

피지원 교회들은 새벽마다 동양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더욱 부흥 성장을 했다."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장립

1천명 교인시대를 맞아 헌신적인 새 일꾼들이 각 부서마다 늘어났다. 이민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교회 행정체계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

다. 교회는 1977년 새 임직자를 임명했다.

▲신임 남자집사: 최상집, 강태묵, 김수문, 송태익, 장건섭, 신동성, 이호남, 강도연
▲신임 여자집사: 이희옥, 조해림, 강봉순, 김정은, 유명설, 함순화

1천명 교인시대를 맞아 많은 일꾼들이 각 부서마다 필요하게 되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났다

4월27일~5월1일 창립 7주년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서울 광림감리교회 김선도담임목사를 초청, 매일 새벽 5시, 낮10시, 저녁 7시30분 하루에 3차례씩 부흥회를 개최해서 전교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창립 7주년을 맞아 장로 장립을 위한 투표를 6월26일 실시했고 홍순웅, 이재권 두 집사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7월23일 장로 시취시험을 보았는데 시험과목은 성경, 교리필답 등 4과목으로 당회는 장로 시취위원으로 이천영목사, 임동선목사, 박장균목사, 김용서장로, 오해훈장로를 임명했다. 홍순웅, 이재권 두 집사는 장로 장립의 모든 과정을 잘 마쳤다.

1977년 7월28일~31일 창립 7주년 기념 신학강좌를 가졌다. 초청강사는 독일에 있는 지원용박사로서, 7월28일 오후 7시30분 「루터 이신득의의 현대적 의의」, 7월29일 「서구 현대신학의 동향」, 7월30일에는 「상황윤리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전 교인들에게 신학의 세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 신학강좌였다.

7월31일 창립 7주년 기념예배와 장로 장립식 후에 전교인은 축하 다과회를 갖고 오늘까지 보호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장로장립: 홍순웅, 이재권장로

2차 모국단기 선교사에 이중용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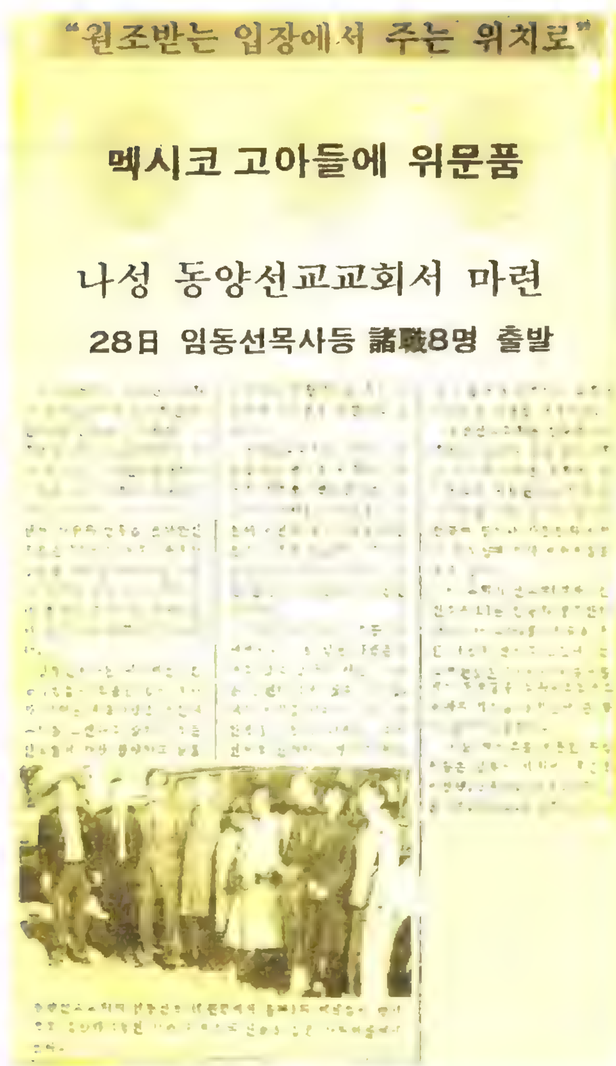
1977년 7월13일 이중용전도사를 2차 단기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다. 한국에 도착한 이중용전도사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에 있는 14개 교회를 순방한 후,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이중용선교사는 40일간에 걸친 선교지원 교회 순방을 은혜중에 마치고 8월22일 무사히 LA로 돌아왔다. 이중용 단기 선교사는 9월4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서 한국선교에 대한 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이중용전도사는 이날 「눈을 들어 밭을 보라」(요 4:27~35)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지상명령으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오후 6시 선교의 밤 예배때 「복음전파의 사명」(고전 9:16)이라는 설교와 현지에서 찍어온 모국 교회 슬라이드 상영을 했다.

1977년 모국 단기 선교사로 한국의 피지원교회를 둘러보고 온 이중용전도사(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는 2001년 6월 인터뷰때 "첫째는 한국 미자립 및 개척교회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 실지로 현지의 상황을 보자는 것, 세번째로는 30달러~50달러 선교비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선교사로 떠났던 사명을 설명했다.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태풍 때문에 며칠을 갇혀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중용목사는 회상했다.

두번째 단기 선교사 이중용전도사는 80대 자전거를 모국 농어촌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

> "교회가 열악하고 전도사가 주말에만 나와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고회를 할 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 가정을 순방할 때나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운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교회가 나서서 농촌이나 어촌교회에 자전거를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해 연말까지 모두 80대의 자전거를 한국의 교회로 보낼 수 있었다. 흑산도교회에선 관광을 왔던 분이 교회와 마을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보고는 그곳을 선교지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며 30년간 목회를 해온 분을 만나고는 너무나 감격한 적이 있다. 보내주는 선교금은 대부분이 잘 쓰여지고 있었고 거의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우리교회로 부터 선교금을 지원 받는 교회는 언제나 본적도 없는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동양선교교회가 부흥한 이면에는 이 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조받는 입장에서 주는 위치로"

멕시코 고아들에 위문품

나성 동양선교교회서 마련

28日 임동선목사등 諸職8명 출발

1976년 12월 20일 동포신문에 소개된 멕시코 고아원 지원 소식

어려운 이웃과 타민족 돕기 앞장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표를 실천하는 교회로서 어려운 이웃 동포와 외국의 재난이 있을 때에는 전교인이 나서서 구호사업을 폈다. 선교부는 1975년 5월25일 캠프 펜들튼에 수용되어 있는 월남 피난민들을 위해 어린이 의복과 담요, 신발과 현금 등 구호품 모집에 나섰다. 월남 패망으로 10만여명의 피난민들이 남가주 지역에 도착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들을 위한 구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1976년 2월15일 남미 과테말라에 지진 발생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고통을 받을 때에 온 성도 들은 캔 음

월남 패망 피난민, 과테말라 지진, 모국 수해, 이리 폭발사고 등 전교인이 구호사업에 앞장 섰다

식, 의류와 현금 등을 모아서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 해 여름에는 한국에 수재가 발생, 구호품 모집에 앞장 섰다. 대학부 등 각 부서는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을 모았고 한국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수재민에게 전해 주었다. 이때에 전달된 구호금은 현금 1,100달러, 의류 4,379점(102상자)이었다. 1977년 한국의 이리에 큰 사고가 발생, 많은 이재민이 생기자 650달러의 성금을 한국 언론사를 통해 전달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멕시코의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품을 보냈다. 멕시코 이웃돕기는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될 정도로 큰 선교사업이었다.

교회는 언론에 보도되는 불우한 한인동포를 돕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쌀과 식료품 등을 도왔다. 그 당시 동양선교교회의 불우이웃과 타민족 돕기는 지역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었다.

39개 구역장 임명, 구역예배에 열심

1976년 들어서 구역예배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구역을 모두 39개로 나누었고 한 구역마다 10여명의 교인이 속하도록 했다. 1976년 4월 18일 대예배 후 첫 구역장 회의가 소강당에서 열렸고 구역장의 임무 및 보고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날 저녁 제20구역 예배를 함순화집사 댁에서 처음 드렸고, 이날 헌금액은 10.25달러였다.

당회는 이중용전도사를 구역장 총무로 임명, 구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각 구역장들은 매주 구역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했고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하면 처음부터 해당구역에 속하도록 배정을 했다. 각 구역은 정기적으로 구역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구역 헌금을 따로 교회에 냈다. 구역 전도사는 어느 구역이든지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씩 예배를 꼭 드리도록 권유했는데 이때 제4구역 이옥엽 구역장이 열심히 구역예배를 인도했다.

1976년도 39개 구역장은 다음과 같다.

제1구역: 이순정, 제2구역: 이성호, 제3구역: 강금자,
제4구역: 이옥엽, 제5구역: 임재순, 제6구역: 김보근,
제7구역: 정형조, 제8구역: 황종구, 제9구역: 조갑부,
제10구역: 한의수, 제11구역: 오철훈, 제12구역: 김동규,
제13구역: 김중완, 제14구역: 김낙도, 제15구역: 안정현,
제16구역: 박영자, 제17구역: 추수은, 제18구역: 김태식,
제19구역: 장덕순, 제20구역: 신덕수, 제21구역: 홍순웅,
제22구역: 김병숙, 제23구역: 계정자, 제24구역: 김재순,
제25구역: 이득애, 제26구역: 김병곤, 제27구역: 김치용,
제28구역: 김광락, 제29구역: 한정현, 제30구역: 이성천,
제31구역: 조영근, 제32구역: 박길복, 제 33구역: 이인근,
제34구역: 이항순, 제35구역: 임동선,

1976년도 선교비 헌금

날 자	종 류	액 수	날 자	종 류	액 수
3월 14일	선교비	65달러	8월 29일	선교비	90달러
3월 21일	선교비	110달러	9월 12일	선교비	60달러
4월 4일	선교비	80달러	9월 19일	선교비	33달러
4월 11일	선교비	65달러	9월 26일	선교비	175달러
4월 18일	선교비	59달러	10월 3일	선교비	56달러
4월 25일	선교비	95달러	10월 10일	선교비	500달러
5월 2일	선교비	20달러	10월 17일	선교비	53달러
5월 16일	선교비	90달러	10월 31일	선교비	135달러
6월 6일	선교비	65달러	11월 7일	선교비	22달러
6월 13일	선교비	138달러	11월 14일	선교비	155달러
6월 20일	선교비	10달러	11월 21일	선교비	60달러
6월 27일	선교비	40달러	11월 28일	선교비	76달러
7월 4일	선교비	45달러	12월 5일	선교비	85달러
8월 1일	선교비	40달러	12월 12일	선교비	186달러
8월 8일	선교비	80달러	12월 19일	선교비	35달러
8월 15일	선교비	60달러	12월 26일	선교비	100달러
8월 22일	선교비	118달러	합 계		3311달러

제36구역(대학생부): 박장균
제37구역(고등부): 조성신, 제38구역(중등부): 김재권
제39구역(유년 주일학교): 임승광

미주 한인교회 초청 부흥회 인도

임동선목사는 새 성전 구입과 페이먼트 등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교회 출석교인이 1천명을 넘는 이민교회로 성장한 뒤 미주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성공 모델이 된 임동선담임목사에 대해서 미주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고 이 소식들이 한국과 미국 내에서 알려졌다.

임동선담임목사는 매 주일 대예배의 1부와 2부 설교준비에 충실했다. 그 당시 임동선목사의 설교는 교인이나 비교인 구분없이 이민생활에 맑은 샘물처럼 생기가 솟고 크게 용기를 주는 내용

들이 담겨 있었다. 1976년 9월12일 오전 11시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자」(엡 4:1~16)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인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었다. 특별히 1976년 9월 한달을 「선교의 달」로 정했다. 9월19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에는 「선교의 회고와 전망」(고전 1:18~2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선교 사명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 저녁 예배때에도 임동선목사는 「예수님의 선교 생애」(막 1:12~20)를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미주 언론들이 앞다투어 OMC 성공모델을 보도하면서 임동선목사의 부흥회 초청은 줄을 이었다

추수감사절인 1976년 11월21일 주일에는「미국 개척자들의 신앙」(요 4:20~26) 이라는 설교를 통해 한인 이민자들도 미국 개척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자고 말씀했다. 12월26일 아침예배에는 「신령한 결산과 예산」(시 90:9~12, 마 25:14~30)이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교인들의 신앙과 비전을 제시했다. 1977년 6월26일에는 「6•25의 교훈」(롬 5:3~5)이라는 설교를 통해 "한민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미국 이민까지 와서 사는 동포들을 위한 감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1977년 7월3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에서는 「조국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민족에 대한 사랑과 조국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교인들이 될 것"을 바랐다.

임동선목사는 1977년 7월10일 처음으로 임재순사모와 임사모의 모친인 장갑성권사와 함께 2주간 유럽 여행 및 순회 선교를 다녀왔다. 이민교회를 창립한 후 처음으로 여유있는 가족 선교 여행이었다. 이때 서독 미군에 근무중인 황재륭집사(현재 동양선교교회 행정담당목사)를 만났는데 황집사는 장갑성권사의 막내아들이다.

점차 한인 언론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TV시대가 다가오면서 임동선목사는 1977년 8월28일과 9월4일 두번에 걸쳐 채널 18에서 주일 밤 11시 TV 설교를 했다.

해마다 15~30%씩 증가된 예산

1976년도 예산을 총13만9천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예산으로 선교비를 더욱 늘렸다. 1976년도 결산과 77년도 예산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위원장: 김용서 부위원장: 이재권
▲위원: 박계로, 김병곤, 온성철, 황관오, 한건수, 오해훈, 오수남, 오순명, 김낙도, 김재휘, 김병숙, 김명균, 조인식, 이옥엽, 김보근, 김신애, 박천흠, 조영근,

예산은 첫째 외국선교에 가장 많이 지출을 했고, 2세 교육을 위한 투자에 사용했다.
1977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17만2천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특별히 선교, 교육 예산

을 늘렸다. 1978년도 예산 심의위원으로는

▲위원장: 이재권(장) 위원은 한건수, 김병곤, 김중완, 조영근, 오수남, 조규철, 김재휘, 김병숙, 김재숙, 김신애, 노수정, 김명균을 임명했다.

1976년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

구 분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십일조 (2,500 X 12)	30,000	24,700
감사헌금 (2,800 X 12)	33,600	19,500
주일헌금 (1.600 X 12)	19,200	19,500
월정, 주정 헌금 (435 X 12)	5,220	15,800
절기헌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20,000	-
특별건축 헌금	12,560	-
약속헌금미수	10,000	-
창립기념 특별헌금 (창립기념)	15,000	-
기타 헌금 (널서리, 주차장 등)	23,220	-
총 합 계	168,800	-

1976년에 예산이 20% 증가했고 교회 성장과 함께 선교지원에 더 많은 지출을 했다

의사들, 의료 봉사에 적극 참여

1천명에 이르는 출석교인 중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교육자, 언론인, 변호사, 교수, 미국 공무원 등 참으로 직업이 다양했다.

교회는 갓 이민 온 새 신자들을 위해 의사들의 무료 진료 및 세금상담 등 봉사시간을 매주일 예배 후 정기적으로 가졌다. 가주치과시험에 합격한 오수남, 오석희 치과의사 등은 매주일 예배 후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진료 봉사를 맡았다. 교회 내에 설치된 무료치과진료소는 1976년 1월4일~12월말까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간단한 치료를 담당했다. 미리 진찰 받기를 원하는 교인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에 담당 치과 의사가 직접 치료를 맡았다.

▲오수남장로(미주성산교회 원로장로)

"초창기 교인들을 위해 무료치과 진료를 실시했고, 티화나에 선교를 갈때에 치과의사들이 의료기재를 싸가지고 가서 어린이들을 치료해 준 일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회 분위기가 가족적이었고 신앙이 모두 좋았다."

1970년대 새 이민과 함께 가장 먼저 전문직으로 진출한 여성들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실

시하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 전문직 여성들이다.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는 1974년부터 계속해서 RN (Registered Nurse) 시험 합격자가 해마다 늘어났다.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교인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간호사들은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자 1979년 7월8일 간호사회 창립총회를 갖고 첫 임원을 선출했다.

성도중에는 각분야 전문가가 많아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쳤다 무료 치과진료, 의료진료 등이 활발했다

▲회장: 박길봉집사 ▲부회장: 성인호집사
▲총무: 김영애집사 ▲서기: 윤공순집사
▲회계: 변순자집사

간호사회는 모두 32명의 회원들이 교인 건강을 위한 파수꾼이 되었다. 간호사회는 창립 총회 후 첫 의료봉사로서 1979년 8월12일부터 매주일 오전10시~12시 영아실에서 혈압 및 당뇨검사를 실시했다.

1979년 12월16일 간호사회는 임원 개선을 했다.
▲회장: 성인호집사 ▲부회장: 김수잔

그 당시 갓 이민온 동포들은 교회에 출석하면 좋은 신앙생활은 물론 갖가지 이민생활의 정보, 친목과 사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났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사회의 인생복덕방」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970년대에 이민온 동포들은 한번씩은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교포들이 거쳐갔다.

전 성도가 성경공부와 기도 열심

임동선목사는 이민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았다. 그 중에서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배우도록 성경교육 시간을 많이 만들었다. 1975년부터 「오늘의 성경공부시간」을 마련 장년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가대로 나누어서 주일 대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 장년부는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이천영목사가 인도를 했고, 유년부는 김태식집사, 중등부는 이중용전도사, 김재권집사, 고등부는 조성신전도사, 대학부는 박장균목사, 박동원전도사, 성가대는 박천흠장로가 가르쳤다.

1977년 2월6일 다시 주일학교 성경공부를 남녀와 연령별로 나누어서 주일예배 시작 전후에 실시했다.

▲25세~35세 믿음반: 남자교사 - 신정도전도사, 여자교사 - 최혜자전도사
▲36세~45세 소망반: 남자교사 - 이천영목사, 여자교사 - 최혜자전도사
▲46세이상 사랑반: 남자교사 - 박용장목사, 여자교사 - 김효순전도사

입동선목사는 1977년 2월20일 주일예배 때「말씀을 배우는 신자」(행 17: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우리교회의 목회 방침이 내적 충실이며, 전교인은 여가가 있는대로 어디서나 기도와 전도와 성경배우기에 힘쓰는 교인이 되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은 1975년부터 평신도 연합회 주최나 교회내 장년부 주최 등 성경퀴즈대회에 나가면 항상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성경공부에 열심이었다. 1975년 성경퀴즈대회에서 채(안)미원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조소양, 신명훈, 최영주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1977년 12월4일 평신도연합회 주최 제4회 성경퀴즈대회에서 최근숙, 이태종, 유희범이 다시 우승기를 타왔다.

성가대 헌신예배로 더욱 신앙을 깊게

1976년 1월3일 성가대 새 지휘자에 한병철집사를 임명했다. 새로 지휘자에 임명된 한병철집사는 화합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

전교인들에게 찬양으로 크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성가대가 되도록 힘썼다

1976년 10월3일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지휘: 이귀임(저녁예배), 주반주자: 임승혜 올갠반주: 김광돈 피아노반주: 김남형
▲소프라노: 이귀임, 최경남, 홍순주, 이문자, 이대경, 이승숙, 신경선, 백정미, 정성주, 최근숙, 최명숙, 오용애, 조보린, 조병희
▲앨토: 김재숙, 이은주, 최화실, 안복희, 박영주, 최애리, 조지현, 강영희, 이혜정
▲테너: 김종성, 백중용, 조병헌, 오정택, 최만삼, 박영철, 조규철, 최상집
▲베이스: 김재웅, 백중필, 이호남, 이성천, 이성호, 이성우, 신동성

성가대는 주일 저녁예배후 한병철, 이귀임집사의 지휘아래 10분씩 전교인에게 새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1976년 11월7일 저녁예배는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저녁 헌신예배에는 군산 중동교회에 시무하는 김용은목사의 간증설교가 있었다. 김용은목사는 7명의 가족이 6•25전쟁 때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나서서 가족중 7명의 목회자가 나올 정도로 고귀한 신앙을 실천해나간 귀한 목회자이다. 당회는 1977년 1월16일 이귀임집사를 처음으로 음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성가대장인 김용서장로 후임으로 12월11일 강영구집사를 임명, 새해엔 더욱 은혜가 넘치는 성가대로써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병철지휘자는 1975년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고, 성가대지휘자를 그만 둔 뒤에도 안수집사로서 오늘까지 교회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의 어머니, 바자회로 선교기금 모아

여전도회 회원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는 더욱 성장을 했다. 기도의 어머니 모임인 여전도회는 1976년 12월5일 총회를 갖고 새해 임원을 선출했다.

▲여전도회 고문: 임동선목사, 김효순전도사
▲회장: 이득애 ▲부회장: 김희숙 ▲총무: 최경남
▲서기: 한정현, 부서기: 김신애 ▲회계: 성인호, 부회계: 장영애
▲종교부장: 신정수, 김옥인 ▲문화부장: 김재숙, 장덕숙
▲미화부장: 계정자, 김송실 ▲관리부장: 오상숙, 김옥태

기도와 봉사에 열심이었던 여전도회는 연합회 사업에도 열심이었다

새 임원을 선출한 여전도회는 첫 사업으로 대구에 있는 나환자들에게 구호품을 수집해서 보냈다. 2월에는 9명(김병숙, 강금자, 이옥엽, 이순정, 김보근, 하애도, 박경자, 김현숙, 이옥조)으로 바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전도회는 모국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1년에 1차례씩 가졌다. 남가주지역 여전도회 연합회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1977년 9월4일과 5일에는 CCC 수양관에서 김석규목사를 초청,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1년에 한두차례 바자회를 개최했다

1977년 11월6일 여전도회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한정현 ▲부회장: 홍순주 ▲총무: 김희숙
▲회계: 신숙자 ▲서기: 함순화 ▲전도부: 이옥엽, 장덕순
▲교육부: 김병숙, 최경남 ▲섭외부: 하애도, 김재숙 ▲후생부: 김재순, 오상숙
▲봉사부: 박경자, 김효수 ▲미화부: 김보근, 계정자 ▲음악부: 이득애, 이귀임
▲관리부: 강금자, 김옥태

1978년 6월25일 나성영락교회 김계용목사를 초청,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은혜 중에 드렸다.
여전도회는 1978년 11월5일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희숙 ▲부회장: 오상숙 ▲총무: 한정현 ▲회계: 김재숙, 김정은
▲서기: 이성호, 유명철

전도와 봉사에 앞장 선 장년회

이민교회로서 크게 부흥을 해나가면서 장년층 교인의 출석율이 점점 높아졌다. 장년교인들은 「장년회」라는 남전도회를 조직하고 신앙생활과 헌신, 그리고 선교사업에 앞장을 섰다. 장년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생활강좌를 자주 개최했는데 내용은 새 이민자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가는 것이었다. 1976년 8월29일 오전11시 예배 후「소자본 투자의 기업안내」라는 사업강좌를 열었고, 강사는 전기진, 로버트 리였다. 이날 갓 이민을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교회 안에서는 이민과 기업 정보를 언제나 손쉽게 얻을 수가 있었다.

신앙생활과 헌신, 그리고 선교사업에 앞장선「장년회」 생활강좌 주최로 기업정보를 제공했다

1976년도 장년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천영, 오해훈

▲회장: 조영근	▲부회장: 홍순웅	▲서무회계; 온수복
▲총무기획: 김중완	▲친교부: 김태식	▲봉사부: 정형조
▲종교부: 신정도	▲문화부: 이평재	▲간사: 박천흠, 박계로, 성기윤

1977년 2월27일 장년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조영근집사와 홍순웅집사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리고 1977년 10월23일에는 1978년에 봉사할 새 회장으로 홍순웅장로를, 부회장에 김봉환집사를 선출했다.

새 성전 마련후 새해 첫 사경회

1976년 새해를 맞은 당회는 2월4일~8일 한국 영동장로교회 김시원목사를 강사로 초청, 전교인을 위한 신년 사경회를 개최했다. 김시원목사는 5일간에 걸쳐 부흥회를 인도했다.

▲2월 4일(수) 저녁: 기도자의 복 (겔 36:22~28)
▲2월 5일(목) 새벽: 택함 받은 증거 (엡 4:1~16)
저녁: 불행의 원인과 번영의 첩경(룻1장)
▲2월 6일 (금) 새벽: 행복된 가정 (시 128)
저녁: 세가지의 신자 (행 11:19~28)
▲2월 7일 (토) 새벽: 신앙생활의 정로 (삼상 1:9~28)
저녁: 장래가 흔연 (행 8:26~40)
▲2월 8일 (일) 새벽: 마땅한 사람 (벧후 3:8~13)
낮 : 처세의 비결 (요 16:1~24)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눅 19:11~27)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초청, 주일예배 강단에 세우는 횟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이다

전교인들은 새 성전 마련 후 처음 가진 김시원목사 초청 새해 첫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금년 한해 교인 한사람이 믿지않는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힘쓰기로 기도했다.

새 성전이전부터 한국 목회자들이 동양선교교회 주일예배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1976년 2월22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에는 서울 중앙교회 담임목사이며 부흥사인 이만신목사가 「선택 받은 야곱」(말 1:2~5)과 「최고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 5월16일에는 6•25 상이실명 이동은목사를 초청, 오전 11시 예배때 「디베랴의 기적」(요 21:1~1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 또한 6월20일 저녁예배에는 풀러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귀국하는 장중열목사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서자」(딤후 3:14)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1976년 12월12일 서울신학과 미국 페일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아현성결교회 시무와 성결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정승일목사가 「여호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시 34:8~10)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주일 저녁예배는 교회 각 부서의 헌신예배로 드렸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를 초청,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신앙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해나갔다.

1977년 주일예배때 설교를 한 한국 목회자는 다음과 같다.

▲1977년 2월25일~27일 김용기장로(한국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1977년 3월6일 김석규목사(전 브라질 선교사, 상항 성결교회 담임목사)
▲1977년 4월24일 이일선목사(한국의 슈바이처)
▲1977년 6월27일~7월3일 77민족 복음화 나성연합 대성회
강사: 김충기목사 (민족복음화 동원부장 미주 파견부장)
▲1977년 11월27일 황성수목사(전 국회 부의장)

스포츠를 통한 교계 행사 적극 참여

교회 창립 때부터 청년층 교인이 많았던 동양선교교회는 교회대항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임동선목사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와 친선 그리고 체력 단련을 위해 남가주 교회의 축구 및 배구, 탁구대회에 출전을 하도록 지원을 했다. 본교회 선수들은 우승을 많이 차지해서 교회의 이름을 빛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동포들에게 체육을 통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선수들을 위해 기도했고, 응원에도 누구 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리고 당회와 제직회, 여전도회원들은 물질과 응원, 기도에 열심이었다.

1975년 3월2일 축구부 임원을 임명했다.

▲고문: 김주영장로 ▲감독: 정형조
▲코치: 이평재 ▲주장: 박광조

청년회는 1975년 8월10일 제1회 임동선 당회장배 교회 각 부서 탁구대회를 가졌는데 단체전의 우승은 고등부가 차지했다. 모두 8기관에서 출전한 탁구대회에 준우승은 성가대, 3등은 중등부가 영광을 안았는데 개인전에 모두 23명이 열전을 벌였다.

▲남자 우승: 한영호, 준우승: 김학진, 3위: 김학준, 장려상: 노창수
▲여자 우승: 김경려, 준우승: 김경순, 3위: 이승숙, 장려상: 박혜란


배구시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9월28일 교회 대항 친선 배구대회에 출전했고 10월11일에는 축구시합과 탁구시합에 대학부가 출전했다. 그리고 1976년 1월7일 교회는 총무부내에 체육반을 두기로 결정했다. 9월26일 교회대항 친선 배구대회에 동양선교교회 배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배구선수로는 마장섭, 박영철, 김해룡, 김재용, 임승천, 황순미, 남상수, 정태조, 노창수, 백중필, 이동인, 원영희 등이 활약을 했다.

친교와 대화 시간 더욱 많이

초창기부터 교회 분위기는 자유스러웠고 믿음의 가족으로 가깝게 지냈다. 1970년 7월26일 창립예배 후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매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은 커피와 도우넛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창립 기념예배나 추수감사절에는 전교인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해와 사랑을 실천했다.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 뒤 성도들이 1천명을 넘었고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는 적었지만 교회의 행사 때에는 모두 참석해서 신앙을 다지면서 이민자로서의 외로움, 고향생각 등을 달랬다. 친교실은 언제나 성도와 이민자들에게 대화와 이민생활의 사랑방이 되었다.

1975년 9월14일부터 교회입구에 커피를 준비해 놓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했다. 그리고 1977년 12월11일 교회안에 친교부를 만들고 교회 식당을


예배후 교인들이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운영했다. 교회 식당은 친교와 봉사, 선교 교육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성호, 박완순, 계정자, 이귀완, 성인호, 이은주, 최귀순이 친교실 봉사위원으로 수고했다.

교회는 전교인을 위한 가정주간 행사로서 1977년부터 장한 어머니와 장한 아내를 선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심어가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한국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 주었다. 1977년 5월15일 성인호집사가 남가주 한국부인회와 남가주 한국학교가 주최하는 어머니날 행사의 장한 어머니로 뽑혔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처음으로 이옥엽권사를 장한 어머니로, 김옥인집사를 장한 아내로 선출했고 담임목사로부터 상패와 상품에 전교인의 축하를 받았다.

뉴욕타임스 "이민사회의 안내자 동양선교교회"

1977년 10월16일 뉴욕타임스는 동양선교교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새 이민교회로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을 위해 헌신한 임동선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 그리고 선교, 교육, 봉사사역을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를 게재했다.

OMC 성장을 기적으로 극찬한 뉴욕타임스 기사 이질문화권에서 이민교회 모델로 보도했다

"수퍼마켓으로 쓰이던 건물이 지금은 완전히 변했다. 이곳은 뜻밖에도 미국문화를 배우고,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한국인 동포의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되었고, 돈을 내지 않고도 치과 진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었다. 동양선교교회는 소수민족이 세운 교회로써 가장 뚜렷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델이 되며, 새로운 이질문화권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교회이다. 미국 전역에 또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 교회가 300여 교회라는 통계가 나와 있으며 모든 교회가 대부분 정통에 입각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종교의식을 통하여 메마른 감정을 살찌게 해주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인실태와 출석상황이 다른 교회에 비해 대단히 앞서고 있다. 1부, 2부 합하여 1,20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54년간 장구한 세월을 바쳐 연구하고 읽고 가르쳐온 한국말의 성서를 펴보며 보수적이고 정통 신앙을 통하여 훈련받은 것을 대단히 흡족해하고 있다.

이 교회는 기적의 산물이다. 수퍼 마켓이 선교센터로써 변화된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임동선목사는 한국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학위를 마친 인테리였고 의지는 강해 개척자로서의 인상이 농후하였다. 그의 매주 30분씩 두 번의 설교는 생기가 있고 성도의 부족감을 채워주는데 손색이 없었다.

동양선교교회는 현재 39개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선교하고 있으며, 또 초대 미국선교사의 피나는 노력을 감사하게 여기며 또한 보답하는 길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왔으니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인 동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장로는 "멕시코에 선교

의 손길을 뻗히고 있으며 계속 젊은이를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을 하게 하고 음악을 공부하게 하여 미국선교사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며, 이 미국사회에 공헌할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땅에 이주해온 동포는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의 소유자이며, 그러나 여기서 적당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동포는 올림픽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두잡, 세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100여 교회에 적을 두고 착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동양선교교회는 그 중에 전형적인 교회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은 6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여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자생 독립교회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유년학생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에 걸쳐 일심동체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당회장 임동선목사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앞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세계선교의 모범이 돼라"는 뜻으로 보고 하나님께 더욱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이민교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Koreans' Churches Provide An Introduction to America

NewYork Times October. 16. 1977

동양선교교회를 보도한 1977년 뉴욕타임스 기사

허경삼목사 부임, 헌신적인 사역 담당


반세기 이상 동역의 길을 걸어온 임동선목사(왼쪽)와 허경삼목사

당회는 서울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허경삼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부목사로 청빙을 받은 허경삼목사는 1977년 12월5일 가족과 함께 LA에 도착했다. 그리고 12월11일 허경삼목사는 1, 2부 주일 예배 때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골 1:9~14)이라는 설교를 통해 부목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

허경삼목사는 주일예배와 저녁 및 수요예배의 설교와 사회 기도 순서를 맡아 임동선목사의 이민사역을 힘껏 협력했다. 12월18일 주일 저녁 성가대 주최 성탄축하 촛불 예배를 드렸고, 허경삼목사는「세상의 빛」(요 1:18, 1:4~5)이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1978년 1월2일 주보에는 "수요 기도회 때는 허경삼목사가 성경을 가르친다" 알림이 나와있

고, 허경삼목사는 주일과 수요예배, 새벽예배 때에 임동선목사와 함께 헌신적으로 사역를 담당했다. 허경삼목사는 1월8일 주일 1부와 2부예배 때에 「향기로운 예배」(출 30:34~38)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며 교회의 예배에 열심히 출석할 것"을 내용으로 설교했다. 허경삼목사는 심방, 행정, 교육 등을 맡아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허경삼목사는 부목사 재임중 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의 교구에 관련된 책을 모아서 4개월간 연구 끝에 교인 가정들을 교구와 구역으로 조직 편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허경삼목사는"구역예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는 송정명목사, 이요한전도사, 이중용전도사, 조갑부전도사 등과 임동선목사님의 이민목회를 열심히 돕던 때였다"라고 동양선교교회 목회 시절을 말했다. 허경삼목사는 수요예배를 금요예배로 변경하는 일과 주일 저녁예배를 오후 4시로 바꾸는데 크게 수고를 했고 이 예배시간은 1978년부터 오늘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

임동선목사와는 특별한 관계였던 허경삼목사가 부임하면서 구역예배가 활성화되었다

허경삼목사는 서울신학교 때부터 임동선목사와 목회자의 길을 함께 걷기로 하나님께 서약했고 서울역에서 지게를 지면서 고학하는 생활을 같이 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가 먼저 공군군목이 되었고 허경삼목사는 다시 공군군목으로 신앙의 한길을 걸었다. 임동선목사는 공군에서 군종감으로 예편한 뒤 1965년 3월에 미국 유학을 왔다. 허경삼목사는 중령으로 공군에서 제대한 뒤, 9월에 미국 유학을 와서 함께 1년간을 한 아파트에서 지냈다. 켄터키주 에쉬버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허경삼목사는 1968년 한국으로 귀국했다.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다가 부목사로 청빙을 받고 다시 이민교회의 목회자로서 한 길을 걷게 되었다.

허경삼목사는 1979년 동양선교교회를 사임하고 오렌지카운티에서 교회를 개척, 크게 부흥을 시켰다. 오렌지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로서 임동선목사와 크고 작은 교회행사에 협력을 하고있다.

웨스턴 성전에서 첫 1부 · 2부 주일예배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 2년째가 되는 1977년 8월7일부터 다시 1부와 2부로 주일예배를 나누어서 보았다. 이때 출석교인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550명, 저녁 예배에 250명, 수요예배에 50명 등 모두 1,100명이 출석을 했다. 8월7일부터 1부 예배는 오전 9시~10시,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12시15분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1977년 8월7일 첫 1, 2부 예배 출석교인 및 헌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금 종류	헌금 액수		출석교인수
십일조	1,631.09	주일 대예배	640명
월정 헌금	140.00	저녁 예배	150명
주정 헌금	93.00	유년 주일학교	156명
감사 헌금	604.00	중등부	29명
주일 헌금	264.45	고등부	22명
선교비	220.00	대학부	20명
건축 헌금	100.00	장년부	59명
의자 헌금	590.00	새벽기도	59명
칸막이	50.00	수요기도	39명
소망 교회	1,260.00		
파킹	500.00		
수재의연금	1,000.56		
합계	6,453.70	합계	1,114명

1977년부터 다시 시작된 주일 낮 1,2부 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를 금요예배로 변경한 것은 그 다음해이다

당회는 1978년 2월19일 다시 주일 저녁예배를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했다. 이는 주일 대예배 후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후예배까지 드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예배시간을 당긴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출근 사정이나 비즈니스 시간 등을 고려했다. 1978년 2월26일에는 1971년부터 계속해오던 수요일 기도회를 금요일 오후 7시로 변경했다. 성도들이 주중에는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 주간 일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다. 성가대 연습도 수요예배 이후 하던 것을 금요일로 변경했다.

이천영협동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

공동회의는 1977년 2월20일 이천영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원로목사 추대는 교회헌법으로 OMC 담임경력이 15년을 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천영목사는 교회창립때 임동선담임목사에게 많은 협력을 했고 협동목사로서 오랫동안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초대 원로목사로 추대를 했다 (동양선교교회 헌법 제4장 1절 교역자 … 원로목사는 교회를 창립한 목사로서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또는 15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로 추대한 목사. 원로목사는 당회에 발언권을 가지며 사례금을 정할 수 있다).

1970년부터 사역을 맡아온 이천영목사는 1974년 3월 다시 서울신학대학 강의를 맡아 6개월간 한국에 나가서 교수생활로 봉직했고 다시 LA로 돌아온 1974년 12월24일 협동목사로 추대되

었다.

1910년 강원도에서 출생한 이천영목사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했고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개척에 열심이었다. 일제 때에는 3개월간 옥고를 치른 적도 있다. 전도사로 신의주와 황해도 신천, 개성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부산 피란 당시 임동선전도사가 1953년 부산 동래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때 협력한 적이 있다. 이천영목사는 서울 수복 후에 다시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했다.

1977년 4월10일 부활절 낮 동양선교교회 예배 때에 사용한 성찬용 포도주는 이천영목사가 직접 유대 땅 순례 중 성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내용이 주보에 실려있다. 이천영목사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유럽 그리고 모국 피선교교회 방문 등 동양선교교회가 세계를 향한 이민교회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맡아왔다.

이천영원로목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교인들을 대했다 항상 뒤에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도왔다

한건수장로는

"이천영목사님은 동양선교교회를 세우는데 임동선목사님에게 확신을 주신 분이다. 항상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교인들을 대했다.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다"고 감사해 했다.

김재권장로는

"임동선목사님은 이천영목사님을 항상 선배목사님으로 모셨다. 그 당시 원로목사가 되려면 목회경력이 20년이 넘어야 되지만 임동선목사님은 특별히 원로목사님으로 모시도록 했다. 이천영목사님은 Peace Maker로 교회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셨고 장년 주일학교 지도를 잘해주셨다. 목사님은 일선에 나와서 뛰시지는 않았지만 늘 진취적이셨다. 그리고 유머가 많은 목사님이셨다" 면서 아름다운 사이를 칭찬했다.

시무장로 자격을 헌법에서 보완

당회는 1975년 11월 교회헌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개정위원으로 이천영목사, 오해훈장로, 박계로장로, 이재권집사, 김수일집사를 임명하고 1974년에 제정한 첫 교회 헌법 내용을 개정했다. 1976년 2월29일 임시당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에 대해서 개정문제를 헌법개정위원에게 연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위원들은 65세 정년에 대해 계속 연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시 당회는 1977년 10월2일 헌법개정위원으로 이천영목사, 이재권장로, 김용서장로, 오해훈장로, 이중용전도사, 안정현집사를 임명했다.

1978년 4월에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시 헌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5월에 들어서도 헌법 개정위원회는 계속 모임을 갖고 첫 헌법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1979년 1월 공동회의에서 헌법을 1차로 개정했는데 당회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은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했고, 장로

의 자격을 보완했다. 새로 정한 장로의 자격조건이다.

1.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40세 이상된 자.
3. 직업이 정당한 자.
4.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5.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 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6. 안수집사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7. 성경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학식이 있는 자.
8. 6개월 이상의 장로 교양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
9. 디모데 전서 3장 1~7절에 합당한 자.

창립 8주년 심령부흥회 및 기념예배

본국 농어촌 교회 자전거 보내기 교육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된 창립 8주년 특별헌금

1978년 7월 30일 1부와 2부예배 때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 사회로 이천영목사 기도에 이어 성가대는 「교회의 터전」이라는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온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초청강사인 이정일목사는「축복을 누리는 비결」 (갈 6: 6~10)이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 설교를 했다. 이귀임집사의 특송과 허경삼목사 축도로 은혜속에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마쳤다. 이에 앞서 미육군 군목(소령)으로 서독주재 이정일목사를 초청,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과 오전 10시, 오후 7시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령부흥회는 교인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동포 한사람씩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오후 4시 예배에 이정일목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히 12: 1~3)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창립기념 특별헌금액은 모두 7천 28달러였고, 본국 농어촌에 자전거 보내기와 교육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했다.

3차 한국 단기 선교사에 송정명전도사

1976년 11월초부터 송정명전도사는 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 11월21일 오후 6시 주일 저녁예배에 송정명전도사는 「불변의 진리」(마 24:35)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했고,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예배때 주로 설교를 맡았다. 1977년 2월6일 저녁예배 때 송정명전도사는 「만남의 교육」(눅 2:40~47)으로 그리고 1977년 7월10일 수요예배 때에는 「확신있는 구원」(행

16:31)이라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다. 1978년부터 사무행정을 맡으면서 교회사역에 헌신했다.

1978년 7월2일 송정명전도사를 모국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선교의 밤」예배를 드렸다. 선교부가 주최한「선교의 밤」예배에서 이중용전도사는「그리스도의 초대」(마 22:1~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사회를 맡은 김탁재집사는 당시 동양선교교회 선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모국 선교 연혁
▲1976년 피선교교회 18교회
▲1977년 피선교교회 43교회
▲1978년 피선교교회 60교회(현재)

모국 선교 현황
▲1978년도 선교비 총액 (1월~6월) 11,239달러
▲선교회원 122명
▲송금 총액 (1월 ~6월) 7,185달러
▲선교용 자전거 38대

모국 피선교교회를 순방하기 위한 3차 단기 선교사에 송정명전도사 파송, 40일에 걸친 선교여행이었다

「선교의 밤」예배 후 한국으로 파송된 송정명전도사는 한국 농어촌교회를 차례로 순방했다. 송정명전도사는 단기 선교사 파송기간 중인 1978년 7월30일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약 40일간에 걸쳐 54개 한국 농어촌 피선교지원 교회를 돌아보고 온 송정명목사는 8월20일 1부 예배와 2부예배 때「복음의 능력」(고전 9:16~19)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설교를 했다. 이날 송정명목사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말고,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돕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송정명목사는 다시 8월27일 주일 오후 4시 청년회 헌신예배 때에 단기 선교사로 고국을 방문한 보고를 겸한 설교를 맡았다.

단기 선교사로 한국 농어촌교회를 순방하고 온 송정명목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녹음기와 카메라 등을 가지고 농촌교회를 찾다가 그만 간첩으로 몰렸다. 현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녹음해와 교회에 와서 보고하려고 한 것을 의심을 받은 것이다. 지서에서 2~3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한 교회를 가는데는 버스에서 내려서도 4시간 걸어야 했다. 그 곳 교회 전도사를 만났더니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찾아왔다고 우는 모습까지 보았다. 농촌교회 보낸 선교비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단기선교여행을 다녀온 뒤 1980년 창립 10주년에는 100개교회를 선교지원하자고 교회에 와서 호소를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국선교에서 세계선교를 향해


할리웃지역 노방전도

1978년은 모국 선교는 물론 국내 전도에 힘쓴 한 해였다. 100명에 이르는 선교회원들이 1년 동안 선교헌금을 가장 많이 낸 해이다. 그리고 모국 피선교 대상 교회는 60개로 늘어났다.

선교부 회원들은 빈깡통 수집 캠페인으로 181달러를 모아 모국 미자립 교회에 보냈다. 3월26일 선교부 주관으로 할리웃과 올림픽지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갔고 이날 모두 27명의 결신자가 생겨났다. 한국 애향교회 강대철전도사가 사역 중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교부에서 100달러와 배종년, 김지수, 장정애가 각각 치료비를 보내 주었다. 그중 김지수는 1천달러를 헌금했는데 강대철전도사가 완치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익명의 성도는 자전거 10대를 한국교회에 기증하는 등 선교회원들이 나서서 모두 20대(600달러)를 고국교회에 보냈다. 또한 신시도교회 전도사를 위해 배종년집사가 생활비를, 선유도교회에 올갠 한대를 박은애집사가, 서울신학대학 장학금은 오해훈장로가 보냈다.

OMC가 지원한 모국 농어촌교회를 직접 찾아가면서 열성을 보인 초창기 모국 선교

선교부는 9월10일 한국에 피선교교회 선정을 위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3차례에 걸친 한국 단기 선교사의 파송에 대한 평가와 미래 선교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새해에도 피선교 지원교회를 더욱 늘이고 액수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78년도 출석 교인수

날 자	출석 교인수	날 자	출석 교인수	날 자	출석 교인수
1월 1일	1542	5월 7일	1664	9월 10일	1347
1월 8일	1209	5월 14일	1323	9월 17일	1392
1월 15일	928	5월 21일	1233	9월 24일	1235
1월 22일	1136	5월 28일	1092	10월 1일	1346
1월 29일	1360	6월 4일	1154	10월 8일	1260
2월 5일	1258	6월 11일	1119	10월 15일	1403
2월 12일	1141	6월 18일	1126	10월 22일	1392
2월 19일	1052	6월 25일	1187	10월 29일	1375
2월 26일	1095	7월 2일	1140	11월 5일	1621
3월 5일	1214	7월 9일	1174	11월 12일	1274
3월 12일	1135	7월 16일	1249	11월 19일	1916
3월 19일	1092	7월 23일	1278	11월 26일	1762
3월 26일	1102	7월 30일	1795	12월 3일	1548
4월 2일	1210	8월 6일	1632	12월 10일	1352
4월 9일	1234	8월 13일	1411	12월 17일	1267
4월 16일	1157	8월 20일	1033	12월 24일	1145
4월 23일	1120	8월 27일	1584	12월 31일	1617
4월 30일	1287	9월 3일	1308		

1978년도 선교 헌금액

날 자	헌 금 액	날 자	헌 금 액	날 자	헌 금 액
1월 1일	370.00	5월 7일	160.00	9월 10일	3,848.00
1월 8일	300.00	5월 14일	440.00	9월 17일	980.00
1월 15일	439.00	5월 21일	542.00 야외예배	9월 24일	280.00
1월 22일	310.00	5월 28일	95.00	10월 1일	395.00
1월 29일	200.00	6월 4일	505.00	10월 8일	560.00
2월 5일	320.00	6월 11일	605.00	10월 15일	460.00
2월 12일	254.00	6월 18일	385.00	10월 22일	510.00
2월 19일	230.00	6월 25일	460.00	10월 29일	1,075.00
2월 26일	235.00	7월 2일	435.00	11월 5일	550.00
3월 5일	320.00	7월 9일	705.00	11월 12일	480.00
3월 12일	325.27	7월 16일	1011.00	11월 19일	711.00
3월 19일	413.00	7월 23일	375.00	11월 26일	220.00
3월 26일	375.00	7월 30일	210.00	12월 3일	420.00
4월 2일	484.00	8월 6일	370.00	12월 10일	635.00
4월 9일	395.00	8월 13일	745.00	12월 17일	665.25
4월 16일	377.17	8월 20일	680.00	12월 24일	930.00
4월 23일	187.68 깡통판매	8월 27일	458.00	12월 31일	120.00
4월 30일	210.00	9월 3일	403.00		

임동선목사 한국 일본 부흥 성회인도

13년만에 모국내 집회를 인도한 임동선목사 전국 대도시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다

이민사회의 목회자로 동양선교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킨 임동선목사의 미주 사역이 알려지면서 임동선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는 교회들이 늘어났다. 웨스턴에 새 성전을 구입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냈다는 것과 한 주간 출석교인이 1,500명의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것으로 임동선목사는 더욱 유명해졌다.

1978년은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 임동선목사는 한국을 떠난 1965년 이후 13년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미주이민 목회자로서 모국을 다시 찾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연합 대부흥회를 인도했다. 1978년 8월27일 담임목사의 모국 방문 성회인도를 위한 환송예배를 드렸고, 8월28일 한국에 도착했다. 9월4일~8일 박종만목사가 시무하는 남대전교회에서 은혜중에 첫 집회를 인도했다. 임동선목사는 한국에서의 부흥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 주간동안 일본 집회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11월14일 2개월만에 LA에 무사히 돌아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부흥회였고 임동선목사는 다녀온 뒤에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임동선목사는 LA에 도착하자마자 피곤을 느낄 사이도 없이 1978년 11월16일~19일 다시 청소년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그처럼 강건하게 하나님 사역을 담당했다.

임동선목사는 그당시 목회와 건강 비결에 대해서

> "첫째는 은혜, 둘째는 기도생활, 셋째는 절제, 규칙적인 생활 때문이다. 규칙적이고 절제있는 생활은 오랜 군대생활을 통해 얻어진 귀한 생활태도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했다.

1978년 11월26일 주일 오후 4시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잊지못할 말씀들」(창 22:9~14)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및 일본 집회 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일본 동경 연합부흥회때 임동선목사

임동선목사의 한국 및 일본 부흥성회 인도교회

일 정	부흥성회 인도교회
9월 4일 ~ 8일	남대전교회 (박종만 목사 시무)
9월 8일 ~ 11일	대전선화성결교회 (김창환 목사)
9월 11일 ~ 15일	인천송현교회 (황성주 목사)
9월 15일 ~ 18일	인천도원교회 (임혁수 목사)
9월 18일 ~ 22일	서울아현성결교회 (이성환 목사)
9월 25일 ~ 29일	제천중앙교회 (전문규 목사)
9월 29일 ~ 10월 2일	강원도 강릉교회 (정동찬 목사)
10월 2일 ~ 6일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10월 9일 ~ 11일	부산 수정동교회 (박충섭 목사)
10월 11일 ~ 15일	서울 동신장로교회
10월 16일 ~ 20일	전남 목포 상락교회 (이만성 목사)
10월 20일 ~ 23일	전주 태평 성결교회 (김용칠 목사)
10월 23일 ~ 26일	충북 청주 서원교회 (손덕용 목사)
10월 31일 ~ 11월 2일	서울 신학대학
11월 3일 ~ 6일	일본 동경
11월 6일 ~ 12일	동경 교향교회 (김종원 목사)

은혜 기도생활 절제 규칙생활 등 습관으로 건강비결을 이어간 임동선목사

제1회 모국 피선교 교회 대표자 세미나

임동선목사는 한국순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특별한 일정을 마련, 서울에서 제1회 모국 피선교교회 대표자 선교세미나를 주최했다. 1978년 9월19일(월)~21일(목)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호성결교회(담임 이용신목사)에서 선교비를 지원받고 있는 60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초청, 선교 세미나를 가졌다. 2박3일 일정으로 대표자 회의와 선교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다.



경주를 방문 집회때의 임동선목사

세미나중 임동선목사는 나병치료를 받고 있는 강대철 전도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모국 선교부 업무를 한국에서 대행해준 서울 용산 서호성결교회 이용신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는 제1회 모국 피선교교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목사와 전도사에게 앞으로의 선교 정책과 방향을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에게 양복 1벌씩을 선물했다. 이용신목사는 이중용전도사의 부친으로 동양선교교회가 1971년 모국 농어촌교회 10곳에 선교비를 보낼 때부터 모두 178개로 늘어난 1990년까지 선교비 송금업무를 맡아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동양선교교회로 부터 선교비를 받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로 다시 선교비를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약 20년간에 걸친 힘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용신원로목사는 이중용목사의 초청으로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다.

제1회 60여 농어촌교회 목회자 초청 선교세미나를 1978년 9월 2박 3일 일정으로 임동선목사가 주관했다

이용신목사는 30년사를 위한 인터뷰때 선교지원 사역 당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처음 서울에서 받아서 보내는 일은 상도동교회에 계시던 이천영목사님이 수고를 했다. 이천영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내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허경삼목사와 임동선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시작했다. 매달 어느 농촌교회에 얼마를 보내라고 오는데 교회 숫자가 많았다. 한 교회마다 돈 찾는 영수증 등 모두 4장씩을 쓰게되고 다시 시골우체국으로 보내는 일이라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100개 교회가 되니까 400장을 쓰는데 2~3일이 걸릴 때도 있었다. 그때 우표값, 송금비, 차량비 등으로 500달러를 받았고 1994년 내가 교회를 은퇴할때까지 약 20년을 했다. 참으로 보람이었다. 돈받는 시골교회는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는데 그 당시 한국돈으로 농어촌 목회자의 봉급이 2~3만원이었는데 받는 교회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번은 임동선목사가 서호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동양선교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농어촌교회에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국군 복음화를 위한 선교 대예배

공군 군종감으로 예편한 뒤 미국의 새 이민사회라는 목양터에서 목회를 하고있는 임동선목사는 항상 국군의 복음화에 큰 책임과 소명을 갖고 기도를 드렸다. 모국 선교를 지원하면서 국군복음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예편한 군종감이나 군종목사들이 미국 유학이나 로스앤젤레스방문 길에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설교자 중에는 임동선목사의 길을 따라 공사생도에서 공군 군목이 되고 공군 군종감까지 지낸 장영출목사가 있다. 장영출목사는 공사 10기생으로 생도때에 임동선 군목실장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임목사의 부흥회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장영출목사는 전투조종사인 공군 대위때 공군에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고 공군군목이 되었다. 그후 공군 군종감까지 거쳐 지금은 21세기 전도협회 회장으로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01년 4월 12일 서울에서 인터뷰때 장영출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군 생도때 처음 임동선 군목실장의 부흥회 설교를 들었는데 우렁찬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 졌다. 그리고 나도 이다음 임동선목사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후 임목사에게 공군군목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달고 계시던 십자가 뱃지를 나의 군복에 직접 달아 주셨다. 임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내 아들의 이름도 장동선이라고 지었다. 임동선목사님은 기도의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잘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셔서 사관생도 모두가 존경을 했다."

"동양선교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농어촌 교회에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다"

임동선목사는 남가주재향군목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군의 복음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보였다. 1978년 12월5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조국 국군 복음화를 위한 선교예배를 드렸다.

기도의 어머니 장갑성권사 소천

동양선교교회에는 창립 때부터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았다. 여전도회 회원들과 권사들은 새벽부터 철야까지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 감당과 임동선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한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초창기 기도의 어머니로는 장갑성권사를 생각하게 된다. 장갑성권사는 임동선목사의 장모이자 임재순 사모와 황재열목사, 황재륭목사의 어머니이다. 장갑성권사는 일



임재순사모와 어머니 장갑성권사(오른쪽)

찌기 경북 예천의 황씨 가문으로 시집온 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다. 맏아들인 황재열목사를 서울신학교에 입학시켜 목회자로 만든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이다. 장갑성권사는 믿음이 충만하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며, 전도와 봉사를 힘써하는 실천적 신앙가였다. 철야기도와 산기도 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에 남달랐다. 장갑성권사는 한때 아들 황재열목사와 임동선목사가 함께 공부를 한 서울신학교 구내식당 일을 도왔다. 장갑성권사는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열이 남달랐다. 임재순사모는 서울신학교에, 차남 황재정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 (후에 육군 군목), 3남 황재기는 연세대 음악과, 그리고 막내 황재륭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로써 본을 보였다.

「철야기도와 산기도 대장」 별명대로 OMC 초창기부터 기도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는 장갑성권사

임동선목사와 외동딸인 임재순사모가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황재열목사가 사역을 도울 때 장갑성권사의 기도 제목은 "동양선교교회가 이민교회로서 크게 부흥 성장하는 것"이었다. 장갑성권사는 임재순권사의 초청으로 1974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일 기도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했다. 장갑성권사는 1975년 12월14일 시무권사 임직을 받았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다.

장갑성권사는 임재순사모가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임동선목사의 사역을 돕느라 바쁘게 지낼 때에 "목사 사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기도생활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데 등한시하니 너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한적이 있다. 임재순사모는 훗날 어머니의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갑성권사는 926 S. Irolo에 있는 임동선목사 2층자택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로 하루를 보냈다. 그때 임동선목사의 막내 아들 임승천군은 할머니가 매일 방에서 나오지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보고는 "할머니! 기도 그만 하세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귀찮아 하시겠어요" 라고 말한 일화가 있다. 장갑성권사는 1977년 8월 귀국했고, 고향 예천에서 소천했다. 장갑성권사는 한인 복음전도대회 때 며칠 금식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앉은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양선교교회는 1977년 9월10일 고 장갑성권사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천영원로목사는 「복된 죽음」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옥엽권사가 약력을, 김병숙권사가 조사를 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를 회상했다. 1978년 8월27일 장갑성권사 1주 추모예배를 드렸고, 임재순 사모는 어머님을 기념하는 뜻으로 한글 타자기 1대를 교회에 기증했다.

담임목사 자녀들의 헌신적 교회 봉사

임동선목사는 언제나 가정과 자녀교육 보다는 교회만을 위하여 헌신적인 목회를 했다. 임재순사모의 봉사도 밤낮이 없었다. 그리고 장남 임승광, 장녀 임승혜, 차녀 임승향, 차남 임승천 4남

매의 교회봉사 또한 특별했다.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한몫씩을 맡아서 헌신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미육군에 입대하고 월남전까지 다녀온 임승광은 UCLA에 재학할 때 대학부에서 활동을 했고 교회를 뒤에서 조용히 도왔다.

임재순 사모, 승광, 승천, 승혜, 승향 등 온가족이 헌신적 봉사로 교회를 크게 도왔다

임승광은 대학 졸업후에는 사업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힘써 봉사를 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회 당회원들을 위해 대접하는 기회를 기쁨으로 생각했다. 장녀 임승혜는 창립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봉사를 했다. 캘리포니아주 임상실험실 연구원 자격을 받았고 결혼한 후에도 청년회, 성가대와 반주자의 사명을 항상 열심히 맡았다. 임승혜집사의 남편은 공학박사인 이신우 집사로 함께 한국에 살고있다.

차녀 임승향은 교회 창립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걸스카웃 대장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했다. 임승향집사(현재 변호사)는 교회 창립 첫날부터 오늘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이다. 남편은 내과의사이며 본교회 시무장로인 한승수장로이다. 언니 임승혜와 함께 1975년 11월16일 제2회 기독교 장년회 주최 성경퀴즈대회에 조향숙과 3명이 본교회팀으로 출전, 2등을 차지하는 등 성경공부에도 항상 열심이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임승향선생

막내 임승천(현재 변호사)은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별히 그당시 대학부에는 신앙이 좋은 대학생들이 많았고 임승천은 노방전도나 기도회, 헌신예배 등 한 몫을 담당했다. 임동선담임목사 가족의 헌신이 동양선교교회를 더욱 좋은 이민교회, 꿈이 있는 교회로 만들었다.

교육위원회, 신앙교육 계획 수립

교육위원회는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교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매주일 성경공부로부터 자녀교육 간담회, 장년층 직업 및 건강 상담 등 교인에게 유익한 신앙교육을 해나갔다. 또한 장기계획으로는 연중 성경지도, 각 대학 바이블 클래스 지원 등을 했다. 1976년 12월19일 새해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천영, 박장균, 오해훈, 이재권, 김동규, 김재권, 김태식, 이득애, 성인호,
오상숙, 한병철, 김여근, 조성신, 이중용

교육부는 해마다 한차례씩 에로우헤드 레이크에서 수양회를 갖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교회 사명을 다짐했다. 강사는 임동선목사, 이천영목사, 오해훈장로가 주로 맡았다. 교육위원회는 1977년 6월19일 교육 장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을 임명했다. 그리고 장단기 교육정책을 세워 나가도록 했다. 2세 신앙교육을 잘 해 나가는 교회를 목표로 했다.

동양선교교회 교육부에는 전문가와 헌신적인 봉사자가 많았다 그리고 오해훈장로가 큰 수고를 했다

▲위원장: 이천영목사
▲유년부: 이중용전도사
▲중등부: 오해훈장로
▲고등부: 홍순웅장로
▲대학부: 이재권장로
▲음악 및 정서교육부: 한병철집사
▲한글 및 역사: 김재권집사

최고 인기의 유년 주일학교 교육


1970년대 동양선교교회 여름성경학교의 한 모습

이중용목사가 지도하는 유년 주일학교는 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인기있는 교회학교였다. 그래서 새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다. 좋은 교사들이 재미있게 지도하는 주일학교에는 교인과 비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매주일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학교로 자리를 잡아갔다.

특별히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는 유년주일학교에는 남가주 지역 동포자녀들이 등록, 학생들이 500명을 훨씬 넘는 서머스쿨로 성장해갔다. 주일학교가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이민학생들이 출석하도록 월간 「어린이 동산」이라는 회보를 1977년 10월23일 처음으로 펴냈다. 「어린이동산」에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간증 및 교육 체험이 실려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크게 유익했고 1~3개월에 한번씩 발행했다.

「어린이동산」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쓴 가르침의 현장 이야기가 생생하게 실려있다.

> "교사란 처음부터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부족하지만, 어린이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부르며 기도할 때 내게는 큰 힘이 주어졌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
> 〈교사 김인승〉

“어릴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된후 내게 온 변화가 있다면 전에 무관심한 성경을 이제는 읽고 연구하게 되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교사 김성경〉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재미있게 공부하는 어린이 교실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이 앞에 섰을 때 두렵기만 했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어린 시절은 비록 주일학교 교육 없이 자랐으나 이제는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니 기쁘기만 하다. 주일학교 교사란 직책은 내 개인의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장 안정현〉

“교사가 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되었다. 이제는 어린이 앞에 서는데 조금 자신도 생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가 된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

〈교사 김은희〉

이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교회학교가 OMC 유년주일학교였다 특히 여름성경학교는 모두가 가고 싶어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마켓에서 한국사람 특히 어린이를 보면, 열심히 주일학교에 오도록 전도를 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어린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귀한 직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사 조보린〉

“어린이 하나 하나가 참으로 귀한 생명임을 깨달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린이 앞에 서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 자신과 교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게 되고 젊음을 바쳐 봉사하게 되니 이보다 귀한 직책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총무 김성택〉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유년주일학교는 해마다 성경 퀴즈대회를 개최했는데 1977년 10월23일 수상자는 1등 김수지, 이형훈, 한상훈, 2등 강원석, 박수강, 3등 김제비 등이다.

1978년 1월15일 오후 6시 주일학교는 교사 헌신예배를 드렸다. 허경삼목사는「교회의 교육적 사명」(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리고 홍성호선생과 원영숙선생은「어린이의 교사가 된 후」라는, 그리고 임승향선생은「어린이를 가르치는 작은 보람」이라는 간증을 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1979년 12월21일~22일 Oak Glen 감리교 수양관에서 교육 평가회를 갖고 1980년 새해 교육에 대한 준비를 했다.

고등부 주최, 문예의 밤 행사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생활을 통해 문화충격을 줄이며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갔다

중고등부 학생의 신앙생활을 위해 지도교사들은 연중계획을 세우고 성경교육 · 교회봉사 프로그램들을 잘 실천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갓 이민와서 미국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사들은 언제나 열심이었다. 무엇보다도 임동선목사는 중고등부 학생을 사랑하며 큰 관심을 갖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다.

1977년 2월3일 고등부는 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이때 고등부에는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는 30여명의 한인학생들이 출석했다.

▲회장: 유광열　▲부회장: 황윤미　▲총무: 김진
▲서기: 백전희　▲회계: 황윤자

고등부는 문예창작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1977년 11월26일 오후 7시 문예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해마다 가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석하는 문예의 밤 행사를 통해 교회생활, 학교생활을 더욱 알차게 해나갔다. 연중행사로 고등부 학생들은 교회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들어온 수익금은 선교기금으로 교회에 전달했고 수양회의 기금으로 사용했다. 1978년 2월 고등부 지도를 위해 부장에 조영근집사, 지도교사에 조갑부전도사, 채미원전도사, 남상수선생을 임명했다.

1979년 11월14일 고등부는 문예의 밤 행사를 갖고 이민생활의 이질감의 극복과 신앙과 문학으로 이민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4부로 나누어진 문예의 밤 행사를 통해서 1년간 신앙생활의 결산을 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대화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회의 길 가기로 헌신한 대학부 회원

이민의 물결과 함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갈 때 한인교회는 새 이민자들에게 신앙의 보금자리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1세 부모들이 밤낮으로 두 잡, 세 잡을 뛰면서 힘든 이민생활을 해나갈 때 1.5세 대학생들은 때로는 이민에 대한 회의와 자아의식,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도 했다.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도 이민생활 적응과 진로문제, 신앙생활 등으로 때로는 적지 않은 갈등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1975년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는 약 35명의 대학부 회원들은 참으로 헌신적이었고 성경공부와 전도 등에 열심이었다. 이때 대학생들에게 성령이 함께 임했고 신앙의 불길이 타올랐다. 몇몇 회원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응답을 기다렸다.

1971년~1975년 대학부 회원들은 세계선교를 위한 꿈과 영어권 목회를 위한 소명을 받아 1.5세선교사,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1976년 9월12일 대학부는 처음으로「코이노니아의 밤」행사를 개최, 신앙 안에서 한 길을 가는 기독학생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1970년대 중반, 성경공부와 봉사 등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대학부 회원들



1976년 9월 대학부 주최 제1회 코이노니아의 밤 행사

1976년 9월19일 대학부는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홍성호 ▲부회장: 임승향 ▲총무: 임승천
▲서기: 조보린 ▲회계: 홍성란 ▲신앙부: 백중필
▲체육부: 김재용 ▲음악부: 강신옥 ▲문화부: 김경주
▲봉사부: 염헌맥

대학부는 1976년 12월12일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강사로는 장영출목사(전 공군 군종감)를 초청했다. 공군군종감 출신의 강사 장영출목사는「보고 싶어지는 사람들」(딤후 1:1~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큰 은혜와 사명의 길을 열어 주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회장을 맡고있는 장영출목사는 성경적 믿음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1975년~1977년 대학부를 담당했던 박장균목사(한인중앙교회 담임)는 "그당시 대학생들이 3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 열심이었다. 특별히 홍성호, 백중필, 김영재 등이 헌신적이었다. 그 중 홍성호 대학부 회장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된 것은 당시 대학부 출석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처음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교역자들이 많지가 않았다. 나도 30대의 목사로 헌신적이었고 사례금은 받지를 않았는데도 사역에 큰 보람이 있었다" 고 말했다.

1977년 3월22일 대학부는 총회를 갖고 새로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염헌맥 ▲부회장: 홍성란 ▲총무: 김인승
▲서기: 김학진 ▲회계: 윤선옥

1977년 7월24일 대학부는 교회 창립 7주년 축하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는 한국신학대학 교수 김명혁박사가 맡았다. 김명혁박사는 1970년 동양선교교회가 창립된 후 한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귀국해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된 1.5세 대학생들이 많았던 70년대 대학부

1977년 9월25일 대학부는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임승천 ▲부회장: 윤선옥 ▲총무: 김학진
▲서기: 강은희 ▲회계 :김선아 ▲신앙부장: 이태종
▲문예부장: 이보미 ▲봉사부장: 염헌맥 ▲친목부장: 오대호

1978년 4월9일 대학부 새 임원

▲회장: 김진광 ▲부회장: 강은희 ▲총무: 김학진
▲서기: 박영옥 ▲회계: 최성하

1978년 10월8일 대학부 새 임원

▲회장: 염헌맥 ▲부회장: 최성하 ▲총무: 유광열
▲서기: 이명희 ▲회계: 박영옥

1979년 11월4일 대학부 새 임원

▲회장: 유광열 ▲부회장: 엄애경 ▲총무: 박용원
▲서기: 이혜경 ▲회계: 이진수

대학부는 1979년 8월17일 팜데일에 있는 수양관에서 철야기도회를 갖고 눈물로서 교회와 이민사회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모두 32명이나 되었다.

김진광목사(중부동양선교교회 담임)는 대학부 회장 시절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학부에 3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영성운동에 주력을 했다. 이요한전도사님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지도했고 교

사인 강선자전도사님의 역할도 컸다. 기도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이때 동양선교교회에서 헌신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이유는 이요한전도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송창현목사, 주성철목사, 이태종목사가 같은 그룹이었다.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로 헌신자가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Come & See」, 캠퍼스 선교에 선구적

1970년대초 캠퍼스 선교에 앞장 선 동양선교교회 대학생 복음화에 전념했다

1978년 한인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미국대학을 찾아가 Bible Class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이요한전도사를 학원선교사로 임명했다. 이요한전도사는 UCLA, LACC, CSULA 등 대학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성경교실을 마련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요한전도사는 UCLA를 방문, 한인대학생들에게 2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었다. 성경공부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신자 한인대학생들도 참석, 기독학생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캠퍼스 복음화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

1978년 5월28일 UCLA Bible Class와 대학부가 공동 주최하는 헌신예배시간을 마련했다. 젊은이를 위한 간증과 헌신의 밤으로 모인 이날 저녁예배에는 한국에서 온 옥한흠목사가 「젊은이여 당신이 반드시 체험해야 할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새 사명을 받았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바이블 클래스가 비신자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가자 당회는 이요한전도사를 캠퍼스 담당 교육전도사로 임명했다. 1978년 11월16일~19일 대학부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특별집회를 마련했다. 임동선목사는 첫날은 「삶의 올바른 자세」, 둘째 날은 「젊은이의 실제문제와 그 해결」, 셋째날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자」, 넷째날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큰 사명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했다.



제1회 「Come and See」 (대학생 선교대회) 포스터

학원선교의 대상 학교와 학생들이 늘어나자 당회는 1979년 1월26일 이요한전도사를 학원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대학선교부를 정식으로 조직했고, 독립된 기관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전념하도록 했다. 1970년대 이민사회 초기에 동양선교교회는 캠퍼스 선교에 가장 앞장선 교회였다. 「Come and See」라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부흥회가 1979년 11월15일~17일 처음으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요한전도사 (뉴저지 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훈련을 하기위해 USC, UCLA, 칼텍,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피어스 칼리지를 찾아다녔다.그러나 대학생 몇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Come & See」라는 대학생 연합부흥집회를 처음 동양선교교회에서 시작했다. 캠퍼스에 복음의 팀장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는 꼭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갖게 된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속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 알의 밀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썩고 죽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생인 내가 썩으면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살아난다고 훈련을 시켰다. 「Come & See」를 통해서 남가주 대학에 복음과 전도의 불이 붙었다. 집회때마다 1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달았다."

청년회, 「형제들 소식」펴내고 봉사 앞장

청년회는 회지를 발행하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친교를 통해 신앙생활에 헌신적이었다

청년회는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생활에 더욱 참여와 헌신을 위해 「형제들 소식」이라는 회지를 발행했다. 1979년 11월에 발행된 「형제들 소식」란에는 임동선목사의 청년들에게 주는 글이 실려있고, 2주에 한번씩 갖는 토요성경공부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다. 「형제들 소식」 2호에 실려있는 청년회 회원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엄창웅: 세리토스에 새집을 사서 이사,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마음을 씻고 청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 청년회 체육 음악부장으로 새 책임 맡아 봉사.

▲김치용: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모든 것이 무사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

▲마장섭: 지난번 배구대회에서 발을 다쳐 4연승의 기회를 다른 교회에 양보 아픈발을 무릅쓰고 뛰던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최영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얼굴의 주인공. 금번 본 회의 친교 봉사부장으로 발탁되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김해룡: 그간 열심히 뛰고 애쓰던 보람이 있어 아담한 새집을 마련해서 싱글벙글 곧 아빠가 될 모양이라 또 한번 기대.

▲김성택: 그 동안 주일학교 총무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청년회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박광원: 얼마 전 아이가 머리를 다쳤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서 주님께 감사.

청년회는 1978년 4월2일 모두 5,376달러의 수양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아서 교회에 전달했고 이때부터 교회 수양관 구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다.

1978년 청년회 임원

▲회장 최만삼 ▲부회장 박승원, 조지원 ▲총무 정우선 ▲서기 조병헌
▲회계 조병희, 최화실

1979년 청년회 임원

▲회장 김영재 ▲부회장 조병헌 ▲총무 박승원 ▲회계 김선회
▲서기 김금순 ▲친교봉사부장 최영철 ▲종교문화부장 김복문
▲음악 · 체육부장 엄창웅

이기홍목사를 행정목사로 청빙


1989년 유럽선교 여행때 임동선목사와 이기홍목사

1979년 1월26일 아현성결교회 부목사로 시무중인 이기홍목사를 행정목사로 청빙했다. 이기홍목사는 1979년 3월13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3월18일 주일 예배 때부터 행정담당목사로 시무를 시작했다. 이기홍목사는 3월25일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마 1:14~2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인들과 신앙의 첫 만남을 가졌다. 이기홍목사는 4월1일 「죄없는 자가 먼저 쳐라」(요 8:1~11)는 설교를 했고, 4월8일 주일 1부, 2부 예배 때에는 「갈보리의 십자가」(마 27:32~44)라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다.

이기홍목사는 행정 및 교회살림을 맡아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역으로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이 뛰어난 이기홍목사는 임동선담임목사의 목회 지원으로부터 행정 및 교회 살림을 맡아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역으로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 당회는 1979년 12월 16일 이기홍목사를 허경삼목사 이후 제2대 부목사로 임명했다. 이기홍목사는 7년간 육군군목생활 후 아현성결교회 부목사로 4년간 시무했고 서울신학대학 사무처장, 신촌성결교회 부목사로 시무했다. 8년간 서울신학교 사무처장때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잘 감당한 후 동양선교교회에 부임했다.

1979년 3월4일 채미원전도사의 남편 안용식전도사가 도미했고, 3월11일 당회는 중고등부 지도 전도사로 임명했다. 3월18일 주일 오후 중등부 헌신예배 때 안용식전도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눅 18:18~27)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런 설교를 했다.

1979년 12월16일 당회는 새해 교역자를 임명했다.

▲당회장: 임동선 ▲부목사: 이기홍 ▲선교: 송정명
▲교육: 이요한 ▲행정: 이기홍 겸임 ▲유년 중등 주일학교: 이중용
▲고등부: 안용식 ▲대학부: 이요한 겸임

목회 리더십이 탁월한 임동선목사와 전문 사역자들의 팀웍으로 동양선교교회는 1970년대 말

부터 각 부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빠른 성장의 길을 걸었다.

창립 9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차보근목사의 부흥회 설교를 들은 뒤 성령이 임하고 교육관 건축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

당회는 1979년 6월10일 창립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이재권장로, 위원에 이기홍목사, 김용서장로, 홍순웅장로, 조웅래장로와 각 기관장을 임명했다.

1979년 7월 25일~28일 차보근목사(공주 성결교회 담임)를 부흥강사로 초청, 창립 9주년 기념성회를 가졌다. 기념성회는 새벽 5시30분에 기도회를, 낮 10시에 부흥사경회를, 저녁 7시 부흥회 등 하루 3차례로 교회와 성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1979년 7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1부와 2부 합동으로 창립 9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기념예배는 김용서장로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온 성도에는 은혜가 되었다. 부흥강사인 차보근목사 (공주 성결교회 담임목사)는 「신앙만능」 (막 9: 23)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런 설교를 했다.


창립9주년 기념예배

이날 오후 2시 30분 장로안수, 취임 및 권사취임 예배를 드렸다. 한건수장로의 기도와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후 차보근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행 13: 17~23)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신임장로의 서약을 받았고 장로안수를 위해 김동명목사와 손순열목사가 기도를 드렸다.

장로 및 권사 취임선포를 한뒤 김계용목사는 장로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안수훈목사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신임 장로 및 권사는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했고, 교회는 장로 및 권사에게 선물을 주었다. 김몽학장로가 답사를 했고 류형기감독의 축도로 창립 9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감사와 축복속에 마쳤다. 새 임직자는 더욱 충성스런 봉사를 하나님과 교회앞에 서약했다.

새로 취임 및 장립 장로 및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안수: 강영구, 김몽학

▲장로취임: 박계로, 조웅래

▲권사취임: 강복순, 김덕순, 김성심, 김효수, 문유심, 박완순, 오순명, 원준옥, 이득애, 조옥녀, 최용숙, 한귀순, 이옥조

임직예배 후에는 온 성도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감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4차 모국 단기 선교사에 이요한전도사

1979년 7월29일 창립 9주년 예배후 이요한전도사를 모국 단기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다. 한국에 도착한 이요한전도사는 농어촌교회를 순방 중에 큰 수재가 발생,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교임무를 잘 수행했다. 1979년 8월12일 주보에는 「수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요한전도사를 위해 전교인의 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모국 단기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이요한전도사는 1979년 10월10일 서울 예장 고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50일간의 모국 단기 선교사 사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친 이요한목사는 10월12일 로스앤젤레스로 무사히 귀임했다.

이요한목사는 1979년 10월21일 주일 대예배와 주일 오후 선교부 보고 예배 때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 4:13~22)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OMC서 훈련받고 다시 흩어져 미국 각처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

▲이요한목사(뉴저지 사랑장로교회 담임)

> "한국의 농어촌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룬 일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선교교회를 통해 사역자를 훈련시켰고 나도 훈련을 받았으니 또 다시 떠나야 한다. 그때 나는 한국 농어촌교회선교는 동양선교교회가 담당하고 있으니 미국안 어느 곳에 가서 훈련받은대로 선교를 하겠다고 시카고로 떠나게 되었다."

여전도회를 에스더와 한나로 나누어

출석교인이 1천명을 넘고 매주일마다 새신자 등록이 늘어가면서 교회자치기구는 점차 연령과 직능별로 세분화 해나갔다. 제일 먼저 여전도회는 1979년 3월4일 임시총회를 갖고 연령별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45세이하 회원들은 에스더 여전도회를 조직했고 45세이상 회원은 한나 여전도회를 창립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창립 때부터 기도의 어머니들로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 해왔다.

1979년 3월18일 선출된 에스더 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희숙 ▲부회장: 김재숙 ▲총무: 오순자

▲서기: 김정주 ▲부서기: 이성호 ▲회계: 오상숙
▲부회계: 편애진
▲교육부 부장: 노영자, 차장: 정중수
▲전도부 부장: 함순화, 차장: 김지화
▲섭외부 부장: 김영애, 차장: 임경희
▲봉사부 부장: 탁매자, 차장: 신무희
▲미화부 부장: 오영희, 차장: 김영자
▲음악부 부장: 강은희, 차장: 김양자
▲관리부 부장: 강을규, 차장: 김근중

1979년 한나 여전도회 임원
▲회장: 한정현 ▲부회장: 최경자 ▲총무: 오천란
▲서기: 임재순 ▲부서기: 헬렌 캘리 ▲회계: 성인호
▲부회계: 김성심
▲전도부 부장: 박경자, 차장: 박화진
▲교육부 부장: 조동희, 차장: 이원재
▲섭외부 부장: 김병숙, 차장: 김옥인
▲봉사부 부장: 김효수, 차장: 김옥례
▲미화부 부장: 김보근, 차장: 계정자
▲음악부 부장: 이득애, 차장: 권옥엽
▲관리부 부장: 안준옥, 차장: 김정자

교회기구는 점차 연령과 직능별로 나뉘었다 여전도회가 에스더, 한나 여전도회로 나뉜 것도 이때이다

1979년 11월4일 선출된 에스더 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희숙 ▲부회장: 김재숙 ▲총무: 오순자
▲서기: 이성호 ▲부서기: 김정주 ▲회계: 정중수
▲부회계: 신무희
▲교육부 부장: 노영자, 차장: 조지현
▲종교부 부장: 홍강숙, 차장: 함순화
▲섭외부 부장; 오상숙, 차장: 조춘희
▲봉사부 부장: 탁매자, 차장: 김정은
▲미화부 부장: 오영희, 차장: 김영자
▲음악부 부장: 강은희, 차장: 이문자
▲관리부 부장: 강을규, 차장: 최순덕
▲성가대 지휘: 이귀임, 반주자: 김남형

1979년 12월30일 선출된 한나 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최경자 ▲총무: 권옥엽

▲서기: 헬렌 캘리 ▲부서기: 엄혜경 ▲회계: 성인호
▲부회계: 김성심
▲전도부 부장: 박경자, 차장: 하애도
▲교육부 부장: 이명구, 차장: 장정애
▲봉사부 부장: 원춘옥, 차장: 한복덕
▲섭외부 부장: 박화진, 차장: 이옥조
▲미화부 부장: 김보근, 차장: 김효숙
▲음악부 부장: 오천란, 차장: 장세정
▲관리부 부장: 김덕숙, 차장: 김영숙

모세 남전도회와 여호수아 남전도회 조직

남전도회는 1979년 제1 남전도회와 제2 남전도회로 다시 연령을 기준해 나눠 조직을 했다. 제2 남전도회는 9월9일 새 조직을 위해 13인 위원으로 오철훈, 김광돈, 노수정, 김명균, 이원열, 이성호, 김병곤, 김여근, 박형건, 황재륭, 김재권, 원덕영, 조상희를 위촉했다.

여호수아 남전도회는 1979년 9월16일 총회를 갖고 첫 임원을 선출했다.

▲고문: 이기홍목사 ▲회장: 오철훈 ▲부회장: 황재륭
▲서기: 박형건 ▲회계: 김광돈 ▲총무: 노수정
▲전도부장: 정해선 ▲문화부장: 이성호 ▲친교부장: 전송택
▲봉사부장: 조규철 ▲생활전도부장: 이원열
▲특수사업부장: 김재권

남전도회도 연령기준으로 여호수아, 모세 남전도회로 구분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락회를 창립

그리고 제1 남전도회는 모세 남전도회로 명칭을 정하고 10월 28일 총회를 갖고 첫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김몽학장로 ▲부회장: 강영구장로
▲총무: 김봉한 ▲서기: 신윤철 ▲회계: 유문규
▲종교부장: 홍순웅, 간사: 오수남
▲문화부장: 김중완, 간사: 장은모, 이웅선
▲친교부장: 탁찬효, 간사: 이인근, 강춘식, 원재수
▲봉사부장: 홍종구, 간사: 김학모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남가주 한인사회서는 처음으로 노인회인 상락회를 창립하기로 결정했다. 1979년 12월16일 주보에 노인회(상락회) 창립을 위한 안내가 실려있다.

1. 회원은 65세 이상 본교회 남녀 신자
2. 추진위원 이천영목사, 오태상목사
3. 창립총회는 1979년 12월23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가짐.

동양선교교회 초대 상락회 임원
▲회장: 이천영목사 ▲부회장: 오태상목사, 하애도권사
▲고문: 이기홍목사, 김몽학장로

담임목사 설교에 더욱 은혜와 축복

1979년은 교회부흥과 모국선교, 교육관 건립을 위한 준비 등으로 전교인이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했다

1979년은 교회 부흥과 모국 선교, 교육관 건립을 위한 준비 등으로 전교인이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한 해였다. 임동선담임목사는 매주일 설교를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더욱 자랑스럽게 새 이민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 새 이민이 계속 몰려오면서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자들을 위한 신앙의 보금자리이자 친목과 자녀교육을 위한 중심교회가 되어갔다. 임동선목사와 임재순사모는 갓 이민 온 교인들을 위한 기도와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보이지 않게 신앙으로 인도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1979년 3월11일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다녀왔고, 3월25일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목사 지도자 강습회에 안정현집사와 함께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왔다. 그리고 4월6일에는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고, 5월27일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다. 1979년 9월2일에는 필라델피아연합교회 부흥회와 10월14일에는 메릴랜드 한인장로교회 부흥회를 은혜중에 마치고 돌아왔다.

당회는 1979년 8월26일 임동선담임목사의 풀러신학교 교회성장 목회학박사 코스의 입학을 추천했다. 1979년 10월28일 1부와 2부 주일 예배때 임동선목사는 「성공적인 이민생활의 요소」(느 1:1~9)라는 설교로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 주었다.

1970년대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자와 이민사회에 개척정신을 불어 넣어주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이민자와 애환을 함께 나눈 교회였다.

구역을 교구로 확대, 심방사역에 치중

1979년은 교인 심방 및 교구 활동을 가장 헌신적으로 펴나갔다. 1월14일 당회는 박용장목사를 새 심방목사로 임명했다. 이후부터 구역을 교구로 확대했다. 심방담당 박용장목사는 1979년 1

월~6월 모두 361교인 가정을 심방했는데 이는 하루에 2가정~3가정을 방문한 것이다. 교회는 심방을 원하는 가정의 연락을 받아 교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앙과 이민생활 그리고 교회 및 가정, 자녀교육 등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함께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 무엇보다도 임동선목사 자신이 심방을 가장 많이 다녔고 심방때마다 교인가정의 자녀 이름을 가장 많이 외웠다. 성도들은 임동선목사의 심방을 기다렸다.

당회는 1979년을 구역 확대 및 훈련의 해로 정하고 구역 지도자, 총무를 위한 훈련을 열심히 해나갔다. 각 구역별로 성경퀴즈대회와 찬송가 경연대회를 갖고 특별히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좋은 구역원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1979년 10월 26일~28일 매일 오후 7시~9시 처음으로 구역장 훈련을 실시해서 구역장과 총무들에게 신앙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79년 동양선교교회 교구 지도자 명단

〈1 교구〉

교구장 오해훈장로	총무 김영재
1 구역장 오상숙	2 구역장 김영재

〈2 교구〉

교구장 한건수장로	총무 김복문
1 구역장 한정현	2 구역장 김복문

〈3 교구〉

교구장 홍순웅장로	총무 정우선
1 구역장 김희숙	2 구역장 원준옥
3 구역장 변광우	4 구역장 원영숙

〈4 교구〉

교구장 김몽학장로	총무 신윤철
1 구역장 김영철	2 구역장 한복덕
3 구역장 김봉환	

〈5 교구〉

교구장 김용서장로	총무 안정현
1 구역장 김재숙	2 구역장 박효순

〈6 교구〉

교구장 이중용전도사	총무 박재호
1 구역장 김영규	2 구역장 김남형
3 구역장 탁매자	4 구역장 김보근

〈7교구〉

교구장 이요한목사	총무 조규철
1 구역장 최경남	2 구역장 오영희
3 구역장 김옥래	4 구역장 이옥조
5 구역장 성인호	6 구역장 조순자

임동선목사는 심방을 가장 많이 다녔고 교인가정의 자녀 이름을 가장 많이 외운 기록을 갖고 있다

〈8 교구〉

교구장 이재권장로	총무 오정택
1 구역장 윤자혜	2 구역장 박완순
3 구역장 박경자	4 구역장 강금자
5 구역장 구혜경	6 구역장 황관오
7 구역장 오용애	

〈9 교구〉

교구장 이재권장로	총무 조정현
1 구역장 김옥인	2 구역장 김정주
3 구역장 김주환	4 구역장 김신애

〈10 교구〉

교구장 송정명목사	총무 온성철
1 구역장 오천란	2 구역장 함순화
3 구역장 김옥자	4 구역장 권옥엽
5 구역장 최경자	6 구역장 박형건

"교회부흥은 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역이 잠자면 교회가 잠을 잔다"며 열심히 공부

당시 행정을 담당하던 이기홍목사는 구역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우리들의 몸에 많은 핏줄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많은 조직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구역의 조직이다. 심장으로부터 동맥에 굵은 핏줄이 있고 다음에 그 핏줄에서 작은 혈관으로, 작은 혈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이 전체의 핏줄이 움직이므로 몸이 살아 활동하는 것 같이 교회도 구역의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 「교회부흥은 구역에서부터」, 「구역이 잠자면 교회가 잠을 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구역의 활성화는 교회 성장에 직결되고 있다. 특히 큰 교회로 성장할수록 구역조직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구역 조직이 있으나 전체 신자의 몇%가 가입하고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구역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1979~1981

제6장
세계선교의 부름따라

- 교육관 건축 위해 온성도가 기도
- 1979년 한해를 「총동원 선교의 해」로
- 100개 모국 교회에 선교비 지원
- 성가대, 성탄축하 칸타타 공연
- 92만 달러 건축헌금을 약정하는 기적
- 새 교육관 건립위원회를 구성
- 성전건축 6개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 1980년 「전교인 성경 읽기의 해」로
- 1980년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임명
- 유년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름난 교회
- 처음으로 특수반을 조직
- 새 교육관 신축위해 건물 구입
- 광주사태 때 조국을 위한 구국 기도회
- 창립 10주년 기념부흥회 및 장로 장립
- 은혜속에 마친 10주년 기념 음악회
- 유럽 선교지 확장위해 독일 선교사 파송
- 임동선목사 첫 중국 선교 길에 나서
- 임재순사모의 투병, 그리고 눈물의 기도
- 이기홍목사, 창립10년의 성장 원리 발표
-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된 이민목회
- 또다른 10년을 향한 신앙의 새 출발
- 교육목사에 이원희목사 청빙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성가대 새 지휘자와 반주자 임명

당회는 새 성가대 지휘자에 서문욱집사를 임명했다. 서문욱집사는 1979년 3월11일부터 2부 성가대를 지휘했다, 2부 성가대 반주자로는 이길자선생을 임명했다. 서문욱집사는 2부 성가대와 그리고 처음으로 조직된 어린이 성가대를 지휘했다. 어린이 성가대 보조 지휘자로는 박은혜선생, 반주자에 임승혜선생을 임명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서문욱집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고, 선명회 합창단의 음악지도를 맡았다. 한국에서 기독교 성아합창단 창설 지휘자로 있었으며 최우수 작곡 및 음악지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최우수 합창지도상을 2회 수상했고 모두 9차례의 해외연수 여행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부 성가대 반주자 이길자가 사임한후, 당회는 다시 2부 반주자로 이은경, 1부 반주자로 김남형, 1부 성가대 지휘자에 원덕영집사를 임명했다. 성가대 독창자로는 이귀임집사를 임명했다.

1979년 성가대는 대장에 강영구장로, 지휘자 서문욱(2부), 원덕영(1부), 반주 이은경(2부), 김남형(1부), 성가대 총무로는 최상집, 김여근집사가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음악부장은 조웅래장로가 맡았고 성가대는 새 지휘자를 맞아 대원이 늘어나고 은혜스러운 성가대가 되었다.

교육관 건축 위해 온성도가 기도

1979년 9월30일 당회는 기도 중에 4대 목회 방침을 정했다. 첫째는 성전과 교육관 건축을 위해 전교인이 기도에 힘쓰기로 했다. 매주일 출석교인 1,200명~1,500명의 대형 이민교회로 성장하면서 부서별 집회가 더욱 활발해 졌다. 2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목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교사는 더욱 헌신을 다짐한 한 해였다.

1979년은 2세교육 목회를 위해서 교역자와 교사가 더욱 헌신을 다짐한 한해였다

1979년도 4대 목회 방침은

1. 성전 및 교육관 건립
2. 교육의 일원화
3. 구역운영 강화
4. 전도 조직 및 전도 강화였다.

1979년 교역자 및 당회원

▲원로목사: 이천영
▲담임목사: 임동선
▲목사: 이기홍(행정), 송정명(교인관리), 박용장(심방), 이요한(교육)
▲협동목사: 오봉운
▲시무장로: 김용서, 한건수, 한인남, 오해훈, 홍순웅, 이재권, 박계로,
조웅래, 김몽학, 강영구

▲전도사: 이중용(주일학교), 안용식(중 · 고등부)

1979년도 예배시간 안내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저녁 예배: 주일 오후 4시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어린이 주일학교(영아, 유치, 유년, 초등): 1부 주일 오전 9시
2부 주일 오전 11시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학부: 주일 오후 1시 30분
▲장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성가대 연습: 금요일 오후 8시
▲청년회 성경공부 격주 토요일 오후 7시
▲청년회 기도회 모임: 매주 금요일 밤 10시

매주일 공예배를 위해 15개 집회가 모였고 출석교인은 계속 증가 예배때마다 은혜가 가득했다

매주일 공예배를 위해 모두 15개 집회가 모였고, 출석 교인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로 빠른 성장을 했다.

1979년 한 해를 「총동원 선교의 해」로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방전도 모습

1979년 한 해를 「총동원 선교의 해」로 정했다. 첫 집회로 1월28일 2부 예배후 이요한전도사를 강사로 제직들과 일반교인을 위한 전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유년부 주일학교 교사 20여명은 한인 지역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이민생활에 승리자가 되자" 안내문을 한인들에게 배부했다.

2월25일 오후 4시 주일저녁예배 때에는 선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중용전도사는「이런 때에 잡니까」(욘 1:4~12)라는 제목의 설교로 전교인이 동포사회 및 미국사회 전도에 열심히 나서기를 바랐다. 오후에는 교구별 성경퀴즈대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3월에 들어서는 선교 사역세미나를 18일 오후 2시부터 이천영원로목사를 강사로 개최했다.

4월15일 선교부가 주관하는 노방전도를 오후 1시30분~3시30분 실시했다. 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는 할리웃지역으로 나가 전도했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올림픽 지역으로 나가 전도지를 배부했다. 4월29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는 서울 서호교회 이용신목사를 초청,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마 28:16~2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다. 이용신목사는 한국 및 개척교회 선교비 송금을 창립 초창기부터 맡아서 봉사해왔고, 이날 모국 선교교회 보고를 겸한 특별 설교를 했다.

6월 들어서는 24일 주일 오후 4시 선교의 밤 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교회의 성장과 사명」(행 13:1~3)이라는 설교를 했고, 7월2일 주일예배에는 「그리스도인과 전도」(막 16:14~18)라는 제목으로 선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물질, 지식, 과학, 핵무기, 월세계 여행 보다도 오히려 상호 이해, 용서, 안전, 진리, 사랑, 평화, 영생입니다. 이와같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오직 길이요 생명과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그들이 죄와 마귀에서 해방받고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야 하고 농부는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를 해야하며,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신령한 어부요, 장사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포사회의 가정문제, 미국사회의 어두운면, 세계의 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 마음 속에 모셔 들임으로 만이 해결되는 유일의 길임을 재삼 각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월세계 여행보다 오히려 이해, 용서, 안전, 진리,사랑, 평화가 더욱 시급합니다"

1979년 7월22일 창립 9주년 기념 부흥성회 전에 전교인은 부흥회 준비를 위한 노방 전도 및 개인 전도와 기도회를 가졌다. 전도 총력의 해인 1979년에는 각 부서별로 모두 3차례의 노방전도를 나갔고, 고등부 학생들은 9월15일(토) 모국 선교비 모금을 위해서 카 워시를 했다.



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비 모금을 위한 카 워시를 하고 있다

임동선목사 설교 테이프 제작

1979년 9월을 특별히 선교의 달로 정했다. 임동선목사는 9월16일과 23일 그리고 30일 1부, 2부 주일 예배 때에 3주간에 걸쳐서 선교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했다.

▲9월16일 주일예배 설교 「침묵만 할 때인가」 (고전 9:16-27)
▲9월23일 주일예배 설교 「효과적인 현대 전도방법」(요 4:1-19)
▲9월30일 주일예배 설교 「효과적인 개인 전도방법」(눅 15:8-11)

선교부는 처음으로 1979년 11월4일 임동선목사의 설교 녹음 테이프를 선교용으로 제작했다. 선교테이프는 1개당 (60분) 1달러씩 판매했는데 교인들이 선물용으로 구입, 친지들에게 선교용으로 쓰이게 했다. 임동선목사 설교 테이프의 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남의 중요성과 축복」(1979년 8월12일 설교)
2.「심은대로 거두리라」(8월19일 설교)
3.「소원의 항구(The Harbor of Hope)」(9월9일 설교)
4.「효과적인 현대 전도방법」(9월23일 설교)
5.「성찬의 의미와 교훈」(10월7일 설교)
6.「성공적인 이민생활의 요소」(10월28일 설교)

이득애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에 나서도록 기도를 시작했다

선교부는 금기시 되어있던 중국선교를 위한 주일예배를 1979년 12월9일 처음으로 드렸다. 이날 아시아선교센터 이사장을 맡고있는 임동선목사 사회로 진행된 중국선교 특별예배는
▲한태경목사(워싱턴 D.C. 한미봉사센터)…「북간도의 한국인」
▲김의환목사(나성한인교회) … 「내가 본 중국」
▲이득애권사(동양선교교회) … 「중국교회의 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와 현지보고를 했다.

이때부터 선교부는 이득애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선교 및 북한선교에 나서도록 기도를 시작했다. 1979년 12월23일 창립 교역자였던 황재열목사를 일본선교사로 파송했다.

100개 모국 교회에 선교비 지원

선교부는 1979년 모두 100개나 되는 한국 교회를 선교대상 교회로 선정, 선교비를 지원했다. 이때부터 미주 이민교회 중에서 한국의 미자립교회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다. 100개의 피선교 교회는 선교회원들이 공동 지원하는 교회가 40개(A형 교회)이고, 개인이 지원하는 교회(B형 교회)가 38개 교회, 그리고 9주년 기념사업으로 22개 교회를 지원해서 모두 100개가되었다.

교회별 지원 교회 내용

교 파	장 로	성 결	감 리	기 타	계
A	15	15	15	3	40
B	15	15	4	4	38
9주년	9	11	0	2	22
계	39	41	11	9	100

▲ 모국 교회에 보내는 선교비가 새로 결정된 교회 (괄호안은 지원자)

1. 새생명교회(원재수) 2. 기장제일교회(윤종구) 3. 상효교회(문종희)
4. 대금교회(김영제 외2인) 5. 신양교회(백형식) 6. 왈운정교회(임승광)
7. 석산교회(김영수) 8. 상안미교회(윤종구) 9. 웅정교회(김신자)
10. 북제주교회(김인학) 11. 덕안교회(장수영) 12. 휘광교회(백형식, 김인찬)

▲ 앞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교회

1. 구성중앙교회 2. 현도정교회 3. 왕대교회
4. 서생교회 5. 금정교회 6. 죽백교회
7. 산주교회 8. 제일교회

1970년대 한국이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이 도와준 이민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한국선교지를 알리는 큰 게시판이 본당 옆에 붙어 있었다

▲A형 선교회원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지원하는 성도) (1979년 6월 17일자 주보)

김광락, 김치용, 김해룡, 김성심, 김몽학, 김보근, 김진봉, 김용만, 김종성, 김진수, 계춘영, 김재순, 김영재, 김선희, 김인승, 김철승, 김진승, 김지수, 김정자, 김병숙, 김유단, 강금자, 구혜경, 강제봉, Kim Aire Yi, Sloan W. Robert, J.J. Reinhart,김병곤, 문유심, 박화진, 박요섭, 박완순, 박확실, 박영철, 박승일, 백중용, 변광우, 박승원, 백중필, 성희숙, 서문희, 서용광, 심상수, 심순희, 서남호, 이원재, 이경옥, Emanuel Rhee, 이태종, 이호남, 이성호,

이경숙, 이행자, 이득애, 이길자, 이천영, 임승혜, 임동선, 임승향, 원덕영, 원재수, 오정택, 오수남, 온성철, 윤종규, 유병덕, 오길자, 임종칠, 이하우, 오석희, 이동명, 이종심, 임영진, 이종용, 이순영, 이명희, 이향자, 안용식, 안미원, 오해훈, Yoo Johne, David S. Lee, 장세정, 장정애, 전순옥, 정형조, 조동희, 정해선, 정을림, 장정숙, 최상집, 최경자, 최용숙, 최봉순, 천희완, 최성화, 최영희, 최옥환, 허경삼, 홍성호, 황종구, 한인남, 함순화, 한복덕, 홍복현, 한을순, 한병철, 황재룡, 홍순웅, 무명 계 110명

▲B형 선교회원(개인적으로 한 교회를 맡아서 지원하는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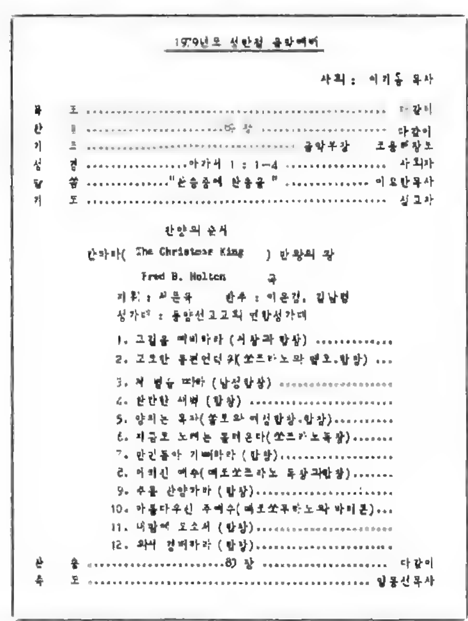
강영구, 김용서, 김중완, 김탁제, 김정연, 김봉한, 김지화, 박용장, 박광원, 배종년, 신윤철, 송정명, 안원삼, 엄창웅, 유문규, 윤주환, 이응선, 이옥엽, 이중용, 이명진, 이재명, 천덕홍, 조웅래, 조병헌, 조갑부, 편애진, 김진광, 조영근, 유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여전도회

성가대, 성탄축하 칸타타 공연

「찬송 중의 찬송을」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전교인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

서문욱집사가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된 후 오랫동안 준비해온 칸타타(The Christmas King)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월16일 주일 오후 4시 성탄축하 예배는 이기홍목사의 사회로 이요한목사가 「찬송 중의 찬송을」(아 1: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성가대원 및 전교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특별찬양 순서로는 칸타타 「만왕의 왕」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탄절 칸타타 찬양 순서


1979년도 성탄절 음악예배

사회 : 이기홍 목사

묵도 .... 다같이
찬송 .... 장 .... 다같이
기도 .... 음악부장 조용■장로
성경 .... 아가서 1 : 1~4 .... 사회자
설교 .... "찬송중의 찬송을" .... 이요한목사
기도 .... 설교자

찬양의 순서

칸타타(The Christmas King) 만왕의 왕

Fred B. Holton 곡

지휘 : 서문욱 반주 : 이은경, 김남형
성가대 : 동양선교교회 연합성가대

1. 그길을 예비하라 (서창과 합창) ....
2. 고요한 [illegible] (소프라노와 [illegible], 합창) ...
3. 저 별을 따라 (남성합창) ....
4. 찬란한 새벽 (합창) ....
5. 양치는 목자(솔로와 여성합창.합창) ....
6. 지금도 노래는 들려온다(소프라노독창) ....
7. 만민들아 기뻐하라 (합창) ....
8. 어리신 예수(메조소프라노 독창과합창) ....
9. 주를 찬양하라 (합창) ....
10. 아름다우신 주예수(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 ...
11. 내맘에 오소서 (합창) ....
12. 와서 경배하라 (합창) ....

찬송 .... 8) 장 .... 다같이
축도 .... 임동선목사

▲연합성가대원 명단

대 장: 강영구, 지휘: 서문욱,
반주: 이은경,김남형
▲테 너: 강영구, 조규철, 정상근, 김복문, 최상집, 김지수, 황규일, 안성국, 이창헌, 박용원
▲베이스: 이성호, 김치용, 박승원, 이호남, 백중용, 조병헌, 정해선, 김영철, 김여근, 강성환, 서웅광

▲소프라노: 최경자, 이귀임, 이문자, 김병숙, 조병희, 오영애, 정성주,
이은희, 함순화, 이성호, 백정미, 안정희, 이영숙, 최근숙, 이경화
▲앨 토: 김재숙, 강은희, 김희숙, 이은주, 안복희, 최명숙, 조지현, 박행자,
김미영, 김선혜, 김금순, 안정욱, 장미혜, 장문자, 이행자

92만달러 건축헌금을 약정하는 기적

교육관 건축을 기도 제목으로 정한뒤 가장 먼저 실천을 한 교인은 대학부 회원들이었다. 대학부 회원들은 교육관 건축을 위해 1978년 7월16일 주일 점심 한끼를 금식하면서 모은 돈을 교육관 건축기금으로 교회에 바쳤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하나의 큰 기적이 창립부흥회때에 일어났다.

"교육하는 교회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는 차보근목사의 설교에 온 성도가 나섰다

당회는 창립 9주년 기념성회를 위해 공주성결교회 차보근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 특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강사인 차보근목사는「신앙 만능」(막 9:23)이라는 설교를 통해 "동양선교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로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이때 전교인들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면서 "내가 나서서 새 교육관을 짓겠다"고 온 성도가 응답하고 나섰다.



차보근목사 초청기념부흥성회, 교육관 건축의 역사가 일어났다

창립 9주년 기념예배 감사헌금을 2만달러로 예상했는데, 차보근목사의 창립기념 특별성회 후 모두 149명의 교인들이 91만7천7백달러의 교육관 건축헌금을 약정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령이 함께 임하고 성전 건축의 축복이 나타났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회때에 92만여 달러의 교육관을 위한 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창립기념 부흥회 때 교육관 건축헌금을 약정한 명단

한병철, 편애진, 신경은, 김정자, 박확실, 이수국, 손복승, 구혜경, 서문희, 김인학, 한복덕, 김혜원, 이경숙, 김인식, 조기용, 송정명, 김몽학, 송성호, 최희원, 김명균, 박승원, 이경화, 황덕성, 박경자, 조상희, 조춘희, 조미양, 오태상, 임동선, 임재순, 김동규, 김창윤, 김신자, 정형조, 이재권, 이성호, 백형권, 김주환, 김진봉, 탁찬효, 탁매자, 유문기, 남상수, 남인경, 최용숙, 김영찬, 이호민, 정한복, 전송택, 전창연, 이중용, 김병곤, 김정주, 주 은, 이홍범, 이대범, 박봉단, 이명애, 이미화, 이승림, 이평재, 이귀임, 정만혁, 김옥례, 이항순, 강금자, 오봉운, 정해선, 이정숙, 박경애, 박효순, 황재룡, 최만삼, 조영근, 조동희, 홍익표, 홍기영, 김지수, 장수영, 심순정, 이성호, 이응선, 황규일, 조은옥, 백현님, 안용식, 안미원, 이경순, 이순영, 한 웅, 홍준건, 임승혜, 임승광, 김정은, 신윤철, 최순덕, 김성심, 김순애, 이경순, 김영수, 김은희, 박용장, 박현숙, 이명구, 배종년, 박은애, 최경자, 이정원, 하애도, 이영진, 염혜경, 장준수, 성희수, 오대호, 안정현, 이호남, 이경희, 장세정, 김병숙, 김보근, 김용서, 최상집, 조규철, 조병현, 박완순, 유혜자, 천덕홍, 김지화, 김옥인, 이희옥, 이순정, 한건수, 원덕영, 해리슨, 박화진, 김춘실, 차명열, 이원열, 김남형, 성인호, 장정애, 오해훈, 변광우, 이옥엽, 이영욱, 문유심, 강영구, 김재권, 장영숙, 박요섭, 장정숙, 황종구, 유문규, 김중완, 김재순, 조응래, 이원열, 김중훈, 김영재, 오철훈, 김금순,

창립 9주년기념 부흥회에서 92만여달러의 교육관 건축 헌금이 약정된 후 당회는 교육관 건축을 결정했다. 각 기관이나 부서 모두는 교육관 건립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이민교회로서 또 한번의 건축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를 드렸다. 1979년 8월12일 김병숙, 유혜자, 김인식, 임승혜, 조영근, 조동희가 교육관 건축헌금으로 1,500달러를 드렸다. 그리고 노수정, 이중용, 홍성환, 전순관, 변광우, 변순자가 추가로 건축헌금을 약정했다.

당회장이 교우에 보낸 감사의 편지

당회장 임동선목사는 교육관 건축 헌금 약정이 92만달러에 이르고 전교인의 관심과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자 1979년 8월19일 당회원과 제직 일반 성도 모두에게 감사와 협조를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여러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창립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79년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더욱 발전하여 장년들도 많이 모이고 어린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자리가 없어서 수용을 못할 실정이 되어 교육관 신축이 급선무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이한 창립9주년 기념성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회에서 있었던 특별헌금에서 교육관을 포함하여 교회당까지 건축할 수 있는 91만 7천7백달러라는 많은 헌금이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성회에 은혜받고 기념예배시 창립감사 헌금으로 2만 달러를 예상하고 넘치게 축복할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되신 차보근목사님께서 설교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 교회 발전을 위한 성전 헌금을 강조하여 헌금을 약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오랫동안 기도드리고 있었던 그 숙원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웅장하게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머지않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당회원과 제직 일동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며 성도 여러분들이 숙원하시던 그 기대에 부응할 뿐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바치신 이 귀중한 헌금을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새 성전을 보다 훌륭하게 건축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번 당회는 교회당 건축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아오니 이 기구 산하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두게되어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맡아보도록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건축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은 초 현대식 구조를 갖춘 아름다운 성전과 교육관 (각급 주일학교, 한글학교, 주중에는 너서리와 유치원)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오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봉사활동과 청사진에 보탬이 될 수있는 훌륭한 의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시어 성전 건축에 기틀을 마련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크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1979년 8월 19일

동 양 선 교 교 회

당 회 장 목사 임동선
건 축 위 원 장 장로 한건수
재정분과위원장 장로 김용서

새 교육관 건립위원회를 구성

1979년 1월 매주일 출석교인은 1,500명에 이를 정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을 했다. 1부와 2부의 주일 대예배 출석은 물론 유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교인이 매주일 늘어났다. 주일 예배 때마다 교육장소가 협소해지자 "좋은 교육을 할 수있는 시설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기도소리가 높아졌다. 매주일 헌금은 평균 5천달러~8천달러에 이르렀고, 당회와 제직회는 교회 근처의 대지나 건물을 단계적으로 구입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79년 6월1일 처음으로 470 N. Western Ave.에 있는 7,946 스퀘어 피트(220평)의 대지를 구입했다. 가격은 8만7천달러였고 구입한 뒤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는 교인들 기도 소리가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당회는 다시 대지 위에 부족한 교육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고, 1979년 7월8일 처음으로 교육관 건축 설계준비를 위해 위원을 임명했다.

▲대지 개발: 박계로장로
▲교육: 이요한전도사
▲재정: 조영근집사
▲관리: 김수문집사
▲주일학교: 안정현집사
▲관리: 김영규집사, 김병곤집사
▲행정: 이기홍목사

1979년 7월15일 교육관 건립위원들을 새로 임명했다.

▲박계로장로, 이요한전도사, 조영근집사, 김수문집사, 안정현집사, 김영규집사, 이기홍목사.

1979년은 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특별했던 한 해로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이 함께 했다. 초대형 수퍼마켓인 랄프 마켓을 새 성전으로 구입, 예배를 드린지 만 4년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새로 구입한 470 N. Western Ave. 대지 위에 교육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당회 및 전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후세를 위해 2세교육을 잘하는 이민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기도에 더욱 힘썼다.

성전건축 6개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당회는 1979년 8월19일 성전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본당 옆 건물을 구입한 뒤 교육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기념부흥성회 후에 성전건축위원회로 새롭게

발전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2세교육을 전담할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건물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8월19일 주일 당회가 발표한 성전건축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임동선, 이천영, 이기홍, 박용장, 송정명, 오봉운, 오태상,
이요한, 이중용, 안용식, 박계로, 한인남, 홍순웅, 이재권, 조웅래, 김병국
▲위원장: 한건수장로
▲부위원장: 오해훈장로, 김몽학장로
- 전문위원
▲재정 분과 - 위원장 김용서장로, 차장 온성철, 회계 조규철,
김광락, 오수남, 온성철, 김재권, 김중완, 김재휘, 황종구, 원덕영
▲기획 분과 - 위원장 강영구장로, 차장 조영근, 총무 조병헌,오철훈, 김광돈,
김동규, 안정현, 김주환, 성기윤, 이원열, 구한모, 김낙제, 김봉한
▲섭외 위원 - 위원장 최만삼집사, 차장 백중용, 이성호, 김명균,
김중훈, 박승원, 김창무, 윤주환, 김영재
▲설계 분과 - 위원장 김수문집사, 차장 김영규,이호남, 김종성, 송태익,
신동성, 안원삼, 김영규
▲건축 분과 - 위원장 김병곤집사, 차장 노수정
김영규, 정상근, 오정택, 이명진, 김복문
▲기도 분과 - 위원장 김병숙권사, 차장 김보근
권사일동, 구역장 및 교인 전체

"2세 교육을 잘하는 이민교회가 되어야한다" 당회원과 전교인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 각 분과 위원
▲재정 분과:
김낙제, 정형조, 최상집, 윤종규, 노재금, 박요섭, 김학준, 강을규,
권옥엽, 김근주, 김명자, 김신애, 김미영, 김재숙, 노영자, 박수자,
배종년, 오영희, 온진환, 원영숙, 조순자, 신수잔, 김현숙, 소니아석,
김광제, 심상수, 두덕기

▲기획 분과:
김성택, 김여근, 박영원, 박재호, 변기영, 이덕우, 이응선, 전송택,
정만혁, 조인식, 한병철, 황덕성, 김탁제, 황재룡, 신동식, 강은희,
강선자, 김금순, 김영애, 김유단, 김정자, 김희숙, 박길복, 박혜옥,
변사숙, 신춘자, 심문정, 안복희, 오상숙, 오순자, 오용애, 윤공순,
이귀임, 이문자, 장경옥, 전창연, 조병희, 최근숙, 함순화, 김옥자,
김성곤, 김영수

▲섭외 분과:
계춘영, 박유재, 박효순, 슬로운, 엄창웅, 유천근, 장은모, 김지화,
정우선, 하윤호, 한상현, 노성찬, 계정자, 김근준, 김옥래, 김정은,

김생경, 김혜숙, 성인호, 슬로운복희, 염실근, 원재향, 장정애, 정인규, 천정숙, 최경자, 최순덕, 탁매자, 한복덕, 한정현, 황승란, 황미자, 손복승, 황영숙, 박정자,스티브임

▲설계 분과:
김용목, 남상수, 박광원, 원주연, 이만열, 임승광, 장건섭, 장수영, 전순관, 조상희, 탁찬효, 홍익표, 이근무, 김영철, 김남형, 김인순, 김정옥, 김정주, 박영순, 박정혜, 송문순, 염혜경, 이길자, 이성호, 이영순, 장순이, 정을림, 조동희, 최명숙, 하순희, 김영숙, 김용만, 김치용, 백동명, 서웅광, 원석복

▲건축 분과:
강춘식, 김 강, 김중훈, 백경준, 변광우, 신윤철, 김익환, 박형건, 원재수,유문규, 이성모, 이인근, 이정준, 천덕홍, 이석현, 정해선, 황성환, 김옥인, 김정자, 변순자, 신무희, 유순임, 윤혜식, 이영숙, 이원재, 임경희, 정중수, 정혜화, 최경남, 원용숙, 편애진, 헬렌켈리, 홍기영, 황관오, 김의자, 김정연, 박갑성, 서대선, 이고명

기도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새 교육관 건립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기도 분과:
박경자, 하애도, 강봉순, 김재순, 이옥엽, 강금자, 김덕숙, 김성심, 김효수, 문유심, 박완순, 오순명, 원준옥, 이득애, 조옥녀, 한귀순, 이옥조, 이안재, 박성열, 박영애, 김영자, 김매실, 박채련, 구혜경, 김옥태, 김정애, 박화진, 박확실, 윤자혜, 이경옥, 이순정, 이정숙, 이창순, 이희옥, 장세정, 천희완, 한을순, 김순애, 김예환, 문종희

특별히 성전건축위원회 안에 기도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 김병숙권사, 차장 김보근 권사 그리고 권사일동과 구역장 및 교인들이 밤낮으로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성전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 계획을 세우고 참여를 했다. 하루에 한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정하고, 기도 계획표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운동이 온 성도 사이에 뜨겁게 일어났다.

여전도회는 9월22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교회신축 기금마련을 위한 가을철 바자회를 가졌다. 이날 바자회는 교인들이 기쁨으로 기탁한 의류, 화초, 장식품, 가구, 식사 등을 팔아서 모두 3,002달러 28센트를 건축헌금으로 입금을 했다.

건축위원회는 11월18일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지를 돌렸는데 모두가 찬성의 뜻을 표했다. 교회는 전교인의 뜻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새 교육관 신축을 추진했다. 창립 9주년 기념부흥회 후 1979년 연말까지 6개월간 모두 2만9천244달러 93센트가 건축헌금으로 헌금되었다.

1979년도 건축헌금 내용

날 자	건축헌금	날 자	건축헌금
8월 19일	370.00	10월 28일	320.00(6명)
8월 26일	430.00	11월 4일	920.00(9명)
9월 2일	1,820.00	11월 11일	1,490.00(13명)
9월 9일	1,480.00	11월 18일	534.00(9명)
9월 16일	1,325.00	11월 25일	1,620.00(6명)
9월 23일	2,935.00	12월 2일	300.00(8명)
9월 30일	2,035.00	12월 9일	570.00(9명)
10월 7일	4,572.28	12월 16일	360.00(8명)
10월 14일	4,480.00(14명)	12월 23일	2,968.50(13명)
10월 21일	785.00(10명)	12월 30일	360.00(8명)

매주 출석교인 2,000명의 대형교회로

매주일 새 등록자는 15명을 넘어섰고 교회는 연말에 전도왕을 선정했다

1979년은 동양선교교회가 남가주지역 이민교회로서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른 해이다. 창립 초기부터 헌신적인 임동선담임목사의 설교 그리고 새 교인을 위한 상담과 어려운 동포돕기는 한인사회에 좋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임동선목사의 주일설교는 희망과 의지, 노력의 메시지로 알려졌고,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은 이민사회에서 언제나 선구적이었다.



출석교인이 날로 늘어나면서 주차장은 항상 가득찼다

연 3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새 이민자들이 미국에 계속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한인교회였고, 그중에서도 동양선교교회는 새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등록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 1979년에는 매주일 평균 10명의 새 교인들이 늘어났고, 한주간 출석교인수는 1,300명을 넘어섰다. 1979년 1월부터 "성전을 채우자"는 목회방침에 따라 새 교인을 위한 전도에 온 성도가 열심히 나섰다.

창립 9주년 행사의 하나로 새 신자를 많이 인도한 교인에게 전도상을 시상했다. 제직으로는 오수남장로가 5명을, 평신도로는 이근무집사가 10명을 인도해서 전도상을 받았다. 교회는 3개월에 한번씩 새 교인을 위한 신임반을 설치하고 이천영목사가 특별히 성경지도를 맡았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매주일 새 등록자수는 15명선을 넘어섰다. 당회는 1부, 2부예배에 출석하는 장년수가 1천명을 넘을 수 있도록 전교인들이 전도에 더욱 나서줄 것을 바랐다.

1980년 3월29일 토요일, 3월까지 등록한 새 신자를 위한 환영예배를 드렸다. 6월30일과 8월30일 새 교인을 위한 환영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꼭 임동선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맡았다. 전교인들은 계속해서 배가운동에 힘썼고 장년 출석교인이 10월12일부터는 1천명을 넘어서면서 출석 교인이 2천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창립10주년 행사 기간중인 1980년 7월13일 한 주간 출석교인이 2,050명이나 되었고, 7월20일에는 2,092명, 7월27일에는 2,303명, 8월3일에는 2,745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이민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 당회는 1980년 12월28일 연말 전도왕으로 선정된 백형권집사와 김보근권사에게 시상을 했다.

1980년 전체 출석교인과 새 등록 신자

날 자	새 교인수	출석교인수	날 자	새 교인수	출석교인수
1월 6일	5		7월 6일	9	1,976
1월 13일	9	1,311	7월 13일	7	2,050
1월 20일	11	1,296	7월 20일	3	2,092
1월 27일	5	1,296	7월 27일	1	2,303
2월 3일	9	1,380	8월 3일	8	2,745
2월 10일	9	1,356	8월 10일	12	1,935
2월 17일	5	1,411	8월 17일	3	1,736
2월 24일	8	1,380	8월 24일	4	1,888
3월 2일	10	1,361	8월 31일	9	1,831
3월 9일	11	1,452	9월 7일	4	1,861
3월 16일	12	1,425	9월 14일		1,855
3월 23일	8	1,408	9월 21일		2,032
3월 30일	8	1,403	9월 28일	5	2,501
4월 6일	9	1,329	10월 5일	5	1,921
4월 13일	11	1,513	10월 12일	6	2,093
4월 20일	7	1,345	10월 29일	11	2,330
4월 27일	9	1,403	10월 26일		2,119
5월 4일	13	1,385	11월 2일	4	1,980
5월 11일	10	1432	11월 9일	6	2022
5월 18일	10	1418	11월 16일	6	2038
5월 25일		938	11월 23일	5	2064
6월 1일		1287	11월 30일	13	2240
6월 8일	10	1373	12월 7일	7	2096
6월 15일	10	1914	12월 14일	6	2158
6월 22일	10	2099	12월 21일	7	2027
6월 29일	5	1976	12월 28일	11	2801

1980년을 「전교인 성경 읽기의 해」로

창립 10주년이 되는 1980년 한해를 「전교인 성경 읽기의 해」로 정했다. 새해 첫주일인 1월 7일부터 주보와 함께 성경읽기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일주일간 집에서 공부한 후 성경 구절 용지를 교회 안내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목표는 전교인이 금년 중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다 읽도록 했다. 특별히 장년부는 매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예배당에서 성경공부 교실을 나이별로 나누어 공부했고 성경공부 열기가 다른 어느때 보다도 뜨거웠다.

1980년 나이별 성경교실과 지도교사 명단
▲30세미만 : 안미원전도사
▲31세~35세 : 이중용전도사
▲36세~40세 : 오해훈장로
▲41세~45세 : 김몽학장로
▲46세~55세 : 오봉운목사
▲56세~60세 : 홍순웅장로
▲60세 이상 : 박용장목사
▲노인반 : 이천영목사

창립10주년을 맞아 신 구약 성경을 한번씩 다 읽도록 했고 전교인들은 성경공부에 참으로 열심이었다

전교인이 바쁜 이민생활 중에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보에 「기도생활 안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그리고 매일 한번씩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될 것을 기원했다.

1980년 철야기도회 및 인도자

월 일	기 관 명	인도자
1월 25일	제 직 회	임동선 목사
2월 29일	각급 주일학교 교사	이요한 목사
3월 28일	모세 남전도회	오봉운 목사
4월 25일	한나 여전도회	이기홍 목사
5월 30일	에스터 여전도회	송정명 목사
6월 27일	여호수아 남전도회	이기홍 목사
7월 25일	청 년 회	송정명 목사
8월 29일	나사렛 청년회	송정명 목사
9월 26일	성 가 대	이천영 목사
10월 31일	대 학 부	이요한 목사
11월 28일	간호원회	이요한 목사
12월 26일	구 역 회	송정명 목사

1980년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임명

당회는 1980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임명했다. 1월7일 모두 1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고, 신임 안수집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과 봉사를 서약했다.

김중완, 김광락, 이성호, 김광돈, 성기윤, 노수정, 조영근, 온성철, 조규철,
안정현, 김여근, 김명균, 김수문, 김동규, 원덕영, 황종구, 최만삼

이날 임명된 안수집사는 후에 장로로 장립되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1980년 임명된 안수집사의 근황은 다음과 같다.

▲김중완장로: 미주성산교회
▲김광락장로: 동양선교교회, 소천
▲김광돈장로:동양선교교회
▲이성호장로: 미주성산교회
▲성기윤장로: 동양선교교회, 원로장로
▲노수정장로: 동양선교교회
▲조영근목사: 동양선교교회, 극동방송 미주지사장
▲온성철장로: 임마누엘 선교교회
▲조규철장로: 동양선교교회
▲안정현장로: 미주성산교회
▲김여근장로: 동양선교교회, 소천
▲김명균장로: 미주성산교회
▲김동규장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원덕영목사: 성가대지휘, 전도사때 떠남
▲황종구장로: 미주성산교회
▲최만삼장로: 동양선교교회, 소천

처음으로 임명된 안수집사, 헌신적인 봉사와 신앙생활로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1980년도 1월 공동총회에서 임명된 장로, 권사

▲피택 장로: 오수남, 김병곤, 오철훈, 김재권
▲신임권사: 구혜경, 이항순, 최경자
▲제직회 부서

1. 교육부: 부장 박계로, 차장 성기윤
2. 총무부: 부장 김몽학, 차장 김명균
3. 재정부: 부장 조웅래, 차장 김중완, 회계 김재권, 부회계 김낙제
4. 관리부: 부장 홍순웅, 차장 조규철
   차량위원회 - 위원장 노수정, 부위원장 백중용
5. 선교부: 부장 이재권, 차장 황종구
   방송문서 선교분과위원회 - 위원장 한건수, 부위원장 온성철
6. 음악부: 부장 강영구, 차장 최만삼

7. 기획발전부: 부장 오해훈, 차장 조영근
8. 친교봉사부: 부장 김용서, 차장 오수남
   경조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재휘, 부위원장 김창무
   체육분과위원회 - 위원장 남상수, 부위원장 엄창웅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부장: 안정현)
중등부 (부장: 김동규)
고등부 (부장: 이원열)
대학부 (부장: 김광락)
청년부 (부장: 최만삼)
장년부 (부장: 박계로)
한글학교 (부장: 손복승)

"유년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특별한 은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1980년도 예배 및 집회 안내

날자	종류	시간	장소
주일예배	장년 I부	오전 9:00	본 당
	장년 II부	오전 11:00	
	주일저녁	오후 4:00	본 당
	어린이	오전 10:45	교육관
	중등부	오전 10:30	교육관
	고등부	오전 10:30	교육관
기도회	장년금요	오후 7:00	본 당
	새 벽	오전 5:30(매일)	본 당
	구 역	수 시	각 구역 가정

날자	종류	시간	장소
성경공부	장년 성경공부	오전 10:00(일)	본 당
	장년 성경공부	오전 10:00(일)	본 당
	주교사	오후 7:00(금)	교육관
	성가대	오후 8:00(금)	본 당
	대학부	오전 10:30(일)	대학부실
장기회의	당회	매월 끝 주일	당회장실
	직원회	매월 첫 주일	본 당
	구역장	매월 첫 주일	본 당
	여전도회	I 매월 3주	본 당
	월례회	II 매월 4주	
	남전도회	I 매월 2주	본 당
	월례회	II 매월 3주	

유년주일학교 교육으로 이룸난 교회

1975년 교육담당 전도사로 임명된 이중용전도사는 1980년 2월26일 한국기독교 미주성결교회 창립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중용전도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오던 목사안수를 받고, 주일학교 및 중등부 담당목회자로 더욱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중용목사는 "동양선교교회가 이민사회에서 크게 성장하는데는 무엇 보다도 유년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믿고, 주일학교 교육 및 발전에 특별한 은사를 가



새 유년부학생들을 위한 환영예배

지고 큰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다.

1978년 2월부터 대학부를 지도해오던 이요한목사는 1980년 10월12일 시카고 한인복음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위해 본교회를 떠났다. 3년간 이요한목사는 UCLA와 LACC Pierce College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Bible Class를 통해서 한인 이민 대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며 신앙을 통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헌신적 사역을 담당했다. 이요한목사는 대학생 부흥회인 「Come and See」를 통해서 남가주지역 한인대학생들의 부흥회를 처음으로 성공시켰고 해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주최했다. 1970년대 이중용목사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이요한목사는 대학생 캠퍼스복음화를 위해 교육사역의 직분을 잘 수행한 목회자들이었다.

남가주 한국학원에 건축기금 기탁

해마다 성탄계절에는 멕시코 고아원을 찾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

본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모국선교와 남가주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및 이웃돕기를 기쁨으로 맡아왔다. 한국에서 수재가 발생할 때마다 온 성도는 특별헌금을 했고 이를 모국으로 보냈다. 또한 지진피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교인이 나서서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펴왔다. 1979년 8월 한국 수재민을 위해 특별헌금을 했고 수재의연금 1,370달러 17센트를 모아서 모국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1980년 4월20일 남가주 한국학원 건축기금으로 1,000달러를 기탁했다. 그후 임동선목사는 5천달러를 남가주 한국학원 건축기금으로 기탁했다. 당시에는 거금이었는데 임동선목사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2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낼 수 있었다.

또한 윌셔 한인YMCA에서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 난민구호 사업을 위해 1,000달러를 보내는 등 어려운 사람의 고통에 항상 동참해 왔고 기도를 드렸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캄보디아 난민을 위해 모금한 418달러 87센트를 선명회 국제본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등 온 성도가 사회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해마다 성탄 계절에는 멕시코 고아원 돕기를 위해 구호품을 모집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한인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1978년 12월30일 선교부는 멕시코 고아원을 방문, 학용품과 캔디, 의류 등을 선물했다. 그리고 1979년 12월30일에도 티화나 지역의 선교

위문을 위해서 모두 56명의 교인들이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고 왔다. 멕시코 고아원은 감사 편지와 함께 코리언 이민교회로서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렸다.

동시 통역시설을 신임권사들이 기증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이 언어의 불편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1979년 9월16일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 장비시설을 갖추었다. 모두 32석의 좌석을 본당 앞 오른쪽에 정해놓고, 이 좌석에는 한국어 설교를 동시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설교 동시 통역 시설은 1979년 7월 권사로 취임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교회에 기증했다. 이때부터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미국인들은 언어의 불편없이 주일예배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출석교인이 늘어났다. 동시 설교 통역은 오봉운목사, 한건수장로, 오해훈장로 등이 봉사를 했다.

처음으로 특수반을 조직

정신지체아나 신체 부자유 자녀들이 주일예배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는 특수반을 조직하고, 매주일 교육 전문가들이 이들을 헌신적으로 신앙을 가르쳤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창립10주년을 맞은 1980년 4월 20일 한인 이민교회로서 가장 먼저 특수반을 설치하도록 했고, 이민 자녀들을 위해 신앙과 정신, 그리고 건강교육을 잘해나가도록 늘 관심을 보였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특수반 부장 성인호집사는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신박약아를 위해 종교교육을 맡았다. 10여명의 정신지체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 신앙이 날로 건강해졌다.

새 교육관 신축위해 건물 구입

당회는 창립10주년인 1980년을 맞아 성전 건축 계획으로 교회 옆 가구점 건물(444 N. Western Ave)을 구입했다. 총 1만 4천 스퀘어피트 건물을 38만 9천달러로 구입하기로 정하고 1월13일 다운페이로 11만2,955달러를 지불했다. 2세교육을 위한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뒤, 4월초부터 교육부 각 기관이 이전했다. 교회는 새로 구입한 건물 이외에도 인근지역 대지를 계속해서 구입한 후 아름다운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모금을 계속해 나갔다.

1월27일 한나 여전도회는 처음으로 성전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김치를 판매했고, 청년회 등 다른 부서 및 기관들이 대지 구입을 위해 계속해서 헌금을 했다. 전교인은 1980년 6월 한달 동안 새로 구입한 교육관 시설 및 비품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했는데 모두 11, 590달러나 되었다.

임동선담임목사와 전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계획은 더욱 빨리 추진되었다.

광주사태 때 조국을 위한 구국 기도회

1980년 5월은 미주이민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달이었다. 5월18일 광주의 민주화 시위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을 본 남가주 지역 동포들과 성도들은 충격속에 눈물로 떠나온 조국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본교회 온 성도는 이러한 비극적인 고국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속히 조국에 민주화의 꽃이 피고 지도자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980년 5월30일 전교인은 나라를 위한 철야기도회 특별순서를 가졌다. 모두 17개의 기도제목을 정하고 모든 성도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1980년 5월18일 비극적인 광주소식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고 민주화가 꽃 피우기를 온 성도는 바랬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된 광주민주화항쟁운동 기도제목과 기도를 드린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김병숙권사, 박계로장로)
2. 조국의 민주회복을 위하여 (홍순웅장로, 안용식전도사)
3. 불행당한 광주시민을 위하여 (오해훈장로, 이옥엽권사)
4. 조국의 정치지도자를 위하여 (함정희전도사, 신무희집사)
5. 한국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강선자집사, 백형권집사)
6. 조국의 남북통일을 위하여 (김보근권사)
7. 동양선교교회 10주년 행사를 위하여 (강금자권사)
8. 한국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한병철집사)
9. 세계선교를 위하여 (임동선목사)

1980년 6월1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목사회, 남가주장로회, 남가주여전도연합회, 남가주기독청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가진 이날 구국기도회에서 임동선목사는 조국을 위한 「간곡한 기도」(느 1: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라를 걱정하는 미주 성도들이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조국을 위한 기도순서는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독 청년연합회 총무 김향주씨가, 「정치지도자를 위하여」는 조병훈집사, 「교회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는 성종현이 눈물로서 기도를 드렸다.

광주사태 때 본 교회는 다른 이민교회 보다 먼저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한국과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단을 쌓아갔으며 임동선목사는 며칠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항상 간결하고 능력있는 기도일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기홍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 원로목사)

"기도의 사람이 임동선목사이다.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하시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성장은 목사님의 기도의 힘이다. 깊은 기도가 영력있는 설교를 하실 수 있으며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원동력이다.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간결하고 능력있는 기도이며 기도의 응답은 여러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도의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기도로 해결한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의 앞장을 목사님이 하시기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동양선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24시간 선교중보의 기도는 세계 각지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고 있다. 교회가 어려울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임동선목사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

창립 10주년 기념부흥회 및 장로 장립



창립10주년 기념부흥회를 이성헌목사를 초청해서 가졌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양선교교회는 출석교인이 1,500명이 넘는 미주 이민사회안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성장했다. 지난 10년동안 모두 100여개 한국 농어촌교회를 지원했고 남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세계 선교지역을 더욱 넓혀나갔다.

1980년 2월3일 교회 창립 1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몽학장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기홍, 오해훈, 이재권, 강영구, 조웅래, 김광돈, 성기윤, 오순명, 조규철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창립1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창립10주년 기념부흥성회를 1980년 7월22일~26일 대구 서문교회 이성헌목사를 초청해서 갖는다.
2. 교회창립 10주년기념 대예배를 7월27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린다.
3. 장로장립,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식 예배를 7월27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4. 교회성장 세미나를 10월14일~23일 국내외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서 개최한다.
5.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11월8일 오후 7시 30분 LA 스카티시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한다.

1980년 7월27일 전교인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창립1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지난 10년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렸다. 창립 기념예배에서 이성헌목사(대구 서문교회)는 「나 세상 떠날때 무엇 남기고 갈까?」(눅 12:16~21)라는 제목으로 창립 설교를 해서 전교인이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김몽학장로는 「선교의 발자취 10년」이라는 보고를 했고,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으로 세워진 동양선교교회의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에 앞서 7월 22일~26일 이성헌목사는 창립기념 새벽기도회와 낮 사경회, 저녁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민사회의 신앙의 큰 길"을 가고 있는 동양선교교회와 임동선목사,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설교를 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새 임직자의 서약

「나 세상 떠날 때 무엇 남기고 갈까?」

(눅 12:16~21) 이성헌목사

"우리 한 평생 다살고 가는 날, 뜻하거나 안하거나 무엇인가 후대에 남는다. 조심스럽게 살면 좋은 것이 남고, 무관심하고 욕심으로 살면 좋지못한 자취가 남을 뿐이다. 우리 좋은 것 남기도록 조심하며 살자. 동양선교교회 교인 모두는

1. 전도하고 가자.
   천하를 주고 바꿀수 없는 최대의 사업이다.
2. 돈 잘쓰고 가자.
   신앙적으로 벌고, 모으고 잘 쓰자. 그 흔적이 후대에 아름답게 남도록
3. 일하고 가자.
   주의 사랑 실천하는 건설이나 개발이나 복리사업, 선교사 리빙스톤 같이
4. 믿음의 감화 남기고 가자.
   우리 후대의 빛과 소금 같이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사상 속에서나 믿음의 감화 남기자.
5.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내 맡은 일에 최선 다하고 가자.

앞서가신 분들이 남기고 가신 은택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남겨 후대에 물려 줄까? 좋고 귀한 것 남기고 가는 축복받는 동양선교교회 교인이 모두 되자."

하오 2시30분 창립 10주년 기념 장로장립, 집사안수 및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장로 장립: 김병곤, 김재권, 오수남, 오철훈

▲안수집사 취임: 김광돈, 김동규, 김명균, 김수문, 김여근,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안정현, 원덕영, 온성철, 이성호, 조규철, 조영근, 최만삼, 황종구

▲권사취임: 구혜경, 이항순, 최경자

창립 10주년 임직예배에서 새 임직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라는 말씀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하신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전교인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목자로 하여금 신령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지원하고","교회를 충성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는 답사를 했다. 10주년 기념예배와 장로 및 권사 안수집사 취임식 후에는 전교인이 한자리에서 사랑의 음식을 나누며 임동선목사의 헌신, 이민사회 안에서 신앙의 큰 보금자리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10년이었다.

새 이민교회로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한 동양선교교회의 성장요인을 발표했다

창립 10주년 기념 제1회 교회 성장 세미나

1980년 8월24일 교회성장 세미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몽학장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각 교단 대표 및 미주지역, 홍콩지역 목회자의 초청과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 등을 기도로 준비했다.



창립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의 한인목회자들

창립 10주년을 맞아 1980년 10월15일~23일 본당에서 제1회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및 미주 목회자 36명을 초청해서 가진 세미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9시~오후 8시30분 강의 및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회 교회성장 세미나에서 임동선목사는 이민교회로서 동양선교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선교역사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동양선교교회가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이민교회로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3일간 발표했다. 한국과 미주지역 교계 지도자들은 세미나 후에는 견학 및 관광에 나섰는데 전교인들이 민박 및 간식을 제공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

제1회 창립10주년기념 교회성장 세미나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홍콩에서 참석한 목회자의 명단이다.

▲기성: 김해문목사(서울 서대문),
김건태목사 (서울 문화촌),
김동주목사 (대전 상성),
서정식목사(서대전),

최병권목사(서울 신림), 배기상목사 (인천 화수동), 손상기목사(경주 중부),
윤상현목사(서울 혜성)

▲예장: 조응봉목사(서울 마장동), 이준호목사(서울 혜성), 전동운목사(영동 제일),
이근식목사(서울 연신), 민정웅목사(양주군 독바위), 전용만목사(화양 성신)

▲기감: 김형진목사(포항 제일), 강문호목사(서울 혜성), 정대식목사(서울 미아),
김형기목사(교회연합신보)

▲예성: 진동일목사(서울 성운)

▲기감: 김교상목사(덕소)

▲복음: 이승제목사(남천 중앙)

▲한국 연합: 박중섭목사(서울 성운)

▲침례: 김종윤목사(서울 은성)

▲미주: 한진관목사(뉴욕 퀸즈), 성윤경목사(워싱톤), 김익환목사(LA 포모나),
오영식목사(LA 시온), 차현회목사(시카고 연합), 김권석목사(뉴욕 한성),
박용장목사(한인연합)

▲홍콩: 홍종만목사

교회성장 세미나에 온 민정웅목사와 김건태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구역예배를 잘하고 있는지" 실례를 1980년 10월17일 주일 오후 4시 예배 때에 발표를 했다.

은혜속에 마친 10주년 기념 음악회



서문욱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가 「전능의 왕 다 찬양하여라」를 부르고 있다

창립10주년 기념 축하 행사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념 음악회를 1980년 11월8일(토요일) 오후 7시30분 스카티시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음악회는 1부, 2부 성가대와 필그림합창단, 이귀임집사 독창, 남성 4중창단, 이정숙 독창, 이은경, 김남형, 강혜영의 오르간 및 피아노 독주 등 순서로 큰 갈채를 받았다. 이날 서문욱집사가 지휘하는 성가대는 「전능의 왕 다 찬양하여라」라는 곡을 시작으로 2시간에 걸친 특별 찬양과 독창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본교회 교인과 남가주 교계, 일반인 등 모두 2,000명이 참석, 한곡 한곡마다 큰 박수 갈채를 보냈다.

새 이민교회로서 대규모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한인교계는 크게 평가를 했다.

「전능의 왕 다 찬양하여라」 한곡 한곡에 박수 갈채를 보냈다 2천명에 큰 은혜가 된 10주년 기념 음악회

창립 10주년 음악회 순서

2) 하늘에계신 아버지 ············Traditional

3) 주를 찬양 하겠네 ················D. Ramb

8. 합 창 (필그림 합창단)

1) 예수를 나의 구주로 ············ F. Knapp

2) 외로운 주시네 ··············I. Woodbury

3) 내영혼에 하늘영광 흘러 넘치네 ············ ················ J. W. Peterson

9. 피아노 독주 (강 혜 영) : Deux Arabesque (Par le Piano ············ C. Debussy

10. 합 창 (필그림 합창단)

[illegible]

11. 메조 소프라노 독창 : 이정숙

1) 님이 오시는지 ···················· 김 규 환 곡

2) 별의 노래 ························김 성 태 곡

3) 언덕에서 ························김 원 호 곡

12. 합 창 (성 가 대)

1) 신고산 타령 (한국 민요) ······서문욱 편곡

2) 고향의 봄 (홍난파 곡) ········윤학원 편곡

3) 가 고 파 (김동진 곡) ········김규환 편곡

13. 합 창 (성 가 대)

1) 감독선 주님 ··············C. F. Muoller

2) 평화의 왕 ················ E. Titcomb

고 회 뉴 - 스

1. 10주년 기념 음악회

1) 일 시 : 1980. 11. 8(토) 오후 7 : 30

2) 장 소 : L.A Scottish Rite Auditorium (4357 Wilshire Blvd.)

3) 음악회 순서 : 본교회 성가대 (15 곡) 필그림 합창단(6곡) 이귀임집사 독창 (3곡) 본교회 4중창단 (3곡) 이정숙 독창 Organ,Piano 독주 (이은경, 김남형)

4) 티켓은 지난주에 분배하여 드렸는 데 예배후에 현관에 있는 함에 그 금액을 Donation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못받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이웃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1) [illegible] : 예배후 본당에

지난주 조원옥 장로님 (서울 [illegible] 원장,성민교회 장로) 께서 간증 설교를 하여 주셨습니다.

2. 학생 부흥회 (Come and See

1) 일 시 : 1980.11.13 (수) - 15 (토)

2) 장 소 : 본 교 회

3) 시 간 : 새벽 5 : 30 저녁 7 : 30 (장년) (대학생)

4) 강 사 : 김석규 목사 (산호세제일교회 담임)

5) 믿음으로 살자 (롬 1 : 17)

5. 대학부에서 성탄 카 - 드를 신청받고 있아오니, 대학부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송정명 목사님은 쎄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인솔하고 성지 순례에 떠났읍니다.(11.1 - 11)

10개년 교회 부흥발전 계획 수립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976년 10월10일 교회 매스터플랜위원회를 처음으로 조직했다. 매스터플랜위원회는 앞으로 10년, 20년후 동양선교교회의 미래상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동양선교교회 10개년 부흥 발전 계획서>

1980 년 7월 27일

사업명	목적	규모	예산	부서
1. 성전 건축과 용지 확보	1. 교회 발전에 필요 2. 신자증원	1,500명 수용		건축위원회
2. 교인증가운동	목표: 재적 장년 3,000명 1차 (80-82) - 1,500명 2차 (83-85) - 2,000명 3차 (86-88) - 2,500명 4차 (89-90) - 3,000명	1. 평신도 훈련 2. 각기관 총동원	일반선교비 및 인반 교육비	선교부 교육부
3. 수양관 건립	1. 영적 성장과 신앙훈련 2. 공동생활과 친교	250명 수용	대지: $150,000 시설: $450,000	교육부 선교부
4. 모국 교회선교	미 개척 지역과 미자립교회 지원	100교회	월 $4,000	선교부 재정부
5. 해외 선교	세계선교활동	선교사 파송 및 해당 나라의 전도사 선임	선교비	선교부
6. 학원 선교	학생들에게 전도	전도사파송 (대학 3인, 중,고등3인)	$10,000 X 5 = $50,000	선교부 재정부
7. 성직자 후생 복지	성지자들의 생활안정으로 영적 수행에 협조	사례금의 기준화 및 복지 후생의 현실화		총무부 재정부
8. 교회학교 발전	대학부 - 500명 고등부 - 500명 중등부 - 500명 유년부 - 1,500명	교사훈련, 교육시설 확보, 교육교재완비 다양한 순서	교육비	교육부
9. 생활지도	이민자의 생활 및 신앙선도	생활 상담 정보제공 직업 알선	일반예산	생활지도부
10. 교회음악발전	음악선교 교회음악 성장 성가대원 양성, 교회음악교육 교회음악 시설	교회음악학교 운영 청소년 합창단 교회 오케스트라단 교회 Pipe Organ, Bell Choir	(년간)$7,200 $7,200 $15,000 $50,000 $20,000	음악부
11. 이중언어 예배	한국적인 미국교회 방향 2세를 위한 신앙 인도 2세를 위한 선교 활동	영어교사 확보 2세를 위한 교육 순서		교육부
12. 도서관 설치	1. 성서적, 신학적 훈련 2. 여가선용 3. 일반지식 획득	내부시설 및 도서확보		교육부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스터 플랜을 수립 또다른 10년을 준비해 나갔다

발전 계획을 연구 조사해 나가기로했다. 김병곤 매스터플랜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흥발전 계획을 세워나갔다. 당회는 매스터플랜위원회를 정식 교회기구로 결정하고 기획발전부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로 부터 미래의 발전 계획을 연구해 나갔다. 기획발전부는 한건수장로를 부장으로, 차장에 오수남, 김병곤, 부원에 박계로, 전순관, 오철훈, 김정은, 최만삼, 박광원, 김주훈, 한병철을 선임했다.

창립10주년 기념예배날인 1980년 7월27일 기획발전부는 제20주년을 향한 우리교회의 여러사업이라는 부제가 달린 10개년 부흥발전 계획서를 발표했다.

수양관을 구입하고 도서관 설치한다 그리고 선교대학 설립을 새 목표로 정했다

<앞으로 10년후를 향한 신규사업>

사업명	목적	규모	예산	부서
1. 자매교회 개척	1. 영혼 구원 2. 선교 정책의 일원	1년에 1개 교회 전도자에게 선교비 지급	년간 $12,000	선교부
2. 장학제도	1. 봉사활동 2. 지도사 양성 3. 수학지원	본 교회 및 교포사회에서 선임		교육부
3. 탁아소 운영	1. 유아보고 2. 유아의 신앙지도	100명 (교육관 활용)	특별회계	특별
4. 차량 확보	1. 신자 운송 2. 행사동원	대형버스 3대 소형버스 5대	특별 모금	친교봉사부
5. 일반정규학교	1. 이민자들의 뿌리교육 2. 신앙교육	1차: 계획 2차: 유치원, 국민교 3차: 중학교 4차: 고등학교	특별기부금	교육부
6. 청소년 회관	1. 여가선용 2. 선교 3. 친교	250명	특별예산	선교부
7. 노인아파트 건립	1. 연로자들의 교회 출석에 도움 2. 적극적인 교회 참여 3. 친교와 배움의 기회	2년바다 10세대씩 증가	특별헌금	건축위원회
8. 선교대학 (교하, 평신도 및 교역자 양성)	1. 평신도의 성서교육 2. 교회학교 교사의 양성과 훈련 3. 선교사 특별 양성 4. 전도사 및 교회 지도자 양성	1. 각 과별로 교육 2. 교수확보	특별기금 교회보조금으로 운영	교육부

유럽 선교지 확장위해 독일 선교사 파송


서독 첫 선교사로 파송된 석태운목사(앞줄 왼쪽에서 2번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당회는 1차적으로 1980년도에 2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지역에는 황재열목사를 1979년 12월말에 파송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의 선교 전초지가 될 서독에는 석태운목사를 파송했다. 새 이민교회로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이다.

석태운목사를 첫 서독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 선교부에서 사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선교부는 1980년 6월22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때 석태운 독일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행 16:6~10)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석태운 독일선교사는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위해 6월27일 가족과 함께 출발을 했고 선교부는 독일교회를 위하여 타자기 2대를 선물로 전했다. 온 교우들의 뜨거운 환송과 기도속에 석태운목사는 무사히 임지에 도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활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첫 소식을 전해왔다.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는 그동안 미육군 군목으로 서독에 복무하고 있던 이정일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떠난 후 본교회가 석태운목사를 첫 서독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임동선담임목사가 석태운목사 서독선교사 파송예배 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

이민교회로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 서독에 석태운목사 그리고 일본에는 황재열목사였다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행 16:6~10)

"오늘은 우리교회가 처음으로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입니다. 이는 LA 250여 교회 중에 처음있는 일이요, 또 미국 한인교회 70년역사에 처음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스럽고 귀하고, 또 큰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 한국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역사
2. 한국 선교사의 외국 파송 역사
3. 독일 선교지의 현황
   ① 가게된 동기 ② 현지현황
4. 초대 선교사의 사명과 각오
   ① 대상: 간호원, 한국계 미군 가족, 국제결혼 가정, 유학생, 재독 한인동포, 광부
   ② 각오: 눈물, 겸손, 사망, 열심, 희생
5.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의 책임
   ① 매일 한번씩 기도

동양선교교회의 유럽 선교사 파송은 한인교회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

② 선교비 후원
③ 서신으로 격려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석태운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독일은 세계와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세계만 선교의 사명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산세계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석목사님은 본교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사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네개의 성경단어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아 닛시」를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LA 지역 복음화 위해 전도지 배부

창립10주년을 맞아 1980년도 표어를 "새 역사를 창조하자" 로 정하고 LA지역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전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선교부는 3월부터 매주일 오후에 각 기관별로 한인 지역에 전도를 나갔다. 3월2일 주일 대학부는 이요한목사 인도로 한인타운 일원을 다니며 전도지를 배부했다. 이때 "LA의 동포들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의 전도지를 특별히 제작했다. 선교부는 전도지 5,000매를 제작, 계속해서 매월 첫주는 대학부, 두번째 주는 중고등부, 세번째 주는 각급 주일학교 교사, 네번째 주는 청년회, 다섯번째 주일은 장년회가 맡아서 전도를 나갔다.

▲3월9일 중고등부는 안용식전도사 인도로 전도지 배부
▲3월16일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중용전도사 인도로 전도지 배부
▲3월23일 청년회 회원들이 송정명목사 인도로 한인타운에서 전도지 배부
▲3월30일 남녀 전도회가 송정명목사 인도로 노방전도 실시
▲4월13일 간호원회와 상락회, 대학부가 한인타운 전도

남녀전도회는 매월 1회씩 남가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새벽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선교비를 받는 모국 교회에서 온 소식

1980년 모두 102개의 모국 선교지원 교회에 40달러~100달러를 지원했다. 매월 4천달러 이상의 선교비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미주 한인교회로는 가장 크게 한국선교 지원을 했다. 선교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국의 교회는 동양선교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지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

내왔다. 선교부는 매월 「선교소식」을 발행, 모국에서 온 편지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다.(선교소식 1980년 7월호)



선교부에서 펴낸 선교소식

"저는 여전도사로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전도사의 아내입니다.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현도성결교회는 교역자들이 오셨다가 우선 생활의 대책이 서지않아 할 수없이 떠나곤 해서 교역자들에 대한 선입관이 좋지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않기 위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달 생활비 6만원으로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의 등록금은 고사하고 식비와 교통비도 모자라는 형편 속에서 얼마전에는 애기를 낳아 산후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웃에 있는 약국에 가서 외상으로 약을 가져오려다 수모를 당하고 와서 주님의 위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현도성결교회 김오순사모–

"LA의 동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각 부서별로 노방전도에 열심인 한해였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날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고 욕질하던 청년들과 술을 받아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청년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 지금은 술 담배 끊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7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배처소 문제로 성도들이 성전에서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이 일이 동양선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평 중앙교회 나정옥 전도사 –

"보내주신 선교비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15리 되는 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걸어서 새벽송을 돌고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하신 귀한 물질이 닿는 이곳에서 기필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믿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실로암교회 이인순 –

"온 세계인이 경제불황을 겪고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정성어린 선교비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곳 농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저희들에게는 선교비를 받을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모국교회에서도 하지못하는 이일을 이역만리에 있는 우리 동포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복음전파에 더욱 애써야 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 함창성결교회 최복례전도사 –



선교비를 지원받은 함창성결교회와 교인들

"본교회는 귀 선교부에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받을 적마다 온 교인들이 모여 철야기도를 실시하여 은혜받고있는 동양선교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원의 제2교회 이영주 전도사 –

김치를 고기로 알고 먹는 목회자 자녀에게 교인들이 선교비를 다시 보냈다

동양선교교회 선교부 책상위에는 눈물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연들이 날마다 쌓여갔다. 선교부는 아직도 선교 대열에 참여하고 있지않은 성도들을 찾아서 모국 교회를 돕도록 이해와 기도를 계속했다.

그중에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음교회에서 불편한 몸으로 목회하고 있는 남명우전도사 자녀들이 고기를 먹어보지 못하고 김치를 고기로 알고 있다는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교인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남전도사에게 전달했다. 전북 옥구군 말도에 소재하고 있는 말도교회 명순자전도사가 성경주석을 사보는 것이 소원인데 주석을 사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오자 김병곤집사, 김성주집사 내외분이 매튜 헨리 주석 전권을 보냈다.

임동선목사 첫 중국 선교 길에 나서

1980년 8월3일 주일예배 때 임동선목사는「새 역사의 창조」(민 13:25~33)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10년을 내다보는 목회 비전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1. 지난 10년간 이룩한 새 역사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교회당, 교육관, 주차장, 대지), 선교(국내, 모국, 제3국 선교), 교육(주일학교, 한글학교, 특수반, 여름학교), 봉사(이민생활 안내, 무료진료, 이웃도움)에 힘을 썼습니다.

2. 앞으로 이룩해야 할 새 역사

   (1) 교인수 (장년, 유년 포함 5,000명 확보)
   (2) 2중언어 예배 및 영어교사 확보
   (3) 선교 (국내, 모국, 제3국 선교 강화)
   (4) 교육 (선교대학원, 일반학교, 교사훈련, 교회, 음악발전, 장학제도)
   (5) 봉사 (이민생활 지도, 무료진료, 탁아소운영, 상담소 설치, 대형버스 구입, 지역사회 봉사)

3.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우리의 자세

   (1) 확고한 신앙 (2) 간절한 기도 (3) 일치 단합 (4) 희생 각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교도의 땅에 와서 살게 하심은 거룩한 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창립 20주년에는 이 일들을 성취하여 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연길에서의 임동선목사

이날 오후4시 주일예배 때에는 임동선목사 중국선교 환송 예배를 드렸다. 송정명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환송예배에서 최대위목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행 20:17~2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동양선교교회가 중국선교의 문을 선구적으로 열어갈 것을 하나님께 기원했다. 선교부장 이재권장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온 선교 보고를 했고, 영락교회 김계용목사는 임동선목사의 선교 길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다.

임동선목사는 죽의 장막으로 통하는 중국선교를 위해 8월5일 중국으로 떠났다. 홍콩을 거쳐 북경과 장춘, 기타 여러지역을 순회한 후 8월26일 무사히 LA로 돌아왔다. 임동선목사는 1980년 8월31일 주일예배때 「영적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선교를 다녀온 사정을 보고했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설교 때 중국전도 방안 14가지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1. 현지 전도자의 격려와 후원
2. 성경, 찬송가, 기독교 서적 보내기 운동
3. 라디오, 테이프, 레코드, 카셋트 보내기 운동(방송을 녹음했다가 듣기도 함)
4. 의료품 보내기
5. 미국에 있는 중국유학생들을 전도하고 후원하기
6. 한국 방송국을 후원, 기독교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함
7. 일본과 홍콩에 선교사를 파견하거나 지원함
8. 미국내의 중국선교 활동 기관 지원
9. 연고자 찾기 운동
10. 영어교과서, 과학교과서 보내기
11. 예술단 파견
12. 중국 선원들에 대한 전도
13. 중국 교포들에게 편지를 통한 개인 전도

동양선교교회는 중국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고 1980년 임동선목사는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라 재미동포 평신도들의 중국방문 러시가 될 때를 대비, 평신도들에게 선교훈련을 시킬 것 등에 특별히 동양선교교회 성도가 참여해 주기를 바랐다.

중국 선교여행은 임동선목사 개인적에게도 뜻깊은 일이 있었다. 1940년 중국으로 임동선목사 온 가족이 이전해서 사는 동안 임채봉 여동생은 현지에서 결혼을 했고 오빠 임동선목사를 35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 초청받아 부흥회 인도

임동선목사에게 1980년 한해는 참으로 바쁘게 보낸 해였다. 창립10주년 기념예배와 제1회 목회자 초청 교회 부흥회개최, 1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중국선교 방문 이외에 미주 한인교회의 부흥회 인도를 위해 많은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았다. 1980년에 임동선목사가 미주지역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한 일정이다.

▲메릴랜드 벌티모어 한인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4월 27일~30일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 6월 12일~16일
▲뉴욕지구 연합대전도대회 집회 인도: 7월 10일~14일
▲버지니아 한인연합교회 부흥회 인도: 8월 22일 ~25일
▲알라스카 한인교회 부흥회인도: 9월 24일~30일
▲캐나다 뱅쿠버 한인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11월 13일~17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 11월 27일~30일
▲오렌지 중앙성결교회(담임 허경삼목사) 부흥회 인도: 12월 10일~14일

「예수님을 영접할 자세」 등 90분짜리 임동선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 판매

선교부는 2번째로 임동선목사의 설교를 90분짜리 녹음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했다. 새로 제작한 임동선목사의 설교 테이프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세", "정성된 예물", "첫 성탄", "변화와 헌신", "새해와 새 역사의 창조", "새해와 새 사람"이라는 설교가 담겨있다.

임재순사모의 투병, 그리고 눈물의 기도

임동선담임목사 가정에 고통이 찾아왔다. 임동선목사를 위해 내조와 봉사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임재순사모가 봉제공장에서 작업 중에 쓰러진 것이다. 1980년 5월4일 주보에는 "임재순사모가 병환으로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이 실려있다.


정원을 가꾸는 임재순사모

5월18일 주보에는 "임재순사모께서 많이 회복 되셨으며 여러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병문안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번째 알림이 나와있다.

임재순사모는 "이민목회자의 아내"라는 저서에서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월말이 되고 축축하게 온 거리가 젖어가고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써야했다. 그런데 왼손은 이날따라 물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산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방과 점심가방도 오른손에 걸치고 다녔다. 봉제공장에서 내가 맡은 일은 파워 미싱을 밟는 일로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12년을 파워미싱만 밟았으니 이미 전문가의 경지에 올라서 있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왼팔이 아파서 나중에는 무감각할 정도였다. 몸이 괴로울때면 나는 성경을 외었다.「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려고 애썼다.

아침 블랙타임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려는데 온몸이 감각이 없어지면서 발이 움직여지지를 않았다.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몇발자국을 떼었다. 그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마침 우리부에 와있던 감독관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어두워졌고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머니 간병을 위해 두자녀는 휴학하고 헌신적으로 모셨다 임재순사모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드렸다

기도와 치료, 투병생활이 시작되었고 임재순사모는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았다. 전교인의 기도와 온가족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차츰 나아졌다. 임동선목사는 항상 임재순사모에게 "당신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니 내가 도와 주리다"라고 말하며 임재순사모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임재순사모가 치료 중일때 임승향 둘째딸과 임승천 막내아들은 1년간 대학을 휴학하고 간병을 했다. 임재순사모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고 치료를 계속해 오고있다. 그리고 병은 점차 나아져갔다.

이기홍목사, 창립10년의 성장 원리 발표

무엇보다도 동양선교교회가 이민교회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원인은 임동선목사의 목회 리더쉽과 평신도의 헌신적인 신앙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성장을 숫적으로 보면 1970년에 30명으로 시작한 성도가 1975년에는 580명, 1980년에는 1,500명으로 장년 교인수가 크게 늘어났다. 교회 재정면으로도 1971년에 1만5천달러이던 예산이 1975년에는 13만4천5백달러, 1980년에는 50만달러로 증가했다. 유년부 출석율은 1971년에 50명, 1975년에 120명, 1980년에 450명으로 늘었다.

또한 중고등부 학생도 1971년에 60명, 1975년에 150명, 1980년에 250명으로 성장했다.

지난 10년의 성장원리를 이기홍행정목사는 5가지로 분석했다.
(동양선교교회 뉴스, 제4호 1982. 7. 15)

첫번째는 초교파 독립교회였기 때문이다.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각 교파 교인들이 모이고 각 교파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더욱 큰 은혜가 되었다.

두번째는 임동선목사의 메시지와 이민 사역을 향한 끝없는 헌신때문이다.

평이하고도 실제적인 교훈, 그리고 능력있고 감화력이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를 받는다. 이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설교로 이름이 났다. 매주일마다 간절히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호소하는 말씀이 동양선교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세번째는 목사들의 팀 사역 때문이었다.

당회장 임동선목사와 이천영목사, 오태상목사, 이기홍목사, 이원희목사, 송정명목사, 이중용목사, 정완기목사, 안용식목사 등이 자기의 맡은 부서에서 책임있는 사역과 사명을 다해왔다.

네번째는 교회 위치와 넓은 주차장이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인타운과 가깝기 때문에 교인들이 출석하는데 편리하다. 또한 300대이상을 수용할 수있는 주차장이 있는 것을 새 교인들이 좋아했다.

다섯번째는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신앙 때문이다.

젊은 교인들이 많이 출석했다. 대학 졸업자들이 전체 성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특별히 평신도 중에 헌신적인 장로들이 많았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계를 향한 선교 철학을 10년간 잘 감당해 왔다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된 이민목회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로 지난 10년간 선교사역을 가장 잘 감당해 왔다. 당회장과 선교목사와 선교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한국과 세계를 향한 선교 앞장을 서왔다. 그 중 한국 농어촌교회에 대한 선교는 이민교회로서 가장 선구적인 사역이었다.

1970년에는 한국 교회에 400달러의 선교금을 보냈고,

1976년에 19개교회,
1977년에 37개교회,
1978년 62개교회,
1979년 100개교회,
1981년에 105개 교회를 지원했다.



미주 학원 선교에 큰 사역을 맡은 동양선교교회

또한 교회창립 후 10년간 학원선교와 매스컴선교에도 선구적이었다. 동양선교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임동선목사의 목회철학과 이민목회에 대한 비전이다. 임동선목사의 목회철학은 다른 한인

이민목회자와 달랐다.

임동선목사의 새 이민사회를 위한 목회철학은

1. 개신교의 복음주의 노선으로 독립교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뜻이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다.
2. 세계를 향한 선교철학이다. 교회 설립의 3대 목표 중 임동선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하는 선교를 하는 교회로 첫날부터 출발을 했다.
3. 이민자를 향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이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매주일 임동선목사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민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교에서 강조해 왔다.
4. 사랑과 희생의 철학이다. 임동선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했다. 교인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모든 일에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봉사의 철칙이 바탕이 되었다.
5. 목회자와 장로의 팀 사역을 중시했다. 목회자와 장로는 맡은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으며 장로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것 보다도 서로 협조하며 팀웍을 가지고 나아갈때 더욱 성공적인 목회라는 것을 임동선목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을 했다.

또다른 10년을 향한 신앙의 새 출발

팀웍으로 나아갈때 더욱 성공적인 이민목회가 된다 임동선목사는 이를 몸소 실천했다

앞으로 올 또다른 10년의 첫해인 1981년을「신앙의 새 출발의 해」로 정했다. 임동선목사는 1월4일 새해 첫 주일 예배 때「열매 맺는 새해」(눅 13:6~10)라는 설교를 통해 "전교인이 금년에 신앙의 큰 열매를 맺자"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와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에 찬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한 해를 맞은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첫째,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한장씩 읽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
> 두번째로 우리는 매일 30분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면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
> 세번째로는 우리는 매일, 그리고 1년내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는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한가지씩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신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내려 주십니다. 해가 바뀌어 나이가 한살 더 함과 같이 우리의 지혜도 덕성도 신앙도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한인 이민교회로서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표를 금년에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5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동선목사는 지난 10년간에 이룩해온 역사로는 웨스턴에 성전(교회당, 교육관, 파킹랏, 대지)을 마련하고, 선교(국내, 모국, 제3국 선교)와 교육(주일학교, 한글학교, 특수반, 여름학교) 그리고 봉사(이민생활 안내, 무료진료, 이웃돕기)에 힘을 써온 것이라고 설교를 했다. 앞으로 오는 10년 사이 이룩해야 할 또다른 역사로는

창립20주년에는 "5천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첫째는 장년과 유년을 포함한 5천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이민 교회로 성장
두번째는 이중언어 예배를 실시하고 영어교사를 많이 확보
세번째는 국내선교와 모국선교, 그리고 제3국 선교를 강화
네번째는 선교대학원의 설립과 일반학교를 늘여나가는 것, 그리고 교사훈련을 강화하고 교회 음악을 발전시키며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육면의 큰 결실
다섯번째 교회 봉사로는 이민생활을 잘 지도하고 무료진료소를 설치하며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 각종 전문상담소를 설치하며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교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각 지역사회 봉사의 프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1981년, 「내집을 채우라」는 연중 표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제2의 청교도 처럼 미국땅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한인 이민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양선교교회는 1981년 한해를 위해 「내 집을 채우라」(눅 14:23)는 연중 표어를 정했다. 1월11일 주일 설교때 임동선목사는 「신년도 목회방침과 우리의 각오」(눅 14:23, 수 1:16~18)라는 제목으로 한해동안 온 성도가 신앙적으로 나가야 할 길을 밝혔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를 제1의 사명으로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를 잘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첫째로는 평신도 전도 훈련을 강화하고 전도대를 파송할 것입니다.

새 신자들을 위한 심방을 강화해 나가고 학원 선교를 더욱 늘여나가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방송 및 TV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자매교회와 결연맺는 것은 물론 지교회를 설립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선교를 시작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배우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급 교사들의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새 신자를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펴나갈 것입니다. 구역 담당자의 훈련을 비롯해서 전교인의 성경공부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한국학교 학생과 교사를 위해 교회가 적극 지원을 하고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해나가며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선교대원을 만들어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의 봉사 업무로는 새 신자 환영회를 매분기에 정기적으로 가지며, 갓 이민오는 한인들을 위해 이민생활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 사업, 자녀교육 등 각종 상담 분야를 넓혀나가고 정신박약아 지도를 위한 특수교육을 잘 해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이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신앙으로 그들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30분씩 기도를 하고 1년내내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 교육관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건축을 위한 전교인의 참여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수양관을 구입하고, 노인아파트 건립을 위한 장단기 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의 목회자와 전교인들은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전교인이 일치단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절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모든 각오를 더욱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1981년은 좀 더 배우는 해, 일하는 해, 부흥되는 해, 공헌하는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바른 자세를 제시

1981년도 출석 예상 교인은 장년이 1천5백명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한 명씩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1월 한달에 40명의 새 교인이 등록을 했고, 한 주간 출석인원은 모두 2천3백명이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2월1일에는 「교회 부흥의 바른 자세」(행 2:43~4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동양선교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민교회로서 더욱 부흥하기 위해서 다음 7가지의 내용들을 강조 했다.

1.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민 13:1~33)
2. 축복을 받기에 앞서 축복받는 일을 해야 한다. (창 12:1~9)
3. 크게 떠들기 보다는 조용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마 21:1~3)
4. 말로만 가르침보다 실천이 병행해야 한다.(롬 2:21~24)
5. 양적 부흥보다 질적 부흥이 있어야 한다.(사 7:4~22)
6. 안일한 생활보다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행 15:24)
7. 지난 날 업적의 회고 보다 오늘 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빌 3:13~14)

"1981년은 일하는 해, 부흥하는 해, 영광을 돌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교우를 위한 예배 및 만찬회

당회는 신입 교인의 출석이 크게 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새 신자 환영회를 가졌는데 1981년 1월과 2월, 3월에 등록한 교인은 15명~20명이었다. 갓 이민을 와서 새 신자로 등록을 하면 담당목사와 면담을 하고 구역 배정 및 심방계획을 세워서 동양선교교회의 새 가족으로 신앙의 일체감을 갖도록 했다. 특별히 새 신자가 등록을 하면 구역장이나 총무가 구역예배에 초청을 하고 이민생활에 대한 안내와 친목을 위해 힘썼다. 새신자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장로나 권사, 일반 평신도들이 전도에 앞장을 섰고 매주일 주보에는 등록한 새 신자의 이름과 인도한 교인들의 명단이 나란히 실렸다.

1981년에 전도 바람이 크게 불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등 모두가 한명의 비신자를 꼭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앞장섰다. 그리고 12월말에는 전도왕을 선출해서 시상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여전도회는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주일은 물론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앞장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었다. 1981년 9월 한달을 다시 「전도의 달」로 정하고 12월말까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교인들은 꼭 한사람씩 교회로 인도하도록 힘썼다. 특별히 각 기관들은 연말까지 4개월간 추계전도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에 나섰다. (주보 581호, 1981·9·13)

▲1981년 9월 전도 계획
13일: 유년 주일학교, 20일: 중등부, 27일: 고등부
▲10월
4일: 대학부, 17일: 청년회, 18일: 에스더 여전도회, 25일: 여호수아 남전도회
▲11월
1일: 중고등부, 8일: 한나여전도회, 15일: 모세 남전도회, 22일: 추수감사절, 29일: 상락회

▲12월

6일: 대학부, 13일: 유년부, 20일: 성탄절, 27일: 청년회

「내집을 채우라」라는 교회목표를 따라 교인 한 사람이 비신자를 전도하기 시작하자 출석교인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1981년 1월4일 첫 주일 한주간 예배 때에는 모두 2,219명이 출석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7월 초에는 처음으로 교인이 3천명선을 넘어 3,230명이 출석을 했다. 9시 1부예배에 310명의 교인이, 11시 2부예배는 1,112명이 출석, 주일 1부, 2부 예배에 모두 1,322명의 장년이 출석을 하는 등 교세는 날로 늘어났다. 11월부터는 계속해서 한주간 출석교인이 3,110명을 넘어서므로 미주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미주지역의 최대의 이민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교육목사에 이원희목사 청빙

당회는 1981년 1월1일 이원희목사를 새 교육목사로 청빙했다. 서울신학대학 및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봉직 중인 이원희목사는 날로 부흥성장해가는 동양선교교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새 목사로 LA에 도착을 했다. 이원희목사는 1월18일주일 오전 9시 1부예배와 오전11시 2부 예배때 「신앙교육」(삼상 2:11~12)이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통해서 동양선교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원희목사는 교사훈련 세미나 강사로서 「전달자로서의 교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새 신자 등록을 하면 사랑으로 안내하고 아름다운 환영회를 가졌다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이원희목사는 서부 복음주의신학교와 휘튼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시카고 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새마음교회에서 10년간 사역했고, 그후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오태상협동목사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 목회를 하다가 미국 이민을 왔고, 그동안 세 아들인 오해훈, 오철훈, 오수훈장로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동양선교교회에 출석을 했다. 오태상목사는 금요성경교실과 상락회 성경교실을 맡아서 인도해왔다.

협동목사로 봉사하던 오봉운목사가 1983년 5월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경복고등학교와 서울신학교, 그리고 Warner Pacific College, Western Evangelical Seminary, Pasadena College,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PH.D)를 졸업한 오봉운목사는 한국기독교성결교회에서 목사안수(1951), 해군 군목(1952), 그리고 본교회에 출석(1973)했다.

전교인을 위한 춘계 대심방

교인배가 운동과 구역활동 강화 계획의 하나로 1981년 2월1일부터 2개월에 걸친 춘계대심방을 실시했다. 각교구를 중심으로 심방계획을 작성하고 담당목사와 구역장, 총무 등이 신자 가정을 차례로 찾았다. 교인들이 2천명이 넘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서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민가정의 상담과 신앙생활을 위한 2개월의 대심방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교인 가정에서 상담이나 심방을 원한다는 뜻을 교회 사무실에 알려오면 그 구역 담당 목사가 시간을 정한뒤 방문해서 함께 기도를 하며 교회생활과 이민생활에 대한 대화를 가족처럼 나누었다

「내집을 채우라」 목표로 전도 열심 한주간 3천명 출석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1981년 3월1일 한 주간 대심방계획

▲이기홍목사(6교구)
4일(수): 이옥엽, 주석만, 배석우, 박정수, 유창훈
5일(목): 신수잔, 박정자, 두덕기, 이명희, 주성철

▲송정명목사(3교구, 3구역 및 새신자)
3일(화): 신재권
4일(수): 이성희, 양용철, 고형규
5일(목): 김재천, 김인영, 김동섭

▲이원희목사(1, 2교구)
2일(화): 1교구
3일(수): 2교구

▲이중용목사(5교구 2구역)
3일(화): 홍성진, 강배수
4일(수): 강성환, 박영철
5일(목): 구한모, 김종성

특별히 심방팀의 조직과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해나갔다. 심방으로는 초신자 심방, 기존신자 심방, 유고 심방, 정상 심방, 대심방으로 나누어서 실시했고 일정작성을 잘 해나갔다.

제7장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 5차 단기 선교사에 이기홍목사 파송
- 한국 교회에서 온 선교소식들
- 은혜속에 마친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
- 2세위한 한글학교, 빠르게 성장
- 해마다 글짓기대회와 이야기대회
- 「공부하는 성도가 되자」 도서관 개관
- 심방목사에 임병택목사 임명
- 한미수교 100주년 한민족 선교대회
- 창립12주년 기념 부흥회 및 임직예배
- 구역을 교구로, 10교구 71구역으로 확대
- 모국선교를 위해 123개 교회 지원
- 전세계를 향해 선교지역을 넓혀
-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 여름성경학교에서 1천명 학생이 공부
- 청소년 복음화 대회 「Come to Me」개최
- 「Come & See」대학생 부흥회
- 임동선담임목사에 첫 안식년 허락
- 호주와 동남아로 1차 선교여행
- 중국, 일본, 한국으로 2차 선교여행
- 아프리카, 유럽을 향한 3차 선교여행
- 창립 13주년 기념부흥회 및 장로 장립
- 6차 단기 선교사에 이원희목사 파송
- 교회지도자 양성위해 장학금 지급
- 제직 수양회 통해 충성과 헌신 다짐



더욱 충성스런 제직이 될 것을 서약

교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임동선목사는"이민교회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제직들이 많아야 하며 항상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한다"면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1978년 1월20일과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오크(Oak)수양관에서 제직수련회를 은혜속에 마쳤다. 1979년 1월17일과 20일 본당과 오크 수양관 두곳에서 제직수련회를 가졌다.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받드는 언제나 충성된 일꾼이 되자"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1980년과 1981년에는 제직수련회 일정을 늘여가면서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한 제직의 책임과 사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1981년 12월6일~12일 권사들은 시스퀴토(Cisquito)수양관에서 특별 기도회를 갖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는 이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1982년도 제직수련회는 1월6일~9일 루터란교회 수양관에서 가졌고 제직 전원이 참석 할 정도로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새 이민자를 위한 봉사와 구호를 맡는 생활지도부를 교회기구로 조직하고 폭넓은 봉사 사역을 담당

임동선목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멕시코나 제3국 등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는 항상 교회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돕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고 설교 때마다 강조했다. 1980년 6월8일「후대를 위한 온정의 손길」(고후 8:1~15)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에 나설 것을 주내용으로 설교했다.

생활지도부는 1981년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새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1981년 3월15일 주일 2부 예배후 송문순집사가 이민문제에 대한 상담을 담당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관심을 보이므로 정기적으로 이민상담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10월25일 주일에는 자동차 필기시험에 대한 강의를 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민자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및 질문시간을 가졌다.



제직수련회 참석후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가 한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5차 단기 선교사에 이기홍목사 파송

당회는 제5차 모국 단기 선교사에 이기홍목사를 임명했고 1981년 4월26일 1부와 2부 예배 때 이기홍목사 파송 예배를 드렸다. 송정명목사의 사회로 선교부장 오해훈장로의 기도와 이천영 원로목사가 「크리스찬의 사명」(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선교를 해야 한다. 크리스찬의 3대 사명은 선교 교육 봉사로 그중에서 선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이 가장 막대하다"는 내용으로 설교했다.

이기홍 단기 선교사는 파송 답사 설교에서 한국 농어촌 선교교회를 순방하는 목적을 4가지로 밝혔다.

"첫째는 동양선교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 농어촌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연구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모국 교회에 동양선교교회를 알리는 것이며,
네번째로는 이러한 선교 순회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운다."

"정성껏 보내주신 전도용 자전거와 올갠을 농촌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교 순방중에 편지

이날 예배 중에는 특별히 이기홍목사에게 농어촌교회 지원 올갠과 자전거 전달식이 있었다. 선교용 자전거는 1개당 100달러로 모두 20개의 자전거 선교기금(2,000달러)을 모았다. 자전거 선교기금을 헌금한 교인은 이윤월, 김치용, 원용악, 고등부, 한나여전도회, 여호수아 남전도회(2대), 에스더 여전도회, 특수반, 박계로, 김재순, 김남형, 배석원, 원재수, 홍길산, 박경자, 모세 남전도회 등이다. 또한 1개당 300달러인 올갠을 3대 전달(900달러)했는데 이 올갠은 유년주일학교가 헌금했다. 이기홍 단기 선교사는 1981년 4월28일(화) 밤 11시20분 한국으로 출발했다.

1981년 5월 8일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단기 선교사 이기홍목사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선교소식 제3호 1981년 5월 17일)

> "모든 교회들이 벽촌에 있기 때문에 버스 연결에 애로가 많습니다.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으며, 시골 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5번 갈아타는 곳이 있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고통스러운 여행이지만 선교이기에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5월 11일부터 계속해서 경기도, 대구, 고령, 합천, 진주, 진양, 양산, 거제, 승주, 완도, 목포, 군산 등으로 순회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주일학교에서 보내주신 올갠과 성도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자전거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국 농어촌교회를 돕는 일이 한국 전역에 알려져 있어 동양선교교회 이름이 거의 다 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기홍목사는 1개월간 전국의 피선교지원 교회를 순방한 후 5월29일 무사히 LA로 돌아왔다. 1981년 6월7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뒤에 이기홍목사는 직접 찍은 한국 농어촌 교회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서 모국 선교순방 보고회를 가졌다.

모국 농어촌 지원교회 105개 교회

모국선교 및 제3국 선교를 선구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본교회는 1981년도에는 모두 농어촌교회 105 곳을 지원했다. 매주일 성도들은 선교헌금을 드렸고 선교부는 이를 모국 피선교교회에 보냈다.

선교비가 사용되는 주요 항목은 8개였다.

1. 농어촌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
2. 교회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3. 특수한 지역의 전도(교도소 재소자 전도, 군인전도)
4. 교역자(목사, 전도사, 전도인) 없는 교회에 교역자 파송
5. 문서 전도(전도지 발행, 가두전도, 방문전도)
6. 학원전도(LA 각 대학 및 고등학교 정기적인 성경공부 실시
7. 방송전도
8. 해외전도(중국, 유럽, 일본 등지)

전교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기쁘게 선교회원이 되었다


건축중인 경기도 새생명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사랑의 손길을 펴서 선교지역 및 금액을 계속 늘려나갔다. 전교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며 선교 회원이 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1981년 선교부가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105개 교회와 해외 및 지원 기관의 이름이다.

[한국]

1. 서울(성삼, 영해, 동남, 새빛, 맹인, 통천, 천은, 한국병원, 군인복지 사랑의 집, 제일장로, 한성, 성대, 영일: 14 교회)
2. 경기(영문, 사곳, 문산, 영태, 새생명, 서광, 안양, 새싹, 홍성리, 광승, 군남제일, 문봉, 삼송, 동광, 구성중앙, 대부, 웅진, 죽백, 한일, 강화제일, 성음, 왕대: 22개 교회)


선교비 지원 교회인 강원도 상안미 교회

3. 강원 (상안미, 장평, 영생, 개수, 속사, 장화동, 은총, 천광, 도천, 충성, 양구: 11개 교회)
4. 충북 (가마리, 이백리, 방곡, 영광, 현도, 효천: 6개 교회)
5. 충남(원의제이, 수석, 홍성남산: 3개 교회)
6. 경북 (회천, 대은, 석포, 낙평, 함창: 5개 교회)
7. 경남 (부곡, 영월, 다공, 대금, 금산, 가산, 대병, 용주, 애향, 기장제일, 석산, 서생, 실로암: 13개 교회)
8. 전남 (선평, 봉화, 강청, 회진, 흑산도묵, 제일, 석교중앙, 휘광, 완도중앙, 뇌화, 대신, 보길동부, 노화방주: 13개 교회)
9. 전북 (선유도, 장자도, 왈운정, 말도, 월산, 산주, 신시도, 주산, 신흥, 덕안, 능금, 연평: 12개 교회)
10. 제주도 (신양, 납읍, 저청, 화북, 상효, 공항: 6개 교회)

[해외 교회]

1. 독일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 석태운목사)
2. 일본 (동경 한국인 연합교회: 황재열목사)
3. 중국 (현지 전도사 2명)

"동양선교교회가 부흥 성장한 뒤에는 선교비를 지원받은 모국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 TV선교]

1. 한국 극동방송 (매주 1회: 공산권 내)
2. TV 선교 (매주 1회: 목요일 밤 11:00~11:30 세계방송회)

동양선교교회가 모국 선교로 이름이 나자 한국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농어촌 교회들이 늘어났다. 1981년 6월7일과 14일자 주보에는 지원을 요청하는 모두 20개의 한국 농어촌 교회 명단이 새로이 실려있다. 이들 교회는 장년 출석인원이 15명에서 50명까지 되는 미자립교회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역자 생활비를 지원해 줄것을 바랐다. 선교부는 이들 교회의 요청을 다 들어주었다.

한국 교회에서 온 선교소식들

매월 30달러에서 100달러에 이르는 선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의 농어촌교회들은 항상 감사의 뜻이 담긴 현지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왔다. 그리고 태평양 멀리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매월 선교금을 보내주는데 대해서 기도로서 응답을 했다. 단기 선교사로 모국을 다녀온 이중용목사는 "동양선교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뒤에는 모국 피선교교회에서 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다. 동양선교교회의 이름은 한국농어촌 교회에서 널리 알려졌다.

선교부에서 발행하는 선교소식에는 모국 농어촌 교회에서 보내온 생생한 소식들이 담겨 있어서 선교 헌금을 낸 교인들은 더욱 보람을 갖고 참여도가 높아졌다.

(편지1) (선교소식 제 1호 1981년 2월)

"이곳 대병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작년 한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소의 결신자도 주시고 내부시설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 나라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귀 선교부와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 2개월 사이에 청년 1명과 여자교우 2명의 새 신자를 얻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풍금이 없어 예배시간에 찬송이 맞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농사가 흉작이라 교우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같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전도자인 저는 어떠한 고생이 있더라도 각오된바 있으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세자녀(고등 1, 중등 1, 초등 1)들의 학비 문제가 염려되는데 가능하시면 1년만 더 선교비를 지원해 주시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 이용섭 드림

"사례비를 받지 못해 떠나간 전도사, 하나님만이 이 슬픈 사실을 압니다"

(편지2) (선교소식 제 2호 1981년 4월 12일)

"주 은혜 중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교비 보조 통지서를 받고보니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지난 12월 이곳을 떠났습니다.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 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 누가 이 슬픈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대신교회 집사 김장윤드림

(편지3) (선교소식 제 6호 1981년 9월 13일)

"장마비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는 기도회로 모이다가 이동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무거워짐을 금할 수 없군요. 교인들이 모두 초신자이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기도회 시간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견스러워 경제적인 문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다급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부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만원($700)만 도와주시면 우선 지붕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4년간 차용해 주시면 1년에 10만원씩 갚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왕대교회 허은목사


임동선목사가 여주교회 전도사때 개척한 왕대교회

(편지4) (선교소식 제 6호 1981년 9월 13일)

"저희 교회는 산업재활원안에 있는 재활교회입니다. 산업전선에서 몸을 다친 사람들이 현재 400명 가량 있습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척추마비등 이루 말할 수없이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7남매를 가진 여자의 몸으로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전도사인데 수술한 환자들에게 우유 한컵 대접하기 어려워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우유 한컵이라도 대접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펴실 분은 안계신지요."

경기도 인천 산업재활원교회 손위임전도사

일본, 유럽으로 세계 선교지역을 확장

"산업전선에서 몸을 다친 사람위해서 헌신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된 황재열목사는 동경 한국인 연합교회 담임목사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했다. 1972년 창립예배를 드린 한국인 연합교회는 황재열목사가 부임한 후 선교에 앞장을 서서 장년 60명과 주일학생 70명 등 모두 13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했다. 황재열목사는 일본 동북지방인 나릿다(成田)에 지교회까지 세우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80년 중국 방문 후 귀환 길에 동경을 방문, 한국인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 할 뜻을 약속했다. 특별히 임동선목사는 "앞으로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대륙에 선교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인 동경교회를 거쳐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동경 한국인 연합교회는 자매결연 관계를 청원해 왔고 당회는 1980년 10월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두 교회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선교를 서로 협력하는 방안과 인사교류를 결정했다. 동경 한국인 연합교회는 1981년 9월12~13일 워싱턴DC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황재경원로목사를 일본으로 초청, 특별집회를 개최했고 일본 교인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

독일로 파송된 석태운목사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와 카이자슬라우턴 한인교회 2곳 교회를 오가면서 힘든 목회를 했다. 석태운목사가 처음 부임했을때에는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가 예배 처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1981년 8월 새 교회당을 마련, 유럽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석태운목사는 독일지역 뿐만 아니라 멀리 스페인에서 40명~50명의 교인들이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를 나갔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스페인 마



독일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

드리드까지 방문한 석태운목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다. 석태운선교사는 "스페인지역에 1명의 교역자를, 이태리 로마에 1명의 교역자를, 밀라노에 1명의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당회에 청원해 왔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에는 그 당시 100명이 출석했고 매월 한두가정씩 교인이 늘어갔다. 석태운목사는 특별히 새 예배처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새벽기도회를 자유롭게 실시했으며 곧 평신도를 위한 성서교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교소식을 알려왔다. 또한 석태운목사는 아프리카선교를 위해 케냐지역을 돌아보는 등 유럽의 선교지역을 넓혀 나갈 준비를 했다.

남미 브라질 쌍파울로 한인교회는 본 교회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기 원하는 공문(1981년 7월 26일)을 보내옴에 따라 정식으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했다. 20명~30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고 있는 쌍파울로 한인교회는 교역자의 사택과 경제적인 뒷받침을 확보해 두고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를 동양선교교회가 파송해 줄 것을 원했다. 베네주엘라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줄 교역자 1명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선교로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석태운선교사의 보고

당회는 1981년 8월11일 처음으로 지교회 설립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교회 설립연구위원회는 8월중에 모두 3차례 모임을 갖고 전세계를 향한 지교회 설립 가능성을 연구해 나갔다.

▲위원장: 임동선 당회장

▲위원: 이원희, 송정명, 오해훈, 이재권, 박계로, 김중완, 조영근, 이옥엽, 김보근

중국 단기 선교사에 이득애권사 파송

선교부는 중국선교의 가능성을 일찌기 준비해왔고, 1980년 직접 임동선목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 처음으로 방문했다. 단기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이득애권사는 1981년 10월28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죽의 장막 중국지역에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선교부는 중국내 4지역에 현지 전도인을 선정하고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비를 보냈다. 이득애 단기 중국선교사는 1개월에 걸쳐 상해, 북경, 길림성, 심양, 화전 등지를 순회하며 현지 전도인들을 만나 선교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12억의 중국대륙을 향한 선교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돌아왔다. 이득애권사는 평양숭의전문을 나왔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어머니가 중국에 살고 있어서 처음 어머니를 만나러 중국을 방문했다. 이득애권사는 1983년까지 모두 중국을 세차례 다녀왔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보내온 소식이다.


단기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이득애권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교회 예배 모습

(서신1) (선교소식 제3호 1981년 5월 17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은 다 평안합니다. 저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성경을 입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사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말없이 지혜롭게 신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양선교교회에 계속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1981년 5월 8일

죽의 장막 중국에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현지인을 선정, 선교비를 보냈다

(서신2)

"지금 여기 우리 가정예배에는 평균 10여명이 나올 때도 있고 더욱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입수된 성경은 5백여권, 이번 7월에 입수될 성경은 2백권인데 아직 2백여권은 각 지역으로 우송할 경비문제로 보내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해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고 싶으나 그것도 경비문제로 길이 막히는 군요."

1981년 6월 21일 상해에서 배준철

(서신3)

"이곳에는 믿음의 터가 굳지 못하고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편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0여명이 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그 처소는 없어졌습니다. 신자 가족은 몇 가정 있으나 조용히 계속 구령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근본 공포심이 있는 곳이라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사업 보고를 조심스럽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양에서

(서신4)

"동양선교교회 대학생 보십시오. 이곳은 화전입니다. 30여년 전에는 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믿는 사람은 다 귀국하고 몇 사람 남아서 예배를 드리던 중 이득애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동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새 예배 처소도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푼푼이 돈을 모아 쓸데도 못쓰고, 이곳 중국 동포를 위해 보낸 정성과 사랑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림성 화전에서

은혜속에 마친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

창립 11주년을 맞아 1981년 7월21일(화)~25일(토) 서울 무학장로교회 정인영목사를 강사로 초청, 기념부흥회를 은혜중에 가졌다. 정인영목사 초청 창립기념 부흥회는 매일 저녁 감사속에 계속되었고 7월 26일 주일 대예배에는「최선을 다하라」(빌 1:3~11)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를 했다. 정인영목사는 설교에서 "오늘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오후 2시30분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가졌다. 새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김봉한, 이원열, 유문규, 한병철, 이용선, 김종성, 신윤철, 원재수

▲권사: 박화진, 장세정

이날 권사로 취임한 장세정권사는 한국에서 이름난 가수로 이민온 뒤에는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장세정권사는 민족의 애환이 서린 가요를 불러 나이든 교인들 가슴속에 남아있다.「단발령」,「역마차」,「고향초」,「울어라 은방울」등 8백여곡의 노래를 불러 한국의 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이다. 장세정권사는 "현재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셔도 두려움이 없다"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대에서 갈채를 받던 화려한 생활보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더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밝혔다. 한국에 있을 때는 동료가수인 신카나리아를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고 지금도 4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장세정권사의 신앙이 온 가정에 차고 넘침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는 창립기념 설교

장세정권사는 그 옛날의 화려했던 무대의 가수 장세정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인간으로 알려지기를 바랬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217장을 교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면서 말을 할때 마음 속으로 부르는 찬송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동양선교헤랄드, 1983년 12월 25일)

유럽 선교여행길에 나선 임동선목사

임동선담임목사는 1981년 유럽선교를 위한 여행을 떠났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수행과 유럽지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선교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 3주간에 걸친 독일, 스페인, 이태리 3국을 순회하며 5개의 한인교회에서 특별 부흥회를 인도했고 유럽의 선교 가능성을 놓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

1981년 임동선목사의 유럽선교 여행일정

▲10월26일(월) 오후 7시 LA출발
▲10월27일(화) 오후 3시 독일 도착
▲10월28일(수)~31일(토) 하이델베르그 한인교회
▲11월 1일(주일)~4일(수) 베를린지역 연합집회
▲11월 6일(금)~ 8일(주일) 로마 한인교회
▲11월 9일(월)~10일(화) 밀라노 한인교회
▲11월11일(수)~12일(목)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교회
▲11월14일(토) 오후 2시 독일 출발
▲11월14일(토) 오후 7시 LA 도착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유럽선교 여행을 은혜중에 마치고 돌아왔고 1981년 11월15일 예배때 임동선목사는 유럽 선교여행 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우리들을 미국에 보내심은 세계 선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양선교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응하여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목적이 차차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국에 보내심은 이같은 세계선교를 위하심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온 교우가 더욱 힘을 합쳐서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에 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하여 우리가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1년 임동선목사는 미국 및 한국 등 주요지역을 방문, 부흥회를 인도했다.
▲3월16일~27일, 한국 아시아 선교센터가 주최하는 중국선교를 위한 집회를 인도
▲4월23일~26일, 산호세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
▲5월31일~6월 3일,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집회 인도
▲8월13일~15일, 다우니 한인장로교회 집회 인도
▲9월10일~13일, 볼티모어 한인연합회 부흥회 인도

「동양선교교회 10년의 발전과 전망」으로 박사학위

1981년은 임동선목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한 해였다. 동양선교교회를 이민교회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도록 밤낮으로 헌신적인 사역을 담당하면서 풀러신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6월13일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동선목사의 박사학위논문 제목은 「동양선교교회의 10년의 발전과 전망」이었다. 임동선목사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후에도 박사로 불리우기보다는 목사로 불리우기를 좋아했다.

임동선목사는 처음으로 설교 카세트를 제작해서 방송선교에도 선구적이 되었다. 방송문서 선교위원회가 제작한 제1집에는 6개의 설교내용이 들어있다. 설교제목으로는「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성령의 권능을 받자」,「그리스도인과 전도」,「고난을 받는 종」,「재물의 의미」,「여름 실과 한광주리」 등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용 및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교 카세트(가격 20달러)의 판매수익금은 다시 방송문서 선교비로 사용했다.


198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임동선목사

남가주 한인사회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새 이민이 계속되면서 한인사회 언론계의 발전이 눈부셨다. 특별히 신문과 TV가 이민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새로운 매체로서 TV에 대한 교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동양선교교회는 TV 시청율이 점차 높아가면서 선교를 위한 TV 매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교부는 1981년 5월17일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TV 방송선교를 기독교 세계방송회(WBN Ch18)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의 메아리」라는 TV 방송 선교를 시작했다 임동선목사의 말씀과 찬양을 방영

동양선교교회 TV 방송선교는 매주 목요일밤 11시~11시30분 "선교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 TV 방송시간에는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위하여 임동선 담임목사의 말씀과 찬양, 교회 소식 등을 방영했다. 이를 위해서 방송선교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 만들어진 방송선교위원회는 위원장에 오철훈, 위원에 김재휘, 슬로운, 황덕성, 이영송, 이평재, 주창국, 오순자, 함순화, 황승관, 김애리, 최창진, 최경희 등을 임명했다.

2세위한 한글학교, 빠르게 성장

교육위원회는 1977년 6월19일 처음으로 한글 및 역사교육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한글학교 시작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김재권집사를 임명했다. 김재권집사는 부모와 자녀, 당회 등 각계로부터 한글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1년동안의 한글 및 역사교육을 위한 연구를 마친 당회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이민온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은 절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한글학교를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인 1978년 5월7일,이민사회 교회로는 처음으로 동양선교교회가 한글학교를 시작한 날이다. 이날 오후 2시~3시30분 첫 수업을 한 한글학교에는 유치반부터 초등반, 중등반으로 나누어서 약 50여명의 1.5세 및 2세들이 공부를 했다. 3주가 지난 5월28일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실에서 한글학교 개교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1978년 6월4일 2세 한글교육을 책임질 한글학교 임원을 임명했다.

▲교장: 임동선목사
▲교감: 오해훈
▲교무: 오철훈, 김재권
▲서무: 오순자

▲교사: 이형미, 박현숙, 김주원, 김지화, 조동희, 최명숙, 이문자

1978년 6월11일 주보에는 "한글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6월18일에는 "한글학교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부터 각반별로 공부하며 아직 등록치 않은 학생은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한글 공부반에 학생수 계속 증가, 작품 전시도 하고 교사와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

한글학교 교육은 첫 1시간은 한글교육으로 말하기와 읽기, 쓰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2번째 시간은 성경, 미술, 태권도, 한국무용, 공작 등 특별활동 시간을 가졌다. 개교 3개월째인 7월23일부터는 학생들의 작품을 한글학교 게시판에 붙여놓을 정도로 교사와 학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했다.

김재권장로는 2001년 10월 19일 인터뷰때 한글학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글학교가 시작될 때 50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했다. 장소가 좁아서 이방 저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모두가 열심이었다. 한글학교 교감인 오해훈장로님과 교사들의 헌신적 지도로 처음부터 한글학교는 잘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이 컸다."

해마다 글짓기대회와 이야기대회



첫 야외 수업 및 운동회를 가진 한글학교 학생들

한글학교에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고 5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등록을 했다. 1981년에는 학생수가 200명으로까지 증가했고 1982년 5월1일(土) 한글학교는 엘리시언공원으로 첫 야외수업 및 운동회를 나갔다. 교육담당목사와 전도사 교사 학생 학부형 등 300여명이 즐겁고 기쁜 하루를 보냈다. 한글학교는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자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는데 크게 관심을 기울였고 한국에서 교사를 했던 교인들이 많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때 동양선교교회 한글학교가 사용한 교재는 남가주 한국학교에서 제작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했다.

해마다 한글학교는 글짓기대회와 이야기대회를 가졌고 어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기대회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1982년 10월17일 한글학교가 실시한 한글 글짓기 및 이야기대회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이야기 부문:

1등(이혜선) 2등(김희성) 3등(최상규) 장려상(임희진, 민홍기, 차승희)

▲한글 글짓기 부문:

특상(오인규) 1등(임주현) 2등(진주섭) 3등(안우진)
장려상(탁성주, 서정민)

1982년 12월11일 한국교육기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글짓기 및 이야기 대회에서 한글학교 학생 임주현이 글짓기 부문에서 1등을 했고, 김희성어린이가 이야기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동양선교교회 한글학교는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갔다. 그리고 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 자녀의 등록도 늘어 갔다.

임주현양(알렉산드리아 애비뉴 초등학교 4학년)은 「우리는 왜 한글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임양은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될 우리가 한국말을 몰라서 되겠어요"라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써서 1등을 차지했다.

임동선목사는 2세들을 위한 한글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참석 기도로 격려를 했다.


제1회 이야기 및 글짓기 대회 모습

1982년을 「교회 성장의 해」로

물질보다 믿음을, 말보다 실천을 하는 교인이 될 때에 이민교회는 크게 성장한다

>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행 2:46-47)

1982년 새해 첫주 한주간 출석교인은 3,000명을 넘었고 장년 교인만도 1,500명에 이르렀다. 임동선담임목사는 교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앙의 질적 성장을 설교때마다 강조를 했다. 1982년 1월3일 신년 첫 주일아침 예배때 임동선목사는 「교회성장의 바른 자세」(행 2:43~47)라는 제목으로 **"교인들은 물질보다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되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전체 이름을 빛내 줍니다"라고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새해 2번째 주일인 1월10일 아침 설교때에는 「1982년도 동양선교교회 목회 방침」(눅 24:46~5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에베소서 4장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의 성경말씀을 근거로 「성장하는 동양선교교회」란 표어를 앞세워 설교를 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에 치중을 하고 총동원 선교를 하며 희생적인 봉사를 할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십니다."

1982년도 선교방침 8가지

선교부는 세계선교를 위한 사역을 더욱 잘 해나가기 위해 1982년도 선교 방침 8가지를 정했다.

1. 평신도의 전도훈련을 강화하고
2. 전도대를 파송하며
3. 새 신자 심방 및 신앙훈련을 열심히 해나간다.
4. 지교회를 계속해서 설립해 나가며
5. 앞으로 매스컴 및 문서 선교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동양선교교회도 선구적으로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6. 무엇보다도 아시아선교를 중시하고
7.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선교를 더욱 중시하며
8. 모국 농어촌 선교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는 교육하는 교회를 목표로 세웠다


구역장 지도자 특별 수련회

1982년도 교육방침으로는 교사훈련과 구역장 훈련을 강조했다. 각종 학습 및 세미나를 많이 가지며, 한글학교의 학생증가와 교재개발, 교사교육을 열심히 해나가기를 위해 기도드렸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서 좋은 인재를 계속 양성하고, 성경공부를 더욱 많이 하는 이민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며, 앞으로는 선교대학원을 설립해서 좋은 신학생들을 계속 배출해 나가기로 했다.

봉사를 위한 목회 방침으로는 갓 이민오는 동포들을 위해 각종 이민생활 지도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정했다. 생명의 전화 등 각종 상담을 많이하고 소외자를 위해서 위문 및 구제활동을 앞장 서기로 했다. 너서리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인 봉사를 찾아나가면서 새 신자 친교 강화를 위해서 전교인이 노력을 했다.

임동선목사는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시설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성전건축과 수양관 구입을 위해 교인들의 헌금과 기도를 요청했다.

웨스턴 성전에서 1,2,3부 예배 시작

1982년 새해부터 주일 예배를 3부로 드리기 시작했다. 이는 장년교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일예배를 1부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1977년 8월7일 처음으로 오전 9시 1부예배와 11시 2부예배로 나누어 드렸다. 그리고 웨스턴 새 성전으로 이전한 6년째가 되고, 1부 2부예배로 나누어 주일예배를 드린지 4년째가 되는 1982년 1월3일 신년 첫 예배 때부터 주일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렸다.

▲1부예배 오전 7시 ~ 8시 15분
▲2부예배 오전 8시 45분 ~ 10시
▲3부예배 오전 11시 ~ 12시 20분

1981년 10월 한 주일 출석 교인은 3천2백명이었고, 1부 9시예배에는 260명, 그리고 2부 11시 예배에는 1,100명의 장년들이 출석을 했다. 그래서 장년교인 1,300명이 주일 아침예배에 참석했다. 주일 대예배에 1천명이상의 교인들이 출석을 하자 다시 주차장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났다. 1981년 주보에는 다시 주차 안내가 실렸다.

1. 제직들은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새 신자를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주차 안내 교인에게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제 예배시간을 시작하기위해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부예배를 실시한 1982년 1월3일 새해 첫 주일의 1부(오전7시)에 37명, 2부(오전 8시 45분) 328명, 3부(오전 11시)에 1,098명의 교인이 출석했다. 3부제 주일 예배의 실시로 주일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30분~6시 그리고 장년성경공부는 10시~10시55분까지로 다시 변경했다. 당회는 1982년 11월7일에 다시 주일 예배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예배 및 주일학교 시간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983년 7월3일 주일예배시간을 다시 변경했고 1990년대까지 이 예배시간은 계속되었다.

▲1부예배 : 오전 8시 30분~9시 45분
▲2부예배 : 오전 10시~11시 15분
성경공부: 오전 11시 30분~12시 20분
▲3부예배 : 오후 12시 30분~1시 45분

「공부하는 성도가 되자」 도서관 개관

"믿으며 공부하는 성도"를 위해 교회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장소 선정, 도서 확보, 도서관 근무 봉사자, 재원 마련 등 연구를 시작해왔다. 교회 도서관은 1981년 12월6일 주일 신

도서관을
다른 교회보다
먼저 설치하고
교인들은 도서기증
캠페인에 참여를 했다

간, 종교 서적 및 기증 도서 등을 구비하고 문을 열었다. 당회는 1982년 3월7일 초대 도서관장에 최만삼집사를, 그리고 봉사 직원으로는 최석호, 안현주, 이인숙, 이정희를 임명했다. 1982년 4월 25일 주일 도서관 (Library And Resources Center) 개관 예배를 3부예배 후 도서관에서 드렸다. 교회 도서관은 신간도서를 모두 400여권을 비치했다. 도서관 개관시간은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오후 2시~4시
▲매주(금) 오후 8시~8시30분
▲매주(토) 오전 9시~오후 1시


교회 도서관은 1981년 처음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신간도서 목록을 작성한 뒤 매주일 주보에 이주간의 신간 도서 소개를 통해서 독서를 열심히 하는 교인이 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 가정에서 신간도서를 기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조영장로는 성서 대백과사전(8권)을, 그리고 송정명목사, 김경수교우, 금재연교우가 도서관에 신간서적을 기증해서 장서는 더욱 늘어갔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 도서관을 다른 한인 이민교회보다 먼저 문을 열었고 장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심방목사에 임병택목사 임명

초대 유럽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석태운목사는 사임을 청했고 1982년 10월31일 주일 오후 4시 찬양예배 때 석태운목사를 위한 송별예배를 드렸다. 이날 송별예배 때 송정명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마 4:18~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는 첫 유럽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지역을 확장한 석태운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1979년 3월4일 전도사로 부임해서 대학부를 지도해온 안용식전도사는 1982년 4월21일 한국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에서 새로 목사안수를 받고 돌아온 안용식목사는 이 해 5월23일 오후 3시30분 주일 오후 찬양예배 때 「은혜로 된 자」(고전 15: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후 안용식목사는 대학부와 성서 연구반을 지도했다.

1982년 6월20일 김정환목사를 독일 새 선교사로 임명했고, 10월10일 한평우목사와 박상연목사를 유럽 선교사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박임숙전도사를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임명했다.(결혼뒤 안임숙전도사) 심방목사로 시무하던 박용장목사가 1980년 교회를 사임했고 1982년 11월 17일 임병택목사를 새 심방목사로 임명했다.

임병택목사는 충남 부여에서 출생했고 사병으로 공군 군종감실에 근무할 때 임동선 공군 군종감을 모신 적이 있다. 공군에서 전역 후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임병택

목사는 풀러신학교 목회 연수원을 마친뒤 서울 신원장로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새 신자 관리를 담당하는 심방목사로 청빙을 받고 LA에 도착했다. 임병택목사는 1982년 11월7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찬양예배 때 「네 믿음이 크도다」(마 15:21~28)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현재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임병택목사는 동양선교교회 부임후 부드러움과 자상함으로 임동선목사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갖기쉬운
노인들을 위해
성경공부, 영어교실
건강교실을
마련했다

상락회에서 노인대학을 설립

노인층 신자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당회는 노인 신자들을 위해서 상락회를 조직했고, 신앙심과 봉사심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등록했다. 상락회는 이민생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기 쉬운 회원들을 위해 성경공부, 영어교실, 건강교실, 여흥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했다. 상락회는 또한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신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관광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980년 2월11일(월) 상락회 회원들은 교회버스로 머린랜드에 1일관광을 다녀왔다. 그리고 4월12일(토)에는 상락회 회원과 교인 가정이 함께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다녀왔다. 8월24일 주일예배 후에는 차명수선생을 초청, 노인복지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정부 혜택을 받는 길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


관광길에 나선 상락회 회원들

상락회에 노인들을 위한 상락대학을 새로 설립했고 초대학장은 이천영원로목사가 맡았다. 1981년 4월25일 오전 10시 50세 이상의 남녀 한인동포를 위한 상락대학이 수업을 시작했다. 상락대학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공부를 했는데 첫 학기는 30명의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가르치는 과목은 성경, 일반교양, 예능 등이었다. 1982년에 들어서면서 상락회가 주관하는 상락대학은 학생들의 입학이 더욱 늘어나면서, 교육과목과 강사진이 더욱 늘어났다. 새로 설치된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심리학, 사회학, 성경, 평신도신학, 보건, 음악, 예능 등이고 한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은 50달러였다.

상락대학 강사는 이천영목사, 임동선목사, 이원희목사, 이기홍목사, 송정명목사, 이정근목사, 박백용목사, 한병철집사가 맡았다. 상락대학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대학후원회를 조직했

는데 오수남, 김용서, 이정배, 백형권, 조정현, 최상집, 염혜경, 배종년 등이 후원회 회원 책임을 맡아서 봉사를 했다. 1982년 12월8일 상락회는 야외 친목회를 갖고 신앙과 건강을 위한 축복된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한미수교 100주년 한민족 선교대회

"세계는 부른다 선교주역 담당하자" 평신도 선교부흥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1982년은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였다. 한국기독교선교단체 협의회와 International Missionary Advance는 한미수교 한 세기의 해를 맞아 「한민족 세계선교대회」예배를 본 교회 성전에서 드렸다. 「세계는 부른다. 선교주역 담당하자」 라는 주제로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 평신도 선교부흥회는 1982년 5월27일~30일 남가주 교계 연합으로 은혜와 축복속에 진행되었다. 매일 저녁 8시 한국에서 온 교계 지도자들이 선교부흥회를 인도했다.

▲5월27일(목) 나원용목사(서울 종교감리교회) 설교
▲5월28일(금) 최훈목사(서울 동도장로교회) 설교
▲5월29일(토) 김창인목사(서울 충현교회) 설교
▲5월30일(주일) 강신명목사(서울 새문안교회)가 설교

남가주교계 지도자 및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와 축복 속에 100주년 선교대회를 마쳤다. 한편 오전에는 패사디나에 있는 U.S. 센터에서 한국과 미국 교수들이 한자리에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동선목사는 1982년 5월 29일 3일째 선교세미나에서 「세계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민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한민족 선교대회에는 남가주 한인교계에서 김계용목사, 최성곤목사, 정원희목사, 김무봉목사, 이동준목사, 고원용목사, 이기홍목사, 홍동겸목사, 박대희목사, 윤철주목사, 안수훈목사, 안재관목사, 김순풍목사, 김성수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한미수교 100주년 한민족 선교대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속에 진행되었고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한국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위로잔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새 100년을 향해 한국 및 미주 교계가 세계 선교를 향해 다시 한번 선교사역을 다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창립12주년 기념 부흥회 및 임직예배


창립12주년 부흥회때 임옥목사가 기념설교를 하고 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 세가지 특별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첫째로는 1982년 7월20일(화)~25일(주일) 서울 영암장로교회 임옥목사를 강사로 초청, 기념부흥회를 열었다. 임옥목사는 매일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하루 세차례씩 부흥회를 인도했다. 임옥목사는 7월25일 주일 1부와 2부, 3부의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때 「삶의 본분」(창 2:16~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7월 25일 오후 2시30분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가졌다. 창립 12주년 기념예배날 취임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다음과 같다.

▲장로장립: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조영근
▲장로취임: 이정배, 정문섭
▲집사안수: 김광락, 김낙제, 김영규, 김주환, 김창무, 오정택, 이근무, 이인근
전송택, 전순관, 조상희, 조인식, 천덕홍, 최상집, 탁찬효, 황재룡
▲신임권사 취임: 권옥엽, 김순애, 김영숙, 김옥인, 황관오
▲권사취임: 권길완, 박선희, 박영애, 박채련, 안우경, 이상숙, 이안재, 최복례, 허을순

매주 20여명의 새 교인이 등록 가장 많은 신자들이 늘어난 해가 1982년이었다

새로 취임한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하기로 다짐을 했다.

이에 앞서 새로 취임한 장로와 권사, 집사를 위한 교육은 6월5일(토) 1시~4시20분 중등부실에서 가졌다. 헌법은 이기홍목사, 성서는 이원희목사, 교회사는 이천영목사가 각각 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6월12일 오후 1시~3시 새 임직자를 위한 2차 교육을 마쳤다.

평신도 전도 훈련과 총동원 주일

창립 12주년을 맞은 1982년 한해에는 신입 교인이 가장 많이 등록한 한 해였다. 1월3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모두 20명이 등록을 했고, 매주간 평균 10명~15명의 새 교인이 늘어났다. 2월28일 주일에는 모두 22명이 등록을 하는 등 2월 한달 동안에만 모두 58명의 새 교인이 늘어났다.

1982년 1월3일 첫주 주간 출석교인은 모두 3,075명이었고, 12월26일 송년주일 예배에는 3,449명이 출석했다. 1년간 400명의 새 교인이 늘어났다.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장년만도 1,500명을 넘어서 미주에서 가장 큰 이민교회로 성장했다.

1982년도에 새 교인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제직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임동선의 목사의 설교와 헌신, 봉사 때문이다. 임동선목사의 이민사역은 교회안은 물론 한인사회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고 그 이름이 날로 미주사회에서 알려졌다.

두번째는 동역목회자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고 교회를 위해 봉사에 열심인 장로, 권사, 집사 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선교 프로그램과 2세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넓은 교회 주차장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교인들이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는 1982년 평신도 전도 훈련시간을 많이 갖고 부활절,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총동원 주일로 전도를 잘했기 때문이다.

선교와 교육으로 이름난 교회, 좋은 교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갔다

할리웃과 한인타운에서 노방전도

선교부는 1982년 2월26일~28일 강순영강사(CCC 스텝)를 초청 평신도 전도 훈련을 은혜속에 마쳤다. 특별히 평신도 전도훈련에는 제직일동 및 구역강사, 구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선교부는 4월4일 부활절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온 교인들이 오후 1시~3시 노방전도를 나갔다. 각 기관장 인솔하에 전도지를 가지고 한인타운과 할리웃 지역을 순회했다.

▲김몽학장로는 올림픽을 중심한 한인타운 지역을 유년부 교사들과 함께 나갔고
▲오수훈장로는 8가를 중심한 한인타운을 중등부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갔고
▲정문섭장로는 멜로스를 중심한 지역을 고등부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나갔다.
▲김병곤장로가 인도하는 대학부는 할리웃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이민교회로서 노방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이었다. 특별히 청년회원들이 노방전도에 앞장을 섰다. 1982년은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길, 전도의 불이 붙은 한해였다. 전교인이 나서서 개인 전도를 열심히 했다. 온 성도와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해였다.

1982년 12월26일 주일 전도 및 구역 시상식을 가졌다. 이두섭집사는 1년간 모두 22명의 새 교인을 인도해서 전도상을 받았다.

▲전도상: 이두섭(22명), 방조영(8명), 최용숙(8명), 현용수(8명), 김광제(7명)
▲모범 구역장상: 김보근(64구역), 이덕자(133구역), 강금자(8구역), 박화진(33구역)
박경애(130구역), 최명숙(79구역)

새 교인의 등록이 크게 늘어나면서 2달에 1번씩 새 신자 환영예배를 드렸다. 친교봉사부가 주최

하는 환영회는 새 등록자와 인도자가 함께 참석을 해서 교회생활을 위한 안내 및 구역 배치 그리고 각 선교회 설명 순서 등을 가졌다. 새 교인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1982년 출석교인과 새 교인수

날 자	출석 교인수	새 교인수	날 자	출석 교인수	새 교인수
1월 3일	3,077명	7명	7월 4일		
1월 10일	3,074명	20명	7월 11일		
1월 17일			7월 18일	1,507명(1,2,3부)	15명
1월 24일	3,150명	11명	7월 25일	1,543명(1,2,3부)	8명
1월 31일	3,458명	11명	8월 1일	1,593명(1,2,3부)	3명
2월 7일	1,494명(1,2,3부)	12명	8월 8일	3,082명	8명
2월 14일	1,489명(1,2,3부)	16명	8월 15일	3,664명	21명
2월 21일	1,458명(1,2,3부)	10명	8월 22일	1,514명(1,2,3부)	5명
2월 28일	1,483명(1,2,3부)	10명	8월 29일	3,830명	16명
3월 7일	1,492명(1,2,3부)	22명	9월 5일	3,692명	17명
3월 14일	1,531명(1,2,3부)	15명	9월 12일	3,205명	5명
3월 21일	1,477명(1,2,3부)	15명	9월 19일	3,457명	10명
3월 28일	1,474명(1,2,3부)	7명	9월 26일	3,359명	10명
4월 4일	1,327명(1,2,3부)	4명	10월 3일	3,559명	19명
4월 11일	1,507명(1,2,3부)	16명	10월 10일	3,401명	18명
4월 18일	1,544명(1,2,3부)	13명	10월 17일	3,679명	13명
4월 25일	1,571명(1,2,3부)	4명	10월 24일	3,780명	15명
5월 2일	1,453명(1,2,3부)	16명	10월 31일	3,541명	4명
5월 9일	1,536명(1,2,3부)	12명	11월 7일	3,696명	12명
5월 16일	1,543명(1,2,3부)	8명	11월 14일	3,450명	16명
5월 23일	야외예배		11월 21일	3,328명	12명
5월 30일	1,530명(1,2,3부)	12명	11월 28일	3,622명	13명
6월 6일	1,403명(1,2,3부)	11명	12월 5일	3,764명	7명
6월 13일	1,402명(1,2,3부)	10명	12월 12일	3,562명	12명
6월 20일	1,416명(1,2,3부)	10명	12월 19일	3,476명	8명
6월 27일	1,475명(1,2,3부)	19명	12월 26일	3,449명	7명

**성령의 불길,
전도의 불이 붙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부흥한 해가
1982년이었다**

구역을 교구로, 10교구 71구역으로 확대

새로 등록하는 교인과 그리고 구역회원이나 각종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일반 교인들을 위해서 교역자 상담시간을 특별히 마련했다. 임동선목사와 각 교역자들은 매일 오후 6시~8시 교인들과 상담시간을 가졌다. 교인가정의 자녀문제, 직장문제, 신앙문제 등을 기도속에 상담을 담당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8시) 이기홍목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8시) 임동선목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이원희목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송정명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8시) 이중용목사

1982년 1월17일 새해 구역회 명단을 발표했다. 구역은 총 10교구 71구역으로 나누었다. 교구장은 목회자가 맡고 부교구장은 장로 그리고 총무는 안수집사가 그 책임을 맡아서 구역을 인도해 나갔다. 이때 처음으로 구역을 교구제도로 기구를 확대했다. 구역회를 위해서 작성한 새 교구 지침은 다음과 같다.

"구역원들이 신앙의 큰 일꾼될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한다" 구역을 교구로 확대

1. 금년부터 구역장과 강사가 직접 구역회를 운영하고 구역예배를 인도한다.
2. 구역장들은 구역 명단에 있는 교우들을 심방(또는 전화 심방)하여 구역회원들을 속히 파악 지도한다.
3. 구역회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회에 보고를 한다.
4. 구역예배를 실시한 곳은 즉시 교회 사무실에 보고한다.
5. 구역장들은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저녁, 금요기도회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여 은혜를 받는다.

교회는 매주일 주보에 구역예배 보고서를 특별히 게재했다. 이 구역예배 보고서는 지난 주간 구역예배 장소 및 인도자, 참석인원, 그리고 한달에 몇차례씩 구역예배를 드렸는지 통계 등을 적어 넣도록 했다.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의 구역예배를 위한 헌신은 물론 교회의 구역 인도자 훈련에도 적극 참석했다.

1982년 10월12일 주일 오후 4시 찬양예배 때 구역장 교육을 위한 특별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구역장 교육을 위한 헌신예배에서 정필도목사는「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잠 16: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동양선교교회 구역원들이 신앙의 큰 일꾼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한다"는 내용의 설교에서 모든 온 성도들은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 교구관리부는 교구를

▲중앙 1대교구
▲중앙 2대교구
▲중앙 3대교구
▲동부 대교구
▲서부 대교구
▲남부 대교구

▲북부 대교구로 나누었고 교역자 및 교구장 총무 구역장이 책임을 맡고 있다.

구역사업 및 행사 계획으로는 월별사업으로 중보기도팀 모임, 교구지도자 모임, 사랑의 전화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심야기도회를 가지며 특별계획으로는, 교구지도자 수련회, 사순절 연쇄금식기도회, 새가족 성경공부, 교구찬양대회,부부 초청 교구지도자 격려의 밤행사를 통해서 구역의 활성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해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

1979년부터 성지순례단을 1년에 한차례씩 모집했다.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단은 2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 영국, 애굽 등을 방문했는데 교역자의 인솔로 장로와 권사, 집사 등이 성지순례를 다녀 왔다.

1979년에 들어서 11월5일~15일 15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리고 이기홍목사가 인솔하는 성지순례단은 1982년 3월29일~4월8일 이스라엘과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속에 잘 마치고 돌아왔다. 이기홍목사는 1982년 6월에 발행된 동양선교교회 뉴스 제3호에 영국, 애굽, 이스라엘 방문 여행기를 실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감격, 그저 찬송과 기도 뿐... 성지순례를 해마다 실시했다



1979년 성지 순례길의 성도들

"1982년 3월29일 목사 네분과 함께 47명의 단원들이 11일간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방문에 올랐다.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자 벌써 종교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4월2일 우리 일행은 종일 성지를 순례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었다. 베들레햄에 가니 예수님이 낳으신 곳에 교회가 서 있고 탄생의 자리에는 베들레햄의 별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격의 고요한밤 찬송을 불러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했으나 무덤 안에는 「He is not Here, He has Risen」이 써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상기하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기도를 하며 성찬예식을 베풀고 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LA공항에 도착하여 교우들의 영접을 받고

본교회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좋은 기후, 풍성한 물자와 질서있는 교통망과 도로에 감사를 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세계선교에 힘쓰는 동양선교교회의 활동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성지순례 길의 교인들

성지순례에는 한우송, 한병선, 김성심, 박영애, 박채련, 이윤월, 백재현, 백은례, 이성례, 김보근, 김재순, 이명구 등이 다녀왔다. 1982년 4월29일 주일 오후 4시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인들의 성지순례 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교육부는 1982년 8월23일~9월 3일 이중용목사의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지순례는 매년 계속되었다.


성지순례길의 교우들. 임동선목사가 직접 인솔을 했다

모국선교를 위해
농어촌 교회 지원을
더욱 확장 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문을
더욱 넓혔다

모국선교를 위해 123개 교회 지원

해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참여를 했다. 선교부는 1982년 새해 선교 목표를 모두 10가지로 정했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3천교인이 나섰다.

1. 유럽의 독일지역 선교 (하이델베르그, 카이저슬라우튼, 칼수루) 3개의 교회를 지원하며 이태리의 로마 밀라노 2곳 교회에 선교 지원을 한다.
2. 미국내 선교로는 UCLA 와 Pierce College의 학원 선교를 적극 지원한다.
3. 미국내 선교로는 전도 훈련과 평신도 전도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4. 지교회를 계속 늘려나간다.

5. 모국선교 교회를 위해 더욱 확장해 나간다 (1982년에 지원하는모국선교 교회는 모두 123개로 늘어나서 미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돕는 교회가 되었다).
6. 중국 선교를 위해 현지 전도인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성경 및 찬송가를 보급한다.
7. 동남아 선교를 위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의 개척교회를 지원한다. 일본을 통해 중국 유학생을 통한 간접 선교를 한다.
8. 문서선교를 위한 계획을 전도지를 인쇄해서 전달하며 새 신자를 위한 전도 책자를 발간한다.
9.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농어촌교회 교역자 세미나를 추진한다.
10. 방송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 중국지역과 북한지역을 위한 선교방송을 하며 국내 미신자를 전도하고 설교 테이프를 보급해 나간다.

1982년도 선교계획의 하나로 송정명목사를 5월20일~6월11일 유럽에 파송했다. 송정명목사는 베를린, 카이저슬라우튼, 하이델베르그, 로마교회, 베니스, 나폴리 등을 순방했다. 로마는 한평우목사를 이미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지역이고, 독일에는 석태운목사의 후임으로 김정환목사를 선교사로, 그리고 밀라노에는 박상연목사의 파송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이다. 송정명목사는 6

세계선교의 한 부분을 OMC가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

1982년 매주일 선교비 낸 도표

1982년 4월 25일

날 자	선교비	날자	선교비	날자	선교비
1월 3일	1418(29명)	5월 9일	1955(46명)	9월 12일	936(30명)
1월 10일	1760(38명)	5월 16일	940(27명)	9월 19일	1315(33명)
1월 17일		5월 23일	야외예배	9월 26일	1812(46명)
1월 24일	960(17명)	5월 30일	770(8명)	10월 3일	1540(30명)
1월 31일	900(26명)	6월 6일	1662(52명)	10월 10일	1885(41명)
2월 7일	1355(32명)	6월 13일	2430(72명)	10월 17일	1941(54명)
2월 14일	1637(37명)	6월 20일	966(27명)	10월 24일	1600(40명)
2월 21일	2004(43명)	6월 27일	1875(34명)	10월 31일	1239(29명)
2월 28일	1572(51명)	7월 4일		11월 7일	1600(40명)
3월 7일	2682(59명)	7월 11일		11월 14일	2661.50(38명)
3월 14일	1195(46명)	7월 18일	1639(42명)	11월 21일	1912(45명)
3월 21일	1510(39명)	7월 25일	1880(42명)	11월 28일	786(16명)
3월 28일	1573(47명)	8월 1일	778(21명)	12월 5일	1674(42명)
4월 4일	1439(41명)	8월 8일	1135(30명)	12월 12일	1630(32명)
4월 11일	4934(31명)	8월 15일	1030(43명)	12월 19일	1615(43명)
4월 18일	808(17명)	8월 22일	2070(37명)	12월 26일	1380(36명)
4월 25일	1436(46명)	8월 29일	805(29명)		
5월 2일	2293(53명)	9월 5일	1895(44명)		

월11일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1982년 7월4일 오후 예배 때 유럽 선교여행 보고를 했다.

선교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전세계를 향해서 선교지역을 계속 넓혀 나갔다

"3주간의 선교여행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유럽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이 일을 담당하라고 하시는 뜻을 발견했다. 아울러 우리 선교정책은 동포선교에서 점차적으로 원주민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하겠으며 1차 대상 지역으로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많은 기도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다." (동양선교교회 뉴스 제4호, 1982년 7월 25일)

전세계를 향해 선교지역을 넓혀



파라과이 병원을 돌아보는 임동선목사

1982년 5월23일 파라과이 병원 건립을 위해 6천달러를 지원했고 8월29일에는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강두호목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선교부는 늘어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이 선교규정을 만들었다. 선교규정을 만들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으로는 김용서, 한건수, 이재권, 오해훈, 조웅래, 송정명 목사가 수고를 했다. 선교규정은 9월19일 최종 확정되었다.

1981년 성탄헌금 3만달러를 다음과 같은 구제사업에 사용했다.

1. 동양선교교회 어려운 교우 7가정
2. 한국
    1. 종교문제연구소, 개척교회
    2. 부산 용호 나환자정착마을 상애원교회
    3. 김천 도립병원
    4. 부산 신망애양로원
    5. 인천 동부개척교회
    6. 한국 기독교청소년선도회(교도소 전도)
3. 해외
    1. 태국 (홍성철선교사)

2. 캄보디아 난민 (극동방송국 통하여)
3. 아프리카 난민 (International Gospel League)

4. 기타
1. 남가주 한인기독교여전도회
2. 교역자
3. 한인동포 중 어려운 분 (2명)

「바람직한 이민 가정상」을 설교

이민사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임동선담임목사는 한인커뮤니티와 동포들을 위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한인사회의 어렵거나 힘든 일에는 교회가 나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새 이민자들이 남가주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겪는 문화 충격이나 직장, 사업, 자녀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임동선목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도록" 앞장섰다.

이민자인 우리는 바른 선택으로 미국에서 아름다운 역사 창조를 할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가 처음 초교파 독립교회로 출발한 것도 새 이민자들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였다. 좋은 가정과 아름다운 이민사회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한 목회자가 바로 임동선목사였다. 1982년 5월23일 주일 대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바람직한 이민 가정상」(에 4:4~17)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설교를 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다섯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만이 모두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개와 에스더 양녀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은 기록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바람직한 이민 가정의 위대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1)용감했습니다.
2) 공부 했습니다.
3)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4)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여성은 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결코 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히브리 민족이 전멸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국을 떠나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용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바른 선택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이민역사를 창조하는 교인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1982년 한해 동안 임동선목사가 설교에서 특별히 강조한 메시지는「선교와 전도」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다. 한인사회와 미국 주류사회를 위한 전도와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임동선목사는 1982년 9월5일 주일 예배 때「우리의 세계적 선교 사명」(막 4:35~3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이다"

"9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간곡한 선교적 사명을 밝혀주신 명령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1. 선교지역 문제: 전 세계가 선교지역입니다. (막 16:15, 행 1:18)
2. 선교의 긴박성: 곡식이 무르익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요 4:32)
3. 선교의 실제 문제: 일꾼을 보내야 합니다. (마 9:37~38, 행 13:2~3)

세계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세계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땅에 와서 사는 의미와 목적은 세계적 선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임동선목사는 1982년 9월26일 주일 예배 때에도「전도의 필요성과 그 방법」(요 4:13~19, 28~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마르셋느는 "믿는다는 것은 곧 증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 전도해야할 이유로는

1. 빚을 갚는 것(롬 1:14)
2. 자녀가 되는 것(마 5:9)
3. 열매를 맺는 것(마 13:8)
4. 화를 피하는 것(고전 9:16)
5. 별과 같이 빛나는 것(단 12:3)
6. 구원을 얻는 것(롬 10:10)
7. 상급을 받는 것(마 25:29) 입니다.

▲ 전도의 방법으로는

1. 제시(요 4:7) 2. 관심(요 4:10) 3. 욕망(요 4:14)
4. 각성(요 4:16) 5. 결정(요 4:19, 28, 29) 입니다.

오늘 이민생활의 고달픔 중에서 설상가상으로 큰 불경기를 만나서 모두가 염려와 고통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들여 내적 평화를 얻는다면 오늘의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선목사는 1982년 남미, 캐나다, 그리고 미주 내의 부흥회 초청강사로 하나님의 메시지

를 전했다.

▲남미선교여행(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파라과이한인연합교회, 알젠틴 교회, 브라질리아교회) : 3월16일~4월2일
▲캐나다 에드몬튼 연합교회 집회: 6월10일~17일
▲미네소타 장로교회: 8월6일~9일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12월10일~12일

임동선목사는 1982년 8월14일 LA힐튼호텔에서 열린 광복절 맞이 한미합동 아침기도회의 특별연사로 미국 인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자매교회인 파라과이한인연합교회가 세운 원주민 교회와 교인들

임동선목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81년 12월31일 국민훈장 동백장(교육부문)을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특별히 남가주 한국학원 발전에 기여를 했고 동양선교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2세 교육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다양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 마련

3천명 교인이 출석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속속 개발했다

3천명 출석교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기 위한 새 신앙 프로그램을 많이 시작했다. 성도간의 신앙 교제는 물론 대화와 친목, 그리고 상부상조의 생활을 위해 각 부서들이 나섰다.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는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 친교실을 오픈했다. 여전도회는 1981년 6월26일~27일 바자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1981년 10월18일 식당을 겸한 친교실을 설치했다. 새로 단장된 친교실은 교인들이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준비는 물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갖다 먹을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젊은 교인들을 위해 영아실이 문을 열었다

또한 젊은층 교인과 영아들을 둔 젊은 부부들이 계속 늘어났다. 2살아래의 어린이를 둔 젊은 부모들이 주일예배를 편안하게 드릴수 있도록 새로 영아실을 설치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를 영아실 교사에게 맡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또한 새로온 이민자들과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육부는 성인 영어 회화반을 설치했다. 지도교사는 미국인 켈리교수로 매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장년부 교사실에서 실시했는데 교인들의 초급 영어회화를 배우는 열기가 높았다.

1979년부터 해마다 10월에 가족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982년 10월17일 오후 찬양예배때 제4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를 열었고, 정완기목사는「찬송의 위력」(행 16:19~34)이라는 설교제목으로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인들이 될 것"을 말씀으로 전했다.

1980년 2월17일 처음 체육분과위원회를 조직했고 교회 안의 모든 스포츠 행사를 주관하도록했다. 위원장은 남상수, 부위원장 엄창웅, 위원에 박재호, 박정자, 정상근, 장건섭, 장인국을 위촉했다. 체육분과위원회는 1982년 위원장에 최상집, 부위원장 엄창웅, 위원 박승원, 유광열, 김치용, 김영철, 그리고 정완기, 송정명목사를 임명했다. 체육관리위원회는 1982년 11월13일 그리피스팍 테니스코트에서 제1회 당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는데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단식우승: 박태형	준우승: 이석원
A조 복식우승: 박태형, 조정현	준우승: 신상우, 이석원
B조 단식우승: 유병욱	준우승: 이성호
B조 복식우승: 한긍리, 유병욱	준우승: 김지수

새 이민자를 사랑하는 교회, 생활안내에 열심인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갈릴리 청년회, 「생활봉사센터」 시작


김주희박사초청 대학진학 세미나

해마다 3만명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하면서 남가주 한인사회도 빠르게 성장해 갔다.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지도부를 통해서 이민자 생활안내 및 봉사 폭을 넓혀 나갔다. 1982년 생활지도부는 이민자 봉사업무 5가지를 펴나갔다.

첫째는 새 이민자의 생활안내를 계속 열심히 해나간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전화, 전기, 개스, 학교, 공공기관 알선을 위해 먼저온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번째는 교인들의 취직알선을 돕는다.

세번째는 이민자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신앙을 지도한다.

네번째 교인들이 검소한 이민생활을 하도록 안내한다.

다섯번째 각계 전문가를 초청 생활강좌를 실시해 나간다.

안전운전 안내서를 만들어 새 신자들에게 배부를 하고, 공인회계사를 초청 무료 세금 보고 및 상담을 해준다.

1982년 2월7일 갈릴리 청년회는 교회안에 「생활봉사센터」를 만들었다. 생활봉사센터는 교인들로부터 헌 가구 생활필수품을 수집하여 새 이민자에게 전달했다. 생활지도부는 대학부와 함께 4월18일 교회 성도는 물론 한인사회의 학부형, 대학생, 중고등학생을 초청, 전문직종 자격 제도 및 대학진학 안내를 해주었다.

특별히 1982년 8월16일~28일 매일 오후 8시부터 교육관에서 이민생활을 진단하는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노삼열교수(UWO 런던대학 박사과정 이수)를 강사로 초청,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용, 이민사회와 교회의 장래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잘 마쳤다.

좋은 교사들이 좋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회를 목표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 교육의 성공적인 요인을 강의

교육부는 1982년도를 교회학교 교재 개발과 장년부 성경공부 강화의 해로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대학부의 교사확보,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예산을 늘려나갔다. 특별히 각급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신앙 강화를 위해 교사수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교사 수양회를 마치고 시스키토 수양관에서

교육부는 1982년 2월5일 시스키토 수양관에서 교회학교 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에 수양회를 가졌는데 강사는 대만과 일본 선교사인 아담스박사였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특수반,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석해서 「교회교육의 성공적인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3월에는 제3회 교사훈련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5일~7일 가진 교사 훈련세미나의 주제는 「공과 준비법」이었다. 강사는 랙스 존슨박사(Dr. Rex Johnson)와 이원희교육목사가 맡았고 교사의 역할과 공과 준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특별히 4월 한달간 갖가지 교육 행사를 주최했다. 4월15일~17일 석보욱목사를 강사로 초청 청소년 복음화 대회 「Come to Me」를 개최했다. 4월 25일 주일예배때는 교육헌장 공포 및 교육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동양선교교회는 무엇보다도 "좋은 교사들이 좋은 학생을 가르친다"는 목표로 교사세미나를 계속 주최했다. 6월11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시청각 교회교육을 시청했고, 10월17일에는 아주사 퍼시픽대학교 Dr. Kegham Tashjiam을 초청, 「How do student learn?」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 교사들의 자질과 신앙심을 더욱 높여 나갔다.

교육부장 정문섭장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하자, 그리고 교사확보와 훈련에 힘을 썼다. 그리고 교육비품을 많이 마련했다"고 당시를 말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1천명 학생이 공부

유년주일학교는 매년 여름방학중에 성경학교를 개설했다. 남가주지역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여름성경학교에는 타교회 어린이와 비신자 자녀들이 등록을 했다. 1980년 8월13일~16일 개설된 여름성경학교는 선착순 1천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만4살~6살 한인어린이가 참가하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교회는 학교 버스로 직접 학생을 픽업했고, 주제를 「Lord and Savor」로 정했다. 참가비는 영어교재를 포함 3달러를 받았고 어린이들에게 T-셔츠와 노래책, 맛있는 간식을 4일간 제공했다.

학교를 마칠 때에는 수료증과 예쁜 선물을 주었다

여름성경학교에는 참가 학생이 계속 늘어났다. 학생들이 등록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남가주지역 학부형들이 여름방학중에 자녀를 꼭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칠 때에는 수료증과 예쁜 선물을 주었다. 유년주일학교 및 여름성경학교는 이중용교육목사가 책임을 맡아 크게 헌신을 했고 교회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주일오후 찬양예배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1982년 8월 15일
오후 4:00 — 사회: 홍성호 선생

묵 도		다같이
찬 송	234장	다같이
기 도		조소양 선생
성경봉독	다니엘 12장 3	사회자
찬 양		주 교사 일동
설 교	영원한 보상	이중용 목사
학사보고		유년부장 김몽학 장로
헌 금	549장: 기도 정우선 집사	다같이
광 고		교회
축 도		이원회 목사
보고 및 발표회		어린이



동양선교교회 여름성경학교에는 갈수록 학생이 늘어났다

청소년 복음화 대회 「Come to Me」 개최

부모를 따라 이민온 청소년들은 처음 미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학업성취 등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두 문화권 사이에서 타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 청소년들은 신앙을 통해서 이민생활을 생산적으로 잘 이루어 갔다.

젊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운동, 「Come to Me」 라는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다

중고등부는 1980년 4월3일~5일 「Come to Me」 제1회 청소년 복음화대회를 개최했다. 부활절 기간에 가진 제1회 집회는 본 교회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LA지역의 한인학생들이 참여해서



「Come to Me」 (청소년 복음화운동)에서 복음성가를 연주하고 있는 청소년 형제들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크게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2회 청소년 복음화대회는 1981년 4월15일~17일 김홍수목사(시카고 Fellowship Church)를 초청, 성황리에 마쳤다. "예수는 우리의 참 소망" 이라는 주제로 열린 복음화 대회는 김홍수목사가「하나님이 부르시는 청소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소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일 저녁 집회에 600여명의 한인 중고등학생들이 참석 했다. 집회에서 30여명의 젊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서「예수는 정말 부활 하셨는가」,「사도바울의 생애」등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이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내용의 세미나를 주최했다, 시교육위원이나 마약문제 전문가 등을 초청, 학생과 부모가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청소년을 위한 여름학교를 시작 4주간에 걸쳐서 성경, 한국역사와 문화, 수학, 컴퓨터, 화학, 영어, SAT 등을 가르쳤다.

4주간에 걸친 청소년 여름학교는 한국역사와 문화 수학, SAT를 가르쳤다

1980년대 초 중등부와 고등부 회원들은 활발하게 신앙활동과 교회 봉사활동을 잘 해나갔다.

1982년도 고등부 임원

▲회장: 이정우 ▲부회장: 신윤정 ▲총무: 홍경아

1982년도 중등부 임원

▲회장: 이정철 ▲부회장: 샘정(남), 김주희(여)
▲총무: 홍성하

1983년도 고등부 임원

▲회장: 이병덕 ▲부회장: 채영숙 ▲총무: 신용섭
▲서기: 이윤정 ▲회계: 윤미경 ▲신앙부장: 한제교
▲문화부장: 조상희 ▲봉사부장: 신윤정 ▲친목부장: Raymond 서
▲음악부장: 이승훈 ▲체육부장: 유병욱

1983년도 중등부 임원

▲회장: 이종철 ▲부회장: 정규호, 김연수 ▲총무: 선이오
▲서기: 캐티조 ▲회계 : 유니스박

「Come & See」 대학생 부흥회

대학부는 해마다 「Come & See」 라는 부흥회를 개최, 남가주지역 대학생들에게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요한목사가 담당한 대학생 부흥회는 남가주지역에서 젊은이를 위한 좋은 신앙집회로 발전해 나갔다. 대학부는 특별히 캠퍼스선교에 크게 비중을 두었고 UCLA와 Cal State LA 등Bible Class를 통해서 학원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대학부 회장을 맡은 임원들은 신앙적으로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이었다.

1980년 대학부 새 임원

▲회장: 노창수 ▲부회장: 홍은경 ▲서기: 이진수 ▲총무: 이창환

1981년 대학부 새 임원

▲회장: 최진기 ▲부회장: 이혜경 ▲총무: 송창현 ▲서기: 이미영
▲회계: 이선혜 ▲신앙부 부장: 노창수, 차장: 한혜경
▲문예부 부장: 이진수, 차장: 김수영 ▲친목부 부장: 이창섭, 차장: 이은경
▲섭외부 부장: 장하준, 차장: 안현주 ▲봉사부 부장: 이상철, 차장: 노선웅

「Come & See」는 남가주 지역 대학생의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석규목사 초청, 1980년 「Come & See」 부흥집회

해마다 대학부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부흥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지역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갖는 「Come and See 」부흥회는 3일동안 계속되었고 1980년에는 김석규목사(산호세 제일교회), 1982년에는 동양선교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했던 이요한목사(시카고 한인복음교회)가 강사로 초청을 했다. 동양선교교회는 「Come and See 」라는 남가주지역 한인대학생 부흥회를 처음으로 시작, 이민생활을 하는 수많은 젊은이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캠퍼스 성경공부는 학원선교로 발전되었고, 대학생 세계 선교로까지 이어지는 학원선교 (KCM)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 대상 필그림합창단 창단

본 교회 성가대는 규모로나 음악 수준으로 남가주 교계에서 가장 이름난 성가대였다. 음악부는 1년에 2차례씩 성가대 헌신예배와 수양회를 갖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가대가 될 것을 다짐했다. 1980년 5월25일 음악부는 김두완장로(서울 영락교회 지휘자 및 작곡가)를 초청 「찬양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성가대 특별강좌를 가졌다. 당회는 1981년 8월9일 성가대 2부 반주자로 곽정란을 임명했다. 그리고 1981년 9월6일 1부 성가대를 호산나성가대로 이름을 정하고, 2부 성가대는 시온성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1부성가대(호산나 성가대)
▲대장: 김여근, 지휘:원덕영, 피아노 반주:김남형, 총무:황재룡, 대원 35명
2부성가대(시온 성가대)
▲대장: 이성호, 지휘: 서문욱, 피아노 반주: 이은경, 총무: 최상집,
독창자: 이귀임, 대원 50명

은혜의 성가대, 기쁨주는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되었다

1982년 음악부 운영규정을 심의해서 새로 정했는데 위원으로는 오해훈, 이재권, 강영구, 이기홍목사가 수고를 했다.

음악부 운영규정은 총14장으로 되어있는데 제1조는 「본 규정은 본교회의 예배, 전도 및 신앙훈련을 돕는 성가대 및 합창단의 질서 유지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음악부는 1980년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청소년 합창단을 창립하기로 하고 단원을 모집했다. 필그림합창단으로 이름을 지은 청소년합창단은 노래선교 활동과 교회봉사 사회기관 방문, 성가대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창단을 준비했다. 대상은 초중고등부(8세~17세) 중에서 약 30명을 선발했다. 2개월간 준비 끝에 1980년 9월21일 필그림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임원
▲단장: 강영구 ▲부단장: 김병곤 ▲총무: 안정현
▲지휘자: 서문욱 ▲반주자: 강혜영
▲후원회 회장: 오수남 ▲부회장: 정상근 ▲총무: 김지수
▲이사: 한건수, 정상근, 김지수, 김명균, 원덕영, 김병곤, 김광락, 조영근,
안정현, 이성호, 김동규, 이원열, 김광돈, 백형권, 심상수, 최상집,
김일영, 김홍일, 금봉숙, 오영옥 ▲고문: 이기홍

1980년 10월5일 필그림합창단 창단예배를 은혜와 축하속에 하나님께 드렸다.

선교 4중창단, 남성합창단 및 Orchestra 조직

각 전문분야별로 출석교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어진 달란트를 선교와 교육봉사를 위해 바치는 좋은 신자들이 많았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4중창단」 찬양팀을 새로 조직했다. 「선교 4중창단」은 1981년 11월15일 주일 오후 4시 선교를 위한 첫 「찬미의 밤」예배를 드렸다. 선교 4중창단은 제1 테너에 황규일, 제2 테너에 안성국, 제1 베이스에 강성환, 제2 베이스에 박승원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날 성가대 지휘자인 서문욱집사 지휘로 「기원」, 「은혜로우신 주님」 등 모두 13곡의 신령한 찬양을 불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높은 음악수준을 보여준 선교4중창단

음악부는 새로 동양선교교회 오케스트라를 조직했고 1981년 11월20일 「성탄 축하의 밤」 순서에 출연했다. 주성철선생(현재 콜로라도한인교회 담임목사)이 지도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김제니, 워니수젯, 최용석, 신용섭, 정재환, Sam정, 홍창실, 김낸시, 황찰스, 준김, 최알린, 김지영, 최선영, 조베니, 한리처드, 정앨리스, 배빌, 이페티, 김은경 등이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찬미하며 복음전파를 위해 선교 4중창단을 조직했다

동양선교교회 오케스트라는 1982년에는 청소년 관현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1982년 4월3일(토) 오후 6시에 자선 음악회를 가졌다. 33명의 단원으로 늘어난 관현악단은 1982년 8월29일 주일 오후 4시 하기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순서는 이기홍목사가 「찬양의 크레센도」라는 제목으로 음악회 축하 설교를 했고, 2부 순서는 청소년 관현악단의 연주 및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은혜속에 마쳤다. 하기 음악예배의 지휘자는 주성철선생이 맡아서 수고를 했다.

1982년 7월8일 주일 오후 4시 남성합창단 창단을 축하하는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서울에서 온 조종남목사(서울신학대학 대학원장)가 은혜로운 설교를 맡았다. 새로 창단된 남성합창단은 11월14일 주일 제1회 남성합창단 성가발표회를 가졌는데 온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성합창단은 단장조정현, 지휘에 서문욱, 반주는 강혜영이 맡았다.

▲제1 테너: 강영구, 김홍일, 조정현, 황규일
▲제2 테너: 강영찬, 김지수, 안성국, 유정현, 정철훈, 조규철, 최상집, 오수훈
▲바리톤: 강성환, 박정수, 백영두, 조병헌
▲베이스: 김평천, 박승원, 백중용, 이근무, 이성호, 이성원, 이영이, 이호남, 유병철, 강현수, 최영철

임동선목사는 남성합창단 창단공연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과 찬양의 역사요, 신약의 예수님, 바울, 성도들의 역사도 전도와 찬양의 역사요, 기독교 2천년의 많은 순교자들도 마지막 찬송을 불렀으며, 장차 천국생활은 항상 찬송의 생활이라 했습니다. 찬송은 부르는 자신에게 은혜가 됨은 물론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소망과 기쁨, 은혜와 용기, 그리고 신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성합창단이 계속 질과 양으로 발전하여 이민생활에 고달픈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끼치고, 불신자를 많이 구원하며 모든 이민교회의 부흥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임동선담임목사에 첫 안식년 허락

"사도 바울이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파, 그 길을 걷고 싶다" 임동선목사는 안식년에 선교여행을 떠났다

당회는 1983년 임동선담임목사에게 안식년을 허락했다. 안식년은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7년에 1년씩 자유케 하도록 하시는 법」으로 1년동안 쉬라고 주신 시간이다. 임동선목사는 12년전인 1970년 7월26일, 47세의 나이로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하고 불철주야로 복음사업에 헌신했다. 그리고 이민교회로 3천명 교인이 출석하는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시킨 후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은 것이다. 임동선목사는 초인간적으로 목회를 했고 당회와 온 성도는 큰 수고와 공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첫 안식년을 허락한 것이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안식년을 허락해준데 대해서 처음 사양을 했다. 하지만 안식년 기간 중에 전세계를 목장으로 선교할 곳을 답사하기 위하여 안식년을 받아들였다. 담임목사에게 1년간 안식년을 허락하고 세계 선교여행을 하도록 지원한 것은 남가주 이민교회로서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 한 일이다.

전성도들도 임동선목사에게 안식년을 준 것을 기뻐했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온 성도는 담임목사가 3차에 이르는 세계 선교 여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다. 스티브임집사는 3만달러를 선교비로 전달했다. 안식년을 허락 받은 임동선목사는 세계 선교여행의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찼다. "안식년 기간 중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욱 선교 현장을 다니며 전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될 주의 종된 사명을 더욱 이루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동선목사의 영어이름은 바울(Paul)이다.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바로 그 길을 걷고 싶어 해서 영어이름을 바울로 정했다. 임동선목사는 바울처럼 안식년을 통해서 세계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1년 계획을 세웠다. 임동선목사는 1983년 1월25일 제1차 동남아시아 선교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1월23일 주일 대예배 때 「부흥하는 교회」(행 11:19~28)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감사속에 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부흥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올바르게 부흥하는 교회는

1. 개인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적 부흥을 위해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2. 교회자체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외적 부흥으로 작은 부서를 조직하고 은혜를 분배하며 상부상조를 해야합니다.
3. 교회확장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팽창하는 부흥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지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4. 제3세계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교량적인 부흥으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진정한 교회부흥은 이 4가지를 겸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4가지를 잘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일찌기 안디옥교회가 이 4가지 면에서 부흥을 가지므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4가지 면에서 부흥하므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주와 동남아로 1차 선교여행

임동선목사는 안식년의 제1차 세계 선교여행을 위해 1983년 1월25일(화) 오후 임재순사모와 함께 2개월간 일정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떠났다. 임동선목사는 1차 선교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대만 등 11개국을 순방한 후 3월18일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LA로 돌아왔다.



안식년 선교여행 때 시드니를 방문한 임동선목사와 임재순사모

1983년 동남아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일정은 다음과 같다.

▲호주 한인장로교회 집회인도 : 1월27일~2월2일
▲뉴질랜드 집회 : 2월2일~5일
▲필리핀 한인교회집회 : 2월5일~11일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집회 : 2월11일~15일
▲방글라데시 선교자료 수집 : 2월16일~18일
▲인도 선교지 답사 : 2월18일~25일
▲태국 원주민교회 집회 : 2월25일~3월8일
▲홍콩지역 연합집회 : 3월8일~14일
▲대만 한중목회자 세미나 : 3월14일~17일

임동선목사는 3월20일 주일 예배 때 선교보고를 겸한 설교에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선

교 사명을 더욱 열심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회장 임동선목사의 안식년 출타 중의 직무대행은 이기홍목사(수석 부목사)가 맡았다. 그리고 주일예배의 1부, 2부, 3부 설교는 이기홍목사, 이원희목사, 송정명목사, 이중용목사, 임병택목사가 맡았고 엘마 길보른선교사(OMS 한국주재 책임자, 한국에서 30년 근무), 황재열목사(일본주재 선교사), 정진경목사(서울 신촌교회), 홍성철목사(태국 선교사) 등 외부 초청강사가 주일설교를 했다.

중국, 일본, 한국으로 2차 선교여행

중국 10억 인구의 복음화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을 생각하는 2차 선교여행 길이었다

임동선목사는 다시 1983년 5월30일 임재순사모와 함께 안식년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7월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국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었다.

중국에는 임동선목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연길과 왕청의 교회를 돌아보고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면접하며 신앙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다. 주일이면 교회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양성적으로 예배인도는 할 수가 없었다.

교역자가 없으므로 신자들은 서로 돌아가며 라디오 또는 성경읽기로 주일을 지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재림 뿐이었다. 40년동안 굳게 닫혔던 외계의 소식을 듣고자 임동선목사가 묵고있는 집으로 몰려왔고 모든 의문나는 점을 묻기도 하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알기를 원했다.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지도자가 없어서 목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간절했다.

임동선목사는 그들과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며칠을 지냈다. 내년에는 교회문을 열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들이었다.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임동선목사는 자유를 모르고 한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다. 중국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0억 인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동양선교교회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중국의 조선족 교회

임동선목사는 중국 선교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다. 임동선목사는 일본 경도 한인교회에서 3일간 은혜의 잔치를 인도했다. 재일동포들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면서 많은 학대와 설움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웃으며 사는 모습에 임동선목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신자들은 일본을 왕래하는 많은 손님들 중에 전도자

들이 있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자주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에게서는 신앙의 간절한 마음이나 뜨거움은 보이지 않았다. 더우기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딛치는 힘이 적어 보이고 지나는 손님 전도자의 대우인듯한 것을 임동선목사는 느꼈다. 2차 중국선교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7월8일 LA에 도착했다. 선교여행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다. 그리고 선교여행은 바로 기도의 여행이었다.

아프리카, 유럽을 향한 3차 선교여행

임동선목사는 1983년 8월30일 안식년의 제3차 선교여행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 아프리카 5개국과 유럽 6개국의 선교를 마친 뒤 10월14일 돌아왔다. 임동선목사는 1983년 10월 23일 주일 예배 때 3차 선교여행을 주제로 한「검은 대륙은 부른다」(행 16:6~11)라는 제목으로 선교여행 설교를 했다. 오후 4시 저녁 예배 때에도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 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선교여행에서 돌아오고 다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까지 다시 강단에서 주일설교를 맡았다. 부활절 · 추수감사절 ·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안식년의 선교 일정을 이 계절과 겹치지 않도록 짰다. 또한 안식년 기간 중에도 미주지역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했다.

▲하와이 중앙교회 부흥회 인도: 1983년 4월7일~10일
▲롱비치 한인커뮤니티교회 부흥회 인도: 1983년 4월29일~5월1일
▲아틀란타 한인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1983년 5월5일~ 8일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연합집회 인도: 1983년 10월19일~ 22일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1983년 11월4일~ 6일
▲LA시온성결교회 부흥회 인도: 1983년 11월10일~ 13일

임동선목사에게 1983년 1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한해였다. 1월에는「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이라는 간증수기를 펴냈고, 본 교회 교인은 물론 남가주 교계에서 크게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많은 동포와 교인들이 이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1983년 11월12일(토) 오후 4시 임동선목사 60회 생일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승광, 임승혜, 임승향, 임승천 네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초청 소연을 베풀었다. 온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임동선목사의 건강과 복음 사명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담임목사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했다.

「교육하는 교회되자」 성경 읽기 운동

1983년도 표어는 「교육하는 교회」로 정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했다. 실천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공부 합시다", "성경대로 생활합시다"의 세가지였다. 성경 읽기 운동의 행사로는 3월 셋째 주일에 성경 구절찾기 대회를 개최했고, 6월 셋째 주일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그리고 9월 셋째주일에는 성경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전교인을 나이별로 나누어서 성경공부반을 편성했다. 교회는 전교인이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성경읽기 카드와 성경 읽기 신청서 용지를 준비해서 전교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구역장 및 구역강사는 구역 예배때 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1983년 6월5일부터 10월30일까지 22주간에 걸쳐서 성경영화를 통한 창세기 강해 시청각 교육이 어린이 주일학교 교실에서 열렸다.

성경암송대회를 6월19일 개최했는데 입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3년 1년간 박완순권사는 신구약을 7번 읽어서 성경읽기운동에 1등을 차지했다

▲교구대항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4교구 1등상: 1교구 2등상: 7교구 3등상: 10교구

개인상: 암송부문 최명숙집사 구절알아 맞히기 부문: 이은미

12월14일 11개월에 걸친 성경 읽기 운동에 대한 종합시상식을 가졌다.

▲신구약 6 독상: 박화진권사, 김추자집사, 조지현집사, 한부일집사, 김순장로

▲신구약 5 독상: 박옥집사, 주숙희집사, 원준옥집사, 강복순권사

▲신구약 4 독상: 최복례권사, 박영애권사

▲신구약 3 독상: 권길완권사, 이춘자, 김옥자집사, 최용숙권사, 이항순권사, 김병희권사

▲신구약 2 독상: 유순임집사, 하애도권사, 원주영권사, 도근희집사, 이윤월집사, 김보근권사, 김재순권사, 강순남집사, 이득실, 원용악장로, 원은의권사, 강금자권사, 김성심권사, 이석현집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에는 모두 205명의 성도가 참가했다. 1등을 차지한 박완순권사는 신구약을 7번 읽었는데 이는 매일 25장씩 성경을 읽은 것이다. 12월14일 오후 4시 저녁예배때는 성경 다독자 시상을 위한 특별예배를 드렸다.

창립 13주년 기념부흥회 및 장로 장립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념부흥사경회와 기념예배 그리고 장로장립, 집사안수 및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기념부흥사경회는 1983년 7월26일~30일 뉴욕한빛교회 정승일목사를 강사로 초청을 했다. 정승일목사는 7월31일 창립13주년 기념 주일 예배때에 「하나님의 교회」(고전 1:1~3)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였다.

"무릇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향기로와야 되겠지만 지상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고린도교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현상을 보면서도 어디까지나 낙심치 않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설립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시기 위한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것입니다."

1983년 7월 31일 오후 2시30분 창립 13주년 기념 장로장립, 집사 안수 및 권사취임 예배를 온 성도의 축하속에 드렸다.

▲장로 장립: 신윤철, 안정현, 조규철

▲집사 안수: 김지수, 백중용, 백형권, 이호남, 정만혁

▲권사 취임: 성인호, 윤자혜

새 역사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후세에 좋은 유산입니다

임동선목사는 창립기념 다음 주일인 8월7일 주일 설교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삶의 자세」(고전 9:24~27)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다른 1년을 위해서 해나가야 할 사명을 전했다.

"우리는 교회 창립기념 13주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14주년을 내다 보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1.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합니다 (고전 9:26)
   (1) 장막을 넓히자(사 54:2)
   (2) 내집을 채우라(눅 14:23)
   (3) 교육, 선교, 봉사하라(마 9:35)
2.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빌 3:13)
   (1) 지난 실패를 잊어버리자 (히 8:12)
   (2) 지난 업적도 잊어버리자 (빌 3:12)
   (3)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리자 (빌 3:14)
3.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잠 3:5~6)
   (1)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 3:6)
   (2)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 (잠 3:5)
   (3) 끝까지 온전히 그를 의뢰하라 (잠 3:5)

우리는 또 하나의 성스러운 새 역사 창조를 위하여 다같이 힘을 합하여 달려 갑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새 역사를 창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후손

들에게는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6차 단기 선교사에 이원희목사 파송

제6차 모국 단기 선교사로 이원희목사를 파송했다. 이원희목사는 1983년 4월25일~5월25일 단기 선교사로 한국의 농어촌 43개교회를 순방하고 돌아왔다. 특별히 이원희목사는 한국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있는 동안 교인들이 헌금한 모국 농어촌교회 선교용 자전거 35대(1대당 100달러)를 직접 전달했다. 1983년도에는 모두 140여곳의 농어촌교회에 선교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희 단기 선교사는 한국의 농어촌교회 순방중 다음과 같은 선교 서신을 보내왔다.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와 은혜로운 일이 많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원하에 농어촌교회를 순회중인 저는 지금 인천 연안부두에서 오후 1시 배를 기다리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간 당회장 목사님, 원로목사님, 그리고 동역자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 온 교우께서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건수장로님께서 분주한 가운데 그 동안 저와 동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일본으로 떠나시고 나 혼자 외롭게… 금주 말과 내주에는 군산지방과 전남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날씨는 비가 계속오고 폭풍 주의보가 내려서 도서지방 순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격어린 간증거리와 은혜로운 일이 많이 있어 돌아간 이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전거 35대는 부탁하는 교회를 순회하며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선물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순회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5월12일

이원희목사는 1개월간의 모국 농어촌교회를 순방한 후 5월26일 무사히 돌아왔다. 6월 5일 주일 예배 때 이원희목사는 「가장 불쌍한자」(고전 15:19)라는 제목으로 제6차 모국 단기 선교 보고를 위한 설교를 했고, 이날 오후 4시에는 단기 선교여행 때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동남아시아 원주민 선교의 문 열어

안식년으로 세계선교를 위한 3차에 걸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임동선목사는 동남아선교를 위해 선교지 확장 등에 나설 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동남아는 인구 폭발과 정치적 불안, 빈곤, 무지, 공산주의의 팽창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종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선교를 시작한지는 2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교의 불모지로 불리우며 해외선교사들이 12억 인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선교사역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의 최전방지대 동남아시아를 향해 원주민 선교에 문을 열어 나가기 시작했다.

동남아를 위한 첫 선교 사명으로 1983년 5월29일 마닐라 한인교회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정신택담임목사를 선교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윤수환목사가 시무하는 시드니 한인장로교회와도 자매결연을 맺었다.

선교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현지 목회자를 위해 매월 100달러씩 보냈다. 1983년 9월11일 주일 저녁예배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임세종선교사를 초청, 선교 보고예배를 통해서 현지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렸다.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파라과이한인연합교회에는 새로 강두호목사가 1983년 6월14일에 부임했고 더욱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선교 불모지인 동남아의 12억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사역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1983년도 선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모 국 선 교: 142개 농어촌 교회 매월 선교비 지원
▲동남아시아 선교: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대만,
아시아연합신학원
▲유럽 선교 : 이태리 로마, 밀라노
▲방송 선교 : 극동방송의 대 중국방송
▲학원 선교: UCLA, CSUN, Pierce College
▲자매 결연: 일본 동경한인연합회, 호주 시드니한인장로교회
브라질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선교사 : 일본 (황재열선교사)
필리핀 (정신택선교사)
이태리 (로마: 한평우선교사)
이태리 (밀라노: 박상연선교사)

창립 13주년기념 자선음악회 큰 성황

음악부는 1983년 10월29일 윌셔 이벨극장에서 극빈자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는 동양선교교회의 연합성가대, 선교4중창단, 남성합창단, 핸드벨 콰이어, 여성합창단, 천사합창단, 독창, 피아노 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티켓은 1인당 3달러에 판매했는데 본교인은 물론 타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큰 성황을 이룬 자선음악회였다. 이날 헌금은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했다.

자선 음악회를 갖고 수익금은 남가주지역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했다



남가주 교계에서 이름난 동양선교교회 성가대의 자선 음악회

음악부는 1983년 3월6일 여성합창단을 조직했는데 단장에 이성호, 지휘 이귀임, 반주 곽정란, 부반주 임연옥, 총무에 김희숙을 임명했다. 4월10일 주일 여성합창단은 창단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성합창단 명단

▲제1소프라노: 강은희, 임연옥, 이문자, 박경애, 김경자, 김영자, 홍옥련, 김효정, 김지화, 김지윤, 함순화, 최근숙, 정혜현, 이성호

▲제2소프라노: 조병희, 노영자, 조희순, 최명숙, 오순자, 박행자, 백미섭, 황미자, 김정주, 손영욱, 김영선

▲앨토: 안복희, 김희숙, 조지현, 이영덕, 김미영, 송순애, 윤경홍, 김순자

이성호여성합창단 단장(현재 밸리제일장로교회 권사)

"3개월간 연습을 한 뒤 창단예배를 드렸다. 언제나 먼저 기도를 드리고 연습을 시작했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합창단으로 발전해 나갔다. 연합합창단 대회때 교회대표로 나갔고, 32명의 단원들은 「노래를 멋있게, 표정은 밝게,

마음은 밝게」라고 생각하고 생활이 찬양이 되도록 노력했다."

1983년 9월4일 관현악단을 처음으로 조직했다.
▲단장: 김여근,
▲단원: 정경훈, 이성모, 배정옥, 김남형,
장문석(첼로), 홍영애(플룻)

그리고 교육용 복음성가편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으로는 정완기목사, 그리고 유병한, 임연옥, 임혜경, 이성원, 서문욱, 정명철, 신경진집사를 임명했다.

3부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던 원덕영집사는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기 위해 사임을 했다.


성인 및 청소년 관현악단 합동연주

교회지도자 양성위해 장학금 지급

대학부 회장 출신중 목회자의 길 가기로 하나님께 서약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교회는 장학금을 지급

새 이민사회 형성과 함께 신앙심이 깊은 대학생들이 교회 봉사와 학원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을 했다. 1975년이후 대학부 회장을 지낸 몇명의 대학생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1981년에는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임동선담임목사가 맡았고 위원으로 이기홍목사, 이원희목사, 한건수장로, 박계로장로, 오해훈장로, 이재권장로를 임명했다.

1983년 2월6일 신학교 지망자 모임을 처음 가졌다. 그리고 3월20일 주일 오후 5시 신학교 지망생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장학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특별강좌에서 임동선목사는 소명받은 학생들에게 특별메시지를 전했다. 4월24일 오후5시 신학생 지망생과 일반교우를 대상으로 미국의 군목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미육군 군목 소령 루이스 심목사로 「미국에서 군목이 되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다.

1983년 4월23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장학위원회의 평생회원(임동선, 임재순, 이재권, 방미철, 김추호, 김창규, 조정현, 김지수, 박채련, 한경수, 이상윤, 전송택, 이상숙, 정봉모, 안수정, 이영송, 노지현, 황명준) 18명이 참여를 했다. 장학회 위원장에는 이재권, 부위원장에 방미철, 위원으로는 이기홍, 오해훈, 이영송, 김창규, 이상윤이 임명되었다.

1983년 5월22일 주일 오후 4시예배는 특별히 사명자를 위한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유용규강도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헌신」(요 6:1~15)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6월5일 주일부터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줄 장학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1983년 6월26일

장학위원회는 신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혜 신청을 받았다. 8월21일에는 본 교회 출신 신학생 5명을 위해 권사들로서 기도의 어머니를 선정했다. 기도의 권사들은 신학생이 목회자가 될때까지 매일 기도를 드렸다.

▲이창헌(웨스트민스터 신학교 3학년): 강금자권사
▲이승림(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입학): 박채련권사
▲강형모(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입학): 이옥엽권사
▲노창수(그레이스 신학교 입학): 김보근권사
▲최진기(그레이스 신학교 입학): 김재순권사

1984년 9월9일(주일) 1부 예배후 당회장실에서 가을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승림, 최진기, 김진광, 강형모군과 엄애경, 장문자에게 달라스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본교회 출신 노창수, 김수영에게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교회버스는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타운을 돌며 교인들을 픽업했고 봉사자가 많았다

▲이재권장로(밸리 제일장로교회)
"대학부 부장때 동양선교교회에서 헌신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50명의 학생중 15명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신학교 지망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기도의 단을 쌓는 등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했다."

대형 버스 1대 기증, 모두 7대로

1972년 5월14일 이민교회로 처음 중형 교회버스를 구입한 교회는 1973년에 또다시 새 교회버스 한대를 구입해서 차편이 없는 교인들 픽업을 위해 사용했다. 당회는 1976년도 교회버스 운전책임자로 최만삼, 이상기를 임명했다. 교회버스는 매주일 오전 9시와 10시 2차례 운행을 했는데 주로 올림픽 지역의 차편이 없는 교인들을 픽업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에도 나이든 성도들을 위해 교회버스를 운행했다.

1978년 3월5일 출석교인이 크게 늘어나자 다시 교회버스 2대를 더 구입해서 중형 교회버스는 모두 4대가 되었다. 당회는 차량관리를 위한 위원으로 허경삼, 조영근, 이요한, 오철훈, 노수정, 이중용, 조규철, 최만삼, 강춘식, 김영제, 이경자를 임명했고, 3월26일 버스구입 다운 페이먼트를 위해 온 성도가 특별헌금을 했다.

1979년 4월29일에는 김광락, 김신애집사와 익명으로 버스 1대(1만달러)씩을 교회에 헌납했다. 특별히 노수정집사는 교회버스 관리 및 페인트 등을 맡아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교회버스

가 모두 6대로 늘어나면서 차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노수정, 부위원장에 백중용, 위원으로 강춘식, 오정택, 심상수를 임명했다. 교회버스 운행을 위해 기사로는 백중용집사, 오정택집사, 이고명집사, 정상범집사, 엄창웅집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1983년 4월10일 다시 배석원집사가 대형버스(54명 탑승) 1대를 기증함으로 교회 버스는 모두 중형 6대와 대형 1대로 늘어났다. 모두 7대의 교회버스는 교인 픽업 및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때 운행되어서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1984년 매일 새벽기도 참석자를 픽업하던 한병철집사의 사임으로 그 후임에 김추자집사가 새벽기도 버스를 운전했다. 김추자집사는 매일 새벽 4시부터 기도회 참석자 20여명을 픽업하는 등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김추자전도사는 병원선교등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엄창웅집사

"버스를 운전하며 교인들을 모시는 일을 오래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을 모셔 오던 일, 대형버스 운전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갖고 몇년간 봉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직은
헌신예배 통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로
교회와 하나님께
다짐했다

제직 수양회 통해 충성과 헌신 다짐



제직 수양회에서 새벽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마다 1월초 제직수양회를 개최했다. 더욱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제직수양회는 집중적인 신앙 훈련과 효과적인 교회봉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1983년 1월5일~8일 은혜속에 신년도 제직수양회를 개최했다. 5일~6일 본당에서 최현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특별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7일~8일 Yolijwa 수양관에서 당회장과 모든 제직이 1박2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졌다. 제직수련회를 마친 1월 9일 주일 오후 4시 헌신예배를 통해서 더욱 충성된 종이 될 것을 교회와 하나님께 다짐했다. 헌신예배에는 천방욱목사(다우니 한인장로교회)가 「옥합을 깨뜨려」(막 14:3~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임직자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직자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 하는 것이다



신년 제직회 참석자들의 밝고 은혜스러운 얼굴

1984년 1월11일~14일 신년 제직수양회의 주제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였다. 이기홍목사는 「교회성장과 구역회 운영」, 송정명목사는 「당신도 전도할 수 있다」, 임병택목사는 「교회봉사 그 범위와 방법」, 이원희목사는 「섬기는 자로서의 제직」 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1월13일과 14일 Yolijwa 수양관에서 제직수양회를 가졌는데 임동선목사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중용목사는 「교회교육과 제직의 참여」, 이천영목사는 「새벽에 쌓는 제단」, 정문섭장로는 「교회문제 해결 방안」, 조영근장로는 「효과적인 교회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좋은 제직,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제직이 많은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제8장
교육관을 신축하는 은혜

- 창립14주년 부흥 성회 및 임직예배
-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선교분입니다"
- 아주사신학대학 분교 운영을 지원
- 기도의 응답, 에스더 수양관을 구입
- 교회신문 「동양선교헤랄드」 발행
- 한글학교 학생들 첫 한국 방문
- 벧엘성서 과정통해 하나님 말씀 배워
- 4천명 교인 시대로 교회 크게 성장
-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창립
- 이민 2세를 위한 「교육관」건립 추진
- 임동선목사, 「주의 전을 건축하라」 설교
- 창립15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한국과 LA에서 창립15주년 선교세미나
- 정신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 모국선교
- 임재순사모, 「이민목회자의 아내」 출간
- 흑인사회와 한인교계 교류에 앞장
- 개인 전도위해 전도폭발 훈련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장년 주일학교
- 2세 신앙교육 센터, 교육관 기공예배
- 이민의 성공은 자녀교육에 있다
- 창립 16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임동선목사의 목회철학은 말씀 중심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남가주대회

1984년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지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한국 기독교계와 남가주 기독교계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베푼 선교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하는 100주년 기념 특별성회를 주최했다.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의 새 선교사명을 확인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선교 100주년 한국대회는 5월14일~17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고, 임동선목사는 미주지역 교계 대표 강사로 나가서 세계선교에 대한 설교를 맡았다.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LA 연합대회가 6월8일~10일 본 교회 본당에서 매일 오후 8시에 열렸다. 강사로는 서울 경동교회 강원용목사를 초청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남가주지역 동포들이 100주년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차편과 예배안내 헌금위원등을 맡아서 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수정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100주년 남가주대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 기독교 100주년 한미 남가주 본대회는 다시 6월14일~17일 매일 오후 8시 가든그로브 수정교회에서 감사와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강사는 한경직목사와 로버트 슐러목사였고, 한국선교 100주년에 대한 특별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 사명을 다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동양선교교회 성가대는 연합성가대로 특별출연을 했고, 여전도회 회원들은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했다.

한국교회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향해서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

한편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 본대회는 다시 8월15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미주지역의 교인들과 함께 참석을 했다. 9월에 들어서 한국 복음선교협회가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성회가 본 교회에서 열렸고 강사로는 김진홍목사(남양 활빈교회 담임)를 초청했다. 기독교 100주년 본부는 기념뱃지를 판매했고 이익금은 한국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하는데,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입을 했다.

창립14주년 부흥 성회 및 임직예배

창립 14주년을 맞아 1984년 6월26일~7월1일 기념부흥성회 및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념부흥성회는 6월26일~30일 매일 오후 7시 서울 소망교회 담임 곽선희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은혜가운데 가졌다. 7월1일 창립기념예배때 곽선희목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 10~17)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설교를 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집은 언제나 그 집 자체보다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그 집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됨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성전됨은 그 집이 집에 있지않고 그 주인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구체적인 인격이 또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키를 기원 합니다."

7월1일 주일 오후 3시 창립 14주년 장로장립 취임,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 예배를 온 성도의 축하속에 드렸다. 새 임직자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

▲장로장립: 김광락, 온성철, 유문규, 이성호, 황재룡
▲장로취임: 방조영, 백영두
▲집사안수: 강중경, 김성곤, 김찬규, 남상수, 변기영, 이성원, 조정현, 주 은
▲권사취임: 슬로운 복희, 이경옥, 이윤월, 한복덕

서독 선교사에 이원희목사 파송

당회는 1984년 1월15일 교육담당 이원희목사를 서독주재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정했다. 이원희목사는 사모와 함께 2월9일 독일로 떠나기에 앞서 주일 대예배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라는 제목으로 파송 답사의 설교를 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선교사로 만드셨다고 리빙스턴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며 성경은 선교의 책이요 복음은 선교의 메시지가 되고 교회는 선교의 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후 분부이며 명령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므로 이 존재의 목적인 교회의 사명을 못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교회의 구성 요원인 온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과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일에 도착한 이원희목사는 1984년 2월20일 교회로 첫 선교소식을 보내왔다.

"첫 주일은 여자신자 22명, 남자신자 4명 등 모두 26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새 목사가 온다니 한번 와보자고 해서 그나마 모인 것입니다. 2월12일에는 「나를 이곳에 보낸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2주간 모두 12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금요일 철야기도회는 12명이 나와서 성경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명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비록 교인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명을 더욱 깨달았다"는 첫 선교소식

독일로 파송된 이원희선교사는 1984년 5월3일~6일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6명의 교인을 62명이 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해 왔다.

당회는 1984년 3월 31일 남미 브라질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담임 정민종목사)를 지교회로 결정했다. 로마의 한평우선교사는 나폴리, 배루리아, 오시모, 리대제 등 4곳에 예배처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선교부로 보내왔다. 1984년 7월8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동산교회(석태운목사)와 자매교회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


초기의 서독 한인교회 예배 모습

1984년 선교사 및 지원교회

지원구분	나 라	교 회	선교사
지교회	브라질	쌍방울 동양선교교회	정민종 목사
	호 주	시드니 벧엘선교교회	윤수한 목사
자매교회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강두호 목사
	필리핀	마닐라한인교회	정신택 목사
	가 봉	가봉한인교회	김홍기 집사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장한교회	이용덕 집사
	미 국	동산교회	석태운 목사
현지 선교사	인도네시아		David Sukovo
	인 도		Sulvin Jennis
	대 만		서생명
	가 나		Philip Stephen
	에디오피아		Smis 외 1명
	중 공		현지인 2명
	에디오피아		Attla Ishah

로마한인교회 성가단을 초청

본 교회는 선교지원 교회인 로마한인교회 찬양단원 18명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로마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유학생 교인으로 구성된 성가단은 1984년 8월30일 한평우담임목사 인솔로 로스앤젤레스를 처음 방문했다. 전문 음악인이 많은 로마한인교회 성가단은 9월2일 주일 오후 4시 예배후 선교음악회를 가졌는데 모든 성도가 신령한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여호와를 찬양하자」(시 100: 1~5)라는 제목으로 "로마한인교회 음악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로마한인교회 성가단은 9월7일(금) 오후 8시 윌셔 이벨극장에서 남가주 한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 큰 성황을 이루었다. 로마한인교회 성가단은 본교회 성도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남가주 지역의 여러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 순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가로 찬양했다.

"복음이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죄를 담당한 예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한평우목사는 1984년 9월2일 주일 예배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자」(막 16:15) 제목으로 "로마에서의 목회와 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말들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젊음과 지식, 물질 등을 아낌없이 드렸던 선배들의 뜨거운 선교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자는 이 말씀은

1.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2. 복음전파의 대상은 복음을 알지못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3. 복음전파의 방법은 직접 전도자를 파송하고 파송된 전도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된 전도자를 위해서 물질을 지원해야 합니다.
4. 복음을 전파한 자들의 결말은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물질의 수고가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하는 일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못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므로 주님께로 부터 칭찬받는 신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선교뿐입니다"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가 선교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더욱 기도와 지원에 힘쓸 것을 새

해 첫 설교에서 강조했다.

>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선교를 위해서 입니다. 그런고로 교회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할것은 선교입니다. 우리교회의 자랑은 선교 밖에 없습니다. 1984년도에는 대내적으로 한사람이 한사람씩 전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미, 아시아, 남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공산권에까지 전세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힘써 전파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1984년을 「세계선교의 해」로 정하고 교인들이 먼저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 개인, 가정,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다. 임동선목사는 교인들이 전도와 선교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2월12일~2월26일 주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도를 주제로 한 설교를 했다. 2월12일에는 「예수님의 기도생활」(눅 11:1-4), 2월19일 「올바른 기도생활」(마 6: 5-15), 2월26일 주일에는 「응답 못받는 기도와 응답 받는 기도」 (왕상 18: 26-4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을 바랐다. 선교는 첫째가 국내선교, 두번째가 해외선교, 세번째가 학원선교, 네번째가 매스컴선교를 목표로 정하고 온 교우가 선교회원이 되어 물질과 기도로 지원했다.

한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임동선목사는 9월9일 주일예배 때에는 「조국을 위하여」(느 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 "삼팔선의 담이 점점 더 두터워가고 북쪽은 더욱 군비확장을 하고 중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날로 심각하며, 더구나 이번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미주의 교인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임동선목사는 3•1절과 6•25 그리고 광복절에는 항상 한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을 사랑해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자주했다.

임동선목사는 1984년 한해 미주한인교회 초청을 받아 바쁜 전도일정을 보냈다.

▲예루살렘 선교집회 인도: 3월13일 ~ 23일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부흥회 인도: 5월25일~ 27일
▲LA 흑인교회 (Greater New Unity Baptist Church) 설교: 7월8일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 7월12일~15일
▲리치몬드 한인부흥회 인도: 9월21일~23일



조국 광복기도회에서 임동선목사가 설교했다

▲뉴욕 한빛교회 부흥회 인도: 10월18일~20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11월8일~11일
▲캐나다 토론토 연합집회 인도: 11월22일~25일

1984년 LA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조

올림픽 기간중엔 특별 전도 노방 전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4년 7월28일~8월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인류의 대제전인 제24회 올림픽이 열렸다. 교회는 남가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부서와 모든 성도들은

1. 올림픽이 평화롭게 마치도록 전교인이 기도
2. 한국선수와 임원을 위한 대대적 환영
3. 올림픽 기간 중 민박 프로그램 적극 참여
4. 동양선교교회 대학부는 올림픽 축하 코리안 퍼레이드에 40명 참가
5. 올림픽후원회 뱃지 적극 구입 등에 나섰다.

제24회 올림픽대회 개막식에는 40여개국 1,500명의 민속행렬이 참가를 했고, 본교회 고등부, 대학부 50명 여학생들이 한국대표로 나갔다. 화려한 한복차림으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이 민속 행렬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적극 지원했다.



'84 LA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OMC 고등부 • 대학부 학생들

선교부는 올림픽 기간 중 특별전도를 실시했다. 7월 21일(토) 한국의 날 퍼레이드에 교인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고, 7월 28일에는 LA 콜러시움지역, 8월4일에는 다저스 구장을 찾아 노방전도를 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올림픽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8월5일 주일 예배 때 「승리의 비결」(계 3:20~2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올림픽경기에도 이겨야하고 전쟁에도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는 생명과실을 먹게하고 사망의 해를 받지않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흰옷을 입을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되고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신령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믿음으로 승리
2. 기도로 승리
3. 선으로 승리
4. 십자가로 승리
5. 예수로 사랑하시는 승리


미니 올림픽대회에 나온 성도들

올림픽경기에 승리하는 자는 금메달을 땁니다. 더러는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그의 국민들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경기나 전쟁에는 진다해도 신령한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공중 권세잡은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않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에 깨어서 믿음, 기도, 선, 십자가, 예수로 승리하여 사람이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금메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전교인이 야외 주일예배를 나갔다. 1984년 6월2일(토) 그리피스 팍에서 전교인 미니올림픽대회를 개최했다. 친교부와 나사렛 청년회가 주관한 미니올림픽대회는 야외예배 및 교구별 대항 장기 자랑 및 가장 행렬 등을 통해 교역자와 성도가족이 올림픽의 협동정신을 되새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LA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 노태우)로 부터 1984년 LA올림픽때 동양선교교회가 한국선수단 환영 및 개막식 참여 등 후원의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주사신학대학 분교 운영을 지원

1982년 9월18일 아주사신학대학의 신학강의를 본교회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9월18일~12월1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 신학 특별강의는 아주사대학 교수가 「복음전달 방법에 대한 연구」과목을 가르쳤다. 3학점을 취득하는 신학 강의에는 장로, 권사, 집사 등 제직 30여명이 수강 신청 열심히 공부를 했다. 미국대학 신학강의를 제직과 일반성도가 듣도록 특별히 마련된 코스였다.


동양선교교회를 아주사신학대학 분교로 지정하는 서명식

1983년에 들어서 아주사대학이 담당하는 제2차 신학 강의를 실시했다. 1월18일부터 시작된 강의 과목은 「성서해석에 대한 연구」(4학점)과목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30분까지 3개월간 코스로 진행되었다. 아주사대학은 제직과 교인들의 수강신청이 계속 늘어나자 여름학기 강의까지 특별히 개설했다. 6월7일~7월26일까지 계속된 강의는 「기독교 윤리」(4학점)과목으로 스캇트박사가 담당했다. 1983년 가을에는 「교회 지도자론」(4학점)과목이 개설되었고, 계속해서 교인들은 미국교수를 통해서 신학공부를 열심히 했다. 1984년 1월24일 아주사신학대학은 「교회성장학」 강의를 개설했다. 동양선교교회와 아주사대학의 학문적 교류가 2년간 계속되면서 아주사대학 교수들이 본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과 청소년 상담 등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미국신학대학과 교류를 통해서 제직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1984년 4월1일 레스 브랭크박사(아주사 신학대학장)가 「참 제자의 길」(히 12:4~13)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설교를 했다. 그리고 6월5일(월) 아주사대학 그랜트박사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강의를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아주사대학은 1984년 9월 2일 동양선교교회 분교를 정식으로 개교하고 신학대학 강의를 계속했다. 처음으로 아주사신학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 분교 졸업예배가 1986년 6월 22일 저녁 예배 때 거행되었다. 이날 영예의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교육학 석사: 한건수, 현용수, 전길성, 강선자
▲목회학 석사: 정문섭

기도의 응답, 에스더 수양관을 구입

청년회는 1979년부터 수양관을 구입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당시 청년회 한 회원이 수양관의 구입을 약속했고 이에 힘입어 전 회원들은 대지 물색과 구입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전교인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1984년 1월7일 스티브임집사는 수양관 구입을 위해 7만달러의 특별감사 헌금을 드렸다. 당회는 1984년 5월27일 수양관구입위원회(한건수, 조영근, 노수정, 김병곤, 김재권, 이기홍)를 설치하고 수양관 구입에 나섰다. 구입위원회는 22800 Big Pines HWY, Wrightwood, CA.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인 수양관 구입을 위해 7만달러(총가격은 28만달러)를 다운페이로 냈다.

그리고 LA에서 2시간 거리로 빅베어 산맥 뒷쪽에 있는 수양관을 1984년 7월1일 구입했다. 대지평수가 6.5에이커가 되는 이 수양관은 에스더 수양관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간부 숙소, 그리고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숙소 4동을 비롯 화장실, 샤워실, 관리인 숙소, 배구코트 등이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수양관이다.


에스더수양관 개관 예배후

1984년 10월13일(토) 오전 11시 이민교회로 처음 구입한 아름다운 에스더 수양관의 개관 예배를 드렸다. 전교인들은 나서서 수양관 비품을 헌납했다. 당회는 관리위원장에 조웅래, 위원에 성기윤, 백영두, 최만삼 그리고 이중용목사를 임명했다. 초대 관장에 최만삼을 임명했다.

에스더 수양관은 7년동안 제직 수련회, 각 선교회의 기도회 및 학생들의 수양회 장소로 활용되었다. 특별히 신년초 제직 수련회와 여름철의 중고등학생 수양회 때에 주로 사용했고, 다른 한인교회에서도 이용을 했다.

빅베어 산맥의 새 수양관에서 제직 수양회를 통해 더욱 신앙을 키워 나갔다

스티브임장로는 에스더 수양관 구입에 대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첫째와 둘째가 태어난 기념으로는 한국에 고아원을 세웠다. 그리고 셋째 딸 에스더가 태어난 기념으로 교회에 수양관을 헌납하기로 하고 청년회 회장에게 찾아보라고 했다. 마침 미국인이 사용하던 좋은 수양관이 나와서 사게 된 것이다. 다운페이와 건물 개수 등 10만 달러가 들었다. 그 후에는 아이들 출생기념으로 경로잔치를 1년에 두번씩 지원했다."

1991년 에스더 수양관을 매각했다. 수양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회와 수양관의 거리가 너무 멀리 있고 한인교회와 미국인들의 수양관 사용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당회는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양관을 다시 구입하기위해 수양관위원회에 위임을 했다. 수양관위원회는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좋은 교회 수양관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방문했으나 지역과 가격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양관을 처음 구입했을 때 수양관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87년부터 수양관 관장으로 3년 6개월간 헌신적 봉사를 한 조웅래장로는

>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영적 향상에 수양관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제일로 생각하며 항상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 여러민족이 수양관을 이용할 때 예배형태는 달라도 사람들이 감화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 마침 매매가 되어서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보기도 제목을 매주 주보에 게재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졌고 각 부서별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났다. 1983년 9월4일 주일예배 때부터 중보기도의 제목을 매주 주보에 게재했다. 전교인들이 나서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였다. 처음 주보에 실린 중보기도의 제목은

1. 당회장의 3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2. 병환중인 교우를 위해서
3. 9월 18일 성경퀴즈대회를 위해서
4. KAL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서 였다.

1983년부터 시작된 동양선교교회 중보기도 주보에 중보기도의 제목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상 동포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 성도가 나서서 도왔다. 1977년 7월 24일 전교인이 산타바바라 김영민사건의 인권운동 서명에 참여를 했고 변호사비용 1천달러를 냈다. 1979년 11월11일에는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철수군 석방을 위해서 변호비 모금과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한 1983년 10월9일 KAL기 폭파사건 항의 규탄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한인사회 문제와 소수민족을 위한 권익 운동에 항상 동참을 했다. 또한 미국 적십자사가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을 벌일 때 임동선목사 및 당회원이 솔선수범해서 헌혈을 했다.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본교회

소수민족인 한인 이민자들은 타소수민족과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해 왔고 1984년 2월26일~3월2일 흑인교회 초청을 받아 연합예배를 함께 드렸다. 「신앙의 대화와 이질문화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Paradise Baptist Church에서 열린 특별연합 집회에서 동양선교교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맡아서 두 소수민족의 교류를 신앙을 바탕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2월27일(월) 오후 6시30분 (세미나: 임동선목사)
▲2월29일(수) 오후 7시30분 (설교: 임동선목사)
▲3월 1일(목) 오후 7시30분 (인사: 송정명목사)
▲3월 2일(금) 오후 7시30분 (본교회: 성가대)

1984년 3월부터 성인들을 위한 영어학교를 개설했다. 교육부와 할리웃 성인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영어학교는 월~목요일 오전 9시~11시30분까지 성도는 물론 동포들도 자유롭게 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40명을 모집해서 가르친 성인영어학교 교사로는 Augi Tribach가 수고를 했다.

당회는 점차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84년 4월15일 컴퓨터구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정문섭, 노수정, 성기윤, 조규철, 홍성호)를 구성했다. 또한 한주간 출석교인이 4천명을 넘어서면서 교회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회조직연구위원회(한건수, 오해훈, 박계로, 정문섭, 안정현, 이기홍)를 새로 발족시켰다.

친교봉사부는 매주 주일 본당 입구에 있는 간이사무실에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우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을 김신옥사모가 맡아서 봉사했다. 김신옥사모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한 전문인으로서 Asian Pacific Family Center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원조, 식품구매권(Food Stamp), 의료혜택, 극빈자 보조, 고령자 생활보조의 정보, 노인아파트 취득요령 등에 대해서 교인은 물론 일반동포들을 위해 상담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교회신문 「동양선교헤랄드」 발행

교인수가 1,500명선을 넘어선 1978년부터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와 담임목사의 지상설교, 교회소식을 담은 교회신문 발행을 준비했다. 문서선교시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회신문을 내기로 하고 기도를 드렸다. 1978년 11월12일 새해 계획을 담은 교회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았고 1979년 처음으로 「동양선교교회 선교소식」, 「청년회 뉴스」, 「유년주일학교 이야기」 등을 펴냈다.

교회의 새 소식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숨은 봉사자의 이야기를 담아서 신문을 펴냈다

총무부는 「동양선교 News」 창간호를 1981년 12월에 발행했다. 발행인은 임동선목사, 주필 이천영목사, 편집인은 이중용목사가 맡았다. 창간호에는 이천영목사의 「동양선교, 창간호에 즈음하여」라는 글과 이기홍목사의 「성탄메시지」, 김계용 나성영락교회 목사의 「동양선교 창간을 축하합니다」라는 기고, 송정명목사의 「선교하는 교회」특집, 그리고 임동선목사는 「유럽선교의 현장을 가다」라는 특별기고를 했다. 이어 이득애권사 중국선교 방문, 황재열 일본선교사 선교보고, 5년근속 교사에 감사패 전달, 여호수아 남전도회의 경로잔치 등 다양한 교회뉴스가 실려있다.



교회신문 「동양선교헤랄드」

1982년 2월7일 교회회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건수, 이천영, 이기홍, 이중용, 정완기, 온성철, 성기윤, 백중용위원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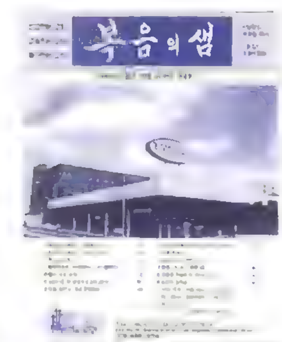
1983년 10월 정식으로 홍보출판부를 조직했고 조영근부장, 오철훈, 정문섭, 김중완, 이중용 위원을 임명했다. 출판위원회는 3개월에 1번씩, 당회장 인사말, 선교소식, 신앙간증, 신앙수필, 교



교회 첫 신문인 「동양선교 News」

회활동, 인터뷰 등을 담은 교회신문을 발행했는데 조영근장로가 주필을 맡아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1983년 12월 「동양선교헤랄드」를 창간, 타블로이드 사이즈의 교회신문으로 정기적인 발행을 했다. 「동양선교헤랄드」에는 당회장 설교, 인터뷰, 교회뉴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의 숨은 봉사자, 선교소식, 좌담회 등을 담은 교회신문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동양선교헤랄드」란 이름으로 발행하던 교회신문을 1995년 다시 「복음의 샘」으로 제호를 바꾸고 오늘까지 펴내고 있다.



「복음의 샘」

홍보출판부장으로 「동양선교헤랄드」를 창간한 후 10여년동안 교회신문으로 성장을 시킨 조영근목사(당시 장로)는 "교회가 커지면서 신문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당회에 이를 제안했고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동양선교헤랄드」는 당회장의 목회방향, 신앙노선을 알렸고 많은 칼럼을 통해서 각계 각층이 필진으로 참여를 했다. 지교회 소식, 신앙미담과 간증,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월드미션대학 등의 소식을 빨리 알리는 기능을 잘 감당했다. 대외적으로는 교회의 이미지를 높였고 대내적으로는 언로(言路)를 활짝 여는 일을 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회 어린이 도서관을 오픈

성도들이 생일기념, 결혼기념, 자녀출생 기념으로 도서를 기증해서 도서관의 장서는 계속 증가했다

1982년 이민교회로서 교회 도서관을 설립했고, 교인들은 도서를 기증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다. 교회 도서관은 매주 주보에 금주의 도서를 소개했고 6개월에 한번씩 전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게재했다. 1983년 4월24일자 주보에 실린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다음과 같다.

1. 낮은데로 임하소서 (이청준)
2. 아월도의 순교자들 (신영걸)
3. 고집센 아이 교육 (제임스 톰슨)
4. 666 (살렘 키르반)
5. 무엇이 다를까? (프릿스 리데나워)
6. 주님의 기도 (이순경)
7.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
8. 눈물의 아들 (헬리 코레이)

1983년 5월13일, 처음으로 교회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다. 어린이 도서관에는 소장 도서가 모두 1,500권에 이르고 개관과 함께 새로이 500권의 신간도서를 더 구입했다. 도서관에는 한글도서와 영어도서를 소장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어른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기독교 서적, 신앙

월간지 각종 교회신문 등을 비치했고 일반교우들의 열람이 갈수록 늘어났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나 생일기념, 결혼기념, 자녀출생 때 기념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기증을 했고 소장 도서는 크게 늘어났다.

초대 도서관 관장으로 봉사하던 최만삼집사 후임에 김용일장로가 9월 첫주 임명되었다. 김용일장로는 한국 도자기 주식회사 LA 지사장으로 있으며 농협대학 도서관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본교회 벧엘성서 연구반의 책임자로 봉사를 해왔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

정기적으로 교인 무료 진료

각계각층 전문인이 많이 출석을 한 본 교회에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많이 나왔다. 의료인들은 매주일 예배 후 무료 건강검진을 맡아서 봉사를 했다.

1979년 12월2일 주일예배 후에는 교회사무실에서 내과 김일영, 산부인과 장문석, 소아과 금봉숙, 한의 백형권, 그리고 혈압 및 당뇨검사는 간호사들이 의료봉사를 했다. 또한 간호사회는 여성교인들을 위해서 암예방에 대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간호사 헌신예배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서의 신앙과 사명을 다짐했다.

한편 생활지도부는 1983년 10월9일 일반 의료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장문석의사가 「병원 이용에 관하여」, 김정현약사가 「약국이용에 관하여」 발표를 했다. 1983년 12월4일 친교봉사부는 LA 올림픽라이온스 클럽의 협조로 교회 주차장에서 교인들을 위한 무료 눈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984년 9월2일부터 City of Hope 메디칼센터 의료진의 도움으로 정기적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등 교인 건강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갔다.

한글학교 학생들 첫 한국 방문

한국의 민속촌과 판문점, 포항제철 등을 방문 부모의 나라를 배우는 기쁨이 가득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 많이 출석하면서 한글학교는 빠른 성장을 했다. 1978년 5월에 50명으로 시작한 한글학교는 1983년에는 학생이 25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학생들의 한글공부는 참으로 열심이었다. 특별히 교사들의 봉사와 기도가 한글학교 성장에 힘이 되었다. 한글학교는 1983년 1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제도를 새로 편성했고, 영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반을 신설했다. 6개월간 학기가 계속되는 한글학교에는 유치부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250명이 등록을 했고 한글반과 특별활동반(태권도, 미술, 동화)으로 나누어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1983년 4월10일 제1회 한글 받아쓰기대회를 가졌는데 특상은 이은주(유치반), 이지희(1,2학년), 도은주(3,4학년특상), 홍선희(5,6학년), 정선숙(7,8학년), John Neimes(외국인 한글반)가 차지했다.

1984년 2월19일 한글학교는 처음으로 학부형회를 구성했다. 회장 정봉모, 부회장 이기성, 김정희, 총무 박석영, 부총무 홍석구, 서기 이민성 등 회장단은 2세 한글 교육지원에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1984년 3월17일(토) 오후 2시~5시 제1회 남가주 교회 한글학교 교사세미나를 본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조인숙, 김길환, 박남경선생으로 「교회에서의 한글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글학교는 1984년 5월27일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한순찬목사가 강사로서 「이민성도의 교육원칙」(행 8: 26~4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1985년 제2차 한글학교 학생의 모국 방문 모습

한글학교 학생 28명은 1984년 7월2일~15일 제1차 어린이 한국방문단을 구성, 한국을 다녀왔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민속촌, MBC 방송출연, 연세대 한국어 교육, 포항제철, 판문점, 서울

대공원, 육군사관학교 방문 등이었다. 청운교회와 신촌교회 가정에서 민박을 했고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배우고 건강하게 돌아왔다. 제1차 한글학교 모국 방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정문섭장로, 단장 이건기장로, 학부모 회장 정봉모, 지도교사 이영숙,
▲학생: 최애리, 이혜란, 베키리, 김차돌, 김은희, 정선애, 정진대, 이호준, 이명지, 이세나, 김도균, 김송이, 현승진, 월타최, 모나최, 이요셉, 박범진, 최만석, 신 명, 한창진, 박성근, 탁성주, 한창남, 탁혜영, 박데이빗, 김현재, 박정윤, 김미원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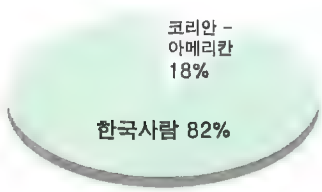
대학생 신앙구조는 보수적

교육부는 처음으로 의식구조 조사, 대학생들의 신앙구조는 한국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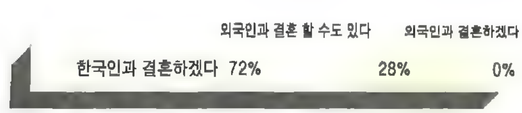
교육부는 1984년초 출석 대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신앙구조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모두 27개항의 설문을 통해 기독대학생들의 신앙적 의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답변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생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술이나 마약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이냐"는 설문에 대해 82%가 <한국사람>이라고 대답했고, 18%는 <코리안-아메리칸>이라고 대답했다. 또 결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82%가 <절대 안된다>로 대답했고 10%는 <괜찮다>, 8%는 <결혼을 약속 했으면 무방하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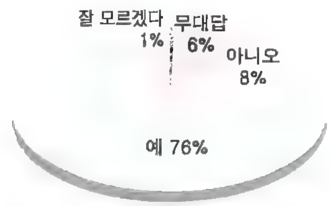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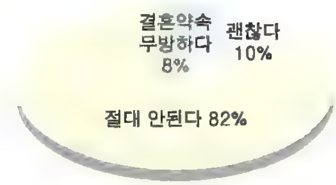
결 혼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76%는 <예>라고 대답했고, 8%가 <아니오>, 1% <잘 모르겠다>, 6%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한 대학생들의 교회출석 햇수는 대부분 1년 이하로 밝혀졌다.

또 음주에 대해선 26%는 <전혀 경험이 없다>, 56%가 <한두번 경험이 있다>, 18%가 <가끔한다>고 대답했고, 흡연에 대해선 6%가 <전혀없다>,



구원을 받았는가?



결혼전 성관계



음 주

OMC 내 벧엘 성서 연구를 1982년부터 시작 1기졸업생은 27명

28%가 <한두번 경험이 있다>, 8%가 <가끔한다>, 2%가 <자주 한다>로 대답했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선 52%가 <매우 좋다>고 대답했고 10%가 <그저 그렇다>, 2%가 <나쁘다>고 대답했는가 하면 "결혼상대자"로는 <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경우에 따라선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가 28%였고,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72%로 압도적이었다. 설문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교회에 대한 불평란에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버려라」,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대학생부를 지도하고 있는 안용식목사는 "생각보다 대학생들의 신앙적 의식구조가 한국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하고 "일단 대학생들의 신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벧엘성서 연구과정 통해 하나님 말씀 배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로 벧엘성서연구(The Bethel Series)를 시작했다. 벧엘성서연구는 1957년 위스컨신주의 Madison에 있는 Bethel Lutheran Church에서 Dr. Harly A. Swiggum목사에 의해 개발되어 13개국 5천여 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미 성인 8만명이상이 수료했고 85만명이 신구약성경을 매주 공부하고 있다. 1982년부터 안용식목사가 처음 벧엘성서연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벧엘성서공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새로 시작하는 수강생은 계속 늘어났다. 1982년 6월27일 제1기 벧엘성서연구 과정을 졸업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 박계로, 성기윤, 조정현, 김중완, 황재룡, 한병철, 김영재, 이고명, 한부일,
김여근, 박효정, 김광돈, 정우선(13명)

▲여: 김병숙, 이득애, 박선희, 김재숙, 이성호, 한정현, 백경순, 박재호, 조희순,
최민수, 박영례, 정현경, 헬렌 켈리, 복희 슬로운 (14명)

교회는 7월4일부터 고등부교실에서 제2기 벧엘성서연구를 시작했다. 10월1일부터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났고 정완기목사와 강선자전도사가 강사로 가르쳤다. 벧엘성서연구는 신구약성경을 가르치는데 1년과 1년 6개월 그리고 6개월 코스 등 세개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다. 1983년에는 벧엘성서연구에 신약연구생을 모집했다. 수강생이 더욱 늘어나자 1984년부터는 주일반과 금요일반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쳤다. 1984년 4월1일 주일 오후 4시에는 벧엘성서부 헌신예배 및 제5회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그랜트박사는 「하나님의 사랑」(느 8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는 9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1984년 9월부터 제9기 벧엘성서 연구생을 모집했고 1986년 벧엘성서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벧엘성서 부장인 정문섭장로의 사회로 김서년목사(위티어한인장로교회 담임)는 「호리라도 갚아가는 생활」(마 5: 21~2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987년에 들어서는 신구약반으로 나누어서 이중용목사, 안용식목사, 강선자전도사가 1년 과정으로 가르쳤고, 정문섭장로는 벧엘성서 속편 (생활편)을 6개월 코스로 가르쳤다. 1987년 3월20일부터 21일까지 벧엘성서반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산상기도회를 다녀왔다.

"성서를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자 믿음이 자라남을 느낀다"는 한 성도의 간증

1988년에 들어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벧엘성서 연구학생을 모집했는데 모두 80명의 교인들이 등록을 마쳐서 수요반, 목요반, 주일반1, 2로 나누었고 다시 신구약반 생활편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다. 벧엘성서연구를 마친 이문자집사는 1984년 「동양선교헤랄드」 3월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지금까지 나는 성서를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만 했다. 그러나 이제 성서를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자 믿음이 자라남을 느낀다. 우리의 생활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우리 모두 말씀을 열심히 배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되어야 겠다."

4천명 교인 시대로 교회 크게 성장

창립 15주년을 맞으면서 한 주간 출석교인수는 모두 4천명을 넘어섰다. 1984년까지는 한 주간에는 3천5백명이 출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매주일 10명내지 2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서 이민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한 주간 출석교인이 4천명을 넘어섰다. 매 주일 1부예배에 350명, 주일



동양선교교회는 1984년 한주간 출석 교인이 4천명 시대를 맞이했다

희망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로 새 교인이 계속 늘어났고 각 부서별 활동이 헌신적이었다

2부 예배에 950명, 주일 3부예배에 550명이 출석하면서 장년 출석교인이 1,900명에 이르렀다.

본교회의 한 주간 출석교인이 처음으로 4천명을 넘어선 것은 1984년 7월1일로 이날 한 주간 출석교인은 모두 4,364명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천명을 넘기 시작한 것은 9월2일부터였다. 9월2일에는 모두 4,600명이 출석을 했고, 9월9일에는 4,089명이 교회에 나왔다. 1984년 7월 창립 14주년기념예배 이후 새 교인의 등록은 한주간 평균 10명~15명으로 매월 60명의 성도가 새로 나왔다.

이민교회로 가장 성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새 교인이 늘어난 이유는 다섯가지이다.

첫째는 임동선목사님의 희망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와 헌신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동역 목회자와 장로,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역자의 봉사 때문이다.

1984년 7월 1일 한 주간 출석교인수

집회명	인 원	집회명	인 원
1부 주일학교	20	주일 낮 1부	284
영아부	45	주일 낮 2부	979
유아부	54	주일 낮 3부	583
유치부	154	계	1,846
유년부	150	주일 저녁	698
초등부	149	금요기도회	145
중등부	179	새벽기도회	247
고등부	151	장년성경공부	155
대학부	129	특수반	17
한글학교	225	총계	4,364

세번째로는 각 부서별로 성경교육과 체계적인 구역활동, 그리고 새 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좋았다. 교인들 사이에 전도의 마음이 높았기 때문이다.

네번째로는 선교, 교육, 봉사의 교회 창립 목표를 위해 전교인이 열심인 것이 한인 사회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는 넓은 주차장에다 교회 위치가 한인타운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본 동양선교교회 성장요인

1970년대에 이어 1980년초부터 동양선교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본 나성영락교회 김계용목사는 「동양선교교회 뉴스」(1981. 12월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기고를 했다.

"먼저 주기를 힘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 교회이다" - 김계용목사 -

"동양선교교회가 명실공히 발전 부흥하여 온 미주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동양선교교회가 어찌하여 그렇게 발전하고 부흥되었나 하는 것을 화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밖에서 바라보면서 몇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동양선교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받는자 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어려워도 먼저 주기를 힘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급성장한 교회라고 봅니다.

둘째 교육에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 교회라고 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일찍부터 이민사회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찾아내어 교회학교와 기타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지니는 언어문제와 커리큘럼 문제, 교사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이민교회 종교교육의 선구를 걷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


주일예배 때마다 성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다

하여 미주 최대의 교회학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셋째는 교우들이 열심히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우들이 자기 교회내에서의 봉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밖으로도 의료사업과 멕시코 등지에 구호품 전달 등으로 이민사회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발전함을 감사합니다. 주마가편적으로 좀 더 동포지역의 사회를 위하여 더욱 큰 봉사의 모범을 보여 줄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위대한 목회 목표를 설정하고 앞에서 방향을 지시하며 이끌고 나가시는 목회자를 모신 까닭이라고 봅니다.

임동선목사는 이민사회가 존경하는 목사로서 오늘의 동양선교교회가 있게끔 하신 성공적인 목회자 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엘리야처럼 굳함이 없는 믿음과 능력과 결단력이 이 대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시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그를 보좌하는 여러 교역자들, 당회원들의 합심합력이 또한 대 동양선교교회로 발전

1985년도 한 주간 출석교인수

날 자	출석교인수 (새신자수)	날 자	출석교인수 (새신자수)
1월 6일	3929 (9)	7월 7일	4306 915)
1월 13일	, 3920 (9)	7월 14일	5014 (12)
1월 20일	4347 (14)	7월 21일	4139 (7)
1월 27일	4281 (9)	7월 28일	4204 (9)
2월 3일	4253 (13)	8월 4일	5591 (16)
2월 10일	4413 (4)	8월 11일	4563 (14)
2월 17일	4419 (22)	8월 18일	4567 (12)
2월 24일	4424 (12)	8월 25일	4569 (6)
3월 3일	4427 (17)	9월 1일	4187 (13)
3월 10일	4353 (7)	9월 8일	4626 (8)
3월 17일	4331 94)	9월 15일	4706 (13)
3월 24일	4228 (31)	9월 22일	4654 (9)
3월 31일	4385 (3)	9월 29일	4380 (15)
4월 7일	4462 (9)	10월 6일	4384 (7)
4월 14일	4433 (4)	10월 13일	4429 (9)
4월 21일	4199 (9)	10월 20일	4475 (11)
4월 28일	4210 (9)	10월 27일	4524 (14)
5월 5일	4398 (10)	11월 3일	4385 (21)
5월 12일	4425 (15)	11월 10일	
5월 19일	4331 (17)	11월 17일	4623 (6)
5월 26일	4292 (8)	11월 24일	4587 (3)
6월 2일	4351 (6)	12월 1일	4699 (7)
6월 9일	4399 (6)	12월 8일	4700 (16)
6월 16일	4386 (9)	12월 15일	4753 (4)
6월 23일	4386 (7)	12월 22일	6458 (8)
6월 30일	4283 (5)	12월 29일	4346 (9)

하는 가장 효과적인 힘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귀 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민교회 정립의 선구자적 모범을 항상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한 해에만 490명이 새로 등록을 했고, 1984년에는 550명, 그리고 1985년에는 600명의 새 신자가 늘어났다. 3개월에 한번씩 새 신자를 위해서 환영예배를 드렸고, 이날은 교구장, 부교구장, 구역장, 인도한 교인 등이 함께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때 조국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세계선교를 생각했다

임동선 당회장은 새 신자 환영예배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민해 오심을 축하하오며 또 본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올 때에 조국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선교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국 이민자들도 이와 같은 고상하고도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생활은 개척자의 생활입니다. 개척자는 의욕과 희생과 미래를 바라보는 확고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농부와 같은 희망과 근면과 인내와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멀지않아 기쁨으로 추수할 것입니다. 또는 타주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우들이 계시면 저희교회에 오셔서 건강에 있어서나 자녀 교육면에 있어서나 생업과 영혼에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보다 더 행복하시고 의미있는 생활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헌금액 2만달러를 넘어

당회는 1985년 예산을 1백6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1984년 예산 1백35만달러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총예산 중 선교비는 28만4천6백달러이고 교육비는 24만4백달러를 배정했다. 교인의 큰 증가와 함께 매주일 헌금이 계속 늘어났다. 온 성도들은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그리고 정성껏 헌금을 했다. 헌금종류는 매주일 십일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기관헌금, 기타헌금, 절기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을 드렸고 임동선담임목사는 헌금순서 후 항상 축복과 은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월 첫주 헌금액수이다.
1978년 1월 8일 3,968.59달러 (교인수 928),
1979년 1월 7일 5,373.90달러 (교인수 1,526명),

1980년 1월 7일 16,622.55달러 (교인수 1,311명),
1981년 1월 4일 9,042.39달러 (교인수 2,219명),
1982년 1월 3일 13,131.57달러 (교인수 3,074명),
1983년 1월 2일 16,711.34달러 (교인수 3,420명),
1984년 1월 1일 20,687.92달러 (교인수 3,602명),
1985년 1월 6일 22,087.18달러 (교인수 4,346명)
1986년 1월 5일 22,138.37달러 (교인수 4,712명),
1987년 1월 4일 25,313.15달러 (교인수 4,926명)
1988년 1월 3일 47,773.47달러 (건축헌금 포함) (교인수 4,871명)

임동선담임목사는 헌금 순서후 축복과 은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1985년 1월6일 주일 헌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헌금: 20,267.18달러
1. 십일조 헌금: 7.792.54달러
2. 감사헌금: 2,817달러

1985년도 헌금액

날 자	헌금총액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날 자	헌금총액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1월 6일	24,112.46	2,170 (57)		2,000 (1)	7월 7일	23,131.65	3,397 (94)	20 (10)	300 (6)
1월 13일	18,887.70	1,695 (67)	130 (3)	3,200 (2)	7월 14일	26,760.50	7,313 (77)		1,300 (8)
1월 20일	23,972.05	2,930 (90)	120 (2)	500 (1)	7월 21일	21,713.10	2,591 (61)		
1월 27일	27,156.40	2,871 (101)	40 (2)	5,000 (1)	7월 28일	29.787.30	2,533 (80)	40 (20)	200 (1)
2월 3일	22,606.57	3,247 (44)	120 (3)	500 (1)	8월 4일	55,563	1,385 (58)	100 (2)	140 (2)
2월 10일	24,009.82	1,979 (17)		200	8월 11일	30,577.65	3,365 (78)	20 (1)	500 (3)
2월 17일	21,070.06	3,784.02 (82)			8월 18일	30,964.38	2,477 (64)		5,880 (8)
2월 24일	19,572.50	3,296 (97)	120 (3)	200 (1)	8월 25일	24,684.25	3,428 (97)	20 (1)	620 (3)
3월 3일	24,037.50	3,185 (86)	120 (3)		9월 1일	22,604.00	2,647 (91)		250 (6)
3월 10일	22,537.08	2,899 (102)	40 (2)	610 (2)	9월 8일	24,892.88	2,337 (88)	20 (1)	1,158 (1)
3월 17일	19,941.12	4,208 (87)			9월 15일	25,896.81	2,983 (80)	170 (5)	2,097 (6)
3월 24일	15,620.43	1,132 (68)	40 (2)		9월 22일	18,521.01	2,782.01 (102)		774.45 (5)
3월 31일	22,163.82	2,348 (146)	20 (1)	1,087 (1)	9월 29일	27,053.76	4,005 (97)	40 (2)	535 (5)
4월 7일	54,479.34	1,884 (66)		2,000 (1)	10월 6일	22,968.20	3,675 (104)	100 (2)	470 (8)
4월 14일	20,331.09	4,068.20 (47)		300	10월 13일	21,932.58	3,254 (72)		5 (1)
4월 21일	21,500.66	2,349 (64)	20 (1)	2,700 (6)	10월 20일	22,766.43	3,411 (72)	80 (3)	
4월 28일	18,938.71	2,580 (93)	20 (1)		10월 27일				
5월 5일	35,272.37	3,856 (119)	100 (2)	1,250 (2)	11월 3일	29,589.74	4.093 (97)	20 (1)	1,050 (4)
5월 12일	18,055.25	1,785 (64)	10 (1)	40 (1)	11월 10일				
5월 19일	23,316.41	3,026.06 (88)	20 (1)	1,010.69	11월 17일	76,460.00	2,655 (42)		120 (2)
5월 26일	18,241.70	2,642 (82)	100 (2)	100 (1)	11월 24일	23,879.03	1,906.25 (71)		250 (6)
6월 2일	23,919.80	3,544 (107)	100 92)		12월 1일	24,252.91	3.893 (92)	160 (4)	140 (6)
6월 9일	22,298.50	2, 307 (79)	20 (1)	1,082.55 (4)	12월 8일	33,160.16	3,136 (98)		1,091 (13)
6월 16일	26,728.78	2,987.60 (68)	1,200 (1)	1,950 (4)	12월 15일	19,933.04	2.779 (59)	40 (2)	6,355
6월 23일	16,211.10	1.920 (76)	40 (2)	50 (2)	12월 22일	46,537.65	1.584 (54)		340.75 (3)
6월 30일	21,478.06	1,981 (68)	100 (1)	200 (2)	12월 29일	22,491.83	3.733 (103)	220 (2)	600 (7)

3. 선교헌금: 3,399달러
4. 월정헌금:
5. 주정헌금: 170달러
6. 주일헌금: 2,402.87달러
7. 기관헌금: 1,382.14달러
8. 기타헌금: 1,213.63달러
9. 절기헌금: 1,090달러

특별경비 헌금: 1,820달러
1. 장학헌금: 320달러
2. 건축헌금: 1,500달러
3. 기타헌금:

총 계: 22,087.18달러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창립

1985년 남가주내의 첫 지교회인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했다. 1979년부터 행정담당 수석부목사로 사역을 담당했던 이기홍목사는 1984년 12월말에 사임, 사우스베이 지역에 지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미국내 지교회 제1호를 세운 것이다.


첫 지교회인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1985년 1월13일 주일 예배때 사우스베이 동양선교회 이기홍목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사우스베이 동양선교회는 토랜스, 가디나, 팔로스버디스 지역 교인을 위해 3월3일 오후 3시에 각계 축하 속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기홍담임목사는 이미 1월20일부터 예배를 드려왔고, 1개월 동안 장년 출석교인 90여명, 학생 60여명 등 모두 150명으로 늘어났다. 3월3일 창립예배는 임동선목사가 창립 축하 설교를 맡았고 동양선교교회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되었다.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창립과 함께 시무장로인 오수남장로, 강영구장로, 이동우장로, 김동규장로가 옮겨갔다.

미국내 지교회 1호로 사우스베이에 동양선교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지교회를 각 지역에 설립했다

▲이기홍목사(사우스베이선교교회 원로목사)

"첫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당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선교비를 보내주셨고, 교인들이 옮겨가는 것을 허락했다. 7년간 행정담당 수석부목사로 사역을 담당 해온 것 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급성장을 했다. 처음부터 지교회 성도들이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다. 임동선목사님

과 당회의 지원이 특별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회는 이기홍목사 후임으로 송정명목사를 수석 부목사로 임명했다. 고등부를 지도해오던 정완기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1985년 3월31일 사임을 했고, 5월19일 밴나이스에 사랑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심방목사에 김건태목사 청빙

새해부터 심방을 전담할 목사를 청빙했는데 1985년 5월1일 김건태목사를 심방목사로 임명했다. 김건태심방목사는 항공대학과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문화촌 성결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던 김목사는 3년전 이민으로 도미하여 가주중앙교회와 시카고 호변성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를 했다.

7월1일에는 교회 성가대 새지휘자로 윤한두목사가 부임했다. 윤한두음악목사는 2, 3부 성가대 지휘를 맡았다.

윤한두목사는 서울신학대학과 경희대학 음대 작곡가와 명지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명지대학과 서울신학대학 종교음악 교수로 봉직했다. 장충단 성결교회, 충신장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오랫 동안 봉직했으며 1980년 11월 도미했다. 시애틀에 소재한 성복음교회를 개척,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시애틀 지역에서 한국 코랄을 창단하여 상임 지휘자로 봉사해 왔었다.

고등부 지도목사에 채현철전도사를 청빙했다. 채현철전도사는 버클리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후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교회에서 청소년지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채현철전도사는 1985년 8월4일 미남침례회 안디옥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임했다.

2부 성가대 지휘자로 음악사역을 맡아왔던 서문욱집사는 1985년 4월30일자로 사임을 했다.

2세들의 배움의 집을 세우기 위해 전교인이 기도와 헌금을 시작했다

이민 2세를 위한 「교육관」건립 추진

랄프 마켓을 본당으로 구입한 후에 출석 교인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세들을 위한 교육관 건립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를 시작했다. 본당 옆에 처음으로 교육관으로 구입한 건물까지 계속 협소해지자 교실 부족으로 새 교육관을 건축해야 한다는 전 교인의 기도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1982년 추수감사절 때 헌금 4만8천달러로 구입한 작은 교육관의 잔액을 지불하면서 1983년부터 새 교육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새 건축 위원장에 조웅래장로, 부위원장 한

건수장로, 김몽학장로를 임명하면서 새 교육관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1984년에 들어서면서 모든 성도들은 새 교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헌금을 시작했고, 건축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고문: 이천영
▲위원장: 이정배, 부위원장: 한건수, 김몽학
▲총무: 안정현, 서기: 황재룡, 회계: 조규철
▲재정: 김용서, 성기윤, 오수남, 방조영, 방미철, 김광락, 온성철, 김명균, 백형권, 스티브임
▲기획: 강영구, 노수정, 김동규, 조병헌, 임승천
▲설계: 백영두, 남만희, 오상헌
▲건축: 김병곤, 이근무, 현용수, 김영규, 남조웅, 유승주
▲감리: 정문섭
▲개발: 김재권
▲홍보: 조영근, 최창진, 윤영교, 신종욱, 송치선, 나철삼, 민병용, 윤여춘

교육관 건축을 위해 여전도회는 야드세일 중등부는 동전수집 고등부는 카워시로 건축 기금을 모금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에스더 여전도회의 일일식당

1984년 1월29일 주일 오후4시 찬양예배 때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정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건축위원회 헌신예배에서 임동선담임목사는「성전건축과 축복」(학 2:1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서 교육관 건축의 새 시대를 열어 줄 것을 기원했다. 1984년 2월5일에는 한 성도가 2세들을 위한 새 교육관 건축을 위해 1만달러를 헌금함으로 건축을 위한 전교인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전교인은 매주일 교육관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렸고 하루 속히 새 교육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1985년에 들어서면서 교육관 건축을 위한 모금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에스더 여전도회는 6월29일 교육관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야드세일을 실시했고, 창립기념주일인 7월27일 교회주차장에서 각종 가구, 생활필수품, 의류, 장난감, 사무용품 등을 판매했다. 에스더 여전도회는 건축기금 모금을 위하여 특별히 교인을 위한 식당을 개설하고, 매주일 음식을 판매했다. 중등부학생들은 1985년 9월8일 주일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주일마다 교회 정문에서 알미늄캔과 동전(1센트)을 수집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고등부학생들은 자기들의 배움의 집이 될 새 교육관 건축을 위해 토요일에는 세차


교육관 건축을 위한 고등부 학생들의 카워시 장면

(Car Wash)를 실시했고, 헌 신문과 박스 수집, 그리고 각 가정의 이사 등 일손을 덜어주는 일을 하면서 기금을 모았다.

임동선목사, 「주의 전을 건축하라」 설교

1985년 12월8일 주일 예배 1, 2, 3부에서 교육관 건축헌금 작정을 했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주의 전을 건축하라」(대상 28: 10~20) 는 제목으로 감사와 은혜, 축복의 설교를 했다.

"교육관을 지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손에게는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은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때에 3가지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 명령: 주의 전을 건축하라. (10절)

부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크게 부흥시켜 황금시대를 이룩한 후 주의 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고 솔로몬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전을 지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지역사회와 자녀들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2.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절)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20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바울의 이방전도, 루터의 종교개혁, 미국의 독립, 흑인노예해방, 한국의 해방, 6 • 25의 구원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3. 방법: 힘써 행하라. (10절하)

서양 격언에 "성공은 희망에서가 아니고 노력에서 온다"고 말했으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2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모두가 다같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면 이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년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 14: 17~21)

결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날 이민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 · 교육 · 봉사에 언제나 앞장을 서 왔습니다. 이번 건축에 있어서도 다 같이 참여하여 이일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에게는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창립15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창립15주년을 맞아 1985년 3월3일행사준비위원회와 기념음악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창립15주년 부흥성회는 7월30일~ 8월4일 갖기로 하고, 창립기념예배는 8월4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 드리기로 정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는 이날 오후 3시에 드리기로 했다. 당회는 1985년도 임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육을 실시했다.

▲5월18일 지도자의 임무(임동선목사), 교회 행정 및 헌법(임병택목사),

▲5월25일 교회사 (이천영목사), 성서 개설(송정명목사)

▲6월8일 교회 교육 (이중용목사), 특강(외부 인사)

창립 15주년 기념부흥성회는 7월30일(화)~8월3일(토) 정진경목사(신촌성결교회 담임)를 강사로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하루 3차례씩 은혜 속에 계속됐다.

창립주일 기념예배는 8월4일 임동선목사 사회로 특별강사 정진경목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막 2:1~12) 라는 제목으로 "동양선교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이민교회가 될 것"을 말씀으로 전했다.



창립 15주년 임직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난치병)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중풍환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반신불수도 많지만 정신적, 영적인 반신불수는 더 많습니다. 고로 세계복음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제3세계에 갚는데 선봉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주일 설교

1. 세계복음화를 향한 첫째 길은 반신불수에 대한 교회의 관심입니다.

교회의 우선적 관심은 영적으로 병든자를 구원하는 선교사업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 세계복음화를 향한 두번째 길은 협력정신입니다.

다른 일에 의견을 달리해도 선교하는 일에만은 연합정신을 갖고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3. 세계복음화를 향하는 세번째 길은 중도에 낙심치 않아야 합니다.

선교사업에는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교훈대로 지붕을 뚫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고 했습니다.

4. 세계복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 동양선교교회는 창립이래 모든 정력을 선교사업에 쏟아온 것을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19세기에 서구교회로 부터 진 복음의 빛을 제3 세계에

갚는데 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5년 8월4일 창립주일 오후 3시부터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장로 취임 및 장립, 안수집사 취임, 권사취임을 위한 임직예배를 드렸다.

▲장로취임: 윤근섭, 서완석, 김용일, 오수훈
▲장로장립: 백형권, 조인식, 김동규, 최만삼
▲안수집사 취임: 이석현, 한부일, 신상우, 변기영, 홍성환, 김중훈, 최창진, 현용수, 김영재, 조병헌, 박승원
▲권사 취임: 박확실, 이복덕, 장정애, 김신애, 서영희, 조동희, 한정현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교육훈련

해마다 창립 기념부흥회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임직예배가 끝난 첫 주에는 임동선담임목사가 미래의 비전을 밝히는 특별 설교를 하는 전통이 세워져 있다.

1985년 8월18일 주일예배 때 「창립 20주년을 향한 꿈」(롬 15:22~29)이라는 설교를 통해 임동선목사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교회 비전을 밝혔다.

"모두가 기도에 나서고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할 때에 기쁨과 축복이 온다"

"바울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땅 끝이 되는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꿈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15주년을 마치고 또 20주년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교육관 신축: 교육, 훈련, 봉사의 다목적 사용
2. 파킹장 확장: 도시 교회의 필수조건
3, 지교회 확장: 국내외의 지교회 설립
4. 선교대학원 창설: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교육훈련
5. 교회협의회 조직: 영적 교류와 목사 안수 실시
6. 노인아파트 건립: 연로자를 존대함과 보호
7. 종합병원 설치: 인술을 통한 의료 선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 16:1).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마 22: 32)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스러운 거대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할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지역사회에 공헌과 자신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축복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청소년들, 부모 가치관과 생활모습 존경

교육부는 1985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가치관과 생활 모습에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시된 1백50명의 청소년 가운데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모습을 「존경하고 있다」는 46%, 「대단히 존경하고 있다」가 28%,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가 2.5%로 나타났다. 또 부모님들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가란 설문에 대해 「나만을 위해서」는 15%, 「대부분 나를 위해서」가 38%, 「나와 부모 자신들을 위해」가 39.5%, 「부모들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는 얼만큼의 어려움이 있나」란 설문에 대해서 전혀없다는 15%, 거의 없다가 26%, 약간 있다가 14%, 많다가 13%, 대단히 많다가 4%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창조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이며 사랑과 대화의 장소

설문을 작성한 고등부 임승천교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부모와의 대화적 관계에도 보다 적극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한승수집사는 "가정의 행복도 부모와 자녀들이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대화를 가지느냐에 좌우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조직은 모든 조직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LA에서 창립15주년 선교세미나

선교부는 창립15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행 해온 선교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새 선교정책을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차례에 걸친 선교세미나 중 제1차 세미나는 해외선교사를 초청해서 동양선교교회에서 가졌고 2차 선교 세미나는 모국 선교의 평가와 확장을 위해서 한국에서 개최했다. 교회 성장세미나는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생동감 넘치는 선교현장 보고와 새 시대를 향한 선교전략, 그리고 성장과제를 안고있는 이민교회를 향한 강력한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마련했다.



김찬희교수가 교회성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5주년 기념 교회성장 세미나는 8월14일~18일 교육관에서 개최했고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유럽 선교사 및 교역자 30명을 초청했다. 8월14일(수) 오전 10시 송정명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임병택목사의 기도와 임동선목사가 「교회부흥의 바른 자세」(행 2:43~4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8월 18일 주일 예배 때에는 선교사들이 설교를 담당했고, 저녁예배는 선교보고를 위한 특별순서로 진행했다. 본교회 교인들은 선교 및 교회성장 세미나에 온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해 식사 대접과 민박을 위한 봉사를 했고 외부에서 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교회성장 세미나는 8월15일과 16일, 17일, 18일 4일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초청 강사 및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세미나 참석 선교사 목회자들에게는 민박을 통해 OMC의 사랑을 전하기도

Dr. Wendel Johnston (탈봇신학교 신과대학장), Dr. Paul Pierson(훌러신학교 선교대학장), Dr. Earl Grant(아주사 신학대교수), 임동선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

교회성장 세미나 일정표 (1985년 8월 14일 ~ 18일)

월 일	시 간	Class	강의내용	장 소	강 사
8월 14일 (수)	오전 9:00-10:00		등록	안내부	안내위원
	오전 10:00-11:00	A, B	개회예배	중등부	임동선 목사
	오후 1:00- 3:00	A, B	동양선교교회 현황	중등부	송정명 목사
	오후 3:30- 5:30	A, B	타 문화권 이해	중등부	Dr. Earl Grant (통역 이원희 목사)
8월 15일 (목)	오전 9:00-10:30	A, B	성서적으로 본 선교의 뜻	중등부	Dr. Wendel Johnston (통역 이원희 목사)
	오전 10:30-12:00	A, B	교회 성장의 비결	중등부	임동선 목사
	오후 1:00- 6:00	A, B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견학		
8월 16일 (금)	오전 9:00-10:30	A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	중등부	Dr. Paul Pierson (통역 이원희 목사)
		B	이민교회의 교회 학교 운영	대학부	이중용 목사
	오전 10:30-12:00	A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	중등부	Dr. Paul Pierson (통역 이원희 목사)
		B	이민 목회 시림의 특성	대학부	심상권 목사
	오후 1:00- 5:00	A, B	Gran Grove Church 견학		
	오후 7:00- 8:30	A, B	남미선교 현황 보고 동남아 선교 현황 보고	본당	강두호 목사 정신택 목사
8월 17일 (토)	오전 9:00-10:30	A, B	이민교회의 나아갈 길	중등부	조천일 목사
	오전 10:00-12:00	A, B	좌담회	중등부	송정명 목사
	오후 1:00- 6:00	A, B	자유시간	중등부	
	오후 7:00- 9:00	A, B	중동선교 보고	중등부	권혁승 선교사
8월 18일 (주일)	오전 8:30- 오후 2:00	A, B	대 예배 참석 아프리카 선교 보고	본당	임동선 목사 최재선 선교사
	오후 4:00- 6:00	A, B	구라파 선교 보고 남태평양 선교 보고	본당	이원희 목사 한평우 목사 박상연 목사 윤수한 목사

조천일목사(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이원희목사(독일주재 선교사),
정신택목사(필리핀주재 선교사),
이중용목사(동양선교교회 교육목사)
심상권목사(남부 한미장로교회 담임),
강두호목사(파라과이주재 선교사),
송정명목사(동양선교교회 수석부목사),

정신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 모국선교

1985년 한국에는 26,000여 교회가 있고 그중의 절반이상인 14,000교회가 농어촌에 산재해있다. 1960년대 조국의 근대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몰리게 되므로 농어촌교회는 더욱 어려워졌다.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14,000개 교회중 자립교회(자립교회 기준은 매월 15만원(약 170달러)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교회)가 7,000여교회에 이르고 나머지 7,000여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에서 열린 제2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

제2회 농어촌교회 세미나는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5년 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서울 영동에 소재한 성결회관에서 열렸다. 강사진은 미국에서 임동선목사와 송정명목사가 파송되었다.

영적인 훈련과 농어촌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민정웅목사(독바위장로교회): 농어촌교회 목회 성공사례
김진홍목사(남양활빈교회): 농어촌 교역자의 사명
김준곤목사(한국 대학생 선교회): 농어촌 사역(이상규교육국장 대행)
정진경목사(신촌성결교회): 농어촌교회와 아시아선교의 비전
김선도목사(광림감리교회): 교회성장의 요소
이용신목사(서호성결교회): 농어촌교회의 어린이 종교교육
송용은, 박양미선교사(캐냐주재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

"도시의 근대화로 농어촌 사람이 도시로 떠나서 교회가 더욱 힘들어졌다" 모국선교 보고

세미나에서 제기된 농어촌 교역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 되었다.

1. 농어촌교회 실정에 알맞는 성경공부 방안 마련
2. 문맹교인들에 대한 신앙교육문제
3. 경제적인 자립대책 방안
4. 지역사회와의 구체적인 접촉방법
5. 교역자 자신의 자기 발전을 위한 연구방안

6. 이농현상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7. 자녀들의 교육문제
8. 농어촌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적 자세

목회자들은 "선교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 것이 더 큰 수확"이라고 말하고 선교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기를 바랐다. 1985년 선교부는 1년에 30만달러의 선교비 예산으로 국내 및 해외선교를 위해 지원했고 선교회원이 된 교인은 약 7백명에 이르렀다. 선교회원들은 매주일 20~50달러 정도를 헌금했고 500달러~1,000달러까지 특별선교헌금을 내는 교인들도 많았다. 모국 농어촌 지원교회도 모두 152개 교회로 늘어났다. 모국 선교의 사명은 갈수록 높아졌다.

한인교회는 미국교회의 신앙을 더 불 붙이는 선봉대열에 설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초교파 교회의 득과 실을 설명

임동선목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초교파 교회의 득과 실 그리고 신학대학 설립 등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밝혔다. (동양선교헤랄드, 1985년 8월호)

"우리교회가 초교파로 출발하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각 교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출발하게 되었고 또 넓은 새 땅에 와서 좀 더 넓게 울타리를 치고자 초교파로 시작한 것이다.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미국내의 큰 교회들의 대다수가 초교파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초교파로서 15년이 지나는 동안 본 좋은 점:

1. 상부의 간섭이 없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력이 신속하고 강하다는 것.
2. 한국에서 교파간의 알력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초교파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점.
3. 각 교파의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각 교파의 장점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

아쉬웠던 점:

1. 교회내의 큰 문제가 야기될 경우 상부기관이 없어서 조정 해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
2. 인재 양성에 있어서 교단 신학교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인재를 복음주의 학교에 추천하여 양성하고 있음)
3. 교역자 안수에 관한 애로. (금년에 신앙노선 같은 타 독립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점을 해결코자 함)

아울러 교육관이 완공되는 대로 선교대학을 시작하여 2세 이민자들을 위한 국내, 국외 선교사 양성 및 평신도 교육 강화에 주력하려고 한다. 미주안의 한인교회는 쇠퇴해가는 미국의 신앙을

더욱 불붙이는 선봉대열에 서리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사명은 더 없이 커지고 있다."

임동선 목사는 "미국내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로 독립교회
둘째 복음적 (보수적)
셋째 Strong Leadership 이라는 것을 교회성장 모델로 생각하면서 이민목회를 해나 왔다"고 말했다.

케냐와 인도의 현지 교회 설립 도와

1985년 1월11일 송정명 선교 담당목사는 3주간의 일정으로 파라과이, 알젠틴, 볼리비아, 남미선교 여행길에 나섰다. 남미 지역지교회 및 협력교회를 넓혀나가기 위해 선교 방문을 다녀온 송정명목사는 2월10일 주일 저녁예배때「복음에 빚진 사람들」(롬 1: 14~17)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집회 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케냐교회의 예배 광경

6월30일 지교회인 브라질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학생 22명과 교사 3명이 미국을 방문, 교류의 폭을 넓혔다. 5월26일 주일 저녁예배에는 인도네시아 서만수선교사가 동남아선교의 가능성 및 방법 등에 대한 보고를 했다. 6월30일에는 임종표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때 강금자권사는 아프리카지역 교회건축을 위해 5천달러를 전달했다. 아프리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었다며
교회를 설립했다**


인도에 세워진 현지 교회와 교역자

카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었다며 케냐지역에 현지교회가 세워지도록 협력을 했다.

1985년 9월28일 제3대 이원희목사 후임으로 안동호목사(덴버 갈보리한인나사렛교회 담임)를 서독 선교사로 선임하고 1985년 12월1일 부임하여 본 교회 사정을 파악한 후 12월 중순 현지로 파송했다. 안동호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 덕성여고에서 영어교사로 봉직했으며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도미 후 미국 미조리 소재 캔사스시티 나사렛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콜로라도주 덴버 갈보리 한인나사렛교회 담임목사로 7년간 봉직해 왔다.

1985년 선교회원이 헌금한 선교비

날 자	선교비	날 자	선교비
1월 6일	2170 (57)	7월 7일	3397 (94)
1월 13일	1695 (67)	7월 14일	7313 (77)
1월 20일	2930 (90)	7월 21일	2591 (61)
1월 27일	2781 (101)	7월 28일	2533 (80)
2월 3일	3127 (44)	8월 4일	1385 (58)
2월 10일	1979 (17)	8월 11일	3365 (78)
2월 17일	3784.02 (82)	8월 18일	2477 (64)
2월 24일	3296 (97)	8월 25일	3428 (97)
3월 3일	3185 (86)	9월 1일	2647 (91)
3월 10일	2899 (102)	9월 8일	2337 (88)
3월 17일	4208 (87)	9월 15일	2983 (80)
3월 24일	1132 (68)	9월 22일	2783.01 (102)
3월 31일	2348 (146)	9월 29일	4005 (97)
4월 7일	1884 (66)	10월 6일	3675 (104)
4월 14일	4068.20 (47)	10월 13일	3254 (72)
4월 21일	2349 (64)	10월 20일	3411 (72)
4월 28일	2580 (93)	10월 27일	
5월 5일	3856 (119)	11월 3일	4093 (97)
5월 12일	1785 (64)	11월 10일	
5월 19일	3026.06 (88)	11월 17일	2655 (42)
5월 26일	2642 (82)	11월 24일	1906.25 (71)
6월 2일	3544 (107)	12월 1일	3893 (92)
6월 9일	2307 (79)	12월 8일	3136 (98)
6월 16일	2987.60 (68)	12월 15일	2779 (59)
6월 23일	1920 (76)	12월 22일	1584 (54)
6월 30일	1981 (68)	12월 29일	3733 (103)

1976년부터 6억8천만의 인구를 가진 힌두교 국가 인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인도 선교를 추진해 온 본 교회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인도 남부지역에 현지인 교회를 건축했다. 1983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인도 현지 지역을 순회하고 있던 임동선목사 내외도 추가로 교회를 건축, 헌당식을 가졌다. 그리고 1984년 7월부터 인도지역에 3번째 교회당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던 사라 여전도회는 바자회와 결혼식 음식준비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을 전달했다. 1985년 2월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 성결교단 총회장 Ezra Sergunam목사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를 감사와 은혜속에 드렸다. 그후 김광락장로가 건축헌금을 부담한 교회와 김재순권사가 부담한 교회도 인도땅에 새로 세워졌다.

「이민생활의 3대 요소」를 설교

임동선목사는 교회의 내적 충실을 위해 은혜스러운 설교를 많이 했다. 전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생활, 성령을 받아 더욱 신앙인으로 선교, 교육, 봉사에 나설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1985년 6월30일 주일예배때 임동선목사는 「이민생활의 3대 요소」(출 20: 3~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생활, 성령을 받아 신앙인의 사명 다하자"

"십계명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며, 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민생활의 3대요소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일하라. **"힘써 일하라."**(9절)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창 1: 26) 사람은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요 5: 17)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와 구원과 완성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 10) 고 했습니다.

2. 휴식하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10절) **"제7일에 쉬었습니다."**(11절)

성경은 엿새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인도 피고용인도, 일하는 가축도 휴식하라 했습니다. 이민 정착 과정에서 우리는 기계의 노예, 사업의 번성, 안정된 생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휴식없이 일에 몰두하기 쉬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려 휴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며 휴식했습니다. 휴식은 내일의 일에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3.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8절)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건강하고(시 92: 12~14), 사업번성(사 58: 13~14),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렘 17: 24~27),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사 56: 2~7), 영원한 안식의 표(히 4: 11)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며,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의지를 강화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시 84: 10) 했습니다.

결론: 우리가 이민생활에 성공하여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일, 휴식, 예배 이 3가지를 실천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누구나 새땅에 와서 삶의 의미를 찾게되면 반드시 성공하고 영원히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것입니다."

임재순사모, 「이민목회자의 아내」 출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밝은 등불이 되어주셨고 전도자의 길을 밝게 해주셨다

병상에서 회복한 임재순사모는 1985년 6월 「이민목회자의 아내」라는 수기를 펴냈다. 자서전인 이 책에서 임재순사모는 어린 시절, 결혼, 서울신학생, 공군군목의 사모, 동양선교교회 창립, 발병과 세계선교여행을 진솔하게 썼다. 임재순사모는 책 머릿말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 "지난해 회갑을 맞으면서 긴 인생길을 회고해 볼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행복했다기 보다 숨가쁜 역경의 고비가 많았습니다.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험준한 굴곡도 많았고 눈물없이는 돌아볼수 없는 인생여정의 흔적이 마음을 흔들어 놓아 붓을 잡아 보았습니다. 경상도 산골에서 태어나 남달리 일찌기 복음에 눈을 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신앙생활이 험난했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태산같이 밀어닥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셨고 저로 하여금 전도자의 길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신앙의 토막토막을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행로 중 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보다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진다면 그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교역자 아내의 길이란 참으로 눈물없이 못가는 길, 희생없이 못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후회할 때도 있는 길입니다. 허술한 인생을 살아온 허물투성인데 이 간증집을 내 일생의 전부라고 보아 함께 정성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순사모의 저서 「이민 목회자의 아내」

흑인사회와 한인교계 교류에 앞장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한인교회와 미국 주류사회의 교류를 중시해온 임동선목사는 특별히 흑인 커뮤니티와 신앙의 협력을 위해 한인 교계지도자로서 앞장을 섰다. 한흑관계를 폭 넓게 유지

해 나가기 위해 본교회는 흑인교회와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갖고 설교 및 성가대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강단교류를 이루어 나갔다.

1985년 2월10일 주일에는 Little Zion Baptist Church(담임: Fisher목사) 성가대원 60명을 초청, 2부 예배(상오 10시)에 특별찬양 순서를 맡도록 했다. 3월9일 낮 12시30분 Compton 시청(마틴 루터광장)에서 열린 한인사회와 흑인사회를 위한 친선모임에 특별히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3월10일 주일에는 Little Zion Baptist Church에서 임동선목사를 초청 설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린 한흑 교류 촉진을 위한 기념예배

임동선목사는 흑인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두 소수민족 사이의 교류를 넓혀 나갔다

<1987년 한흑 합동예배 순서>

주 일 저 녁 예 배

(한 · 흑 합동예배)

오후 4 시

환 영 사 ··················(동양선교교회당회장) 임동선목사
기 도 ·········(에큐메니칼협의회회장) H. P. Rachel 목사
성경봉독 ····(요17 : 9 ~21)····(영어) Frank Higgins 목사
(한글) 송정명목사
찬 송 ············· (제405장) ············· 다 같 이
특 송 ········· (Were You There) ·········이귀임집사
■ 18~19세기 동안의 저명한 흑인지도자의 생애 ■
해 설 ································· Rai Tasco
찬 양 ························· L.A.제일 AME교회성가대
헌 금 ········· (기도 : 이정근목사) ········· 위 원
(헌금송 : DeWayne Knox)
■ 20세기 저명한 흑인지도자들의 생애 ■
특 송 ············(He Touched Me)······· Jessica Smith
인 사 ··························Tom Bradley L.A.시장
답 사 ················(남가주기독교협의회회장) 이기홍목사
답 사 ··········(L.A.교회협의회회장) James Pierson 목사
찬 송 ···(Lift Every Voice And Sing)··· 흑인영가(박 시)
축 도 ··········(초교파목회자협회회장) Paul Martin 목사
*무언 사회로 진행됨. 통역 : 이원희목사

교를 했고 동양선교교회 2부, 3부 연합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불러서 한흑간 신앙의 교류를 은혜스럽게 이어갔다.

1986년에 들어서도 한흑교계 교류를 꾸준히 계속했고, 5월25일에는 흑인교계 지도자와 한인교계 지도자 회의를 본교회에서 가졌다. 임동선목사는 1986년 6월29일 톰 브래들리 LA 시장으로 부터 한흑관계를 잘 인도해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1987년 2월15일 주일 저녁 한흑 이해관계 개선을 위한 합동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톰 브래들리 LA 시장과 흑인사회 지도자 및 성가대원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했다.

상락대학, 23명의 졸업생 배출


1983년 상락대학의 첫 졸업생들의 모습

65세 이상되는 남녀성도들을 위해 설립된 상락대학은 1983년 2월 2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상락대학에서 성경, 교회사, 영어, 심리학, 보건, 음악, 특강 등을 배우고 졸업한 학생들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상락회 헌신예배때 졸업장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진옥, 김재순, 김옥인, 강금자, 허 심, 허을순,
송대순, 최경호, 이정숙, 홍기영, 이윤월,
전영길, 진선희, 윤 혁, 오남조, 장세정, 김현숙,
박완순, 이계봉, 최희자, 김병숙, 강경애, 이항순

성경, 교회사, 영어, 심리학, 보건, 음악, 특강 등으로 짜여진 상락대학 교과과정

1984년 1월22일 상락회는 새 임원을 선출했다.

▲고문: 이천영목사, 오태상목사, 임재순사모
▲지도목사: 임병택
▲회장: 최경호장로, 부회장: 박경자권사, 이옥엽권사
▲총무: 이득애권사, 회계: 김병숙권사, 서기: 이경옥권사
▲전도부장: 박경자권사, 교육부장: 박완순권사, 봉사부장: 김재순권사
▲친교부장: 박화진권사

상락남전도회와 상락여전도회로 나누어

상락전도회는 봄 가을 1년에 2차례씩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1987년 11월 상락회를 상락남전도회와 상락여전도회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도회 이름을 모두 선교회로 바꾸었다.

1987년 상락여전도회 임원(65세 이상)

▲회장: 김병숙 ▲부회장: 이득애, 하애도
▲총무: 박경자 ▲서기: 강순남 ▲회계: 김성심
▲전도부장: 이옥엽 ▲봉사부장: 송대순 ▲교육부장: 이경옥
▲음악부장: 김순애 ▲미화부장: 김보근 ▲섭외부장: 강금자
▲경조부장: 강월래

김병숙권사는 선교비를 지원하는 한국의 교회와 원로원을 돌아보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상락남전도회 임원

▲고문: 이천영목사, 임병택목사
▲회장: 이정식목사 ▲부회장: 이응율장로, 허심집사
▲총무: 한부일집사 ▲서기: 공덕봉집사
▲선교부장: 김인웅장로 ▲조직부장: 최경호장로
▲봉사부장: 안승엽장로

1988년 상락남선교회 임원

▲고문: 이천영목사
▲회장: 심신경목사 ▲부회장: 김응현장로, 한부일집사
▲총무: 공덕봉집사 ▲서기: 황명준집사 ▲회계: 김금석집사

상락여선교회 임원

▲지도목사: 임병택목사 ▲고문: 임재순사모, 김병숙권사
▲회장: 오순명권사 ▲부회장: 이득애권사, 진선희권사
▲서기: 강순남 ▲회계: 김성심 ▲총무: 최용숙
▲전도부장: 함정희 ▲친교부장: 하애도 ▲봉사부장: 송대순
▲교육부장: 박경자 ▲관리부장: 김재순 ▲미화부장: 김보근
▲음악부장: 김순애 ▲경조부장: 강월래 ▲섭외부장: 강금자

상락여전도회 김병숙권사는 1985년 4월4일~27일 모국을 방문, 전남 무안 양장산 성결교회, 경기도 용인 원산교회 그리고 나환자 전도에 주력하는 한국구라선교협회(천대성목사)에 선교비를 전달하고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주안원로원(양로원대표: 김오봉목사)과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왔다. 주안원로원은 70세 이상의 은퇴한 교역자 17세대가 모여 살고 있다. 앞으로 후생시설 헌금보조 등을 하기로 결의했다. 김병숙권사는 71살 나이 답지않게 전국을 돌며 지원 교회들을 보고온 뒤 "앞으로 남은 길지 않은 시간들을 선교사업을 통해 뜻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 오순명권사(미주성산교회)

"여전도회 회장때 장학금 마련, 부엌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바자회를 자주 열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가족이 결혼식을 할 때는 8백명분의 음식을 만들면서 기금을 모았다. 2세 교육관 건립 때 헌금을 많이 했고 그당시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

1987년 12월13일 김광락장로는 노인복지 기금으로 1만 5천달러를 헌금했다. 이때부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교우들의 헌금으로 상조회를 만드는데 계기가 되었다.

개인 전도위해 전도폭발 훈련

현대교인의 95%가 평생동안 한번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전도폭발

현대 교인들의 95%가 평생동안 한번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플로리다주에 소재하고 있는 코랄릿지 장로교회 James Kennedy목사가 창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개인전도 훈련방법인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을 동양선교교회가 1985년 처음으로 시작했다. 전도폭발 훈련은 16주간에 걸쳐 전도의 원리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 전도를 통한 양육(Follow-Up)의 원리, 교회성장 원리를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개인 전도 방법이다.


전도폭발 훈련 모습

1985년 11월 첫 전도폭발 훈련생 교육을 시작했고 1986년 2월말 1차적으로 4명의 수료자(김재권장로, 김경태장로, 임원희집사, 이귀임집사)를 배출했다. 지도자양성부는 다시 1986년 3월2일 전도폭발 훈련생 10명을 모집, 송정명목사 등이 지도를 했다. 1986년 3월26일 처음으로 전도폭발 수료예배를 드렸다.

전도폭발 훈련에는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사모, 세례교인 등이 공부를 했고 수요일 오후 7시~10시, 오후 5시30분~8시30분 교육을 실시했다. 지도자양성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했으며 16주에 걸쳐 전도 이론 과정과 현장실습을 거친 후 수료증을 수여했다. 전도폭발 훈련은 지도자가 1회에 2명씩 훈련시키는 철저한 개인훈련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수료한 사람들이 다시 2명씩 훈련을 했다. 전도폭발 훈련은 송정명목사, 김재권, 김경태, 김광돈장로 등이 1986

년 2월4일 부터 5월20일까지 담당했다. 7월12일 저녁예배 때에는 제3기 전도폭발 수료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는 George Maison 대학교 교수인 노영찬목사가 맡았다.

▲제3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자
장로: 신윤철, 김중완, 조정현
집사: 김성곤, 박승원, 김동윤, 박윤배, 신무희, 김경수, 김옥자, 오윤화,
김희숙, 헬렌켈리, 오길순, 에스더 곽, 주창국, 최임규, 최경희
박국현 성도

1988년 제5기 훈련생은 모두 50명을 모집했고, 전도 이론 및 실습을 임동선목사, 송정명목사, 김재권 장로등이 담당했다. 점차 훈련생이 늘어나면서 주일반, 수요반, 토요반으로 나누어 교육했고, 수료자와 교사 전원은 산상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1988년 전도폭발 훈련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일에 이어 수요반, 토요반을 신설했다

김재권장로는 "전도폭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임상 Clinic을 우리교회에서 했다. 강사는 김만풍목사님으로 우리교회의 많은 장로님들이 임상 Clinic을 수료하였다"고 말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장년 주일학교

1986년부터 장년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1월12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계속된 신년특강은 안용식목사가 「구원론」을 담당했다. 그리고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15주간에 걸친 제2기 장년 주일학교 강의는 매주일 11시30분~12시20분 본당에서 가졌다. 「동양선교헤랄드」는 장년 주일학교를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다.

"말씀 중심과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전성도가 성경공부를 했다.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예배당)에서 11개 그룹이 제각기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는데 모두 장년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 장년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도 소리소문도 없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교회 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배움의 열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영적 신앙체험을 통해 단련된 11명의 교사가 해박한 성서의 지식을 펼쳐 말씀의 참뜻을 각 분야에 걸쳐 선포했는데, 이곳이 바로 공부하는 교회의 소리없는 현장이었다."

장년 주일학교는 1977년 처음 성경공부반으로 출발했고 1983년까지 꾸준히 공부를 계속해와 오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1984년에는 김몽학장로를 중심으로 박계로장로, 이정배장로 등 3명의 장로가 합심이 되어 성경공부의 장기교육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틀에 잡힌 교육을 해왔다.
「장년 주일학교」, 그 이름이야 무어라고 부르던 말씀 중흥의 본산이고 또한 신앙생활의 길잡

이가 되는 어두운 뱃길의 등대와 같은 곳이다. 성경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이구동성, 말씀과 성령에 가득차 있음을 강조했다.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어두운 뱃길의 등대와 같은 곳이 장년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의 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함정희전도사), 출애굽기(김재숙집사), 욥기(김경태장로),
시편(김순애권사), 이사야서(강선자전도사)

▲신약

마가복음(김광돈집사), 요한복음(이정식목사), 사도행전(박계로장로),
로마서(김재권장로), 옥중서신(김용일장로), 요한서신(서완석장로)

장년 주일학교의 성경공부는 1986년 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45주동안 3학기로 나누어 가르쳤는데 매학기 마다 성경 한권씩 3학기에 성경 3권을 공부했다. 또한 성서연구반은 8월6일~12월31일까지 20주동안 성경공부를 했는데 과목 및 교사는 창세기(함정희전도사), 출애굽기(현용수목사), 이사야(황재룡장로), 요한복음(백영두장로), 사도행전(최임규전도사), 로마서(김재권장로), 히브리서(조정현장로) 등이다.

김재권장로는 "전도사와 장로들이 성경을 주제별로 가르쳤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회부흥에도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1천5백명 학생에 신앙교육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

1985년 1월 출석교인은 모두 4천명에 이르렀고 이중 1천 5백명이 영아부에서 대학부에 이르는 학생들이다.

교육담당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각급 교사들은 이민사회 안에서 신앙을 통한 자녀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당회는 해마다 교육예산을 증액, 가정교육과 교회교육, 학교교육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유년부부터 대학부와 한글학교까지 교육의 성과를 얻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해마다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해서 1천명의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성경을 가르쳤고 부활절과 Summer Camp 그리고 성탄행사 등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신앙교육을 해나갔다.

중고등부는 여름수양회와 청소년 집회 「Come to Me」와 문예의 밤 행사, 자녀와 학부모의 대화시간 등을 통해 이민생활을 신앙적으로 알차게 엮어 나갔다. 대학부는 캠퍼스선교와 코이노니아의 밤 그리고 「Come & See」부흥회를 통해서 헌신해 나갔다.

한글학교는 초등부 학생으로부터 점차 중고등부 학생의 등록이 늘어났고 야외운동회, 한글학교 헌신예배, 이야기대회, 글짓기대회 등을 통해서 뿌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갔다. 한글학교는 매년 7월 모국 방문단을 구성 3주간의 계획으로 한국을 방문, 한글 교육 및 문화와 역사, 현장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글학교는 이야기대회 글짓기대회 등 뿌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갔다

교육부는 연초에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앞으로 책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했고 정기적인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사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바람직한 교사상, 교재 다루기, 이민가정 2세 청소년의 문제점과 기독교 교육적 해결 방안, 커리큘럼에 따른 성경연구, 영어 성경의 인명, 지명 연구 등을 배웠다. 교사들은 헌신예배를 통해서 신앙 및 학업지도, 이민생활에 대한 자신감 등을 불어넣어 주었다. 각 부서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헌신적인 각급 교사들이 많아서 교인 자녀는 물론 믿지 않는 교포들의 자녀들까지 학생으로 등록을 해왔다.



정기적으로 교사수련회를 갖고 교육의 사명을 더욱 다졌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 예배 및 출석인원 (1985년)

내 용	시 간	인 원	내 용	시 간	인 원
어린이 주일학교 1부	오전 8:30	706 명	중등부 1부	오전 10:00	176 명
어린이 주일학교 2부	오전 10:00		중등부 2부	오후 12:30	
어린이 주일학교 3부	오후 12:30		고등부	오전 10:00	101 명
한글학교	오후 2:00	250 명	대학부	오전 10:00	112 명

좋은 교사 지도로 매주일 공부

1985년은 좋은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교육봉사를 한 해이다. 특별히 미국대학에서 공부를 한 수준높은 교사들이 각급 학생들을 전문성과 신앙으로 잘 지도했다. 동양선교교회 교사들은 잘 훈련을 받았다는 평을 들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헌신적이고 수준높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동양선교교회 교육부였다

이중용목사(교육목사), 안용식목사(대학부 지도목사),
정문섭장로(Ph.D. 교육부장), 안정현장로(Ph.D . 대학부장),
김여근집사(Ph.D. UCLA), 김영재집사(UCLA 졸업),
김희연선생(CSULA), 한종유선생(UCLA),
이은경선생(UCI 졸업), 장준선생(UC Berkeley),
한해주선생(UCLA 졸업), 이창섭선생(UCLA 졸업),
김진승선생(CSUN), 현금주선생(UCLA 졸업),
강형모선생(CSULA 졸업), 송창현선생(UCLA),
이병덕선생(UCI), 유회범선생(UCLA 졸업),
전혜성선생(UCSD), 홍윤정(CSUN),
김은희선생(CS Fullerton), Nancy Kim선생(UCLA),
노선영선생(UCLA 졸업), 조애양선생(UCLA 졸업),
홍성호선생(UCLA 졸업), 홍현숙선생(CSULB 졸업),
김 강선생(UCLA), 신세정선생(Cal. Tech), 박선미선생(CSUN),
조소양선생(UCLA 졸업), 민경혁선생(UCLA), 박은하선생(LACC),
배경애선생(CSULA), 최진기전도사(UCLA 졸업)



동양선교교회의 각급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중고등부는 1983년 부활절 주간인 3월30일~4월2일 김장환목사를 초청, 제4회 청소년복음화「Come to Me」대회를 은혜 속에 마쳤다. 대학부는 1984년 11월15일~18일「예수님 때문에(Because of Jesus)」라는 주제로 제7회「Come & See」대학생 부흥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 이사장이며 국제대학생회 선교회 동아시아 본부 대표인 김준곤목사가 맡았다. 김준곤목사는 대학생을 향해 "내 가슴 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속죄에의 불타는 사랑을 담자. 이 불로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이 불로 사람을 불같이 사랑한다.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길로 이 더러워진 거리 구석 구석을 태우리라. 이것이 나의 종교이다. 나의 종교는 교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의 사랑의 불길이다"라고 설교했다.

교육부는 1984년도 모범교사 표창식을 12월16일 거행했다. 11명의 교사가 선발된 이날 표창식에서는 기념패와 부상이 각각 전달됐다.

"교회부흥의 지름길은 전문교육자와 신앙이 좋은 훈련된 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각 부서별 모범교사는 다음과 같다.

▲유아부교사: 김경자 ▲유치부교사: 강신경
▲유년부교사: 이현주 ▲초등부교사: 조소양
▲소년부교사: 이형인 ▲중등부교사: 최근숙
▲고등부교사: 박선미 ▲대학부교사: 김여근
▲특수교육부교사: 이은미 ▲한글교육부교사: 임원희
▲장년부교사: 함정희전도사

당회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 상담교사로 박은혜(Grace Park)를 임명했다. 박은혜 선생은 청소년상담에 경험이 많고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뉴욕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YMCA 상담전문가로 학생진학상담, 한인직업상담, 뉴욕 브룩클린한인교회 청소년지도, CCC Staff, 중국타운 가정상담소 상담요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부는 그룹상담, 교사상담요원 훈련, 한인청소년 문제를 위한 Hot Line을 설치 운영했다.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 교육은 질적 향상을 우선시했고 우수한 전문 교육자와 훈련된 교사를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교육이 교회부흥 성패의 열쇠라고 믿었다"고 교육방침을 설명했다

밸리지역과 뉴욕 두 곳에 지교회 창립

당회는 남가주지역에 지교회를 계속 창립해 나가기로 했다. 1986년 1월 23일~25일 지교회인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창립 1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를 드렸고 임동선목사가 기념 설교를 담당했다.



1986년 두번째 지교회로 창립된 밸리동양선교교회

1986년 2월23일 밸리지역에 2번째로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를 창립했다. 담임목사에는 서독에서 2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돌아온 이원희목사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2월16일 주일아침 예배는 이원희목사를 밸리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윤근섭장로는 새로 지교회로 세워진 밸리 동양선교교회 시무장로로 옮겼다. 1986년 2월23일 설립한 밸리 지교회는 창립 예배 첫 헌금 4,688달러16센트를 본교회 교육관 건축헌금으로 보내왔다.

사우스베이와 오렌지카운티 그리고 밸리지역에 이어 1986년 5월25일 주일예배 때 뉴욕동양선교교회 지교회 담임목사로 박수복목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박수복목사는 6월8일 오후 3시30분 뉴욕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첫 예배를 드렸다.

10월5일 온타리오에 지교회를 창립하고 최지원목사를 담임으로 임명했다. 온타리오 동양선교회는 1986년 10월26일 오후 4시 임동선목사 설교와 1부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립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다.

당회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 지교회가 늘어나면서 동양선교교회와 협력을 위한 협력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지원과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성인을 위한 예배당보다 2세 교육관을 먼저 지은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이다

2세 신앙교육 센터, 교육관 기공예배

1986년은 2세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터가 될 교육관을 세우기 위해 담임목사와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와 헌금을 열심히 한 해이다. 임동선목사는 "성인을 위한 새 성전을 건축하기 보다 이민사회의 새 주역이 될 후세들을 위한 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를 먼저 드렸다. 제2의 청교도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1세들이 되기 위해 교육관을 지어 신앙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1984년부터 이미 교육관 건립을 위해 교인들의 헌금과 기도가 시작되었고 1986년에 들어서면서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에스더 여전도회는 먼저 1986년 2월1일 교육관 건축헌금을 위한 바자회를 교회 주차장에서 가졌다. 이날 센추리가구점에서 기증한 가구들을 판매하면서 기금을 모았고 로마한인교회 한평우선교사는 건축기금 1천달러를 보내왔다.

한나 여전도회는 1986년 3월16일 교육관 건축기금으로 1만달러를 헌금했다. 고등부학생들



1986년 7월 20일 교육관 기공예배후 임동선목사와 온 성도가 기념촬영을 했다

새 교육관은
받는 믿음에서
주는 믿음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전당이
될 것이다

도 세차를 하여 건축기금을 모았고 에스더 여전도회는 야드세일의 수익금 5천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다. 당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을 LA 시립대학 (LACC)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의 찬성의견에 따라 초중고 대학생들의 교육관 시설을 새 교육관 건축 기간동안 LACC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

6월29일 사라여전도회는 교육관 건축기금 2만달러를 헌금했다.

1986년 7월20일에는 임동선담임목사와 전교인이 역사적인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다.

1986년 7월 20일
오후 2시 30분

교육관 기공 예배

사회: 건축위원장 이정배 장로

개식사 (묵도)		사 회 자
기 원		사 회 자
찬 송	제 245장	다 같 이
기 도		오해훈 장로
성경 봉독		사 회 자
설 교		임동선 목사
선 언		임동선 목사
기 도		임동선 목사
건축공사 보고	경과 및 계획	부위원장 한건수 장로
광 고		사 회 자
찬 송	제 3장	다 같 이
축 도		이천영 목사

이민의 성공은 자녀 교육에 있다

「동양선교헤랄드」는 1986년 7월호에서 교육관 기공예배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3년여 기간동안 기도와 염원 속에 틀을 잡아오던 선교와 봉사, 그리고 교육을 위한 본 교회의 부속 건물이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어 1986년 7월20일 기공예배를 가졌다. 망치와 삽질 소리에 맞추어 톱질을 하는 공사기간이 11개월 걸린다. 동양선교교회는 예배당신축이나 그외 새 단장을 하기에 앞서 교육센터를 먼저 세우기로 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우리 이민이 시작한지 20년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는 이민의 성공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전도여행에 앞서 12제자를 불러 먼저 전도교육을 시켰다.

그 씨앗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싹트여 살아나고 있다. 새로 세워질 이 센터는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을 훌륭히 수행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동양선교교회는 이곳에다 전인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일반사회의 정규기관도 세워, 민족 혼이 있는 우리의 2세교육도 실시한다. 뿐만아니라 신학교를 비롯 평신도 훈련을 개설하여 뿌리있는 이민신학을 개척하고 「받는 믿음」에서 「주는 믿음」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될 하나님의 전당이 될 것이다. 새 교육관은 4층으로 37,300 스퀘어피트의 면적이며 시공기간은 1년반으로 예상했다. 총 공사비는 3백만달러를 예정했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1층은 어린이 교육실, 2층 체육관, 3층과 4층은 예배실과 교실로 만들기로 했다."

여전도회 연합회와 전교인들 그리고 지교회에서도 건축헌금을 보내오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교육관 건축기금을 위하여 7월18일~8월2일 나사렛 청년회는 한국의 저명한 서예가와 화가의 성구 서예 성화전을 개최하면서 기금을 모았다. 교육관 건축에 남가주 및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남가주기독교 여전도회연합회 (회장 한정현)에서 1천달러를 보내왔다. 김지수 교우는 1만달러를 헌금으로 기탁하는 등 교육관 건축에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담임목사, 건축위원장이 교육관 건축의 첫 삽을 뜨고 있다

1986년 10월19일 899,179달러의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전교인들이 430,361달러를 헌금으로 드렸다. 사우스베이 지교회 여전도회는 건축헌금 1,162달러를 보내왔다. 1987년에 들어서도 교인들은 계속 건축헌금을 드렸고, 1월25일 다시 교육관 특별 건축헌금을 했는데 모두 92명의 교인 104,790달러를 헌금을 했다.

구 교육관 철거작업은 7월23일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

다. 1986년 8월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철거된 현장에서 새 교육관 기공 예배를 다시 드렸다. 이날 임동선목사와 온 성도 남가주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탐 브래들리 LA시장이 참석, 이민교회로서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교육관 기공 예배를 감사와 은혜속에 드렸다.

밀라노 지교회 (담임 이정근목사)에서 교육관 건축헌금 5천달러를 보내왔고, 한교인은 5천달러를 당회장에게 기탁했다. 사라, 한나, 에스더여선교회는 다시 야드세일 이익금 6천달러를 헌금했고, 특수반에서 2백달러를 헌금하는 등 교육관 건축헌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졌다. 오렌지카운터 동양선교교회 지교회에서도 3천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보내왔다. 스티브임집사는 1만달러를 헌금했고, 이시우 임승혜는 2천달러의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김재희집사는 교육관 비품기금으로 5천달러를 헌금했다.

1986년 교육관 건축헌금 내용

날 자	선교비	헌금 교인수	날 자	선교비	헌금 교인수
1월 5일			7월 6일	7588.67	72
1월 12일			7월 13일	11864	68
1월 19일	11369.41		7월 20일	22941.05	64
1월 26일	15212.32		7월 27일	17249.18	
2월 2일	10274.42		8월 3일	31004.15	
2월 9일	7682.13		8월 10일	26424.74	82
2월 16일	7310.34		8월 17일	10189.34	58
2월 23일	10547.79		8월 24일	5673.96	
3월 2일	25414.53		8월 31일	19472.76	56
3월 9일	1208.38		9월 7일	11653.15	80
3월 16일	18978.28		9월 14일	7698.13	55
3월 23일	7406.95		9월 21일	10634.83	57
3월 30일	11016.95		9월 28일	18683.36	64
4월 6일	14952.68		10월 5일	10430.13	85
4월 13일	8092.56		10월 12일	10343.81	55
4월 20일			10월 19일	4916.68	42
4월 27일	13220.40		10월 26일	7092.71	63
5월 4일	19379.92		11월 2일	7911.22	59
5월 11일	10204.74		11월 9일	7153.84	54
5월 18일	11412.29		11월 16일	10108.45	51
5월 25일	7659.26		11월 23일	11625.91	43
6월 1일	28929.24		11월 30일	7056.60	50
6월 8일	6899.57		12월 7일	14953.22	45
6월 15일	33391.73	70	12월 14일	7615.59	48
6월 22일	15144.48		12월 21일	11560.06	37
6월 29일	16920.48		12월 28일	26435.71	68

1987년 8월31일까지 전교인이 교육관 작정 및 헌금 현황은 작정액 1,061,480.00달러, 완납액 984,101달러64센트 (93%), 미납액 77,378달러36센트 (7%)이었다.

각 기관과 평신도의 기원

교육관 건축을 위해 온 성도는 하루 5분씩 기도를 드렸고 물질로 적극 지원을 했다. 「교육관 지어 값진 유산을 남기자」(마 28: 19-20)라는 표어를 채택했고 2세들에게 깊은 신앙의 뿌리를 심어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며 기쁜 마음으로 나섰다.

후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이중용교육목사

"1980년 4월 현 교육관을 구입했을 때만 하여도 약 650여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소로는 그리 비좁지 않았다. 그러나 약 1,400여명의 학생으로 급성장을 하게 된 지금은 더이상 수용할 능력을 잃고 있다. 하루속히 넓은 교육관이 건립되어 더 많은 어린이, 젊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성기윤 교육부부장

"우리 전체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우리 후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전 교인이 교육관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 송치선집사

"신축교육관이 한인커뮤니티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시설이 되어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 문화 종교시설이 없는 한인사회의 교량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의 축복속에 1986년 교육관 기공식을 가졌다

▲ 정메리 중등부학생회장

"우리 중등부는 성경공부 장소를 찾지못하여 이곳저곳으로 밀려다니다 선생님 말씀과 질문도 대답도 듣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적이 많이 있다. 친목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싶다. 교육관은 저희 중등부 뿐만 아니라 남가주 한국청소년 모두를 위해 지어지도록 기도하겠다."

▲ Robert W. Sloan 집사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church in the future building program. I think that because of the tremendous enthusiasm of the second generation students, the new building plans should include a suitable christian educational center."

▲ John Neimus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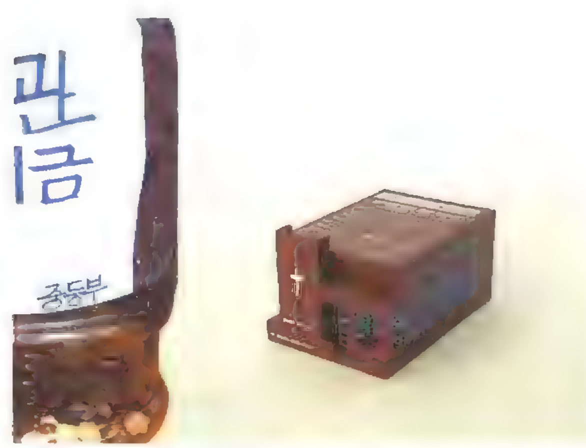
"I think the inception of a new christian educational building is a fine plan. It will provide much needed space and privacy necessary to insure quality instruction as well as providing proper facilities for future generations."

▲ 임혜경유치부교사

"찬양의 시간에 어린이들은 마음을 놓고 찬양을 드릴수가 없다. 그 이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어른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가지 아쉬운 것은 성경공부시간이다. 비좁은 방에서 시끄럽고 산만한 환경속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배울 수 있을까? 좀더 넓고 조용한 환경속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양선교교회 교육관 건축위원회발행) 1985년 7월

교회는 교육관 건축기금 확보의 일환으로 교육관 모형저금통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인 한가정에 1개씩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하도록 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저금 기간은 6월14일~10월31일로 정했고 성도들은 11월1일 교회에 전달했다.



교육관 건축기금을 위한 교육관 모양의 저금통

창립 16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부흥성회

창립16주년을 맞아 1986년 7월22일~26일 이만신목사(서울 중앙성결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만신목사는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하루 세 차례씩 특별부흥집회를 인도했고 7월26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 「성도의 생활」(빌 4: 13~16), 「행복한 생활」(전 9: 7~10), 「행복한 인생」(요 14: 25~27)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창립 16주년 기념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다. 이만신목사는 1986년 7월 27일 창립주일 예배 때 「행복한 생활」(전 9: 7~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신앙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길은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고 행복을 누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좋은 배우자,
좋은 직업과 좋은 종교는 불가결한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문에는 사랑과 일과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전 9: 9)
사랑은 행복의 열쇠이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구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가정은 보이는 낙원입니다.(루터) 언제나 마음껏 그리고 떳떳하게 사랑하는 보람과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일하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전 9:10)
본문 10절에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되 계획을 세우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고 사람은 그 일을 보아서 압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 건전한 신앙을 통해서 행복해 집니다. (전 9: 7~8)
순결한 가정의 사랑도 성실한 노동의 보람도 신앙의 힘에서 우러 나와야 완전해 집니다. 행복이란 마음가짐에 달렸는데 남보기엔 불행해 보여도 신앙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옥중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믿음 안에서 느끼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오후 3시 창립 16주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은혜와 축하속에 드렸다. 임직예배후에는 사랑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스런 성도와 제직이 될 것을 다짐했다.

▲장로취임: 김경태, 이성은, 이건기
▲장로장립: 탁찬효, 신상우, 조상희, 조정현, 김광돈
▲안수집사 취임: 이영세
▲집사안수: 황명준, 계춘영, 스티브임, 이고명, 심상수,
김해룡, 황규일, 엄창웅
▲권사 취임: 천희완, 강순남, 이예환, 백계선, 김유단, 조태운,
배종년, 김재숙, 오상숙

창립 16주년 기념 교인 의식구조 조사

설문조사 결과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선교헤랄드」는 창립 16주년 기념으로 교인 의식구조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은 40세~60세의 연령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출석 연수는 5년~10년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전가족이 본교회에 출석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우들의 의식구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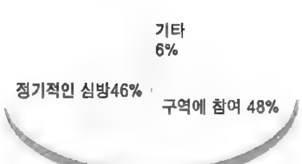
또한 본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교회 설립문제」, 「각급 주일학교의 언어사용」문제 등에 대해 많은 교우들이 적극적인 지지도를 보여주었으며 「새 신자 관리」는 구역에 참여(48%), 정기적인 심방(46%)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밀접한 협조를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교우들의 40%가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해 42%의 교우들이 만족함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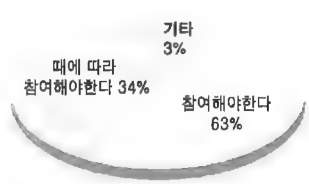
1. 신앙생활의 충실 2. 부부간의 화목 3. 가족의 건강 순으로 이민 생활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민목적은

1. 자녀교육 때문 2. 경제적인 이유 로 밝히고 있다.



새 신자 관리



교회 참여도

「조국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가 58%로 「미국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51%로 나타났다. 교회의 한인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1. 참여해야 한다(63%) 2. 때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34%)였고

교육관 건축 다음으로 노인아파트 건립 요구 29%, 파킹장 확장 요구가 25%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신상은 2~4명 가족이 가장 많고 독신자도 23%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종교는 기독교가 68%, 미주거주 연수는 6~15년이 56%, 15년 이상 된 교우도 11%에 이르고 있다.

교회와 거주지역과의 거리는 5마일 이내가 46%이며, 46.5%가 30마일 이내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지위에 있어 영주권자가 55% 시민권자가 43% 로 대부분 안정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 표현도 보통이다가 42%, 불편없다가 30%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라는 설문에 응답한 157명의 교우들 중에 한명도 못했다가 46%로 나타나 앞으로 교인들의 개인전도가 커다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임동선목사의 목회철학은 말씀 중심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임동선목사의 이민 목회철학은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부터 나왔다. 이민자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위로목회, 소망의 목회, 봉사의 목회, 치유의 목회를 목표로 해왔다. 그리고 세계선교를 목회의 제일로 생각을 했고 창립 때부터 선교목회를 위해 힘써왔다. 1986년 임동선목사는 지교회 확장과 교육관 건축 그리고 이웃을 돕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았다. 교육관 건축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헌신을 다짐했고 성령이 넘치는 설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주일설교 준비를 했다. 언제나 성령이 온성도와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1986년 8월3일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후 임동선목사는 교인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엡 4:13~16)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설교를 했다.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14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15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라"(13절)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1.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 6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 12, 신 18: 15, 사 33: 17)

2.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말라"(골 3: 1~2, 사 40: 31).해바라기꽃이 하늘을 향하듯, 신자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3. 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正路)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21). 이는 지나간 역사에 귀를 기울이여 취사선택하라는 말입니다.

4.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엡 3: 17).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 3)

결론: 미국에는 가뭄, 태풍, 지진, 불경기, 실업, 강도 등으로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상 4가지 자세를 갖추어 성숙한 신앙으로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동선목사는 1986년 「스스로 개척하라」는 설교 제2집을 펴냈다. 이는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이라는 목회간증집 이후 2번째로 펴낸 설교집으로 이민목회로 대형 교회를 만든 임동선목사의 은혜스럽고 희망에 찬,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가 담겨있다. 임재순사모는 5월10일 재미기독여성협의회가 주최하는 밀알수상식에서 장한 어머니로 결정되었다.

1986년 7월 신앙강좌를 위해 동양선교교회에 온 김형석교수(연세대)는 본교회의 사명을 말했다.

"나는 처음, 동양선교교회를 방문했을 때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 인상을 받았다. 고국을 떠나 미주로 이민온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안식처를 동양선교교회에서 얻고 있었다. 실향민은 아니지만 한국을 떠나온 동포들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임동선목사께서 동양선교교회의 중심을 이끌어 왔다고 보아 크게 잘못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당신이 일을 맡기시도록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동양선교교회의 사



김형석교수초청 신앙강연회

명은 어떤 것일까. LA와 캘리포니아 일대는 말할 것도 없으며,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 모범을 보여주며, 신앙적 영향을 미치는 모교회 중의 하나로 성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회는 많이 있으나 참다운 교회는 언제나 적은 것이 유감이나, 그런 점에서 동양선교교회는 교회 중의 교회로 성장하고 봉사해 줄 것을 확신한다."



웨스턴가에 우뚝서는 교육관



완공단계의 교육관 모습

제9장
복음연합사업과 월드미션대학

- 1986년 홍성호 홍현숙선교사 파송
- 온타리오와 뉴욕에 지교회 창립
- 2000년대의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 동양선교교회(OMC) 협력회 구성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WEMA)창립총회
- 담임목사 위임 연한을 5년 연장 결의
- 창립 17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웨스턴에 우뚝선 배움의 집 교육관
- "이 전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동전 31만개를 모아서 지은 교육관
- 할리웃 보울에서 부활절 새벽 설교
-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습 공동체
- 창립 18주년 기념부흥회 및 임직 예배
- 당회장, 65세 정년 퇴임을 발표
- 임동선 당회장 정년 은퇴 기념예배
- 월드미션대학 개교, 한인 선교사 양성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첫 목사안수
-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예배
- 이병희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
- 송정명목사 이중용목사 새 목회지로
- 2대 담임목사 취임과 원로목사 추대예배
- 임동선목사 성역 40주년 기념세미나
- 세계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원로목사



1986년 홍성호 홍현숙선교사 파송

홍성호선교사는 UCLA에 재학 중인 1975년부터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뒤 기쁨이 컸다. 대학부 회장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해왔다"고 선교사로 소명받기까지를 감사해했다.



홍성호 홍현숙 선교사 파송예배

홍성호선교사는 대학부에서 만난 박현숙양(박용장목사 4녀)과 1982년 결혼을 한 뒤 1984년 위클리프(Wycliff)의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주민 선교사를 택했다. 1986년 8월10일 주일, 홍성호 홍현숙선교사 부부의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두 선교사는 달라스에서 1년반 동안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1988년 1월22일 파푸아 뉴기니아 섬으로 가족이 함께 떠났다. 현지에 도착한 뒤 원주민 컴퓨터 교육과 신구약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 선교부는 홍성호선교사를 위한 선교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일 5~10명 교인들이 선교헌금으로 지원을 했다.

홍성호 홍현숙 선교사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컴퓨터교육과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홍성호 홍현숙선교사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첫 선교통신을 교회로 보내왔다.

"주안의 신실한 동역자되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께 그동안도 온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작년 10월 중에 컴퓨터로 인쇄본을 떠낸바 있는 오로까이바 언어의 신약성경 봉헌식에 다녀 왔는데 그 감격을 동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로- 오로- 오로- 오로까이바!"

새 깃털로 머리를 장식하고 풀로 만든 치마를 두르고 고유의 얼굴분장을 한 오로까이바 사람들이 위의 말을 외치며 북을 치면서 외부 손님으로 간 우리 선교부 일행을 맞았습니다. 오로까이바는 이 나라 오로도 중심부에 위치한 큰 언어 부족으로 2만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갖게되는 이 봉헌식이야말로 이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경사이므로 원근 각처에서 약 3천명의 오로까이바 사람들이 용달차로 혹은 온 종일 걸어서 왔습니다. 봉헌예배 순서 중 번역선교사 버드 라슨 선교사와 그를 도와 번역에 힘쓴 원주민 다섯명이 신약성경을 두손으로 들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장로들과 함께 줄줄이 읽었습니다.

이를 보는 저희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원주민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가며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후 내내 저녁까지 민속 춤을 추며 이 기쁜 날을 축하했습니다. 내 언어로 하나님

의 말씀을 가지는 기쁨을 그들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일꾼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지원으로 이곳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가 잘 달리며, 여기 원주민 선교와 이곳에 와있는 한국 노무자들을 전도하는 일 등에 바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내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민속춤을 추며 축하했습니다"

저희들 그간도 건강한 편이나 이번에는 티나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이제 치료가 끝나 웬만큼 회복이 되었는데 계속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소식 드릴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오며 저희들 이곳에서 강건한 가운데 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물질과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1989년 7월4일 선교사 홍성호, 현숙, 티나, 폴리나, 애나 올림

성경번역과 문맹퇴치 사역을 전담

파푸아 뉴기니아 위클리프선교 본부에서 컴퓨터 사역과 원주민 교사양성 사역을 담당하던 홍성호 홍현숙선교사는 1991년 4월25일 인구 3천명의 타바섬으로 이주를 했다. 타바섬에 들어가 원주민과 생활을 하면서 만다라 부족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위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역을 맡고있다.

대학부는 1990년 2월17일 홍성호 선교사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Family Mission Banquet 90」을 처음 주최했다. 그리고 4월1일 「선교의 밤」 후원행사를 가졌고, 1991년 3월31일 제2회 「Mission Banquet」를 갖고 선교금을 모아서 보냈다. 1991년 10월6일 선교용 배를 구입하도록 2만달러를 지원했다. 교인들은 위험한 남태평양의 작은 타바섬에서 신구약 성경번역을 하는 홍성호선교사 부부를 위해 항상 새벽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선교사역 지원을 하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를 훈련하고 있는 홍현숙선교사

2001년 7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LA 총회에 참석한 홍성호선교사는 "구약은 30%, 신약은 70%의 작업을 끝냈다. 2007년쯤에는 만다라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처음 번역될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주민 언어를 배워야하고 다시 신 ·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홍현숙선교사도 2001년 9월 "나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홍성호선교사와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서 살면서 성경번역과 문맹퇴치의 사역을 맡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교사훈련

사역을 맡고 있는데 벌써 50여명의 원주민 지도자를 훈련시켰고 그들을 위한 교과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교단이 아니라 선교사 단체이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안한다. 꼭 Home Church가 있어야 파송을 하는데 홍성호선교사와 나를 우리 교회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목사님, 장로님이 만장일치로 지원해 주시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로 믿고 있다"라고 감사해 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13년째 체류하면서 원주민 성경번역과 문맹퇴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선교사는 "건강이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오래 머무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쉬지않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홍성호 홍현숙 선교사는 파송때부터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선교사로 지난 30년 동양선교교회 선교사역 중에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온타리오와 뉴욕에 지교회 창립

크게 발전하고 있는 LA 동부지역 동포사회를 위해 온타리오 지역에 4번째 지교회를 창립했다. 1986년 10월26일 주일 임동선목사와 선교목사, 선교부장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지원담임목사 파송및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새 교회 창립을 축하했다.

미주 지역내 5번째 지교회인 뉴욕 동양선교교회는 1986년 12월14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1986년 5월25일 파송식을 마치고 뉴욕지역으로 떠난 박수복담임목사는 6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며 창립 준비를 해왔다. 뉴욕 동양선교교회는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임동선목사를 강사로 부흥성회를 개최했고, 1986년 12월14일 오후 4시30분 창립예배를 드렸다. 박수복목사는 뉴욕 지교회로 떠나기전 본 교회에서 1년간 협동목사로 사역을 담당해 왔다.

1986년 임동선목사는 뉴욕으로 뻗어나간 첫 지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은혜속에 인도했다

이태리 밀라노지방 제4대 선교사로 이정근목사가 1986년 12월 현지로 떠났다. 1983년 12월부터 사역을 담당해오던 노찬호선교사(3대)가 2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옴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이정근목사는 이태리로 파송되기 전인 1986년 12월14일 주일, 「착한 행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제4대 밀라노 선교사로 파송된 이정근목사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군목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오다가 도미, 버클리대학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항연합장로교회를 개척하여 13년간 시무했고, 브라질 지교회인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해왔다.

미주 이민사회 최대교회로 성장



웨스턴가에는 동양선교교회 타운이 형성되었다

"LA로 이민을 오면 동양선교교회에 나가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자 동양선교교회에는 새 교인들의 출석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1987년 1월에는 한주간 출석교인이 5,700명의 대형이민 교회로 성장했다. 교인 증가 추세는 1985년에는 모두 4,300명, 그리고 1986년 7월20일 창립예배주간부터는 매주일 출석교인이 5천명선을 넘어섰다. 이 교인수는 주일 대예배 때 1부(8시30분) 450명, 2부(10시) 970명, 3부(12시30분)에 650명으로 장년 교인수만도 2천명을 넘어섰다.

새 신자 등록 숫자는 1985년과 1986년에 한 달에 60명, 1년에 500명씩 증가했다. 그래서 LA로 이민을 오면 「동양선교교회에 나가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회가 유명해졌다.

1980년대 후반 교인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1. 자녀교육을 위한 새 교인의 등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 성경공부 등 제직들을 위한 신앙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3. 전교인들이 전도에 열심이었기 때문이다.
4. 임동선담임목사의 은혜스럽고 희망찬 설교를 듣기 위해서이다.
5. 직업안내로부터 건강진단, 노인관광, 이웃돕기,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이다.

오전 8시30분(1부)과 오전 10시(2부) 그리고 12시30분(3부)등 주일에 3차례씩 예배를 드렸고 1987년에는 1부예배시간을 오전 8시30분에서 8시로 조정했다. 먼저 예배시간 변경을 위해 교인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0분을 앞당겼다. 주일 예배 시간의 변경이유는 주일, 일찍 예배를 드리고 사업이나 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1부예배와 2부예배시간사이에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오전 8시의 새 예배시간은 1990년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2000년대의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아 출석교인이 5천명이 넘는 미주 최대교회로 성장했고, 이정근목사(유니온성결교회)는 교회신문 「동양선교헤랄드」(1987년 7월호, 창립 17주년 기념특집)에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축하기고를 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를 무척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불과 열일곱해 동안 이렇게 큰 규모가 된 것은 열두명이 일백이십여명이 되고, 일백이십여명이 삼천명, 그리고 삼천명이 오천명이 되었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닮은 것입니다.

지금도 동양선교교회의 주보를 보면 날마다 새로 등록하는 가정이 여럿입니다. 예루살렘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던 모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사도행전 교회를 방불합니다.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지중해 연안을 누비는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동양선교교회는 태평양 연안을 누비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까지 선교사가 보내졌고 참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를 파송, 복음을 나중에 받은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재선교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에 이어 지역교회를 설립한 것도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선교교회는 지역교회 설립을 위해 사랑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교역자도 나누고, 성도들도 나누고, 또 재정도 나누어 씀으로 몇 개의 지역교회를 설립했고 또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선교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가 브라질 쌍파울로에 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LA 동양선교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도, 봉사를 해외에 까지 실천하는 일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초대교회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선교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시대에 재현시키는 사명을 완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위대함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컸었느냐에 있지도 않고, 예산규모가 몇백만달러나 되느냐에는 더더구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한데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되 그분이 맡긴 일을 철저히 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되 평생토록 한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이민사회에서 동양선교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OMC) 협력회 구성

1987년 1월22일 미주내 지교회들을 회원으로 하고 신앙과 선교의 협력관계를 높여가기 위한 기구로 동양선교교회(OMC)협력회를 조직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세 확장과 효과적인 세계선교사업을 위해 1981년부터 초교파교회로 미국내외에 지교회를 설립, 선교활동을 활발히 펴왔다. 그리고 지교회의 협력과 연합적인 선교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협력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동양선교교회(OMC)협력회를 창립하게 된 뜻은 우리교회의 지교회들이 12개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유기적이고 연합적인 선교활동을 펴기 위해서 였다"고 당시 협력회 구성과 회칙 초안을 맡았던 조영근목사는 말했다.



OMC 협력회 창립총회 참석자들

동양선교교회 (OMC)협력회 창립의 뜻은 유기적이고 연합적인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OMC협력회는 사업계획으로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국내외 선교, 교회 지도자 양성과 교류, 지교회의 지원과 설립, 평신도 교육 훈련을 정했다. 모두 12개 교회가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1987년 1월 OMC협력회 초대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회장 임동선목사 부회장 이기홍목사 부회장 김희윤장로
▲서기 이원희목사 부서기 석태운목사 회록서기 최지원목사
▲회계 조영근장로 부회계 윤근섭장로
▲총무 송정명목사
▲상임위원: 선교위원장-한건수장로,
▲교육위원장-오해훈장로, 재정위원장-김경태장로, 복지위원장-강중경장로

동양선교교회(OMC)협력회는 처음 미국내 지교회만을 대상으로 조직을 했다. 1987년에는 전세계의 지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협력교회로 회원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동양선교교회(OMC)협력회는 처음으로 1987년 2월1일 선교대학을 설립하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선교대학은 지교회들과 함께 앞으로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목표를 정했다. 지교회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지원 및 인적 교류 등을 위해 4월12일 선교위원회가 지교회 가입 규정 등을 처음으로 심의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WEMA)창립총회

동양선교교회는 공동적인 선교전략구성과 목회정보교환을 위해 1987년 7월11일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창립했다. 교육관에서 열린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창립총회에는 지교회, 선교사 등 5개국에서 24명의 목사와 29명의 장로가 참석했다.

동양선교교회 협력회는 OMC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들의 안수문제(타교단에서 동양선교교회 시무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음)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초교파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OMC협력회가 OMC교단이라는 시각때문에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7월 11일 연합회 회칙을 기초하고 임동선목사와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영근목사(당시 장로)는 OMC의 선교연합사업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선교를 더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 "해외에서 선교기지를 개척하는 동안 OMC는 미국내에서도 지교회 설립을 통한 선교기지의 확장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85년 3월 1일에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담임; 이기홍목사)를 개척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7년까지 OMC는 지교회를 8개 더 개척해 나갔다. 1987년에 이르러 세계각처에 OMC와 세계선교의 정신을 같이하는 동지교회를 18개 교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입장을 정리한 OMC는 세계선교를 더 조직적이고, 또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따라 OMC는 드디어 1987년 7월 11일 임동선목사의 목회정신과 창립정신을 같이 하는 18개교회가 동양선교교회에 모여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약칭 WEMA)를 결성하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1987년 7월 제1회 총회에서 선출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임동선목사(LA 동양선교교회)
▲부회장: 이기홍목사(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부회장: 김희권장로 (오렌지카운티 동양선교교회)
▲총무: 최지원목사(온타리오 동양선교교회)
▲서기: 강두호목사(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부서기: 조영근장로(LA 동양선교교회)
▲회계: 윤근섭장로(밸리 동양선교교회)
▲부회계: 조규철장로(LA 동양선교교회)
▲회록서기: 송정명목사(LA 동양선교교회)
▲서부지역협의회장: 이원희목사(밸리 동양선교교회)
▲동부지역협의회장: 박수복목사(뉴욕 동양선교교회)

▲유럽지역협의회장: 한평우목사(로마 한인교회)
▲남미지역협의회장: 강두호목사(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남태평양지역협의회장: 윤수한목사 (시드니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목사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2회 총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제2회 총회와 선교대회(총회장 임동선목사)를 1988년 6월7일~17일 남미 파라과이에서 개최했다. 제2회 총회에 임동선목사, 송정명목사, 이중용목사, 한건수장로, 조영근장로, 조정현장로, 백영두장로, 김광락장로, 김광돈장로, 김병숙권사, 백미섭집사, 이귀임집사, 한승수집사가 참석을 했다. 제2회 파라과이 총회는 처음으로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목사안수를 주기로 결정했다.
제3회 총회때는 세계선교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임동선목사를 총재로 추대했다.

이민자인 예수를 믿으며 신앙 생활

임동선목사는 1987년에 특별히 미국 이민과 이민자를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한 해이기도하다.「이민의 선구자 야곱」·「성공적인 이민자의 자세」 등 성경에서 보는 이민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1987년 3월22일 주일예배 때에는「이민자인 예수」(빌 2:5~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고향을 떠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지상 세계에 이민오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이민자로서 예수님과 유사성을 찾고 그와 우리 사이에 동질성을 발견하여 이민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1. 예수님은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란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민자인것은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본래 말씀이었으나 육신을 입으셨고 하나님이었으나 사람이 되어 이땅에 오셨습니다. 이민자는 거주지를 전전하듯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애굽,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등지로 전전하시며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2. 이민자는 주변 인간입니다.

이민자는 일등 국민이 아닙니다. 사회와 역사의 중심적 위치에 끼어 들 수 없는 변두리 인간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사회에서 변두리 인간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위험 인물로, 부자로 부터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 당했습니다. 점잖은 자리에는 초청되지 않았으며, 거룩한 곳에서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위험한 선동가로 체포되어 십자가 위에서 처형 당하셨습니다.

3. 이민자가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종교를 보여주신 제사장이요, 역사를 변화시키려는 개혁자요 영원한 세례를 제시해 준 선지자로 짧게 살았으나 굵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종교는 현세와 내세를 살려야 하고 부도덕한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건지고 인도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며 마지막 승리는 오직 겸손과 사랑, 봉사와 희생에 있음을 말과 실천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도 우리 앞에 차별과 냉대와 핍박이 온다해도 이민의 선구자인 예수를 생각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여기서 이민자로서의 사명과 삶이 재 발견되고 주님의 승리 속에서 우리의 미래도 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 교인 묘지를 구입

성도들의 경조사를 위해 경조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인묘지 구입을 시작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 1977년에는 교인들이 교회묘지 구입을 위한 헌금을 드렸고, 불행을 당한 성도는 교회 묘지에 묻히도록 했다. 1987년 2월22일 교회묘지연구위원회(송정명, 이재권, 김몽학, 김병곤, 김광락)를 발족시키고 교회묘지를 일괄 구입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지만 육신이 미국땅에서 영원히 쉴 안락한 자리에 묻힐 수 있도록 했다. 당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묘지구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교회가 구입한 묘지는 Forest Lawn-Hollywood Hill (할리웃 힐)과 Rose Hill Memorial Park (장미동산)이다. 묘지 한자리의 가격은 500달러에서 4천달러로 3년내지 5년간 분납해서 내도록 했다. 그당시 몇몇 한인이민교회들도 공원묘지를 샀고 성도들이 상을 당했을 때에는 교회 지정 지역에 함께 묻힐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다. 본교회는 1990년 7월 15일 로즈힐에 40개의 묘지를, 1994년 8월 30일에 다시 58개의 묘지를 구입했다. 이 묘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본 교회 교역자, 성도등 10분이 묻혀 있다.

연말에 전도상 · 구역상 · 봉사상 시상

모범구역장, 전도왕, 봉사자들의 공헌이 동양선교교회의 성장에 큰 몫을 했다

해마다 5월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했고 12월에는 각 분야별로 1년간 헌신한 교인 수상식을 가졌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데에는 모범구역장 및 전도왕, 봉사자들의 공헌이 많았기 때문으로 모두가 감사를 했다. 좋은 목회자, 책임성과 신앙이 좋은 제직들이 많은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고, 부서별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봉사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났다.

▲1980년도 전도 수상자: 백형권, 김보근

▲1981년도 전도 수상자: 백형권, 정해선, 조정현, 김광락

▲1982년도 시상자

구역장: 김보근, 박경애, 이덕자, 최명숙, 박화진

전도상: 이두섭, 방조영, 최용숙, 현용수, 김광제

봉사상: 이근무, 김추자, 배종년, 오상숙, 유순임

▲1983년 전도상: 오수남, 이건기, 강순덕

▲1984년도 수상자

모범구역장상: 김보근, 김옥자, 복희슬로운, 박영애, 이덕자

전도상: 김병숙, 백계선, 장 진

봉사상: 김종서, 김창하, 김현숙, 유순임, 주창국, 홍성호

장년주일학교 수상 (무순)

개근상: 오남조, 김재순, 최금순, 최계성, 유종염, 이득실, 한지향, 김성심, 홍정석, 김용서, 한복덕, 이옥제, 김정성, 김보근, 임원희

좋은 목회자, 책임과 신실한 제직이 많은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였다

▲1986년도 수상자

봉사상: 오순명권사, 최순덕집사

전도상: 유혜련집사

모범구역장상: 이예환권사

▲1987년도 수상자

봉사상: 원석복집사, 윤영선집사

모범구역상: 윤순식집사

인도상: 이병호교우, 김주연교우

감사패: 김사무엘교우

▲1988년 수상자

봉사상: 김영재집사(15년 교사 봉직)

모범구역장: 박경자권사(10년 구역장 봉직)

전도상: 이명호(13명 전도)

특별기념패: 최경호장로(성가대 60년 근속)

▲1989년도 수상자

교회 20년상 및 봉사상: 오해훈, 오철훈, 김용서, 한건수, 이성호, 노수정, 김보근

전도상: 이병호집사

모범 구역장상: 한동열집사

봉사상: 유순임권사

교육상: 조상윤집사

로즈 퍼레이드 꽃차 기금을 지원

1988년 1월1일 패사디나 로즈퍼레이드 꽃차 행렬에 한국커뮤니티가 처음으로 참가하게되자 행사에 필요한 기금 1만달러를 전달했다. 특히 1988년도에는 모국에서 올림픽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해이므로 한국 꽃차 참가는 국위를 선양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인 커뮤니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봉사 사역의 하나로 동참을 한 것이다. 온 성도들은 로즈퍼레이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꽃차 출품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다. 1987년 11월8일 전교인들이 특별헌금을 했고 주최측인 남가주 한인상공회의소에 전달했다.

담임목사 위임 연한을 5년 연장 결의

1987년 4월25일 정기당회는 임동선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연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1988년에 65세 정년을 맞는 임동선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에 대하여 전교인들은 큰 관심을 갖고 기도를 드려왔고 당회는 정년연한을 7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시무 연장안을 당회에 제안한 한건수장로는 "다른 교단의 70세 정년과 일반 사회의 정년개념이 건강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처해있는 실정(교육관 신축공사, 급격한 교세의 성장 추세)에 비추어 담임목사를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순리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시무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현실적인 실정을 설명했다.

4월26일(주일) 속개된 당회는 참석장로(재적 39명중 35명 참석) 전원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임동선담임목사의 시무연한 5년 연장을 간청키로 했다.

〈결의 사항〉

본교회 헌법 제49조 1항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회장의 정년 후 계속 유임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당회장의 정년 후 5년간 계속 시무를 간청하기로 하며, 실행위원으로 수석 부목사, 김용서장로, 한건수장로, 오해훈장로, 조영근장로 및 당회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헌법조항〉

제49조: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본 교회 청빙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65세를 정년으로 한다.

시무연한의 연장결의 간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간 6인 실행위원을 맞은 임동선목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내가 수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

당회는 임동선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 "장로님들의 호의와 사랑은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오래 전부터 여러차례 표명을 해온 바와 같이 본인은 65세의 정년퇴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시무연한 연장을 고사했다.

창립 17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1987년 7월22일~25일 창립17주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시애틀한인장로교회 김상구목사를 초청,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하루 세차례씩 창립 기념부흥회 설교를 통해서 전교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김상구목사는 1987년 7월26일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때에는「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엡 2:11~2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온 교인들이 은혜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 오후 3시 장로장립과 취임, 권사 및 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다.



교회창립 17주년 기념 예배후 임직자와 고역자

"굳센 단결과 열심기도, 희생 봉사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1987년 7월 김상구목사를 초청 창립17주년 부흥성회를 개최 했다

▲장로취임: 임진수
▲장로장립: 황종구, 김여근, 김명균
▲권사취임: 김재영, 헬렌켈리, 정인규, 최순덕, 박경애, 김옥자, 유순임, 장춘호
▲집사안수: 김상정, 오명엽, 이영이, 임원희, 이영송, 도무삼, 김홍일, 전길성, 신재권, 한상범, 주창국

임동선목사는 창립17주년 성회가 끝난 1987년 8월9일 주일「18주년을 향한 비전과 실천 방법」(마 9:35, 요 12:24)이란 제목으로 미래를 향한 설교를 했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굳센 단결과 열심 기도와 희생봉사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동총회, 임동선목사 시무 연장을 청원

1987년 12월27일 본당에서 열린 공동총회는 당회의 결정과 같이 임동선담임목사에게 5년간 시무를 더 연장해줄 것을 간청키로 결의했다. 65세 임기로 퇴임하기에는 담임목사의 건강이 좋고 또 현재의 교회에 담당해야 할 사역이 많다는 점을 들어 공동총회는 이를 임동선목사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헌법의 수정없이 특별 예외사항의 단서조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당회의 유권적인 해석에 따라서 공동총회에서 시무연장을 청원한 것이다.

공동 총회 날 제직들은 한결같이 임동선담임목사의 시무연장을 바라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발언을 했다.(동양선교헤랄드, 1987년 5월호)

공동총회는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무연장을 원합니다" 고 요청했다

▲성기윤장로
"당회가 긴급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적기에 결단한 것으로 봅니다."

▲김재숙권사
"한말로 말해서 나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회장이 언제 바뀌어도 바뀌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좋으시고 또 모든 여건으로 보아 정년보다 5년 이상은 시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조영일집사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임동선목사의 시무연한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당회가 현헌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시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관을 지어 놓은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담아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임동선목사님은 100년지대계의 설계에 못지않게 완성해야 할 책임도 피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숙권사
"지금부터가 임동선목사의 활동기입니다. 모든 여건에 비추어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판국에 떠나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교회의 부흥과 교세확장을 위해 더 좀 계셔야 합니다."

▲이 조집사
"더 계셔야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겨우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불씨를 옮겨받고 십일조를 비롯한 체계있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셔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5년은 교회를 돌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엄한광장로
"현실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된 결정입니다. 뒤늦게 저도 이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만 가까이에서 임동선목사님을 모시고 보니 밖에서 듣던 소문보다도 목사님의 완숙한 신앙과 인격에 감복을 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모두 기쁜 교회생활을 비로소 하는 것 같습니다. 창립목사님은 교회의 기틀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희생을 좀 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고명집사
"우리교회의 3대목표를 완성하려면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정립과 선교사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관의 완성과 동시에 신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신학 교육기관이 완성될 때까지 임동선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또는 세상관례나 법의 눈치를 살피고 구애받으며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교회의 지도자를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987년 대학생 단기 선교사 파송

선교부는 하기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단기 선교사를 처음으로 동남아에 파송했다. 태국과 필리핀 등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1987년 6월24일 파송 예배를 드렸다. 1987년 6월28일~7월24일 대학부는 동남아 선교 훈련차 단기 선교사를 보냈다.

1987년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12일 주일 예배후 2시30분부터 조갑수선교목사는 현대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구조갱신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7월2일 제2차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마우인선교사가 「아시아에서의 추수」(요 4:27~42)라는 제목으로 선교보고를 했다. 이득애권사는 "중국을 다녀와서" 라는 제목으로 중국선교의 현장 보고를 했다.

애국심 · 온정의 손길을 설교

임동선목사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목회자이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했고 본 교회는 불우이웃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항상 앞장을 섰다. 창립목표 중의 하나인 봉사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임동선목사의 실천적 사역이었다.

1987년 한국에 큰 수재가 났을때 임동선목사는 주일 특별설교를 통해서 전교인과 함께 한국을 돕는데 앞장을 섰다. 8월2일 주일에는 「수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의 한국 수재민을 돕자는 주일 설교 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교인은 1987년 8월9일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헌납했다.

1987년 어느날 한국 수재민 돕기를 위해서 한 교인은 백금 다이아몬드반지를 헌납했다

거주지가 없어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Homeless People(노숙자)들에 대한 여러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동선목사는 12월22일(화) LA시장실에서 탐 브래들리 시장을 통해 구제비 5천달러를 전달했다.

1987년 임동선목사는 한흑관계 개선을 위해 특별히 수고를 한 공로로 Leo McCarthy 캘리포니아 부지사로 부터 공로 표창장을 받았다. 1987년에도 5월3일 브라질 쌍파울로 지교회 교회당 준공식 및 장로장립식에 이천영목사와 조영근장로(홍보출판부장)가 함께 다녀왔다.



다운타운의 무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여전도회원들

웨스턴에 우뚝선 배움의 집 교육관

"이 전(殿)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대상 29:1)

2세들을 위한 신앙의 터전으로 지은 새 교육관 개관예배를 1988년 1월30일(토) 오후 1시에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개관예배에 앞서 교육관 건립의 뜻을 쓴 현판을 2층 입구 벽면에 새겨넣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 2층 체육관에서 드린 교육관 개관예배에는 한인교계 지도자, 탐 브래들리 LA시장 및 흑인 교계 인사, 김기수총영사 및 한인사회단체 인사

그리고 성도가 참석을 했다. 임동선목사, 이천영목사, 탐 브래들리 시장, 김기수 총영사 등이 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웨스턴가의 자랑 동양선교교회 교육관

한건수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교육관 개관예배는 김계용목사(나성영락교회)의 기도, 임동선목사의 「이 전당을 주님께 드립니다」(역대하 6: 10-11)라는 설교에 이어 이정배건축위원장의 공사경과보고가 있었다. 김달생목사(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축사와 황성수목사(남가주목사회회장)의 축도로 은혜속에 개관예배를 마쳤다. 축하 손님들은 교육관 현장을 견학했고 함께 축하의 음식을 나누었다.

임동선목사는 개관예배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금번 우리에게 제2의 성전인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교육, 선교, 봉사 센터가 되어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주의 전이 되도록 다같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바로 살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더 크고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건축위원장 이정배장로는 "우리 2세가 말씀을 배우는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십자군의 용사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아 쓰기에 남음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나님과 온 성도에 영광을 돌렸다.

교육관 개관예배 날 "우리가 바로 살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설교

건축위원회는 건축헌금을 한 1,500명 성도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 교육관 2층 벽면에 영구 보존했다. 444 N. Western Ave에 자리잡은 제1교육관은 총면적이 3만 9천 스퀘어피트이다. 매층의 면적은 약 1만 스퀘어피트이며 모두 28개의 교실이 있다. 1층은 어린이 교실, 2층은 체육관, 3층과 4층은 예배실과 교실 그리고 사무실로 만들었다. 선교의 전당, 교육의 전당, 봉사의 전당인 아름다운 새 교육관에서 유치부 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전당으로 사용했다. 전교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새 교육관에 강대상, 피아노, 대형 스크린, 책상, 의자 등 필요한 비품등을 계속해서 교회에 헌납했다.


1988년 1월 30일 교육관 개관 테이프를 끊고 있는 임동선목사와 브래들리 시장, 그리고 내외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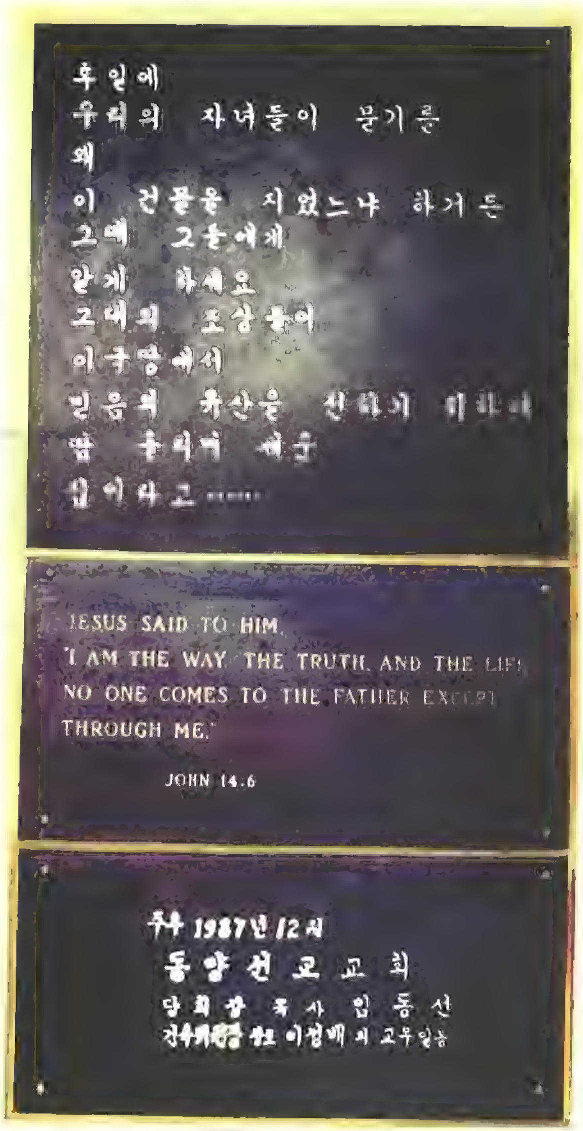
미국의 조상들이 1620년 대서양을 배를 타고 두 달만에 건너와서 새 땅에 뛰어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이다. 다음이 학교이며 그 다음이 자기 집이다.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은 동양에서 온 제2의 청교도로서 본당 건축보다 후대를 위한 교육관을 먼저

지은 이민자라는 신앙의 새 기록을 갖게 되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왜
이 건물을 지었느냐 하거든
그때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대의 조상들이
이국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세운
집이라고 …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주후 1987년 12월
동양선교교회
당회장 목사 임동선
건축위원장 장로 이정배 외 교우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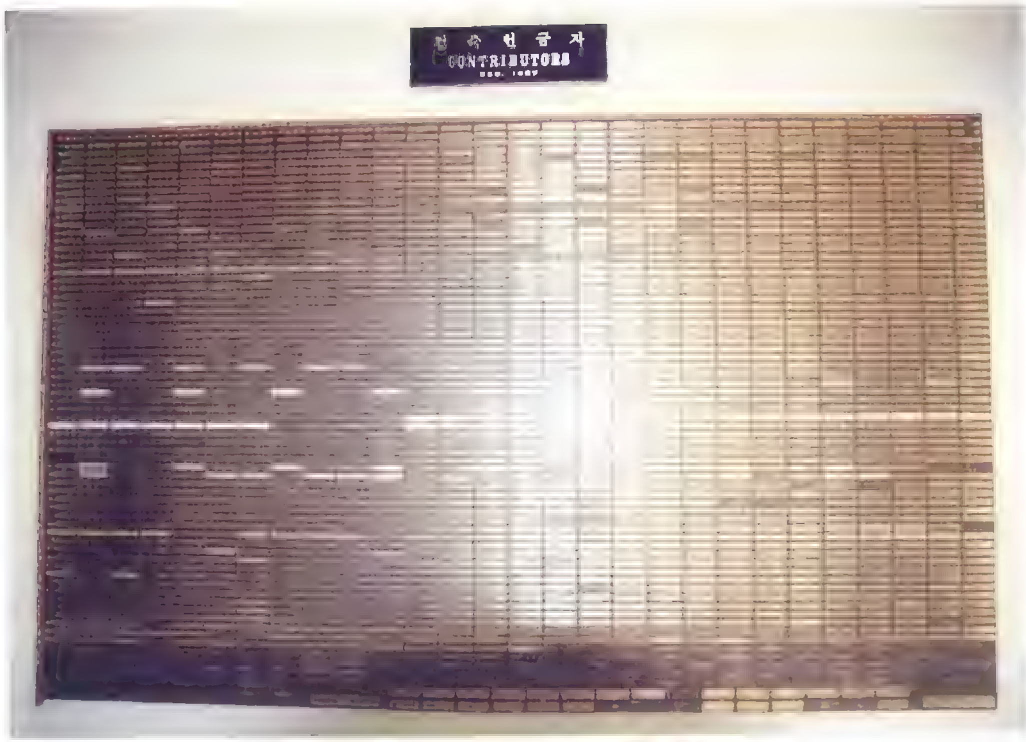


교육관 2층 벽에 붙어있는 기념판

**"예배를 드리는 집,
성도가 교제하는 집,
생명을 구하는 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전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교육관 개관
설교



교육관 2층의 벽에 붙어있는 교육관 건축헌금자 명단

임동선목사는 교육관 개관에 맞춰 「동양선교헤랄드」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를 했다. (1988년 3월호)

"주전 1004년 7월8일 솔로몬왕은 요즘 돈 약 50억달러의 거액을 들여서 7년반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완공하여 봉헌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하였습니다. 솔로몬왕은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해 놓았습니다. 법궤 속에는 썩지않는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돌비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7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집으로, 예배드리는 집으로, 말씀을 듣는 집으로, 찬양을 드리는 집으로, 예물을 드리는 집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집으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집을 목적으로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전당을 짓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전당을 짓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이 전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당은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단체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전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 속의 3가지 일을 해야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싹난 지팡이, 즉 기독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돌비의 십계명, 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전당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장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듣는 중에 회개와 중생(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히 4:12)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전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당은 종파와 인종을 초월하여 필요에 따라 개방하고 봉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전당을 건축하도록 허락해주시고 또 300만달러란 거액을 들여 이와같이 웅장한 전당을 완공케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전당을 주님께 영원히 드립니다."

"우리교회는 성전보다 교육관을 먼저 건축한 교회이다"

교육관 2층에 체육관을 지은 것은 임동선목사의 아이디어이었다. 학생들이 맘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와서 지낼 수 있다면서 체육관을 꼭 지으라고 말했다.

1988년 2월27일 처음으로 교육관 2층 체육관에서 당회장배 첫 배구대회를 실시했다.

대회 출전팀은 어린이교회학교, 중등부, 고등 1•2부 , 대학부, 한글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 1•2부, 성가대 1•2•3부, 당회팀들로 스포츠를 통한 신앙과 우의를 다졌다. 매주일 아침이면 4만 스퀘어피트의 4층 건물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가득찼다. 찬송가, 기도소리가 교실마다 저마다 다른 색깔로 펼쳐졌다. 이들의 생기와 기쁨은 같은 시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그 넓은 교육관이 교인들의 물결로 발디딜틈이 없자 "3백만 달러의 건축공사비는 이미 본전을 뽑은 셈"이라고 기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가 협소해서 예배 끝나면 그대로 집으로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성인들도 예배 후에 각기 그룹별 성경공부에 열심입니다. 시설이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1979년 본당 신축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임동선목사는 "예배처는 지붕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2세를 위한 교육관의 중요성을 가장 역설해 왔었다.

▲한건수원로장로

"우리교회는 성전보다 교육관을 먼저 건축한 교회이다. 이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어야 한다는 임동선목사님의 확고한 신념때문이었다. 그 당시 이정배건축위원장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하셨다. 시공자 선정에도 공정했고 건축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작품이 바로 교육관이다."

동전 31만개를 모아서 지은 교육관

"교육관의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든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이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 모은 동전을 주일학교학생들이 일일이 세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당을 건축하자는 목표였다. 한 때는 현재의 파킹장인 남쪽에 새 교회 건물을 짓자는 계획까지 세운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교육관 자리의 가구점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교육관 건립에 우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구점 건물은 1979년 부흥회 때 교우들이 낸 성전 건축헌금으로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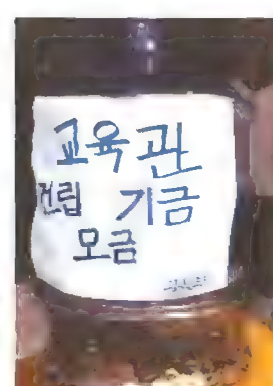
교육관 규모가 결정된 것은 1985년 5월이었다. 그때 4만스퀘어피트의 4층 규모로 건축하기로 정해졌고 1년뒤인 1986년 7월13일에 총 공사비 2백74만1천2백달러를 들여 공사를 시작했다.교육관 공사의 시작과 완공될 때까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다.

교육관 공사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마다 나타났다고
교인들은 입을 모았다

트럭 3백40대분의 흙을 퍼내고 기초를 다진 교육관건축을 착공한지 꼭 15개월이 된 1987년 1월30일 그 모습을 한인타운에 자랑스럽게 드러냈는데 이때 첫 어려움이 닥쳐왔다. 한참 공사중인 11월15일 LA시청은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프로포지션16이 통과되어 LA시의 건축조례가 바뀌었고 1층반 정도밖에 못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교회는 난감한 상태에 처했다. 그러나 LA 시청은 교육관 공사가 프로포지션 통과 이전에 이미 10여차례의 인스펙션을 받았고, 20여만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공사 중에 단 한건의 부상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중의 하나였다. 그 이외도 감사해야할 일은 참으로 많았다.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17년 동안 한번도 세운 예산을 초과해서 헌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예산의 85~90%의 실적을 올려왔다. 그런데 교육관을 건축한 1987년에 놀랍게도 예산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교인들과 각 선교단체에 감사해야 할 일들도 계속 생겨났다. 특히 에스더, 사라, 한나, 상락 여선교회가 음식을 팔아 교육관 헌금으로 드린 돈이 6만7천달러가 넘는다. 남선교회와 중 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성가대, 한글학교, 특수반까지 모든 기관들이 합심하여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도 별도로 교육관 헌금을 드렸다.



동전모으기 저금통

김광락장로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동전모으기 운동에 초등학생부터 전교인이 모은 1센트짜리만 무려 21만 5천개가 수집됐다. 일일이 셀수가 없어서 저울로 달아서 계산을 했다. 동전은 모두 31만2천2백74개로 집계 되었는데 액수로는 1만1천3백27달러60센트였다. 무게는 2천4백11파운드나 됐다. 어린이들에게 동전을 모으게 했던 일은

아주 잘한 일 중의 하나였다. "나도 하나님의 사업인 교육관 공사에 참여한다"는 협동정신을 불러 주었고 저축정신도 아울러 심어주었다.

또한 깡통모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무려 50만개의 깡통이 모였는데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참여했던 점은 눈물겨운 일로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들도 큰 공헌을 했다. 로마와 밀라노, 쌍파울로에 이르는 7개 지교회에서 1만6천여 달러에 이르는 건축헌금을 보내왔다. 이런 모든 결실이 있기까지는 임동선담임목사가 매일 새벽기도를 마친뒤 홀로 공사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교우들은 믿고 있다.

교육관 건립은 가장 공정하게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했다. 건축위원들은 모임때마다 자비로 비용을 충당할 만치 투명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김재권장로는 "이정배장로는 매일 현장에 나와서 살다시피했다. 건축위원장으로부터 모든 위원들의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관 건축이 잘 이루어졌고 이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말했다.

건축위원장직을 맡아온 이정배장로는 너무 건축에 열심이다가 몸이 약해져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교육관 완공과 더불어 건강을 되찾았다는 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정배장로의 기획과 추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봉사에 온 성도는 감사를 표했다.

이정배 건축위원장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약해 졌으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되찾아 주셨다

임동선목사는 교육관 건축공사 기간동안 LA시립대학 (LACC) 건물과 주차장을 대여해 사용한 것에 감사, 장학기금 5천달러를 학장 Stelle Feuers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학장 Feuers박사는 "LACC가 한인 커뮤니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와 함께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LACC 학장 Stelle Feuers박사와 부학장 Dennis W. Lee씨가 참석했고 임동선목사, 송정명 수석 부목사, 이중용교육목사, 채현철목사, 홍보부장 조영근장로가 동석했다.

임동선목사, 할리웃 보울에서 부활절 새벽 설교

미국교계는 해마다 4월 부활절 주일에는 할리웃 보울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남가주지역의 전통적 기독교 행사로 이름이 나있다. 부활절 새벽예배에는 1만5천명 이상의 교인 및 일반 시민이 참석하고 미국 TV 생중계를 통해서 방영된다.

임동선목사는 1988년 할리웃 보울 부활절 새벽예배 때 한인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담당했다. 4월3일 주일 새벽 5시15분부터 할리웃 보울에서 미국 교계연합으로 드린 부활절 새벽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영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임동선목사의 부활절 특별설교 내용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헐리웃 보울, 새벽예배 및 설교하는 임동선목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절 새벽 설교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시기에는 어려운 네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돌무덤의 장사, 로마 사법에 의한 인봉, 로마 군인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므로 어둠을 이기시고, 허위를 이기시고, 사랑이시므로 미움을 이기시고, 선이시므로 악을 이기시고, 생명이시므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로운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산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있는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위하여, 또 장차 우리를 데리어 오시기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만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신자들이 다시 원수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주를 만나 본 까닭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사양치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물질불변의 원칙 그리고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기념행사를 갖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부활과 생활의 부활이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임동선목사는 회색 두루마기와 고무신을 신고 한국인 설교자로서 할리웃 보울 무대에서 15분

간 우리말로 설교를 했다. 이원희목사가 영어로 통역을 했다.

아름다운 할리웃 보울에서 열리는 4월 부활절 새벽예배는 남가주지역의 유명한 백인목사들이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전통이 있다. 부활절예배위원회는 서울 올림픽의 해인 1988년 동양선교교회 당회장인 임동선목사를 남가주지역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특별 초청을 했는데 이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인사회와 한인교계를 미국사회가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부활절예배 설교를 위해 임동선목사는 일주일간에 걸쳐 준비를 했고, 부활절 특별설교는 미국 TV(채널 11)를 통해 남가주 일원에 생중계가 되었다. 이날 이후 한인교계와 동양선교교회는 미국 주류사회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 당회장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목회를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예배 중의 하나가 1988년 할리웃 보울에서 부활절 새벽 설교를 한국인으로 처음 한것"이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1988년 4월 할리웃 보울 부활절 예배날의 연합성가대의 찬양 모습

이민목회를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할리웃 보울에서 부활절 설교를 한 것이라고 임동선목사는 회고했다

임동선목사의 할리웃 보울 부활절 행사준비를 맡았던 김성곤장로 (당시 성가대 총무, 집사)는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다.

"할리웃 상공회의소와 1년전부터 협의를 거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때 교회는 임목사님의 설교 등 모든 지원을 다했다. 1주전에는 리허설을 했는데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다. TV 생방송을 위해 그대로 리허설을 했는데 그렇게도 당당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임목사님이 끝내 긴장하셨다. 당일 설교때에 한마디를 깜박 잊으시고 머뭇거렸는데 이원희목사님이 동시통역을 잘하셔서 모두 다 잘 끝났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아름다운 한복의 성가대가 특별 찬양


할리우 보울 부활절 예배날 동양선교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모습

성가대는 이날 「그들을 용서하라」 등을 불러 하나님께는 영광 온 성도에는 은혜가 되었다

한인 목회자가 할리웃 보울 부활절 새벽예배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를 한 내용을 한국일보와 LA타임스 등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다. (LA Times 1988년 4월 2일자. 한국일보 1988년 4월 3일자)

"남가주 최대의 부활절 연합행사인 제68회 할리웃 보울 부활절 새벽예배가 지난 4월 3일 새벽 약 1만5천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교파, 초국가적인 연합행사로 열렸다. 이날 일출예배에는 한인 이민교계사상 처음으로 동양선교교회 담임 임동선목사가 설교를 했다. 그리고 동교회 성가대와 KTE 어린이합창단, 유진조군의 바이얼린 솔로 출연으로 더욱 은혜스러웠다.임동선목사는 회색빛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한국어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1백20명의 남녀성가대는 화려한 한복차림으로 성가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했다.이날 설교를 담당한 두명의 목사 중 먼저 등단한 임목사는 「예수님은 빛과 진리, 사랑, 생명이기 때문에 승리로운 부활을 하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역은 밸리동양선교교회 담임 이원희목사가 맡았다. 동양선교교회 성가대 (지휘 · 최병삼)는 이날 한국 찬송가인 「그들을 용서하라」(김한국작곡)를 불렀고 연합성가대와 함께 「Battle Hymn of the Republic」, 「할렐루야」 등 세곡을 선사했다."

이날 흰백합화로 장식된 단상에는 남가주의 교회나 기독교단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우간다 어린이합창단, 영국의 밴드, 바티칸에서 보낸 요한 바오로 2세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캐톨릭 주교 등이 각각 차례로 서서, 부활 의미 속에서 세계가 하나 임을 실감케 했다. 이날 새벽연합행사는 동양선교교회 교인들과 한인교포가 많이 참가, 한인교계와 미국의 교계가 연합으로 벌이

는 의미가 컸다. 한인교계의 성장이 영적으로 점점 쇠퇴되어가는 미국교계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을 기대했다.

매주 주보에 구역예배를 게재

장년교인이 매주일 예배에 2천명 이상 출석하고 금요저녁예배, 주일 저녁예배, 새벽기도회 등 모두 5천명이상의 성도가 출석하자 당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구활동 및 교우심방을 더욱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해나갔다. 매주 구역예배 현황을 주보에 실으면서 구역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구역지도자들은 특별수련회를 갖고 구역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전도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1988년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새 교육관 4층에서 교구 수련회를 가졌고 교구장, 총무, 구역장, 부구역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서 목회자의 특강을 들었다.

"교구가 부흥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의 신앙이 더욱 자란다" 구역활동을 더욱 강화

1. 구역지도자의 사명과 책임–임동선목사
2. 구역조직의 목적과 부흥의 비결 – 김건태목사
3. 구역에서의 새신자 관리의 육성 – 임병택목사
4. 구역에서의 선교활동과 방안 – 조갑수목사
5. 구역을 통한 개인전도 – 송정명목사

이민교회의 부흥을 위한 바른 교구관리가 교구사역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구관리 지침을 실천해 나갔다.

1. 교구지도자 관리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 교구와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계속해서 리더 성경 공부 및 열정적인 교구지도자를 만들어 나간다.

2. 교구 지도자 모임 및 구역운영 안내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나간다.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린다.

3. 구역편성은 7대 대교구와 지역에 따라 42교구 85구역으로 나눈다.

4. 매년 연말에 교구지도자 위로의 밤 행사를 갖고 우수 구역장을 표창한다.

5. 교구찬양축제를 통해서 교구를 더욱 활성화 해나간다. 교구별및 구역에서 수개월이상 연습하고 나와서 찬양을 하며 이일을 통해서 교구가 더욱 부흥된다.

교구장으로 봉사한 정문섭장로는 "교구의 교육지도자를 많이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성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구확장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1988년 11월25일 새 신자를 위한 총동원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새신자 인도자, 구역지도자 등 300명에게 임동선목사가 환영의 설교를 했다. 이날 가수 이용복집사의 간증과 특별찬양순서, 친교시간으로 새 교인과 목회자, 당회원들이 신앙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매주일 송정명목사, 임병택목사, 김건태목사, 이중용목사, 채현철목사, 최진기전도사가 교인

가정이나 사업체 그리고 각 전도회를 심방했다. 목회자는 한 주간 심방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3~5 교우 가정을 찾아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교회와 가정에 대한 상담을 했다. 1988년도에 새 교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구역예배와 교인심방이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당회는 젊은 교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TV 예배실을 마련했다. TV예배실은 본당과 연결된 폐쇄회로를 통해 대형스크린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1988년 교인 및 동포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Day Care Center를 위한 운영회를 구성했고 11월6일 운영위원회 이사를 임명했다.

▲임동선, 김용서, 한건수, 오해훈, 조웅래, 오철훈, 이정배, 성기윤, 조영근,
김중완, 노수정, 신윤철, 안정현, 김광락, 김홍일, 이정애, 한승현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습 공동체

본교회는 이민교회로서 각 연령과 반별로, 각 부별로 성경공부를 많이 실시했다. 온 성도는 새 교우반과 벧엘성서반, 성서연구반, 전도폭발, 지역별 성경공부, 성인교회 학교 등에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다. 전교인이 신 · 구약성경을 해마다 한번씩 읽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했다. 임동선 목사는 설교 때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1984년 12월9일, 임동선목사는 「성경의 가치」(딤후 3:15~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년 성경공부 등록을 받고있다

1988년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를 위한 결혼준비 성경반을 새로 마련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가르치는데 유익하고, 봉사하는데 힘을 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인교회학교는 1988년 12월4일 주일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김선운목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마 24:3~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헌신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가정생활 성경공부반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결혼을 준비시

키는 반으로 임동선목사가 지도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청년 남녀들을 위한 결혼준비성경반과 부부생활 성경공부반은 안용식목사가 담당해서 결혼의 목적, 참된 아내의 모습, 참된 남편의 모습 등을 가르쳤다. 바쁜 이민생활 속에 성경말씀을 공부하기 어려운 교인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통신교육반을 마련했다. 현용수목사가 담당하는 통신교육반은 매 2주마다 문제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공부한 후 답안지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면 채점을 해서 다시 주었다.

1989년에는 구역 성경공부반을 새로 시작했다. 6개월내지 1년의 기간으로 구역에서 봉사하는 구역지도자 훈련을 위한 성경반은 교구장반, 구역장 총무반, 통합반으로 나누어 평신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성서연구부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매주일 예배후 1시간 30분 동안 각 권별로 성경을 가르쳐서 교인들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주었다.

기획발전부는 교인의 성장, 그리고 교육관 완공과 함께 전면적인 교육기구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전의 단일교육부를 성인교육부와 분리했다. 주일학교 체제를 교회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어린이교회학교, 청소년교회학교, 특수교회학교, 성인교회학교로 부르게 되었다. 성인교회학교는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1부, 장년2부, 새교우부, 성서연구부, 가정통신성경부로 조직을 개편했다.

어와나 올림픽에 출전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매주 4백여명이 성경을 공부했다

AWANA에 4백여 학생들 참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1987년 한인교회로는 처음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와나 프로그램은 매 주일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어와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교사와 고등학교, 대학생의 보조교사를 통해서 재미있게 매주일 공부를 했는데 모두 400여 어린 학생들이 참가했다.


AWANA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교사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생들은 유니폼을 입고 서로 어울려 가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했다. 1988년 6월5일에는 어와나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렸다. AWANA에는 400명의 어린이들이 성경클럽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텝, 디렉터, 리더 등 80여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어와나 올림픽은 매년 열리며 1993년 2월 27일 UCLA에서 대형 올림픽이 열렸고 동양선교교


어와나 헌신 예배의 어린이들과 교사

회의 4개팀이 출전해서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루었다. 스파키 팀에서는 1등, 일반 남녀팀은 각각 3등, 그리고 JB 팀은 결승전까지 올라 3등의 영예를 안았다. (동양선교헤랄드, 1993년 4월 11일) 1988년 9월 1일 AWANA 부장에 김성곤장로를 임명했다.

주성철목사 (콜로라도 덴버 한인 기독교회 담임목사)는 "처음 동양선교교회 AWANA를 시작하는데 참여를 했다. 3살부터 고등학생까지 한해에 Hand book 한권씩의 공부가 끝나면 장식용 뱃지를 주는데 성경 공부의 동기 부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어와나 프로그램은 매 학기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등록을 받아 실시했고 1년에 한차례씩 100명의 학생들이 수양회와 서머캠프를 다녀왔다. AWANA 프로그램을 위해서 홍경하선생이 많은 수고를 했고 UC 버클리를 졸업한 이정우전도사(이귀임권사 아들)가 담당했다. AWANA 프로그램은 시작되면서 리더들이 책임을 잘 맡아왔고 이덕규집사가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교육하는 교회」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교육하는교회가 되기위해 새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갔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많은 한인학생이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다. 1988년 1월3일 모두 1,600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했다. 교육부는 교육을 잘하는 한인 이민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새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갔다. 특별히 교육목사의 지도 아래 매주일 신앙과 학교생활, 가정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을 가르쳤다.


1988년 3월 교육관에서 가진 봄맞이 실내 캠프

초등부는 봄맞이 어린이 실내 캠핑프로그램을 교육관 2층 체육관에서 1988년 3월18일~19일 실시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봄맞이 실내캠핑은 성경을 가르쳤고 체육,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다. 3월28일~30일 제8회 어린이 부활의 잔치를 교육관에서 개최했는데 만4살 어린이부터 6학년 어린이까지 1천여명이 참가

했다. 강사는 안임숙전도사, 김문자전도사, 엄애경전도사, 송창현전도사, 이정우전도사 등이 학년별로 나누어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르쳤다.

5월1일 어린이 주일 김중기목사(연세대학교 교목)를 초청, 주일 아침예배 때 「세상을 이기는 길」(요 16:33)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교육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 해 10월 30일에는 초 ·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동양선교교회」라는 제목으로 백일장 작품 모집을 했다. 내용은 수필, 시, 산문, 동요를 한글과 영문으로 제출을 받아서 시상을 했다.



어린이들이 indoor 캠프에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



김요셉목사 초청의 청소년 복음화 대회 「Come to Me」

교육부는 해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음화대회인 「Come to Me」행사를 주최했다. 1988년 3월31일~4월2일 오후 7시와 새벽 5시30분에 가진 제 9회 청소년 복음대회 강사로 김요셉전도사를 초청했다. 일리노이 커버넌트 교회 청소년 담당자인 김요셉전도사는 김장환목사와 미국인 모친 사이에 출생,이중문화권과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강사로 「Relationships(관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은혜가 되었다.

중고등 학생을 위한 청소년복음화 대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대학부는 6월28일과 9월18일 「코이노니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젊은 대학생들이 대화를 통한 교회 성장을 위해 시와 찬양의 밤으로 가진 「코이노니아의 밤」은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 교인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해마다 대학부는 「Come & See」대학부 집회를 주최했는데 11월17일~19일 집회에는 Bill Majors목사(한국 기독실업인협회 선교담당)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1천5백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선발하고 교육하는데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사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더욱 훈련되고 사명을 갖도록 정기적으로 헌신예배를 드렸다.

매년 교회학교 교사중 각부별로 모범교사를 선발 표창했다. 1987년 12월 27일 저녁 교육부는 모범교사 14명을 선정 헌신예배때에 표창했다. 모범교사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근속교사에 우선권을 주었고 표창을 받은 교사는 아래와 같다.

▲유년주일학교: 영아부-주근수, 유아부-오명애, 유치부-조상옥, 유년부-오영란
▲초등부-김석훈, 소년부-방수잔
▲중등부-한승수, 고등1부-이혜숙, 고등2부-임승천, 중고등부-한종유

▲수송부–오정택, 특수반–성인호
▲한글학교: 유년부–김경수, 소년부–전선순

창립 18주년 기념부흥회 및 임직 예배

온 성도는 1988년 7월18일~23일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가졌다.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열린 준비 기도회에 제직과 성도들이 참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난 18년 동안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창립 18주년 기념 임직예배

새 임직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기로 기도를 드렸다

7월24일 주일예배에는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목사「참 성도의 생활」(고전 16:13~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교인들은 "동양선교교회를 크게 부흥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속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1988년 7월27일~30일 볼티모어 벧엘교회 김상복목사를 강사로 초청, 창립 18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창립기념 부흥회 강사인 김상복목사는 7월31일 창립기념 주일예배 때에는「두 길」(요 5:24~29)이라는 제목으로 축복과 은혜의 주일 설교를 했다. 7월31일 주일 오후 3시 임직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직예배에서 김상복목사는「위대한 종」(마 20:20~28)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더욱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김달생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장)는「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을, 허선규목사(남가주 목사회장)는「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창립 18주년기념 임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취임: 정중섭, 김석환
▲장로장립: 김지수, 김성곤
▲권사취임: 김정애, 금남이, 이종임, 박옥순, 정연숙, 강원례, 진선희, 강복순
▲집사안수: 허 심, 김학준, 이찬봉, 김종성, 정봉모, 이한길, 조세훈, 노성찬, 황덕성, 김창하, 박호성, 원석복, 한승수
▲안수집사 취임: 정홍수, 이기성

창립18주년기념 특별헌금은 5만2천달러를 예산했는데, 모두 7만3천9백달러의 특별헌금이 들어올 정도로 은혜 속에 창립기념 및 예배를 마쳤다. 새 임직자는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할 것을 다짐을 했다. 그리고 온성도들은 오늘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리고 더욱 부흥하는 이민교회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세계선교를 위해 온성도가 헌금과 기도

새해초 온 성도는 선교헌금을 작정했고, 선교부는 전 세계를 향해 선교 사역을 넓혀 나갔다. 한국선교와 남미선교로 시작된 선교사역은 미국내의 지교회 설립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 영역을 확장해갔다. 임동선목사는 주일 설교 때에 「전도하자」, 「선교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온 교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사명으로 적극 참여를 했다.

2천5백명의 장년 출석교인 중에 1천명이 선교회원이 되어서 매주일 선교헌금을 정성껏 드렸다. 특별히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위한 지정헌금과 선교사를 위한 특별헌금 등에 기쁘게 참여를 했고, 해외 선교사를 위해 새벽 · 주일 · 금요예배 때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갔다. 선교회원들은 매주일 4천달러~8천달러의 헌금을 드렸고, 1988년 한해동안 선교헌금은 40만달러를 넘어섰다.

우간다 어린이 합창단 26명을 초청해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렸다

1988년 1월24일 주일예배에는 강성일선교사(브라질 원주민교회)를 초청 「아버지의 뜻」(마 18:14)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강성일목사는 선교 목적과 선교의식, 선교목표, 선교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양선교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세계선교를 향해 더 큰 선교비전을 갖기를 기원했다.

3월27일 주일저녁 예배에는 공산권 선교협회(SGA) 회장인 Peter Deyneka목사가 「러시아 교회의 청지기 직분」(마 25:14~30)에 대한 설교를 했다. 4월10일 주일예배 때에는 강두호목사(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롬 15:14~3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4월24일 주일에는 아프리카(우간다) 어린이 합창단 26명을 초청해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렸다.

6월에 들어서는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했는데 모두 2만5천달러의 헌금이 모아졌다. 강두호선교사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 병원, 기술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설립하고 있는데 이 헌금은 파라과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전달했다. 7월3일 알젠틴 원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선교사가 「남미선교보고」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예배 설교를 했고, 8월7일에는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이원경목사가 「믿음이 큰자와 작은 자」(마 14:22~23)라는 제목으로 브라질 현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1998년 9월18일 주일예배 때 선교를 담당하는 조갑수목사는


우간다 어린이 합창단 공연모습

「2000년대를 향한 선교」(마 28:18~20, 행 1:8~11)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선교 사명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했다.

1988년 3월 20일 당회는 이두용목사(전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시무)를 1년간 모국선교 순회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두용선교사의 한국파송은 5번에 걸친 모국 단기선교사 파송(박장균, 이중용, 송정명, 이기홍, 이원희) 이후 처음이다. 이두용목사는 1988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모국 100개 교회를 순방하고 와서 모국 선교보고를 했다. 이날 이두용순회선교사는

1. 한국 농어촌 교회는 계속 도와야 한다.
2. 2년에 한번 농어촌교회를 순회, 교역자를 격려해야 한다.
3. 선교비 지원에 있어서 자립이 가능한 교회는 몇 년간 집중적으로 도와서 자립하도록 한다.
4. 농어촌교사 강습회를 갖고 농촌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이 좋다.
5. 178개 교회를 초교파 교회로 지원해 주므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용목사는 1988년 12월 28일 유타주 로간지교회 담임목사로 임명되었고 다시 본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하다가 시드니동양선교교회 지교회 담임목사로 떠났다.

서울 올림픽 때 「경주자의 인생」을 설교

예화를 잘 선택하고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로 이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민생활에 꿈과 희망을 주는 임동선목사는 「나라사랑」,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열심으로 봉사하라」는 제목 등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임동선목사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고, 설교에는 항상 힘이 있었다. 그리고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교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예화를 잘 선택하고 성서적이고 복음적이어서 이민생활과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했다. 사회적인 잇슈들을 항상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설교로 재미가 있었다. 주일 설교는 샘물과 같이 깨끗하다.

임동선목사의 설교는 내용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몇가지의 지표를 제시 함으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신앙 범위가 넓어졌다.

1988년 9월11일 주일에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한국을 위해 「조국을 사랑하자」(단 6: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는 9월25일 주일예배는 서울 올림픽을 생각하며 「경주자인 인생」(고전 9:24~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선교부는 특별히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이후 개최된 장애인 서울 올림픽대회를 위해 3천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1988년 임동선담임목사가 미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다녀온 주요일정이다

▲유타지교회 창립예배 인도 : 1988년 3월27일
▲예비역 기독장교회(OCU) 월례회 설교: 1988년 4월12일
▲오클라호마지역 한인연합집회 인도: 1988년 4월14일~17일

▲투인시티 한인교회집회 인도: 1988년 5월6일~8일
▲영국 웨슬리 회심 250주년 기념세미나 참석: 1988년 5월22일
▲한국 북한선교회 집회 인도: 1988년 8월14일~17일
▲필라델피아 헌팅턴밸리 장로교회 집회 인도: 1988년 9월14일~18일
▲한국 충현교회 헌당예배 및 기념성회 인도: 1988년 12월16일~21일

당회장, 65세의 정년 퇴임을 발표

1988년은 임동선담임목사가 1948년 서울신학교 학생 때 아현성결교회 전도사로 복음 사역을 시작한지 4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88년 8월 "헌법에 따라서 65세가 되면서 당회장에서 은퇴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고 교회는 물론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 들였다. 선교, 교육, 봉사 등 임동선목사가 할 사역이 많은데 65세 정년 은퇴라는 발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7년 당회 및 공동총회가 은퇴를 재고해 달라는 청원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임동선목사는 자신이 만든 이 법을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철저했다

다시 당회, 공동총회, 제직회는 창립 담임목사는 한국처럼 70세 정년으로 앞으로 5년간 더 목회를 하고 후임자가 정해진 뒤 은퇴할 것을 건의했다. 특별히 동양선교교회를 세운 설립목사로서는 65세에 은퇴라는 헌법에 유보조항을 다시 만들면서 5년간 더 목회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원했다. 그러나 당회장 임동선목사는 자신이 만든 이 법을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철저했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 "나는 두가지 때문에 65세 정년을 지키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 첫째는 교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준법정신이 있어야 하고 후대를 위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민교회로서 법을 지키는 것을 남기고 싶었다. 정년 퇴임 후에도 선교 등 내가 할 일을 찾고 싶었다. 제직회와 공동총회에서 나의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했으나 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년을 지킨 것이다.
> 둘째는 막내 아들인 임승천변호사의 권고를 받아 들인 것이다. 임승천변호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계속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하면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 한 교회에만 붙어 있지말고 널리 다녀야 한다는 그 충고를 받아 들였다. 나는 정년 퇴임 후 널리 선교를 위해 다니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임동선목사의 65세 정년은퇴 발표 후에도 또다시 여러차례 정년퇴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만류를 했지만 임동선목사의 뜻은 확고했다.

1988년 9월16일 당회는 임동선담임목사 성역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고, 교회발전연구회는 1988년 9월21일 오후 8시 담임목사 정년퇴임과 후임자 청빙에 관한 검토를 처음으

로 하기 시작했다. 11월13일 당회는 임동선목사의 65세 정년 은퇴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1988년 중에 은퇴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당회는 「바울 임동선목사 은퇴 및 성역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임동선목사의 정년은퇴 후 임시 당회장을 12월 임시당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당회장 정년 은퇴기념으로 자동차 및 세계여행 비행기표 2매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기로 했다.

당회는 임동선 담임목사를 후임 당회장이 취임 할때까지 임시 당회장으로 결정했다. 1988년 11월6일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청빙위원회는 1989년에 들어서면서 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후임 당회장 청빙을 논의 했다.

바울 성역 40주년을 위해 기념강연 세미나 기념출판물 간행 장학사업을 펴나가기로

임동선목사 성역 4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임동선목사 정년은퇴와 성역 4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사업으로는 1988년 12월10일에 기념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앙강연 세미나, 기념출판물의 간행, 기념장학사업 등을 1989년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시켜나가기로 했다. 신앙강연 세미나는 이민선교신학의 정립과 이민교회의 특성, 이민교계 발전과 세계선교에 대한 한인의 의지, 임동선목사의 이민교계 기여도와 이민선교의 재조명 등을 준비했다. 기념출판물의 간행은 신앙강연 세미나의 발표물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집과 각계 인사들의 목회와 유관되는 사항의 글을 출판해 나가기로 했다.

장학사업은 「"바울"선교 장학회」(가칭)를 설립하여 유능한 교계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선교에 이바지할 선교 일꾼을 육성할 목적으로 영구장학사업을 목표로 했다. 기념사업회에는 당회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회장: 오해훈
▲부회장: 조영근, 방조영
▲총무: 조정현
▲기념예배위원장: 조규철
▲신앙강연 세미나위원장: 오수훈
▲출판간행위원장: 조영근
▲장학사업위원장: 김용서

임동선 당회장 정년 은퇴 기념예배


임동선목사 은토기념 여배

1988년 12월10일(토) 오후 3시 본당에서 바울 임동선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및 정년은퇴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은퇴 기념예배에는 남가주 교계 지도자 및 동양선교교회 교역자, 당회원, 제직, 일반 성도들이 참석해서 미주 이민교계의 큰 목회자인 임동선목사가 걸어 온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65세의 정년은퇴를 아쉬움 속에 축하했다. 이날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온 삶이 더 없이 귀했다"고 말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역과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것"을 다짐했다.

임동선담임목사 성역 40주년 및 은퇴에 대한 남가주 및 한국교계에서 보낸 축사이다. (동양선교헤랄드 1988년 송년호, "바울" 임동선 목사 정년 은퇴 및 성역 40주년 기념특집)

"늘 겸손하시고
진지하시고
의리에 강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임동선목사님이다"

▲김계용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
"나성 이민교계의 지도자이시며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신 임동선목사님께서 40주년 성역기념과 아울러 은퇴의 용단을 내려 그의 생애의 거의 전부를 바치신 사역에서 물러가신다고 생각할 때 한편 경하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더 크고 넓어 세계적 선교차원에서 더 많은 선교사업을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조천일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담임)
"늘 겸손하시고 진지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의리에 강하시고 교회연합사업과 복음선교의 선구자로서의 상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역사에 길이 남을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또 오늘의 동양선교교회가 있기까지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피를 시종 지켜본 사람으로서 목사님같은 분을 선배로, 동지로 모신 행복감을 지니고 여기 큰 축하를 드립니다."

▲허경삼목사 (오렌지중앙성결교회 담임)
"첫째는 임동선목사님의 이룩하신 일들이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목사님의 초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셋째는 오늘의 용퇴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김기호목사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 담임)
"임동선목사님은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사회의 지도자이시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인자하신 모습과 겸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영감에 넘친 설교, 그리고 어버이와 같이 언제나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의 미소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김의환목사 (나성한인교회 담임)
"임동선목사님의 성역활동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한인사회 전체에 끼친 임목사님의 철저한

신앙과 투철한 목회철학의 공헌은 지대하였습니다. 신학적인 혼란과 사회윤리의 파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민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동양선교교회를 통하여 빛을 던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정근목사 (유니온성결교회 담임)
"임동선목사님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광야의 사람이 되시더니 모국 땅 방방곡곡을 밟고 다니시는 빈들의 사람이 되셨고, 이제는 미국 이민자들과 함께 신대륙에서 또 광야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광야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이룩하셨습니다. 임동선목사님은 우리같은 젊은 목사들의 「스승 목회자」이십니다. 특히 이민목회자들의 「상징적 지도자」로서 길이 기억 되실 것입니다."

▲조종남목사 (서울신학대학 학장)
"임동선목사님은 정말 뜨거운 구령열을 가지신 설교자요 선교사요 목회자 이십니다. 성역 40년을 넘기면서, 목사님께서 원숙한 모세의 사역과 같이 한 교회의 목회자라는 한계를 넘어 보다 자유로이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선교의 역군을 기르는 더 큰 힘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동양선교교회 선교의 메아리가 알라스카에 까지 퍼져서 새 선교기지를 마련했다

중부 · 로간 · 알라스카에 지교회 창립



유타 지교회의 창립기념예배 모습

레이크우드, 다우니, 벨훌라워, 롱비치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88년 5월1일 미주 내에서 10번째 지교회인 「중부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중부지교회에는 OMC에서 음악목사로 사역을 하던 윤한두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을 했고, 이날 첫 창립예배에는 송정명수석부목사, 조갑수선교목사, 장로와 50여명의 2부 성가대원 그리고 30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 축하를 했다.

쉬지않는 OMC의 선교의 불길은 유타주에도 타올랐다. 2개의 또다른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를 유타주에 세웠다. 솔트레이크와 로간에 지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기도하던중 1987년 10월31일 로간 지교회를, 3월27일 유타동양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유타 동양선교교회 초대 담임목사로는 교육부에서 사역을 담당했던 손주영목사를 파송했다.

로간 동양선교교회는 유학생 가족들이 중심되어 예배 처소를 찾아 오던 중 동양선교교회가 그 어려움을 알게되어 지교회를 설립했다. 초대 로간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차재완목사를 파송했다.



유타주 로간 지교회 창립예배 모습

사람이 사는 곳이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OMC의 메아리가 알라스카에도 퍼졌다. 동포 3,000여명이 넘는 앵카리지에 동양선교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면서 선교기지를 마련했다. 첫 담임목사로 한국에서 장로회신학교(통합)를 마친후 경기도 지방에서 목회를 인도하던 유영준목사를 파송했다.

또한 1990년에는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도해 왔던 동양선교교회 목사를 제3세계 선교사역의 일꾼으로 보내는 첫 열매가 맺어졌다. 2월11일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때 지교회의 김용식목사를 브라질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용식목사는 1988년부터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해 왔고, 1989년에는 동양선교교회가 소속해 있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1989년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동안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쌓아온 OMC 출신의 선교목사이다.

김용식목사는 브라질에 이민을 간 1.5세로서 쌍파울로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신학과정을 마쳤다. 미국에 와서는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학위를 마쳤고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의 3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남미 전문 목사이다. 선교지 파송에 앞서 김용식목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남미의 어느 곳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신명을 다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해 주실 동양선교교회 교우의 기대에 절대로 헛됨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때
지교회의 김용식목사를 브라질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월드미션대학 설립을 준비

**인재양성과
세계선교
훈련을 위해서
월드미션대학을
세우기로 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80년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때 "앞으로 인재양성과 훈련을 위해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1981년 4월 19일 교회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주보 560호)

1982년 3월 7일 교회지도자 양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장에 임동선목사, 위원에 이기홍목사, 이원희목사, 박계로장로, 오해훈장로, 한건수장로, 이재권장로를 임명한 적이 있다.

1986년 12월 20일 당회는 처음으로 선교대학 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을 임동선 당회장에 위임했었다. 1987년 2월 1일 오후 2시 30분 신학교 설립을 위한 제1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신학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원칙을 다섯가지로 정했다.

1. 선교사 양성... 서구 선교사 활동 중심에서 아시아 선교사 활동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2. 2세 교회지도자 양성(목사)
3. 1세 교회지도자 연장교육
4. 평신도 교육
5. 기독교 일반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첫 회의에는 이천영, 조갑수, 한건수, 오해훈, 김재권, 조영근, 조규철, 안정현, 온성철이 참석했고 김재권을 서기로 선출했다.

1987년 4월24일 당회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세우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선교대학 발기준비위원장으로 임동선목사를 추대했다.

9월28일 월드미션대학 설립을 위해 학장 임동선목사, 서기 한건수장로, 재무 김광락장로를 임명하고 비영리교육기관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했다.

월드미션대학 설립 및 개강 준비를 위해 3만달러의 재정을 지원했다. 1987년 10월 임동선목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고 30명의 이사를 인준했다.

농부의 양성은 세계 황무지에 나가서 복음의 밭을 가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월드미션대학 설립 이사명단

▲목사: 임동선, 이천영

▲장로: 오수남, 김용서, 한건수, 오해훈, 이정배, 조영근, 조규철, 안정현, 김광락, 온성철, 김용일, 백형권, 조인식, 신상우, 조정현, 임진수, 김석환, 김지수, 김성곤, 강영구(지교회), 김희윤(지교회)

▲집사: 오정택, 스티브임, 이영송, 한승수, 김찬규, 김홍일, 노성찬

새로 설립되는 월드미션대학교 캠퍼스는 동양선교교회안에 두기로 했고 학장에 임동선목사, 학감에 이원희목사를 선임했다. 교수로는 이천영목사, 임동선목사, 이원희목사, 조갑수목사, 안용식목사를 임명했다.

선교학 강의는 풀러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을 창설한 맥가브란박사(McGavran)와 선교학개론을 조갑수목사와 함께 공동강의를 하고, 선교학의 필수과목인 문화인류학은 풀러신학교 선교학부 교수인 Dr. Shaw가 강의를 맡았다. 목회신학은 임동선목사와 이원희목사가 강의하고 안용식목사가 신약개론(1)을 담당했다.

1988년 3월14일 임동선목사는 학생면접을 맡고, 일일이 격려하고 기도를 해주었다. 응시자는 대부분 「선교학」을 공부하기 원했고, 응모자중 95%가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의 자격을 갖춘 소명감을 가진 학생들이다.

이중용목사는 「동양선교헤럴드」에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을 기대하는 기고를 했다.

> "선교할 때 교회는 능력을 얻는다. 선교할 때 교회는 가장 강하게 된다. 새해에는 선교대학원이 새 교육관에 들어서게 된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전세계로 흩어지는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되자. 동양선교교회는 더이상 LA의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세계를 선교지로 삼고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세계 속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하겠다."

월드미션대학 개교, 한인 선교사 양성

새로 설립된 월드미션대학은 1989년 3월27일 교육관에서 신입생 32명과 교계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격속에 개교예배를 드렸다.


월드미션대학교 강의실이 있는 교육관

미주 남가주장로회신학대학 학장 김계용목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란 설교로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라 해도 아직 세계 50억 인구중 복음을 아는 이는 12억에 지나지 않는다. 도처에 황무지로 남아있는 땅에 씨를 뿌려야 할 농부의 양성은 우리 기독교인의 당면 과제였는데 이제 남가주에서 한인들의 손으로 손수 선교사를 양성하게 돼 기쁨이 한량없다.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담당해야할 농부는 먼저 토지의 질을 알고 농부의 조건을 갖추어야 30배, 60배, 1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학교는 좋은 영농법과 기술로 자질있는 일꾼들을 계속 양성, 세계선교에 앞장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축사를 했다. 미주한인개혁장로회신학교 교장 조천일목사는 첫 출발하는 신학대학 입학생들에게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는 이론만을 배우지 말고 학자가 되는 동시에 인격자가 되고 헌신자가 돼라"는 사명을 주었다.



월드미션대학교 개교예배

"월드미션대학교는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초대 학장 및 이사장인 임동선목사는 인사와 학교 소개의 말을 통하여 "월드미션대학이 8년전부터 개교를 위해 추진해 오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개교하게 됨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선교대학의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제3세계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

둘째, 미주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보낼 목자의 양성,

셋째, 평신도 지도자의 양성과 평신도의 신앙교육

임동선목사는 끝으로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과로는 선교학과, 신학과, 평신도 교육학과를 개설했고 미국 신학교 교수 및 한국인 교수가 강의를 담당했다. 수강기간(봄학기)은 1989년 3월27일~6월10일 교육관에서 매주 월, 화, 목, 토 4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했다.

1989년 4월29일에는 개교 특별강연으로 교회성장의 세계적인 창시자이며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초대원장인 91세의 맥가브란원로교수를 초청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복음 사역자를 부르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복음주의 입장에서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며 선교사 훈련과 교역자 양성,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했다.

월드미션신학대학원(학장 임동선목사)은 1991년 3월18일 가주정부로부터 석사학위수여를 할 수있는 정규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인가받은 학교는 신학대학원(School of Theology) 으로

▲조직신학 석사과정 ▲신학석사과정

▲실천신학 석사과정 ▲선교신학 석사과정의 4개과정을 두었다.

또한 신학대학원은 대학과정의 선교사 양성과 보육대학 과정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세사람의 사역자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첫 목사안수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 예식후

1987년 창립된 세계복음선교연합회(회장: 임동선목사)는 파라과이에서 열린 제2회 총회 결의에 따라 1988년 7월10일 본당에서 현용수, 윤기성, 김진광전도사에게 목사안수예식을 거행했다. 임동선목사는 안수설교를 통하여 "목회자는 먼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아내)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목사의 자격이 있다"면서 목회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Clyde Cook박사(바이올라대학교 총장)는 "신학교에서 한국학생이 비백인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면에서 오늘 탄생하는 세목사는 앞으로 축복받을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의 앞길을 축하했다.

이준영목사(남가주기독교협의회 부회장)는 축사에서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세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게 된 것을 남가주의 23개 교단과 5대 교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한다"면서 지금은 교회연합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폴 피어슨박사(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장)와 허선규목사(목사회 회장)가 안수자들에게 각각 격려사와 권면의 말씀을 했다.

이날 목사안수식은 동양선교교회가 초교파 독립교회로 목사안수의 기능이 없어서 목회자를

배출 할 수 없었는데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의미를 갖고 있다. 안수위원은 임동선, 이천영, 이기홍, 이원희, 심신경, 허선규, 이준영, 폴 피어슨, 크라이드 쿡, 류번 브룩스 목사 등이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첫 번째로 목사안수를 받은 세 전도사

▲윤기성목사
건국대학교(B.A.)
Cal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M.B.A.수료)
Graduate School of Church Dynamics Pacific Christian College (M.M.)
월드컨스선교사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전도사

▲현용수목사
명지대학교(B.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zusa Pacific Univ.(M.A.R., M. 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 (D. Ed 과정)
WMC 중앙간사
동양선교교회 전도사

▲김진광목사
S.F. State Univ. (B.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동양선교교회 전도사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설교로 임직자에
새 사명을 부여했다

동양선교교회 대학부 회장 때에 헌신을 다짐을 하고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김진광목사(중부동양선교교회 담임)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세 전도사에게 목사안수를 베푼 의미는 참으로 크다. 교단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후 많은 목회자가 나왔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선교센터 설립, 총재에 임동선목사

1989년 6월 6일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는 세계복음선교센터(World Gospel Evangelical Mission Center) 설립을 결정했다. 세계복음센터 초대 총재는 세

계복음선교연합회 제1대,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임동선목사를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 그리고 세계복음선교센터의 목적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른 초교파적 선교단체로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세계선교센터의 사업계획으로는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지망자를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일과 양성된 선교 후보생이나 선교사를 선교지역에 파송한다.

2. 세계 선교에 오랜 경험이 있는 다른 선교 기관들과 상호선교(Inter Mission)의 길을 개발하여 상호협약을 통해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파견한다.

3. 신앙 노선이 건전한 다른 선교기관이 세계 선교의 협력을 희망하는 때는 함께 공동사업(Reciprocal Project)을 개발한다로 정했다.

세계선교센터는 초교파적 선교단체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로

세계선교센터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회칙 7장 20조에 따라서 조직된 선교기관으로 모두 26조로 된 헌장을 채택했다. 회원은 개인과 기관(교회)으로 되며 총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세계선교센터는 앞으로 ① 임동선목사의 사역 계승 ② 선교정책 수립 ③ 세계복음선교연합회와 관련기관의 선교종합센터의 역할을 맡아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선교 일원화를 위해 모든 지교회 설립, 선교사 파송, 선교비 지출, 선교지 소개, 선교사역 소개 및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별히 생활관을 건립해서 안식년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의 생활관으로 쓰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세계선교센터의 설립을 주도하고 헌장을 기초한 조영근목사(당시 장로)는 그 설립의 취지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선교의 불길이 높이 오른 OMC는 선교사역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MC와 뜻을 같이하는 지역교회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선교에 공동협력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 회칙 제3조) 마침내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1987년 7월 11일 발족을 했다. 연합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첫째 교육 및 연구기관(연합회 회칙 제18조)으로서 신학교의 설립과 둘째로 선교기관(제20조)으로서 선교센터의 발족을 목표했다. 이에 따라 OMC는 1989년 3월 27일에 월드미션대학 (이사장 · 학장 임동선목사)을 개교하였고 뒤이어서 연합회는 6월 6일 총회에서 선교센터를 발족시켰고 임동선목사님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임동선목사 성역 40주년 기념세미나

당회는 교회 창립 목회자로 이민사역을 인도해 온 임동선 담임목사를 위해「바울 임동선목사 4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기념사업회는 첫 사업으로 1989년 6월7일~9일「이민교회의 성장과 세계선교」라는 주제로 제1회 기념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민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다짐하는 기념세미나는 6월 7일부터 3일에 걸쳐서 교육관 4층에서 열렸다. 초청강사는 이상현박사(프린스턴신학교 교수), 조종남박사(서울신학대학 학장), 유의영박사(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 Dr. Paul Pierson(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장), Dr. Clyde Cook(바이올라대학 총장) 교수였다.



임동선목사 성역40주년 세계선교 세미나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을 사회학적,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세미나에는 80여명의 목회자, 신학자, 교회제직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현박사는「이민 목회의 신학적 정립」주제발표에서 "이민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할때 과거 자신이 제시해온 순례자와 같은 처지 이외에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와도 같은 이면을 발견하게 되며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할 것"

「이민교회와 지역사회」에 관해서 발표한 유의영교수는 "이민교회는 한인커뮤니티 내에서 그 조직, 재정, 영향력에 있어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활동은 교회 중심에 머물렀으며 앞으로는 교회 및 개인의 영적성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다시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세 목회를 위한 과감한 방향전환 및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선교를 위한 이민교회의 선교적 과제-학원선교」를 발표한 석태운목사는 "코리안-아메리칸으로서의 자아확립을 외치지만 뚜렷이 이것이라고 내 놓을 수 없으며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채 많은 갈등만 겪고 있는 1.5세 및 2세 한인 젊은이들에게 대학의 한인기독학생회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선목사 성역4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때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판매했고 이 기금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다.

1989년은 임동선목사에게 가장 바쁜 한 해로 미주 및 세계를 향해서 선교집회를 다녀왔다.

▲호주 지교회 부흥회 인도: 1989년 2월9일~13일

▲휴스턴한인교회(담임 이병희목사) 창립19주년 기념집회 인도: 1989년 5월6일~8일

▲시카고 복음교회 창립기념성회 집회 인도: 1989년 5월20일~22일
▲볼티모어 벧엘교회(담임 김상복목사) 부흥회 집회인도: 1989년 6월4일~5일
▲뉴욕 순복음교회집회인도: 1989년 6월25일~26일
▲소련과 동유럽 선교 현장 답사(조영근장로, 임승광집사): 1989년 8월13일~18일
▲브라질 리오 동양선교교회 헌당예배: 1989년 9월15일~18일
▲뉴욕 한미교회 부흥집회 인도: 1989년 9월27일~30일
▲유럽지역 지교회 집회와 로마 지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인도: 10월2일 ~18일
▲필라델피아 교역자 연합집회 인도: 10월11일~13일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연합집회 인도: 11월8일~11일
▲한국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김장환목사) 11월20일~12월1일

송정명목사 이중용목사, 새 목회지로



송정명목사(왼쪽)와 이중용목사

초창기부터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송정명 이중용목사가 1989년 11월 교회를 사임하고 새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임동선담임목사가 65세로 정년퇴임을 하고, 이병희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청빙하면서 부목사의 사임과 새 목회지 파송 등 교역자들의 변화가 있었다.

1989년 11월10일 교회의 초창기부터 헌신적으로 목회사역을 담당하던 송정명목사와 이중용목사가 동양선교교회를 사임했다. 송정명목사는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로, 이중용목사는 지교회인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1989년 1월 교역자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안용식목사: 풀타임 부목사(성인교육부)
▲차재완목사: 풀타임 부목사(심방담당 교구목사)
▲윤치원목사: 협동목사
▲김종엽목사: 협동목사
▲서정인전도사: 중등부담당 전도사
▲최진기전도사: 달라스 신학교 박사과정 수학차 사임

2월12일에는 1부 성가대 지휘자인 최병삼강도사가 장로회 미주 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1년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한 최임규집사는 5월1일자로 전도사로 임명받았다. 협동목사로 오랫동안 시무하던 오태상목사가 1988년 9월8일 별세, 9월12일 동양선교교회 교회장으로 영결예배를 드렸다.

교회 도서관에 4만권의 장서 보유


4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교회 및 신학교 도서관

교육하는 교회로서 이름이 난 본교회는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독서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새 이민교회로 도서관을 가장 먼저 설립했다. 도서부는 도서관의 행정관리 책임을 맡았고, 해마다 한차례씩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과 독서생활을 더욱 더 잘 해나가기로 기도를 드렸다. 전교인들은 연중 도서관 헌금과 특별도서 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1988년 1월13일 김진호집사는 도서헌금으로 1만달러를 냈다. 1988년 9월 25일 도서관 오픈행사를 갖고 열람실 및 도서관을 교인들에게 선을 보였다.

도서관 오픈행사를 갖고 전교인에 열람실과 장서를 선보였다

특별히 월드미션대학을 설립한 뒤 새로 4만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도서 모집 캠페인을 벌였다. 신학대학과 함께 사용할 수있는 도서관을 위해 전교인들은 생일, 돌, 회갑, 결혼, 입학 등의 기념일을 맞아 도서 및 지정 도서 헌금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반교인들도 도서를 기증했고 기증자의 명단을 도서에 기재했다.

1988년 12월4일 스티브임집사가 1만달러의 도서 헌금을 했고, 김재희집사는 5천달러, 한나여선교회는 1천달러를 기증했다. 4만권의 장서를 가진 가장 큰 교회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에스더여선교회는 바자회를 통해 기금을 모았고 1989년 2월26일 임동선목사는 도서 150권을 기증했다.

당회는 임상용전도사를 도서부 담당전도사로 임명을 했다. 갈수록 도서기증과 구입이 늘어나 1만 7천이던 장서는 4만권으로 늘어났다.

1988년 10월16일 도서부 헌신예배를 은혜와 감사속에 드렸다.

48명의 새 교사들에 8주간 교육


신임교사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교육부(부장 오해훈장로)에서 주관하는 신임교사훈련 교육이 1989년 3월3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교육관 4층에서 진행되었다. "Life-Changing Ministry에 동참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라는 교육부 호소에 따라 48명이 새 교사로 봉사를 다짐하고 교육을 받았다. 8주동안 계속되는 신임교사 훈련은 이중용교육목사와 여러 전도사 및 외부에서 초빙되어 온 각계 전문가로 강사진이 전담을 했다. 새 교사들은 "교사를 위한 신구약 개론"으로부터 "연령별 학생들의 이해와 상담"및 "교재준비와 학습방법" 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과 마음 자세를 신앙을 중심으로 배웠다.

당시 교사 교육의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최만삼장로는

성도들에게 조화와 균형있는 교회, 찬양사역을 아름답게 해나가고 있다

"교사 훈련 교육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로서 매우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세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을 볼 때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번 8주동안에는 교사로서의 꼭 필요한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각 부서에 배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교사들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오는 가을에도 다시 한번 신임교사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감사해 했다.

50세이상 교인 대상 상락 상조회 시작


상락여선교회 성경공부

한 주간 출석 교인이 6천명을 넘으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었다. 상락남선교회와 상락여선교회는 신앙과 여가생활, 영어공부, 건강생활 등 노년층에 다양하고 유익한 신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갔다. 상락남녀선교회는 상락대학을 개설하고 본교회 교인은 물론 장년 및 노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기초영어, 성인보호법 등을 가르쳤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교육관 4층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교와 봉사, 기도 등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1989년 11월9일 상락남녀선교회는 교인과 일반 동포를 대상으로 상조회를 시작했다. 상조회는 1989년 11월 15일 오수남장로, 최경호장로, 황명준집사가 함께 힘을 모아 발기총회를 가졌고 초대회장에 오수남장로를 선출했다. 그리고 상조회 회원 가입 제1호는 임동선목사였다. 그만큼 임동선목사는 상조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2대회장은 최경호장로, 3대는 박인옥집사, 4대는 조웅래장로 그리고 조영근장로가 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현 회장은 정문섭장로이다.

선교와 봉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상조부는 50세 이상의 남녀성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회비는 10달러였다. 상조회는 노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에는 장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상조회는 1천명의 회원을 받아들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회원 가입 캠페인을 교

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벌였고 연세가 많은 교인들은 물론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가운데 가입 회원은 갈수록 늘어갔다.

노인 상조회의 3대 사업으로는 선교와 봉사(소셜시큐리티, 웰페어 등의 신청, 메디칼 메디케어 등 신청 수정지도, 버스 승차권 등 알선), 그리고 회원 사망시 정회원 1인당 10달러씩 납부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상락회 및 상조회는 1년에 2번씩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노후의 신앙생활 및 공부하는 장년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상락복지 상조회에 회원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영어, 건강, 생활지식, 교양 등을 가르쳤다. 남녀상락회는 1년에 한두차례 회원들을 위해 갖가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1990년 8월29일 저소득자와 법률적인 보호를 위한 내용과 사회복지 기금 신청, 주택문제, 메디칼 메디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민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동양선교교회가 처음으로 만든 상락복지상조회는 계속해서 회원들이 늘어갔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2시 전문상담가를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노인문제를 비롯 갖가지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었다.

교회중심에서 지역사회 행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참여 봉사할 것을 다짐

▲오수남장로 (미주성산교회 원로장로)

"상조회를 시작할 때 LA 노인상조회가 이미 있었고, 우리가 한인 교회로서는 처음이자 2번째로 상조회를 만들었다.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상조회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회원이 그 뜻에 찬성을 해서 처음부터 잘 되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감사해 했다."

봄 가을에 부흥회 및 신앙강좌

임동선목사는 1970년대초부터 한국 목회자들을 본교회 강단에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했다. 특별히 한국의 목회자, 군목, 신학교수와 미국내 목회자, 선교사 등이 LA를 방문할 때에는 주일 대예배 설교, 주일 저녁예배 설교, 금요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했다. 이는 한국교회와 미주 이민교회의 신앙교류를 위한 뜻이 있기도 했지만,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외부 강사의 설교를 듣고 깊고 높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회는 해마다 7월 창립기념 주일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를 초청, 기념 부흥회를 개최했고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


김동길교수 초빙 신앙 강연회

한국의 유명교회 목회자와 신학자 부흥사들도 LA에 가면 동양선교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했다.

1989년에는 9월11일~13일 박조준목사(갈보리교회 담임)를 초청 「크리스찬의 인격 향상」이라는 주제로 신앙강좌를 가졌다. 모세 1, 2 남선교회가 주최한 추계신앙강좌는 매일 새벽 5시, 오후 7시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될 것을 메시지로 전했다. 각 선교회는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강사를 초청, 신앙강좌를 열었고 이때는 다른 교회 신도나, 믿지않는 교포들도 특별히 말씀을 들으러 왔다.

뮤직디렉터 임명, 음악목회 비중 더욱 커져

성가대를 지휘해오던 윤한두목사는 지교회인 중부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되었고 당회는 1988년 5월22일 새 성가대 지휘자에 백경환집사를 임명했다. 1부 성가대지휘자는 최병삼집사, 2, 3부 성가대 지휘는 백경환집사가 맡았다. 그리고 관현악지휘자는 백경환집사, 청소년 관현악지휘자는 최병삼집사, 천사합창단 지휘자는 이귀임집사가 맡았다. 반주자는 곽정란, 김미혜, 임향빈, 강혜영, 황미지, 독창자는 이귀임, 방연옥, 신은석이다.

음악부는 1988년 11월11일 오후 7시부터 임마누엘교회에서 메시아 대연주회를 가졌다. 연합성가대와 이태리 밀라노 지교회 성가대가 감동적으로 합창을 했고 이귀임, 방연옥, 김영동, 노형건 등이 독창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지휘는 백경환집사가 맡았다.

풀타임 뮤직 디렉터로 부임한 백경환집사는 2 · 3부 성가대 지휘자로, 또한 오후 프로그램 뮤직 담당 디렉터로 열심히 활동했다. 백경환집사는 볼티모어 벧엘교회 지휘자로 7년동안 활동하며



백경환집사가 지휘한 메시아 대 연주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과 애버렛칼리지에서 교회음악, 합창지휘, 음악이론 등을 강의해 왔다.

1989년 새해 최대의 목표를 「성가대의 질적 성장」으로 삼았다.

음악목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음악사역이 바로 교회 부흥성장의 길이 되며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전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본 교회 음악목회의 3대 방침으로

1. 교회음악의 다양화
2. 회중찬송의 생활화
3. 은사의 개발과 봉사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음악사역이 교회 부흥성장의 길이 된다

특별히 음악사역을 위해 배움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 늘려나가고 있다. 성가대는 예배를 돕고 성도들의 찬송생활의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교회음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조화와 균형있는 교회 찬양 사역을 아름답게 해나가고 있다. 음악사역자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찬양인도자 및 악기 연주자 등)들은 스스로 음악적 기술성과 신앙, 그리고 인격의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중문화권의 이민목회에서 음악사역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할 수 있고, 동양선교교회는 음악목회를 위해 인적, 재정투자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1989년 3월26일 1부 성가대 지휘자인 최병삼목사의 사모인 최선미집사가 부활주일 음악예배에서 「보라 영광의 왕」 찬양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최선미집사의 장례식은 4월4일 할리웃 포레스트론에서 교회장으로 거행되었다.

남미에 교사 선교 훈련단을 파송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20여개 한인교회 주일학교 교사 연합훈련을 위해 13명의 「남미교사훈련단」을 구성, 현지에 파송했다. 1989년 1월23일부터 2월4일까지 「남미교사훈련단」(단장 최만삼장로)은 파라과이와 브라질 현지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주일동안 강훈련을 실시했다. 교사훈련 외에도 직접 여름성경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중 고등부 수양회를 실시했다. 교회 교육의 모델을 남미교회들에 전수하기 위해 「남미교사훈련단」은 3개월 전부터 교재연구, 슬라이드, 융판 등의 교육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했다.

1988년 현지 교회들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미를 방문한 이중용목사는 "현지 한인교회 교역자들이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학생 교육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훈련받은 교사들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한국인이나 미국인들의 선교결정체인 현지교회들이 제몫을 다하도록 돕기위해서는 그곳의 2세나 어린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 「남미교사훈련단」을 파송한 것이다.

이중용목사와 최만삼장로, 이애경전도사, 송창현전도사, 이정우전도사, 김부연전도사, 김강전도사, 황은철전도사, 김도일집사, 조상윤집사, 최근숙집사 등 모두 13명은 파라과이 지역과 쌍파울

로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주일교사 훈련과 선교를 위한 예배인도 등을 은혜속에 마치고 돌아왔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친후 전교인을 위해서 남미선교 교사 훈련단은 2월12일 오후 4시 선교 보고의 밤 예배를 드렸다. 이날 교사 훈련단은 다음과 같은 남미선교 보고를 했다.

교회 교육의 모델을 남미의 한인교회에 전하기 위해 교사가 선교사로 나갔다

▲이중용목사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선교 훈련단을 남미 지역에 보낼 저력을 가진 동양선교교회에 몸 담고 있음에 다시 한번 긍지와 감사를 느꼈다."
▲최만삼장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의 뜻을 알았다. 모든 단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 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뒤에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애경전도사
"난생 처음으로 원주민들 앞에서 설교한 것은 크나 큰 경험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남미의 교사들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송창현전도사
"그들을 향한 불타는 주의 사랑으로 응어리진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정우전도사
"주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원주민 교회에 나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들의 모습. 돌까지 맞아가며 전도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에 서린 참 기쁨이 너무나도 인상깊다."
▲김부연전도사
"원주민 어린이들의 힘찬 찬양소리와 말씀을 전해듣던 진지한 표정들, 다음 주일에도 오시나요?하던 그들의 물음에 아무말도 못해준 아픈 가슴, 내 두뺨에 키스를 해 주려고 줄 서 기다리던 아이들… 떠나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섭섭한 모습으로 "Chao,Senora Bonnie" (안녕, 바니 선생님) … 주님의 손길이 늘 같이 하시기를 …"

동남아와 중국에 단기 선교사 파송

남미선교를 한국선교 다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는 남미 한인교계의 선교사역을 적극 지원했다. 1989년 3월5일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계만선교목사를 초청, 남미선교 보고회를 갖고 남미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와 헌신을 다짐했다.

선교부는 1988년 대학생 단기 선교사팀을 동남아와 남미 그리고 중국에 파송을 했다. 1989년 6월30일~8월30일 미주대학생선교회(KCM · 이사장 임동선목사)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에 하기 선교 훈련차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고 동양선교교회 대학생 10명이 참여를 했다. 6월18일 오후 4시 단기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는 「단기 선교사의 명분」(고후 3:1~3)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미주 대학생들이 나설 때가 왔다"는 메시지

를 전했다.

선교부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를 초청, 주일 아침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와 현지보고를 통해 전교인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했다. 7월9일 주일 아침예배에는 중국 연길시 기독교회 김성하담임목사를 초청, 선교 관점에서 본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설교를 듣고 중국선교 필요성을 더욱 깨달았다.

임동선목사는 한국 섬지방을 위한 항공특별선교회(회장 · 김영욱목사)를 지원하는 사역을 했고 1989년 8월20일 본당에서 항공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저녁 예배를 드렸다. 항공선교회는 한국의 섬지방을 다니는 선교 헬리콥터를 구입하기 위해 기금을 모았고 김영욱목사가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을 했다.

9월24일에는 아마존강 유역 선교보고를 황은철전도사가 했고, 11월12일 임동선목사와 일행이 소련과 동구공산권 선교 시찰을 다녀온 현지 사정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를 했다.

발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기는 어렵지만 무릎으로 선교지에 갈 수 있다

1989년 선교부 1년 선교예산을 44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러한 선교부 예산은 1천명의 선교회원이 1년 동안 드리는 선교헌금이다. 선교를 이시대 최고의 하나님 사명으로 생각하며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1989년에 선교비 예산이 쓰여진 항목은

▲한국농어촌 174개 교회를 위하여… 131,160달러 (31%)
▲아시아 남태평양 선교를 위하여… 49,800달러 (11%)
▲유럽,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75,600달러 (18%)
▲국내 선교, 남미 선교를 위하여… 103,700달러 (25%)
▲특수선교, 선교행정을 위하여… 66,840달러 (15%) 등 이다.

선교부는 「35억의 영혼에게 선교사를 보냅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국선교, 남미선교, 동남아선교, 아프리카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훈련과 교회 건축을 계속해서 지원했다. 선교부는 따로 선교 중보기도회를 조직하고 매 주일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선교 회원들이 된 성도들은 "발을 가지고는 선교지에 가기가 어렵지만 무릎으로는 선교지에 갈 수 있다"고 믿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일선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다.

창립 19주년 기념예배및 임직 예배

창립 19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동양선교교회는 1989년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새 임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동선담임목사가 담당한 임직자 교육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온 성도는 창립 19주년 기념성회 및 임직예배를 앞두고 7월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매일 5백여 교인들이 새벽기도 단을 쌓고 창립 기념행사와 임직예배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19년간 이민교회로서 크게 부흥 성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후 목회자와 새 임직자

7월27일~30일 휴스턴 한인교회 이병희목사를 초청,「주 안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기념성회를 가졌다. 초청강사 이병희목사는 7월27일 저녁 부흥회때「범사에 복 받는자」(창 24:1), 28일「가장 근본적인 문제」(요1 3:4~6), 29일에는「날마다 승리의 날」(시 118:24)이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설교를 했다. 그리고 1989년 7월30일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 때에는「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사 43: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했다.

오후 3시 임동선담임목사 사회로 임직예배를 축하 속에 은혜롭게 드렸고 성령이 충만했다. 기념부흥성회 강사인 이병희목사는「너희 부르심을 보라」(고전 1:26~31)라는 제목으로 임직자를 위한 설교를 했고, 안재관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장)는 임직자에게 충성스런 봉사를 하라는 내용의 권면을 했고, 김경서목사(남가주목사회장)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새로이 임직을 받은 명단

▲장로취임: 스티브임, 김상정

▲권사취임: 백현님, 변봉실, 서월아, 신상정, 신무희, 계정자, 이경순, 염혜경, 장정숙

▲집사안수; 이천준, 정화관, 이기성, 임승광, 이병주, 이종흠, 정형조, 김경수, 오홍삼, 이조, 강성환, 장진재, 변광우, 오흥덕

이병희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

1988년 임동선담임목사의 65세 정년퇴임 후 새 담임목사를 물색해온 청빙위원회는 1989년 3월28일 시카고 펠로우십교회 김홍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했다. 그러나 김홍수목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새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빙 절차를 무효화 했다.

이병희목사는 1989년 7월27일~29일 동양선교교회 창립 19주년 부흥성회를 은혜스럽게 인도했고 이때 담임목사 청빙의 의견을 타진했고 수락을 받았다. 청빙위원회는 8월25일 이병희목사(휴스턴 한인교회 시무)를 제2대 담임목사로 추천했다. 제직회는 9월1일에, 그리고 9월10일 공동총회를 갖고 제2대 당회장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1989년 12월29일 당회는 다음과 같은 정했다.

1. 임동선목사를 1990년 1월1일자로 원로목사에 추대한다.

2. 이병희목사는 1990년 1월1일부로 당회장으로 시무토록하고 신 · 구 당회장의 사무인계를 12월 말 이전에 한다.

3. 송구영신예배때 송구예배의 설교는 임동선목사가 담당하고, 영신예배 설교는 이병희목사가 담당한다.

4. 1990년 1월21일로 예정된 신 · 구 담임목사의 이취임예배의 모든 업무를 예배위원회와 총무부에 일임해서 준비하도록한다. 신임담임목사의 취임선서는 온교우들을 대표해서 이천영원로목사가 받도록하고 예배순서는 당회에 보고한다.


이병희목사와 이희숙사모가 LA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제2대 당회장 이병희목사는 1989년 12월13일 LA에 도착했다. 이병희 새 담임목사는 12월17일 주일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12월24일 성탄주일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했다. 이병희담임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며 목회를 하고, 설교준비에 더욱 충실하고,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이병희 새 담임목사 약력: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졸업(B. Th)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Master of Div.)
Kingsway Christian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Div.)
휴스턴한인교회 담임
휴스턴신학대학 학장
휴스턴크리스찬신문 발행인
북미주 전도폭발 한인자문위원회 회장

2대 담임목사 취임과 원로목사 추대예배

동양선교교회 창립목사인 임동선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 및 제2대 이병희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1990년 1월21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축하와 은혜속에 열렸다.

본교회 성도 및 축하객 등 1천5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임동선원

로목사는 "41년의 성역생활을 이와같이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온 교인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이병희 새 담임목사는 "큰 종이 섬기던 교회를 맡아 본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교육, 봉사의 책임을 다하여 기쁨으로 전달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고 답했다.

이기홍목사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예배에서 축하 설교를 맡은 안수훈목사는 「충성스러운 종」(고전 4:1~2)이라는 제목으로 「충성된 원로목사, 충성된 담임목사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을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황성수목사, 이원희목사, 추인봉목사, 안수훈목사, 김계용목사 등 남가주교계 지도자, 박종상 주나성 총영사 등 내외 귀빈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후 교육관 친교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두 목사의 앞날을 축하하는 친교시간을 가졌다.


임동선원로목사 추대 및 이병희 새 담임목사 취임예배

"41년의 성역생활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동양선교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병희목사는 1월21일 주일 예배 때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자」(잠 3:1~10)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더욱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1990년 4월 이병희담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헤랄드와 인터뷰때 앞으로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나는 공산권선교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교담당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교회나 한국내 또는 유럽과 남미지역 등의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교회를 선교해 왔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원주민교회, 또는 공산권 등의 지역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병희 새 담임목사가 부임한 후 많은 관심을 기울인 프로그램이 신입교인 성경공부였다. 이병희목사는 매주 화요일 70~80명의 새 신자를 대상으로 7주 동안 계속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훌륭한 담임목사를 보내주심에 감사

임동선목사는 1990년초 교회신문 「동양선교헤랄드」와의 인터뷰에서 새 당회장 부임과 원로목사로서 앞으로 할 일을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90년 1월 신년호)

"먼저 이민목회 20년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천영목사님과 오태상목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동역자들, 당회원, 제직 그리고 온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65년에 미국에 온 것은 공부를 더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왔었으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민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민목회 20년은 하나님편으로 심히도 짧은 기간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또 그 길은 험하고도 먼길이었습니다.

이민 목회 20년을 하나님편에선 짧게 개인적으론 길고 험한 길로 표현한 임동선목사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와 인도, 힘과 지혜, 인내와 용기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뿐입니다. 이민교회로서 많은 축복을 받아 2세 교육과 지도자 양성, 국내 국외 지교회 설립과 선교, 국내외를 막론한 구호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온 교우들이 물심양면의 적극협력의 결과임을 재삼 밝히는 바입니다.

법의 존엄을 준수하라고, 신진대사를 위하여 기꺼이 정년 퇴직함에 있어서 퍽이나 아쉬운 것은 좀 더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과 울안에 있는 양이나 밖에 있는 양들을 극진히 사랑치 못한 것이 심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LA를 사랑하셔서 나보다도 젊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덕이 높고 영력있는 훌륭한 이병희목사님을 후임자로 보내주심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원로목사로 추대해 주심과 나의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 격려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 내외는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다시 절감합니다.

정년후 나의 할 일을 다섯가지로 집약해 봅니다.

평소에 보고 싶은 책들을 읽는 일과, 선교대학원을 좀더 충실케 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주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과,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강화 발전과 국내외 선교활동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41년간의 민간목회, 군특수목회, 이민목회에서 경험하고 얻은 교훈들을 간추려 몇권의 책을 더 출간할까 생각합니다.

당회장을 떠나며 온 교우님들께 바라는 것은 후임으로 오신 새 당회장님을 모시고 더욱 단결, 순종, 기도, 격려 그리고 희생이 있으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당회의 제직들께는 계속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심과 선교사업의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더욱 적극 참여, 배전의 부흥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온 교우님들과 외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국내, 국외의 지교회와 자매교회의 여러 식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임동선원로목사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간 성공적으로 이민목회를 해온 임동선목사는 원로목사로 취임한 뒤 미국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와 전세계에 퍼져있는 지교회 및 협력교회 선교 지원교회 초청을 받아서 1990년 한해를 가장 바쁘게 보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1990년에 집회 인도 및 교계 세미나, 창립부흥회 인도, 신앙강좌 등 선교를 위해 전 세계를 방문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민목회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서 몇권의 책을 더 펴낼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순복음교회 집회인도: 1990년 2월15일~19일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집회인도:1990년 2월21일~26일
▲시카고 연합집회, 텍사스 카트라스코부교회 집회인도: 3월15일~26일
▲필라델피아 엘림장로교회 집회인도: 1990년 4월7일
▲뉴욕 성은장로교회 집회인도: 1990년 4월20일~23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집회인도: 1990년 5월4일~6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뉴저지 교역자 수련회 및 호산나 1990년 복음화 집회인도: 1990년 5월17일~27일
▲샌디에고 지교회 창립예배: 1990년 6월3일
▲뉴욕 로체스타 한인연합장로교회: 1990년 6월9일~11일
▲뉴욕 닉스한인교회 집회인도: 1990년 6월16일~18일
▲처음으로 알라스카에서 여름휴가: 1990년 6월24일~7월9일
▲아프리카 선교여행: 1990년 7월12일~25일
▲콜로라도 연합집회: 1990년 8월4일~6일
▲워싱턴 초대교회 집회인도: 1990년 9월1일~3일
▲산호세 제일침례교회 집회인도: 1990년 9월15일~17일
▲서울 동도교회 집회 인도: 1990년 9월30일~10월6일
▲뉴욕 퀸즈장로교회 집회인도: 1990년 10월13일~15일
▲한국과 일본에서 집회인도: 1990년 10월21일~ 11월14일
▲시온성 중앙교회 부흥회인도: 1990년 11월16일~18일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집회인도: 1990년 11월25일
▲시카고 에즈베리 연합감리교회 집회인도: 1990년 12월1일~3일
▲벧엘교회 집회인도: 1990년 12월9일
▲중부동양선교교회 성탄주일 설교: 1990년 12월25일
▲한국방문: 1990년 12월26일~91년 1월6일

임동선 원로목사는 미국과 한국, 세계선교 여행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면 2~3개월에 한번씩 반갑게 맞이하는 교인들을 위해 주일예배 때 선교를 내용으로 하는 설교를 했다.

제10장
4 • 29폭동과 봉사사역

- 새벽예배, 금요예배에 교인 크게 증가
- 창립 20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천지창조 대연주회」 큰 성황
-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를 파송
- 미주내 지교회를 계속 확장
- 새벽기도회에 500명 출석, 눈물의 기도
- 러시아 선교에 장단기 계획 수립
- 노창수목사가 담당하는 영어예배
- 한국어 중고등부 신설하고 신앙교육
- 1991년 제2교육관 입당예배
- 대학부 출신들, 제1회 홈커밍 행사
- 창립21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해마다 동양선교교회 산타가 온다
- 교회분규 치유위해 새벽기도
- 임동선목사, 모스크바 부활절 새벽 설교
- 폭동피해자 구호로 30만달러 지원
- 은혜속에 마친 7 • 19 동포 초청 큰 잔치
- 창립 22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월드미션대학교 1회 졸업식
- 새 당회장 청빙을 위한 새벽기도회
- 창립 23주년 부흥회 및 임직예배
- 한 흑교류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교회
- 제 3대 담임목사에 박광철목사 취임



새벽예배 금요예배에 교인 크게 증가

이병희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구원 그리고 은사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 아울러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달했다. 새 담임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와 은사 기도를 자주 드렸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목사는 담임목사로 부임전에 이미 성령운동 목사로 알려졌고 1975년부터 미 전국에 부흥회 강사를 다닐 정도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목회자였다. 설교때마다 새 담임목사의 뜨거운 말씀과 구원의 은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늘어났다. 금요예배를 심야예배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고 새벽 예배 때에 더욱 많은 교인들이 출석을 했다.

이병희목사는 1990년 2월18일 주일 대 예배때 「오직 예수」(마 17:1~8)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런 설교를 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1초도 못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변형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오직 예수만 모시고 살아야 함을 보여 주십니다.

뜻밖에 변화된 예수님과 동시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된 베드로는 이 세분을 동등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1초도 못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할 때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보여 주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예수님만은 제자들 앞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가 우리들 눈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병희담임목사는 1990년 3월8일~15일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전도폭발 클리닉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다. 7월30일~8월2일 뉴포트 뉴스장로교회 부흥집회에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코리아타운교민회가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 기간 중인 9월22~23일 윌셔 이벨극장에서 개최된 「선교의 밤」에서 설교를 했다.

바울 모세 에녹선교회, 신앙강좌 주최



김선도목사 초청 신앙강좌

바울 남선교회는 창립 20주년 기념강좌 강사로 박종순목사를 초청 신앙강좌를 개최했다. 충신교회 당회장인 박종순목사는 1990년 5월10일~13일 「삶을 해결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4일간 신앙강좌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했다. 새벽기도와 저녁집회, 주일예배 때 박종순목사는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신앙」, 「기도의 방법」, 「기도의 결과」, 「상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90년 박종순목사, 김창인목사 이어 김선도목사 초청 신앙강좌 광림교회 남성성가단 40명도 집회 특송

박종순목사는 "우리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온갖 범죄와 죄악은 귀신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 능력자이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수습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도 잔잔케 되고, 귀신도 물러 갑니다. 주님이 우리시대와 삶의 주인이 되실때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 것"이라고 「절대적인 힘과 상대적인 힘」(막 2:25~28)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설교를 했다.

광복 45주년을 맞아 조국통일 기원 대성회를 8월16일~18일 본당에서 개최했고 강사에 충현교회 김창인목사를 초청했다. 김창인목사는 8월19일 주일예배(1, 2, 3부) 때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 받읍시다」(요 1:43~5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온 성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모세선교회는 10월22일~24일 김선도목사(광림감리교회)를 초청, 추계신앙강좌를 개최했다. 강사인 김선도목사와 함께 본교회를 방문한 광림 남성성가단 40명이 예배 때 특송을 불러서 더욱 은혜스러운 집회가 되었다. 11월2일부터 3일까지 에녹선교회 주최로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한빈장로를 초청, 간증집회를 개최했다. 이한빈장로는 「축복받는 민족의 비전」, 「통일의 날에 대비하여 기쁨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삶의 경험적인 말씀을 전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원로목사의 회고

임동선원로목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1990년 6월24일 주일 대 예배때 「교회 창립 20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회고와 감사에 가득찬 설교를 했다. 이날 설교때 임동선목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10가지의 신앙자세를 강조했다

"우리교회가 교회 창립 20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성장된 신앙생활이 요구됩니다.

1. 간구보다 감사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20)
2. 남의 인정보다 속의 기쁨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 6:17)
3. 보호보다 용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시 23:4)
4. 의무보다 자발적으로: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창 24:19)
5. 정죄보다 이해를: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8:7)
6. 용서보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 21:13)
7. 열심보다 진실을: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눅 10:41~42)
8. 축복보다 노력을: "내가 이와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창 31:40)
9. 감정보다 이성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 14:6)
10. 환경보다 의지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 (창 39:9)

결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장부)답게 강건하여라" (고전 16:13)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 펴라" (사 54:2)

창립 20주년을 맞아 임동선원로목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10 가지의 신앙자세를 강조했다

창립 20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26일~29일 노량진장로교회 림인식목사를 강사로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매일 새벽 5시, 낮10시, 저녁 7시에 기념부흥회를 인도한 림인식목사는 주일 대예배 때 「온유하라」(마 5:1~5) 제목으로 창립기념 설교를 했다.

림인식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온유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온유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를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명령과 요구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도록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교인들에

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



창립20주년 임직예배후 강사와 당회원, 임직자가 기념촬영을 했다

"70년대 「동양선교」에서 90년대 「세계선교」로 이름을 바꿔야 할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

특별히 창립 20주년 축사를 통하여 "70년대의 「동양선교」의 이름은 90년대를 맞아서는 「세계선교」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할 만큼 이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림인식목사는 다윗의 생애와 그의 인간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영감과 신앙의 교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진 사람,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인간, 주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는 열변으로 시종 뜨거운 감회로 가득차게 했다.

7월29일 오후 3시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병희담임목사 사회로 진행된 임직예배는 림인식목사가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11)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김진영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을, 그리고 심항구목사(남가주 목사회회장)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이날 임직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취임: 노재희, 백윤조, 엄한광, 김기성
▲장로 장립: 홍성환, 김중훈, 장 진, 김영재
▲안수집사 취임: 김영욱
▲집사 안수: 채승희, 진병엽, 한긍리, 이창석, 이법웅, 김채광, 김대호, 민병득, 김영만, 오상헌, 최영철, 오기열, 김인승, 이광휘, 박제임스, 박창국, 오윤화
▲권사 취임: 홍영숙, 최성자, 차래옥, 전성실
▲신임 권사: 김순례, 박은동, 황영숙, 송대순, 홍기영, 신봉효, 조규경, 조현희, 최경희, 이영숙, 박 옥, 방기복

당회는 지난 20년간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한 원로목사 및 장로, 권사, 집사에게 기념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모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해왔고 교회성장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임동선목사, 임재순사모, 이천영목사, 김용서장로, 김재숙권사, 오해훈장로,
오상숙권사, 한건수장로, 한정현권사, 오철훈장로, 오순자집사, 이성호장로,
이문자집사, 김광돈장로, 김영애집사, 김중완장로, 김희숙집사, 노수정장로,
노영자집사, 황종구장로, 황관오권사, 김명균장로, 김주디집사, 조인식장로,
조정희집사, 한인남장로, 한귀순권사, 스티브임장로, 임경희집사, 김병숙권사,
문유심권사, 김보근권사, 강금자권사, 김재순권사, 하애도권사, 이옥엽권사,
임승광집사, 김영재집사, 김치용집사, 임승천집사, 함순화집사, 김영실집사,
임승향집사

창립20주년 특별감사헌금은 8만5천달러로 책정했고 전교인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

온 교우들은 창립 20주년 축하하는 기념 야외예배를 미국 독립기념 휴일인 1990년 7월4일(수) 그리피스 공원으로 나갔다. 1천여 교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맘껏 하루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더욱 감사기도를 드렸다.

「천지창조 대연주회」 큰 성황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시 150:2)

창립 20주년 행사에는 기념예배 외에도 「천지창조 대연주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된 창립20주년 기념 「천지창조」 공연

1990년 7월 14일 하오 8시 백경환집사가 지휘하는 본교회 연합성가대는 월튼극장에서 창립 20주년기념 「천지창조 대연주회」를 하나님의 축복속에 은혜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동양선교교회 오케스트라가 출연했고, 피아노 반주에는 강혜영, 그리고 소프라노 이귀임, 테너 최원범, 바리톤 김명지의 독창 등 하나님 찬양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천지창조는 깊은 영감이 담겨있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이날 전곡을 연주했다. 하이든은 1808년 3월 27일 빈대학 강당에서 칸 바니역에 의해서 이탈리어어로 연주될 때 천지창조 작곡자인 그가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뜨거운 박수로 열광할때 "이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고 사양했다는 일화가 있는 작품이다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를 파송

북한을 선교지역으로 정하고 간접선교를 통해서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지원해왔다

1990년 선교 목표는 원주민을 위하여 3개 지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인디언선교와 멕시칸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 10명의 선교사를 새로 훈련시키고 공산권 선교를 조금씩 더 넓혀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현지의 교회당 건축과 지도자들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기도를 드렸다.

선교부는 1990년에 모두 3차례의 선교세미나를 주최했다. 제1차 선교세미나는 3월10일, 17일, 24일, 31일에 걸쳐 선교담당 조갑수목사와 해외 선교사가 「선교의 성서적 근거」, 「선교의 역사적 발전」, 「선교의 동향과 전략」, 「선교의 업무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차 선교세미나는 6월에 「선교역사와 한국교회」, 그리고 3차 세미나는 9월에 「선교현황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했는데 선교부 임원과 선교위원회, 각 선교회 임원진, 지교회 선교부 회원들이 참석해서 강의를 들었다.

선교부는 특별히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선교지역으로 정하고 지교회 설립, 선교사 파송, 간접선교 등을 꾸준히 넓혀 나갔다. 부활절 주간인 1990년 4월22일 처음으로 평양 봉수교회 예배 실황방송 및 북한교회 재건에 대한 현지 녹화 비디오를 상영했다. 앞으로 북한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또한 5월13일 중국선교 담당 윤치원협동목사가 현지에서 촬영해온 서탑교회와 20교회 사진을 복도에 전시하면서 중국선교 보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렸다.


본교회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선교중창단의 찬양모습

선교부는 「2000년대를 향한 인디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5월6일 오후 4시 여호수아선교회와 디모데선교회가 합동으로 인디언선교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렸다. 인디언선교를 위해 Abel선교사를 지원했고 그들을 위한 젊은 한인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선교회원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1990년 9월23일 인도네시아 복음신학대학 학장 및 선교 중창단이 본교회를 방문, 설교와 찬양, 간증의 시간을 갖고 동남아선교의 중요성과 사명을 더욱 확인했다.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의 폭 넓혀

한인커뮤니티를 사랑하고 항상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지원해온 본교회는 1990년 인구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미국정부가 10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교인들에게 1990년 센서스에 적극 참여를 권장했다. 4월1일 인구조사를 통해서 소수민족을 위한 기금분배,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보조금 배정, 교육, 교통 등에 혜택이 돌아온다.

1990년 9월엔 한국의 수재민을 위해 온 성도가 4만 5천달러를 헌금, 언론사에 전달했다

1990년 4월15일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수술을 받은 한국인 입양소녀 엔지양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순서와 기도시간을 가졌다. 한국출신으로 11년전 미국에 입양되어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엔지양을 돕기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 1만달러를 전달했다. 동부에 살고 있는 엔지양의 양부모는 엔지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해가며 온갖 치료를 해왔고, 온 성도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했다. 엔지양은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등 기도와 치료를 다 했으나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1990년 5월 중순 뉴욕에서 숨을 거두었다. 또한 11월11일 주일에는 한국인 입양아 조나단 맥고완 외 2명이 백혈병에 걸려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서 교인들의 사랑의 헌혈 참여를 호소했다.

9월초 한국에 때아닌 큰 수해가 발생했고, 1990년 9월22일 1, 2, 3부 예배시간을 통해 모국 수재민을 위한 구호기금으로 모두 4만5천달러를 헌금했다. 1주일간 기도하는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5천여 전교인이 참여해서 가장 많은 수해지원 액수인 4만5천달러나 되었다. 모금된 수재의연금은 한국일보를 통해서 모국 수재민에게 전달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점점 범죄가 늘어나고 한인 피해자들이 많아지자 남가주 교계는 범죄 추방, 크리스찬 총 궐기대회를 1990년 8월18일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동선원로목사가 명예대회장을 맡아서 특별설교를 했다. 또한 한인 노인들이 아파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동양선교교회는 한국노인회 노인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 1990년 12월9일 1, 2, 3부 예배 때 특별헌금 시간을 갖고 모두 2만1천달러를 전달했다.

성서연구부는 이단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이단 종파 및 다른 주요 종파의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마침 동포사회에 마라나타라

는 사이비종교가 생겨나서 물의를 일으킬 때였다. 1990년 8월5일~9월30일 매주일 오후 2시~3시 30분 본당에서 열린 이단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월 5일 : 다른 종파 및 이단 종파 연구의 필요성과 이단의 정의 - 이병희목사
2. 8월12일 : 통일교 - 김건태목사
3. 8월19일 : 여호와의 증인 - 홍동섭목사
4. 8월26일 : 몰몬교 - 차재완목사
5. 9월 2일 : 안식교 - 강선자전도사
6. 9월 9일 : 구원파 - 안영호목사
7. 9월16일 : Church of Christ와 Mind Control - 조갑수목사
8. 9월23일 : 캐톨릭과 기독교의 비교 - 안용식목사
9. 9월30일 : a. 이단을 예방하는 길 - 김건태목사(종합)
   b. 간 증: 이에스더집사

길 잃은 한마리 양이 돌아올 때


1990년초부터 시작된 새 교인을 위한 성경공부의 열기가 뜨거웠다.

새 신자관리부가 주관하는 새신자와 신입교인을 위한 성경공부를 이병희목사가 담당하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1990년 1월30일(화) 첫날에는 22명, 그리고 2월6일(화) 둘째날에는 51명, 셋째날 2월13일에는 61명의 학생들이 몰려와 교실배치를 다시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새신자 교육과정은 단순한 성경공부라기 보다는 평신도로서 누구나 한번쯤은 수강하는 것이 교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수강생이 계속해서 늘었다. 이 강의를 들은 성인교육부장 김용일장로를 비롯한 몇몇 기성교인들도 "재훈련 교육으로도 권장할 만큼 알찬 강의였다"고 칭찬을 했다.

기성교인들도 새 교인과 함께 성경을 다시 공부하며 신앙이 더욱 새로와졌다

성경공부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이병희담임목사가 연중 강의로 쉬지 않고 진행을 했다. 교육내용은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교리와 교회생활을 7과목으로 나누어서 7주 동안 강의했고, 8주째는 동양선교교회를 소개하고 교구에 배치하면서 끝마쳤다. 이 강의들은 기독교교리와 교인으로서의 교회생활의 가이드를 해설해 주는 내용이고, 수강기간 동안에는 교인들이 친숙해지고 당회장과의 직접대화 등 본교회 가족으로 적응을 잘하며 소속의식을 갖도록 했다.

교육의 책임을 맡았던 방조영장로는

"새 신자관리는 교회 부흥의 척도이다. 새 신자나 신입교인이 갖고 싶은

것은 큰 교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어 말씀을 먹으며 말씀에 확신을 갖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실천할 단계에 온 것 같다.
가장 적절한 때에 실시되는 이 교육을 통하여 교회부흥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OMC를 통하여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동양선교헤랄드, 1990년 3월호)

신입교인 성경공부반은 1990년 3월22일 첫 수료예배를 8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수료생들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기쁨의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품속에 마치 와있는 느낌"이라면서 "이제는 좀 더 자신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말씀을 배운대로 생활에 실천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했다.

수료예배때 이병희목사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교회생활을 하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1.말씀듣는 것 2.성도의 교제 3.기도생활 4.물질의 봉헌 5.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되어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강조했다.

당회원들, 전도와 선교사명을 다짐

1990년 1월 25일「세계선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42명의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미주센터 총재 Ralph D. Winter박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다. Winter박사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사역으로 일관해 있다"고 말하고 복음화(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선교란 기독교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즉 복음이 미치지 않은 이방 이민족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역이고, 복음화란 동족 또는 동일언어권 내지는 문화권을 초월하여 이미 전파된 복음의 사역을 증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1990년 1월 시무장로들을 초청해서 가진 Winter박사 특강

"선교사는 빛이 없는 어두움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정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받은 축복을 다른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축복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촉구

했다. 결론으로 Winter박사는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를 하기 보다는 선교기관을 통하여 협동하여 하는 것이 정보의 교환과 경험의 다양으로 성공의 확률이 크고 지속성있게 계속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학원 선교회(KCM 총재 임동선목사)가 실시하는 단기 선교훈련단은 1990년 7월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의 세지역을 다녀왔다. 4년째 계속 실시된 단기선교훈련은 대학생들에게 학원복음화와 세계복음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선교전지훈련 기회로 활용해왔다.

대학생의 단기 선교훈련은 학원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좋은 기회이다

〈동남아지역〉

1990년 7월2일부터 8월8일까지 25명이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선교훈련을 다녀왔다. 김충모선교사, 정승희선교사, 김활영선교사, 신원태선교사, 민원석선교사가 훈련을 담당했고 인솔자는 이정우전도사, 한재우전도사 등이었다.

〈남미지역〉

7월3일부터 21일까지 15명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지역을 김학진전도사의 인솔로 다녀왔다. 김용식선교사와 지덕진선교사의 지도로 훈련을 받았다.

〈아프리카 · 유럽〉

7월3일에 출발하여 8월9일에 돌아왔으며 모두 16명이 참가했다. 훈련지역은 케냐, 이탈리아, 영국, 독일이며 지도는 한경철선교사, 배주형선교사이고 인솔자는 박영배전도사였다.

한인세계협의회 제3차 연차대회가 1990년 10월8일부터 10일까지 본교회에서 열렸다. 미주 각지역 목회자 1백50명이 모인 대회는 중동, 동남아,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중국 등에 대한 선교보고를 듣고 1991년 서울 선교대회와 1992년 빌리그래함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인선교대회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이병희목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제로 환영설교를 해서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와 감명을 주었다.

미주내 지교회를 계속 확장

샌디에고 지역에 동양선교교회 지교회가 세워졌다. 1989년 12월24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교회는 1990년 6월3일 오후 라호야에 자리잡은 새 성전에서 3백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계만목사를 담임목사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예배 날 임동선원로목사는 「교회의 8대 기본 업무」를 설교, 새로운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회장 차당호목사는 "샌디에고 지역에서 동양선교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축사를 했다.

밸리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는 1990년 6월24일 신임 홍순도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취임예배는 이병희목사의 사회와 설교를 통해 밸리지역에 복음의 전당으로의 사명을 다짐했다. 전임 당회장 이원희목사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귀국한뒤 홍순도목사가 취임한 것이다. 홍순도목사는 연세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다시 전공한 후 남가주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마쳤다. 목사안수는 미주성결교회 교단에서 받았으며 브라질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1983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후 기념촬영

어바인 동양선교교회 지교회가 1991년 10월 6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또하나의 OMC 가족으로 탄생했다. 김성수목사를 담임으로 창립된 어바인 지교회는 임동선원로목사가 창립 기념 설교를 했고 교회 2부 성가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샌디에고 지역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다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중부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식이 1991년 12월15일 오후 3시 동 교회 본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윤한두목사가 이임하고 김진광목사가 새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조갑수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 예배는 백형권장로의 기도와 박금란집사의 특송, 그리고 사우스베이OMC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임동선목사가 「광야의 외침, 선량한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석태운목사는 취임목사와 교회에 대한 권면을 했다. 그리고 이기홍목사가 축사를 했고 윤한두목사의 이임사에 이어 김진광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신임 김진광목사는 풀러신학대학원(M. Div.), SF State Univ.(BA)를 졸업하고 애리조나 OMC 담임목사, LA동양선교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다.

미주 각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본 교회는 오랫 동안의 여건조사와 기도의 후원에 힘입어 드디어 1991년 3월29일 라스베가스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담임목사 박용운)의 창립예배를 드렸다. 1990년 6월12일 적은 성도가 모여 시작된 라스베가스 OMC는 동양선교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14번째의 OMC 지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1백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라스베가스 OMC 창립예배에는 임동선원로목사와 OMC 3부 성가대가 특별 참가해 지교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성가대원들은 교회버스로 라스베가스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창립예배에 특별히 참석을 했는데 찬양 순서를 맡기 위해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창립예배에서 임동선원로목사는 「교회의 10대 업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10대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강화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라스베가스 OMC가 담당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각 지역교회가 참석하는 1991년 성탄축하 연합음악예배를 1991년 12월 8일 본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남가주 소재 6개 지역교회가 참석한 연합음악예배에서는 모두 8

백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축하 성가가 은혜롭게 울려 퍼졌다. 이날 참가한 6개 교회는

▲동양선교교회 (임동선목사)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이기홍목사)
▲밸리 동양선교교회 (홍순도목사)
▲중부 동양선교교회 (윤한두목사)
▲시온 동양선교교회 (이성원목사)
▲어바인 동양선교교회 (김성수목사)이다.

"라스베가스에서 참교회 사명을 다해 아름다운 결실 맺자"며 지교회를 창립했다



1991년 6개 지교회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성탄축하 연합 음악예배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동양선교교회가 주관한 이날 음악예배는 김건태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이기홍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각 지역교회 성가대가 그동안 준비한 성탄축하 성가를 찬양한 뒤 할렐루야를 합창함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 중부동양선교교회는 찬양대신 5명의 대학부 회원으로 구성된 드라마팀이 출연해 "손"이란 제목의 단막극을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역교회 성탄축하 연합음악예배는 성탄절을 앞두고 산하 지역교회가 모두 참석해 각교회간 친목을 다지고 주님 탄생 축하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날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 지교회에 또 하나의 동양선교교회 가족이 생겼다.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이기홍목사)의 지원으로 창립된 애나하임 동양선교교회는 1993년 6월 20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복음사역을 위한 이민교회로 새 출발을 했다. 윤기성목사가 창립한 애나하임 동양선교교회는 창립예배에 앞서 임동선목사를 강사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흥성회를 갖고 지역사회의 선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임동선목사는 지교회를 설립하면서 선교의 동역관계로 생각했다. 지교회와 모교회와의 관계는 종적이 아니고 횡적으로 생각했으며 동양선교교회와 같은 모델이 되는 지교회가 한인이민자를 위한 복음화, 세계를 위한 선교의 지역을 넓혀 나갈 것을 바랐다.

신앙노선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

1990년 1월21일 제2대 당회장으로 이병희목사가 취임한뒤 가을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담임목사의 목회방법에 대해서 일부 당회원과 성도들은 "19년동안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유지해온 본 교회에 오순절식 신앙과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은 성급한 담임목사의 목회 방법에 혼동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동양선교교회 당면문제에 대한 해명서, 1991년 4월)

담임목사에 대한 문제가 공식화된 것은 1990년 연말 당회에서부터였다. 12월26일 당회는 신년도 보직임명 문제를 담임목사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12월29일 당회 때에는 장로들이 신년 부서장 보직에 대한 반발로 사표를 제출했다.

새해 첫주일인 1991년 1월5일 장로 45인 중 다시 38명의 장로가 새 당회장의 목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종합하여 전달하기 위해 12인 위원회를 당회안에 구성했다. 12인위원회는 장로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모아 1월16일과 23일 두번에 걸쳐 담임목사와 면담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면담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담임목사측의 장로 3인과 담임목사의 목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3명, 그리고 중간 입장의 장로 1명으로 2월1일 7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7인위원회는 담임목사에게 건의하는 9개조항을 작성했고 당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회원 일동은 2월3일 7인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19년동안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노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 의 서

본 당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목사님에게 건의 하오니 하나님의 뜻 아래서 존중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동양선교교회의 화평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오순절 교회 스타일 및 신앙노선으로 오해 받을 소지의 목회를 지양한다
2. 본 교회의 신앙 및 목회 전통을 존중하고 헌법 제2장에 명시된 예배의식을 준수한다
3.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 협동관계를 강화한다.
4. 원로목사와 관련되는 선교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5. 교회의 7인위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재 확인한다.

1991년 2월 3일
동양선교교회 당회원 일동

이병희목사는 2001년 5월 인터뷰때 "동양선교교회에 큰 꿈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열심히 했다. 원로목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당회원들이 건의서를 제시함으로서 어려움이 생겼다. 당회장으로 그때 서명을 한 것은 무리한 내용이 있었지만 교회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사인을 했다. 이때부터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졌다. 어느 목회자도 어떤 조항에 사인을 하고 목회를 하지않는데 나는 교회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인을 했다"고 당시를 말했다.

1개월이 지난 3월27일 당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서(2월 3일자)에 대해 일부 당회원들이 "그 동안 건의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3월27일 다시 당회장께 드리는 「5개항의 결의서」를 전달했다.

4월10일 당회는 "4월1일부터는 당회장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기도회를 강행하여 교회 분열의 조짐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다시 4월11일 당회는 이병희목사의 본교회 담임목사 직위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4월30일까지 자진 사퇴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임을 사임으로 대치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담임목사 사임을 결정한 이날 참석한 당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용서, 한건수, 조웅래, 김재권, 성기윤, 조영근, 정문섭, 노수정, 신윤철, 김광락, 온성철, 조인식, 조정현, 이성은, 김광돈, 이건기, 김여근, 정중섭, 김석환, 김성곤, 김상정, 노재희, 엄한광, 홍성환, 장 진, 김건태, 조갑수, 안용식 이상 28명

"큰 꿈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열심히 했다 교회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다"

1991년 4월12일 정기 제직회에는 1천여명의 제직이 참석했다. 예배 후 이병희담임목사는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 창립기념행사 후인 7월말로 사임할 것을 발표했다.

이병희 제2대 담임목사 사임

제2대 당회장으로 1990년 1월21일 취임한 이병희목사는 1991년 4월24일 취임 1년 3개월만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다. 이때 시무장로 17명이 함께 교회를 떠났다.

▲원로장로: 한인남, 오수남
▲장로: 오해훈, 오철훈, 김중완, 유문규, 이성호, 방조영, 오수훈, 최만삼, 김경태, 탁찬효, 신상우, 조상희, 황종구, 김지수, 김중훈, 김영재, 안정현

이병희목사는 30년사 인터뷰때

"동양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동양선교교회에 오기 전에도 성령운동하는 목사로 소문이 나있었다. 순복음식이 아니라 성령적이다. 원로목사님이 20년간 부흥성장 시켜온 동양선교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분규로 교회가 갈라져서 큰 상처를 받지않기 위해서 빨리 사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희목사는 1991년 5월 5일 라성세계복음교회를 창립했다. 라성세계복음교회 (2861 Los

Feliz Blvd)는 매주일 2부예배를 보며 새 성전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1991년 5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교회의 아픔을 놓고 전교우 40일 금식기도를 드렸다. 기도 제목은

1. 교회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위하여
2. 회개와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3. 성도의 신앙생활 안정을 위하여
4.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위하여 였다.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 새벽 제단에 불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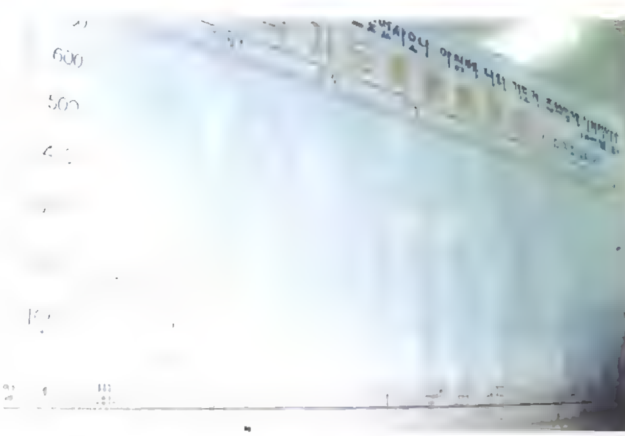
새벽기도회에 5백명 출석, 눈물의 기도

원로목사로 은퇴한 임동선목사는 5월 5일부터 임시당회장으로 다시 주일설교를 맡았다.

그리고 6월1일자로 수석 부목사에 김건태목사, 교구-행정담당목사에 황재룡목사, 교구 행정담당 전임전도사에 임성진전도사를 임명했다. 당회는 5월29일 2, 3부 성가대 지휘자로 장영주집사를 임명했다.

1991년 6월13일 당회는 심야기도회를 7월말까지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새벽기도회에 더 많은 교인이 출석하도록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새벽기도회에 매일 200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특별히 주말 새벽기도회에는 500명이 새벽제단에 기도의 불을 붙였다.

1991년은 동양선교교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가장 시련과 고통이 큰 한 해였다. 20년 동안 은혜중에 잘 성장해오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고 일부 창립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시련과 연단의 아픔으로 얼룩진 한해이었지만, 다시 부흥의 기도가 쉬지 않았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상처를 마무리 짓고 1991년 한 해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전교인은 감사를 했다. 또 그 아픈 상처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뜻이 무엇인지도 찾아보려는 노력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다. 온성도는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하여 OMC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느꼈고 하나님은 분규 사태이후의 OMC를 계속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민교회로, 그리고 미주 최대 한인교회로 사상 처음 당하는 엄청난 소용돌이였지만 단 시일 내에 매듭을 짓기위해 회개와 눈물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온 성도의 새벽기도를 위해 만든 기도회 현황 도표

임동선원로목사는

"20년 동안 한번도 분열이 없이 자라온 교회가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 모두가 마음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계와 사회에 면목이 없게 되었다. 이것은 후임자 선택에 있어서 처음있는 일이고, 우리교회 헌법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반목 질시하기 보다는 또 하나의 교회가 더 생긴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 교회가 함께 부흥되어 더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다." (동양선교헤랄드, 1991년 6월호)

"지난 날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더 큰 길과 더 큰 능력을 주어 더 큰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교육과 훈련인 것을 확신한다" (동양선교헤랄드, 1991년 12월 29일 송년호)고 썼다.

임동선원로목사는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국내외 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한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선교부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장,단기 선교전략을
세워나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러시아 선교에 장단기 계획 수립

선교부는 1991년 4월부터 선교중보기도 회보를 매월 발행했다.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안내에는 선교 현황이 실려있고 중보기도의 목표를 게재하고 있다. 1991년 중보기도 목표는 2000년까지 5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단기 목표로는 다음 10개를 정하고 매월 기도를 드렸다.



소련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회 대표를 초청 선교 발표회를 가졌다

1. 18개의 지교회 성장을 위하여
2. 선교사 지원 (27명의 선교사)
3. 중국 조선족 선교 (북한선교를 위하여)
4. 북미주 인디언선교(나바호지역)
5. 소련 연해주 한국관 설치(준비)
6. 회교권 선교 (인도네시아)
7. 남태평양 선교 (홍성호, 현숙선교사)
8. 멕시코 선교발전 (티화나)
9. 남미선교센터(아마존선교) 구성
10. 동유럽 선교지 확장 준비

1천명의 선교중보기도 회원들은 매주일 지교회와 선교사를 선정하고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1991년 선교 예산 총액을 57만달러로 정했다. 이 예산 중에는 방송선교를 위해 라디오, TV를 통한 선교를 더욱 넓혀 나가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1991년은 선교부가 러시아 선교를 위해 선교계획을 세우고 현지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문제

를 연구하기 시작한 해이다. 7월29일 「러시아 선교의 밤」예배를 드렸는데 주제는 「러시아 기독교의 실상과 선교 전망」이었다. 강사는 알렉세이 비치코프 목사(러시아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회 해외 담당 부총재)와 알렉산더 비리시우크목사(국내 담당 부총재)로 7월30일까지 저녁집회, 낮 세미나 등 3차례에 걸쳐 러시아선교를 발표했다. 그리고 10월18일 이법웅집사(월드미션신학대학원 재학)가 러시아 선교 답사 보고 후 동양선교교회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장단기 선교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해마다 여름방학에는 대학생들을 단기 선교사로 동남아, 중국, 남미 등에 파송을 했고, 1991년 8월22일~24일 대학생은 멕시코 티화나선교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영어예배부 신설, 노창수목사 부임

멀티 미디어와 하이텍을 복합시킨 새 스타일의 영어예배를 시작했고 1.5세 및 2세의 반응이 좋았다

늘어나는 1.5세 및 2세 교인들을 위해 영어예배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1989년 10월 처음으로 영어예배위원회를 구성했다. 영어예배위원들은 1991년 5월 29일부터 5개월간의 준비 끝에 10월20일 주일 늘어나는 영어권의 1.5세 및 2세 교인들을 위하여 영어예배부를 신설하고 첫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당회는 영어예배 담당목사로 10월1일 노창수목사를 임명했다. 노창수목사는 10월20일부터 매주일 오후 12시 30분 제2교육관 예배실에서 영어예배를 인도했다.

영어예배에는 20대, 30대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나왔고 매주일 출석인원이 늘어갔다. 첫날 영어예배에는 145명이 참석했고, 출석 인원은 매주 100명정도였다. 앞으로는 2세를 향한 영어목회가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영어예배위원회는 예산을 해마다 늘려나갔다. 영어예배를 시작한지 4개월째가 되는 1992년 2월7일부터는 영어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정도로 영어권의 젊은 교인들이 많아졌다.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오후 12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렸고 1부에는 50여명, 2부에는 100여명이 출석을 했다.

2세들의 신앙의 성장과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영어예배의 시작은 참으로 의미가 컸다. 1세이민 목회가 2세 영어목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특히 영어예배 시작은 본교회 출신으로 동부에서 영어예배 사역을 해온 노창수목사가 맡아서 모두가 좋아했다.

OMC에서 중 고등학교, 대학시절을 지낸 후 중부, 남부, 동부에서 목회를 했고 다시 신앙의 고향 모교회로 돌아온 노창수목사와 지미조, 데이빗공, 린다백, Mario Bolden 등 신앙의 실력자들이 스텝진으로서 참여했다. 영



노창수목사가 인도한 영어예배, 1.5세 및 2세들이 계속 늘어났다

어예배부는 부장에 장진장로 그리고 차장에 임승천집사가 운영을 도와주었다.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30분, 2회에 걸쳐 드렸고 노창수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새신자 성경공부반, 제자훈련(Discipleship) 등 행사중심이 아닌「사랑중심」의 사역을 했다. 주옥같은 현대 복음성가들로 구성된 힘찬 찬양, 조지 윈스턴을 무색케하는 이신우 집사, 상미자매 부부의 피아노, 피아노와 기타, 그리고 매끄러운 목소리의 김세현, 강은수 형제 등이 헌신적 봉사를 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노창수목사와 노미영사모, 한나와 몇몇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으로 영어예배는 조용히 알차게 자리를 잡아 갔다. 1세의 헌신적인 신앙과 1.5세의 중간역할, 그리고 2세의 실질적인 능력이 조화를 이뤄 영어예배는 날로 발전해갔다.

노창수목사는 "영어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2세 또는 1.5세 부부 가정, 즉 안정된 이들 세대가 교회에 갖는 애착과 헌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1세가 교회를 헌신적 으로 부흥시켰다면 영어실력과 주류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어구사 세대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그 중심을 교회로 집중시키는데 노력했다. 그래서 영어예배의 구성도 미국에서 다각적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취향에 맞게 멀티 미디어의 활용과 하이텍을 복합시킨 창의적인 그러나 전통적 중요성이 함축된 예배로 전환을 해나갔다.

한국어 중고등부 신설하고 신앙교육

한국어 중고등부는 1년에 한두차례 학부모를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캠핑을 나가기로 했다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계속되면서 중고등학생의 교회 출석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민온지 얼마 되지않는 한인학생들은 영어를 몰라 교회에서 영어로 하는 신앙지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오히려 소외감을 갖고 때로는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이 계속되면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신앙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변두리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당회는 새로이 한국어 중고등부를 신설하고, 1991년 3월3일 오전 10시 첫 예배를 드렸다. 한국어 중고등부는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관 4층에서 우리말로 신앙교육과 예배를 드렸다. 임진수장로가 부장으로 교육부장 안정현장로 그리고 안용식교육목사가 헌신적으로 지도를 했다.



한국어 중고등부가 헌신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1991년 9월18일 주일 오후 4시 처음으로 한국어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법웅집사의 사회로 황은철전도사가「깨어 있으라」(마 25:31~4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날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담당 제직들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함께 받았다. 매주일 130명의 학생이 출석을 하며 1년에 한 두 차례는 학부모를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고 때로는 3

박 4일로 캠핑을 나갔다.

학생들 사이에서 「젊은 오빠」라고 불리우는 박영집사는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한 한국어부에 학생이 계속 늘어났다.
그래서 중고등부로 나누고 공부를 하는데 할일이 태산같이 많았다.
예배 예식은 한국처럼 그대로 진행했다. 2~3년이 지나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부로 가게되었다. 그런데도 가지 않겠다고 하든가 갔다
가도 다시 한국어 중고등부로 돌아오는 학생도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열심히 뛰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은 것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국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박영집사는 우리 교회의 참 일꾼이다. (동양선교헤랄드, 1995년 1월호)

1991년 제2교육관 입당예배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의 교육관을
마련했고
월드미션대학으로
자리잡아 갔다

주일예배 출석교인이 3천명으로 늘어나면서 교육시설과 예배장소, 주차장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위원회는 성전 주변의 주차장과 건물을 마련하기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2교육관(456~466 N. Western Ave.)으로 사용할 수있는 예식장 건물이 나왔다. 당회는 대지 1만4천 스퀘어피트에 건평 1만8천 스퀘어피트인 제2교육관을 구입, 월드미션대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제2교육관은 2층건물로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제2 교육관 입당예배후 제직과 성도가 기념촬영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제1교육관을 신축한지 3년만에 또 하나의 교육관을 마련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제2교육관 구입은 오래전부터 간구해온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구입 금액은 198만달러였다. 1991년 6월16일 주일예배 후에는 또 하나의 큰 역사인 제2교육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1992년 12월 431-433 N. Oxford Ave.에 있는 두채의 주택을 구입,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본당 위의 4건물과 주변건물 두채까지 마련함으로 교회 터는 웨스턴가와 옥스퍼드쪽의 건물을 대부분 소유하게 되었다. 점차 동양선교교회 타운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대학부 출신들, 제1회 홈커밍 행사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자고 다짐했다

대학부 총동문 모임이 1991년 9월14일 교육관에서 기쁨과 반가움 그리고 사랑속에 열렸다. 교회 창립이후 대학부를 거쳐간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며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날 행사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등 홈커밍(Home Coming)은 하나님의 축복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신앙의 가족임을 더욱 확인했다.

대학부 출신의 70여 동문과 가족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고 본 교회가 가진 첫 뜻깊은 행사로 학생시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찬양과 함께 기도, 말씀, 슬라이드 쇼, 경품추첨 그리고 만찬 등으로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의 큰 호응 속에 감사로 끝을 맺었다.대학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홈커밍 행사는 참석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사였다.

창립21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1991년 창립 21주년을 맞아 7월25일~27일 이성헌목사(대구 서문교회 담임)를 강사를 초청, 「성숙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성헌목사는 7월25일 오후 7시30분 「인생의 뿌리」(창 3:8~12), 26일 「우리는 신이 될수 없다」(요 21:1~14), 27일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고후 13:5), 28일 기념주일 예배 때에는 「인생의 가치」(딤후 4:6~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성헌목사는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사는 방법은 시간 사용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선택에 최선을 다할때에 인생의 가치가 빛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오후 3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성헌목사는 「신자의 생활원리」(롬

12:1~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는 장로, 집사, 권사,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수훈목사는 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을, 황성수목사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김의환목사의 축사와 방연옥집사의 특별찬송, 석태운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교육관 2층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성령이 함께한 하루였고 새 임직자는 더욱 충성을 다짐했다. 새로 임직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성헌목사 초청 창립 21주년 기념부흥성회

▲장로 취임: 조준구
▲안수집사 취임: 김세웅
신임: 김용기, 김충일, 김희구, 박정수, 이명진, 유영종, 유정수, 한동열, 이경동
▲권사 취임: 정득선, 백희옥
신임: 김옥저, 김현숙, 문순남, 온진환, 송의자, 백미섭, 오영희

웨슬레안 복음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가치가 빛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당회는 1991년 8월 11일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했다. 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은 1991년 담임목사 파동으로 인한 교리문제와 OMC의 지교회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주보 1098호) 헌법개정위원회는 한건수장로를 위원장으로 실무책임은 정중섭, 총무 장진, 위원에 김건태, 성기윤, 조영근, 김광락, 김상정, 김광돈 등을 선임했다.

1992년 1월 헌법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의 방침을 당회에 보고했다.

1. 동양선교교회의 교리와 신앙 노선의 고백은 웨슬레안의 복음주의 신앙에 근간을 두며 교회 정치와 제도는 민주적 신본주의에 입각한 대의 정치제도를 원리로한 초교파 제도를 만든다.

2. OMC의 치리를 교단 형태로 제정하기로 한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다시 제1분과 위원회를 두고, 교리신조와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검토를 했다. 제2분과위원회는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와 권징을 논의했다. 모두 8차의 모임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1993년 1월 공동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교회 헌법은 다시 1995년 1월과 1999년 7월 11일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OMC가 초교파교회로서 확고한 신앙노선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개정을 주창하였던 조영근목사(당시 장로 제2분과 위원장)는 "OMC의 신앙노선이 웨슬레안 교리로 그때 분명히 제정됨으로

써 (제4조) OMC는 신앙노선이 분명한 초교파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1992년 헌법개정의 중요성을 말했다.

해마다 동양선교교회 산타가 온다

선교부는 1974년부터 멕시코의 고아원 방문을 시작해 왔다. 한인교회로서 처음 티화나지역 고아원을 1974년 12월에 방문, 전교인들이 마련한 사랑의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티화나지역의 어린이들은 성탄 때에는 "동양선교교회 코리안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기다렸다. 1976년 12월28일에는 임동선목사와 제직 등 8명이 엔세나다 소재 고아원을 방문, 의류 80상자를 사랑과 타민족 선교의 마음으로 전달했다. 임동선목사는 "우리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성탄과 새해를 맞아 우리보다도 더 불우한 고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큰 보람이다. 한국사람들이 도움만 받아오다 이제 외국사람을 돕는데 나서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성탄 선물을 모아 티화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민교회로서 선교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였다

선교부는 멕시코 고아원 돕기를 1993년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는 이민교회로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아름답게 펴나간 이야기이다. 온 성도들은 해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성탄선물을 모아서, 티화나를 방문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 이웃사랑으로 생각을 했다.

▲1974년 12월23일 의류 500점 전달
▲1976년 12월28일 의류 80상자 전달
▲1978년 12월26일 학용품 캔디 의류 전달
▲1979년 12월29일 의류 학용품 약품 캔디 전달
▲1980년 12월28일 의류 및 기타 물품 전달
▲1981년 12월23일 의류 및 기타 선물 전달
▲1982년 12월23일 아동의류 600점, 캔디, 학용품, 장난감 등 모두 40상자 전달


OMC 선교부는 성탄때 멕시코 고아원을 방문 무료진료 및 선물을 전달했다

▲1983년 12월24일 캔디 학용품 의약품 장난감 과일 라면 전달
▲1984년 12월19일 학용품 장난감 의약품 캔디 전달
▲1985년 12월21일 장난감 학용품 의약품 캔디 전달
▲1986년 12월18일 장난감 학용품 의약품 캔디 전달
▲1987년 12월23일 장난감 캔디 학용품 과일 의약품
▲1988년 12월22일 장난감 캔디 학용품 의류 과일
▲1989년 12월14일 성탄맞이 멕시코 방문
의료진료(내과, 치과, 안과), 성탄성물(가방 800개, 학용품, 옷, 식품)
성탄예배 및 전도(각 선교기관 협조)

멕시코 고아원 어린이는 성탄때 마다 동양선교교회 코리안 산타가 온다고 손꼽아 기다렸다

의료선교단, 국경도시 티화나 방문


티화나를 방문, 의료선교를 하고있는 동양선교교회 의사선교회, 회원들

1990년 12월14일 임동선목사를 단장으로 하는 의료선교단 43명은 5대의 버스에 선물을 가득 싣고 티화나 남단의 판초스마을을 찾았다. 이날 선물 전달과 함께 6명의 의료진이 봉사와 의료선교를 폈다. 티화나지역에 연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온 뒤 1990년 티화나 판초스에 동양선교교회 지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정현호목사를 임명했다. 성인 1백여명과 어린이 500명이 출석하는 지교회는 한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초월하는 선교사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부는 1990년 8월2일~4일 의사선교회와 함께 티화나 지교회를 방문, 의료선교와 봉사를 펴고 돌아왔다. 1991년 12월19일에도 멕시코 선교 방문을 하면서 성탄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임동선 원로목사와 30명의 선교회원들은 티화나선교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특별히 8명의 의료진료팀이 무료 진료를 맡았고 약품을 기증했으며 교회당 지붕 공사비를 위해 1만4천달러를 전달했다.


티화나에서 사역중인 정현호목사에게 교회당 공사비를 전달하고 있다

1992년 12월10일 성탄선교여행을 마지막으로 멕시코를

다녀왔다. 지난 13년간 계속해온 티화나 지역 고아원과 극빈마을과 지교회 지원은 동양선교교회의 선구적인 봉사와 선교 사역 중의 하나였다. 1990년 이후에는 남가주 지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멕시코에 지교회 설립 및 선교사 지원을 나섰기 때문에 선교를 마감하게 된 것이다. 선교부는 2000년에는 멕시코시에 있는 이명수목사를 선교사로 임명하고 선교지원금을 보냈다.

멕시코 지교회는 한국인이 아닌 현지 주민을 위한 선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회 분규 치유 위해 새벽기도

제2대 목사 사임이후 전교인들은 40일 금식기도를 통해 교회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새 담임목사가 속히 부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교인들은 매주일 기도 제목으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새벽기도회 부흥을 위하여」로 정하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때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원로목사로서 당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담임목사 청빙을 돕겠다"고 임동선목사는 말했다

1991년 10월30일 임동선원로목사를 임시 담임목사로 추대했으나 임동선목사는 끝내 사양했다. 당회는 임동선목사의 원로목사로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당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뜻과 후임 당회장을 청빙하는 일을 돕겠다는 뜻을 존중해서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 교회의 어려움이 지난 1992년 교회인사는 다음과 같다.

▲당회

⊙원로목사: 임동선

⊙당회원

목사: 김건태, 조갑수, 안용식, 황재륭, 주명훈, 노창수

장로: 김용서, 한건수, 조웅래, 김재권, 성기윤, 조영근, 정문섭, 노수정, 신윤철
조규철, 김광락, 온성철, 백영두, 김용일, 백형권, 조인식, 조정현, 이성은,
김광돈, 이건기, 임진수, 김여근, 정중섭, 김석환, 김성곤, 김상정, 스티브임,
노재희, 백윤조, 엄한광, 김기성, 홍성환, 장 진, 조준구

원로목사: 이천영

▲임명

⊙교역자:

부목사: 김건태(선교, 교구)
부목사: 조갑수(교육, 교구)
부목사: 안용식(행정, 교구)
부목사: 황재륭(교구)
부목사: 주명훈(교구심방)
부목사: 노창수(영어예배, 교구)
전도사: 강선자(여성도, 교구심방)



1991년 교회의 분규 사태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도의 새벽기도회에 출석 성도가 크게 늘었다

전도사: 임성진(새신자)
교구전도사: 함정희(장년), 조원하(교구), 이범웅(교구), 김용식(교구)
지금섭(교구), 김순심(교구), 장 철(태권도 선교회)
교육전도사: 안미원(유아), 안임숙(유치), 김용창(유년), 김현미(초등)
장수잔(소년), 김철호(중등), 서정인(고등), 한재우(2부 중고)
황은철(한국어 중고), 송창현(대학), 백은숙(대학), 정성훈(청년)
황은미(특수), 홍경하(어와나)
협동목사: 윤치원, 이두용
협동전도사: 김영배, 김은영
원로장로: 이정배

임동선목사, 모스크바 부활절 새벽 설교

1992년은 동양선교교회가 모스크바에 월드미션대학교 분교를 세우기로 하고 지원을 한 첫해이다. 임동선목사는 4월21일~5월1일 김건태목사, 조영근장로와 함께 러시아선교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리고 1992년 4월26일 주일 새벽 5시30분 모스크바에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 한인목회자로 처음 설교를 했다. 러시아 개혁교회 연합회와 모스크바 한인교회연합회가 주최한 부활절 연합새벽기도 예배에는 소련 붕괴후 가장 많은 8천명이 올림픽체육관에 모였다.

초청강사인 임동선목사는 부활절 설교에서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가? 막스 엥겔스 레닌이 교육을 고급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고치면 낙원이 된다고 했다. 교육과 과학이라는 명제는 좋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가 있었고 가치관이 이기적이고 희생적 봉사적이지를

못했다.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이다. 땅이 넓고 예술문화가 세계를 리드했다. 앞으로의 세대가 개혁을 통해 공헌을 한다면 위대한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70년만의 첫 부활절 예배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다. 새로운 복음으로 러시아는 기독교를 통한 국가로 거듭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서울 살롬합창단과 한소연합합창단의 특별찬양으로 더욱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부활절 설교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모스크바 부활절 예배에서 임동선목사가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공산주의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는 구소련에서 70년만의 첫 부활절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밤을 눈물로 기도하고 러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했다. 처음으로 한국목사가 러시아 부활절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몇명이나 참석할지를 몰라서 새벽녘 한시간 마다 잠이 깨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드렸다.

러시아 올림픽 경기장에서 8천명의 러시아인 개신교 교인이 한자리에 참석하기는 처음이었고 현지 언론들은 임동선목사의 부활절 설교를 대서특필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1988년 4월 할리웃 보울 부활절 예배 때 설교와 1992년 4월 모스크바 부활절 예배 때 설교를 한 것을 목회생활 반세기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을 하고 있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교인들이 헌금한 1만달러를 러시아 교계에 전달을 했는데 소련선교를 지원(선교비 및 양말) 해준 교인과 기관명단은 다음과 같다.

▲헌금
채승희, 구선화, 김덕영, 백윤조, 이재현, 서정열, 유치홍, 조현희, 엄승현, 김재한, Tony 윤, 정옥선, 오윤화, 안용대, 한동열, 김제니, 염혜경, 황선미, 김세웅, 신동순, 김충일, 정영식, 장성일, 한궁리, 김석환, 황국동, 이영송, 김영욱, 무명 3인
▲양말
문정모, 천희환, 박만영, 김원권, 이수길, 권진숙, 조택순, 문은자, 김상산, 유순자, 손경진, 이정숙, 김기성, 조정은

▲기관
세리토스교구, 아케디아교구, 사라선교회, 에스더선교회, 여호수아선교회,
디모데선교회, 가나 • 갈리리선교회, 남녀상락회, Walnut교구, 모세선교회, Radio Korea

1992년 8월13일 모스크바에 월드미션대학교 분교 설치 추진위원으로 임동선목사, 김재권장로, 조영근장로, 온성철장로, 김광락장로, 노수정장로, 김성곤장로를 선임했다.

4 • 29 폭동 피해교인에 구조 활동

1992년 4월29일 「흑인 로드니 킹 사건」을 담당했던 백인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사우스 센트럴지역으로 부터 시작된 폭동이 LA 카운티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방화, 약탈, 폭행, 갈취 사건과 인명피해 등으로 전 도시가 비상사태를 맞이했다. 주방위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된 방화, 약탈은 로스앤젤레스에 미증유의 피해를 낳았고 한인업체 약 2천여개가 큰 손실을 보았다. 폭동 중 한인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



4 • 29폭동후 동양선교교회에 설치된 구호센터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과 남가주 한인사회, 교계는 폭동 피해자를 위해 긴급구조 활동을 벌였고 동포들을 위한 식량, 음료수, 생활비 지급, 정부기금신청(FEMA), 복구작업 등 사랑의 손길을 폈다. 동양선교교회 출석교인 중 79가정이 폭동 피해자로 등록되었고, 5월3일 주일부터 매주일 폭동 피해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다.

1992년 4월29일 밤 방화가 전 도시로 확산될 때, 교역자 및 장로, 집사 등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성전을 지켰다. 이날 교회를 지킨 교인은 노수정, 김광돈, 이한길, 장성일, 김성곤, 김명수, 이장윤, 권혁지, 이구일, 신윤철, 박세헌, 이영호, 김추자, 임성진, 김덕영, 조준구, 김명신, 윤경수, 조원하, 안용식목사, 조갑수목사, 노창수목사 등이다.

교회 출석 79 가정이
4 • 29 폭동시에
피해를 당했고
온 교우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구호의
손길을 폈다

노수정장로는

"4월 29일 오후 걱정이 되어서 교회로 나왔다. 만약을 우려하는 제직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한두분 모이기 시작했다. 신윤철장로, 황재룡목사 등이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밤을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켰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5월3일부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과 동포를 위하여 매일 기도시간을 가졌고, 주차장에 남가주지역 재해대책 긴급구조봉사센터를 설치했다. 재해대책 긴급구조봉사 본부에서는 식량과 음료수, 생필품 등을 폭동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했고, 폭동 피해자를 위한 기금신청, 의료봉사, 의료상담 등을 전문가들이 맡았다.



4 • 29폭동 후 교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교회 재해대책 긴급구조봉사센터는 교회와 한인사회 단체 할리웃 경찰서 등이 함께 봉사활동을 폈다. 이때 참가한 기관은 대학부, 나사렛 청년부, 가나 • 갈릴리청년부, 에스더, 한나, 리브가, 사라, 디모데, 여호수아, 바울, 모세선교회, KYC회원, UCLA 학생회, Hollywood Police Dept., 한인변호사협회, 한인보험협회, 한인공인회계사협회 등이다.

1992년 5월10일 주일 오후2시~4시 4 • 29 폭동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임을 가졌다. 나사렛 청년회가 주최하고, 가나 • 갈리리 청년회, 여호수아, 디모데, 모세, 에스더선교회가 후원한 폭동피해자 위로의 모임은 음식과 선물 그리고 피해청구 설명, 건강상담, 기도순으로 마쳤다.

임동선목사는 5월10일 주일예배 때「다시 흥하리라」(욥 22:21~30)는 제목으로 폭동 피해자의 조속한 복구와 전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다시 흥하리라」는 제목으로 폭동 피해자의 조속한 복구를 희망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다

"욥은 많던 재산이 없어지고 10남매가 죽고 몸에는 독창이 나고 아내는 도망감으로써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흥할 수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 불의를 버리라. 다시 흥하리라
3. 네 보배를 버리라. 전능자가 보배가 되리라
4. 기도하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 이루리라
5. 겸손하라. 온 백성에게 유익하리라

처음 실패했던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므로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내 부족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다시 흥하여 곱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폭동 피해자 구호로 30만달러 지원



임동선목사가 4.29폭동 선금을 마이클 우 LA시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교회는 폭동이 난후 첫주일인 5월3일 29,572달러를 구호기금으로 헌금을 했고 5월10일 주일예배때에는 587명의 교인들이 재난 특별복구를 위해 154,429달러를 헌금을 드렸다. 5월17일에는 68명의 교인들이 62,433달러를 헌금하는 등 8월까지 모두 30만달러를 모아서 폭동교인 가정과 폭동 피해 한인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폭동 소식을 들은 지교회들과 유관기관들이 재난구호헌금을 보내왔다.

▲브라질 리오 동양선교교회 1천달러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3백달러
▲유타 동양선교교회 3백달러
▲필라델피아 동양선교교회 금일봉
▲여주 성결교회 720달러
▲로마한인교회(지교회)1천달러
▲명지국민학교 1천달러

폭동피해 성도를 돕기위해 매주 특별헌금을 드렸고 한인교회로 가장 많은 30만달러를 헌금해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당회는 3개월에 걸친 4 • 29폭동 특별구호를 위해 한인교회로는 가장 많은 헌금을 했고, 재해대책본부를 동양선교교회에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전교회가 나섰다. 창립때부터 한인커뮤니티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봉사의 사역을 펴온 본 교회는 폭동 피해자에게 사랑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크게 도움을 주었다.

김상정원로장로는"4 • 29 폭동때 봉사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봉사를 이민사회를 위한 목표로 일찌기 세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당회장님으로부터 전교인이 4 • 29 폭동의 피해자를 위한 구호사업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당회와 온성도가 적극 지원해서 그 큰 봉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폭동지원 당시를 말했다.

한인 직업교육센터를 개설

LA 성인교육국은 한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센터를 동양선교교회안에 개설했다. 4 • 29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LA교육국의 성인 프로그램은 1992년 12월12일부터 1993년 6월30일까지 8개월간 계속되었다.

한인직업교육센터(소장 백기덕박사)와 본교회가 함께 실시한 교육은 모두 7가지 과목을 가르쳤다. 이는 4 • 29폭동이후 구호대책본부를 6개월간 교회안에 설치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아 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한인 및 타소수민족들이 받는 교육은 상

업영어, 컴퓨터교육, 자동차수리, 사무직 요원 교육, 미용기술, 시민권과목 등이다. 성인 직업교육을 위해 모두 5개 교실을 교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폭동이후 커뮤니티의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나면서 성인 직업 교육을 실시했다

1984년 3월 교육부와 상락전도회, 할리웃 성인교육부는 성인영어학교를 동양선교교회에 개설, 한인은 물론 교회의 이웃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무료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이웃 주민들과 타 소수민족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동선목사는 주요 교회행사 마다 타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초청, 커뮤니티 속에 있는 이민교회로서의 봉사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갔다.

새 목회자 임명 및 선교사 파송

1991년 1월6일 제1교육관 건축위원장으로 헌신 봉사를 한 이정배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했다. 한인남장로, 오수남장로에 이어 원로장로에 이정배장로가 추대되었다.

독일 주재 임병택목사는 1992년 4월5일 사역을 마치고 귀임했고 강성구목사를 후임목사로 파송했다. 새로이 석보욱목사를 협동목사로 그리고 임성진목사를 교구와 심방을 담당하는 부목사로 임명했다.

당회는 행정과 선교를 담당했던 김건태수석부목사를 1992년 7월5일 시애틀 동양선교교회를 개척,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7월10일(금) 오후 7시 김건태목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안용식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파송예배는 조영근장로가 기도를 드렸고, 이기홍목사가 설교를 담당했다. 이어 서울신학대학 동문합창단 찬양으로 이날 파송예배를 더욱 은혜스럽고 축하 속에 드렸다.

조원하전도사를 중국담당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법웅목사를 러시아 선교사로, 황은철목사를 브라질 선교사로 각각 파송을 했다. 성가대 지휘를 맡았던 최병삼목사 후임으로 정성훈전도사를 새로이 1부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을 했다.

당회는 1992년 12월 3일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안용식목사에 대한 당회장 청빙투표를 실시했으나 2/3 이상을 받지못해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혜속에 마친 7 • 19 동포 초청 큰 잔치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7월 19일 교포 큰 잔치에 오는 교인을 맞이하고 있다

1992년 7월19일 창립22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7 • 19 동포초청 큰 잔치」를 열었다. 임동선원로 목사는 동포초청 큰 잔치 인사말에서

"힘든 이민생활과 4 • 29 폭동, 지진 등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와 삶의 방향을 드리고자 큰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찬양과 간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생애 최대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폭동과 지진, 힘든 이민생활을 극복해나가는 동포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자는 취지의 7 • 19 동포 초청 큰 잔치

「15000명 초청하여 예수사랑 전하자」라는 주제의 큰 잔치를 위해 전교인은 1992년 6월21일부터 7월19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교육과 기도 후 전도 현장으로 나갔다. 동포초청 큰 잔치 대회장은 임동선목사가 맡았고 부대회장은 김용서장로와 성기윤 장로가, 그리고

▲기획분과 위원장: 정문섭장로
▲총무분과 위원장: 온성철장로
▲선교분과 위원장: 조영근장로
▲교육분과 위원장: 김용일장로가 맡아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시무장로와 각 선교회 임원진, 교구 지도자, 전체 교역자, 안수집사, 남녀 상락회, 성가대는 날짜별로 기도와 준비모임을 갖고, 7 • 19부흥회잔치를 위해 한인대형 수퍼마켓으로 나가서 초청장을 전달했다.

7 • 19 동포초청 큰잔치의 초청자의 대상은

▲전에 믿다 낙심한 자
▲가족중 믿지 않는 자
▲친척중 믿지 않는 자
▲친구중 믿지 않는자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소속단체의 회원 등이다.



1992년 창립 22주년 기념으로 열린 7 • 19 동포초청 큰 잔치는 폭동피해 치유의 뜻이 담겨 있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1992년 7월 12일 주일예배때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생애 최대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동포초청 큰 잔치에 1만 5천여명을 초대했다

"「와 보라」는 말은 전도에 가장 명백한 구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와 보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소련 음악대학생들의 음악을 와 보라
둘째 윤복희 집사의 간증과 노래를 와 보라
셋째 김영일 집사의 간증과 노래를 와 보라
넷째 나사렛 예수님의 잔치를 와 보라

우리는 7 • 19 잔치를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와 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했다.

교회 창립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동포초청 큰 잔치 일정은 모두 6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 7월19일 주일 대예배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계속되었다. 임동선목사는 대예배때 설교를 했고 1, 2, 3부 성가대가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 주었다. 6부 마지막 예배에는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6부예배에 특별손님으로 초대받은 윤복희집사,



동포초청 큰 잔치에서 러시아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고 있다

김영일집사, 김차순집사, 모스크바 음악대학 합창단이 번갈아 특별 출연을 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왔다.

한편 영어예배부는 오후 2시의 4부 예배에서 대학부와 영어예배부가 합동으로, 노창수목사가 동포 큰 잔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는 6부예배 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성경이야기, 크리스찬 매직쇼, 영화, 맥도널드 해피 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영어 중고등부, 한국어 중고등부도 오전 10시와 12시 큰 잔치 예배를 드렸다.

1만5천명초청, 141명이 새로 등록

7월19일 총동원 주일에는 모두 1만5천1백67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을 했고 새 교인으로 등록한 숫자만도 모두 141명이 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은혜스러웠다. 7•19 총동원 큰 잔치날 전도상을 시상했는데 상품제공자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7월 19일 총동원 주일에는 모두 1만5천1백67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

(등수)	(상 품)	(제공자)	(수상자)
1.	성지순례왕복항공권	오상헌집사	김성곤장로
2.	한국왕복항공권	김진호집사	지금섭집사
3.	하와이항공권	교역자일동	임응율장로

창립 22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1992년 7월23일~26일 창립기념 22주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동원목사(워싱턴 제일한인침례교회)를 강사로 「치유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는 매일 3차례씩 설교를 통해 오늘까지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렸다. 7월26일 주일 창립기념예배날 이동원목사는 「새 아침을 위하여」(창 32:22~3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이민생활 20여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역이민을 결심하고 귀향길에 오른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향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화해를 이루지 못한 형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밤을 이루지 못하던 그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새 아침을 위하여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1992년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셋째,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믿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준 새 출발이었습니다.
새아침을 기다리는 자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후 3시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안용식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임직예배는 이동원목사가 「은혜와 직분」(롬 1:1~7)이라는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는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집사, 권사, 교우에게 서약을 받았다. 이기홍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는 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을 했고, 석태운목사(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 허경삼목사(오렌지중앙성결교회)의 축사와 임직자들이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했고, 교육관 2층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임직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로장로 추대: 조웅래
▲장로 취임: 김덕영
▲장로장립: 조영일, 노성찬, 박승원
▲안수집사 취임: 한규환, 박덕훈,
▲집사안수: 박창섭, 이장윤, 김영호, 방영구, 김권집, 최종원, 정영식, 김청익 유치홍, 이태식, 김형근, 채홍인, 김진호, 전영식, 이재진, 김삼열 곽건준, 임승천, 강모세
▲권사취임: 장례옥, 홍정혜, 정삼례, 지우성, 최옥현, 김경순, 구선화, 안석희 임금화, 공정자, 조정간, 김재한, 성병현, 이정심, 장영자, 조애나 이덕자, 김성자, 진화숙, 노영자, 홍송자, 유종엽

감격적인
월드미션신학대학원
제1회 졸업식에선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영광을 돌렸다

월드미션대학교 제1회 졸업식

1989년 설립된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선교학과와 신학과, 평신도 교육학과,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정을 봄학기와 여름학기, 가을 학기로 나누어 강의했다. 1992년 2월3일부터 시작된 봄학기에는 모두 15명의 신학생이 입학했는데 8명은 동양선교교회 출신이고, 7명은 감리교회, 장로교

회, 성결교회에서 지원해온 학생들이다. 개교이래 현재까지 37명의 학생들이 선교사,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왔다.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1992년 5월31일 주일 오후 4시 제1회 졸업 예배를 드렸다. 이정근학감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예배는 운영이사인 온성철장로의 기도와 동양선교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학장인 임동선목사의 「바울의 모범적 생애」(행 20:19~35)라는 제목으로 축하와 사명 그리고 비전의 설교를 했다.

제1회 졸업생은 임성진, 김용식, 박현수, 박대영, 조원하, 임삼용, 김영배, 강성구, 지금석, 이법웅, 오기열, 김진숙 등 12명이다.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1992년 9월6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 부터 대학인가를 받았고 학과는 성경학과, 선교학과,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아동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8개가 되었다.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9월 27일 모스크바 분교 개교 예배를 드렸다. 모스크바 분교에는 한인동포 15명, 소련인 15명 등 30명이 입학해 선교사와 목회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제1회 졸업식 모습

5천여 성도가 적극 지원한 세계선교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1992년도 선교예산을 5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러한 선교예산은 1,500명의 선교회원이 매주일 작정 선교헌금을 내는 것으로 지난 해보다 15%가 증가한 액수이다. **연 50만달러 선교 예산은**

1. 북방선교(러시아, 중국, 북한) 강화
2. 선교사 훈련 및 파송(2000년대까지 50명)
3. 단기 교육선교사 훈련 및 파송
4. 평신도 선교 교육 강화
5. 지교회 육성 및 지원
6.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인의 사명으로 5천여 성도가 적극 참여하고 지원했다. 창립 때부터 지난 22년간 동양선교교회가 한국 및 미국, 세계를 위해 선교를 한 내용으로는 한국 농어촌 지원 교회수가 1970년대에는 총 268개교회였고, 1980년대에는 1,510개(누계)의 교회

로 늘어났다. 지교회 개척은 1980년에 들어와서는 유럽에 4개 교회, 남미에 5개 교회, 호주에 1 개교회, 멕시코에 1개교회, 미주에 12개 교회를 개척, 지원했다.

홍성호선교사 가족이외에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선교부는 생애를 걸고 선교지에 나가는 사역자와 그를 뒷바라지하는 후원성도의 손길,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과 교회 발전을 위해 선교 대열에 기쁨으로 참여했다. 선교헌금은 선교정책에 따른 선교사업을 돕는 일반 선교헌금과 원하는 교회와 선교기관에 헌금하는 지정 선교헌금으로 작정하고 매주일 또는 매달 선교헌금을 드렸다.

새 당회장 청빙을 위한 새벽기도회

동양선교교회는 1973년 크렌셔 교회때 처음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았고, 새벽기도회의 열기가 높았다. 기도회에는 성령이 함께 임했다. 임동선목사는 "새벽기도회를 통한 영적 각성을 계기로 미국사회 및 교회의 새벽잠을 깨우는 선봉장이 되자"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신앙적 발전이 새벽기도회를 기해 이루어졌듯이 미국사회에서도 이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교회는 물론 이민교회 전체가 크게 성장하는 기폭제로 삼자"고 설교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의 아픔때에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했고 40일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더욱 새로와지기를 기원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얻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랐다.

1993년 목회표어를 「부흥의 해」(합 3:2)로 정하고 온성도가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담임목사 청빙과 성전건축 및 파킹장 마련 등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다. 그리고 임동선원로목사와 교역자들, 지교회 및 선교사를 위하여 그리고 4 • 29재난을 당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열심히 드렸다.

1993년 2월13일(土) 오전 5시 30분에 열린 총동원 새벽기도는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당회장이 하루 빨리 부임해서 동양선교교회가 더욱 부흥을 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9월27일~11월5일 전교인을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드리는 기간으로 정했다. 「우리로 하나되게 하소서」(요 17:11)라는 표어를 정하고 가정별로,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금식기도를 드렸다.

가나선교회와 갈릴리선교회는 처음으로 6월18일(금) 오후 6시~19일(토) 오전 11시까지 제1회 아버지 수양회를 개최했다. 벧엘수양관에서 열린 아버지 수양회는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사 전길성목사는 "역사적인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탈선이 더욱 심각해져 왔다"며 "아버지들 끼리 모여 영적 지도자로

서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전길성목사는 아버지수양회를 위해 5월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단위의 아버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1993년 12월5일 오후 7시부터 한국 선명회 북미주본부(회장 임동선목사)는 「사랑의 빵」 발대예배를 드렸다. 한국 선명회는 「사랑의 빵」 운동 (식빵 모양의 통)을 전개하여 매일 세계 도처에서 4만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도와왔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1993년 3월29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제2교육관에서 개교 4주년 기념부흥회를 개최했다. 「나를 보내소서」(사 6:8)라는 주제로 제2교육관에서 열린 부흥회의 강사는 차현회목사와 임동선원로목사가 맡았다.

"소금, 빛, 백합,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확대경이 되기 바란다" 제2회 학위수여식에서

5월23일 제2회 학위수여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학위를 수여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기자(BA), 오길순(MA), 오윤화(MA),
한은희(MA), 고바울(M.Div.), 남조웅(M.Div.),
유순자(M.Div.), 윤경호(M.Div.), 이 훈(M.Div.),
임용한(M.Div.), 전광평(M.Div.),
이천영목사(DD, 명예신학박사)

임동선학장은 훈화를 통해 「영혼을 낚는 어부가 돼라」는 제목으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개인 구원과 사회 변혁이 일어나듯이 졸업생들이 나가는 곳에서 소금, 빛, 백합,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확대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1993년 7월4일 오후 4시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안수를 받은 목사는
▲송창현목사, 최진기목사, 배창직목사, 신동수목사 등 4명이다.

송창현목사는 본교회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전도사로 헌신했고 최진기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소년부, 중등부 전도사 및 월드미션대학 강사로 사역을 담당해왔다.

선교헌금을 45만달러로, 북방선교 확장

1993년도 선교헌금을 45만달러로 책정하고 전교인들은 1월24일 주일 선교헌금 계획을 작정했다. 새해 주요 선교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북방선교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남미, 브라질, 알젠틴, 파라과이 등 남방의 선교를 적극 지원하고 LA와 러시아, 파라과이의 신학교를 후원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선교부는 대학생 및 교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각 선교회원을 단기선교 훈련에 많이 파송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디모데 선교회가 브라질 아마존과 파라과이 아순션에 2주간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감격적인 모습이었다"

1993년 8월8일 주일예배 때 이관숙목사는 「중국대륙의 복음화」(눅 14:12~14)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이관숙목사는 의수족 보조기 제작 기술자로서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5년간 11개성을 순회하며 기술교육과 구제사업을 해 왔다. 이목사는 "그동안 숙련기술자를 61명 길러냈고 36개 고아원을 순회하며 3천5백명을 진찰하여 1,016명에게 의수족 보조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간접 선교로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현지의 선교사역을 설명했다.

선교부는 1993년 여름 모두 4곳에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

1. 조갑수목사가 인도하여 나사렛 청년부 13명은 8월8일~22일 러시아 선교를 다녀왔다.
2. 강선자전도사가 인도하여 디모데선교회 15명은 9월6일~20일 파라과이 아순션,아마존, 브라질 등을 다녀왔다.
3. 송창현목사와 대학부 8명은 8월4일~18일 멕시코지역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4. 대학부 학생 2명은 7월14일부터 8월11일까지 파푸아 뉴기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1993년 8월29일 주일 오후 4시 저녁예배 때에는 나사렛 청년부의 러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때 장성일전도사는 「선교의 바른 이해를 갖자」(살전 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선교보고로는 비디오 상영과 배세진이 간증을 했다. 러시아 단기선교를 다녀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갑수목사, 장성일, 오미경, 김나경, 이선양, 양성심, 배세진,
성기택, 김형철, 김선주, 조화진, 하평수

10월31일 오후 4시 주일 저녁예배를 디모데, 여호수아 남미 단기선교보고 예배로 드렸다. 이날 지도 교역자인 강선자전도사는 「전도자의 무기」(고전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간증 및 현지 선교보고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남미지역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선자전도사, 엄창웅, 박창문, 김동원, 강모세, 최헌진, 박정언,
이명진, 오영환, 박창훈

5월 가정의 달에 장한 어머니 선정

당회는 해마다 5월 어머니주일을 맞아 장한 어머니 시상식을 가졌다. 1977년부터 시작된 장한 어머니 선정은 1993년까지 계속되었고 온 성도들에 아름다운 가정의 본이 되도록 했다. 장한 어머니 선정 기준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어머니가 어려운 가정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자녀에게 신앙 및 사회교육을 잘 시킨 가정의 어머니"로 해마다 한분씩 선정했다.



매월 5월 장한 어머니 시상식을 갖고 믿음의 어머니들을 격려했다

장한 어머니로 뽑히면 교회에서는 상패와 함께 선물을 드리며 온성도가 축하를 했다. 그리고 동양선교헤랄드 신문을 통해 어머니의 자랑스런 삶을 인터뷰로 실어서 모든 성도 가정의 모범이 되도록 했다. 장한 어머니는 당회와 담임목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한 어머녀로는 기도의 어머니들인 권사들이 뽑혔다.

1977년 이옥엽권사	1987년 김병희권사
1981년 김보근권사	1988년 문유심권사
1982년 이순애권사	1990년 임재순사모
1983년 김영삼권사	1991년 홍가희권사
1984년 이옥조권사	1992년 송대순권사
1985년 금남이집사	1993년 강순례권사
1986년 한병선권사	

매년 온교인들의 친선도모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는 야외예배를 드렸다. 1993년 7



가정의 달 야유회 때 전 교우의 모습

월 3일 800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테란스팍에서 열린 야외예배는 임동선원로목사가 자연과 신앙과 이민자를 주제로 설교를 했다. 이어 갖가지 흥미있는 게임 등으로 이어져 온교우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각 구역별로 자랑스럽게 입장

각구역별로 준비한 점심을 들며 친교를 나눈 교우들은 가장행렬, 물총싸움, 기마전, 물풍선터뜨리기, 댄싱 등의 순서를 가지며 자연속의 하루를 즐겼다. 이날 야외예배에는 특별히 한국왕복비행기표, 하와이 왕복비행기표, 칼라 TV, 기타 전자제품 등 상품들이 나와 교우들의 흥미를 돋구기도 했다.

야외예배 후 체육대회는 닭싸움,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옛 추억을 되살리는 경기 등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흥겨운 가장행렬

제1회 교인체육대회가 1994년 7월4일 미독립기념일을 맞아 그리피스팍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천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각 교구별로 팀을 정해 갖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경기와 널뛰기, 과자따먹기 등 풍성한 놀이 한마당을 연출했다. 예배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닭싸움, 초중고등부 달리기, 길이재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한국 고유의 운동회장과 같았다.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었고 경기마다 상품이 시상되어 모두들 기쁨속에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온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두가 감사를 드렸다.


즐거웠던 1993년의 야외예배 체육대회

창립 23주년 부흥회 및 임직예배

창립 23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인도속에 7월22일~24일 기념부흥성회를 열었다. 강사에 박태희목사(서울 성락성결교회 담임)를 초청했고,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새벽 5시, 낮 10시, 저녁 7시 하루 3차례씩 설교를 했다. 7월22일 저녁 부흥회에는 「성령의 사람」(왕상 18:30~40), 23일에는 「승리의 사람」(눅 9:28~36), 24일에는 「성장의 사람」(겔 47:1~5), 25일 창립기념 예배 때에는 「축복받는 비결」(창 28:10~2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온 성도들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이 안수집사 및 권사로 취임한 임직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창립 23주년 임직예배

▲안수집사 취임: 김영수, 이인걸
▲집사 안수 : 강일영, 정한석, 이종영, 유승주, 곽병재, 박 영, 전용석, 박태은, 오기헌, 안용대, 박창문
▲권사 취임 : 이덕희, 이금헌, 박덕조, 강금성, 송도순, 조명화, 한복순, 정말상, 문경숙, 이영애, 이덕순, 곽광례, 임은희, 채은희, 김축환, 김명려, 정순자, 남상인, 현정희, 윤종화, 함순화

사랑,화평,충성, 인내, 절제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랐다

임동선원로목사는 창립23주년 기념예배가 끝난 1993년 8월1일 주일 대예배에서 「성령 충만자의 생활」(갈 5:23~2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창립 23주년 기념성회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 사랑, 화평, 인내, 충성, 절제의 생활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선교교회 창립

교육 및 행정, 심방 사역을 맡아오던 안용식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창립했다. 처음 임마누엘동양선교교회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1993년 10월31일(종교개혁 주일) 오전 10시 Joseph Le Conte Middle School 강당 및 교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교역자로는 안용식 담임목사와 교구 및 심방을 담당하던 황재룡목사, 홍경하전도사(어와나), 정정훈전도사와 그리고

김용서장로, 온성철장로, 조정현장로, 김상정장로, 김덕영장로, 김석환장로 등이 사임하고 교적을 새 창립교회로 옮겨갔다.

1993년 10월14일 당회에서 선교위원회 김재권장로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임마누엘선교교회 창립준비위원회(교역자 대표 안용식목사, 평신도 대표 김용서장로)가 제출한 지교회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단, 교회 명칭은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운영 규정 제 2장 3조에 의거하여 동양선교교회라는 명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동양선교교회(지교회 포함)와는 지역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최소한 반경 5마일 이상, 그리고 후속 조처는 선교위원회에 일임해 줄것을 당회에 건의하기로 하다."

1993년 12월16일 당회는 임마누엘동양선교교회에서 제출한 서신에 관하여 선교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3가지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서신을 통하여 답변 받기로 했다.

1. 지역교회 성격을 띨 것
2. 영문 명칭에 Oriental을 사용 할것
3. 로고에 선교, 교육, 봉사를 사용 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임마누엘선교교회는 계속해서 지교회로 되기위한 조건들을 협의했으나 거리관계와 동양선교교회라는 영문 명칭사용등으로 인해서 지교회가 되지 못했다. 임마누엘선교교회는 동양선교교회의 지교회는 되지 못했지만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회원 교회로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안용식담임목사는 세계선교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강의를 담당했다.

세계선교와 교회 성장 위해 기도

● 지교회 ● 선교사



1993년은 임동선원로목사가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지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한해였다. 그리고 새 당회장을 청빙하는데 전 교인과 함께 기도의 단을 쌓은 해였다. 임동선원로목사는 당회장직을 임시 수행하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바람직한 교회」(행 13:1~3)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를 했다. 또한 성령충만한 성경을 배우는 성도 등으로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1993년 10월17일 주일예배 때 임동선목사는「바람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계속 개인부흥, 교회부흥, 지교회 설립, 제3세계에 선교하는 모범적 교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세계에 선교하는 모범적 교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다

1993년도에 임동선원로목사가 세계를 향한 선교여행과 미주지역 한인교회 집회를 인도한 일정이다.

▲남미 5개교회 (쌍파울로, 리오, 성민, 파라과이, 알젠틴): 1월13일~20일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창립 8주년기념 부흥성회 인도: 3월4일~7일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창립1주년 기념성회: 3월19일~21일
▲라스베가스 동양선교교회 창립 1주년 기념부흥성회: 4월4일~7일
▲나성성지교회 부흥회 인도: 4월15일~17일
▲캐나다 에드몬튼 연합부흥회 인도: 5월13일~17일
▲유럽 교역자 세미나 및 세계복음 선교연합회 총회 참석: 5월23일~6월9일
▲오클랜드 감리교회 부흥회인도: 6월11일~13일
▲몽고 정부 초청 항공선교협력을 위해 방문: 7월5일~15일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부흥집회 인도: 8월13일~15일

임동선목사는 자서전적인 저서「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증보판을 펴냈다. 임동선목사 신앙 간증집은 1982년 초판을 발행했고, 재판은 1993년에 펴냈다. 그리고 1999년에 3판을 발행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탐독을 했다.「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의 저서는 제1부 땀흘린 흔적, 제2부 특수목장의 목회, 제3부 미국 초원에 뿌려진 씨앗, 제4부 목회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한흑교류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교회

임동선목사는 항상 소수민족인 한인들은 더불어 사는 타 소수민족과 신앙을 통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미국 안에서 같은 소수민족으로서 인종차별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흑인사회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며 먼저 사랑을 실천했다. 동양선교교회는

1984년 처음으로 흑인커뮤니티와 사랑의 가교 역할을 맡는 공동예배 행사를 시작했다. 이해 4월 13일 온성도는 흑인목회자를 교회로 초청, 만찬을 베풀며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다. 또한 6월20일에는 중등부(부장 백영두장로) 학생 30여명과 교사들이 흑인지역 양로원을 방문해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한흑교류는 동양선교교회가 처음 시작했다

1985년 1월10일 리틀자이언교회 성가대원 70명을 초청,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흑 커뮤니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 했다.

1985년 흑인 TV 방송국을 위해 1천달러 지원했고 1986년 6월9일 「한흑 커뮤니티 지도자 회의」를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했다. 1987년 2월15일 「흑인역사의 달」을 정하고 탐 브래들리 LA시장을 초청해서 한흑 예배를 공동으로 드렸다. 한흑 두 커뮤니티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차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류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기적인 한흑 합동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했다.

같은 소수민족으로 흑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사랑운동을 아름답게 펴나갔다

브래들리시장은 예배를 마친 뒤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는 것은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각 소수민족 인종간의 이해를 넓히는데 동양선교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1991년 11월3일 다시 주일예배 때 한흑친선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리틀자이언침례교회 피셔 담임목사가 설교를 했고 흑인교회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두 소수민족간의 이해가 더욱 두터워 졌다. 마빈 다이말리 미하원 국회의 아프리카 지역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동양선교교회는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양선교교회는 1992년 4월29일 LA폭동의 큰 상처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흑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해마다 한흑합동예배와 세미나를 한 차례씩 개최하면서 흑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사랑 운동을 아름답게 펴나갔다.

제3대 담임목사에 박광철목사 취임

1993년 1월3일 첫 주일부터 전교인의 기도 제목은 담임목사의 청빙이었다. 주일 대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고 새벽예배, 주일저녁예배, 금요저녁예배 때의 기도제목은 새 당회장을 빨리 보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동양선교교회 교역자와 제직, 전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3대 담임목사로 박광철목사를 보내 주셨다. 청빙위원회는 1993년 창립 23주년 예배후 서울 신길성결교회 담임목사인 박광철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추천하고 당회와 공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1년의 청빙과정과 온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었다.



박광철 담임목사 취임예배 후 교역자 및 시무장로

"선교 교육 봉사사역의 결실, 이민교회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사역에 힘쓸 것" 박광철목사의 인사

임동선원로목사는 1993년 11월28일 주일 대예배 때 「새 지도자를 돕는 자세」(수 1:16~18)라는 제목으로 새로 오는 박광철목사를 위해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이 "단결과 순종, 기도, 격려, 희생으로 돕자"고 설교를 했다. 그리고 "박광철목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 경험이 있고 설교를 잘하며 앞으로 동양선교교회의 교육을 책임질 좋은 담임목사"로 이번에 청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광철 새 담임목사는 "임동선목사가 지난 23년간 이룬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에 더욱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며 이민교회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사역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1993년 12월26일 주일 오후 4시 박광철목사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박광철목사는 연세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할렐루야 교회 설교 담당목사와 서울신학대학 및 대학원 강사및 전임교수를 지냈다. 서울 신길성결교회 담임때와 그후 박광철목사는 저서로 「이렇게 선교하자」, 「부끄러운 A학점 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달리는 큐티」등 2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펴냈다.

제11장
러시아 중국 북한을 위한 선교사역

- 모스크바에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 사랑으로 꿈을 심어주는 소망부
- 창립 24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준경찰서 설립 기금 10만달러 전달
-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 「예수꾼 만들기」 성인 성경공부
- 창립 25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논산훈련소 장병 4천명에 진중 세례
- 창립 26주년 기념성회 및 임직예배
- 북한 동포 옥수수 보내기 헌금
- 이민교회 최대 도서관으로 발전
- 창립 27주년 기념성회 및 임직예배
- 창립 28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 21세기 선교의 주역 러시아
- 중국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
-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북한 선교
- 창립 29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월드미션대학, 개교 10주년 맞아
- 성전 개축 99년 말씀의 큰 잔치
- 당회장 청빙을 위한 간절한 기도
- 더욱 새로와지는 청년목회 비전
- 한국의 날 행사 통해 뿌리교육
- 사랑의 종소리, 핸드벨콰이어
-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미래와 꿈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영신예배때 설교하는 박광철목사

1993년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때 송구예배는 임동선원로목사가 설교를 맡았고, 영신예배는 박광철담임목사가 희망의 설교를 했다. 가는 해와 오는 해를 원로목사와 담임목사가 함께 맞고 보내는 아름다움을 온성도에게 보여 주었다.

1994년 신년 목회 표어를 「새로와지는 해」(고후 5:17)로 정하고 새 담임목사와 전교인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더욱 새로와지는 동양선교교회가 되기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박광철목사는 1994년 1월1일 주일 대예배에 「계속 달려라」(빌 3:13~16)라는 제목으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해맞이 첫 설교를 했다.

"신앙은 출발을 잘해야 하고 바르게 달려야 하고 골인을 잘 해야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경주장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잘 출발을 해야 하고 바르게 달려야 하며, 또 잘 골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경주자로서 바른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합니다(13절). 결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14절). 우리의 경우에는 골인점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 푯대가 분명할 때 달리는 수고에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15절).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되어야 하며, 마지막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계속 달리십시오(16절). 생명있는 존재는 삶을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달려 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으십시다."

박광철목사는 새벽기도회 설교를 통해서 전교인이 신앙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강조했다. 교구지도자 수련회를 통해 각 구역별로 성경을 공부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인이 될 것을 기원했다.

1994년 2월27일 교구 지도자 헌신예배를 드렸다. 조영일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헌신예배는 오정현목


성령이 함께 한 제직 수련회 (수양관에서)

사(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가 초청강사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대하 14:2~13)라는 제목으로 축복과 은혜의 설교를 했다. 박광철목사는 교구지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한동열집사는 성공적인 구역장의 사례를 발표했다. 1994년 4월10일 주일예배 후 1993년도 전도상 수상자와 신구약 성경쓰기 완료자를 위한 시상을 했다.

1등: 임금화권사 (13명 인도, 9명 출석)
2등: 한경수집사 (11명 인도, 7명 출석)
3등: 오광찬장로 (9명 인도, 6명 출석)
4등: 김기숙전도사 (9명 인도, 4명 출석)
5등: 안천혜자집사 (6명 인도, 6명 출석)
6등: 한동열집사 (6명 인도, 5명 출석)

러시아 출신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직업교육과 사회봉사를 선교사역으로 정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쓰기를 끝낸 함정희전도사, 전의웅집사, 민금주집사, 김옥저권사, 장례옥권사, 양승달집사, 양승렬집사, 오영희권사를 표창했다.

모스크바에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당회는 1992년 4월 임동선목사의 모스크바 부활절 새벽설교이후 러시아 선교를 위해 1993년 4월 1일 모스크바 동양선교교회를 설립하고 이범웅선교사를 임명했다. 6월 27일 러시아 빠르잔스크 지교회를 세웠고 담임목사에 윤치원목사를 파송했다. 이에앞서 1992년 9월 27일 월드미션대학교 모스크바 분교 설립 개교예배를 드렸다.

1994년 2월14일 조갑수목사와 조화진사모를 러시아선교사로 파송했다. 조갑수선교사는 모스크바에 설립된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목회와 월드미션대학교 분교 책임을 맡도록 했다. 선교부는 이에앞서 2월6일 조갑수목사 러시아 선교사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명삼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파송예배에서 조갑수목사는 「러시아를 향한 선교적 사명」(마 28:16~22)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5명의 러시아에서 온 신학생들이 간증 및 특별 찬양순서를 맡아서 더욱 예배를 빛냈다.


모스크바에 세워진 월드미선대학 관계자들

임동선원로목사는 4월7일~19일 이태리 밀라노 지교회 성가대 30명과 함께 방문, 러시아선교 집회를 인도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선교여행을 다녀온 임동선목사는 1994년 4월24일 주일 대예배 및 저녁

예배 중 러시아 선교 보고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주일 낮 예배에 「지상명령인 선교」(마 9:35~38)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저녁예배 때는 「선교사의 바른 자세」(행 1:6~8)로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동양선교교회가 러시아선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을 다짐했다.

러시아 선교의 불꽃이 피어나게 선교사들이 헌신적 사역을 담당했다

선교부는 러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 7가지 목표를 세웠다.

1. 목회자 양성
2. 교회 개척
3. 목회자 연장 교육
4. 주일학교 교사 훈련
5. 평신도 성경공부
6. 청소년 목회 개발
7. 직업교육 및 지역사회 봉사

1994년 5월1일 레닌그라드 4중주단이 동양선교교회를 방문, 선교를 위한 음악예배를 함께드렸다. 나사렛 청년회는 7월 23일~8월7일 노창수목사의 인도로 로마와 독일, 단기선교를 은혜중에 다녀왔고 9월1일~15일 디모데선교회는 강선자전도사 인솔로 12명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다. 1994년은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해이다.

러시아 초대 선교사 조갑수목사는 현지 선교사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은혜속에 마친 레닌그라드 4중주단 초청예배

"러시아는 현대선교의 가장 붐비는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지난 70년간 공산치하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온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의 진통 속에서 러시아 교회를 단련시켜 새로운 복음을 위하여 작은 불꽃을 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한인선교사의 교회가 약 50개 정도 있으며, 신학교도 6개나 됩니다. 러시아 선교의 현장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언제 선교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 러시아 선교소식, 1995년)

사랑으로 꿈을 심어주는 소망부


소망부학생들의 율동시간

초창기부터 성인호부장이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매주일 헌신적으로 소망부 교육을 담당했다. 성기윤장로 성인호부장 부부의 수고와 교육부 그리고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믿음으로 소망부는 더욱 희망에 찬 부서로 성장했다. 장정숙, 이은미, 성혜용, 성은용이 희생적인 봉사를 담당해왔다.

헌신적 봉사자가 많은 소망부는 더욱 희망에 찬 부서로 성장해 왔다

학생들은 매주일 20분동안 신나는 복음성가와 씩씩한 율동으로 부흥회처럼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찼다. 소망부는 해마다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평소의 재능과 기량을 전교인 앞에서 맘껏 펴보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으로 항상 큰 감동을 주었다.

소망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성원, 최춘애가 희생적으로 사역을 도왔다. 소망부 사업으로는 1년에 한 두차례 야외 예배 및 생일 축하회, 기술지도, 병자 가정 방문, 성경공부 등을 했고, 항상 교육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자」로 정했다. 1988년 이중용목사가 지도목사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는 김민구 전도사, 황은미전도사가 소망부의 사역을 맡아왔다. 그리고 1993년은 성기윤장로, 1996년 임진수장로, 1997년 백형권 장로, 1998년 백윤조장로가 소망부 부장의 책임을 잘 맡아 왔다.


소망부 학생과 전도사, 부장장로 교사

소망부는 주일예배를 통하여

1.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확신
2. 예수님 안에서의 자아 존중과 은사 발견
3. 찬양과 율동을 통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
4. 시청각 교육을 통한 반복교육 및
5. 기도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 등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소망부학생은 연령은 10대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며 매주일 출석인원은 30명정도이다. 2000년에는 스티브임장로가 소망부 부장으로 그리고 전담 사역자는 한희숙전도사이며 채홍인안수집사가 9년째 차장으로 헌신적인 수고를 하고 있다. 윤혜경, 정현숙, 전미화, 강명수, 김도연, 변정려선생이 소망부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원철, 제임스 권 교사 등이 크게 봉사를 해왔다.

한희숙전도사는 "교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기도로 항상 후원하고 있으며 장로님과 집사님, 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 할 뿐이다. 앞으로 더 넓은 교실을 갖게 되면 남가주 한인교회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채홍인집사는 "더 많은 교사들이 오면 학생을 1대1로 지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 밑에서 소망부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장애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형, 교사 모두에게 감사를 했다.

▲성기윤원로장로

"정신지체아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 1978년 정박아 자녀들을 위해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부모회를 조직했고 1980년 동양선교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처음 특수부를 만들었다.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많았다. 학생은 25명으로 늘어났고 성인호권사가 초창기부터 수고를 많이했다. 후에는 정신지체아의 노후를 위한 Family Home을 만들고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장애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부의 간절한 기도

창립 24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1994년 7월28일~30일 장영춘목사(뉴욕 퀸즈 장로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성령과 은혜가운데 개최했다. 장영춘목사는 7월28일 저녁예배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창 12:1~9)이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 설교를 했다. 7월 29일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행 1:1~14), 7월 31일 주일예배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17~32) 제목으로 창립 24주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설교를 했다. 초청강사 장영춘목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과 눈물로 시험과 고난을 참으며 오직 주를 위해 충성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7월 31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임직예배를 드렸다. 전길성목사 사회로 진행된 임직예배는 김재권장로의 기도와 장영춘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시 122: 1-9)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했다. 이날 박광철담임목사는 안수집사, 권사, 교우의 서약을 받았고 임동선원로목사, 박광철목사, 이기홍목사, 허경삼목사가 안수예식을 집례했다. 새 임직자들은 하나님앞에 더욱 충성을 다짐했다. 안수예식후에는 교육관 2층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새 안수집사 및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신임: 한경수, 홍동성, 김종준, 김동원, 김강일, 임승표, 송성훈
▲권사 취임: 정옥희, 박경선, 김성모, 김인곤, 황금수, 서순옥, 이명순, 양은숙, 김숙자, 박영자

준경찰서 설립기금 10만달러 전달



1994년 9월 실시된 선교부의 경찰서 기금모금 바자회 모습

온 성도들이 한인타운의 방범 및 봉사활동에 나섰다. 코리아타운 숙원사업인 준경찰서 건립 모금 캠페인에 온 성도가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994년 9월25일 특별헌금 시간을 통해 8만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그리고 10월 28일, 29일 양일간 모금을 위한 특별바자회를 열어 2만달러를 모금하는 등 총 10만달러 기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주차장에서 열린 코리아타운 준경찰서 설립 모금바자회에는 존 페라로 LA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경찰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 한인사회와 경찰 그리고 LA시와의 관계를 깊게 했다. 바자회는 총무부(부장 백영두장로)와 봉사부(부장 노수정장로)가 앞장을 섰고 각 여선교부가 힘을 합쳐 주최했다.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제직이 함께 노력했다

동양선교교회가 준경찰서 건립기금 10만달러의 기금을 모아 전달한 것은 이민교회로서 처음있는 일이다. 내적인 교회 봉사의 폭을 커뮤니티로 넓힌다는 뜻으로 임동선원로목사와 온 교회 부서가 모금활동에 적극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임동선목사는 창립때부터 「일하는 이민교회, 봉사하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랐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앞장을 섰다.

1970년 교회 창립이후 동양선교교회는 국내 및 국외 구호를 위해 모두 1천5백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미주 이민교회로는 동양선교교회가 가장 많이 한 것이다. (2001년 목회자 및 사모세미나, 이민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임동선 목사 발표 2001. 4. 30)

동양선교교회는 다양한 구조 및 봉사활동을 펴왔다.

1. 상담.
2. 무료의료사업
3. 생활지도 (법률, 세금, 마약, 가정등 이민 생활안내 세미나)
4. 직장알선
5. 구제사업 (쌀과 돈)
6. 사회교육 자선단체지원 (흑인장학생, 한글학교)
7. 이재민구호사업 (국내, 국외)
8. 극빈자 구호품 지급 (밀가루, 치즈, 설탕)
9. 적십자사 헌혈장소 제공
10. 각종 사회단체 집합 장소 제공

앞으로 봉사사역은 전문적인 기관을 도와주고 그 기관이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사회

는 신앙의 상담이 필요하고 특별히 저소득층, 노인층 지원을 위한 봉사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구별 성경암송 및 찬양대회

1994년 6월5일과 12일에 열린 개인 및 교구별 성경암송대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교우들이 참가, 성경암송을 통한 영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운 뜻 깊은 행사였다.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한 이날 행사는 참가한 교우들은 물론 이 행사를 보는 성도들에게 시종일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22명이 출전한 개인전에는 어린이 선수 홍활아가 성인선수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1등을 차지 박수갈채를 받았다. 12개 교구가 출전한 교구대항전에서는 갖가지 형태의 암송방법이 소개되어 흥미진진한 시간을 맛보기도 했다. 교구전에서는 모녀가 출전한 12교구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특유의 복장 아름다운 율동 등 교구 찬양대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다

1994년도 교구 찬양대회는 13개 교구가 참석한 가운데 5월15일 저녁예배 시간에 은혜와 축복속에 열렸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교구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교구찬양대회는 각 교구별로 특색있는 연출을 통해 온 교우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다. 특유의 복장, 아름다운 율동, 「미니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된 열의, 청중석까지 연결된 연출, 어린 아이까지 총동원되어 교구의 단합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다. 대회 수상팀은 1등(믿음상): 벤네스 1교구, 2등(소망상): 글렌데일 교구, 3등(사랑상): 밸리교구, 화평상: 라크라센터 교구가 차지했다.



교구찬양대회는 특색있는 연출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다

새 가족 화요 성경공부반

1994년은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의 새 바람이 불었다. 말씀을 바르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세우려는 「화요 성경공부」가 교회의 화제였다. 화요 성경공부반은 새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신 구주되심"을 바르게 깨칠 수 있도록 기독교의 기본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8주간 코스로 진행되었다.

화요 성경공부반은 1기를 거쳐 2기를 맞으면서 수강생 구성에 이변이 생겨났다. 새가족 화

요 성경공부반 에 기성교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시무장로와 안수집사들, 그리고 많은 제직들이 출석을 해서 수강생 160명 가운데 100명이 새 교우가 아닌 오래된 교인이었다. 신앙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토록 말씀을 사모했던가 싶을 정도로 성도들은 성경공부에 열심이었다. 특별히 말씀 신앙의 불길은 박광철 새 담임목사가 취임한 후 조용하면서도 크게 일어났다. 지난 날 관습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하던 소수의 고정인원이 주류였던 것과는 달리 담임목사가 성경공부를 지도하면서부터 말씀의 뜨거움이 본당에 가득찼다. 공부가 끝나는 시간에는 성도들의 아쉬워하는 표정과 말씀의 기쁨에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 저기서 보였다.

그토록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했을까 싶을 정도로 새 가족은 성경공부에 열심이었다

강해설교를 잘하는 박광철목사는 주일예배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특별히 교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성도들은 성경공부에 더욱 열심이었고 그 시작은 새 가족 성경공부 때에 나타났다. 전교인은 주일 강해설교와 금요성경공부로 인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더욱 열심이었다.



화요 성경공부수료식. 새 교인과 오래된 교인이 열심히 공부했다

성경 강의와 상락회를 지도

이천영원로목사는 1993년 월드미션신학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동양선교교회와 특히 월드미션대학을 위하여 헌신을 제대로 못한채 이렇게 영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었다. 고작 밸리, 유타, 알라스카에 지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 파송되어 양들을 보살핀 것이 전부이다"라면서 이천영목사는 감격스러워 했다.

이천영목사는 성경 강의, 상락회 지도, 주일 및 저녁예배 때 설교를 맡아 왔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에는 교인들에게 현지 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 이천영목사는 「성결교회사」를 썼고, 미국에 와서는 「이스라엘 순례기」를 책으로 펴냈다.

이천영원로목사는 20여년간 협동 및 원로목사로 동양선교교회 성장을 위해 조용하면서도 열심히 도왔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목회자였다. Peace Maker인 이천영목사는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존경을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이천영원로목



1990년 이천영원로목사(왼쪽)가 이병희담임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사에 대해 항상 선배 목사로서의 예우를 다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다. 1994년 11월 4일 이천영원로목사는 향년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양선교교회는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거행하고 할리웃 포레스트 론에 안장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임동선원로목사는 박광철 새 담임목사가 취임한 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다녔다. 임동선목사는 러시아 선교 집회를 다녀 온 뒤 강단에 서서 「지상 명령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국에 보내신 것은 직접 간접으로 적극 선교하라 하심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것은 직접 간접으로 선교하라"는 것이라고 러시아선교를 다녀오신 임동선목사는 강조했다

1994년 임동선원로목사가 선교여행을 다녀온 일정이다.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2월11일~13일
▲유럽 4개국 순회 집회 인도: 2월13일~3월21일
▲러시아 선교집회(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지역)인도: 4월7일~19일
▲오레곤지역 연합제직 세미나: 5월15일~17일
▲샌안토니오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 5월19일~22일
▲한국 농어촌교회 부흥집회 인도: 7월3일~26일
▲유타 로간 동양선교교회 부흥회 인도: 10월1일~3일
▲시카고 지구촌교회 부흥집회 인도: 10월14일~17일
▲뉴욕 동양선교교회 교회당 구입 기념부흥성회 인도: 11월19일~21일

불같은 시련을 이겨라

박광철목사는 매주일 강해 설교를 통해서 크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교육 사역에 큰 비중을 두면서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해나갔다. 처음 1년간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한 교인이 돼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다. 박광철담임목사는 1995년 2월 5일 주일예배때 「불같은 시련을 이겨라」(벧전 4:12-1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이민성도에게 큰 용기와 신앙을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무력함과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되고 문제없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의 상황은 그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요, 더 험한 길을 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생의 복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4:12) 공산권이나 반기독교 국가의 성도들은 특히 더 심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실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13)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장차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즐거워 할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4:15)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여 시련을 당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간섭도 불필요한 시련을 초래합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는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4:16)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용감하게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4:17-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모두 순전히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요 더 험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4:19)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꾼 만들기」 성인 성경공부

1995년 목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자」로 정했다. 그리고 전교인들을 위해 성경공부 시간을 더욱 늘여 나갔다. 성인교육부는 「예수꾼 만들기」 성경공부 시간을 새로 만들었다. 「예수꾼 만들기」는 성인교육부의 연령별 성경공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회보를 발행하고 매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장년과 청년을 위한 성인 성경공부반을 개설했다. 「예수꾼 만들기」라는 교재를 통해 인도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즐거움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성육신 정신을 본받아 온전한 체질개선을 이루어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양을 닮는 예수꾼이 되기 위한 적응을 강조"하는 토론식 소그룹의 교육이 「예수꾼 만들기」 성경공부이다.

1995년 1월2일부터 14일까지 박광철목사는 신년 축복 새벽성회를 인도했다. 그리고 새 가족 성경공부를 마친 성도와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해 1월10일부터 제1기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을 시작했다. 4주코스로 진행된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은

▲토요일 (오전 6:30~8:30) 강사 전길성목사
▲목요일 (오후 7:30~9:30) 강사 김명삼목사
▲화요일 (오후 7:30~9:30) 강사 강일준목사
▲화요일 (오후 7:30~9:30) 강사 허 번목사
▲화요일 (오후 7:30~9:30) 강사 이청근목사가 담당했다.

특별히 1995년은 은혜가운데 성경공부의 붐을 일으킨 한해였다. 전교인 모두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다. 소그룹 성서연구교재인 「말씀과 만남」을 사용했고 이야기식 방법을 통해서 성경공부의 꽃이 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만나면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 사다리식 성경공부였다. 그후 성경공부과정은 「예수꾼 만들기」로 바꾸었다. 교회전체를 하나의 교육이념으로 만들자는 뜻과 예수꾼으로 만들자는 바람이 구역예배로 번졌다. 「말씀과 만남」을 구역예배 교재로 채택해서 교육이념이 통일되었고 오늘도 구역예배 교재로 쓰고 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양을 닮는 예수꾼이 되기 위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1995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Book Corner(교회서점)를 오픈했다. 서점 취급품은 기독교 신간 서적, 성경, 찬송, 설교 테이프 등으로 매주일 본당 뒷편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문을 열었다. 모든 기독교 서적들은 성도들을 위해 염가로 판매를 했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했다.



1995년 교회안에 처음으로 서점이 문을 열고 신간서적을 판매했다

박광철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1995년 1월 첫주 주보부터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게재하지 않았다. 각종 헌금 총액만을 주보에 실었고 헌금의 확인이 필요한 성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를 하게 했다.

구역장과 담임목사의 만남

박광철담임목사는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쉬운 예화를 들어가며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다. 아울러 성경을 통해 전교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도록 교육을 해나갔다. 특별히 강해설교를 통해서 온교인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목회자 칼럼을 매주일 주보에 게재했다. 목회자 칼럼은 세상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재미있게 써서 성도들이 주일설교 요약처럼 가

볍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9월10일자 주보에 실린 박광철목사의 「국회의원의 걸음걸이」라는 제목의 목회자 칼럼 내용이다.

> "어떤 기업인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걷는 모습까지 달라졌다고 한다. 과거에 사업 때문에 뛰던 때와는 달리 이제 중요한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또 학생들이 진학하여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면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일본 황태자비가 된 사람은 이제 왕족으로서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엄청난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빌립보 1: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한다.
>
>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몇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며, 자신을 모두 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이웃과 관계가 깨끗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생활에 노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한 생활일 것이다.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살자!"

「말씀과 만남」이라는 성서연구교재를 갖고 구역예배 때 공부하기 시작했다

박광철목사는 「구역장과 담임목사의 만남」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주 금요예배 후 당회원실에서 각 교구의 구역장을 만나서 교회생활, 성경공부, 새신자 안내 등으로 부터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1996년 1월2일부터 2월10일까지 주님과 만나는 40일 새벽 경건회를 가졌다. 매일 새벽 5시 30분~6시 박광철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교인이 되도록 인도했다. 방송부는 TV방송을 통해서 박광철 담임목사의 설교를 매주 주일 오전 6시30분~7시 채널 18을 통해서 방송을 했다. 그리고 채널 37을 통한 케이블 TV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8시 30분 박광철목사의 주일 설교를 남가주 지역에 방영했다.

2월23일~25일 하용조목사(서울 온누리교회 담임)를 초청, 제직수련회와 제직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창립 25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흥사경회 준비기도회를 7월17일~27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가졌다. 박광철목사가 인도한 기념 부흥사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동양선교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온 성도는 기념 부흥성회와 임직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6월26일과 27일에는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선교대회를 남가주 교계인사와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에서 열었다. 선교대회에서 Dr. Peter Beyerhaus(독일 튀빙겐 신학대학원 교수), Dr. Dean Gilliland(풀러 신학대학원 교수), 임동선원로목사, 박광철담임목사가 특별강사로 발표를 했다.

1995년 7월27일~29일 정근두목사(서울 탄포리교회 담임목사)를 초청, 교회 창립 25주년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초청강사인 정근두목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 9:31) 주제로 새벽 5시와 저녁 7시 예배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1995년 7월30일 창립주일 대예배에는 「향유같이 이슬같이」(시 133:1~3)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향해서 영생을 명하십니다. 각각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이미 영생을 땅위에서 받은 증표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뛰어 넘어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7월30일 오후 3시 창립 25주년 기념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정근두목사는 「사람을 중시한 바나바」 (행 13: 1-1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목사, 박광철목사, 이기홍목사, 조석환목사, 이준만목사, 전길성목사가 안수례를 집례했다. 예배후에는 2층 교육관에서 신임 임직자를 위한 축하의 기념 만찬시간을 가졌다.

▲안수집사 취임: 박명관, 전홍배
▲안수집사 신임: 이충식, 김국한, 함재목, 윤여춘, 김형남,
채희길, 배영하, 한영길, 김두환, 전완수, 박준영, 조일성
▲권사 취임: 배귀례, 양승열, 문은자, 김옥용, 민금주, 문동숙, 문숙희, 김기옥

논산훈련소 장병 4천명에 진중 세례

초대 공군 군종감으로 예편을 한 임동선목사는 대한민국 국군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이름이 났다. 한국에서 60만 국군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을 섰던 임동선목사는 미국에 와서도 한국 군종

목회자들과 특별한 교류를 가졌다. 남가주 군목회 모임의 회장을 맡아 봉사를 한 임동선목사는 한국군의 선교를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 사랑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1995년 4월17일 임동선원로목사는 본국 논산훈련소 장병 4천명을 위한 합동 세례식 미주 인솔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장병 합동세례식 및 군 선교대회 참가, 각 군인교회 순방과 설교, 전방 시찰과 항공도서 선교지를 예방하고 4월30일 LA로 돌아왔다.

임동선목사는 8월13일 주일 예배 때에는「해방 50주년과 희년」(시 126:1~6)이라는 제목으로 온 성도들에게 조국사랑의 말씀을 전했다.

"조국이 통일이 빨리 되도록 함께 간절히 합심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8.15 기념예배에서 임동선목사 설교

> "우리는 오늘 해방 50주년과 50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아직도 북녘 땅에서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며 배고파 신음하는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국은 정치적 자유는 얻었으나, 경제적, 정신적, 영적 해방을 못얻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이 기쁜 해를 맞이하여 진정한 해방과 함께 조국도 통일이 되는 해가 되도록 모두가 간절히 합심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1995년 미국과 한국, 전 세계 지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다.

▲독일 베를린 카이져슬러튼 집회 인도: 7월2일~10일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 및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10월10일~15일
▲캐나다 토론토교회 부흥성회: 10월25일~29일
▲남미지역교회 선교지 방문: 12월10일~15일

중 고등부 및 대학생 단기 선교여행


청소년부 학생들이 선교지에 보낼 사랑의 선물을 싣고 있다

청소년부 학생과 교사 등 15명은 1998년 7월8일~22일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찰스김 청소년부 전도사의 인솔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로스 알카리오스 작은 마을에서 다른 미국 학생팀과 함께 건물을 짓는 봉사를 맡아서 했다. 저녁 시간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와 율동을 통해 지도하고 연극,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한국어 중등부 학생 등 12명은 8월23일~24일 1박 2일 일정으로 멕시코 엔세나다에, 그리고 한국어 고등부학생들도 8월20일~26일 엔세나다에서 여름 선교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8월26일 주일 오후 4시에 중고등부 선교 보고 및 헌신예배를 드렸다. 김중배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선교보고 헌신예배는 찰스김전도사가 「성공한 젊은이와 실패한 젊은이」(눅 18:18~30)라는 제목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젊은이가 될 것을 설교했다.

1996년 선교부는 러시아선교에 이어 통일을 대비한 북한선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에 조원하 선교사와 김영희선교사 파송지원을 했다. 중국 목단강 평안교회 김영희전도사는 1996년 4월14일 다음과 같은 현지의 사정을 알리는 선교편지를 보내왔다. (선교부 발행. 땅끝까지, 1996년 4월 14일)


김영희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 "1995년 7월, 흑룡강성 정부에서 기독교 지도자 일꾼을 모집했는데 목단강에서 저를 추천해 주어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 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9월에는 평안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선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일 할 수있게 된데다가 교회를 대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작은 교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현지 지도자 양성과 일꾼들을 돕기위해 적지않은 지원이 필요한데 동양선교교회가 중국 14억 영혼들을 위해 더욱 힘쓰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14억 영혼을 위해 동양선교교회가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창립 26주년 기념성회 및 임직예배

199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홍정길목사(남서울 은혜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 3일동안 창립 26주념기념 부흥성회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초청강사 홍정길목사는 7월28일 주일 대예배 때 「안디옥교회」(행 11:19~30, 13:1~3)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한 창립기념 예배였다. 오후 3시 창립 26주년 기념 원로장로 추대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강일준목사 사회로 진행된 임직예배는 홍정길목사가 「사명」(행 11: 19-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임동선원로목사가 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을, 윤기성목사가 교회에게 주는 권면을 했다. 그리고 안수훈 나성성결교회 원로목사가 축사를 했다.



성기윤 조영근 김광락장로의 원로장로 추대

특별히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봉사를 해온 성기윤장로, 조영근장로, 김광락장로가 교회 헌법에 따라 원로장로

로 추대되었다. 임직예배후에는 온 교우들이 교육관 2층에서 기념만찬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했다. 그리고 새 임직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스런 봉사를 다짐했다. 새 임직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로장로 추대: 성기윤, 조영근, 김광락
▲안수집사 신임: 김래현, 박정언, 신부남,
오재선, 최헌진, 한춘석
▲권사 취임: 김영선, 김정주, 문태정, 송정님, 유영애, 임정자,
정효숙, 조순자, 한금자, 홍명주

"선교사의 생활은
육체적 희생
경제적 희생
생명의 희생이
전부입니다"

임동선목사,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 방문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임동선원로목사는 1996년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임동선목사는 8월9일~16일 홍성호 홍현숙선교사가 성경 번역 및 원주민 교사훈련 사역을 맡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방문을 다녀왔다. 그리고 1996년 9월1일 「선교사의 희생적 생활」(롬 10:13~15, 요 12:24)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선교보고를 겸한 주일설교를 했다.


홍성호선교사가 원주민 봉사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나와 4명은 1996년 8월9일 LA를 떠나 우리 교회가 파송한 홍성호선교사 내외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아 섬을 다녀서 8월26일 돌아왔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주신 돈으로 홍선교사가 원하는 배 한척을 사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본 선교사의 생활은 참으로 희생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희생입니다. 옷은 단벌 옷에 먹는 것은 과일과 생선, 집은 원두막집, 우물은 없고 빗물로 대용합니다.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피부가 검게 타서 원색 복구에는 약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희생입니다. 홍선교사 내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우수한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한 후 미국 큰 회사에 취직하여 두 사람이 한달에 1만달러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경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부와 계약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파푸아 뉴기니아로 떠났습니

다. 그곳에 가서 우리교회가 보내는 1천5백달러로 20세기의 최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생명의 희생입니다. 질병과 독사와 강도가 많이 있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예측할 수 없어 항상 긴장과 기도와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식인종도 있고, 얼마전에도 미국 선교사 부인이 윤간을 당하고 미국선교사가 도끼에 목이 찔려 순교했습니다.

결론: 그런즉 저희가 믿지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롬 10:14~15)

1996년 임동선원로목사가 선교를 다녀 온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유타 동양선교교회 창립 8주년 기념부흥회 및 임직 예배인도: 3월21일~24일
▲중부 동양선교교회 창립기념 부흥성회 인도: 3월28일~31일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창립1주년 기념부흥성회 인도: 6월7일~10일
▲제3차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7월22일~25일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창립7주년 기념예배 인도: 12월1일

교회 아픔 치유에 눈물로 합심기도

1995년부터 교회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광철목사가 취임후 1년이 지났을 때 일부에서 담임목사의 지도력 등을 지적했다. 담임목사에 대한 일부 비난이 있자 1995년 12월 17일 공동총회때 처음으로 위임을 묻는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박광철목사는 담임목사로서 다시 신임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더 어려워졌고 1996년 12월 15일 공동회의는 2번째로 담임목사에 대한 사임찬반 투표와 시무장로 신임투표를 함께 실시했다. 투표 결과 담임목사의 사임투표는 부결이 되었다. 이날 공동회의때 시무장로의 신임투표를 실시 반대 발언을 했던 장로와 5인장로는 2/3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시무장로에서 해임된 장로는 교회내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인장로는 1997년 1월 15일 ①장로 복귀 ②가처분 신청 (재산처분 금지, 교회직원 퇴직금지, 헌법위반하의 공동회의 무효) ③확정금지 신청 (복귀, 12월 15일 공동회의 이후의 회의 무효판결)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인장로 소송보고서, 1997년 9월 21일 임시공동회의)

"공동회의에서는 장로의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 당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를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절차와 교회헌법을 들어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회는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을 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세계복음선교연합회(총회장 강두호목사)가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인장로는 5개월 후인 1997년 6월

27일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원회는 1997년 10월 1일 교회법 98조에 의거 5인장로를 출교(제적)조처를 했다. 그 후 세명의 안수집사도 출교되었다. (주보 1424호, 1997년 10월 12일) 제직은 출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해당 장로 및 집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출교되었던 장로와 집사는 모두 복권이 되었고 시무장로, 사역장로 및 안수집사로서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아픔은 이민교회의 아픔이었고, 시련과 위축의 시간이 되었다.전교인은 교회가 고통중에 있자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합심기도를 드렸다. 두차례의 담임목사 문제로 고통과 시련이 컸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온성도는 빠르게 이를 치유해나가면서 이민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해나갔다.

북한 동포 옥수수 보내기 헌금

1997년 북한 지원 및 선교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했고 특별히 한국의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조용히 의약품 등 북한지원에 나섰다. 북한선교와 주민 돕기를 위해 온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북한을 위해서는 구호와 선교의 두 사역을 동시에 펴나갔다. 선교부는 1997년 2월23일 주일 저녁 예배 때 북한선교를 위한 간증예배를 드렸다. 정우송목사 사회로 진행된 북한선교 간증예배에 박세록장로(산부인과 의사, UC Davis 의과대학교수)를 강사로 초청,「하늘에 소망을 둔 북한 선교」(롬 15:13)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다. 박세록장로는 1989년 북한 의료선교를 처음 시작했고 평양 제3병원을 개원하는 등 북한 의료선교에 앞장을 서왔다.

북한돕기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다

1997년 4월27일 주일예배때 북한동포돕기 긴급식량 옥수수 보내기 특별헌금을 드렸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LA본부는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선교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또한 8월17일 주일 예배에는 유용석장로(기독윤리실천위원회 실무책임자)를 초청, 북한 실정 및 선교 보고회를 가졌다. 박형준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북한선교 보고에서 유용석장로는「내가 주릴 때에」(약 1:2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전교인들이 북한돕기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다.

이민교회 최대 도서관으로 발전

동양선교교회 도서관은 이민교회 도서관으로 그 역사가 깊다. 처음 교회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위원(박천흠, 조영근)을 임명한 것은 1973년 12월16일이었다. 당시 출석교인은 모두 400명이었고 이때부터 교회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갖고 기도로 준비를 해왔다. 임동선목사는

「공부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내에 좋은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항상 독서를 하는 목회자로서 교회 도서관 설치를 어느 목회자보다도 선구적으로 준비했다.

초대 도서관장 최만삼집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도서목록은 성경부터 시작이 된다. 어떤 책일지라도 성경을 대신하는 책은 없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잠 13:20)고 했다. 앞으로 교회의 자료센터로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면서 참으로 의욕적으로 봉사했다.

1986년 정중섭장로가 새 도서관장이 되었다. 1988년 1월에는 김진호집사가 도서헌금 1만달러를 냈다. 이때 도서관 보유 장서는 17,000권으로 늘어났고 월드미션대학이 설립되면서 3만권의 장서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임동선목사와 당회원들이 도서관 개관 예배 테이프를 끊고 있다

1989년 1월 에스더 여선교회는 도서구입 바자회를 열어 모아진 돈을 도서구입에 썼고 임동선목사는 15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3월1일 도서부 담당 전도사로 임삼용전도사를 임명했고, 이 해에만 모두 8,900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장서는 모두 21,000권으로 늘어났다. 1990년 7월 도서부는 제1회 신앙 서적 독후감을 공모했고, 1992년 1월 독서클럽을 조직했다. 1992년 열람자수는 성인 4,336명, 아동 2,224명이었고 열람도서는 성인이 3,126권, 아동이 1,285권으로 책을 사랑하는 성도가 계속 늘었다. 1992년 4월5일 제2교육관 옆으로 도서관을 확장했고 개관예배를 드렸다.

1997년 8월부터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한글과 영어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동양선교교회 도서관은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4만권의 장서와 300개의 마이크로필름이 있다. 시사 잡지 및 신문 등이 40종 구비되어 있으며 600개의 설교 비디오 테이프까지 갖춘 미주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도서관으로 발전했다. 소장자료의 절반은 컴퓨터화 했고 계속해서 자동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용자 수는 한달에 970명이며 1년에는 1만 2천명이나 된다. 신학생과 교인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용하러 온다. 한국의 신학대학 신학석사,박사 학위 논문을 다 CD-Rom에 수록작업을 하고 있다.

크리스찬의 도서목록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을 대신하는 책은 없다

교회 도서관이 빨리 성장한 이유는 첫째는 임동선목사의 큰 관심과 지원, 둘째는 역대 도서관장들의 헌신, 셋째는 신학교와 함께 도서관을 사용하는 것, 넷째는 교인들의 이용 및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중섭장로(전 도서관장)는 "동양선교교회 도서관은 전미주에서 종교서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월드미션대학원과 함께 사용을 할 만치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이나 규격에도

합당하다. 앞으로도 더욱 이름난 도서관, 교계 장서를 가장 많이 가진 도서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 드리고 있다"고 감사해 했다.

새 장학규정 마련하고 장학금 수여

장학금의 종류는 다양했다 신학생 흑인학생 한국학생에게까지 해마다 지급했다

1997년 8월 장학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전문 8조로 된 새 장학규정은 이민교회로서 후세대의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목회사역자와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장학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회를 교육부 산하에 두었고 장학위원장은 교육목사가 맡았다. 당회는 해마다 22만달러의 장학부 예산을 세웠는데, 지도자 양성비로 21만달러를 지출하고 1만달러는 교역자 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일반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 특별히 본국의 대학생과 흑인학생 그리고 미국 경찰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984년 9월9일 3천달러의 장학금을 이승림, 최진기, 김진광, 강형모, 엄애경, 장문자, 노창수, 김수영 등에 전달했다.



임동선원로목사가 경찰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85년 흑인 커뮤니티와의 유대 협력관계를 위해서 5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그레이트 뉴 커뮤니티 침례교회 학생 4명과 캄튼시의 흑인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급했다. 1985년 정식 교회기구로 장학위원회(위원장 김광락)를 조직하고 성적이 좋지만 가정이 어려운 교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다. 1986년 장학위원회(위원장 조인식)는 숫자를 늘려서 모두 18명(김진광, 김희영, 박은혜, 김 광, 김해연, 손경일, 이주현, 김현미, 이승옥, 윤상미, 김양수, 정재연, 김영돈, 한남희, 이정우, 이태종, 노창수, 김수영)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흑인학생에 대한 장학금수여식

1987년 2월 모세 남전도회와 독지가는 부흥집회 강사로 온 김형석교수에게 조국의 불우학생에게 지급하라고 1만 6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0년 7월 OMC 청년장학회는 전재호(UCLA), 최애리(Wheaton College), 이승준(Biola Univ.) 학생에게 2,500달러를 전달했다. 1996년 창립 26주년을 맞아 관할 경찰서인 할리웃 경찰자녀들에게 장학

금을 지급했다.

1998년 장학생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 교역자 장학금: Iren Cho, Edward Yang, John Kim,
정홍준, Jonathan Kim, Shaun Lee

▲ 일반장학금: Mary Park, 김소정

▲ 여상락회 장학금: Giovanni Stewart, David Cha,
Jane Park, Tom Park

▲ 선교장학금: 김윤찬, 엄명웅

1999년 골프선교회와 여상락회에서 장학금을 기탁했는데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 임(Art School), 로이 김(LACC), 김연주(UCI), 현정희(UCSD),
홍미숙(UCLA), 정보배(고등부)
김대준, 박인호, 김정옥, 김학송(이상 월드 미션)

창립 27주년 기념성회 및 임직예배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1997년 7월24일~27일 이지춘목사(산호세 제일침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기념성회를 개최했다. 초청강사인 이지춘목사는 7월 24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 4: 28-30), 25일 「심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빌 4: 4-7), 26일에는 「후회없는 삶을 위한 최상의 인생길」 (딤후 4: 6-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서 온 성도에게 큰 은혜와 축복,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이지춘목사는 7월27일 주일 오후 3시 임직예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해했다. 이날 박광철담임목사는 안수집사와 권사 교우로부터 서약을 받았다. 임동선원로목사는 「임직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했고, 안수훈원로목사(나성성결교회)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을 했다. 윤기성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임직예배의 축사를 맡았다.

임직예배후에는 온 성도가 교육관 2층에서 기념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더욱 충성된 종이 될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함께 감사해 했다. 새로 임직 받은 집사와 권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이세훈, 신동순

▲협동안수집사: 구경훈

▲권사: 임옥분, 이광숙, 김문자, 조민자, 정경혜, 김정희, 김영애, 임경희
▲협동권사: 임순희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도

창립 27주년 기념예배를 은혜속에 마친후 임동선원로목사는 1997년 8월10일 주일 설교에서「거짓 신자와 참 신자」(삿 9:7~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지말아야 합니다. 감람나무가 되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여 해결을 받고, 포도나무가 되어 짓밟혀 터져 피흘리는 자리까지라도 나가서 남을 구원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와 같이 외모와 꽃은 없어도 마음 속에 아름다운 꽃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8월17일 주일예배 때에는「흩어진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약 4:13~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설교에서 "너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희의 계획은 무엇이냐 어떠한 인생관을 가졌느냐"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교회의 아픔 중에도 임동선목사는 세계를 향한 선교 여행을 쉬지 않았다.

"무화과 나무처럼 꽃은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참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1997년 주요선교 여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집회 인도(대구 봉산교회, 공군부대, 창원양곡교회, 서울 성막교회, 서울 창곡교회): 1월3일~20일
▲샌디에고 밀알장로교회(백중필목사) 창립예배 설교: 2월2일
▲세계복음선교교회 허번목사 취임식: 2월13일~16일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부흥회 인도: 3월7일~9일
▲한국 대구서문교회 집회 인도: 3월13일~16일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집회 인도: 4월4일~6일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및 임직식: 5월3일~6일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집회 인도: 5월9일~11일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참석: 유타 동양선교교회 : 5월12일~14일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 참석: 5월21일~30일
▲캐나다 뱅쿠버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 안수식; 6월17일~18일
▲남미지교회 순회 집회: 6월25일~7월13일
▲한국 집회 인도(이천교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실 기공예배, 수원기독초등학교, 삼군통합 계룡대 국군교회 예배 인도): 10월24일~11월 3일

러시아선교사 조갑수목사 기념관 건립


조갑수목사 기념관(후면의 이층건물)이 있는 레잔교회

1994년 2월 13일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조갑수목사는 「선교헤랄드」(1994년 7월호)에 다음과 같은 기고를 했다.

"러시아는 가장 붐비는 선교현장으로 21세기에 선교의 주역을 맞게 된다. 하나님의 제1 선교 바퀴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고, 제2 선교바퀴는 로마를, 제3 선교바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이고 제4 선교바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사역이고 제5 선교바퀴는 제3세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를 복음화 시켜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선교는
21세기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리고 세계선교의
길로 통한다

러시아선교사 조갑수목사는 선교사명을 수행하다 199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안에서 잠들었다. 1998년 5월19일 선교사 조갑수목사 장례예식을 동양선교교회 교회장으로 거행했다.

대광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을 졸업한 조갑수목사는 서울신학대학과 풀러신학 대학원을 졸업했고 장충단성결교회 부목사, 하시엔다성결교회 담임목사, 나성성결교회 부목사, 나성영락교회 교육목사를 맡아왔다. 1986년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로 임명된 조갑수목사는 월드미션대학교 교수와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3년 동양선교교회 러시아선교사로 파송되어 모스크바 선교신학대학원 초대학장으로 사역을 맡아왔다.

1999년 5월8일 조갑수목사 1주기 추도예배를 드렸다. 동양선교교회는 러시아 레잔에 세우는 신학교를 조갑수목사 기념관으로 세우기로 하고 건축헌금을 했다. 모스크바 신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은 신학교로 러시아교계에서 인정하는 신학교가 되었다. 러시아 현지인 선교는 신학교 출신 현지 사역자들이 담당해 가고 있다.

이성은시무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998년 3월9일 동양선교교회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김여근장로는 2000년 1월 22일 소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창립 28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1998년 7월 26일 주일 창립 28주년 기념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렸다. 초청강사 김인중목사(안산동산교회 담임)는 「체험하는 교회」 (행 2: 37-47)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김인중목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 나기를 바란다"는 축복과 감사의 설교를 했다. 이에 앞서 기념 부흥성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뿌리깊은 믿음」 (골 2:7)이라는 주제로 김인중목사를 강사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쳤다. 김인중 부흥강사는 3일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행 1: 1-11), 「성령 충만한 교회」 (행 1: 12-14), 「풍요를 누리며 선교하는 교회」 (말 3: 7-1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1998년 7월 26일 주일 오후 3시 임직예배를 드렸다. 김인중목사는 「큰 은혜가 임하는 교회」 (사도행전 4: 32-27)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임직자와 교회에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정문섭장로의 기도와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은혜중에 마쳤다.

온 성도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 새로 임직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이용훈, 이효성
▲협동안수집사: 윤응섭, 마사웅
▲권사: 김말례, 김춘혜, 이영덕, 이인숙, 이경자
▲협동권사: 김순복

1997년 부임한 홍남표목사는 새 임직자를 교육하는 사역을 큰 사명으로 맡아오고 있다. 특별히 성인교육과 장년교육에 헌신해 왔고 새 임직자를 위한 교육을 오늘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다.

3대 당회장 박광철담임목사 사임

교회가 담임목사 신임 문제로 점점 어려워졌고 남녀선교회는 금식기도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 제목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담임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당회원 제직 교역자들을 위하여」로 정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에 동참해야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각 선교회별로 기도를 드렸다. 1998년 새해 1월5일~17일 매일 새벽 5시30분 박광철목사가 인도하는 새벽기도회를 열었고 40일 연쇄금식기도회를 1월19일~2월27일 개최했다. 5월15일 당회원들이 산상기도회를 다녀왔다.

박광철담임목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연쇄 금식기도를 인도했다. 담임목사는 "교회가 여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개인

과 가족과 직장 그리고 조국을 위한 금식기도에 모두가 나설 것입니다"라고 설교했다. 교회의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박광철 담임목사는 창립 28주년 기념부흥회 및 임직예배를 마치고 1998년 8월 7일 사임을 했다. 박광철목사는 조용히 담임목사직을 떠났다.

1993년 박광철목사는 제3대 당회장으로 취임한 뒤 주의 종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강해설교와 성경공부 그리고 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노력했고 교육에 힘썼다.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로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 되도록 새벽기도와 성경공부를 계속 했다.

박광철목사는 1998년 11월 조이펠로쉽교회(Joy Fellowship Church)를 글렌데일에서 창립, 이민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박광철목사는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란초이베라 수양관에서 교회의 어려움에 당회원들이 기도하고 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안수집사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행 6:3)

안수집사회는 받은 은사대로 사랑과 선행과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명을 다짐하고 있다

1998년 8월 23일 안수집사회는 당회 인준을 거쳐서 창립되었다. 안수집사들은 경건 훈련을 통하여 성경이 규정하는 자질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서 받은 은사대로 사랑과 선행과 기도로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모두 47명으로 창립된 안수집사회는 한긍리집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고, 부회장은 이경동, 김세웅, 총무에 이조, 이효성, 서기에 함재목, 이용훈 회계에 신동순, 전용석집사가 각각 봉사를 맡았다.

1999년도 2대 회장단으로는 회장 정영식집사, 부회장 이경동집사, 최종원집사, 총무 김영만집사, 송성훈집사, 서기 함재목집사, 금재연집사를 선출했다.

사업으로는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경건회로 갖고, 신앙강좌와 구제, 봉사, 선교사 후원 등을 펴왔다. 안수집사회는 창립 후 성도의 장례식 때 운구를 맡는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교역자와 당회원 각 선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상기도회를 다녀오고 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백윤주교수, 임동선목사, 김희상목사, 이완재목사, 이준재박사를 초청, 신앙강좌를 개최했다.

안수집사회 초대회장을 지낸 한긍리장로는 "교회의 허리가 되는 안수집사들이 구제 및 봉사

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회를 만들었다.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갖고 봉사 정신의 고취,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 제직 성도들과 더 많은 대화와 친목을 위해 노력 했다"고 말했다.

TV 와 라디오 통해 선교 방송

문서선교와 방송선교시대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한국 극동방송에 참여를 했다



최신시설을 갖춘 방송실과 봉사자들

문서선교 및 첨단 전파시대를 맞이하며 동양선교교회는 이민교회로서 일찌기 방송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1981년 5월3일 처음으로 TV 방송 선교를 위해 임동선담임목사의 설교와 성가, 교회소식을 채널 18 TV 전파를 내보냈다. 그리고 한국의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모국을 위한 방송선교의 시대를 한인교회론 처음 열어갔다. 방송선교위원회(위원장 오철훈)는 「선교의 메아리」라는 TV 선교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93년 4월11일 「OMC-TV」를 직접 개국했고, 자체 TV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선교방송을 정기적으로 해나갔다.

방송선교위원회에는 오철훈장로와 노수정장로, 백중용집사, 윤태균집사 등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랫동안 봉사를 담당해왔다. 특별히 담임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제작해서 매주 보급하는 일을 맡았고 성도는 물론 국내외 지교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 미래 목회는 방송선교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예산과 인력을 보완해 가고 있다. 성전안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있다. 영상매체를 통해 선교사역을 위해 당회가 최신방송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왔다.

방송부장 이병주장로는 "1989년 집사때부터 방송부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오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지금은 한인교회에서 녹음 테이프 등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열린 예배를 위해 최신 기자재를 갖추었고 네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감사해 했다. 방송부 차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윤태균집사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한 봉사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오철훈, 노수정, 김광돈장로가 초창기부터 헌신적인 봉사를 많이 했다"면서 교회를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21세기 선교의 주역 러시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전 3: 6~7)

러시아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연 것은 1989년 8월 2일이다. 임동선목사가 처음으로 소련 선교답사를 하면서 북방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후 1992년 4월 26일 75년만에 개신교 최초의 부활절 예배의 주강사로 임동선목사가 설교를 했고, 이때 러시아 선교의 필요한 시기와 사명을 인식하고 돌아왔다. 1992년 9월 개신교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모스크바 분교를 개교함으로 본격적인 러시아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모스크바 동양선교교회를 1993년 4월에 설립했고, 레잔시에 대학원 분교를 설치함으로 러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을 시작했다. 선교부는 러시아 복음화는 대 북한선교와 중국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계속 발전시켜나갔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슴에 품은 사도행전적 교회답게" 교회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러시아 선교만은 변함없이 지원해왔다. 모스크바 월드미션대학 레잔분교 건축공사비 부족금 1만5천달러를 보냈고 모스크바 신학교 및 레잔분교는해마다 10-20명의 지도자를 배출할 성도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를 가슴에 품은 사도행전적 교회답게 선교를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다

나사렛 청년회 선교단원과 함께 러시아를 다녀온 조영근목사는 2000년 9월 10일 주일 예배때 「러시아를 가슴에 품은 교회」 (마 28: 19-20)라는 제목으로 제3세계를 향한 선교보고를 했다.

"동양선교교회의 첫 10년은 교회 정착의 기지 확보와 모국선교에 주력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10년은 세계선교의 비전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나가는 선교의 절정기였습니다, 세번째 10년은 세계선교의 정체기 속에서 러시아 선교의 새움이 돋아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의 씨앗이 머지 않아 보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실 때 동양선교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선교는 21세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교부는 점차 러시아 선교전략을 바꾸어 가고 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정책에서 현지 사람이 사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언어와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다.

중국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

동양선교교회가 중국의 선교를 시작한 역사는 길다. 공산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죽의 장막 중국을 위해 임동선목사는 1970년대부터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1980년 8월 3일부터 26일까지는 임동선목사 (아시아선교센터 이사장)가 직접 중국을 방문, 가족을 만나면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왔다. 당회는 1981년 10월 25일 이득애권사를 중국 단기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중국선교의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임동선담임목사는 1983년 5월 안식년 휴가때 2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기지로 중국내 조선족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조용히 지원해왔다. 그후 윤치원협동목사의 선교사진전 및 청년부의 단기 선교 등 장기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선교사역을 감당해왔다. 중국선교는 러시아 선교, 북한 선교와 함께 큰 기도제목이 되었다.

죽의 장막 중국을 위해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1970년대부터 기도를 드렸다



윤치원목사와 조선족 예배당

선교부는 중국선교 방향을
- 첫째 한족교회 및 조선족 지도자 양성
- 둘째 현지교회 관리사역
- 셋째 개척교회 지원 및 알선
- 넷째 북한선교사 양성
- 다섯째 중국내 신학생 지원사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 중북선교회를 만들었고 이사장은 임동선원로목사, 대표는 조바나바목사가 맡고 있다. 중국 선교사 조바나바목사는 "북방의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주님의 품안에 넣고 중국 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 조용하지만 먼 길을 가고 있다"고 선교회보(2000년 7월)에 썼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북한 선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을 선구적으로 맡아 온 동양선교교회는 북한선교 가능성 타진과 간접선교의 길을 조용히 모색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왔다. 1970년 창립과 함께 시작된 한국 선교지 지원이 어느 때가 되면 바로 북한 선교로 그 결실을 볼수 있다는 목표를 세웠고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으며 지원해 왔다.

선교부는 1990년 4월 22일 처음으로 평양봉수교회 예배실황 방송 및 특집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북한교회 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민병용집사(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북한방문 보고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

1991년부터 선교비 예산중에 특별히 1만달러를 북한선교 항목으로 신설했다. 선교부가 본격적으로 북한선교에 나선 것은 1995년이다. 한인교회로 「통일대비 북한 20교회 설립운동」을 처음으로 펴기 시작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날을 대비하여 물질과 기도로 선교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도로 통일을 염원해 왔지만 이제는 더욱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은혜로 맞이할 희년을 대비해 북한 동포 복음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후를 준비하여 우리는 북한에 20교회 이상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주 1달러씩 북한 선교헌금 운동을 전개합시다."

1997년 4월 27일 북한 동포 돕기 긴급식량 옥수수 보내기 특별헌금을 실시했고, 북한실정 및 선교보고회등을 가졌다. 7월 26일 북한선교 소위원회를 만들고, 꾸준하게 북한 간접선교정책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1999년 8월 8일 북한난민보호 UN 청원 1천만명 서명 운동에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적극 참여했다. 2000년부터 북한 선교 예산을 다시 3만달러를 책정, 전 교인들이 헌금을 드렸다. 5월 30일 김순권박사의 북한 옥수수 심기운동을 지원했고,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사무총장)을 통해서 북한에 의료선교 4차분 (50만달러 상당의 의료품)을 전달했다.

선교부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북한 선교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물질과 기도 그리고 장단기적인 선교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1999년 7월22일~25일 지용수목사(창원 양곡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창립 29주년 기념부흥성회를 감사와 축복속에 개최했다. 온 성도들은 7월12일~22일 매일 새벽 5시30분에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특



창립 29주년 임직예배후 교역자 당회원 제직이 함께 찍었다

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새벽기도회때마다 "임동선원로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교역자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서, 2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지용수목사는 7월25일 창립주일 대예배 때 종말을 살아가는「성도의 자세」(마 24:16~27)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과 감사로 전했다. 오후 3시 박종각목사의 사회로 창립 29주년 임직예배를 드렸다. 연합성가대의「이믿음 더 굳세라」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초청강사 지용수목사는「소중하고 복된 생애」(막 11:1~10)라는 제목의 임직자를 위한 설교를 했다. 새 임직자는 더욱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온 교우에게 서약을 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안수훈목사의 축도로 끝났고 교육관 2층에서 기념만찬를 갖고 새 사명자를 축하했다.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렸다

창립 29주년에 새 임직을 받은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원로장로: 노재희
▲장로취임: 신병모
▲장로장립: 한긍리, 김세웅, 이 조, 한승수, 강모세
▲안수집사: 금재연, 송석주
▲권사취임: 성명희, 이재희, 한안나, 김민희, 임정숙, 김명희, 조지현

세계선교위해 1천만 달러 지원

몇년간 침체기에 있던 세계선교가 1999년부터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전교인들은 선교헌금을 작정했고 선교회원과 헌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디모데 선교회는 3월19일~20일 임동선목사와 함께 멕시코 티화나 감옥을 방문, 의류와 식사대접 그리고 특별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3월14일 조영근목사가 저녁예배 때 남미 파라과이 선교보고 설교를 했고, 3월21일 이인검전도사가 콜롬비아 선교보고를 했다. 청소년부 학생과 인솔 목회자 등 23명은 1999년 4월4일~9일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선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마치고 왔다.

대학부는 8월8일~14일 멕시코 티화나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또한 청년부는 8월2일~14일 김학진목사의 인솔로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은혜중에 마쳤다. 심양과 북경을 방문한 청년부 선교팀들은 어린이 전도 집회 및 찬양지도 교육 대학 캠퍼스 사역, 빈민촌 및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등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

영어목회의 단기선교팀들도 8월5일~25일 아프리카 가나선교를 다녀왔고 9월12일 주일 오후 4시 예배 때 김성학목사가 선교보고를 겸한 설교를 했다. 12월12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석규선교사가 「온 천하에 전파하라」(막 16:15~18)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선교 사정을 보고하는 예배를 드렸다.


파라과이 조영근선교사와 과라니족 원주민들

선교부는 인물 중심의 선교와 지역중심의 선교를 위한 선교정책을 세우고 특별히 가난한자, 억눌린자를 위해 구제 봉사를 습관화, 생활화 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양선교교회가 되기 위해 전 성도가 기도제목을 정했다. 공격적인 선교, 도움을 주는 선교를 통해서 미 전도종족에게 성경적으로 선교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교회창립이후 지난 30년동안 선교비로 5백만달러 선교지원비 3백만달러 등 모두 1천만달러를 지출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창립 후 30년간 선교를 위해서 모두 1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선교비로 모두 5백23만 달러를 사용한 것이고, 선교지원금으로 3백58만 4천달러를 지출했다. (자료: 동양선교교회 선교백서: 1993년 10월 선교위원회, 2001년 목회자 및 사모 세미나, 이민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임동선목사 발표)

황재륭행정담당목사는 "임동선원로목사의 전세계를 향한 선교사역 후원을 위해서 세계선교센터와 교회가 적극 지원, 21세기를 향한 선교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미션대학 개교 10주년 맞아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아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및 만찬」과 「개교 10주년 기념 축하예배」를 1999년 3월 25일(목)과 3월 28일(주일)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다. 3월 25일 오후 7시부터 거행된 기념행사 및 만찬 행사는 모두 3부로 열렸다. 제1부 기념예배 때 임동선총장은 "내 마음에 합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감회어린 설교를 했다. 제 2부에서는 저녁만찬의 시간을 가졌고 축하 케익을 자르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제 3부는 동문활동 및 학교보고의 시간이었다.

1999년 3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개교 10주년 기념 축하예배」를 드렸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태동하도록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해준 동양선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개교 10주년의 기쁨을 나누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예배와 더불어 월드미션

대학교 10년 발자취를 비디오로 상영 했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미션대학과 강의실이 있는 제1교육관

월드미션대학은 목회와 선교의 열정, 예언자적 통찰력, 말씀으로 역사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월드미션대학교창립 10주년과 제13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기간 중에 2천년대를 향한 세계한인교회 전략을 주제로 하는 「99 세계선교대회」를 주최했다.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 새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계선교대회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큰 잔치를 열었다. 1999년 4월26일~5월7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선교 세미나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강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다.

「99 세계선교대회」 주 강사로는
릭 워렌목사(새들백교회 담임목사),
밥 로건박사(풀러신학교 교수, 교회성장 전문가),
짐 번스박사(가정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발표를 했다.
한인 발표자는
박기호박사(풀러신학대학)-세계선교
황은철박사(브라질 동양선교교회)-지교회 모델과 목회,
홍성호 홍현숙선교사 (위클리프 선교사, 파푸아 뉴기니아)-평신도 중심 선교,
김세윤교수(풀러신학대학), 한평우목사(로마 한인교회), 이종용목사(코너스톤교회),
박진법목사(나성영락교회 영어목회) 등이었다.

개교후 모두 187명이 영광의 졸업

21세기의 세계한인교회 전략을 진단한 「99 세계선교대회」를 위해 임동선목사는 이민교회로서의 동양선교교회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한인교회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남녀 지도자들은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다.

월드미션대학 및 신학대학원의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소명감이 강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2001년 6월 10회 졸업식때까지 모두 187명이 영광의 졸업을 했다. 이들 중 102명이 목회자로, 21명이 해외선교사로, 또 학문을 계속 연마하는 36명, 평신도 지도자 26명, 기타 2명 등이다. 졸업생들은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남미,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다.

졸업생은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월드미션 대학 학생현황

연도	입학생	졸업생
1989	10	
1990	11	
1991	6	
1992	29	12
1993	47	12
1994	32	16
1995	24	9
1996	24	22
1997	17	7
1998	60	42
1999	91	26
2000	138	44


월드미션대학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명문학교의 꿈

월드미션대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평신도 성서대학과 선교대학,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 등을 개설했다. 앞으로 노인대학, 부부대학, 편부모대학, 가정사역원 설립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세워진 모스크바와 레잔신학교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 분교들을 세울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기독교 교육 종합단지를 만

들어 나가기 위해 동양선교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학, 한국어, 한인중심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신학교에서 종합 Campus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재정적으로, 학문적으로 자립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건물, 경상 운영재원과 장학기금재원을 마련하고있다.

종합적인 캠퍼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자체건물, 재원마련을 위해 기도 드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와 월드미션신학대학원은 설립자인 임동선목사의 영성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세계선교사역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목회와 선교의 열정, 복음주의에 입각한 말씀중심의 건전한 신학,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통찰력,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 개인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임동선원로목사의 생명력있는 설교, 깨끗하고 베푸는 삶을 통한 감화력 등 신학교가 계승하여야 할 설립자의 정신이다.

동양선교교회 출신 주의 종들

동양선교교회는 창립이후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2세 교육으로 이름난 교회」, 「교계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교회」로서의 이민 사역을 잘 감당해왔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를 해왔다. 임동선목사는 한인사회의 백년 대계를 위한 목회비전으로 항상 자녀 교육과 교계 지도자 양성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목표로 기도를 드렸다. 초창기 대학부에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1.5세들이 많았다. 그후 신학교를 마친 후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2세 목사, 선교사,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임동선목사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목회자와 전도사, 목사 사모가 된 이들이 모두 50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더 많은 관계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이다"라고 감사해했다. 동양선교교회가 1.5세 및 2세 사명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담임목사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도의 힘,
둘째 대학부를 지도하는 좋은 목회자들의 희생과 노력,
셋째 전교우가 교계 인재양성을 위해 기도와 지원,
넷째 장학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이다.

동양선교교회 출신 목회자

▲노창수목사: 동양선교교회에서 고등부 대학부 생활, 후에 영어목회 담당목사
▲최진기목사: 고등부 출석, 동양선교교회 전도사, 세계복음선교연합회서 목사안수
▲송창현목사: 대학부 회원, 세계복음선교연합회서 목사안수,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목회
▲홍성호 홍현숙선교사: 동양선교교회 대학부 생활,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
▲주성철목사: 동양선교교회 대학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 덴버에서 목회

▲이창헌목사
▲이승림목사
▲강행모목사
▲이태종목사: 알라스카 지교회에서 사역
▲박종필목사
▲이정우전도사: 동양선교교회 고등부 어와나지도, 샌디에고 뉴라이프교회에서 사역

동양선교교회 출신으로 목회자와 전도사 목사 사모가 된 이들이 모두 50여명이나 된다

조영근목사, 황재륭목사, 박계로목사, 이성원목사, 이인검목사 등은 동양선교교회 집사와 장로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부름을 받아 주의 종이 되었다. 특별히 성인교육부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던 평신도들 중에서도 은혜받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다. 성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되고 그때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평신도들이 많은 것은 동양선교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이재현목사 ▲이법웅목사
▲윤경호목사 ▲조원하목사
▲남윤희목사 ▲김용식목사
▲김재선목사

스포츠 선교 및 장학금 모금 활발

초창기부터 스포츠선교로 유명했던 동양선교교회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주최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 스포츠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 골프, 탁구, 테니스, 배구, 농구부를 만들었고 친목과 건강, 그리고 체육선교의 사역을 잘 담당했다. 특별히 당회장 배 테니스대회, 배구대회가 유명했고, 체육관리위원회가 스포츠대회 출전 및 선교를 적극 지원했다.

골프선교회는 매년 당회장배 골프대회를 갖고 장학금을 모아 교역자 및 선교사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골프선교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월 1회 친선경기를 개최해 왔고 1992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좋은 봉사를 하자는 뜻으로 2천달러를 모아 멕시코 지교회 선교헌금으로 냈다. 1995년 제1회 당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고 모두 5천달러를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2000년까지 모두 6차례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갖고 3만달러의 장학기금을 마련함으로 스포츠 선교회 중 가장 많은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골프선교회 회장은 신상우장로, 김성곤장로, 스티브임장로에 이어 한동렬집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한동렬집사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년에 한차례씩 장학금을 모아 교회에 전달할때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학금 모금 대회 때마다 의사선교회, 중앙은행, 새한은행과 몇분 장로님과 사업하시는 교우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가능했다. 앞으로도

장학금을 많이 내는 골프선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성도의 건강 파수꾼, 의사선교회

1970년대 후반부터 의료봉사를 펴온 의사들이 1987년 6월 20일 의료선교회를 조직했다. 당시 교회에 출석하는 10여명의 의사들은 특수지역 의료선교를 목표로 의사선교회를 만들었고 선교사업의 하나로 무료 의료봉사를 해왔다.

남가주 및 남미까지 의료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술을 통한 봉사를 해왔다

1987년 첫 의사선교회 임원 명단이다.

▲고문: 임동선목사
▲회장: 조정현장로
▲부회장: 장문석집사
▲총무: 한승수집사
▲회계: 김홍일집사


티화나에 무료 의료선교를 간 의사선교회 일행

의료인들은 남가주는 물론 멕시코, 남미지역으로 무료의료 봉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인술을 통한 의료 봉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1988년 의사선교회는 처음으로 파라과이, 브라질, 알젠틴에 의료선교를 잘 마치고 왔다.

1988년 3월20일 저녁예배를 의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조정현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헌신예배는 의사선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양을 했고, 조갑수목사는「의사선교회의 사명」(눅 17:11~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날 한국 근육디스트로피 환자를 위해 모두 5천달러를 전달했고 한승수집사는 의사선교회의 창립경과를 보고했다. 고문인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의료인의 사명을 더욱 다짐하는 헌신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의사선교회는 의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서 연구, 영적 교제, 멕시코 고아원을 방문, 치과 및 내과 의료활동, 남미 의료선교 등을 실천하고 있다.

1991년 의사선교회 새 임원

▲지도목사: 조갑수목사 ▲회장: 김지수
▲부회장: 한승수 ▲총무: 강모세
▲회계: 김홍일

1998년과 1999년 두달에 한번씩 회원댁을 방문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의료인의 사명과 우

의를 다졌다. 의사선교회 회원은 한승수, 백강인, 박재호, 유재용, 현모세, 장문석, 강모세, 김홍일, 김석진, 이종걸, 마틴리, 한석진, 조성심 의사 등이다. 1999년 3월에는 멕시코 의료선교를 위해 티화나 감옥에 치과진료를 다녀왔다.

동양선교교회는 1998년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 박람회를 해마다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굳 사마리탄 병원과 한인의료기관 및 봉사 단체 와 함께 주관한 건강 박람회 때에는 특별히 의사 선교회가 봉사에 앞장을 섰다. 의사선교회회장 한승수장로는 "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혈액검사부터 암검사 등 한인사회를 위해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로 되어 있다. 앞으로 더욱 이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진료에 앞장, 간호사선교회

간호사회는 성도들을 위해 무료봉사를 1970년후반부터 해왔다. RN시험에 합격한 한인 간호사들은 주일예배 후에는 혈압 및 당뇨검사 등을 통한 봉사를 기쁨과 사명으로 담당했다.

1979년 7월8일 주일 창립된 간호사회 첫 임원은

▲회장: 박길봉집사 ▲부회장: 성인호집사 ▲총무: 김영애집사
▲서기: 윤공순집사 ▲회계: 변순자집사 이다.

매 주일 혈압 체크, 의사선교회와 함께 무료의료 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다

당시 32명의 간호사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1979년 12월 제2대 회장으로 성인호집사를, 부회장 신수잔집사, 총무 김영애집사, 서기 윤공순집사, 회계 변순자집사를 선출했다. 간호사회 김영애총무는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고혈압 증세를 초기에 발견함으로서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인 상대 무료진료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매주일 예배 후 혈압체크를 했고, 의사회와 함께 의료 상담을 실시했다.

1981년 도 회장단은

▲회장 :신수잔집사 ▲총무: 김영애집사 ▲서기: 윤공순집사 ▲회계: 하순희이다.

1986년 간호사회는 새로 봉사할 임원을 뽑았다.

▲회장: 성인호권사 ▲부회장: 김영애집사
▲총무: 신봉례집사 ▲서기: 전경옥 ▲회계: 김순열집사를 선출했다.

성인호 새 회장은 "무료진료 강화 등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의료강좌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헌신예배를 통해서 의료인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기도 드리고 있다.

빛도 없이 봉사, 식당운영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제직과 부서가 많은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이다. 식당운영부 (부장 정중섭장로, 차장 한동렬집사)의 권사, 집사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점심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제공을 해왔다. 주방책임은 이재희권사가 맡고 있으며 최남숙집사 등 모두 7명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매주일 1부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대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2부예배후에는 교회 봉사자들이, 그리고 3부예배 후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희권사는 10년 이상 주방에서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음식의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사역을 기쁨으로 맡고있다.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뜻에서 시작을 했다.

매주일 식단을 바꾸어 가며 메뉴는 모두 다섯가지 (설렁탕, 김치찌개, 오뎅국, 콩나물 육개장, 미역국)로 정했다. 주방 봉사자들은 주일 식사를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부터 재료 구입등 모든 준비를 담당 하고 있다. 매주일 식사하는 성도는 모두 550~600명이다.

"주방 환경이 일하기 힘든 곳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하나로 몇년째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식당운영부 차장 한동렬집사는 설명했다. 노수정 장로, 이조장로, 이건기장로, 백형권장로 등이 그동안 부장으로 큰 수고를 해왔다.

▲신상우장로

> "노수정장로에 이어 초창기 식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참으로 열심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많았다. 교회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최고의 재료를 쓰도록 했다.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는 성도가 점점 더 늘어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한국 군복음화로 가는 길


임동선원로목사가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를 베풀고 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1996년부터 해마다 미주의 군목 목회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 논산훈련소 신병들을 위한 진중 세례식을 집례했다. 군의 복음화가 「한국 복음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다. 임동선목사는 1999년 5월15일 처음 논산훈련소를 방문, 세례식을 베풀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주관으로 2020년까지 전군을 복음화 시킨다는 사역에 참여한 것이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임동선목사는 육해공군의 초청을 받아 1년에 한두차례 부흥회를 인도해 왔다.

임동선원로목사의 군 및 한국선교사역은 오광찬장로가 돕

고있다. 25년간 군생활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오광찬장로는 특별히 임동선목사의 선교여행을 돕는 봉사를 기쁨과 감사로 맡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초대 기도후원회장을 맡았을 때에도 신학생의 식사제공 등 기쁨으로 했다.

1999년 6월20일 임동선목사는 주일 대예배 때 「2천년을 맞는 신자의 자세」(단 6:1~10)로 설교를 했다. 임동선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변화의 시대인 2천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들은

"첫째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셋째 선택을 바로 해야 하며,
넷째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하며
다섯째 현실에 충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창립 29주년을 앞둔 7월4일 주일 예배 때 임동선목사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1~3)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새 천년을 맞이 하면서 다시 세계선교를 향한 이민교회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했다.

1999년 임동선원로목사는 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서 선교와 부흥회 일정을 줄여 나갔다.

▲다우젠옥스 한인장로교회 10주년 기념부흥회 인도: 1999년 2월20일~21일
▲캐나다 캘거리 한인교회 부흥회 인도: 3월10일~14일
▲논산 군인세례식 및 육해공군 연합교회 설교: 5월12일~16일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 및 레잔신학교 졸업식 설교: 5월20일~27일
▲워싱턴 메시야교회 집회 인도: 10월8일~10일

**2천년대의 신자들은
믿음과 용기
기초가 튼튼하고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성전 개축 99년 말씀의 큰 잔치

1999년 본당 개축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당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전을 단장하기 위한 공사를 5월10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교인들은 성전의 단장을 위해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새 성전은 7월20일 창립기념부흥회 전에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다. 또한 새 의자를 제작해서 더욱 현대적으로 성전을 꾸몄다. 온 교인들은 본당 의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고 10월초에 모두 새 의자가 마련되었다.

성전 개축 기념 말씀의 큰 잔치를 10월21일~24일 개최했다. 최영기목사(텍사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말씀의 잔치 주제는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였다. 초청강사 최영기목사는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하루 두차례씩 말씀 잔치에서 「행복합시다」, 「인생은 출장이다」, 「염려하지 말라」 등으로 설교를 했고 10월24일 주일 대예배 때에는 「희생의 능력」(요1 3:8)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은 희생을 위해 기도와 금식, 헌금, 독신, 순교를 할 때

기독교인은 희생을 위해 기도와 금식 헌금, 순교를 할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당신 건축위원장이었던 백영두장로(현재 파푸아 뉴기니아선교사)는 "1985년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한편에서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지만 당회의 결정을 거쳐 완전히 내부를 새로 단장하기로 했다. 담임목사가 사임한 뒤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성도가 더욱 새로와 지고 싶어했고 헌금을 한마음으로 드렸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고 당시를 말했다. 성전 높이는 18피트에서 22피트가 되었고 좌석은 8백석에서 1200석으로 늘어났다.

성전개축을 담당한 오상헌집사는 "성전 개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 졌다. 백영두 건축위원장님의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다. 강단의 위치가 더욱 넓어지고 비디오 시설까지 갖추었다. 성전이 모던하게 꾸며져서 찬양 예배를 드리기에도 더욱 좋아 졌다"고 말했다.



성전개축기념 말씀의 큰 잔치 예배모습

개교후 모두 42명 목사에 안수 예식

1987년 7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약자 WEMA)는 14년동안 8가지의 하나님 사업을 충실하게 이루어 왔다. 그동안 이루어 온 주요 사역은

1. 지역교회의 지원과 설립
2. 선교기관의 설립과 운영

3. 교회지도자 (교역자, 선교사) 양성
4.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5. 목회 상호 협력
6. 목사 안수
7. 평신도 교육
8. 복지제도의 공동운영 등이다.

매년 목사안수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1988년 2차 총회 이후 12년 동안 모두 42명의 목사를 위해 안수예식을 베풀었다.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전세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에 근거한 선교기관을 두고 새 천년을 맞아 세계선교의 사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목사안수 예식

역대 총회장 명단

▲1대 (1987년) 임동선목사
▲2대 (1988년) 임동선목사
▲3대 (1989년) 이기홍목사
▲4대 (1990년) 석태운목사
▲5대 (1991년) 이기홍목사
▲6대 (1992년) 이기홍목사
▲7대 (1993년) 석태운목사
▲8대 (1994년) 이기홍목사
▲9대 (1995년) 박광철목사
▲10대 (1996년) 이중용목사
▲11대 (1997년) 강두호목사
▲12대 (1998년) 윤기성목사
▲13대 (1999년) 안용식목사

복음주의 신앙에 근거한 선교기관을 두고 세계 선교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14차 총회에서 선출된 2000년도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건태목사
▲부총회장: 김진광목사, 한영두목사, 엄한광장로, 안정삼장로
▲총무: 이재현목사

김진광목사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부총회장)는 2000년대를 맞은 WEMA의 사명의 대화때 "일반 교단과 신학의 발전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교단이 되고 신학이 정립,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미래의 전망은 긍정적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연합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수정 보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설립자의 뜻과 정신, 세계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이제는 신학적 정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동양선교교회, 신학교, 연합회가 협력하여 연구해 나갈 때가 왔다"고 말했다.

당회장 청빙을 위한 간절한 기도

새 담임목사 청빙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전 교역자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1999년 1월1부터 청빙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4대 담임목사 청빙을 기도속에 준비해 왔다. 담임목사 청빙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니온교회 이정근목사를 청빙하도록 준비를 했다. 1999년 12월15일 임시당회 및 청빙위원회는 모임을 갖고 2000년 1월16일 임시 공동총회에서 이정근목사를 추천했으나 담임목사 동의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

당회는 3월5일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임동선목사, 박종각목사, 김광돈, 신병모, 한긍리, 김세웅, 이 조, 한승수, 강모세장로를 선출했다. 5월26일 심야기도회를 갖고 청빙위원들은 새 당회장 선출이 빨리 이루어 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다. 전교인과 제직, 당회원과 청빙위원, 원로목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2000년 7월 제4대 당회장으로 송정명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송정명목사는 2000년 12월까지 동양선교교회에 새 담임목사로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시무하고 있는 사정때문에 제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지를 못했다.

더욱 새로와지는 청년목회 비전


나사렛 청년부 수양회

"젊은이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하는 한인교회에 젊은이들의 출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젊은층 교인 증가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 당회는 만 21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부 목회의 활성화와 특별히 이민목회 안에서의 청년사역과의 관계, 청년목회의 비전 등에 온 교회가 힘쓰고 있다.

▲나사렛 청년부 : 21세-35세의 미혼남녀
▲갈릴리 선교회 : 25세-35 기혼 청년들의 모임
▲가나 청년회 : 25세-35세 신혼 청년들의 모임

이중 나사렛 청년부의 봉사와 활동의 역사가 가장 길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당회는 청년부 지도를 위해 1987년부터 전담교역자로 안용식목사를 배치했고, 1세와 2세 목회중 청년에 대한 신앙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어 왔다. 이민교회의 미래와 부흥과 성장은 젊은이의 신앙교육과 출석으로 보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청년목회 방향은
첫째, 신앙의 기본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목회
둘째, 크리스찬 직업인의 확실한 소명의식 정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
셋째, 한인 이민 공동체로서의 확실한 교회관 정립에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
넷째, Korean Diaspora의 선교 시대적 사명의 의식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목회를 방향으로 정했다.

이중 나사렛 청년부는 다양한 소그룹 활동, 제자 양육 프로그램, 정형화되지 않은 예배,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청년대학부 전임목회자의 심령을 사로 잡는 설교,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구령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미국속의 한국이민 청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OMC 나사렛 청년들의 영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새시대 새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부원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세계 각지에 나가고 이민사회와 교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영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충족시켜 주기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날 행사 통해 뿌리교육

한국학교는 구정때면 학생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뿌리교육을 잘 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날 행사는 1년중 가장 큰 행사로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공연, 씨름대회, 팔씨름, 널뛰기,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학교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두 350명의 학생들이 주일 오후 2시~4시까지 36명의 헌신적인 교사로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날 행사를 마치고.

교재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학생들은 글짓기대회를 통해서 배운 실력을 펴보이고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부모와 교사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뿌리교육과 신앙교육을 모범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어린이 날에는 야외수업을 나가서 신앙을 통한 친목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해마다 한국학교 교사들은 교사 수련회와 강습회를 통해서 좋은 뿌리교육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한국학교는 어깨동무라는 글 모음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쓴 글동산 꿈동산을 특집으로 펴내고 있다. 김치찌개, 한국여행, 미역국, 이순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등 평소에 배운 한글 실력으로 글짓기를 써서 칭찬을 받고 있다.

한국학교는 하나님의 사랑,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교훈으로 뿌리교육을 잘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모국을 방문 할 계획을 정기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의 언어와 가치관 전통을 전수하는 2세 교육기관이 바로 한국학교이다.

한국학교 차장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금재연집사는 "한국학교에는 헌신적인 교역자, 교사, 학부모들이 많았다. 그분들의 어린이 사랑과 뿌리교육,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예전처럼 남가주지역 한국학교에서 가장 큰 한국학교로 발전해가도록 모두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학교의 구정맞이 한국의 날 행사 모습

오후학교를 커뮤니티 학교로

좋은 교사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미래 이민사회에 어린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앙의 생활화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오후학교(After School)는 역사가 깊다. 1988년 5월 이중용교육목사가 방과후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새 교육관 헌당 예배후 이웃과 커뮤니티의 학생들을 위해 신앙교육과 학교교육의 연장을 위해 문을 열었다.

초대원장은 김재권장로가 맡았고 다양한 학습 및 예능,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등록하는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이며 68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 정원은 70명으로 허가를 받았다. 학교시간은 방학이나 연중학교 학생들을 고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오후 3시부터 픽업을 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과후 오후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수업은 수학과 영어 등 홈웍을 먼저 하고 선생들이 1대 1로 개인적인 지도를 한다. 여름방학에는 3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서 어린이 개발교육을 받은 대학생이나 일반교사들이 가르친다. 동양선교교회 오후학교는 등록비가 싸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은 훌륭한 교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 자랑이다. 특별히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는 외부의 전문교사들을 초청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혜련원장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고 맡겨준 뜻을 위해 전교사가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좋은 교재를 갖고 열심히 지

도해서 이제는 커뮤니티 차원의 이름난 학교가 되었다.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하려고 하는데 등록은 제한이 있다. 더욱 교회 오후학교로 이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교포적인 학교로 인식되고 있어서 타교회에 출석하는 학생과 비신자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학생 10명을 한 교실로 해서 한교사가 책임지도를 하고 있다.

김재권장로는 "오후 프로그램에는 학생이 300명이 넘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과 태권도, 탁구, 농구를 한국대표 선수 출신들이 가르쳤다. 등록비도 적게 받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아원 및 유치원

커뮤니티를 위하여 설립한 어린이 정규 교육기관인 유아원, 유치원(Preschool & Kindergarten)에는 모두 110명의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 신앙이 좋은 교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교훈 아래 믿음 안에서 타고난 자질을 개발시키면서 각 나이에 적합한 학습 기술을 배운다. 유아원은 2살반부터 5살까지 그리고 유치원에는 6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월요일~금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10명의 교사들이 모두 9개 교실에서 쑥쑥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어린이와 교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 사랑을 배운다. 유치원에는 본교회 교인 자녀, 직장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타교회 교인, 비신자, 이웃 외국인 자녀 등 범 교포적으로 문을 열고 한국문화를 접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사립학교로 유치원이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은 1989년 3월이다.



유치원생들의 필드트립

해마다 학기가 끝나면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며 일반학교로 진학을 한다.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성경이야기, 창작활동, 음악, 미술, 무용과 체육, 기초 수학, 과학, 언어교육, 관찰교육을 받고 있다. 특별활동으로는 태권도, 미술 등을 배우고 크리스마스 파티, 휠드트립을 나간다. 김광돈장로와 조영일장로 등이 책임을 맡아왔고 디렉터는 장



유치원 학생들의 졸업 기념 촬영

성숙전도사에 이어 김문숙원장이 헌신적 교육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김문숙원장은 "교회가 커뮤니티를 섬긴다는 뜻으로 세운 학교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라 마음 놓고 맡기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제일 좋은 음식과 교재,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로 이름이 나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장로가 책임을 맡고 있다. 입학정원은 모두 120명이다.

유치원은 어린이 개개인을 소중히 여겨 각 어린이의 필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유치원은 앞으로 명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세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이 학교 출신들이 남가주는 물론 전미주에서 큰 역할을 다하도록 어려서부터 크리스찬 교육을 하나님 은혜속에 잘 맡아나가고 있다.

노인을 우대하는 교회, 선교하는 상조회

남가주지역 상조회 중에는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해 있다

LA기독상조회(이사장: 임동선 목사)는 동양선교교회 부설기관이다. 가주 비영리 법인으로 연방 국세청과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았다. 회원 사망시 전회원 1인당 10달러씩 부조하며 제반 노인문제 상담, 봉사 등을 맡고 있다. 4000명의 회원을 목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남가주지역 노인상조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해 있다.



상조회 이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상조회 설립 때부터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 선교하는 상조회를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창립 12주년을 맡고 있는데 A조에 1000명, B조에 1000명, C조에 1000명, D조에 200명의 회원 등으로 모두 3,200명이 가입하고 있다. 상조비 지급은 최대 1만달러로 하고 있으며 지급비율은

1. 가입후 1년은 상조금의 60%
2. 1년부터 2년까지는 70%
3. 2년부터 3년까지는 80%
4. 3년후 4년까지 90%
5. 4년이후는 100%로 정하고 있다.

LA기독상조회의 총자산은 130만달러에 이른다. 현재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신앙 증진, 복지혜택, 정보교환, 상락대학 설립 등이다. 그리고 회원을 위해 통역과 번역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처

음 상조회의 조직은 동양선교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후 교회에서 독립을 했고 경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로 발전이 되었다.

현재 이사 15명중 5명은 당회에서 임명을 하며 10명은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다. 사무실은 동양선교교회 안에 두고 있다. LA기독상조회는 정기적으로 등불(Light Tower)이라는 회보를 발행하고 있고 또한 한인 상조회중 유일하게 인터넷웹사이트(www.sangjo.org)를 운영하고 있다.

LA기독상조회 회장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정문섭장로는 "노인 아파트 설립, 노인 데이케어 센터 설립,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상락대학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종소리, 핸드벨 콰이어

핸드벨 콰이어가 창단된 뜻은 특별하다. 1970년대 교회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네 성도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헌금을 했고 기도 끝에 창단되었다. 핸드벨 콰이어와 천사합창단은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 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외부행사에 많이 초청을 받아나갈 정도로 이름이 났다. 특별히 연말에는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음악을 들려주었다.

연말에는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


핸드벨 콰이어 연주회 모습

1994년 3월 27일 핸드벨 콰이어는 음악예배를 아름답게 드렸다. 이날 정운철목사는「기뻐하라, 즐거워하라」(시 33: 1-3)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런 메시지를 전했다. 3월 27일 핸드벨콰이어 연주단의 음악예배가 오후에 본당에서 은혜중에 드려졌다. 1993년 5월 창단된 글로리아핸드벨콰이어(중고등부) 및 1994년 1월 창단된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성인)가 출연한 이날 음악예배는 지휘자 이혜경집사의 지도로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주를 들려줘 박수 갈채를 받았다. A Bach Pastorale, 사랑의 종소리, 십자가 군병들등이 연주된 이날 음악예배는 1년만에 놀라운 속도로 기량을 성장시킨 대원들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핸드벨연주단 장진장로의 사회,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1996년 7월 21일 오후 4시 예배를 핸드벨 콰이어 발표의 밤으로 가졌고 온 성도에게 기쁨과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예배자를 부르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핸드벨은 천국음악

을 연상하며 깨끗하고 맑은 찬양소리로 모든 성도에게 언제나 기쁨을 가득 심어 주고 있다.

▲ 핸드벨

부장 : 홍성환　　차장 : 이효성

리더 : 김성희　　지휘 : 김수정

천사합창단은 창단의 역사가 깊고 교회 어린이 합창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단원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현재 40명,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천사합창단의 공연 모습

매년 초 새 단원을 모집하며 양로원 방문, 수양회, 그리고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헌금송 등으로 월별행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연습을 하고 1년에 두차례 단원을 모집한다. 앞으로 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천사합창단은 더욱 아름다운 어린이 찬양대로 이름을 빛내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사 합창단

지휘: 최왕성　반주자: 강자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선사하기 위해 창단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동양선교교회의 자랑이다. 예배에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을 선사하기 위해 처음 창단된 오케스트라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커뮤니티의 크고 작은 음악회에 참가를 하고 있다. 음악에 재능이 높은 2세학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생활에도 열심이다.

동양선교교회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창단 역사가 오래되었다. 1982년 4월 3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첫 연주회를 가졌고 1985년 재조직이 되었다. 첫 지휘자는 주성철선생(현재 목회자)이었고, 김희영, 고영범교수, 최병삼목사, 백경환집사, 정운철목사, 이신오집사에 이어 1996년부터 김성주집사가 헌신적인 음악사역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대학생들 등 단원은 모두 70명이며 7명의 교사들이 현악기, 관악기,



김승주집사가 지휘하는 동양선교교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일년에 두차례 정기 연주회를 갖고 있다

타악기, 건반악기를 다루는 학생을 잘 지도하고 있다. 비신자 자녀들도 단원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을 맞아 더욱 이름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성장을 해나가도록 교회와 학부형들이 지원을 맡고 있다.

대장으로 봉사를 맡고있는 곽건준집사는 "음악과 신앙심이 함께 자라도록 선생들이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심이 오늘의 수준높은 오케스트라가 되었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1996년부터 지휘를 맡고있는 김승주집사는 "해마다 단원이 늘어나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천지창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너무 감사했다.

매주일 10살부터 18살까지의 2세들이 연습에 참으로 열심이다.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 오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음악에 더 열심"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잔명차장집사는 "1년간 준비끝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좋은 지도교사들이 많았고 1년에 2번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참으로 은혜스러웠다"고 감사해 했다.

음악으로 노후를 아름답게

소망성가대는 바로 기도의 어머니들의 성가대이다. 구역장이나 여선교회 회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권사들이 노후에 더욱 아름다운 봉사를 위해서 1997년 소망성가대를 조직했다. 단장은 최용숙권사, 지휘자는 방연옥권사, 피아노반주 김혜영선생, 총무 정말상권사, 회계 김인곤권사가 헌신적인 음악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성가대에는 70대가 주축을 이루며 80대의 대원까지 그층이 다양하다. 현재 35명의 대원들이 매주 금요일 5~6시와 주일 2~3시 기도와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찬양을 통해서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노후를 은혜속에 보내는 성가대가 바로 소망성가대이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소망성가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단장인 최용숙권사는 "나이가 먹으면서 교회 일을 젊은 이에게 넘겨주고 또다른 봉사를 찾아보자고 해서 만들었다. 임동선목사님이 창단을 허락해 주셨고, 방연옥권사님이 지휘를 맡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성가대로 자리 잡았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감사해 했다.

지휘자인 방연옥권사는 "다른 교회에 없는 소망성가대를 동양선교교회에서 창단한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소망성가대가 그러하다. 연세는 많지만 모두가 열심이시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망성가대는 홍남표목사 인도로 매주 금요일 양로원을 순방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발표회를 갖고 연합찬양제에 특별출연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 믿음이 좋은 단원들은 찬양축제 때마다 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믿음이 좋은 단원들은 찬양 축제때마다 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단원

지휘 : 방연옥권사　　　피아노반주 : 김혜영선생

장고 : 강애순권사

소프라노 : 서대복, 김영애, 김남수, 이영자, 박금연, 홍재은, 김인곤, 임은화
유소성, 정말상, 김순애, 문순남, 주화순, 조은희, 이철자, 백명숙

앨토 : 함정희, 최용숙, 송현자, 임정자, 박논세, 정득선, 이진선, 최미선
마복녀, 이복순, 박송학, 이숙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사역

기도의 역사뒤에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한마음, 한뜻, 한몸으로 연결해 주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교구 관리부에 속한 중보기도팀은 매주일 대예배때 기도실에 모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설교자를 위해 집중기도를 드려오고 있다.

정우송목사가 교구목사로 부임하면서 기도운동을 통한 중보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주일 대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중보팀들이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왔다.

장로, 권사, 집사로 1부팀, 2부팀, 3부팀을 구성하고 중보기도실에서 설교자 목사님을 위하여,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님을 위하여, 찬양대원을 위하여, 한분 한분 돌아가며 기도를 드린다. 중보기도사역은 주일예배가 더욱 살아나기를 위해 드리는데,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중보기도와 전도에 있기 때문이다.

노재희교구위원장은 중보기도 대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담당했다.

"2부예배때에는 20여명의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담임목사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준비찬송과 대표 중보기도, 그리고 각기 기도로 들어가서 1시간동안 반복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특별히 담임목사는 중보기도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주일 오후에는 전화로 사랑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등 기도가 끊이지 않은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다"고 감사해 했다.

중보기도에 자주 참석을 했던 이영세집사는 "대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교회가 더욱 부흥한다고 믿고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

교역자의 팀 목회 지도자 양성 교사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회 중 교육사역을 가장 잘 해온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이다. 이민사회의 미래는 바로 2세들에게 달려있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만이 훌륭한 인격체를 길러 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임동선목사는 누구보다도 교회교육, 신앙교육을 강조해왔고, 2세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훌륭한 교사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목회를 해왔다.

2000년 교육부의 주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으로 정했고 교역자의 팀목회, 교육지도자 양성, 교사양성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학부모목회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도속에 실천했다.

교육부의 방침으로는

1.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발견
2. 말씀안에서 자아발견과 재능개발
3. 시청각 교재를 통한 반복 교육
4. 찬양과 율동을 통한 자아 표현력 개발
5. 기도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으로 정했다.

▲2000년 제1 교육부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

교육목사 : 김학진　　교육위원장 : 엄한광
교육관리실 차장 : 김영만
교육기획실 차장 : 송성훈

교육훈련실 차장 : 제임스 박
어린이 교회학교 차장 : 엄문섭　　총무 : 노인호
영아부 차장 : 장정숙　　총무 : 김경란
유아부 전도사 : 석희정　　차장 : 임성길
유치부 전도사 : 안임숙　　차장 : 김강일　　총무 : 김용환
유년부 전도사 : 임은희　　차장 : 이효성
초등부 전도사 : 임주원　　차장 : 구경훈
소년부 전도사 : 이길용　　차장 : 배영하
청소년교회학교 전도사 : 양승모　　부장 : 김세웅
영어중고등부 전도사 : 양승모　　차장 : 한승향
한국어 중등부 전도사 : 정운성　　총무 : 이영미
한국어 고등부 목사 : 위문석　　차장 : 전용석
대학 교회학교 전도사 : 조영덕　　부장 : 강모세　　차장 : 김충일
특별활동교회학교 부장 : 백윤조　　차장 : 채홍인
AWANA 전도사 : 양승모　　차장 : 홍성식
한국학교 교역자 : 조항목　　차장 : 금재연
소망부 전도사 : 한희숙　　부장 : 백윤조　　차장 : 채홍인

교육예산을 어느 교회보다 많이 배정했고 새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1973년부터 동양선교교회의 교사 및 교육부의 김인승집사는 "동양선교교회는 교육예산을 어느 교회보다 많이 배정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보다 먼저 실시한 선구적인 교회였다"고 말했다. 현재 크로스로드교회(담임 전길성목사) 교육부 책임을 맡고 있는 김인승집사는 "1970년대는 선교를 위한 교육에 치중했다"며 "1980년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1990년대는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교회학교 부장으로 헌신한 노재희장로는 "동양선교교사들은 참으로 사명감이 깊고 어린이를 사랑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하도록 뒤에서 도운 일이 참으로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동양선교교회는 1세 부모와 2세 자녀와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진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2중언어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분야별로 해왔다.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절충시킨 교육을 했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잘 해 온 이민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천년을 맞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목표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

제12장
새 천년, 새 비전, 새 목회

- 이민교회의 바른 성장 5가지 자세
- 창립 30주년의 목회비전 4가지
- 시무장로와 사역장로 제도 실시
- 창립 30주년 기념위원회 구성
- 미주 이민 신앙의 꽃이며 열매
- 음악사역이 교회 성장의 주요 목회요소
-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전도뿐
- 총동원 주일 후 후속 양육자 훈련
- 영어예배부, 독자적 예산 운영
-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 외부인사 초청기념 만찬회
- 창립 30주년 기념 「천지창조」 공연
- 2000년 예수사랑 신생자사랑 큰 잔치
- 창립 30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 성경속에 잊을 수 없는 세 단어
- 신앙의 옛 얼굴들, Home Coming Day
- 남가주 한국학원에 5만달러 지원
- 새 천년을 주도해 나가는 이민교회
- 세계를 향한 꿈의 지도자 양성
-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배
- 선교의 새장, OMC 홈페이지 오픈
- 제 4대 담임목사에 강준민목사 취임
- 은혜가 충만한 축복공동체



이민교회의 바른 성장 5가지 자세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동선원로목사는 이민 교회성장의 바른 자세를 모두 4가지로 정했다. 2000년 새해초 설교와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동양선교교회의 미래를 밝혔다.

"첫째는 믿음이다. 교회는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축복받기 전에 먼저 축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

둘째는 실천이다. 크게 떠드는 것보다 조용한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로 가르침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균형이다.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균형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개척자의 정신이다. 제직과 온 성도는 안일한 생활보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한다. 삶에는 근시안적이기보다는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교회는 지난날의 업적을 자랑하기 보다는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

믿음, 실천, 균형, 개척자 정신을 교회성장의 바른 자세로 제시했다

임동선목사는 새 시대 목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앞으로 새 천년, 새 세기를 향해 나가는 동양선교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과 평신도의 참여,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 30년 역사를 이어가며 Team 목회와 책임목회를 통해서 더욱 부흥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설립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 받고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역은 해외 선교사역과 국내선교사역, 그리고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교육의 사역은 영성 훈련과 말씀 훈련, 평신도 사역강화, 영어권 교육을 더욱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회의 미래 봉사는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성장, 신자들의 신앙 성숙, 이민사회의 기여, 세계 복음전파사역과 함께 교육기관을 더욱 발전시켜 교계지도자 양성, 민족정신의 계승, 이민사회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창립 30주년의 목회비전 4가지

새 이민사회의 물결(Wave)과 함께 임동선목사가 1970년 시작한 동양선교교회가 신앙의 청년기를 맞이했다. 창립 첫 10년은 이민이라는 특수목양터인 이민사회에 신앙의 씨를 뿌린 정착기(1970~1979)였고, 다음 10년은 한국과 세계를 향한 선교사명을 위해 힘쓴 성장기(1980~1989)


창립 30주년 임직예배

였다. 그리고 또다른 10년은 두 담임목사의 사임과 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를 드린 시련기(1990~2000)로 표현할 수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서기 2000년에는 임동선원로목사가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으며 8명의 부목사가 풀타임 사역을 맡아 헌신을 하고 있다.

행정담당 박종각목사가 8월 새 목회지 루이지아나 로 떠났고, 황재룡목사가 새 행정담당목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김용식목사, 김은철목사, 엄재헌목사, 정우송목사, 정운철목사, 주인석목사, 홍남표목사 등이 사역을 훌륭하게 담당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동양선교교회는 목회비전을 네가지로 제시했다.

1. 모든 교인의 진실한 성도화(True Membership)
2. 모든 성도의 건전한 성숙화(Healthy Maturation)
3. 모든 성도의 훈련된 제자화(Trained Ministry)
4. 모든 성도의 헌신된 선교요원화(Committed Missions)

선교방향은 "나가거나 보내자"로 정했다

그리고 설립 3대 목표를 위해서는
선교방향은 "나가거나 보내자"
교육방향은 "배우거나 가르치자"
봉사방향은 "지원하거나 참여하자" 로 정했다.

2000년 목회 방침은
1) 성경중심의 건전한 신앙육성
2) 차세대의 지도자 육성과 훈련
3) 지역사회봉사와 타민족과의 유대
4) 선교사 발굴과 훈련 및 선교지원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동양선교교회 목회자 및 각부서 책임 사역자는 다음과 같다.
▲전도사: 조영덕(대학부), 임은희(유년부), 이인검(선교)
▲교육전도사: 석희정(유아), 안임숙(유치), 임주원(초등), 이길용(소년), 정운송(한중)
조주영(영어중), 위문석(한고), 김추자(병원)
Tom Park(영어고등), 양승모(영어고등), 한희숙(소망), 조항목(한국학교)
▲교회 및 부설기관 직원
사무실: 김선자(사무), 백혜영(사무), 곽에스더(재정)
관리: 김영배(차량), 이병걸(차량), 서영학(야간)

오후 프로그램 원장: 기혜련
유치원 원장: 김문숙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남종성, 신선묵, 소현(사무)
도서관: 김소아

교인수는 제적수가 2214세대의 5650명이고, 매주 출석교인수는 3950명이다. 창립 20년동안 미주 최대의 이민교회였으나 2차례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교세가 줄어 들었다.

< 2000년 동양선교교회 제직 >

내용	수(명)	내용	수(명)
담임목사		전도사(풀타임)	3
원로목사	1	전도사(파트타임)	12
목사(풀타임)	8	시무권사	135
당회원	18	협동권사	64
시무장로	18	안수집사	101
원로장로	10	협동안수집사	11
사역장로	10	남집사	335
협동장로	12	여집사	560
휴무장로	1	총제직수	1300

시무장로와 사역장로 제도 실시

시무장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휴무후 재시무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2~3)

당회는 시무와 사역장로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택함을 받아 양무리의 본이 되고 영적 지도자로서 치리 감독자인 시무장로가 헌법에 의거 안식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을 받아 교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역장로 직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역장로의 정의
가. 시무장로가 정년 이전에 윤번제로 3년마다 시무가 정지된 장로.
나. 휴무후 시무 투표를 응하지 않은 장로.
다. 시무임기 3년을 전부 마친 장로.

▲사역장로의 직무
가. 교회 부서장직을 맡을 수 없다.
나. 예배의 기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다. 교회 각 부서에서 부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라. 구역 활성을 위해 교구장으로 임명받아 사역할 수 있다.
마. 교회가 필요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무장로의 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4조 장로의 시무 임기
장로의 시무 임기는 65세를 정년으로 하며 시무중 필요시 시무 투표를 한다.
1. 장로의 시무 연령은 65세를 정년으로 한다.
2. 시무 장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시무 임기 3년을 마친 장로는 1년을 휴무하며 9년 이상 시무할 수 없다.
4. 휴무 후에 재시무 투표는 공동회의의 투표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당회가 더욱 새로와지고 있고 치리에 생산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제57조 장로의 복직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1/3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하면 아래와 같이 조처한다.
1.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2.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 사직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사직 장로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임직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4.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잔여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51조에 준한다.

사역장로 윤번제 휴무순서는 장립 및 취임연도순으로 하고 있다. 그 수는 시무장로의 1/4로 하고, 장립 및 취임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하도록 했다. 새로운 사역장로 제도는 당회원의 권위를 높이고 당회원에게 휴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초교파 독립교회로 상회의 기능이 없이 당회가 최종 결정을 하므로 당회원의 권한과 책임이 어느 개교회보다 크다. 당회원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의견으로 1993년부터 시무장로로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현재 시무장로와 사역장로의 시무연한 등에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의견도 있다.

2000년부터 시무 및 사역장로제도를 실시한 후 당회가 더욱 새로와지고 있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더욱 생산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위원회 구성

2000년 1월 16일 창립 30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회장은 임동선원로목사가 맡고 기념행사위원장에 김성곤장로, 전체 총무에 강모세장로, 회계에 한긍리장로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1월 3일부터 15일까지 「부흥 2000-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라는 주제로 새 천년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강사는 임동선목사, 정장복목사, Bob Oh 목사 등으로 전교인은 새벽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30주년 기념 행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속에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기념행사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다.

2000년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고석희목사(뉴욕 지구촌 선교교회 담임목사)를 초청, 창립 30주년 기념 춘계 부흥회를 개최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갈 4:19)라는 주제로 열린 30주년기념 부흥회때 고석희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수리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씀을 전했다

4월 2일 주일 오후 4시 저녁 예배를 창립 30주년 준비를 위한 헌신예배로 드렸다. 김성곤장로 사회로 진행된 헌신예배는 한긍리장로의 기도와 4부 성가대의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 이날 박종각목사는 「Teamspirit」(출 17: 8-16)라는 제목으로 "교역자와 제직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치르는 30주년 기념행사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행사를 모두 7개로 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1. 천지창조 공연: 2000년 7월 21일 (금) 오후 7시 본당
2. 예수사랑 신생자 사랑 큰 잔치: 2000년 7월 23일 (주일) 본당
3. 창립기념부흥회 및 기념예배, 임직예배: 2000년 7월 30일 (주일) 본당
4. 장학금수여
5. Home Coming 환영예배
6. 임동선목사 설교집 출판 • 30주년 교회사 편찬
7. 지역인사 초청만찬

미주 이민 신앙의 꽃이며 열매

"동양선교교회는 미주 이민 신앙의 꽃이며 그 열매이다." 서기 2000년은 새 천년의 원년이다. 그리고 임동선목사가 한인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라는 축복의 땅에 이민교회를 창립 한지

30주년을 맞는 감사와 축복의 해이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표를 위해 5천여 성도들이 30년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온 성도는 새 천년과 21세기를 향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준비된 새 담임목사가 부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2000년 1월2일 주일 대예배 때 임동선원로목사는 「신년의 새로운 큰 꿈」(잠 29:1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 지구촌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이 동양선교교회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꿈"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임동선목사는 3월12일 주일 대예배 때 「교회 창립 30주년과 현재와 미래」(마 9:35~38)라는 제목으로 새 천년의 계획 및 비전을 밝혔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신앙의 바램을 제시했다.

21세기를 향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새해 새 아침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첫째, 교회 창립 30주년의 현재(1970~2000년)는

1. 선교: (1) 미국내 지교회 17개
 (2) 해외 지교회 17개
 (3) 선교사 25명
 (4) 세계선교연합회 가입교회 52개
 (5) 선교 협찬기관 7개
 (6) 30년간 선교회 지출총액: 1천만달러 이상
2. 교육: (1) 풀타임목사 1명
 (2) 풀타임 전도사 2명
 (3) 파트타임 전도사 6명
 (4) 주일학교 교사 40명
 (5) 배출된 인물: 목사, 전도사 50명,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미군장교,CPA, 국가 공무원 등 다수
 (6) 신학교 5 (미국, 러시아 2, 중국, 파라과이)
3. 봉사: (1) 이민가족 (2) 유학생 (3) 환자 (4) 극빈자 (5) 거리의 사람 (6) 젊음의 집 (7) 부녀자 (8) 마약치료소 (9) 태풍, 지진, 폭동 피해자 (10) 모국 수해 (11) 중남미 지진 (12) 준경찰서 설립 등
 지원금 총액: 50만달러 이상

둘째, 새 천년과 교회의 미래 (2천년도)는

1. 선교:
 (1) 교회내 전 기관이 선교에 우선을 둔다.
 (2) 전 성도가 선교하는 사람들로 교육 헌신하게 한다.
 (3) 선교 집회, 선교 세미나를 주최한다.

2. 교육:
   (1)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2) 행사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육한다 (전인적 교육)
   (3) 신생자 전도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3. 봉사:
   (1) 교회내의 어려운 신자를 적극 지원한다.
   (2) 지역사회의 활동을 활성화 한다.
   (3) 다른 소수민족과의 유대교류를 추진한다."

세계를 향한 선교 북한을 향한 선교를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미래를 향한 선교정책이 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현지인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원주민의 선교를 위해 신학교를 세우고 원주민 선교사를 양성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게 하고 있다.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령을 좇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한 선교, 북한을 향한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음악사역이 교회 성장의 주요 목회요소

"할렐루야 여호아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아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135:1)



1999년 연합성가대의 자선음악회

음악사역은 예배의 꽃이며 교회성장의 중요 목회요소이다. 특별히 성가대 사역은 예배를 돕고 성도들의 찬송생활을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성가대는 믿음과 열성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가득찬 대원들이 모인 곳이다. 성가대는 교회 창립때부터 음악수준이 높았고 숫적으로 대원이 가장 많았다. 현재 1부성가대 · 2부성가대 · 3부성가대 · 4부성가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이 이민교회의 음악사역을 헌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1부성가대는 헌신의 성가대이다. 신앙이 좋고 결속과 친목의 힘이 강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한번 성가대원이 되면 오랫동안 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2부성가대는 교회 창립 예배때부터 계속된 성가대로, 교회 역사와 함께 해왔다.

대원이 가장 많고 성가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를 위한 대표성이 강한 성가대이다. 3부성가대는 젊은 성가대이다. 30-40대가 주축을 이루며 헌신적이다. 4부성가대는 저녁예배를 위한 특별성가대로 하나님 찬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출석교인이 많은 동양선교교회 성가대 대원은 젊은층,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은사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가대는 정기적으로 헌신예배를 드리고, 수양회 음악세미나를 통해서 찬양음악의 눈을 높이고 있다. 해마다 모든 성가대가 참여하는 연합성가대는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온 성도에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다.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하나님을 더욱 높여 드리고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 그 사명을 다하는 음악사역

앞으로 교회 음악의 목표는 찬송교회가 되는 것이다. 음악교회가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여 드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감, 영성, 자유가 있는 교회의 성가대로서 음악사역의 기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2000년 음악부
1부 성가대 대장: 조영일
지휘: 홍순태, 반주: 김영혜(피아노), 심선희(올갠)
2부성가대
지휘: 최명용, 반주: 이호준(피아노), 임세은(올갠)
3부성가대
지휘: 최왕성, 반주: 박은하(피아노), 강혜전(올갠)
4부성가대
지휘: 이귀임, 반주: 임정선(피아노)
찬양팀
리더: 최왕성

홍순태 1부 성가대 지휘자는 "한가족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새벽부터 연습에 열성적이다. 젊은 분도 많고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최명용 2부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과 기쁨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모든 대원들의 헌신으로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리드해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왕성 3부 성가대 지휘자는 "20대부터 젊은 분들이 많고 음악적으로 잘 표현을 한다. 분위

기가 참으로 맑다"고 말했다.

이귀임 4부 성가대지휘자는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는 성가대에 고마울 뿐이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한길집사는

"처음 찬양인도를 시작한 것은 1986년이다. 당시 임병택목사님이 2부예배가 시작되기전 너무 쓸쓸하니 찬양인도를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다. 그후에는 다시 새벽기도회때 정운철목사님이 찬양인도를 하라고 해서 순종했다. 성가대 및 찬양인도를 통해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고 말했다.

▲정운철음악목사

"찬송과 음악의 삶이 생활속으로 들어오고, 신앙생활이 능동적이고 영적인 생활이 되도록 음악목회를 하고 있다. 전교인이 음악생활화와 찬양생활을 통하여 크리스찬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전도뿐

"전도폭발 훈련은 사과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14주의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드린 헌신예배 때 훈련생들이 한 체험적인 생생한 간증이다.

"전도는 사과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는것이다"



1988년 동양선교교회에서 가진 8차 전도자 클리닉에는 남가주 교계지도자 및 본 교회 제직들이 훈련을 받았다

1985년부터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되었고 창립 30주년을 맞는 2000년까지 모두 28기 훈련을 은혜속에 마쳤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하시어 전도폭발의 큰 사명을 허락하셨다. 15년동안 훈련을 마친 제직과 성도 수는 모두 1천명에 이른다. 전도폭발의 전문 사역자인 이병희담임목사 시절 전도폭발 훈련의 불이 붙었고 가장 많은 훈련생을 배출했다. 그후 침체기가 있었지만 전도폭발 훈련은 계속 되었고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도훈련 부장을 맡고있는 이 조장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전도폭발 훈련은 바로 교회부흥을 가져온다. 크게 부흥 성장한 데에는 전도훈련을 잘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전도폭발 훈련은 바로 영적 전쟁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전도폭발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도폭발훈련은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김인수전도사가 전도훈련부의 훈련 및 교육 책임을 맡고 있으며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2 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14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수료증 및 뱃지를 받고 다시 2명의 훈련생을 맡아서 14주간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전도폭발 제1기생으로 훈련을 받고 훈련자로 그리고 전도폭발부 부장으로 교육을 담당했던 김재권장로는 전도폭발 클리닉 (지도자 양육 프로그램) 및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송정명목사님이 처음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제1기로 김경태장로(소천)와 나, 임원희집사와 이귀임집사가 두팀으로 송정명목사님으로부터 16주간 (4개월)의 훈련을 받고 훈련자가 되었다. 그후 나는 직접 James Kennedy 목사의 훈련 센터에 가서 클리닉을 마치고 왔다. 시작과 함께 교회안에 전도폭발 훈련의 불이 붙었고 70여명이 2개반으로 나눠서 16주간 교육을 받았다. 전도폭발 훈련은 동양선교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13기까지 400명의 훈련생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훈련과정은 불신자의 집, 마켓, 미용실 등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부딪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불신자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때는 참으로 감격스럽다. 14주간을 주로 현장에 나가서 훈련자로부터 하나씩 배우는데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데는 상당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주로 집사님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다. 70세의 권사님이 힘든 시험을 거쳐 10개이상의 성경구절을 외우고 열심히 하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교회의 두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전도폭발의 열의가 식었다. 교회에서 전도폭발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처음부터 전도폭발 훈련을 지도한 송정명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16주 전도폭발 훈련을 도입, 1985년 3월부터 1년에 두번씩 실시해 왔다. 전도효과가 높아 교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총동원 주일 후 후속 양육자 훈련

전도폭발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총동원 주일을 중심으로 전도하여 신생자를 만드는 전도사역을 맡았고, 총동원주일 이후에도 신생자를 후속 양육하는 책임을 다했다. 신생자들이 영생을 확실하게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이를 위해 전도폭발부는 세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전교인 단기 전도 훈련 운동을 펴나갔다. 전교인 단기 전도훈련은 전교인이 전도하여 신생자를 만드는 일에 전도폭발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두려움이나 실수가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방법은 설교식이 아닌 강의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전교인을 위해 7회의 훈련기간을 정하고 4월 16일부터 이를 실시했다.



예수사랑 신생자 잔치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신생자들이 영생을 확실하게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다

둘째는 후속양육자를 훈련해 나갔다. 후속양육자는 기존의 전도폭발을 수료한 모든 수료자들과 본교회 장로들이다. 후속양육자는 7월 23일 총동원 주일에 처음 방문한 자들을 맡아서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양육했다. 후속 양육자를 500명으로 정했고, 2,3명의 전도대상자를 후속 양육해 나갔다.

셋째는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위한 기도후원을 했다. 전도는 영적 전쟁으로 기도 후원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전도자나 후속 양육자에 대하여 2명의 기도후원자를 맺어주고 새벽기도회와 중보기도모임에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다.

전도폭발부는 장진장로, 함재목집사, 홍남표목사가 총동원주일 책임을 맡아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해왔다.

영어예배부, 독자적 예산 운영

앞으로 영어예배부에 젊은 집사와 장로가 나올 것이다

1.5세 및 2세의 영어권 세대를 위한 영어예배의 비중이 커지면서 차세대를 위한 영어목회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찬양과 영어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단기선교, 새신자 환영, 음악회, 스포츠 대회 등 다양하고 알찬 신앙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다.


영어예배부의 예배 모습

영어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담당하고있는 황덕성안수집사는 "영어예배를 2000년 7월 본당에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출석 교인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헌금으로 재정의 독립을 이루었고 부흥성장하는 장단기 계획을 세웠다. 곧 영어예배 출신의 첫 집사가 나올 것이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1976년부터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황덕성집사는 중등부에서도 8년 동안 봉사를 했다.

장 진장로는 3번째로 영어예배부 부장을 맡으면서 크게 헌신하고있다.

"독립교회처럼 예산을 세웠고 매주 120명의 젊은 이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영어권 세대는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출석한다. 1.5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영어예배부의 집사, 장로까지 세울 것이다. 현재 이태규목사(유진 리)님이 참으로 큰 사명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계속 부흥을 해 나가고 있다."

영어예배부는 1991년 10월 20일 처음 노창수목사가 첫 목회를 담당했고, 1995년에는 이 요나단 목사, 1997년에는 김성학목사 그리고 2000년 4월부터 이태규목사(유진 리)가 전담 목사로 영어 사역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켜오고 있다.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서기 2000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동선원로목사는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라는 특별 메시지를 온 성도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또다른 3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길 기원했다. (복음의 샘, 2000년 여름호)

"30년전 이 땅에 동양선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창립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도행전적인 신약의 교회를 명령하시고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마9:35). 이것이 곧 우

리 교회의 표어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3대 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하나님께서는 처음 30여명으로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를 6천여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동양선교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여러 충성된 교우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단결하며 이룬 주님의 큰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에 그동안 안팎으로 있었던 역경과 시험 중에도 굳건히 십자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충성과 희생의 모범이 되셨던 여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근원을 이루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환상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부터 성령의 사역이 흘러 넘치고 말씀의 꽃이 피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성령의 사역이 흘러 넘치고 말씀의 꽃이 피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다

밀레니엄 시대로 진입하면서 선교, 교육, 봉사의 성숙된 비전과 목회철학에 근거하여 한층 진보한 동양선교교회의 전통을 다지는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공헌하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도와주며 후손들을 향해 교육을 아끼지 않는 사역들을 강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품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러한 아름다운 환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교우들과 교회 위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외부인사 초청기념 만찬회

2000년 7월15일 오후 2시~4시 외부인사 초청 기념만찬회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졌다. 한인사회 지도자, 교계인사, 단체장, 타민족 지도자, 정부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명을 초청,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축하와 대화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동양선교교회를 도와준 인사들과 단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니카라과 영사관과 리오단 LA시장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초청대상은

1. 동포사회 교역자, 선교기관과 기독교 봉사단체의 책임자
2. 타민족 교회 교역자 (백인, 흑인, 라틴, 아시아계 등)
3. 동포사회 인사
4. 미국사회 인사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등)
5. 교회 주변 이웃인사 등이었다.

전체 행사로 제1부는 예배를 드렸고 제2부는 만찬 순서로 진행했다. 그리고 제 3부는 OMC 30년사 비디오 상영, 찬양, 감사장 순서로 뜻깊은 기념행사가 되었다.

초청인사 모두에게는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드렸다. 행사를 위해 주인석목사,

김학진목사, 이조장로와 에스더, 마리아, 한나선교회가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영어예배부는 7월15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창립 30주년기념 Family Chapel Jazz Night를 주최했다. 영어권 교인들과 가족 이웃들이 한자리에서 음악과 함께 신앙의 한 울타리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다. 1.5세 및 2세들이 동양선교교회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한 자리였고 앞으로의 사명을 이야기했다.

3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는 교회홍보를 위한 특별 비디오를 제작했다. 15분짜리로 만든 비디오는 「Jesus is My Savior」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는데 담긴 영상은

▲초대교회와 같은 동양선교교회
▲선교교육봉사 목표를 세운 교회
▲세계선교를 꽃피운 교회
▲교육의 큰 열매를 맺은 교회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
▲21세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등이었다.

3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의 무지개처럼 협력과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특별히 30년 이미지와 인터뷰와 사진, 그리고 해설로 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30주년 기념행사위원장으로 1년동안 준비와 진행에 헌신적 봉사를 맡은 김성곤장로는 "10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봉사자에 돌린다. 임동선원로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당회원 제직 일반성도의 기도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감사해했다.

창립 30주년 행사는 임동선원로목사와 부목사, 당회, 제직회 그리고 교회 모든 부서가 1년동안 기도와 예배, 그리고 아름다운 협력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해왔다. 기념행사의 각부서 책임자들의 헌신이 계속되었고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기념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다.


만찬회에 참석한 외부인사들

창립 30주년 기념 「천지창조」 공연

2000년 7월21일(금) 오후 7시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회인 「천지창조」를 무대에 올렸다. 「천지창조」 음악예배는 1천여 성도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동선목사의 설교와 3부에 걸쳐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동양선교교회 오케스트라 반주, 연합성가대 합창에 김승주집사가 지휘를 한 이날 「천지창조」공연은 이귀임권사, 최왕성집사, 최명용집사가 각각 솔리스트로 영광의 찬양을 불렀다. 열린 음악회에서 연합성가대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줘 성도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창립 30주년 기념 「천지창조」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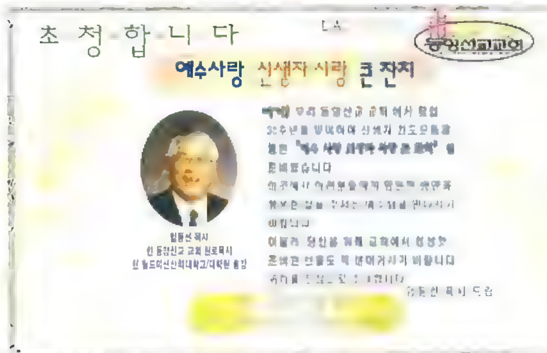
기념 음악예배는 1천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잔치였다

OMC 창립 30주년 연속 기념 행사중의 하나인 「종과 노래의 모임 음악회」가 8월 6일 주일 저녁 본당에서 열렸다. 글로리아 핸드벨 콰이어와 가브리엘 핸드벨 콰이어의 Ave Maria와 Trust and Obey 및 Annie Laurie가 은혜롭게 연주되고 천사 합창단과 소망 성가대 등 150여명이 출연, 은혜 충만한 음악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인 「천지창조」 공연을 위해서 임진수 음악위원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 이날 공연을 빛낸 분들이다.

▲핸드벨 콰이어 지휘: 김성희
▲천사합창단 지휘: 최왕성, 반주: 강자혜
▲소망성가대 지휘: 방연옥, 반주: 김혜영

2000년 예수사랑 신생자사랑 큰 잔치

"새 시대 새 헌신으로 새 부흥을 이루소서." 새로운 시대인 2000년을 껴안으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사역을 펴나갔다.



창립 30주년 행사 중 신생자 사랑 잔치 초청장

이를 위해 총동원전도훈련으로 신생자운동 (Begotten Believe Movement)을 전개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따라 새 생명운동, 혹은 신생자 운동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했다. 신생자란 말은 작정된 전도 대상자란 뜻으로 제자를 삼아(Make Disciples)라는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마 28:19-20). 이는 마치 어머니가 10달동안 아기를 뱃속에 간직했다가 10달 후 출산하는 것과 같이 한사람의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과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세 사람, 또는 한두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정기간(약 9개월)동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출산(결신)하는 것이다.

7차례에 걸쳐 신생자 전도를 위한 전교인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동양선교교회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중 가장 큰 비중을 둔 신생자 사랑 총동원 주일행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중에 성황리에 가졌다. 30주년 기념사업회는 7월23일 예수사랑 신생자사랑 큰 잔치를 마련하고 3월부터 신생자 전도 운동을 벌여나갔다. 교인 한사람이 3명 이상의 전도대상자인 신생자를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단계적 준비는

▲3월과 4월은 신생자를 기도로 품는 달,
▲4월과 5월은 신생자 작정의 달,
▲6월과 7월은 신생자 접촉의 달,
▲7월23일은 신생자 초청의 날 총동원주일로 정했다.


신생자 사랑 잔치에 오는 새 교인을 안내하고 있다

4월10일~22일 12일동안 신생자 작정준비를 위한 새벽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특별히 전도폭발부는 4월7일~5월12일 모두 7회에 걸쳐 신생자 전도를 위해 전교인 전도훈련을 실시했다.

신생자 전도운동의 조직은 대회장 임동선목사, 총진행 정우송목사, 위원장 조규철장로, 총무 김영만집사, 서기 전영식집사, 회계 한궁리장로가 맡았고, 교회의 전 부서가 함께 참여를 했다.

2000년 7월23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부에 걸쳐서 창립 30주년 기념 예수사랑 신생자사랑 큰 잔치를 기쁨과 축하속에 열었다. 이날 총동원 잔치의 강사는 임동선목사가 맡았고 신앙간증은 장욱조목사(할수있다 하신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작곡자)와 하덕규집사(가시나

무새 작곡), 정영숙집사(TV 탤런트)가 특별 간증순서를 맡았다. 이날 「신생자 사랑 큰 잔치」에는 4,124명이 참석을 했다.

신생자 전도운동을 통해 새 각오를 다지기로 마음을 합한 OMC 온 성도는 2000년 7월 23일부터 5부로 이어지는 릴레이 예배를 통해 결신자 179명, 등록자 215명을 맞아 새 출발을 했다.

신생자운동을 총지휘했던 정우송목사는 "신생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교인들이 불신자를 바라보는 영혼의 열정이 생겼고, 전도운동에 큰 열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 동양선교교회가 부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말했다.


선교회 회원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행사를 적극 도왔다

창립 30주년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옛집에 와서하는 반가운 설교로 전교인의 사랑을 받았다

창립 30주년기념 부흥성회 강사로 송정명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를 초청했다. 2000년 7월27일~29일 열린 부흥성회 주제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빌 3:14)라는 주제로 송정명목사가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온 성도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기념부흥성회였다.

▲7월 27일(목) 저녁 7시: 동행중에 있습니까 (눅 2:41-51)
▲7월 28일(금) 새벽 5시: 첫번째 기적 (요 2:1-11)
저녁 7시: 말씀에 의지한 삶 (눅 5:1-11)
▲7월 29일(토) 새벽 5시: 에벤에셀의 30년 (삼상 7:5-12)
낮 10시: 제직훈련, 좋은 제직 (행 6:1-7)
저녁 7시: 값진 유산 (신 34:7-12)

송정명목사는 옛집에 돌아와서 하는 반가운 설교로 전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도사 시절부터 동양선교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온 송정명목사는 "신앙적 고향인 동양선교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처음 임동선목사로 부터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2000년 7월 30일 오후 3시 내외인사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감사와 축복속에 드렸다. 임동선원로목사는 감사패, 공로패, 장학금을 수여했고 총무위원장 정중섭장로는 교회 30년 연혁을 낭독했다. 온 성도의 감사와 은혜, 그리고 찬양속에 드린 30주년 기념예배는 임동선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했다.

박종각목사 사회로 진행된 임직예배에서 임동선목사는 「모범적 신앙」(수 1:16~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창립 30주년의 날 새로 임직을 받은 충성스러운 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로장로: 한건수, 김상정
▲장로 장립: 정봉모, 김채광, 이병주, 전용석
▲안수집사 취임: 구경훈, 마사웅
▲안수집사 임직: 윤태중, 전광일, 최수남, 이병인, 김삼중, 안광석, 안의식, 오용기, 이상용, 남상현, 홍성식, 노인호
▲권사임직: 윤창섭, 김찬조, 정혜숙, 한영숙, 홍순옥, 윤경홍, 신애자, 전순자, 엄귀자, 이청자

창립 30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을 2000년 7월30일 주일 2부 예배후에 거행했다. 교회 장학금과 성도들이 낸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교역자 대상 장학금으로 나누어서 모두 23명에게 지급했다. 창립기념 장학금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장학금: 전광률, 최준영, 오미진, 김은혜, 황하나, 정카니, 주문경, 엄윤각, 홍성주, 정다운, 김세인, 윤수잔, 이란
▲교역자 대상: Giovanni Stewart, 석희정, 박인아, 조제이콥, 김로이, 박케니, 변형철, 임다니엘, 강낸시, 강지니

임동선원로목사는 50년 목회의 길을 두권의 설교집에 담았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원로목사 설교집 출판 기념예배를 드렸다. 임동선목사가 새로 펴낸 저서 2권은 다음과 같다.

▲환난날의 신앙 (네번째 설교집 • 쿰란출판사)

50년 이상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진리와 신앙 체험과 역경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살아있는 간증이 담긴 설교집으로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한다.

▲회고와 전망 (절기설교 모음집 • 쿰란출판사)

교회 절기와 국가 절기에 맞는 설교를 위한 절기 설교 모음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복음적 말씀증거, 전도자의 삶의 깊이와 체험이 담긴 예화가 가득 담겨있다. 저자의 해박한 성경지식과 체험적 확신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간곡한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성경속에 잊을 수 없는 세 단어

임동선목사는 2000년 7월30일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예배때 「잊을 수 없는 세 말씀」(삼상 7:7~12)이라는 제목으로 감회어린 설교를 했다. 이민교회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동양선교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지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성경속에서 잊을 수 없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창 22:14), "하나님이 준비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는 뜻입니다.

우리교회는 이제 30세의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얻어 더 큰 사역을 감당하여 오는 40주년, 50주년 기념예배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명은 세계 복음전파 사역과 교계지도자 양성 등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한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특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건태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

"첫째로 교회설립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교회이기에 축하드립니다.
둘째는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한 교회이기에 축하드립니다.
셋째는 OMC가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 21세기 새 천년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0년간의 준비의 삶이었고 그 이후가 인류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OMC의 30주년은 혈기 충천한 청년교회의 면모와 함께 좀더 겸허하게 낮아져서 시련과 역경, 모진 풍파를 다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것을 축하합니다."

▲박희민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30년은 강산이 세 번씩이나 변할 수 있는, 한인 이민사에서 결코 짧지 않은 햇수였습니다. 그동안 OMC는 한인 이민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외로운 자, 실의에 빠진 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을 뿐 아니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임동선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은혜스런 말씀, 그리고 헌신적인 사역과 온 성도들의 충성스런 봉사를 통해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며, 우리 한인 사회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 교회가 40주년 50주년을 향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옛 얼굴들, Home Coming Day

30년간 동양선교교회는
많은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리면서
만찬을 함께 했다

7월30일 오후 5시 제1교육관 2층에서 Home Coming Day 행사를 감격과 기쁨 사랑속에 가졌다. 지금은 동양선교교회를 떠나 있으나 지난 30년간 이름없이 수고하며 교회의 한 모퉁이를 담당했던 교역자, 제직, 일반교우를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재상봉 행사의 초청자는 전임 및 현재 목회자, 동양선교교회 파송선교사, 전임 및 현 시무장로, 그리고 특별초청으로 고 이천영목사, 고 이원희목사, 고 조갑수목사, 고 이정배장로, 고 이성은장로, 고 김여근장로의 사모 등이었다.

사랑과 감사의 한 마당인 Home Coming Day 에는 오랜만에 옛 사역의 얼굴들이 만나서 기쁨과 그때 그시절의 신앙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하나님앞에서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Home Coming Day 행사 초청자에게는 양복과 구두 등을 선물했고 숙박 및 항공, 관광 등 따뜻하고 아름답게 대접을 했다. 박종각목사와 정중섭장로가 책임을 맡아 행사를 잘 마쳤다.



홈 커밍행사에 참석한 목회자, 당회원 등이 기념촬영을 했다

▲창립 3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초청자

1. 전임 및 현재 목회자:

임동선(제1대 담임), 이병희(제2대 담임), 박광철(제3대 담임),
황재열(행정), 김상규(심방), 허경삼(심방), 이기홍(수석), 임병택(행정), 송정명(수석),
김건태(수석), 이중용(교육), 안용식(행정), 손주영(대학), 윤한두(음악), 차재완(교구),
이성원(대학), 황재룡(교구), 주명훈(교구), 임성진(교구), 노창수(교육), 채현철(고등),

전길성(수석), 최진기(교육), 송창현(대학), 송상현(대학), 강일준(교육), 허　번(선교),
이태종(청년), 윤경호(심방), 이청근(교구), 김명삼(교구), 서정인(고등), 홍동섭(교구),
안영호(행정), 이요한(대학), 김경환(행정), 이요나단(영어), 강선자(심방), 유순자(심방),
이양섭(심방), 김성학(영어), 박형준(선교), 한　진(교육), 정진우(청년), 찰스김(고등),
이유식(행정), 조영덕(대학), 정우송(교구), 박종각(행정), 김학진(청년), 홍남표(교구),
정운철(교구), 주인석(교육), 김은철(고등), 엄재현(교구), 이인검(선교), 임은희(유년부),
이태규(영어)

2. OMC 파송 선교사:
석태운(독일), 노찬호(밀라노), 박상연(이태리), 안동호(독일), 홍성호 홍현숙(파푸아 뉴기니아),
이두용(밀라노), 김진광(아리조나), 이정근(밀라노), 백동영(독일), 강두호(파라과이),
한평우(로마), 최창범(밀라노), 박상연(이태리), 조원하(중국), 장성일(YWAM),
김영희(중국), 임삼용(아리조나), 황선익(러시아), 강성구(독일), 이의홍(중동),
김용식(콜롬비아), 조영근(파라과이), 김재선(에콰돌)

동양선교교회 옛 교인들이 한자리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

3. 전임 및 현재 시무장로:
김용서, 한건수, 명재덕, 박천흠, 김주영, 오해훈, 한인남, 홍순웅, 이재권, 강영구, 박계로,
조웅래, 김병곤, 김재권, 오수남, 오철훈, 정문섭,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안정현, 조규철,
신윤철, 김광락, 온성철, 이성호, 방조영, 백영두, 백형권, 조인식, 윤근섭, 김용일, 오수훈,
김동규, 이건기, 탁찬효, 신상우, 조상희, 조정현, 김광돈, 임진수, 황종구, 김명균, 정중섭,
김석환, 김지수, 김성곤, 김상정, 임스티브, 노재희, 백윤조, 엄한광, 김기성, 홍성환,
김중훈, 장　진, 김영재, 조준구, 김덕영, 조영일, 노성찬, 박승원, 강모세, 신병모, 한긍리,
김세웅, 이　조, 한승수, 강모세

준비책임을 맡았던 정중섭장로는 "창립 30주년의 홈 커밍 행사는 참으로 그 의미가 컸다.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시던 모든 분을 모시고 옛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 등 교회를 사랑하시던 분들이 한자리에서의 만남은 참으로 사랑이고 감격적이었다. 앞으로 5년, 10년에 한번씩 홈 커밍 행사를 하기를 바란다. 교인중 한분 두분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가주 한국학원에 5만달러 지원

2세 교육기관인 남가주 한국학원이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임동선원로목사는 재정 지원을 당회에 요청했고 당회가 이를 허락, 2000년 9월 남가주 한국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5만달러를 전달했다. 동양선교교회는 우리말 교육기관인 남가주 한국학원에 초

창기부터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새로운 천년과 창립 30주년의 성년으로 더욱 부흥 성장하기 위해 예배시간을 조정했다. 2000년 9월3일부터 변경된 주일 예배시간은 다음과 같다.

▲1부예배: 오전 8시-본당
▲2부예배: 오전 9시 45분-본당
▲3부예배: 낮 12시-본당
▲4부예배: 오후 2시(영어예배)-본당
▲저녁예배: 오후 4시-본당

창립 30주년을 맞은 OMC는 새 목회의 시대를 열어갈 새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20년간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던 백영두장로는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로 2000년 6월 14일 백미섭권사와 함께 출발을 했다. 백영두 선교사는 우카룸빠 국제초등학교를 새로 짓는데 측량하고 설계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건축기술을 가르치는데 앞으로 3년간 더 체류하게 된다. "현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젊은 선교사와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감사하고 있다"고 백영두선교사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중에 말했다.


백영두선교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원주민과 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새 천년을 주도해 나가는 이민 교회

새 이민사회에 신앙의 횃불을 높이 밝힌 동양선교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모세와 같이 새 이민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제2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꽃피우게한 원로목사의 뒤를 이어 새 천년, 새 인물, 새 목회, 새 복음의 시대를 열어갈 새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동양선교교회는 든든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세워나가기 위해 장단기 선교정책과 2세교육 정책, 구제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 동양선교회라는 신앙공동체는 이제 50년, 100년을 향해 더욱 성장해 나갈 이민 교회로서 30년의 지난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서 사명을 다짐하고 새 미래를 위해 나갈 때가 왔다. 창립 30년은 해외이민 역사상 이민자의 정착을 위해 큰 발판을 마련한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히 웨스턴가에 교회를 세운 것은 역사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선교에 성공을 했고 2세교육의

큰 역할을 맡았다. 웨스턴가는 이미 동양선교교회 타운, 동양선교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학교, 노인 아파트, 노인회관, 병원 등을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황재룡행정담당목사는 "웨스턴가에는 동양선교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타운이 이미 형성되었다. 교회와 커뮤니티는 하나로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도 짓고 노인 아파트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면 우리는 다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세계를 향한 꿈의 지도자 양성

1.5세, 2세를 위한 영어예배는 재정적인 자립과 함께 신앙적 가치관 정립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목회 9년째가 되는 영어예배는「교회 안의 또하나의 교회」로서 꾸준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해가고 있다. 매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리는 영어목회는 동양선교교회 한국어 목회와 함께 1.5세 및 2세를 위해 복음사역을 맡고 있다. 현재 패밀리 채플은 이태규목사(유진 리)가 전담을 하고 있으며 숀 리목사(상담)가 케빈 조목사(찬양인도)와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었고 영어목회의 임직자 피택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 1세를 위한 한국어 목회와 2세를 위한 영어목회가 함께 성공적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영어예배 목회자 및 담당장로가 헌신적인 사역을 맡고 있다.

130명의 영어권 젊은이들이 본당에서 주일예배를 오후 2시 은혜속에 드리고 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유진 리담임목사는 매월 목회계획을 세워서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잘해나가고 있다. 특별히 영어예배는 영상예배의 스타일을 가미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다.

멕시코와 태국에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세계선교사역의 한축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중언어 이중문화 목회를 함으로써 영어권의 신앙적인 가치관 정립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영어부담당 이태규목사(유진 리)는 "미국목회와 한국목회의 중간에 새로운 영어예배하는 목회로서 두 문화를 잘 이해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목회방향을 정하고 있다. 미혼자 목회, 부부목회, 가족목회라는 그룹목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나간다. 한인 이민자는 부모와 자녀가 언어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영어목회는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한 가족이 되도록 목회 방향을 정한 것도 특징이다. 선교를 잘하는 영어목회, 봉사를 많이하고 교육을 충실히 하는 영어목회의 길을 향해 그 꿈을 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배

2001년 9월 시작된 열린 예배, 정종원목사의 사역과 담임목사의 큰 관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청년기를 맞은 동양선교교회가 미래 목회 사역을 위해 열린 예배를 시작했다. 2001년 9월 30일 주일 낮 12시 3부 예배때 교회 부흥과 젊은이를 초청하는 열린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배」라는 목회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열린 찬양예배는 정종원목사가 사역을 전담하고 있다. 열린 예배는 정종원목사를 중심으로 OMC밴드와 코러스, 성도들이 함께하는 찬양과 경배, 독창, 주제 영상이 담긴 비디오가 동원되는 등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 층 교인이 크게 늘고있다.

당회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더욱 새로와져야 한다"면서 2000년 9월 10일 열린예배위원회를 조직한후 1년간 다시 기도를 드렸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 새 시대의 변화를 찬양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열린 예배는 기존의 예배의식에다 찬양을 가미한 형태로 예배로의 초대, 찬양과 경배, 특별찬양, 결단의 찬양과 성도 교제시간을 광고가 아닌 개교인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열린 예배날 정종원목사는 "새 시대를 감당할 새 그릇이 되기위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나 문화적으로도 열린 예배를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대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교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과 영광 능력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실상을 본 사람들의 가슴에서 시작되도록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전했다. 열린 예배를 본교회가 시작한 후 젊은이의 출석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성도들에 은혜, 그리고 강준민담임목사의 특별한 관심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젊은이를 위한 열린 예배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예배이다

열린 예배사역을 담당하는 정종원목사는 2001년 7월에 부임했다. 한국에서 임마누엘 선교단(1987-1994) 사역으로 7개의 음반 발표를 통해 예배음악이 널리 알려져 있다. 1995년은 「꿈이있는 자유」란 앨범을 냈고,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정종원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과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했고 1994년 인천에서 효실교회를 개척, 목회를 해왔다. 열린 예배의 시작과 성장을 위해 한승수장로가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다.

한승수장로(열린예배위원회 위원장)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것을 못느끼는 젊은이에게 찬양과 경배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말씀을 듣게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노년층이 많고 젊은층(20대~40대)을 끌어안기 위해서 현대교회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중심으로 한 열린 예배의 시작은 젊은 교회로서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고 감사해 했다.

황재륭행정담당목사는 "오랜 준비끝에 탄생한 열린 예배가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영상,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이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는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의 새장, OMC 홈페이지 오픈

홈페이지 오픈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담당하는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WWW.OMC.ORG를 오픈했다. 당회는 2001년초부터 초고속 정보 통신컴퓨터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해 왔고 강준민 새 담임목사 취임 후 오픈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선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 OMC는 강준민담임목사의 매주일 설교 및 칼럼, 새벽기도회, 교회소식, 지교회 등 세계선교지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영상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자랑이다.

강준민담임목사의 매주일 설교를 동영상으로 띄우고, 담임목사의 저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전산 담당사역 팀이 홈페이지의 Networking, Data Base, Up-grade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젊은이의 미래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WWW.OMC.ORG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어목회를 위해서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역도 계속 연구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omc.org)

성도중에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많아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는 OMC방송과 함께 기술과 내용면의 개선을 통해 이민교회를 리드하는 홈페이지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나 거리문제로 직접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새시대 새목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되었다.

전영식집사(홍보출판부장)는 "1988년부터 홍보출판부에서 오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다. 앞으로 신앙적인 교회 신문으로 역사가 깊은 「복음의 샘」을 정기적으로 발행, 당회장님의 설교 및 목회 방침, 선교 교육 봉사의 뉴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체험, 각 지역교회 성경공부 등을 자세히 담도록 팀웍으로 일하고 있다. 온 성도가 참여하는 신앙적으로 유익한 신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더욱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홍보사역을 말했다.

제4대 담임목사에 강준민목사 취임



강준민목사와 사모가 임동선원로목사에게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제4대 강준민담임목사가 취임했다. 1998년부터 원로목사, 온 제직과 성도들은 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젊고 능력있는 강준민목사를 보내 주셨다.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로고스교회 강준민담임목사를 새 당회장으로 결정했고, 공동총회는 2001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강준민 제4대 담임목사는 2001년 12월 1일 부임했다. 그리고 12월 2일 주일 오후 4시 교계인사, 초청인사, 1천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담임목사 강준민목사 취임예배를 축복과 은혜가운데 본당에서 드렸다. 황재륭행정담당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강준민담임목사 취임예배는 열린 예배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신병모장로의 기도와 동양선교교회 연합성가대의 「예루살렘의 문」이라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한평우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는 「쓰임 받는 암소처럼」(삼상 6:1-16)이라는 제목의 취임 축하 설교를 했다. 임시당회장 임동선원로목사는 새 담임목사와 교회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았다.

2001년 12월 2일 1천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4대 강준민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축복속에 드렸다

강준민목사는 "담임목사로 청빙받게 된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의 사명임을 확신하고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 동양선교교회 헌법을 준수하고 복음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굳게하며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성도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고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서약을 했다. 임동선원로목사는 강준민 새 담임목사에게 치리권 부여 및 공포를 했다.

강준민목사는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 저에게 동양선교교회를 맡기심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십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임동선목사님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충성된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선교에 앞장 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면서 「기도로 묵묵히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능력, 헌신과 지혜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척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새시대를 아름답게 창조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했다.

특별초청을 받은 천영주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Dr. Lane Scott(아주사 퍼시픽대학 신학대학), 석태운목사(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하용조목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권면의 말씀 및 축사를 해서 취임예배를 더욱 빛냈다. 이날 강준민목사가 개척 시무하던 로고스교회의 남성중창단이 축하의 노래를 선사해서 감격속에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예배는 김건태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의 축도로 은혜와 축복 속에 마쳤다. 제직과 온성도는 교육관에서 축하만찬을 갖고 모두가 기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랑과 눈물 그리고 감격의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감사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취임예배였다.

영성운동으로 이름난 목회자, 글 잘 쓰고 설교 잘하는 새 담임목사 취임

▲ 강준민 새 담임목사 약력
- 서울신학대학
- Azusa Pacific University, MA/M.Div
- Talbot Theological Seminary, Th.M.
- US Army Reserve Chaplain
- KOSTA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합회) 강사
- 미주 두란노서원 큐티 세미나 강사
- 월드미션대학교 교수
- LA 로고스 교회 담임목사 역임

▲ 강준민목사는 영성운동으로 이름나 있고 글 잘쓰는 목회자로서 훌륭한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많이 펴냈다. 그동안 발간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 뿌리깊은 영성
- 뿌리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 묵상과 영적성숙
- 독서와 영적성숙
- 자아 발견과 영적성숙
-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 사랑과 열정으로 쓴 목회서신
-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성경 암송
-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행복
-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은혜가 충만한 축복공동체

강준민담임목사는 취임예배가 끝난 다음날인 2001년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기도의 부흥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1일간 특별기도회를 인도했다. 매일 새벽 5시 20분부터 시작된 기도회에서 강준민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되어 완성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만나도 새벽에 내려주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기도회를 위한 사역을 더욱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새벽기도회는 매일 1천명 이상의 성도가 출석해서 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해서 더욱 새로와 지고 있다.

강준민담임목사는 2002년 목회계획을 「은혜가 충만한 축복공동체」로 정했고 동양선교교회 제1차 5개년 목회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2002년: 은혜가 충만한 축복공동체
▲2003년: 새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공동체
▲2004년: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학습공동체
▲2005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공동체
▲2006년: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공동체

강준민목사는 치유와 은혜, 인생의 역전승, 축복 및 학습공동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자주한다. 그리고 설교제목이 하나의 문장으로 그 안에 삶의 지혜와 신앙 등 아름다운 내용을 가득 담는다. 어느 수필과 같은 설교제목인 경우가 많다. 영성전문가의 목회자로서 깊이 생각하는 내용,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결론으로는 항상 미래, 희망, 승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서 성도들에게 꿈과 의지 미래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영성의 글을 많이 쓰는 목회자, 깊은 사색의 주인공, 젊음에서 나오는 목회철학, 고난을 극복한 삶의 깊은 연못에서 나오는 설교를 매주일 하고 있다. 어려웠던 때를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의 내용이 설교에 담겨 있다.

부 록

임동선목사의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학계에서 본 동양선교교회 30년

동양선교교회와 세계선교... 김찬희교수

동양선교교회와 한인사회... 유의영교수

동양선교교회, 비전과 방향... 신선묵교수

동양선교교회 연혁

역대 당회장

역대 목사

역대 전도사

역대 시무장로

역대 시무권사

역대 안수집사

역대 서리집사

연도별 세례자 및 유아 세례자 명단

연도별 교인 출석 집계표

연도별 교역자 및 제직 증감표

교회 재산현황

연도별 예산 및 실적

연도별 선교, 교육 예산 및 실적 집계

연도별 각 선교회 임원 명단

연도별 성가대 임원 명단

역대 주일학교 임원

역대 중, 고등, 대학부, 청년부 임원

역대 선교부 임원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주소록

동양선교교회 선교사

역대 봉사위원회 임원

교구 편성표

교구 조직표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연혁

신학대학원 졸업생 현황 및 모집학과

동양선교교회 도서관 역대 사업

동양선교교회 도서관 역대 임원

동양선교교회 부설 로스앤젤레스 기독상조회 연혁

헌법

부 록
임동선목사의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따라서

-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진 섬소년
- 할아버지 엄한 교육받고 자라
- 할머니의 역사인물 이야기듣고 큰 뜻세워
- 황금산에 올라 "넓은 세계로 나가겠다"
- 1940년 온 가족이 북만주로 이주
- 백두산 인근 산속에서 개척자의 삶
- 만군(滿軍)에 들어가 항일 독립운동
-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음성
- 형님과 주님의 길, 서울신학교 입학
- 오대산에서 금식기도중 불의 성령 체험
- 임동선전도사의 첫 목회지 여주성결교회
- 6 • 25를 맞아 성도와 남으로 피난 길
- 1951년 감격적인 목사안수
- 수복후 다시 여주성결교회로
- 임동선목사 가정의 아브라함 임수열전도사
- 1954년 공군 군목으로 11년 군생활 시작
- 이승만대통령 앞에서 의(義)로운 설교
- 군목으로 1958년 처음 미국 유학길
- 초대 공군 군종감, 대령으로 제대
- 2번째 미국 유학,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정착
-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 신학석사 학위의 기쁨을 사모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따라

미국 유학중에 새 이민사회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임동선목사는 하나님께서 오랫 동안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이민 목회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과 만주에서의 삶, 그리고 서울신학교 졸업과 첫 지방목회, 공군이라는 특수 목장에서의 11년간 사역의 길을 인도하셨고 임동선목사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후 미국으로 임동선목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5년간 어렵고 힘든 유학생활을 통해서 미국과 이민사회를 배우게 했고, 새 이민자를 위한 미주 목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다.

1970년 올림픽가 코리아타운에 동양선교교회를 세우고 한달동안 교인이 2배로 늘어나게 하셨고 그후 미주 최대 이민교회로 부흥 발전을 시켜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임동선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속에 살아왔다. 특별히 한국에서 그의 삶은 공군 군종감으로 들어 쓰셨고, 47세의 나이에 동양선교교회를 세우게하신 후에는 미주에서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 일선에서 뛰게 하셨다. 세계선교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8남매중 6번째로 태어난 섬소년 임동선 자연을 벗하며 큰 꿈을 가득 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임동선목사의 삶은 5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제1기는 청소년시절 꿈과 시련
제2기는 서울신학교 졸업과 민간목회
제3기는 공군군목으로 특수목회
제4기는 교회 창립과 이민목회
제5기는 성역50주년과 세계선교

동양선교교회 창립 30주년과 함께 임동선목사의 삶의 발자취, 한국에서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가 본다.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진 섬소년

임동선목사는 일제시대인 1923년 11월13일,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大阜面) 동리(東里) 1946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임근회씨와 어머니 홍정옥씨의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다. 임동선목사가 태어난 대부면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 마을이다.

지금은 대부면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으로 변했고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통하는 다리가 놓여있다. 40리 길이나 되는 시흥군과 부천군을 가로 지르는 시화호(始華湖)가 임동선목사가 태어난 집 앞바다가 되었다.

옛 대부면은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해왔다.

늘 푸른 바다와 작은 산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에서 태어난 임동선 소년은 자연을 벗하며 꿈을 가득 품고 자랐다. 임동선목사의 생가 뒤에는 대밭이 이어지고, 그 뒤 작은 언덕에는 감나무, 밤나무, 석류, 호두나무, 대추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집앞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집으로 부터 2백미터 서쪽 언덕에는 대부감리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뒤쪽 저 멀리로는 황금산(黃金山)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진 산이 있다.

어린 소년시절 임동선 소년은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 망둥이를 잡으러 뛰어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랐다. 대부초등학교를 다닐때에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 학생이었다. 공부를 잘했고 특히 도의 과목 성적이 좋았다.

임동선목사는 미국에서 동양선교교회를 창립, 목회에 성공한뒤 1990년초 모교인 대부초등학교를 방문, 후배들에게 "너희들도 꿈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준 적이 있다. 그 후 임동선목사는 대부초등학교 꿈나무들에게 계속해서 장학금을 보내 주면서 학교 사랑 고향 사랑의 마음을 표시했다.

손자의 장래를 위한 엄한 할아버지의 「사랑의 매」 임동선목사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할아버지"라는 말을 한다

할아버지 엄한 교육받고 자라


임동선 섬소년이 어린시절을 보낸 생가, 새로 지어진 집이다

어린 시절 임동선목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조부이시다. 엄하신 임남수 할아버지로 부터 배움의 눈이 떴다.

석천(石泉)이란 호를 가지신 할아버지는 대부면에서 유일한 학자이셨다. 할아버지는 명필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글을 써서 동네 농악대에 주었다.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시고 주위 분들에게 선물을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글을 마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요즈음에도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배움과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할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한다.

임동선목사가 태어났을 때에는 암울한 일제시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나라없는 슬픔에 청년들은 꿈을 접고 살 때였다. 하지만 동네의 댕기딴 총각들은 희망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공부를 하던 기억을 임동선목사는 갖고 있다.

임동선목사는 6살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천자와 동문서습 · 소론을 배우다가 8살이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데도 할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다. 할아버지는 종아리채를 가지고 사건에 따라서 때렸다. 어떤 때는 참으로 모질게도 때리셨다. "오늘 배운 천자문을 암송해라", "너무 물장난이 심하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한다" 면서 때리시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커서 잘되라고 때리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시면서도 할아

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어려서 매를 맞을 때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안죽나"하고 생각한 적도 여러번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오늘에 와서 "할아버지의 매는 하나님의 매질이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매질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산신령같이 생기셨는데 근엄하시고 항상 가족과 자녀를 생각하시는 분이셨다. 어려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할아버지를 임동선목사는 오늘도 감사해하고 있다.

어린 소년 임동선은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를 잘했다. 기억력이 남 달랐고 총명하기로 마을에서 이름이 났다. 초등학교 때 성적은 39명 중 항상 2등이었다. 1등은 여학생이 차지했고 임동선 소년은 2등으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모두 훌륭하신 할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고향 대부동에는 임대열 둘째 형님이 살고 있다. 지금은 대부동이 포도농사로 유명해졌고 바다 40리를 메운 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가 되었다.

임대열 형님은 2001년 4월 인터뷰때"어릴 때 동생 동선은 울기도 잘하고 장난도 심했다. 학교 다니면서 부터 조금 점잖아 졌다. 공부고 운동이고 욕심이 많았다. 그리고 어려서 부터 남 돕기를 좋아 했다"고 어린 시절의 임동선목사를 말했다.

고향 대부동에서 우체국장을 하고 있는 이종 사촌동생 문주희장로는 큰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대부동에서 "임동선목사는 큰 꿈을 가지고 고향을 빛낸 인물"이라고 말했다. 문장로는"임동선목사는 제때에 정기교육을 못 받았지만 머리가 좋고 노력형이다. 임동선목사는 애국정신, 독립정신이 투철하고 피나는 고생과 노력을 하는 것을 어려서 부터 보아왔다"고 회상했다.

엄한 선비 할아버지, 속이 깊고 유식했던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받고 자란 어린 섬소년 임동선

할머니의 역사인물 이야기듣고 큰 뜻세워

할머니 또한 훌륭하신 분이셨다. 임동선 소년은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음으로는 할머니를 손꼽는다.

영흥도에서 시집을 오신 할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할머니는 삼국지, 수호지, 옥류몽 등 소설을 다 읽으셨고, 어린 손자 임동선에게 내용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려 주셨다. 임동선 소년은 어려서 부터 할머니로 부터 좋은 역사소설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생각하는 것이 남보다 깊었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현덕이 어떻게 중국대륙에서 그 용맹을 떨쳤는지를 들으면서 자신도 큰 뜻을 펴나가겠다고 생각했다. 소설의 결론은 인과 응보, 악의 씨를 심으면 악의 씨가 나온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바로 할머니에게 배우면서 자랐다.



임동선목사 할머니

임남수 할아버지는 72살 때 돌아가셨다. 총명한 어린 손자 임동선을 그렇게 사랑하고 엄하게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임동선 소년은 이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많이 울었다. 그런데 큰 형님도 3일후에 돌아가시어 칠일장에 상여가 둘이 나갈 정도로 슬픔이 찾아왔다. 장례식에는 온 섬사람이 다왔다. 친척들이 인천 서울에서도 왔다. 모든 사람이 울고 슬퍼했지만 할머니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끝내 울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모두가 의아해

했다. 그런데 장례식을 다 마치신 후에 할머니는 통곡을 하셨다. 참으로 슬프게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보았다. 훗날 할머니는"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나마저 울면 장사를 어떻게 치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 깊고 높은 할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 임동선 소년은 섬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선비인 할아버지와 속이 깊고 유식했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지금도 항상 공부하는 것, 생각이 깊은 것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 배운 효도를 평생동안 실천

임동선목사의 아버지 임근회씨와 어머니 홍정옥씨는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셨다. 엄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다. 임동선목사는 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이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조용하면서도 성실하신 부모님이셨다. 아버지는 술 담배를 안하셨는데 무척이나 부지런하셨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끼를 꼬으시고 소여물을 주신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

내가 태어난 이 섬을 떠나서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겠다는 꿈이었다

임동선목사가 아버지께 배운 가장 귀한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효도였다. 부천군에서 가장 효자로 이름이 나신 분이 바로 아버지 임근회씨였다. 어린 소년 임동선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자라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임동선목사는 항상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효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훗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

임동선 소년은 어려서 부터 의욕적이고 욕심이 유난히 많았다. 대운동회때 달리기를 해도 절대로 남에게 지지를 않았다. 어린 친구들 사이에선 항상 왕초노릇을 했다. 남에게 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 수열이 형님과 씨름을 해도 지지를 않았다. 만약 형님에게 지면 이길 때까지 형님에게 졸라대서 씨름을 하자는 바람에 수열이 형님은 동생에게 일부러 져준다.

형님은 그때 인천시내 과자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형님을 보러 자주 육지인 인천으로 나갔다. 섬 소년 임동선에게 인천은 참으로 큰 도시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인천 애관극장, 송죽극장, 동보극장에도 가보았다.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놀라기도 하면서 커서는 형님처럼 큰 새 세상에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때도 독서만은 열심이었다. 푸르다크의 영웅전, 히틀러의 저서인 Mein Kamp(나의 투쟁), 일본의 문예춘추 그리고 이광수의 흙, 사랑, 심훈의 영원의 미소 등 소설을 읽었다. 어린 소년 임동선이 이때 품은 꿈은 "나도 내가 태어난 이 섬 대부면을 떠나서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겠다"는 것이었다.

황금산에 올라 "넓은 세계로 나가겠다"

집앞에서 놀다가 마을에서 제일 높은 황금산에 오르면 80리 뱃길의 인천이 보였다. 그래서 임동선 소년은 인천을 보기 위해 대부면 황금산을 자주 올랐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갔다. 어린 임동선 소년은 먼 세계, 앞으로 펼쳐질 새 세상을 동경하기 위해서 뒷산에 오르는 때가 많아졌다. 배들은 인천을 떠나서 대부면을 지나 다시 당진으로, 서산으로 간다. 저 멀리 가는 배들을 보면서 자신도 저런 배를 타고 먼 세계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10대 소년 임동선이 이 때에 품은 꿈은 "첫째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살겠다. 멀리 떠나서 살겠다. 두번째는 무인, 즉 장군이 되겠다. 김유신장군, 임경업장군, 남이장군과 같은 이름난 무인(武人)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설움, 압박에서 독립을 찾기 위해서는 장군이 되어야 겠다고 늘 생각을 했다. 임동선목사가 훗날 공군 대령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목회를 한 것은 어쩌면 어릴때의 무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새 세계를 동경하던 그 꿈이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미국이라는 새 땅에서 이민목회, 세계 선교를 하는 동양선교교회를 세워 어릴 때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의 대부동 황금산은 시화방조제를 만드느라 산을 깎아 내려서 옛모습이 아니다. 임동선목사는 고향이 발전하고 관광명소로 변한 것은 좋아 하면서도 옛 황금산 모습이 변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고향 방문길에 끝내 아쉬워 했다.

큰 배를 타고 넓은 세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 가겠다는 섬소년, 한때는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갖기도 했었다

1940년 온 가족이 북만주로 이주

임동선 소년이 자라는 동안 할아버지는 항상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탄압을 받는 것을 분개해 하셨고 "빨리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때문에 일본경찰이 집으로 조사를 나왔다. 할아버지는 자주 "나라 잃은 민족이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하셨다. 그리고 한 때 부농으로 사시다가 집이 기울어져서 소작인으로 사시는 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계셨다. 넉넉치못한 농사로 가정도 어려웠다. 여기다가 집안에서 민족운동을 하는 이가 나오자 일본경찰의 감시는 날로 더 심해졌다. 할아버지는 요시찰 인물이셨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아버지와 임대열 둘째 형님은 이제 이 섬에서 더 살고 싶지가 않다며 함경도 청진으로 이사를 갔다. 때는 1940년 여름이었다. 일본인의 감시가 적고 농사를 지을 좋은 땅을 찾아 가족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

청진에 얼마있다가 강원도 창도로 옮겨갔고 다시 중국땅 왕청으로 이주를 했다. 이때 임동선 청년의 나이는 18살이었다. 특별히 왕청으로 가게 된 것은 임동선목사의 넷째 형님인 임수열 형님 친구가 그곳에서 경찰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부면에서 살던 임동선목사의 가족은 일제 시절 중국 북간도인 왕청 (현 춘양촌)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했다. 온 가족은 그곳에서 다시 개간 할 땅을 찾아 깊은 산으로 들어

갔다. 왕청현 춘양촌 우정구톤이라는 장백산속에서 살았다.

백두산 인근 산속에서 개척자의 삶

만주는 그 당시 개척 할 땅이 많았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은 땅을 개간할 수가 있었다. 이미 만주에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와서 살고 있었다. 임목사 가족은 만주의 춘양촌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장백산 속에 움막을 짓고 땅의 주인이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임동선목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대자연을 벗하며 살았다. 우리가 살던 산속은 낮에도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는 곳이었다.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한 통씩 잡아온다. 산에 가서 꿀을 따고 고사리를 채취하고 버섯과 칡을 캐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산포도를 따고 어느 외로운 섬에 가서 사는 사람처럼 외부와 연락없이 흙을 벗하며 살았다."

삶의 새 터전을 위해 온 가족은 북만주로 이주 장백산 속에서 개척자의 삶 시작

임동선 청년은 건장해서 사냥이나 농사를 남보다 잘 지었다. 밭에는 콩, 옥수수, 호박 농사를 지었다. 꿩고기와 산 짐승고기는 집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만큼 임동선 청년은 사냥을 잘했다.

임동선목사는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한다.

> "인간은 고향이 따로 없다. 사는 곳이 고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만군(滿軍)에 들어가 항일 독립운동

그런데 한번은 춘양에서 한복 입은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과 김일성 항일부대가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젊은 대한의 청년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청년 임동선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도 나서서 저들과 함께 독립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임동선 청년은 자원해서 간도특별부대에 입대를 했다. 만군(滿軍)에 소속된 부대였고, 이때 만군에는 백선엽, 김백일장군 등이 있었다. 간도특별부대는 한국사람으로만 구성된 부대였다. 대장만 중국사람이고 대원은 다 한국사람들이다.

그때 한국이 독립했을 때 건국의 초석이 된 사람과 함께 항일군사 독립운동을 함께 벌였다. 청년 임동선은 봉천으로 나와서 만주군 육군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목단강 아래 영안특설부대에서 해방을 맞았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자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논의했

다. 가족 모두는 한국이 독립을 했으니 귀국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때 형님 임수열은 아직도 나라가 어수선하니 "나와 동선이 둘이서 먼저 떠나고 다음에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결정을 했다. 임수열 형님과 임동선 청년 둘만이 혜산진을 거쳐 길주를 지나 강원도로 들어 왔다. 만주에서 살 때에 임채봉 작은 누이는 그곳에서 시집을 갔다. 식량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시집 갈때에 베개 하나를 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임수열 형님과 청년 임동선은 15일간 걸어서 서울까지 왔다.

임채봉 작은 누이는 1980년 임동선목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40년만에 상봉했고 지금은 임동선목사의 초청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을 와서 권사(임정자)로서 동양선교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해방과 함께 가족과 다시 서울로

해방과 함께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청년 서울로, 진해로, 다시 평양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 시절

만주에서 서울로 나와 보니 벌써 만주의 독립군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그중에는 장교들도 많았다. 그들은 낭인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들이 자주 모인 곳은 신설동이었다.

우국지사들은 "조국을 위해서 또다시 한 몸을 바쳐야 한다"며 이단체 저단체에 가입했다. 우익파, 좌익파에서 저마다 젊은이들을 끌어갔다. 임동선 청년에게 여운형이 손잡고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누구는 육군에 들어가라고 했고 누구는 해군에 입대하라고 했다. 임동선 청년은 처음 육군 태능 국방경비대에 잠시 있다가 다시 진해에 가서 해안경비대 경무주임이 되었다.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는 교관이 된 것이다. 만주군에 있을 때 명월구와 봉천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영안에서 교육 훈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빨리될 수 있었다. 이미 만군에서, 북지(北地)에서 공산당 팔로군과 전투훈련을 가진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임동선 경무주임은 생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남보다 경험이 많고,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장이 시기를 하고는 좌익으로 몰았다. 임동선 청년을 좌익분자라면서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며칠간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 혐의가 없었다. 나와서는 더 이상 진해에 있기 보다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서울에 올라와보니 학교에서도 좌우익 싸움이 한창이었다.

공부보다는 집이 무너질 때는 먼저 집을 바로 세우고 다음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뒤로 미루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데 북에서 월남하는 사람들이 홍수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를 직접 알기위해 몇 동지들과 천안을 거쳐 평양으로 갔다.

숭실대학이 자리잡은 공산당 본부 4층에서 김일성을 면담했다. 그는 일행을 겸의표에있는 김두봉,김책,무정이 운영하는 군정대학에 입학하도록 했다. 그곳은 공산당 간부 군인과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김일성 대학이 세워지기 이전이었다. 낮에는 학습을 하고 밤만되면 강당에 모여 김구,이승만을 매도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그때 청년 임동선은 그들에게 "내가 아는 김구, 이승만은 평생을 국내외에서 옥고를 치러가며 조국 광복 독립운동만 한 분들인데 당신들이 그들

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말이 상부에 보고되면서 그 시간부터 임동선 청년은 남쪽에서 보낸 스파이로 몰렸고 "이곳에 와서 사진을 몇장이나 찍었느냐, 그 사진기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당했다. "나는 사진기도 없고 스파이도 아니다"라고 했으나 군정대학 유치장 콘크리트 방에 갇히게 되었다. 이 때에 청년 임동선은 남쪽에 서는 공산당 북쪽에서는 남쪽 스파이... 해방의 기쁨은 사라지고 남북 골육상쟁이 처량하고 한심스러웁게 느껴졌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음성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 형님과 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 갈길은 어디인가? 셋째 수열 형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축복했다는 말을 기억했다. 나와 내 민족이 갈길은 이길인것만 같았다. 전에 한번도 교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으나 이 막다른 처지에서 내가 살아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느꼈다. 그리고 잠 안오는 한 밤중에 생전 처음으로 콘크리트방 바닥에 꿇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날 이곳에서 살려 주십시오. 그리하면 서울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형님과 같이 웨슬레 형제처럼 하나님 사업만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두운 감방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나의 일군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청년 임동선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이 솟아났다. 그즉시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이 들었다. 새벽에 총에 칼을 꽂은 두 군인이 들어와 임동선 청년을 깨어 밖에 대기한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트럭이 출발했다. 사형터로 가는 줄만 알았다. 얼마후 평양 공산당 본부에 가서 내려졌고 지하실 유치장에 가둬놓았다. 다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임동선 청년을 끌고 4층에 있는 김일성 집무실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 선배 박성환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김일성에게 소개했다.

"이 임동지는 애국심이 많은 열렬한 청년이요. 방법을 몰라서 남쪽에서 공산당으로 유치장 생활을 했고 여기 와서는 스파이로 오인 받았는데 내가 아는 임동지는 결코 남쪽 스파이가 아니오." 박성환 선배는 만주국 공군 조종사로서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 만주 책임자로서 그때에는 김일성의 최고 정치고문으로 있었다. 김일성은 임동선에게 "동무 고생했구만, 이제 평양 역전에 있는 인민위원회에 가서 일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나는 공부를 더 해야겠소.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에 있는 공산주의 학자 백남훈 교수 밑에 가서 배운후에 다시와서 일 하겠시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은 "아 그것 기발한 생각이로구만" 하고는 그 옆에 서있는 비서에게 "임동무가 38선을 넘을수 있는 안내장 하나 써주라"고 말했다 임동선 청년은 비서가 써준 안내장을 가지고 38선에 와서 인민군의 안내를 받고 38선을 넘어 남쪽 땅에 발을 디디게 됐다.

그순간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믿고 자유가 귀중함을 실감 했다. 그리고는 그 안내장을 박박 찢어버렸다. 이때의 기쁨을 임동선목사는 잊은 적이 없다. 마치 새가 새장에서 풀려 나오듯, 호랑이가 철장에서 빠져 나오듯 뛰며 기뻐했다.

임동선 청년은 바로 서울로 올라 왔다. 그리고 임수열 형님이 재학 중에 있는 서울신학교로 찾아 갔다. 여기에 오기까지의 있었던 일을 형님께 자세히 이야기했다.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겨주었다.

임동선 청년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신학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의논을 했다. 형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 곧 바로 형님은 서울신학교 이건 교장님에게 인사를 시켜 주었다. 교장 목사님은 "형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크게 반기면서 임동선 청년에게 1년동안 신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일러 주었다.

임동선 청년은 신신근목사가 담임하고 계신 인천 송현성결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다. 특히 신목사는 임동선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다. 청년 임동선은 신목사를 대할때 성자처럼 느꼈다. 매일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였다. 목숨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이 되기 위하여 교회행사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열심으로 참가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가슴이 사뭇 뿌듯했다. 언제나 친절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형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생각만 해도 기뻐서 말을 못할 정도였다. 임동선 청년의 생활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차 있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 기도 생활속에 목숨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앞에 충실한 종이 되자고 다짐했다

형님과 주님의 길, 서울신학교 입학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임동선 청년은 그때까지 학습도 받지 않았으니 시험칠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형님도 인천 송현성결교회 출신으로 이곳에서 서울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임동선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꼭 신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하루는 당회가 열렸다. 특히 임동선의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다. 학습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는 문제였다. 반대하는 장로도 있고 세례를 동시에 주자는 장로도 있어서 갑론을박으로 당회는 신중한 분위기였다. 표결 결과, 학습과 세례를 한꺼번에 주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학습과 세례를 한꺼번에 받은 후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았다. 물론 합격이었다. 때는 1946년 3월이었다.

서울신학교에서는 전통적인 행사가 있다. 신학교 입학식과 맞춰 부흥회를 여는 것이다. 먼저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다. 그때 부흥강사는 김응조 목사이셨다. 생전 처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 장장 6일간의 부흥회였다. 설교를 듣고 난후 임동선학생에게 몇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1. 야! 그 목사 말 잘한다. 2. 저렇게 떠들다가 목이라도 쉬지 않을까? 3.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서울신학교 시절, 오른쪽으로부터 황재열, 임동선, 임수열전도사

몇 푼이나 받나? 4. 나 보고만 이야기 하는것 같구나. 5. 내 형님이 저 분에게 내 과거를 다 일러 주었나 보다. 6. 닷새동안 그 설교를 듣고나서 감동이 되어서 죄의식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도 가고 4층에 있는 대강당 기숙사방으로 들어가는데 신학생 임동선은 자리에 엎드려서 밖에 나갈 수도 잘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였다.

기도하는 밤중에 밝고 밝은 빛이 마음에 비치는데 4살때 어머니가 우물로 물길러 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울고 있었던 일, 남의 밭에 가서 배, 밤 따먹은 일, 오늘 이 시간까지 지은 작고 큰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임동선학생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 볼 때 양심적인 사람으로 의롭고 열심있는 애국청년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 밝은 빛에 자신은 천하에 더럽고 죄인중의 괴수임을 깨달았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줄줄나왔다. 닦고 싶은 생각도 잊고 있었다. 회개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회개하였다.

이윽고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다. 강사 목사는 새벽 설교를 마친 후에 학생들에게 "회개치 못한 사람은 회개하시오"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임동선 학생은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는 고백되었으나 사람 앞에서는 어려웠다. 그때 다른 학생들이 먼저 고백을 했다. "나는 책방에 가서 책을 훔쳤습니다. 나는 컨닝을 하였습니다. 구제품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여러가지 죄가 쏟아져 나왔다.

생전 처음 참석한 부흥회,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줄줄 나왔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한 부흥회

임동선 학생도 "죄인은 나만이 아니구나!" 용기를 얻어 과거를 회개했다. 교수와 학생이 있는 군중 앞에서 과감히 자신을 고백했던 것이다. 죄를 회개했더니 강사 김응조목사님이 다가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성령충만하여 옛날 바울과 같이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안수기도를 받고나니 겸손해짐을 깨달았다. 군자지대로행(君子之大路行)이라 발자국을 힘있게 내딛고 걷다보니 학생들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을 알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임동선학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악수하는 손에 힘도 있었다. 그후 사람을 만나면 연령,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전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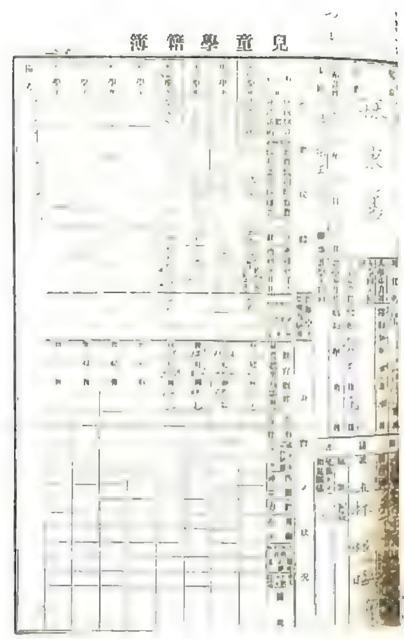
임동선 학생이 전도를 할 때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런 말씀을 외치고 다녔다.

고난의 길은 멀어도, 지게학생

임동선 신학생에게는 기쁨이 언제나 샘물처럼 솟아 올랐다. 이 기쁨 속에서 마음 속에 비쳐진 한가닥 굵은 빛이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 임동선 학생은 전도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역에서 또는 네거리에서 옥외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죄의 기쁨, 평안의 기쁨, 자유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냥 서서 있을 수가 없었다.

서울신학교에 입학하여 이처럼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고, 또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기숙사비와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선 지게를 구입했다. 지게를 산 동기는 첫째 노동신성, 둘째 자립정신, 셋째 고난의 체험, 넷째 사회이면의 숙지 등 이다. 예수님께서도 노동했으니 자신도 노동을 해야겠다는 뜻이요, 또한 남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정신의 표현이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지게를 사게 만든 것이다. 장래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예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임동선목사의 서울신학교 성적부

새로 장만한 지게를 지고 서울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말 지게꾼도 많았다. 기차에서 짐 하나가 나오면 달려들어서 저마다 짐을 져보려고 야단법석이다. 한참 동안 얼이 빠진 사람마냥 멍청히 바라보았다. 빵을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인생의 절규를 느끼는 마음이었다.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다.

"오! 나의 주님. 나는 이 결심이 당신께 영광이 될진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손님을 부탁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멘하고 눈을 뜨는 순간,"여보! 청년"하고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중년신사인 점잖은 분이 지게꾼 학생에게 짐을 맡기면서 묻는다.

"당신은 젊은 청년인데 혹 고학생 아니요?"그는 자기가 보는 바가 맞는다는 태도로 바라보았다.

"실은 저는 고학생입니다. 서울신학교 학생입니다."

그는 서울신학교 학생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는 것이다. 바로 대전 중앙성결교회에 시무하는 김창근목사님이었다. 서울신학교 대강당에서 부흥집회도 했던 유명한 분이었다. 나중에 김목사님은 서울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셨다. 임동선 학생의 첫 지게꾼 손님은 바로 성결교 김창근목사님이었다. 임동선 학생의 첫 손님이 같은 교단의 주의 종이 되었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임동선 학생을 격려하시려고 주의 종의 짐을 져다주게 하셨으며 김목사는 임동선 학생의 지게꾼 제1호 간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헤아릴 수 없다.

신학교 3년중 2년 동안은 유일한 친구가 지게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했다. 고생 속에서 배워 나가는 학문은 빛나는 별과 같이 임동선 학생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었다.

임동선 학생을 이어 지게꾼 고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신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도 모이기 시작하였다. 10여명의 고학생들이 지게로써 학비를 벌고 생활하게 되었다. 생활이라기 보다는 연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임동선 학생의 뒤를 이어 1년 후배인 허경삼목사가 "형님, 나도 지게를 지겠소"하고 서울역으로 나왔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도 나왔다. 모이면 장

래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시국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쯤 수가 늘다보니 어떤 학생이 제안을 했다."이제 우리 지게당을 만듭시다. 임동선선배가 당수를 하시오"모든 사람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고생속에서도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었다. 임동선 학생은 지게당 당수가 되었고 또 나사렛당 즉 예수당의 당원이기도 했다. 감리교 신학생이었던 이성헌 학생은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 그때 서울신학교측 당원은 허경삼, 이성환, 이명열, 이석민, 유반응과 임동선이었다. 그외에 일반 대학생도 몇명이 있었다.

"우리 지게당을 만듭시다 그리고 임동선선배가 당수를 하시오"

특히 허경삼목사는 임동선목사와 한평생 목회의 자리에 같이 있는 분이다. 공군에도 같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2년간 같이 유학생활을 했고 동양선교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같이 했다. 서울신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지게를 같이 지고 고학생활을 했다.

서울신학교 동기동창이며 예산 신례원교회 원로목사인 최동규목사는 "임동선 학생은 노방전도를 열심히 다녔다. 지게를 지고 공부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매사에 열렬했고 구령에 불탔다"고 2001년 4월 20일 인터뷰때 말했다.

이성봉목사 따라 강원도 부흥집회



이성봉목사와 강원도에서
왼쪽부터 이석민, 이성봉목사, 임동선

1948년 여름이었다. 임동선 신학생은 방학을 이용하여 같은 과의 이석민 신학생(한국 임마누엘선교회 목사)과 강원도로 전도하러 나갔다. 여름의 따가운 태양빛은 사정없이 내려 쬐였다.

신학생인 임동선의 강원도 순회집회는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 성결교회 부흥사이신 이성봉목사와 집회를 가게 되니 더욱 힘이 솟았다. 임동선 학생은 노방전도를 다녔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신학생 임동선에게 어디서 솟아나는 힘인지 알 수가 없었다. 뙤약볕에서도 더운 줄을 모르고 열심히 예수를 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 이성봉목사는 능력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써 집회를 마치곤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다.

강원도 전도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이성봉목사께서는 임동선 학생에게 강원도에 더 머물 것을 권유하셨다. "진부교회에 목자가 없으니 밀려오는 양떼를 그냥두고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셨다. 임동선 신학생은 이성봉목사의 명을 받들어 진부교회에 당분간 있기로 했다. 그리고 이성봉목사는 평창교회로 떠나셨다.

오대산 에서 금식기도 중 불의 성령 체험

임동선, 이석민 신학생은 강원도 오대산 북대사(北培寺)로 금식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비로봉을 옆에 둔 해발 2천미터 정상에 있는 작은 절이었다. 6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여름 저녁에 임동선 학생은 일찍 자리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피곤한 몸을 쉬려고 누웠다. 자리에 눕자마자 임동선 학생의 누운 자리가 흔들리며 몸이 둥둥 떠 올라가고 있었다. 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줄을 몰랐다. 아직 잠이 오지 않았고 분명히 눈도 떠있고, 의식도 분명했다. 일어나려고 해도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누구의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지르려해도 입문이 꽉 막혀 있었다.

몸은 계속 위로 떠 올라가고 있었다. 한참 후에 임동선 학생은 어떤 곳에 닿았다. 그 곳에서 천사 몇명을 만났다. 그 곳은 지상세계가 아닌 천상세계였다. 두루 살펴 보는데 그 때 천사가 오른쪽을 보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곳인데 멀리 바라보니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화려한 도성이 있었다.

다음에는 천사 몇명이 임동선 학생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어두운 세계로 갔다. 크고도 긴 창고의 문을 여는데 그 안에는 연기와 냄새가 가득했다. 밑에는 더러운 칠을 한 모양으로 구질구질한 장소에 많은 남녀가 나체로 있었으며 두 눈이 빠진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임동선 학생은 천사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 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눈으로 죄 지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다."

또 두번째 창고문을 여는데 그곳에는 양팔이 잘려진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몸둥이만 있는 사람들이었다. 임동선 학생은 "여기가 어디냐"고 다시 물어 보았다. 천사의 답변이 "이곳은 손으로 죄지은 자들을 가둔 곳"이라는 것이었다.

세번째 문을 여는데 보니 남녀가 나체로 있는데 배꼽을 중심하여 열십자로 배를 쨌는데 창자가 나와 흩어져 있었다. 보기에 너무나 흉하였다. 임동선 학생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다시 천사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딥니까?" 천사는 말하기를 "이곳은 간음죄 지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자 임동선 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 이 사건은 신학생 임동선에게 있어서 비몽사몽 간에 이뤄진 순식간의 일이었다. 온 몸이 물독에 빠진 것처럼 땀이 흐르고 있었다. 정신없이 엎드려 기도했다.

금식기도중 불같은 성령체험 온몸이 물독에 빠진것 처럼 땀이 흘렀다 정신없이 엎드려 기도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 주십니까?"

그때에 한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전도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전도하라!"

그때 임동선 학생은, "주여! 내가 그곳에 갈 자입니다. 직접 간접으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떨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 똑똑히 들리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네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난 임동선 학생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나님! 앞으로 나는 어른들에게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전도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직접 간접으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죄 짓지 아니한 어린이들에게만 전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한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양팔을 자르리 만큼 두눈을 빼리만큼 배를 째리 만큼, 아프게 회개하면 모두가 용서를 받는다고 전해다오"이 사실을 본 후부터 임동선목사의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그때 본 이 사건만 회상하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임동선목사에게 귀한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복되게 살게 하신 것이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지난 2001년 4월 17일 상원사 북대사에 이석민목사와 오광찬장로와 함께 임동선목사가 신학생 때 불의 성령을 받은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 그때 이석민목사는 "내 생전에 다시 이곳에 올줄은 몰랐다.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임동선목사는 크게 쓰임받은 목회자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함께 기도하다가 잠시 내가 방을 나왔을 때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온 방안에 가득했다. 그때 임동선목사가 불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며 50년간 동역자인 임동선목사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오광찬장로는 "신학생때에 이 첩첩산중에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다"라고 북대사를 바라보고 감격스러워 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네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임동선 학생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졌다

설교하다 모함으로 유치장에 끌려가고

해방된 조국에 불행한 사건이 밀물처럼 닥쳐오고 있었다. 바로 비극적인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산당들의 음모였고 양민들이 수없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다.

기독교계에서도 큰 피해를 보았다. 바로 이때 손양원목사의 자녀들이 학살을 당했다. 손양원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맞이하였다. 한국 기독교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서울신학교 당국과 학생회는 3명의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케 되었다. 임동선 학생도 대표가 되었다. 임동선 일행은 여수 현지에 가서 공무원, 민간인, 교인, 목사들을 만나서 그 내용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학교에 보고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었다.

또 한번 임동선 학생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났다. 임동선 학생은 고양읍 성결교회 심신경목사로 부터 특별집회 강사 청빙을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그 때 피끓는 젊은 청년 신학도였다. "양심대로 살자"는 제목하의 설교를 했다.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밝은 빛을 심기에 전념하자는 내용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다. 설교도중 어떤 형사가 임동선 신학생 설교를 듣다가 밖으로 나가 버렸다. 잠시후 강대상이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설교 중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연행된 임동선 신학생은 고양읍 지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그 이튿날 아침 서울로 들어가는 트럭에 실려서 서대문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그 곳에 도착하니 무조건 빨갱이라고


1948년 전도사 시절의 임동선목사 (아현성결교회 학생 교우들과 함께)

하며 따귀를 때리고 구둣발로 마구 차는 것이었다. 얼마 후 임동선 신학생을 유치장에 넣어 버렸다. 고양읍 성결교회 심신경목사는 성결교 총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마침 신자 중에 고위법관이 한분 계셨다. 그 분이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 선지자는 공산당이나 부패한 사람들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전도사를 바로 내 놓으라"고 하였다. 3일만에 임동선전도사는 풀려 나왔다.

그 경찰관은 교회가 있는 건물을 지서로 쓰려고 했는데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쓸 수 없게 되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트집을 잡기위해 교회에 왔다가 임동선전도사를 잡아간 것이다.

임동선목사가 6•25동란 때 동래 온천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다. 한번은 범일동 성결교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되어 갔었다. 설교를 마치고 난 후인데 어떤 여신도가 임동선목사 앞에 다가오더니, "고양군에서 설교하다가 잡혀가신 분이 아닙니까?"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여신도는 "아이구! 우리는 그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어 세상을 떠난 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는 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임동선목사는 그 여자에게 오히려 반문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요. 옳게 살아가자고 한 것뿐인데…"

그 여신도는 묻지도 않은 말을 임동선목사에게 전해 주었다. 그때 임동선전도사를 잡아간 경관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모도 왔다가 몸이 병들어 자기 집으로 가고 어린애도 또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임동선목사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가 그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저주를 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인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워 떨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저주를 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임동선전도사의 첫 목회지 여주성결교회

1949년 6월15일 임동선전도사는 서울신학교를 갓나온 풋내기 전도사로서 여주읍 성결교회의 청빙을 받고 현지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당시 노재룡목사, 이성환목사가 여주성결교회의 학생들이었다. 전 오레곤주 상원의원 임용근씨는 중학생이었다.

졸업전 임동선전도사는 서울신학교 교장 이건목사가 강단을 지키는 서울 신당동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그 곳을 거절하고 시골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여주성결교회를 택했다.


임동선전도사의 첫 목회지였던 여주성결교회 (현재)

환난과 연단속에서 견고한 신앙, 믿음이 이루어짐을 깨달은 첫 목회지 여주성결교회

그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도시보다는 남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시골교회로 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교장선생님 밑에서 일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셋째는 평소에 존경하는 아현성결교회 이성구장로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진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서 였다. 그 당시 이성구장로의 고향 여주에는 이장로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여주성결교회는 시골에서 보통 보는 기역자 집인데 한쪽은 교회로 쓰고 있고, 한쪽은 목공장으로 쓰고 있었다.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는 춘향각이라는 술집으로 사용했다. 신자는 열세대였고 주일학교 반사는 남자 한분 뿐이었다. 교역자 사례는 정한 것이 없었다. 그달 그달 쌀과 보리를 주는 대로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

한번은 여주교회에서 목회할 때 임동선전도사가 사귀병에 걸린 신자를 기도로 치유한 적이 있었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널리 알려졌다. 어느 날인가 밤 2시쯤 한 교인의 아이가 급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임동선전도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모시고 오라"는 전갈을 가지고왔다. 또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까 싶어서 성경과 찬송을 끼고 곧 뒤이어 쫓아갔다. 그 집마당에 이르니 방과 부엌에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남편이 호롱불을 켜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아이구,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집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끙끙만대고 힘을 들여도 낳지를 못하니 돼지새끼 잘 낳게 기도해 주십시오"하는 것이었다. 임전도사를 쳐다보며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서는 임전도사가 기도로 마귀병도 고친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사가 기도만 하면 돼지도 순산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미신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 감동을 받았다. 임동선전도사가 돼지를 위해 기도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임용근 전 오레곤주 상원의원

"어린 나이에 임동선전도사님의 말씀과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다. 후에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다 임동선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든 아이 위해 며칠을 눈물로 기도

여주읍에 장질부사가 만연하였다. 신자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병마는 고개를 숙일 줄 몰랐다. 금융조합에 다니는 남편 정선생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으나 부인은 열성있는 신자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가 병에 휩싸여 옴짝 달싹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장질부사가 발생한 집이 생기면 새끼줄을 쳐놓고 빨간 헝겊을 매어달아 놓을 때였다. 당국이 손쓰는 것은 고작 환자를 격리하는 것 뿐이었다.

누구도 그곳에 접촉을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간절한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임동선전도사는 그 소식을 듣고 집앞 새끼줄을 넘고 뛰어 들어갔다. 평소에는 심방

가면 뒷문으로 도망치던 불신자 남편도 반겨 주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며칠간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어린 생명은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임전도사는 함께 시체를 운반하여 묘지에다 안장시켜 주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아이는 세상을 떠났으나 임전도사가 가면 도망치던 아이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이 남편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열심이 있는 신앙가정으로 변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욥과 같이 또 새로운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 가정에는 다시 기쁨과 평화가 찾아 왔다.

우리 주님은 용기있는 대장이시다

임동선목사의 집에도 맏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되지 않은 때였다. 장질부사를 앓는 집에 심방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주의 종의 가정은 믿음위에 세워졌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었다. 전염병 속에서도 가족중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임재순사모도 주의 종이 하는 일에 큰 호응을 보내 주었다. 전도자란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초월하여 양떼를 돌봐야 하는 봉사직임을 이때부터 더욱 깨닫게 되었다.

용기있는 장군 밑에서 용맹스런 병사가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용기있는 대장이시며 임동선전도사는 용기있는 병사되어 일생동안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불신자 마을에 왕대리교회 개척

여주읍에서 세종대왕능을 넘으면 왕대리라는 1백여 가정의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는 경상도에서 이사온 김씨댁 한 집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 그 집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 김씨댁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일주일에 주중 단 한번 밤에만 예배를 드렸다.

이 마을은 대단히 완고한 동네였다. 불교와 미신으로 가득차 있었다. 어른들과 청년들은 보수적이어서 예수를 전하는 데는 핍박이 대단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돌팔매질을 한적도 있고 소오물도 교회로 집어 넣으며 심지어는 장대끝에 인분을 칠하여 예배드리는 방으로 창문을 통해 집어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체 말로나 행동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그들을 대해 주었다. 핍박하러 왔던 사람들이 창밖에서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 둘씩 방안으로 들어왔다.

한번은 임동선전도사가 초가을 석양에 걸어서 세종대왕능을 넘어 왕대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때였다. 그 날따라 달도 없고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이었다. 능을 넘어서 몇채의 집이 있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희고 키가 큰 거대한 물체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었다. 발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동정을 살펴보았다. 문득 임동선전도사는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 주었던 도깨비 생각이 떠올랐다. "이곳은 능이 있는 곳이니 도깨비가 전도사에게 겁을 주고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순간 날이 밝도록 이곳에서 기다릴까, 왕대리로 돌아 갔다가 아침에 올까, 망설이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어찌 불안하고 비겁한가? 정면대결을 해야겠다고 마음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 임전태세를 갖춘후 소리를 질렀다 "마귀야 덤빌테면 덤벼봐라"

을 고쳐 먹었다. 기침을 크게 하고 난 후 자세를 고쳤다. 임전태세를 갖춘 후 소리를 질렀다. "마귀야! 덤빌테면 덤벼봐라!" 그리고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꼼짝도 아니하고 버티고 서있는 것이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으나 그 물체의 대담함에 마음은 다소 흔들림을 느꼈다. 임동선 전도사는 결전장의 장병처럼 이제는 결사적으로 진군하였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그 물체는 괴물이 아니라 옆집 농가에서 펼쳐 놓은 광목 한 필이었다. 임동선전도사는 안도의 숨을 쉬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광목을 다듬어서 이슬을 맞히려고 길 옆에 걸어 놓은 한폭의 흰천을 도깨비로 생각한 것이었다.

임동선전도사는 그 때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대 망상으로 스스로 위축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자승자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 부터는 어떠한 위협적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믿음은 많은 환난과 연단 속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왕대교회 홍창학담임목사는 2001년 4월 20일 인터뷰때 "요즈음은 30~40명이 출석을 하는 교회로 옛 교인들은 임동선전도사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6 • 25를 맞아 성도와 남으로 피난 길

해방의 기쁨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원한의 38선 철폐는 고사하고, 뜻하지 않은 민족의 대비극, 6 • 25동란이 발발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꾸던 적색 종주국가인 소련과 중공의 힘을 얻은 북한이 1950년 6월25일 신성한 주일 새벽을 기해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남침해 왔다. 소련제 비행기 야크기와 탱크 그리고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공산군은 38선을 돌파하고 남진을 시작한지 1주일만에 수도 서울을 거쳐 여주까지 쳐내려왔다.

토요일 경찰서에서 여주읍민에게 소개령을 내렸다. 일부 신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피신을 했다. 임동선전도사는 몇 식구들과 같이 남아있다가 주일 아침 대예배를 인도하였다. 당시 여주성결교회는 250명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번듯한 종각도 세우는 등 교회로서의 면모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소개령이 내린 다음날 주일예배에는 겨우 10여명이 나왔다. 그날 저녁 예배는 비교적 일찍 모였다. 설교를 마치고 임동선전도사는 황명준집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황집사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매우 심상하오니 우리들을 도우소서!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한강 건너편에서 인민군이 쏘는 박격포탄이 예배당 윗쪽 뒤뜰에 떨어지면서 폭파 소리와 함께 파편이 예배당 창문을 부셔버렸다. 황집사는 기도를 중단하고 말았다.

임동선전도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도란 편안할 때 보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침착하고 용기를 잃지않고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여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 받았다. "연하여 기

도하옵니다"임동선전도사는 생명을 바치는 피나는 기도를 드렸다. 20분이 경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다. 예배를 마친 후 임동선전도사는 종각으로 올라갔다. 총성의 방향과 포탄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임전도사는 내려와서 남아있는 신자들을 데리고 기관총과 포탄의 탄환을 피하여 무사히 탈출해 나왔다.

임동선전도사는 과거 만주에 있을 때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한 실전에도 참전한 경험이 있었다. 총탄이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 총탄을 피하면 죽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즉 당황하지 말라는 뜻이다. 황급하면 기도가 중단된다. 그러나 급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간절한 기도

1951년 감격적인 목사안수

교회에 다시모여 또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린후 신자들과 함께 먼저 소개시킨 가족과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족들과 합류한 일행은 남부여대하여 남쪽을 향해 걸었다. 거리에는 군인과 경찰, 임동선전도사 일행뿐이었다. 벌써 민간인은 먼저 피난을 갔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일행 중 몇 사람은 자기들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대열에서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며칠 후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이별을 고하였다. 그러나 피난길은 며칠에 끝나지 않았다. 모든 교인들은 미리 소개시켰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행방도 알 수가 없었다.

부산으로 피난온 임동선전도사는 항만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도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 매일 기도를 드렸다.

임동선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한지 2년만인 1951년 5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6회 총회에서 소정의 고시를 거쳐 부산에서 감격적인 목사안수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임동선목사에게 새 목회지로 세 곳이 나와 있었다. 밀양과 진주, 동래온천교회 등이었다. 밀양과 진주는 좋은 교회로 교회 건물에다 사택도 있었다. 신자들도 많아서 재력이 있는 교회였다. 그러나 동래 온천성결교회는 적산 가옥 2층의 다다미방 2개로 교인은 피난민 2세대와 현지인 다섯 세대에 불과했다.



피난시절 목사안수를 받은 직후 동래온천교회 앞에서

임동선목사는 임지 결정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며칠을 기도했다. 기도하는 중에 동래온천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참외와 호박 같이 보이는데 크고도 탐스러운 열매들이 밭에 가득히 열린 것을 보았다. 임목사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때 유리하고 평안한 실력있는 두 교회를 거절하고 동래온천성결교회로 결정했다.

수정동교회 예배당에서 그 동안 여러 식구들과 함께 했던 공동생활을 떠나 새로운 목회지로 향해 갔다. 임재순사모는 아이를 업고, 임동선목사는 솥과 그릇을 짊어지고 떠났다. 택시나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부산진 정거장에 나가서 기차를 타고 동래역에 내렸다. 교회의 유일한 집사인 이천석집사께서 마중을 나와 임동선목사 가족을 반가이 맞아 주었다. 임동선목사는 동래읍 이집사댁에서 이틀을 지내고 다시 솥을 지고 전차를 타고 동래온천성결교회를 찾아 들어갔다.

교회는 이층으로 된 적산가옥이었다. 첫번째 주일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15명. 임동선목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 중심의 말씀만을 힘있게 설교했다. 매주일 교인수가 늘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이층 두방이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아래층에 사는 불신자 집에서는 집이 무너진다고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완력으로 덤벼들었다. 임목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종 대화를 나누고 도에 넘는 후한 돈을 주어 딴 곳으로 이사하게 하였다. 몇 달만에 아랫층 세집이 전부 이사를 갔다.

새파란 젊은목사가 연로하신 교수님을 앉혀놓고 장장 한시간 설교를 했다

예배 장소가 좁아서 아래층으로 까지 내려왔다. 교우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며 봉사를 하였다. 벽을 트고 강대상을 만들고 종각을 높이 세웠다. 피난해 온 서울신학교가 온천교회에서 다시 시작 되었다.

이명직 교장목사님께 큰 방을 드리고 2층은 한영환 서무목사, 임동선목사는 부엌방을 썼다.매일처럼 학생과 선생님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에 동래온천성결교회는 절절 끓고 있었다. 계속 교인들이 증가했다. 그후 서울신학교는 금정산에 천막을 치고 옮겨갔다. 그러나 주일이면 교수와 신학생들이 동래 온천성결교회에 참석했다. 임동선목사도 이 기회에 신학교에 나아가 다시 강의를 들었다. 임동선목사는 언제나 설교 준비에 충실을 기했다. 많은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였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새파란 젊은 목사가 연로하신 교수님을 앉혀놓고 장장 한 시간 설교를 하니 배짱이 좋은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수 목사님들은 "임동선목사가 장래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목사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구한다

9•28수복이 되자 부산의 많은 피난민들은 속속 서울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피난민과 각 단체들이 부산에 잔류하고 있었다. 임동선목사가 동래온천성결교회에 부임한지 2년반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 부흥하여 장년만 350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다른 교회로 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유력한 교회였다.

임동선목사는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직후 자신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더 공부할 계획을 가진 적이 있었다. 마침 이성구장로가 시무하던 서울 아현성결교회 담임목사이시며 서울신학교 사감으로 계시던 최석모목사께서 "여주교회에 가서 석달만 일하여 어느 정도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 일본 유학을 밀어 주시겠다"는 언질을 임동선목사에게 주신 적이 있

었다.

그러나 막상 처녀 목회지 여주에 가보니 석달 후에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차일피일 하다가 뜻하지 아니한 6•25가 발발하여 두 차례의 피난으로 일본 유학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임동선목사에게 일본 유학 지원을 약속해 주셨던 최석모목사는 서울신학교 이건교장, 박현명교수 목사, 김우현교수, 박형규목사와 함께 서울을 탈출하지 못하고 납치되어 북녘 땅으로 끌려가고 마셨다. 이제 일본 유학을 밀어줄 사람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임동선목사는 일본은 못가더라도 자신의 충실과 장래의 지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동래온천성결교회 보다는 수도 서울로 가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듯 싶었다.

일본 유학길을 좌절시킨 6•25 그리고 다시 큰 뜻 세워 서울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임동선목사

임동선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드린 후 재직하고 있는 동래온천성결교회와 앞으로 부임할 서울교회와 합의를 보았다.

수복후 다시 여주성결교회로

한편 경기도 여주성결교회에서는 제직회를 열고 여집사 한분을 동래온천성결교회로 파견차 내려 보냈다. 이 여집사가 하는 말이 "여주교회에서는 그간 두분의 목사님이 오셨다가 떠나셨고 현재는 담임목사가 없다"는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서울 시내 부자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임동선목사 마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었다. 오랫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 말은 여주성결교회 한명의 여집사 말이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준엄한 말씀과 같이 들렸다. 임동선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선뜻 못하고 있었다. 여집사는 계속하여 약점이나 잡은 듯이 "목사님! 여주성결교회에서 피난 가셨으니 수복이 되었으면 다시 여주교회로 오셔야지요. 여주성결교회는 밥그릇이 작다고 큰 것 찾아 서울로 가시렵니까?"라고 정곡을 찔러왔다.

"집사님! 잘 알았습니다. 조금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임목사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임재순 사모와 같이 의논하고 기도한 후 다시 여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사실 여주교회는 목자에게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하는 교회였다. 일정때 여주성결교회에서 시무하시던 박봉진목사님이 생활고를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여주성결교회를 떠나 철원교회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다.

임동선목사는 서울교회로 가지 못한다는 통지를 내고 짐을 꾸려서 기차를 타고 경주를 지나 원주역에 내렸다. 동래에서 첫딸 승혜를 주시어 한 식구가 더 늘었다. 임동선목사와 사모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걸어서 여주 앞 한강변에 다달았다. 다시보는 여주는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여주교회 건물도 보이지 않고 피땀 흘려 세웠던 종각도 자취조차 없어졌다. 때는 1953년 9월이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새로 장만한 초가삼간 새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임동선목사가 여주성결교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성도마다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 울었다. 비록 시골교회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순수한 사랑은 어느 도시교회에서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감동적인 것이

었다.

이때 임동선목사는 "하나님! 이곳에 다시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새 힘주사 다시 심령의 재건, 폐허의 재건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간만에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기쁨과 행복에 잠기어 깊은 단잠을 잤다.

임동선목사 가정의 아브라함 임수열전도사


임동선목사의 형님 임수열전도사와 형수 함정희전도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들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미국땅에서도 아니 온 세계에 흩어져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임동선목사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 불교, 유교의 전통적 가문을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 패밀리로 변화시킨 분이 계셨다. 젊은 나이로 부름을 받아 하늘로 가신 임동선목사의 형님 임수열전도사가 바로 그분이다. 임수열전도사와 형수 함정희사모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했을 뿐아니라 함정희사모는 이미 일제하에서 감리교전도사로 봉직했던 분이다.

"새 힘주사 심령의 재건 폐허의 재건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수열전도사는 가정보다 하나님만 따르며 가난하게 사신 분이다. 늦가을이 되어 김장철이 다가와도 김장을 못 담갔다. 남들이 다 뽑고 난 뒤 누런 잎사귀는 밭에 버리고 갔다. 그것들을 주어다가 국을 끓여 먹는 것이었다. 소금도 없어서 어떤 때는 맹물에 끓여 먹었다. 어른들이야 신앙의 힘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하겠지만 어린 자식들은 영양부족으로 심히 허약해져 있었다. 함정희사모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면서 "우리 다시 선생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머슴 식모살이를 한들 이 고생보다야 나을 것이 아닙니까?"

남편 임수열전도사도 울면서 사모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여보 십자가가 무겁다고 우리가 딴 곳에 가면 거기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없겠소? 이 고생이 어렵다고 우리가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고생할 것 아니요? 우리의 처음 목회인데 여기서 실패하면 어디가서 성공하겠어요? 여보, 용기를 냅시다." 임수열전도사 내외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노방전도하여 힘을 내었다. 감옥전도와 학교전도 그리고 시장에서는 장날전도 등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갔다. 올갠을 사고 교회 종각도 세우며 교회는 날로 발전 궤도에 오를만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6•25가 터지게 되어 피난길을 떠나 부산까지 왔다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강릉의 양떼를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시기상조라고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먼저 강릉으로 들어 갔다. 그러다가 쫓겨가던 공산군들이 3일천하를 하던 중에 임전도사는 붙들려 산으로 끌려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 그 후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 중에 강릉교회 한 집사가 "20여명이 산으로 끌려 갔는데 나는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모두를 총으로 죽였

고 그 때 임전도사도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짧고 굵게 살자던 말대로 31세의 젊은 몸으로 순교를 하신 분이 바로 임동선목사의 넷째 형님인 임수열전도사이다.

순교의 씨, 3명의 목사를 길러내

임수열전도사는 친동생인 임동선목사와 손아래 동서인 노찬호목사(강릉교회 시무), 충주교회 조용현목사 세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못다한 일을 맡기고 주님의 품으로 갔다. 임동선목사는 형님 임수열전도사 몫의 일까지 하기 위해 한 평생 기도했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임전도사 사모인 함정희전도사는 강원도 김화군 통구면 현리 면장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5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 평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임목사의 고향 대부감리교회 전도부인으로 왔다가 임수열전도사와 1941년 결혼을 했다. 임수열전도사는 고향인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에서 태어나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으며 전도부인 함정희와 결혼함으로 임씨 가정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31세 젊은 나이로 순교한 임목사의 넷째 형님 임수열전도사 온 가족을 주님앞으로 인도한 신앙의 선구자였다

유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가 없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임동선목사 어머니의 제삿날이 되었다. 큰 형님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술도 붓고 절을 몇번 하시고는 제사를 끝냈다. 넷째 형님이신 임수열 전도사는 "우리는 추도예배를 드리겠으니 아버님, 큰형님 아이들까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집이 센 큰 형님도 참석하셨다.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

추도식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묵도를 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특송을 부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임전도사는 설교했다. 생전에 많은 자녀를 낳아 주시고 가르치시며 고생하신 것과 생전의 교훈을 말했다. 그 때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시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셨다. 예배가 끝난 후 그토록 완고하신 부친께서 "기독교의 추도식이 제사보다 더욱 의미가 크구나.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냐"고 큰 형님께 말씀을 하셨다. 큰 형님도 좋다고 하셨으며 고집으로 유명한 맏며느리도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시게 되었다. 추도예배를 통해 임동선목사 온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현재 함정희전도사는 동양선교교회 명예전도사로, 임동선목사의 조카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 봉사에 열심이다. 임동선목사 가정의 아브라함 임수열전도사는 죽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 형님이 가신 귀한 길, 임동선목사는 바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두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동선목사의 장조카 임성진목사는 월드미션대학원 학감과 동양선교교회 협동목사로 사역을 잘 하고 있다.

▲ 함정희전도사

"임수열전도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임씨 집안에 들어갔고, 형님이 동생 임

동선목사의 밑거름이 되었다. 형님이 동생을 세계에 빛나게 했다."

1954년 공군 군목으로 11년 군생활 시작

성결교단 본부는 임동선목사를 공군 군목으로 추천했다 소정의 절차 마치고 32세 늦은 나이에 공군군목으로 입대했다

1954년 2월 나라에서 입대 소집장이 임동선목사에게 나왔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 예외는 아니었다. 여주읍 성결교회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여주읍 지방 유지들까지 임목사는 여주에서 필요한 사람이니 상부에 교섭하여 군에 입대하지 않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나섰다. 임동선목사는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였으나 극구 그들의 행동을 만류하고 군에 입대하기로 임재순사모와 의견을 모았다. 바로 그 때 서울성결교단 본부는 국방부와 공군본부로 부터 공군 군목요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교단본부는 임동선목사를 적임자로 선정하였다. 공군 군목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빨리 서울 본부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다.

군대에 입대할 바에는 자기의 은사와 전공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함이 더욱 의미가 있고 효과적임을 생각했다. 군목으로 입대할 것을 임재순사모와 교회가 허락했다. 당시 해군 군목으로 복무하던 임동선목사의 손아래 처남 황재열목사가 임동선목사의 입대 소식을 듣고 짚차를 가지고 달려와서 교단본부까지 왔다. 서울본부는 공군본부와 연락하여 대구로 가서 시험을 보라는 것이었다. 임동선목사는 대구로 가서 소정의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였다. 당시 공군 군목실장인 최성곤목사님의 호의와 당국의 배려로 임동선목사에게 합격의 영광이 주어졌다.

입대일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임동선목사는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앞으로 진행될 문제를 놓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 임동선목사는 여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교회 제직과 교인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눈 후 임재순사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했다. 서울에 올라온 임동선목사에게는 새로운 일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잠시도 쉴 사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1백여명이 넘는 서울 서교동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부흥회를 마친 후 그 교회에는 목자가 없으니 군에 입대하기 전만이라도 양떼를 돌보아 달라는 것이었다. 임동선목사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교회사택으로 짐을 옮겼다. 단기간의 목회였으나 참으로 의의있는 목회였다.

1954년 5월15일 녹음이 짙어가는 봄 날의 화창함은 임동선목사의 군입대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32살의 임동선목사는 대전항공병학교에 입대했다. 영문안 연병장 광장에는 각도에서 모인 대학 출신 후보생들이 집합해 있었다. 옷의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른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조금 후 눈맵씨가 예리하며 키가 작고 갸날프게 생긴 중사 한 사람이 나오면서 군생활은 시작되었다.

"이곳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군에 입대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군에 있는 동안 건강과 발전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회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군대용어를 쓰겠

습니다. 거기 모두 앉아! 내무반에 들어가서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민간옷은 보따리에 싸서 중대본부로 가져오고 이발소에서 전원 머리를 빡빡 깎고 오너라! 이상" 말을 마치자 중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후보생때 장교가족 군목이 되고

입대한지 두 달 동안은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초 훈련만을 받았다. 군내에서 시험을 거쳐 장교 후보생으로 선출된 150명이 새로 입대를 하여 3개 내무반이 더 생겼다. 이제는 5개 구대가 되었다.

두달 동안의 고된 훈련이 끝나고, 학과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그로부터 또 두 달이 흘렀다. 임동선목사가 훈련 받은지 4개월이 되었다. 졸업날이 임박하자 공군장교 정복이 배급되고 공군장교 모자가 지급되었다. 짙은 푸른 하늘색, 검은 챙, 무궁화 둘 꽃 속에 용기와 승리를 상징하는 공군 독수리의 모표는 자랑스럽기만 하였다.


공군 군목시절. 뒷줄 가운데가 임동선목사 앞줄 중앙은 허경삼목사

임동선목사는 후보생이면서도 주일만 되면 항공병학교 장교가족 전체의 군목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번도 외출해 보지 못했다. 임동선목사는 후보생들의 졸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분망한 시간을 보냈다. 임관식날에는 250명 중 단 한 명의 군목, 단 한명의 중위인 임동선목사가 이들을 대표하여 임관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군목이 된 후 날개의 성지 사천 비행장으로 첫 배속이 되었다.

졸업날 받은 용기와 승리를 상징하는 공군 독수리 모표는 자랑스럽기만 했다

날개의 성지 사천에서 첫 군목생활

사천 주말장교구락부에서는 기독장교회와 신우회 신자들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군목 환영식이 있었다. 믿는 중견장교와 가족들이 여러 세대 있었고 사병과 문관들로서 약 30여명이 모였다. 교회당은 없었고 기지극장을 임시교회 집회장소로 사용했으며 기지극장 뒤 공터에다 천막을 치고 군목실로 쓰고 있었다.

군목 업무로서는 주일예배 인도외에 천막 속에서 기도, 미공군 체스낫 상사의 영어성경공부, 도의 강연, 사상무장, 개인상담, 교도소심방, 병원심방, 내무반심방, 구제사업, 대민봉사, 특별집회 등으로 사천 공군군목 업무는 지휘관의 이해와 각 부처의 협력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

암아 날로 크게 부흥되었다. 주일에는 단장 내외를 위시하여 군인가족 민간인들도 많이 출석하여 사천, 진주, 삼천포, 고성, 통영 등지의 큰 교회중에서도 공군 군인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빠지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군인교회는 특별히 예배시간이 이른 시간이어서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었다.


군 교회 유치원을 돌아보는 임동선목사

군종업무 중 군목의 활동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가족과 환자들에게 활력소가 되었고 안으로는 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나 교도소심방을 통해 위로를 주므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대민사업에도 놀라운 전도의 손길이 뻗어 나갔으며 사심과 욕망이 없는 군목은 어디서나 과감히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사천 공군 군인교회는 아침 일찍부터 우유를 끓여다가 병원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인접 민간교회 부흥집회를 한 후 그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떡과 과일을 가지고 병원과 교도소를 위문하는 일이 많았다.

교회는 유치원을 세워 군인 문관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조기교육과 정서교육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자녀교육은 물론 군인가족들의 친선유대에도 도움을 주었다. 비행훈련 중 자주 발생하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조종사의 순직 장례식에 기독교의 사생관에 대한 설교가 전 장병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는 큰 동기가 되어 주일이면 그 큰 극장이 가득히 채워졌다.

40여년이 지난 오늘, 그때 사천 공군 군인교회에 나왔던 군인신자 가운데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남미, 유럽 등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생기고 많은 장로가 나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9)

크렌셔교회당을 살 때 크게 도와준 손석효회장(아가방 대표)은 사천 공군 군목 시절, 군목실에서 사병으로 임동선목사를 모시고 복무했다.

군인교회는 물론 민간 교회, 학교 등지로 분주한 군목실장, 임동선소령은 군목업무의 발전을 주도했다

공군 본부 군목실장으로 도의 강연

1957년 9월1일부로 공군본부 명령에 따라 임동선목사는 서울로 올라 왔다.

사천은 "울며 가고 울며 떠나는 곳"이라고 했다. 사천을 떠날 때 군인교회 식구들은 물론 민간교회 일부 식구들도 영전을 축하해 주면서도 서로 헤어지는 아픔에 못내 눈물로 석별을 고했다. 공군본부에 올라와서 9월1일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


공군 군목실장시절 도의 강연을 하고 있는 임동선 목사

어 10월에는 공군 군목실장이 되었다.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참모차장, 일반참모, 특별참모 여러분들이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군목업무에 협조해 주었다. 공군본부 내에 기독장교 회원과 독실한 신우회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

임동선목사는 공군본부 강당에서 도의교육에 대한 강연을 여러번 실시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장병들의 뒷 이야기가 매우 좋은 강연회라는 평을 받게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도의강연을 실시하고 공군대학과 육군대학에 가서도 「인간성의 함양」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그리고 전 공군 예하부대에 다니며 종교 및 도의강연으로 일터는 넓어졌고 업무량은 많아져갔다. 육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백령도까지 가서 강연을 했다. 임동선목사는 민간교회에 가서도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미션 스쿨 · 고등학교 · 대학 등에도 갔다. 그리고 방송과 지상투고로 바쁜 날을 보냈다.

공군군목 업무의 당면과제로 가장 큰 문제는 편제상 인사국에 예속된 군종실을 독립된 군종감실로 승격시키는 문제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군목의 증원문제였다. 임동선목사는 이 작업을 곧바로 착수했다. 임동선목사가 맡은 군종업무는 주님의 은혜 중에 계속 순조로웠고, 희망적이었으며 급진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 앞에서 의(義)로운 설교

공군 군목업무 창립기념예배를 여의도 공군본부 군인교회에서 갖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께서 참석한다는 통고를 받은 공군본부에서는 교회 수리작업에 열을 올렸다. 임동선목사는 한편 마음속으로 기뻤다. 대통령께서 자주 오시면 군인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에는 참모총장이 친히 교회로 나와 각급 참모들과 함께 교회의 단장과 의자 및 기타 모든 것을

젊은 패기와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앞에서 행한 설교를 지금도 임목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공군군목업무 창립기념 예배 후 기념촬영
왼쪽에서 4번째가 임동선목사.

점검하였다.

주일 아침 예배시간이 다가왔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3군 총장 및 각 군의 고급장성들이 많이 참석하여 교회 장소가 입추의 여지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대통령 내외분은 강대상 앞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다. 예배순서에 따라 설교시간이 되었다. 그날의 성경본문은 이사야 6장1절에서 13절이었고, 임동선군목은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이사야는 웃시아왕이 죽은 후 분단의 조국과 혼란 된 사회와 북방의 강국 앗수르의 침입의 위기의식을 안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고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로 지져, 네 악을 제하였고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거리에 나와 그 백성의 회개운동을 전개하여 그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쪽에는 중공군과 소련군이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호시탐탐하는 이 때에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군비확장, 신무기 도입, 국제친선, 치산치수, 과학개발, 유엔가입, 남북통일 등 많은 구호를 내세웁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임동선목사는 손으로 대통령을 지적하며) "저 경무대에서부터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살길이 열릴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 창의력, 실용주의, 청교도 정신, 자유, 인권, 박애, 민주주의, 다양성 속의 통일 등이 첫 미국 유학에서 느낀 점이다

임동선목사는 어떻게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지 교회가 떠나가도록 사자와 같이 외쳤다. 이대통령께서는 몸을 움직이고 중풍이 있는 얼굴에 한층 더 경련을 일으켰다. 평소에 임동선목사를 아끼던 참모총장 이하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속으로 "아이고! 아까운 젊은 목사 한 사람 희생되었구나" 하고 매우 근심들을 했다.

예배를 마치고 임목사는 먼저 나아가 교회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들을 위해 일일이 악수할 때 이승만대통령이, "임목사! 내가 오늘 오랜만에 좋은 설교 들었시다. 부디 오늘 그 설교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힘차게 전해 주시오"하고 손을 꼭 쥐고 흔들며 떠나셨다. 과연 큰 인물이구나 생각했다. 그제서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군목으로 1958년 첫 미국 유학길

미 태평양 사령부 군목장과 미 공군본부 군종감 퍼니겐소장의 배려하에 임동선목사와 천주교 강대형신부 두 사람은 1958년 8월2일 미공군 비행기편으로 도미 유학 길에 올랐다. 텍사스에 있는 샌 안토니오 랙크랜드 공군기지 군목학교에 공부하러 가게되었다. 임동선목사는 미국 군목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3개월간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했다. 자유세계 50여개국에서 선발되어 온 공군장교 및 사병들과 같이 매일 8시간씩 영어공부에만 주력을 하였다.

여기서 임동선목사는 한국사람이면서도 긍지를 느낀 것은 주일이면 시내에 있는 미국제일침례교회에서 보내는 버스에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그밖에 여러 나라 장교와 사병들의 인솔자로서 교회에 가고 오는 일이었다.

제일침례교회에 5개월간 출석하는 동안에 임동선목사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인이 있다. 바로 미세스 캐론이다. 미세스 캐론은 임동선목사에게 자기의 한 주의 일과를 소개해 주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며, 토요일은 자기 집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며, 주일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온전히 하루를 다 바친다고 했다. 과연 그 부인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와 도서관을 정리하고 자기 차를 몰고 외국 유학생들을 픽업하여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점심을 먹인 다음, 오후에는 학교,도서관,전적지,공원 등으로 안내하고, 저녁을 간단히 대접한다. 저녁예배에 참석시킨 후 또 자기 집에 데려가서 다과와 음료수를 대접하고 기숙사에 데려다 주곤 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몸바쳐 봉사한다면 모든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이다.

영어학교 3개월을 마치고 임동선목사는 군목학교에 입학했다. 세월은 흘러 5개월이 지났다.

세계 자유국에서 유학온 학생들과의 아쉬운 정을 나눠야만 했다. 임동선목사는 군목학교를 졸업했다. 좋은 나라에 왔지만 관광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당면한 일에 열중하였다.



공군 군목시절, 정복의 임동선목사

군목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워싱톤 DC에 있는 미국 군목장으로부터 자기의 전용비행기 4발기를 단 한사람 한국군 공군소령 임동선군목을 위해서 보내왔다. 임동선목사와 같이 유학왔던 강신부는 딴 곳으로 가기 때문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워싱톤 DC에 도착했다. 미 공군 군목들이 출영을 나왔고 VIP로서 대접을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미 공군 군종업무의 현황과 미 국방성과 백악관을 견학했다. 그리고 뉴욕을 거쳐 풀멘 카로 시카고에 잠시 내려 견학을 하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아시아에 있어서는 군목제도가 한국뿐이라는 사실도 실감했다.

임동선목사가 미국유학에서 배운 점은 참으로 많았다

임동선목사가 미국에서 첫번째 유학에서 느낀 점은 참으로 많았다.

1. 방대한 나라에 풍부한 자원 2. 창의력 3. 실용주의 4. 청교도 정신 5. 자유 6. 인권 7. 박애 8. 민주주의 9.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 등이었다. 부럽기 한이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임동선목사가 다시 조국에 돌아와서 느낀 것은 주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만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잘한 일이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임동선목사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미국의 짧은 교육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조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코자 마음 깊이 다짐했다.

군종 참모시절 숭실대학서 공부



숭실대학 졸업때 임동선목사

서울공군본부로 전속된후 임동선 군종참모(중령)는 만학의 길을 선택,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이 대학은 과거 많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이다. 공군 당국의 허가도 얻고 동료 군목의 양해를 받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동선목사는 아침에 참모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도의강연을 다니고 야간에도 민간교회 부흥회를 나갔다. 때로는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도 했다. 강의를 빠질 때도 있었다. 그때 얌전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던 김동수박사(후에 미국 대학교수)의 노트를 가끔 빌려다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곤 했다.

지금처럼 녹음기라도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그 당시는 녹음기가 없었다. 철학과에는 모두 35명의 학생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미 안수받은 목사도 여러명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은 목사 아들들이고 그 중에는 순교자 자제도 있었으며 대체로 잘 믿는 신자들이었다. 함께 졸업한 동창들은 후에 목사가 되어 유능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

숭실대 철학과 학생, 부흥강사, 민간교회 순회, 출장,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공군 군종참모 시절이었다

그 당시 임동선목사를 가르친 교수는 조요한, 김능근, 김석목, 김형석, 안병욱, 조가경, 지명관 교수였다. 교수들로부터 학적 권위와 신앙적, 인격적 권위에 큰 감화를 받으며 배웠다. 임동선목사는 숭실대학 재학중에 군사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남보다 1년 늦은 1960년에 졸업했다. 졸업얼마후 숭실대 학생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임동선목사는 빚을 갚는 의미에서 순종하였다.

부흥회를 마쳤을 때, 부학장 우회익장로께서 "임목사, 우리는 심은지 1년만에 따먹소"라고 임동선목사에게 말을 건네자 임목사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우장로는 다시 "나무는 심은지 3년이상 5~6년이 걸려야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임목사를 가르쳐 내보낸지 1년만에 데려다가 실과를 땄다는 말이오"라는 것이었다. 임동선목사는 기뻤으며 학생들과 교수들도 퍽이나 자랑스러워 했다.



숭실 대학 재학시 교우들과 함께 (중앙이 임동선목사)

그 바쁜 공군 군종참모 때에 "숭실대학에 입학하라"고 권유한 임재순사모는 임동선목사의 숭실대학 시절을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남편의 그후 서울 생활은 더욱 바빴다. 더 많은 집회와 출장으로 집에 들어올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군종실장이 된 후 군종업무는 날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교회의 순방집회도 했고 군민친교의 유대도 날로 두터워졌다. 그밖에 전공군 예하단대와 제주도, 백령도까지 다니며 도의교육, 부흥회 등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그후부터 남편은 늘 군목업무를 마치면 더 신학을 연구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기도했다. 남편은 언제나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폭 넓게 일하려면 실력을 쌓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항상 기도했다. 남편은 한국전쟁 때 납치된 형님의 몫까지 일할 것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군은 집념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단계로 학교에 진학할 것을 나는 권했다. 군대에서 주는 지프와 운전수가 있기에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여 바쁜 일과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일찍 부대로 출근해서 업무정리를 한 다음 학교로 달려가서 공부하고 못다 배운 학과는 급우의 노트를 빌려왔다. 그러면 나는 대신 노트정리를 했다. 철학과의 과정이 나에게는 아주 흥미로워서 공부도 할겸 기쁘게 정리했다."

당시 공군본부 군종감실에서 임동선목사를 모시고 있던 임병택목사(당시 군종 중사,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는 숭실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초대 공군 군종감 시절

"임목사님은 너무나 바쁘셨다. 아침에 참모회의에 참석하고 낮에는 도의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는 숭실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졸때가 많았다. 짚차를 타고 학교에서 오실 때는 노트를 빌려서 오신다. 그리고는 임중사, 이것을 다 베껴주어 라고 해서 베낀 적이 있다. 참으로 기적같은 삶을 사시는 것을 보았다."

1986년 7월 동양선교교회 초청으로 신앙강좌차 로스앤젤레스에 온 김형석교수는 "임동선목사를 숭실대학에서 가르쳤는데 너무나 열심이셨다. 숭실대학 졸업생이 미국의 최대 이민교회로 부흥성장 시켰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초대 공군 군종감, 대령으로 제대

초대 공군 군종감(대령) 임동선목사는 1964년 12월31일부로 창공의 용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던 공군에서 푸른 제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왔다. 공군 군목생활 11년간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노른자위를 바친 특수 목장과 특수목회였다. 후회는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1964년 12월 31일 초대 공군 군종감을 끝으로 11년의 군목생활을 마치고 민간인 목사로 돌아왔다

감사하는 이유는,

1. 대한의 남아로서 신성한 조국의 주권과 강토와 생명 재산을 위하여 군무에 봉사했다는 일에 대하여
2. 공군을 비롯하여 육,해,공군 해병대의 수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3. 군에 있으면서 직접 간접으로 민간교회를 지원봉사했다는 점에 대하여
4.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5. 군에 있으면서 우방선진국에 단기간이나마 유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6. 군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두 자녀를 얻었다는데 대하여.

11년 동안 특수목회에 있어서 대과없이 도와주신 하나님과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각군 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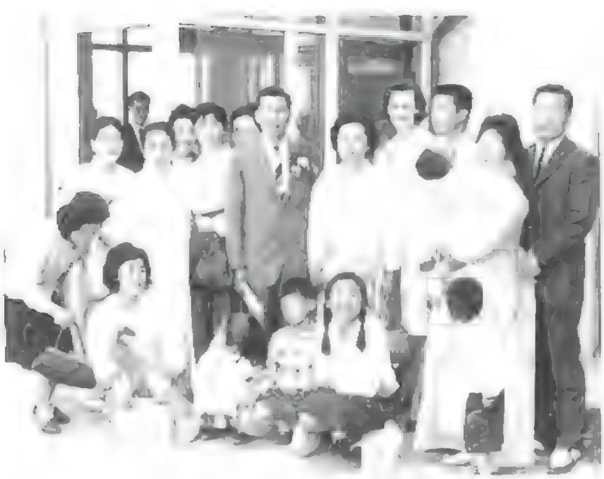
관 및 전 장병과 민간교회 여러 선배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금도 역대공군 참모총장께서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갈 때에는 임동선목사에게 연락을 주신다. 바쁘면 전화로 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또 같이 옛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나눌 때 임동선목사는 기쁜 마음을 갖는다.

임동선목사는 공군에 많은 정이 들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하늘색 아니면 은색을 택하고 좋아한다. 잔뼈가 공군에서 굵어지고 고운 정 미운 정이 몸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은색을 사랑한다.

임동선목사의 도미 유학을 임재순사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2번째 미국 유학,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정착

임동선목사는 제대 후 미국에 유학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뜻을 안 교우들이, "임목사님 떠나시는 것이야 어찌 말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설교집을 출간해 주시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임동선목사는 「절망의 극복」이라는 첫 설교집을 출간하고 정든 고국을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잘있거라 정든 고향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아! 그리고 공군장병들아! 내 동포들이여!"



1965년. 유학을 떠나기전 공항에서 환송 기념촬영하고 있는 임동선목사 가족

임동선목사는 제대한 후 한때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택할까 생각에 잠겼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일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미국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많은 동역자와 평신도들의 만류가 있었다.

임동선목사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 좋은 일자리 세 곳이 나타났다.

1. 성결교단의 전국 전임부흥사로
2. 시내 큰 교회 담임목사로
3. 어떤 작은 교단의 감독으로

이상의 조건들은 세상적으로 보아 명예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들이다. 그러나 임동선목사는 기도 끝에 자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와서 일할 것을 결심하고 임재순사모와 의논했다. 임재순사모가 적극적으로 밀어 주었다. 임동선목사가 유학의 길에 오를 때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사모이다.

1965년 5월19일 임동선목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임재순사모와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을 떠나 시애틀에 도착하였다. 미국 순복음신학교 교장이 출영하여 주었다. 임동선목사는 이튿날 5월 20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니 일찌기 미국 동양선교회(OMS)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일생을 바쳤던 길보른선교사와 헤인스선교사가 맞아 주었다. 로스앤젤레스

에 들어와 동양선교회 본부로 가서 케이픈씨댁에 여장을 풀었다. 임동선목사는 이곳에서 2개월간 신세를 졌다. 실은 켄터키주에 있는 애즈베리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다. 그러나 임동선목사는 팔자좋게 공부만을 할 수가 없었다. 우선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주경야독의 고달픈 미국생활 시작

임동선목사는 아파트를 구하고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임동선목사의 나이는 벌써 43세였지만 새로운 개척생활에 보람도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희망을 가졌다. 목적이 공부였기에 최저의 경제생활을 해 나가야했다. 임동선목사가 한국에서 떠날 때 가져온 지참금은 총1백50달러였다. 그 중에서 1백달러는 일신방직 사장으로 숭전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김형남장로 내외분이 주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떠나기 전날 밤 김장로 사모께서는 한복 한 벌과 두루마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셨다.

그 당시 아파트의 한달 렌트비는 22달러였다. 세 사람이 한방에서 기거하였다는데 그 때 룸메이트로는 허경삼목사(현재 오렌지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와 이성호집사(미주성산교회 장로)였다. 이 방은 냉장고와 화장실도 없었다. 오븐도 없다. 참으로 누추한 방이었다. 최대한의 절약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라한 모습을 본 어떤 분은"이것이 미국생활이요?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을 텐데"하면서 임동선목사와 두 사람을 안타까운 눈초리로 보았다. 그러나 공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노릇이었다. 1년 열두달 반찬은 언제나 감자, 고기, 파 등이다.

"이것이 미국생활이요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을 텐데"

처음 미국에 도착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동선목사는 동부 학교로 떠나는 김의석목사에게 Parker & Son이라는 인쇄소에 취직을 부탁했다. 김목사는"나이가 많으신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1965년 9월16일 미국에서 첫 취직이 되었다. 미국 도착한지 4개월만의 첫 직장이었다. 버스를 타고 첫 출근을 했다. 하는 일이란 물품 출납(Shipping and Receiving)이었다. 또 여러가지 잡일을 도맡아 해야하는 것이었다. 낮에는 인쇄소에 나가서 일을 했고, 밤에는 영어학원에 나가서 영어공부를 했다. 한 달의 생활비는 방값과 식대를 포함하여 23달러로 살아갔다. 미국이지만 밑바닥의 생활을 해나갔다.

임동선목사는 과거를 잊어야만 했다. 한국에서는 공군대령, 군종감, 유명한 부흥목사였다. 그리고 대학과 신학대학을 나왔다. 때로는 부흥강사로 전국을 다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잠시 백지로 돌렸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땅에 온 임동선목사는 인생의 새 출발을 각오했다.

첫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다. 신학교와 군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훈련된 몸이고 인쇄회사의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인쇄기 청소를 도맡아 했다. 70년 묵은 인쇄기마다 쌓인 먼지와 때를 휘발유와 좋은 걸레를 가지고 마치 군에서 소총과 기관총을 닦듯 광채가 나도록 닦아놓았다. 인쇄소에 취직한지 3개월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동부로 떠나는 유학생의 차였다. 10년이 지난 중고차로 3백50달러를 주었다. 그런데 차는 사는 날부터 고장이 났고 자동차 때문에 수리비가 무척 많이 들었다. 1천여 달러의 아까운 돈을 고물차가 다 먹어버렸다.

이때 임동선목사에게 마음 아픈 편지가 날아왔다. 막내아들 승천이가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라고 편지를 써보냈다. 작은 딸 승향이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해도 지구 어디엔 가에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겠지요."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편지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승광이는 경복중학에, 승혜는 이화여중에 다니고 있을 때이다. 막상 미국에 와보니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가족과 떨어져 오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 아님을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다. 다시 가족을 위해 임동선목사는 기도를 드렸다.

1967년 영주권 받고 가족과 상봉

임동선목사는 철 모르는 어린 자녀들의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편지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영주권이 없으니 직장에 문제도 있고 학교공부에도 지장이 있었다. 영주권을 받기로 했다. 임동선목사는 이 뜻을 동양선교회(OMS)본부에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결정을했다. OMS는 선교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타도록 도와주었다. 영주권을 받은 임동선목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상봉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다.

경복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 승광이만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했고 온 가족이 이민을 왔다. 도미한지 2년이 되는 1967년 6월3일 가족과 기쁨의 상봉을 했다.

허경삼목사는 이미 켄터키 애즈베리신학교로 떠났고 딴 목사와 이성호집사 셋이 살았는데 가족이 왔으므로 정들었던 룸메이트 생활을 청산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웨스트 레이크쪽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도미 2년만에 영주권을 받고 가족을 초청, 기쁨의 상봉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인 여자 매니저는 간섭이 몹시 심했다. 막내아들 승천이는"미국은 자유가 많은 나라라면서 왜이리 간섭이 많으냐"고 투덜대었다. 그때 임동선목사 가족은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니저는 "발꿈치를 들고 다니라"라는 메모까지 써주기까지 했다. 임동선목사는 이 아파트에 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인 노파가 혼자 살고있는 하이랜드 팍으로 다시 이사를 했다. 그댁은 자녀들이 넓은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임동선목사 가족에게 세를 준 것이다.

세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큰딸 승혜는 고등학교에, 승향은 호바트초등학교 5학년에, 막내아들 승천은 초등학교 3학년에 각각 입학을 했다. 처음 작은 딸과 막내는 학교에 갔다오더니"산수나 미술은 잘 하겠는데 다른 시간은 영어를 못해서 앉았다가 오기만 한다"고 임동선목사에게 말했다. 임동선목사 가족이 사는 곳은 백인 동네로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도 아이들과 집에서나 밖에서 어울려 놀다보니 그후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임재순사모도 미국에 오자마자 쉴 사이도 없이 바로 일터를 찾아 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봉제회사에 나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공장에 갔다오면 어깨가 쑤시고 팔 다리가 저리는 등 힘에 겨웁기도 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다. 연약한 여인으로 남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3역 4역을 감당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벽을 달리는 힘찬 여인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쁨의 날을 보냈다.

임동선목사는 사모의 뜻에 따라 밤마다 나갔던 영어학원을 중단하고 1968년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를 태워 봉제공장까지 데려다 주고 그 길로 30마일 이상 학교로 달려갔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차에 싣고 차 중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다. 임동선목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돈과 시간과 사람의 눈치를 생각치 않고 성심 성의껏 일했다.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려면 프리웨이 위에서 몰려오는 잠을 참으려 허벅다리를 꼬집었다. 머리칼을 뜯고 뺨도 치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졸음을 물리치려고 무던히 싸웠다. 그러나 졸음은 여전히 파고들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적도 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 시절, 인상깊었던 한가지는 학교에서 함께 다녀온 성지순례였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매년 성지현장을 방문하여 성서지리의 고고학 연구를 하도록 했다. 비록 사모가 바느질 공장에서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임동선목사는 마지막 학년 때에는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냥 방문이 아니고 연구를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려울 때면 생각나는 것은 임재순사모 성지순례 여행중 부족한 여비를 위해서도 임목사는 사모께 전보를 쳤다

임동선목사는 1969년 6월16일부터 한달 동안 신약학교수(교무주임 겸임) 캠블교수의 인솔하에 졸업반 학생들과 함께 떠났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을 보면서 생생하게 성경역사를 공부했다.

성지방문은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곳으로 출애굽 사건이 연관된 역사적인 땅이다.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섰다. 요단강, 사해, 여리고, 예루살렘, 욥바, 가이사랴, 사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가나 등 감사와 기도로 순례를 했다.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감동은 한이 없었다. 다시 레바논, 희랍, 싸이프러스, 로마까지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옛 모습 그대로 답사했다. 마치 사도행전을 쓰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

신학생 성지순례단은 로마에서 헤어졌다. 각자가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유럽대륙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이때 임동선목사는 그만 여비가 떨어졌다. 주머니가 텅비게 되었다. 교수는 로마에서 학생들을 풀어놓고는 스위스의 무슨 호텔에서 만나도록 정해주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진 것이다.

임동선목사는 하는 수 없이 로스앤젤레스 집으로 전보를 쳤다. 어려울 때면 생각나는 것은 임재순사모 뿐이다. 스위스에 사는 어느 분에게 1백달러만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스위스의 그 집에 가니 이미 돈이 와 있었다. 임재순사모를 만난 것만큼이나 반가왔다. 그리고 돈도 보내라고 했던 액수보다 더 많았다. 1백50달러나 와있었다. 임동선목사는 사모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다. 사모의 신앙을 크게 알 수가 있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동사목사로

신학교에 다니면서 한인교회와 미국인 교회를 다녔다

임동선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하기전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에 다니면서 한인교회와 미국인 교회를 번갈아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었다. 이때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교회주소: 1345 Berendo St.) 김동명담임목사로 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강사 요청을 받고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부흥회가 끝난지 얼마후 김동명목사와 박근서목사(당시 장로)가 임동선목사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의 동사목사로 시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동선목사는 많은 생각 끝에 이를 받아 들였고 1967년 1월 8일부터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의 동사목사로 교회를 섬겼다. 그 당시에도 임목사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 목사 시절이었다.

임동선목사는 파트타임 동사목사로서 1967년부터 1970년 1월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서 3년간 설교 사역을 담당했다. 임목사는 한달에 2번씩 주일예배 때 강단에서 주일설교를 맡았다. 이때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는 유학생이 많이 출석을 했고 갓 이민오는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임동선목사의 주일과 수요일 설교 때에는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 출석교인들이 많았고 임동선목사를 좋아했다. 임동선목사는 한국에서도 이름이 나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새 교인들이 임동선목사의 이름을 듣고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찾아왔다.

임동선목사는 졸업준비를 하면서 베다니한인교회(담임 김학철목사)와 미국인 교회도 번갈아 나가면서 이민 목회 경험을 쌓아갔다.

2001년 6월 김동명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원로목사(현재 산호세거주)는 인터뷰 때"임동선목사님이 나를 도와 주셨다. 동사목사로서 한달에 두번씩 설교를 맡았다. 임동선목사는 겸손하고 좋으신 분이시다. 교회를 따로 세우기를 원해서 떠나셨다. 교인은 한 두가정만이 나갔다"

라고 임동선목사가 떠날 때를 기억했다. 그당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 출석하던 박근서장로(현재 싸이프러스 한인침례교회 원로목사)는 "임동선목사는 한국에서 이미 이름이 나있는 목사였고 새로 이민오는 교인들이 많아지자 침례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신학석사 학위의 기쁨을 사모와 함께

임동선목사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숙제는 해야겠고 집안 살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거기다가 영어나 타자도 서툴러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다.

어느 날은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곳에서 숙제를 해야 했다. 또 어떤 때는 수퍼마켓에 가서 사모가 물품을 사는 동안 임동선목사는 파킹장 전신대에 켜진 외등 밑에서 숙제를 하기도 했다. 또 희랍어 시험 때는 시험문제를 종이에 적어서 등교길에 운전대 앞에 붙여놓고 공부를 할 때도 있었다.

1968년 4월8일에는 임동선목사의 큰아들 승광군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 1969년 12월20일에는 86세를 일기로 부친 임근회씨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로 슬픔을 달랬다. 불효한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 6월13일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의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일하며 공부하며 유학 5년만에 졸업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 학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공부한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유학생 중에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딴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임동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신학석사 학위를 받게된 졸업식 임동선목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의 날 이었다



1970년 6월 북침례교 신학교 졸업식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있는 임동선목사

선목사는 말없이 2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착실히 출석하여 공부한 후 졸업반에 올라와 교수에게 학점 인정을 요청했다.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열어 40학점을 봐주어서 졸업점수인 146학점으로 3년만에 졸업을 했다.

임동선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신학교와 한국 신학교가 다르다고 느낀 점은 참으로 여러가지이다.

1. 미국 신학교에는 도서가 넘쳐 있다.
2.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실력있는 교수가 많고 교수의 권위가 대단하다.
3. 교수 한사람이 갖고 있는 장서가 풍부하다.
4. 미국 신학교 안에는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공존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융화와 통일성이 있다.
5. 학문에 대한 자유가 폭 넓다.
6. 동성연애자와 공산당원을 초청해서 갖는 초청 특강시간도 있다.
7.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하는 산 교육을 한다.
8. 양적 보다는 질적으로 인재양성을 한다. 50명이 입학했으나 졸업은 15명만 했다.
9. 학생부인들에게 명예석사학위 수여를 한다.
10. 졸업식은학교, 학생, 교회의 합동 순서로 진행한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수확인 신학석사학위를 받을 때 임동선목사에게는 물론 또 임재순사모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었다. 졸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학계에서 본 동양선교교회 30년

- 동양선교교회와 세계선교... 김찬희교수
- 동양선교교회와 한인사회... 유의영교수
- 동양선교교회, 비전과 방향... 신선묵교수

동양선교교회와 세계선교



김찬희 박사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동양선교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 교육, 봉사의 삼대 사역 가운데 선교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이기에 교회 이름도 "선교교회"라고 지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교단"보다 초교파적인 말씀의 선포에 역점을 두게 되므로 자연히 그리스도의 공 교회를 앞세워 교파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임동선목사님은 웨슬리의 후예이지만 그는 웨슬리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을 초월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에 역점을 두는 교회를 만드신 것이다.

미주 한인 교회들이 초창기에는 대개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교파별로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동양선교교회는 하나의 특수한 교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임동선목사님의 초교파적인 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나 부흥사들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파를 홍보하지 않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둔다. 임동선목사님이 가지신 그러한 입장이 동양선교교회라는 초교파적인 교회를 이룩하게 한 요인이 되지 아니했나 생각이 된다. 따라서 초교파적인 교회였기에 개체 교회가 주동이 되어 마음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대외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체 교회가 교단 본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동할 수 있었기에 교인들의 참여도를 또한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교인들은 자기들이 드린 선교 헌금이 피부에 느끼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동양선교교회가 가진 하나의 특색이요 특권이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동양선교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21세기 초엽에 서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이러한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하여야 할 선교 사역이 무엇이겠는가? 단 한마디로 그것은 민족의 화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다. 민족의 분단은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단도 너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조국을 다시 화해시키는 것이 이민교회가 당면한 선교적 과제다. 옛날의 이민 교회가 늘 조국을 위하여 선교하였듯이 오늘날의 이민교회도 조국을 위하여 선교하여야 한다. 이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라고 믿는다.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선교사역을 초창기부터 하여 왔다. 그야말로 선교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인정 받아 왔다.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였으며, 많은 선교비를 이들 세계에 보냈으며, 많은 지역교회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선 교회는 좀 더 과감한 선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인은 남북 화해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한가지 구체적인 선교사역을 제창하고 싶다. 그것은 곧 북한에 의료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북의 인민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다.

둘째, 이북은 지금 기독교가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최초에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고종황제로부터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사업부터 윤허를 받고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도 서양 종교를 포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법을 알면서도 선교사역의 이러한 측면이 있음을 알았기에 감히 선교 사역하러 한국에 온 것이다. 이는 물론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개인이 주선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라는 교회가 이러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 처음 한국에 미감리교회와 미장로교회가 교육과 의료사역을 시작함으로써 폐쇄된 한국 사회에 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도 의료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선교의 전초 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의료사역을 통하여 실추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 교회와 달리 미주 한인 교회들은 쉽게 이북에 접촉할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이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

여섯째, 잃어버린 동족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 교회의 사명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양선교교회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화해를 위한 대북 선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에 처한 동양선교교회에 대한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돌이켜 볼 때 동양선교교회가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위치는 임동선목사님의 지도력에 힘입는 바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를 많이 한 교회인 동양선교교회는 그 분의 은퇴 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의 강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한 지도자가 30년 이상 목회하고 물러날 때에는 어느 정도 교회에 동요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여 과도기를 넘기려 하여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임동선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회학적인 인간행동의 현상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동양선교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 교회들보다도 원하는 곳에 또한 원하는 종류의 선교사역을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임동선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그 분이 닦아 놓으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은 변함없으리라고 본다.



동양선교교회와 한인사회

유의영 박사
칼스테이트 LA 사회학 교수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위치한 동양선교교회는 새 이민물결에 의한 미주 한인사회가 본격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70년에 태동하여 한인사회와 함께 살아온 4천여 미주한인 교회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이다. 창립 30년만에 5천여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성장한 동양선교교회는 남가주한인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선교, 교육, 봉사 사역이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한인 다이아스포라 커뮤니티에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이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의 기본적 사명인 말씀선포와 선교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에서도 모든 한인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남가주 한인사회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4.29폭동으로 2천여 한인 업소들이 방화, 파괴, 훼손된 일도 있었고 남가주 한국학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때마다 한인사회는 교회의 도움을 기대했고, 교회는 이와같은 기대와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호응하려 노력했다.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대에 호응하는 일에 항상 앞장선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였다. 남가주의 수많은 한인교회, 그리고 전국의 수천에 달하는 한인교회들은, 먼저 동양선교교회, 그리고 나성영락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각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사회참여하는 일을 했다. 이러한 사회참여를 통해 교회는 미주한인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되는 위치로 굳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교회가 미주한인전체 인구의 75%나 되는 사람들에게 영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된 배경에는 동양선교교회가 보여 준 것과 같은 교회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있었다.

동양선교교회의 봉사활동은 좋은 한인 그리고 한인타운에 국한 된 것만이 아니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주변에 거주하는 어려운 라틴계 또는 동유럽 이민들을 위한 구제사업,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남미 여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 구제사업에도 힘을 썼다. 한흑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흑인교회들과의 교류활동. 협조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계 각 곳에 파송하며 선교하는 일과 함께 그곳의 주민들을 돕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국에 큰 재해가 있을 때마다 동양선교교회는 돕는 일에 크게 한 몫씩 담당했고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를 돕는 일,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교회학교, 한국학교, 월드미션대학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일꾼들이 미국과 세계 각곳에서 선교활동, 교육활동,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양선교교회가 이와같이 큰 일들을 해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배경에 임동선목사님과 같은 큰 그릇의 지도자가 있었고, 임동선목사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수많은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동선목사님이 하신 많은 사랑의 일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아무도 모르게 베푸신 사랑의 업적이 기록으로 남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는 잘 안다. 인정이 많은 목사님은 어려운 방문객을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오지에서 고생을 하는 선교사가 오면 생활에 보태라고, 자동차를 고치라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젊은 이를 보면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꼭 잡아 주신다. 한인사회의 비영리 단체에 약속하신 성금을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처분하여 해결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임동선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1950년대 후반 대학교 2학년때였다. 아버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공군 장교복을 입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보고 멋지게 생긴 목사님도 계시구나 하고 느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외모와 같이 말씀도 멋지구나라고 느꼈다. 그때에 받은 감동적 인상으로 나는 일생동안 목사님을 좋아했고 존경했다. 나는 1968년 Cal State LA대학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목사님의 활동을 살펴왔다. 사회학자로서의 직업적 안목으로 ,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감동의 말씀을 새겨주신 분이라는 친근감으로 목사님을 대했다.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면 계산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추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의 많은 사업들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곤 했다.

내 주변에 임동선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헤아릴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뿐이다.

동양선교교회, 비전과 방향



신 선 묵 박사
월드미션대학 교수

동양선교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원리 몇 가지를 써 본다.

1. 교회의 갱신: 기본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회복 강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체는 교회를 포함하여 일정한 생명체의 순환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창립되고 발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조직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깊어지면 초창기의 비전과 목적을 상실하고 발전기의 생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에 항상 속으로부터 갱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늘 갱신해야 한다.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동양선교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여도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이고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한다. 교회는 개인 개인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는 현장이어야하고 복음이 세상에 더욱 활발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교회의 전통을 강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강화

두번째로 교회는 그 교회의 좋은 전통을 바로 정립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 시대가 흘러도 좋은 것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동양선교교회가 지금의 대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분명히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 보아도 선교에 대한 헌신, 교육에 관한 관심,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의 좋은 전통이 있다. 이제까지는 그저 앞으로 향하여 달려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전통을 한번쯤 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양선교교회의 30년 역사 편찬 작업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도자로서 임동선목사님의 신학과 철학 또 목사님의 목회, 설교, 영성, 선교사상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후진들을 위한 좋은 자료도 되지만 동시에 동양선교교회의 전통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을 수립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이 다 교회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지만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모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연구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지키는 일들이 중요하다.

3. 과거의 영광을 잊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반응

전통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당면한 도전과 기회를 바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1세대와 2세대는 다른 도전을 당면하고 있고 교회가 위치한 이민사회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항상 동일하고 교회의 좋은 전통은 지켜야하지만 우리 교회는 늘 새로운 도전을 직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하며 이러한 도전을 바로 이해하고 민감히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안일에 빠져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발전적인 의미로 과거의 성공과 성취를 뒤로할 줄 알아야한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다. 넓게 말하면 현대 문명은 소위 말해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향하고 있도 또한 한인 이민사회는 이제 이민 2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그러나 겸허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또 한번 교회가 약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4. 새로운 미션에 다른 사역의 전략을 세움

동양선교교회의 미션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적, 전통적, 시대 상황적인 사명을 바로 이해하고 수렴의 절차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의 미션이 분명해야 한다. 몇가지 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첫째, 동양선교교회와 창립 세대는 임동선목사님의 개인의 비전과 지도력을 중심으로 상호 발전을 이루어 왔다면 교회의 2세대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비전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기에는 동양선교교회가 너무 성장해 있다. 또한 효과적이지 않다.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을 함께 연구하여 설정하고 그것을 교육하여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것은 절대 필수의 조건이다. 둘째,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 정보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사역의 자료와 기술들이 있고 한 곳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그러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한 미션이다. 교회의 공감된 미션이 분명히 나오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나와야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산발적이 아닌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용이 있어야한다. 한 교회는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고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것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원리는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 동양선교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지도력으로 어떤 기술로도 주님의 교회는 유지될 수 없고 발전될 수 없다. 이 모든 기술과 철학, 지도력은 단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 믿음 아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끗이 바로 서고 주님을 위하여 진정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양선교교회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

동양선교교회 교회연혁

1970년

7. 26 : 임동선목사 댁 (926 S. Irolo St)에서 창립예배 (27명 참석)
8. 2 : 첫 한달 헌금 전액을 한국농촌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
8. 16 : 운영위원 선출 (임동선, 오해훈, 원치항, 오철훈, 이성호, 이경철, 김준호)
8. 16 : 첫 한달 헌금 400달러를 한국 크리스찬 신문사에 보냄(농어촌 교회에 300달러, 대전 은퇴여교역자 수양관에 100달러)
8. 23 : 이성원을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
9. 12 : 한국 크리스찬 신문 "동양선교교회 창립 및 선교비 4백달러 전달"을 보도
9. 12 : 운영위원 추가 선출 (황재열, 정하경, 명재덕, 한건수)
10. 4 : 9월 헌금 3백달러를 한국선교와 나성지역 구제 기금으로 전달
11. 1 : 4700 Santa Barbara Blvd의 미국인 침례교회로 예배처소 이전
11. 1 : 처음으로 저녁예배(오후 6시)를 드림
11. 8 : 부인회 조직
(회장: 명순봉 부회장: 하애도)
11. 22 : 첫 추수감사절예배, 입교식, 학습, 세례 및 성찬예식
12. 1 : 성가대지휘자에 김종일집사 임명
12. 6 : 청년회 조직
(회장: 장동환 부회장: 김익자)
12. 20 : 오전 11시 성탄 예배
오후 6시 30분 한미합동축하예배
12. 25 : 오전 11시 교회창립 후 첫 성탄 축하예배
12. 27 : 신년도 제직
목사: 임동선, 황재열, 정하경, 김성선, 이종만
전도사: 김효순
장로: 명재덕, 한인수
권사: 김상옥
12. 27 : 첫 주일학교 교사회의
12. 31 : 한미합동 신앙영화 간친회, 간증회, 성찬식 거행

1971년

1. 1 : 예산총액 1만5천달러
1. 1 : 임동선목사 6년 4개월 다니던 Parker & Son 인쇄소를 그만두고 교회일 전념
1. 3 : 제직회 구성
1. 10 : 선교부를 처음 조직
1. 17 : 모국에 보낼 구호품 모집
3. 21 : 부인회에서 한국 여학생 1명에 장학금 전달
5. 5 : 제직회, 교회건축을 논의
6. 6 :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임동선목사
6. 20 : 첫 야외예배에 124명 참석
(장소 파사디나 브룩사이드공원)
7. 4 : 정하경목사 사임
7. 1 ~ 7. 21 : 창립기념 부흥성회
강사: 최학철목사(신촌성결교회)
7. 25 : 창립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최학철목사
장로취임: 명재덕,
장로장립: 김용서, 한건수
8. 1 ~ 8. 22 : 임동선목사 첫 남미선교집회 인도
8. 22 : 모국 수재민 구호금품 모집
8. 29 : 임동선목사 남미선교 보고예배
9. 26 : 매월 30달러 선교비를 한국에 송금
10. 10 : 제직회, 건축헌금 구좌 개설
12. 5 : 청년회 임원
(회장: 장동환 부회장: 유천근)
12. 5 : 903 Crenshaw Blvd의 미국 치과의사협회 건물 구입(13만5천달러)
새 성전 입당예배
12. 5 : 주일학교 교사 임명
교장: 임동선 부장: 박천흡
교사: 김상규, 윤수한, 주성진, 황순화, 임승향
12. 6 : 부인회에서 주관하는 너서리(탁아소) 시작
12. 20 : 교회 차타인가 (No 21260)

1972년

1. 1 : 시무집사 임명 (남11명, 여 10명)
1. 2 : 성가대지휘자 박환철 임명
1. 16 : 맥파랜드 유복형집사 건축헌금으로 소두마리, 무우 전달
2. 13 : 박노훈전도사 고등부 지도교사로 임명
3. 5 : 장년성경공부반 시작
3. 12 : 크렌셔교회 소유증서 LA 카운티로부터 접수
3. 26 :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지휘: 박환철)
5. 14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랜초파크)
6. 4 : 임동선목사 가주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 학위
6. 11 : 피원균목사를 청년회 담당목사 임명
7. 25 ~ 7. 29 : 창립 2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차보근목사
(공주성결교회)
7. 30 : 창립 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김계용목사
장로장립: 김주영, 박천흡
8. 27 : 모국 수재민 구호품 모집
9. 3 : 김재권선생을 중등부와 주일학교교사 임명
9. 9 : 나성각교회 배구대회에서 동양선교교회 청년팀 공동우승
9. 10 : 수재의연금 의류 76상자(7천점)와 의연금 325달러 송금
9. 17 : 이경택장로를 협동장로 임명
9. 18 ~ 11. 22 : 임동선목사 한국집회 인도
11. 26 : 부인회 임원
(회장: 김상옥 부회장: 손소봉)
12. 17 : 청년회 임원
(회장: 김준호 부회장: 정영석)
12. 31 : 임동선목사에 첫 사례금 6백달러 지급
12. 31 : 김상규목사, 협동목사로 부임

1973년

1. 6 : 당회발족
1. 6 : 예산 48,400달러로 책정
1. 7 : 집사임명 (남 19명, 여 14명)
2. 11 : 898, 912 Victoria Ave의 주택 2채를 구입 (교육관으로 사용)
2. 18 : 14명의 구역장 임명

3. 6 : 헌법 초안 작성 시작
3. 25 : 2부 예배 시작
1부예배: 오전 9:30 ~ 10:30
2부예배: 오전 11:00 ~ 12:00
성가대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3. 25 : 구역회를 19구로 편성
4. 1 : 박천홈장로를 주일학교 교장으로 임명
4. 22 : 한인남장로를 협동장로로 임명
5. 6 : 오봉운목사를 중등부 지도교사로 임명
5. 27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그리피스공원)
6. 17 : 맥파랜드교회 개척을 위해 김창호목사 파송
7. 8 : 부인회, 선교비를 한국성덕교회 및
대전 드보라교회에 송금
7. 29 :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김윤찬목사
장로취임: 이경택, 한인남
장로장립: 오해훈
8. 5 : 교회버스 처음으로 구입
8 30 ~ 9. 1 : 하기 아동 성경학교
9. 2 : 주일학교 2부제 수업
9. 2 : 매일 새벽기도회 시작
10. 16 ~ 10. 21 : 심령부흥회
강사: 김계용목사 (브라질선교사)
11. 11 : 청년회 임원 (회장: 오철훈 부회장: 김향숙)
11 11 : 부인회 임원 (회장: 김재숙 부회장: 김경순)
12. 2 : 대학생부 발족 준비
12. 29 : 맥파랜드 유농장에서 배추를 가져다가
김치를 만들어 판매

1974년

1. 6 : 총예산 55,000달러 책정
1. 6 : 윤순환전도사를 학생부 보조교사 임명
1. 13 : 영등포제일장로교회 (250달러),
군산해방동성결교회 (200달러)에 선교비
1. 14 : 첫 헌법 공동회의 통과
1. 27 : 영어부 예배시작
2. 10 : 대학생부 임원
(회장: 임승광 부회장: 오미례)
3. 2 : 이천영목사, 서울신학대학교수로 귀국
(6개월 체류)
5. 12 : 교회 확장 준비위원 5명 임명
(임동선, 오봉운, 김용서, 김주영, 오해훈)
5. 12 : 나성각교회 친선 축구대회에서
동양선교교회팀 우승
5. 19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그리피스공원)
6. 9 : 당회는 교회건축위원장에 김주영장로 선출
6. 9 : 한국 9개 교회를 선정 선교비를 보냄
6. 16 : 주일학교교사 학부형 간담회
6. 23 : 교회 건축위원회 전체회의
7. 14 : 교회 건축에 대한 여론 조사
7. 28 : 대학부, 부산 신망애 양로원
고등부, 부평 맹아원에 선교비
8. 6 ~ 8. 10 : 창립 4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최동진목사(부산초량장로교회)
8. 11 : 창립 4주년기념예배. 강사: 최동진목사
8. 11 : 고등부 총회 (회장: 임승천 부회장: 장명희)
8. 25 : 교회건축을 위한 헌금 (총액 1,491달러)
8. 26 ~ 8. 30 : 중고등부 수양회
(장소: 레이크 에로헤드)
8. 30 ~ 9. 7 : 임동선목사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집회인도
9. 14 : 424 N. Western Ave의 Ralph Market 구입 논의
9. 22 : 대학생부 임원 (회장: 박영철 부회장: 임승혜)
9. 22 : 각교회대항 친선 배구대회에서
동양선교교회팀 우승
9. 22 : 교회구입교섭 위원 10명 임명
9. 29 : 모국 수재 구호품 모집
10. 13 : 424 N. Western Ave의 Ralph Market을
새성전으로 구입: 62만5천달러
다운페이 12만 5천달러 (1월 22일 이전)
10. 20 : 교우 주소록 발간
10. 20 : 모국 수재 구호품 전달 (52상자 1645점)
10. 20 : 성경퀴즈대회에서 본교회팀 우승
(조성신, 김향숙, 임승혜)
11. 10 : 교육부 모국 장학생 2명 선발
(서울신학대 이도재, 축산대 안경필)
11. 17 : 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은신 부회장: 김재숙)
12. 28 : 웨스턴 성전구입 다운페이 10만달러 완납
(총12만5천달러중)
12. 29 : 멕시코 빈민에 의류 5백점 (트럭 2대분) 전달

1975년

1. 1 : 총예산 13만4천5백달러
1. 1 : 새 임직
협동목사: 이천영, 오봉운, 김상규
협동장로: 박계로
권사: 김상옥, 김재순, 장갑성, 이옥엽
1. 5 : 청년회 임원 (회장: 김명균 부회장: 이승숙)
1. 26 : 웨스턴 새 성전 입당예배 임동선목사
「교회의 사명」 설교
2. 16 : 고등부 총회 (회장: 염헌맥 부회장: 이화진)
2. 23 : 교회건물 구입 채권발행 (4만5천달러)
3. 9 : 한주간 출석교인 1천명으로
3. 23 : 모국 12개 교회에 선교비 송금
4. 13 : 교회재정 긴급대책 7인위원 임명
(위원장: 박계로장로)
4. 20 : 대학생부 새 임원
(회장: 김치용 부회장: 김주원)
4. 26 : 구역확대조직을 시작 박계로장로, 오해훈장로
5. 11 : 교회 주차장 우편국에 임대
5. 18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그리피스공원)
5. 25 : 월남 피난민을 위해 구호품 모집
5. 25 : 오봉운협동목사 사임
(롱비치 미국형제교회 한어부 담당목사로 부임)
6. 1 : 대학부 강사에 김충남목사 임명
6. 8 : 유년부 강사에 이중용전도사 임명
6. 22 : 고등부 수양회
7. 6 : 박동원, 조갑부 전도사 임명
7. 23 ~ 7. 27 : 창립기념 심령부흥회
강사: 황재경목사 (워싱턴한인교회)
7. 23 ~ 7. 26 : 창립 5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황재경목사
7. 27 :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권사취임: 김재순, 이옥엽, 장갑성, 강금자,
김병숙, 김보근
7. 30 : 이천영목사를 협동목사로 추대
8. 10 : 여전도회에서 협동조합 운영 시작
8. 17 : 김상규목사 사임

8. 17 : 박장균목사 협동목사로 임명
8. 24 : 이천영목사를 교육담당목사로 추대
박장균목사는 대학부 담당
8. 26 ~ 8. 30 : 어린이 하기 성경학교 개설
9. 5 ~ 9. 8 : 임동선목사 카나다 토론토장로교회 집회인도
9. 7 : 대학생부 「한소리」창간
9. 9 ~ 9. 13 : 교육부주최, 선교신학특강
강사: 장중열목사, 임동선목사
9. 14 : 대학생부 새 임원
(회장: 김영재 부회장: 김경녀)
9. 14 : 교인친교위해 커피통 설치
9. 14 : 너서리 유치원 설치연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계로장로)
10. 3 : 웨스턴성전 명의 변경 허가
11. 9 : 예배시간 변경
아침예배: 오전 11시
저녁예배: 오후 6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11. 9 : 어린이찬송가 경연대회
11. 16 : 교우 주소록 편찬위원회 구성
(박장균, 김명균, 김광제)
11. 16 : 헌법수정 위원 임명
12. 7 : 김주영장로를 건물마스터플랜 위원장으로 임명
12. 7 : 여전도회 임원 (회장: 박현숙 부회장: 오상숙)
12. 14 : 당회장배 가족크리스마스 캐롤대회
12. 20 : 대학생부 할리웃서 노방전도
12. 28 : 중등부 총회 (회장: 박연란 부회장: 원문철)

1976년

1. 1 : 예산총액 14만8천2백달러
1. 3 : 박환철지휘자, 배은산반주자 사임
1. 4 : 무료치과 진료 시작
1. 4 : 공동회의. 금년목회방침 「내적 충실」
1. 18 : 성가대지휘자에 한병철집사 임명
2. 1 : 청년회 임원 (회장: 안정현 부회장: 임승광)
2. 3 : 고등부 임원 (회장: 유광열 부회장: 황윤미)
2. 4 ~ 2. 8 : 신년부흥회
강사: 김시원목사 (영동장로교회)
2. 15 : 과테말라지진 이재민 구호품 모집
2. 27 ~ 2. 28 : 대학생부 겨울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3. 12 ~ 3. 14 : 임동선목사 카나다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집회 인도
3. 14 : 대학생회 임원 (회장: 김재용 부회장: 정성주)
4. 11 : 구역을 38개로 나누고 구역장과 구역원 임명
4. 16 ~ 4. 17 : 청년회 봄철수양회
4. 18 : 선교부, 할리웃에서 노방전도
4. 25 : 부활절에 집사임명
황익주, 김호수, 이귀임, 유자해, 탁찬호,
이정준, 박완순, 신덕수, 백경준, 이원열,
김정주, 이경옥, 김정자
4. 30 ~ 5. 1 : 교육부 주최 제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5. 2 : 이중용전도사를 구역장 총무로 임명
5. 16 : 가족찬송가 경연대회
5. 22 : 김영민 공정재판을 위한 기도회
5. 23 : 장년회 임원 (회장: 조영근 부회장: 홍순웅)
5. 23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6. 25 ~ 6. 27 : 6.25 특별집회
강사: 이동은목사 (상이실명용사)
7. 28 : 창립 6주년 기념성회. 강사: 윤철주목사
7. 31 : 박장균목사를 단기선교사로 모국에 파송
8. 1 : 김효순전도사 복권
채미원전도사를 중등부교사 임명
8. 24 ~ 8. 28 : 유년부 하기 성경학교
8. 26 ~ 8. 28 : 고등부 하기 수양회
(장소: 빅베어 캠프장)
8. 27 ~ 8. 28 : 성가대 수양회
강사: 박태준박사, 박재훈박사
8. 29 : 장년회 주최. 소자본투자의 기업안내, 생활강좌
9. 19 : 대학부 임원 (회장: 홍성호 부회장: 임승향)
9. 26 : 박장균목사 모국선교 보고회
9. 26 : 제9회 교회대항 친선배구대회에서
동양선교교회팀 우승
10. 3 : 모국선교지원교회 21개
10. 10 : 교회 마스터플랜위원장에 김병곤집사 임명
10. 24 ~ 10. 28 : 임동선목사 시애틀 타코마
집회 인도
11. 21 : 고등부 제1회 문예의 밤
12. 5 : 여전도회 임원 (회장: 이득애 부회장: 김희숙)
12. 5 : 청년회 임원 (회장: 안정현 부회장: 오용애)
12. 28 : 성경퀴즈대회에서 조소양, 신명훈, 최영주 우승
12. 28 : 멕시코고아원에 위문품 전달

1977년

1. 1 : 예산총액 17만2천1백달러
1. 9 : 신정도전도사 장년부 교육전도사로 임명
2. 6 : 장년주일학교 성경공부시작 (남녀 나이별로 분반)
2. 25 ~ 2. 27 : 연합특별전도집회
강사: 김용기장로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2. 27 : 장년회 임원 (회장: 조영근 부회장: 홍순웅)
2. 27 : 이천영목사를 초대 원로목사 추대
3. 13 : 대학생회 새 임원
(회장: 염헌맥 부회장: 홍성란)
4. 26 : 박용장목사를 심방담당 협동목사로 임명
4. 27 ~ 5. 1 : 창립 7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김선도목사 (서울광림감리교회)
5. 15 : 웨스턴성전구입 다운페이 융자 완납
5. 15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6. 19 : 교육장기위원회 발족 (위원장: 이천영목사)
6. 29 ~ 7. 3 : 민족복음화 대성회
강사: 김충기목사
(복음화운동본부 미주파견 부장)
7. 3 : 송정명전도사 부임
7. 10 ~ 7. 24 : 임동선목사 유럽 순회선교
7. 13 : 이중용전도사 제2차 단기선교사 파송
7. 24 : 산타바바라 김영민교수 돕기 운동
7. 24 : 한국 수재민돕기 구호품 모집
7. 28 ~ 7. 30 : 청년회주최 창립기념 신학강좌
강사: 지원용목사 (독일대학교수)
7. 31 :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지원용목사
장로장립: 홍순웅, 이재권
8. 1 : 창립 7주년 기념 친선배구대회 우승 청년회,
2등 유년주일교사

8. 14 : 성전에 긴 나무의자 67개 새로 설치
8. 23 ~ 8. 27 : 유년주일 하기 성경학교
8. 28 : 최혜자전도사를 장년반 성경공부 지도교사로 임명
8. 28 : 모국 수재구호품 전달 (의류 102상자, 1100달러)
9. 1 : 모국 선교 지원교회 39개
9. 1 : 모국 선교 지원교회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
9. 4 : 장갑성권사 별세
9. 4 ~ 9. 5 : 여전도회 연합회 수양회
강사: 김석규목사 (산호세제일교회)
9. 18 : 대학생회 임원 (회장: 임송천 부회장: 윤선옥)
10. 2 : 헌법개정위원 6명 임명
(이천영, 이재권, 김용서, 오해훈, 이중용, 안정현)
10. 6 : 뉴욕타임스, 동양선교교회 특집기사
10.23 : 장년회 임원 (회장: 홍순웅 부회장: 김봉환)
10.23 : 유년주일학교 「월간어린이동산」창간호 발행
10.23 : 박장균목사 사임
11. 6 : 여전도회 임원 (회장: 한정현 부회장: 홍순주)
11. 6 : 청년회 임원 (회장: 김동규 부회장: 오용애)
11.20 : 고등부 제2회 문예의 밤
12. 4 : 이리 이재민에 현금 650달러 전달
12. 5 : 허경삼목사 부임
12.11 : 친교부, 식당봉사를 시작
12.17 : 멕시코 빈민에 성탄선물 전달
12.27 : 평신도연합회 성경퀴즈대회에서
최근숙, 이태종, 유회범 우승

1978년

1. 1 : 예산총액 22만 4천달러
1. 8 : 선교부, 교회달력 제작 배
1. 20 ~ 1. 21 : 제직 수양회
2. 12 : 신덕수전도사 사임
2. 13 : 박노훈전도사를 고등부지도교사 임명
2. 19 : 주일 저녁예배 변경 (오후 6시를 오후 4시로)
2. 16 : 수요일기도회를 금요기도회(오후 7시)로 변경
3. 26 : 선교부 할리웃에서 노방전도
4. 2 : 청년회 수양관건립 기금모금
4. 2 : 대학부 임원 (회장: 김진광 부회장: 강은희)
4. 26 ~ 4. 29 : 여전도회 주최 신앙부흥회
강사: 오관석목사
5. 7 : 어린이 한글학교 개교
5. 21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5. 28 : 한글학교 개교예배
6. 1 : 성가대운영 규정 시행 (1982년 내용수정)
6. 4 : 한글학교 임원 (교장: 임동선 교감: 오해훈)
7. 2 : 이요한전도사를 교육전도사로 임명
7. 2 : 송정명 한국 단기선교사 파송예배
7. 26 ~ 7. 29 : 창립 8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이정일목사 (미육군군목)
7. 30 : 창립 8주년 기념예배
강사: 이정일목사
7. 30 : 김병국, 문기석, 하병호, 조웅래 협동장로 임명
8. 28 ~ 11.14 : 임동선목사 한국집회인도
9. 10 : 한국 피선교교회 선정 월례회
9. 19 ~ 9. 21 : 제 1회 모국피선교교회 대표자
선교세미나 (장소: 서호성결교회)
10. 8 : 대학부 임원 (회장: 염헌맥 부회장: 최성호)
11. 5 : 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희숙 부회장: 오상숙)
11. 5 : 청년회 임원 (회장: 최만삼 부회장: 박승원)
11.16 ~ 11.19 : 대학부 「결단의 시간」 특별집회
강사: 임동선목사
12.30 : 멕시코 고아원에 성탄구호품 전달

1979년

1. 1 : 예산총액 42만4천달러
1. 1 : 개정 헌법 발효
1. 17 : 제직 수련회
1. 26 : 이요한전도사를 학원선교사로 임명
1. 28 : 허경삼목사 환송다과회
3. 4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한정현 부회장: 최경자)
3. 11 : 안용식전도사를 중고등부 담당 임명
3. 11 : 2부 성가대 지휘자에 서문욱집사 임명
3. 16 : 이기홍목사 행정담당목사로 부임
3. 18 : 남전도회, 선교역사 세미나
강사: 이천영목사
4. 15 : 선교부, 할리웃에서 노방전도
5. 20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6. 17 : 470 N. Western Ave 건물구입
(가격 8만7천달러)
7. 8 : 간호원회 창립총회 (회장: 박길봉)
7. 24 : 모국선교 추가 지원 (102개 교회)
7. 25 ~ 7. 28 : 창립 기념부흥성회
강사: 차보근목사 (공주성결교회)
건축헌금 91만 7천달러 약정
7. 29 : 창립 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차보근목사
장로안수: 김몽학, 강영구
장로취임: 탁계로, 조웅래
권사취임: 강봉순, 김덕숙, 김성심, 김효수,
문유심, 박완순, 오순명, 원준옥,
이득애, 조옥녀, 최용숙, 한귀순,
이옥조
7. 29 : 이요한전도사 모국단기선교사로 출발
7. 31 ~ 8. 3 : 중등부 수양회
(장소: 하모메 캠프장)
8. 5 : 후반기 남집사 9명, 여집사 11명,
협동권사 6명 임명
8. 5 : 일반교우 무료진료 봉사
8. 12 : 교회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장: 한건수장로)
9. 1 : 농어촌교회 109개 지원
(A형 선교회원, B형 선교회원)
9. 2 : 한국 수재의연금 전달
9. 16 : 건축위원회 각분과 위원 임명
10. 7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오철훈 부회장: 황재룡)
10.10 : 이요한전도사 목사안수 (서울예장고신)
10.28 : 특수반을 조직
10.28 : 청년회 임원 (회장: 김영재 부회장: 조병헌)
10.28 : 제1남전도회 임원
(회장: 김몽학 부회장: 강영구)
11. 4 : 대학부 임원 (회장: 유광열 부회장: 엄애경)
11. 4 : 임동선목사 설교녹음테이프를 선교용으로 제작
11. 4 : 에스더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희숙 부회장: 김재숙)
11.11 : 이철수군 석방 서명운동
11.14 : 제2청년회(나사렛) 임원
(회장: 강성환 부회장: 조보린)
11.14 : 고등부 제4회 문예의 밤

11.15 ~ 11.17 : 제2회 청소년부흥회「Come & See」
말씀 임동선목사
12.19 : 중국선교를 위한 첫 예배
강사: 한태경목사 (워싱턴 DC)
12.16 : 성가대 성탄축하 칸타타 공연
(지휘: 서문욱집사 장소: 본당)
12.16 : 간호원회 임원 (회장: 성인호집사)
12.23 : 방송문서선교분과 위원회와 생활지도부 신설
12.24 : 황재열목사 일본선교사로 파송
12.29 : 멕시코 고아원에 성탄 선물
12.30 : 박용장 심방목사 사임
12.30 : 상락회 창립
(회장: 이천영목사 부회장: 오태상목사)
12.30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최경자)

1980년

1. 1 : 창립10주년「전교인 성경읽기의 해」
1. 7 : 안수집사 17명 임명
1. 20 : 444 – 446 N. Western Ave 건물구입
(38만9천달러)
2. 10 : 중고등부 및 부모 마약예방 세미나
강사: 김경주선생 (한인청소년회관)
2. 24 : 선교부, 각기관별 한인지역 전도
2. 26 : 이중용전도사 목사안수 (미주성결교회 총회)
4. 20 : 남가주한국학교에 건축헌금 전달
4. 20 : 설교 동시통역 시설설치
5. 1 : 금요 벧엘 성서 연구 시작
5. 4 : 임재순사모 입원, 치료
5. 11 : 장한 어머니에 김병숙권사
5. 18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라미라다 공원)
5. 25 : 성가대 특별강좌
강사: 김두완장로 (서울영락교회 지휘자)
5. 30 : 광주사태 나라를 위한 철야기도회
설교: 이천영목사
6. 8 : 당회는 광주사태 의연금 500달러 보냄
6. 22 : 석태운목사 독일선교사 파송예배
6. 22 : 한주간 출석교인 2천명
6. 22 : 교인주소록 발간
7. 6 : 캄보디안 난민 지원금 전달
7. 10 ~ 7. 14 : 임동선목사 뉴욕지구
대전도 집회 인도
7. 22 ~ 7. 26 : 창립 10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이성헌목사 (대구서문교회)
7. 17 :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성헌목사
장로장립: 김병곤, 김재권, 오수남, 오철훈
집사안수: 김광돈, 김동규, 김명균, 김수문,
김여근,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안정현, 원덕영, 온성철, 이성호,
조규철, 조영근, 최만삼, 황종구
7. 27 : 동양선교교회 10개년 부흥발전 계획서 발표
8. 5 ~ 8. 26 : 임동선목사 중국선교 여행
8. 13 ~ 8. 16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8. 24 : 상락회 주최 특별강연
강사: 차명수선생
8. 24 : 대학부 임원 (회장: 노창수 부회장: 홍은경)
8. 24 : 청소년 합창단 후원회 구성 (회장: 오수남)
9. 24 ~ 9. 30 : 임동선목사 알라스카 부흥회 인도
9. 27 : 청소년합창단 (필그림합창단) 창단
10. 5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정해선 부회장: 노수정)
10.12 : 이요한전도사 사임
10.15 ~ 10.23 : 제1회 교회성장 세미나 한국 및
미주목회자 35명 초청
10.26 : 일본 한국인 연합교회 (담임 황재열목사)와
자매결연
11. 2 : 갈릴리 청년회 임원
(회장: 임승광 부회장: 김치용)
11. 8 :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서문욱 장소: 스카티쉬 오디토리움)
11. 9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조옹래 부회장: 김중완)
11. 9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권옥엽)
11. 9 : 에스더여전도회 임원
(회장: 김희숙 부회장: 탁매자)
11. 9 : 여호수아남전도회 임원
(회장: 정해선 부회장: 노수정)
11.12 ~ 11.15 : 대학생 부흥회「Come & See」
강사: 김석규목사 (산호세제일교회)
11.17 : 박상연선교사 비젠차지역 선교사 임명
12.14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권옥엽)
12.19 : 노찬호목사 밀라노선교사 임명
12.23 : 황재열목사 일본선교사 임명
12.28 : 전도상 시상. 백형권집사, 김보근권사
12.30 : 캄보디아 난민에 성탄헌금 전달
12.30 : 멕시코 빈민들에 성탄 구호품 전달

1981년

1. 1 : 「내집을 채우라」는 연중표어
1. 1 : 이원희목사 교육담당목사로 부임
2. 12 ~ 2. 14 : 중국선교를 위한 부흥회
강사: 이준만목사 (서울청운교회)
3. 16 ~ 3. 28 : 임동선목사 중국선교 집회 인도
3. 20 ~ 3. 21 : 나사렛 청년회 수양회
강사: 안용식전도사
3. 22 : 성인영어회화반 설치. 지도교사 캘리
4. 10 ~ 4. 11 : 갈릴리 청년회 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4. 12 : 선교부「선교소식」발행
4. 15 ~ 4. 17 : 제2회 청소년 복음화대회
(중고등부 주최)
강사: 김홍수목사 (시카고휄로십교회)
4. 19 : 학습 및 세례 성례식 거행
4. 19 :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지휘: 원덕영)
4. 19 : 교회지도자 양성기관 설립 위원회 구성
(임동선, 이기홍, 이원희)
4. 25 : 낙원 경로대학 개학 (학장 이천영목사)
4. 26 ~ 7. 19 : 각기관별 노방전도
4. 28 ~ 5. 29 : 이기홍목사 제5차 단기 선교사로 파송
4. 30 : 모국선교지원교회 모두 105개
5. 1 : 정완기목사 중등부지도교사로 임명
5. 1 : 장한 어머니에 김보근권사
5. 7 : TV 방송 선교 시작 (W.B.N. Ch 18),
목요일 밤 11:00 ~ 11:30
5. 17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그리피스공원)

6. 7 : 방송선교위원회 (위원장 오철훈) 모임
6. 13 : 임동선목사 훌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동양선교교회 10년 발전과 전망)
6. 26 ~ 6. 27 : 여전도회 바자회
7. 10 : 제1회 교사 수련회. 강사: 이원희목사
7. 21 ~ 7. 25 : 창립 11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정인영목사 (서울무학장로교회)
7. 26 :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정인영목사
집사안수: 김봉한, 이원열, 유문규, 한병철,
이응선, 김종성, 신윤철, 원재수
권사취임: 박화진, 장세정
7. 26 : 남미 쌍파울로교회와 자매결연
8. 11 : 지교회 설립연구위원회 발족
(위원장: 임동선목사)
9. 6 : 성가대 명칭변경
1부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2부 성가대: 시온 성가대
9. 10 ~ 9. 13 : 임동선목사, 볼티모어 한인연합교회
부흥회인도
9. 13 : 대학부 새 임원
(회장: 최진기 부회장: 이혜경)
9. 13 ~ 12. 6 : 각 기관별 추계 노방 전도
9. 27 : 가족합창 찬송가 경연대회
10. 18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박계로 부회장: 김중완)
10. 18 :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 이성호 부회장: 신무희)
10. 26 ~ 11. 14 : 임동선목사 구라파지역 선교집회
10. 28 : 이득애권사 중국단기선교사로 파송
11. 8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백형권 부회장: 조규철)
11. 8 : 한 주간 출석교인 3천명
11. 8 ~ 11. 14 : 임동선목사 독일선교집회
11. 15 : 선교 4중창단의 찬양예배
(황규일, 안성국, 강성환, 박승원)
11. 26 ~ 11. 28 : 대학생부흥회 「Come & See」
강사: 김상복목사
12. 6 : 갈릴리 청년회 임원
(회장: 박승원 부회장: 황규일)
12. 6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권옥엽 부회장: 원준옥)
12. 13 : 전도상 수상자 (백형권, 정해선, 조정현, 김광락)
12. 19 : 고등부 제6회 문예의 밤 주제 「소망의 빛이여」
12. 20 : 성탄축하 음악의 밤
12. 23 : 멕시코 고아원 방문 성탄 선물 전달
12. 25 : 「동양선교 News」 창간호 발행
12. 25 : 성탄축하예배 시온성가대, 선교 4중창단
12. 27 : 전도상 시상 백형건 (15명), 김병숙 (14명)
12. 29 : 임동선목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교육부문)
12. 31 : 아프리카 난민에 성탄 성금

1982년

1. 1 : 모국선교지원교회 123개로
1. 1 : 「교회성장의 해」를 목표로
1. 3 : 주일예배를 3부예배로
1부: 오전 7:00 ~ 8:15
2부: 오전 9:00 ~ 10:15
3부: 오전 11:00 ~ 12:20
1. 10 : 서울신학대학 합창단 특별 찬양 예배
1. 17 : 교구를 10교구 71구역으로 확대
2. 5 : 교회학교 교사 수양회
강사: Dr. Adams (대만 일본선교사)
2. 7 : 갈릴리청년회 생활봉사센터 개설
2. 26 ~ 2. 28 : 평신도 전도훈련
강사: 강순영 (C.C.C스탭)
3. 5 ~ 3. 7 : 제3회 교사훈련 세미나
강사: Dr. Rex Johnson, 이원희목사
3. 7 : 영아실 설치
3. 7 : 어린이 전화교회 시작
3. 15 ~ 4. 2 : 임동선목사 남미집회인도
3. 29 ~ 4. 9 : 이스라엘 성지순례
4. 15 ~ 4. 17 : 제3회 청소년 복음화대회 「Come to Me」
강사: 석보욱목사
4. 18 : 에스더여전도회 헌신예배 은퇴선교사 17명 초청
4. 18 : 대학부 전문직종 자격 세미나
4. 21 : 안용식전도사 목사안수
(한국기독교대한성결교회)
4. 21 ~ 4. 22 : 상락회 수양회
(장소: Desert Hot Spring)
4. 22 ~ 4. 23 : 사라여전도회 수양회
강사: 전의용목사
4. 25 : 도서관 개관예배 (관장: 최만삼)
5. 1 : 한글학교 야외수업 및 운동회
(장소: 엘리시언 공원)
5. 9 : 장한어머니에 김순애집사
5. 14 : 평신도 신학강좌. 강사: 정완기목사
5. 16 : 야외 주일예배 (장소: 엘리시언 공원)
5. 27 ~ 5. 30 : 한민족 세계선교대회
강사: 나원용목사, 김창인목사,
강신명목사
5. 30 : 파라과이 병원건립. 6천달러 헌금
6. 11 : 제4회 교사훈련 세미나
강사: Dr. Charles Bradshow
6. 13 : 고등부 임원 (회장: 이정우 부회장: 신윤정)
6. 20 : 교회 옆 인도에서 교통사고
사망: 남정우 (4세), 오지영 (3세),
중상: 오순자집사, 오임순집사
6. 27 : 교회학교 졸업축하예배
6. 27 : 제1기 벧엘성서수료 (모두 27명)
7. 8 : 남성합창단 창단예배
설교: 조종남목사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장)
7. 20 ~ 7. 24 : 창립 12주년기념 부흥성회
강사: 임옥목사 (서울영암장로교회)
7. 25 :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임옥목사
장로장립: 김중완, 노수정, 성기윤, 조영근
장로취임: 이정배, 정문섭
집사안수: 김광락, 최상집, 이근무, 탁찬효,
황재륭, 조상희, 조인식, 김주환,
전송택, 오정택, 이인근, 전순관,
김영규, 김창무, 김낙제, 천덕홍
신임권사취임: 권옥엽, 김옥인, 황관호, 김영숙,
김순애
권사취임: 이상숙, 최복례, 안우경, 이안재,
박선희, 박영애, 박채련, 허을순,
권길완
8. 6 ~ 8. 8 : 임동선목사 미네소타장로교회

부흥회 인도
8. 10 ~ 8. 14 :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 12 : 이민생활과 스트레스 강좌
8. 14 : 한미합동아침기도회. 설교: 임동선목사
8. 29 :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와 자매결연
8. 29 : 청소년 관현악단 하기음악예배 (지휘: 주성철)
9. 12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김동규 부회장: 황재룡)
9. 18 : 상락회 주관 상락대학 개교
10. 1 : 베델성서연구 (인도: 안용식목사)
10.15 ~ 10.17 : 구역장 및 제직수련회
강사: 정필도목사
10.17 : 제4회 가족찬송가 경연대회
10.17 : 제5회 교사훈련 세미나
Dr. Kegham Tashigian (아주사 퍼시픽대 교수)
10.17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김중완 부회장: 신윤철)
10.17 : 에스더여전도회 임원
(회장: 이성호 부회장: 노영자)
10.24 : 추계성례주일 (학습 세례)
10.24 : 모세남전도회, 태국선교비 헌금
11. 1 임병택목사 심방목사로 부임
11. 7 예배시간 변경 여론조사
11. 7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김중완 부회장: 신윤철)
11.13 : 제1회 당회장배 테니스대회
11.14 제1회 남성합창단 발표회 (지휘: 서문욱)
11.18 ~ 11.21 : 제5회 대학생 부흥회
「Come & See」
강사: 이요한목사 (시카고복음교회)
11.28 : 구역상 전도상 봉사상 시상
12. 4 : 성탄축하 빅토리 앙상블 발표 (지휘: 원덕영)
12. 5 : 갈릴리 청년회 임원
(회장: 조병헌 부회장: 엄창웅)
12.10 ~ 12.12 : 임동선목사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집회인도
12.19 : 고등부 새 임원 (회장: 이병덕 부회장: 채영숙)
12.19 : 나사렛 청년회 새 임원
(회장: 민경혁 부회장: 김은희)
12.22 : 선교부, 멕시코 고아원 방문
12.26 : 중등부 임원
(회장: 이종철 부회장: 정규호, 김연수)
12.26 전도 및 모범 구역장 시상

1983년

1. 1 : 「교육하는 교회」를 목표로
1. 5 ~ 1. 7 : 제직수련회. 강사: 최헌우목사
1. 9 : 사라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김성심)
1. 18 : 아주사퍼시픽 대학 2차 개강
1. 23 : 임동선목사의 간증수기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출간
1. 23 : 중등부 지도목사로 손주영목사 부임
1. 25 ~ 3. 18 : 임동선목사 안식년 제1차 세계선교 여행 (호주와 동남아시아)
1. 28 ~ 1. 29 : 성가대 수양회. 강사: 이기홍목사
2. 4 ~ 2. 6 : 구역지도자 교육
강사: 원무연목사(서울양문교회)
2. 11 ~ 2. 12 : 각급 주일학교 교사 산상 수련회.
강사: 김광신목사 (은혜한인교회)
2. 20 : 원덕영 2부 성가대지휘자 사임
2. 25 ~ 2. 27 : 세계선교십자군 부흥회
강사: 고석희목사 (뉴욕영광교회)
3. 1 ~ 3. 3 : 여호수아 남전도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김중기목사 (연세대)
3. 6 : 여성합창단 조직 (지휘: 이귀임 반주: 곽정란)
3. 20 : 신학교 지망생을 위한 특별강좌
강사: 임동선목사
3. 20 : 성경구절 찾기대회
3. 31 ~ 4. 3 : 제4회 청소년부흥회 「Come to Me」. 강사: 김장환목사
4. 3 : 한글학교 제1회 받아쓰기 경연대회
4. 7 ~ 4. 10 : 임동선목사 하와이중앙교회 집회 인도
4. 10 : 1983년 건축위원 임명 (위원장: 조웅래)
4. 10 : 적십자사 헌혈운동 참여
4. 10 : 배석원집사 대형버스 기증
4. 23 : 인재양성 장학위원회 구성
4. 23 : 제2회 당회장배 테니스대회
4. 24 : 장한 어머니에 김영삼권사
4. 25 ~ 5. 25 : 제6차 모국 단기선교사에 이원희목사 파송
4. 30 : 독일 김정환선교사 사임, 전덕성선교사 임명
5. 15 : 가정주간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5. 22 :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재권) 모임
5. 23 ~ 5. 26 : 상락회 멕시코 관광
5. 29 : 마닐라한인교회 (정신택목사),
시드니한인장로교회 (윤수한목사)와 자매결연
5. 30 ~ 7. 8 : 임동선목사 안식년 2차 선교여행
(한국, 중국, 일본)
6. 7 : 아주사대학 여름학기 시작
강사: Dr. Scott
6. 9 : 교구대항 성경암송대회
6. 20 ~ 6. 23 : 유년주일학교 여름캠프
(장소: Wrightwood 캠프장)
6. 25 : 대학부 코이노니아의 밤
7. 3 : 예배시간 변경
1부예배: 오전 8:30 ~ 9:45
2부예배: 오전 10:00 ~ 11:15
3부예배: 오후 12:30 ~ 1:45
7. 26 ~ 7. 30 : 창립 13주년 기념부흥사경회
강사: 정승일목사 (뉴욕한빛교회)
7. 31 :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정승일목사
장로장립: 신윤철, 안정현, 조규철
집사안수: 김지수, 백중용, 백형권, 이호남, 정만혁
권사취임: 성인호, 윤자혜
8. 1 ~ 8. 25 : 중고등학생 섬머스쿨
(장소: 교회 교육관)
8. 12 ~ 8. 13 : 교육부 교사수련회
(장소: Yolijwa 수양관)
8. 17 ~ 8. 20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8. 21 : 신학생을 위한 기도의 어머니 선정
8. 30 ~ 9. 2 : 고등부여름수양회
(장소: Wrightwood 수양관)
8. 30 ~ 10.14 : 임동선목사 안식년 3차 선교여행 출발
9. 3 : KAL기 격추 소련규탄서명운동
9. 4 : 관현악단 조직 (단장: 김여근)
9. 17 : 상락회 주관 상락대학 개강

9. 18 : 교구대항 성경퀴즈대회
10. 23 : 대학진학 안내 세미나
강사: 임승천, 유광열, 염헌맥
10. 23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방조영 부회장: 탁찬효)
10. 29 : 창립 13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장소: 윌셔이벨극장)
10. 30 : 대학부 마약세미나. 강사: 조태묵박사
11. 6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현용수 부회장: 조인식)
11. 6 : 갈릴리청년회 임원
(회장: 윤영교 부회장: 홍성호)
11. 12 : 임동선목사 내외 60회 생일 기도회
11. 17 ~ 11. 20 : 제6회 대학생 부흥회
「Come & See」
강사: 이상훈목사 (휴스턴침례교회)
11. 27 : 한 주간 출석교인 4천명
12. 4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신무희 부회장: 복희슬로운)
12. 4 : 전교인 성경읽기운동 종합시상 신구약
제7회 독상 박완순권사
12. 10 : 전도상 수상자를 시상 (오수남, 이건기, 강순덕)
12. 16 ~ 12. 17 : 상락전도회 수양회 및 총회
강사: 임동선목사
12. 25 : 「동양선교헤랄드」(제1호) 창간

1984년

1. 1 : 새해 목표 「세계선교의 해」
1. 1 : 총예산 1백40만달러
1. 11 ~ 1. 14 : 제직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1. 22 : 건축위원장에 이정배장로
1. 22 : 상락전도회 임원
(회장: 최경호 부회장: 박경자)
1. 22 : 부부의 갈등 세미나
강사: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1. 29 : 스티브임집사 수양관 구입기금 7만달러 헌금
2. 9 : 구라파선교사 이원희목사 출발
2. 19 : 한글학교 학부모회
(회장: 정봉모 부회장: 이기성)
2. 27 ~ 3. 2 : 흑인교회와 특별연합집회
3. 13 ~ 3. 23 : 임동선목사 예루살렘 선교집회 인도
3. 31 :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체결
3. 31 : 이정식목사 협동목사 임명, 조갑부전도사 사임
4. 5 : 흑인교회 목회자부부 30쌍 초청
4. 16 ~ 4. 18 : 청소년복음화 집회 「Come to Me」.
강사: 장영출목사
4. 19 ~ 4. 21 : 어린이주일학교 부활집회
강사: Kelly Kruse
4. 28 : 장한 어머니에 이옥조권사
4. 28 : 남가주한국학교에 2천달러 전달
5. 14 ~ 5. 17 : 임동선목사, 서울광림교회에서
열리는 선교 100주년 집회 인도
6. 2 : 미니 올림픽대회 (야외예배)
(장소: 엘리시언공원)
6. 3 : 교회대항 고등부배구대회에서 우승
6. 8 ~ 6. 10 : 선교 100주년 기념집회
6. 10 : 한글학교 제2회 글짓기 대회
6. 14 ~ 6. 17 : 선교 100주년 남가주대회
(장소: 가든그로브 수정교회)

6. 23 : 특수반 옥스나드비치로 1일 캠프
6. 25 : 어윈대령 신앙간증 (우주에서 만난 하나님)
6. 26 ~ 6. 30 : 창립 14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곽선희목사 (서울소망교회)
7. 1 :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곽선희목사 (서울소망교회)
장로장립: 김광락, 온성철, 유문규, 이성호,
황재룡
장로취임: 방조영, 백영두
집사안수: 강중경, 김성곤, 김찬규, 남상수,
변기영, 이성원, 조정현, 주 은
권사취임: 복희슬로운, 이경운, 이윤월, 한복덕
7. 1 : 수양관 관리위원장에 조웅래장로 임명
7. 1 : 후반기 제직 임명
7. 2 ~ 7. 15 : 제1차 한글학교 모국방문
7. 4 ~ 7. 7 : 대학부 여름수양회
강사: 장자천목사 (인천송현교회)
7. 8 : 오렌지카운티 자매교회 동산교회 창립예배
(담임목사: 석태운)
7. 12 ~ 7. 15 : 임동선목사,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집회인도
7. 21 : 대학부 제15회 코이노니아의 밤
7. 28 ~ 8. 11 : LA 올림픽기간 노방전도
7. 31 : 손주영목사 (중등부) 사임, 이원열전도사 사임
8. 6 ~ 8. 30 : 중고등학생 섬머스쿨
8. 30 ~ 9. 12 : 로마한인교회(담임 한평우목사)
음악인 미주 순회공연
9. 9 : 모국 수재민 성금 8천2백달러 전달
9. 9 : 장학금 전달
(이승림, 최진기, 김진광, 강형모, 엄애경,
장문자, 노창수, 김수영)
9. 21 ~ 9. 23 : 임동선목사 리치몬드한인교회
집회인도
10. 3 ~ 10. 5 : 상락전도회 수양회
10. 7 : 김진광전도사를 고등부전도사 임명
10. 13 : 에스더수양관 개관예배
(22800 Big Pines HWY Wrightwood, CA)
10. 14 : 강형모전도사 (중등부) 임명, 이승림전도사 사임
10. 21 : 미국법률 생활상식 강좌. 강사: 임승천변호사
11. 1 : 강신욱목사(중등부) 부임
11. 4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신윤철 부회장: 신상우)
11. 4 : 갈릴리청년회 임원
(회장: 한승수 부회장: 김인승)
11. 8 ~ 11. 11 : 임동선목사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집회인도
11. 9 ~ 11. 10 : 여호수아남전도회 수양회
강사: 임병택목사
11. 11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신무희 부회장: 조동희)
11. 11 : 에스더여전도회 임원
(회장: 안복희 부회장: 백미섭)
11. 15 ~ 11. 18 : 제7회 대학생부흥회 「Come & See」
강사: 김준곤목사
(국제대학생 선교회 동아시아 본부대표)
11. 18 : 사라여전도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최용숙)
11. 22 ~ 11. 25 : 임동선목사 카나다토론토연합교회
집회인도
11. 30 ~ 12. 1 : 안수집사 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12. 1 : 고등부주최 문예의 밤
12. 2 : 여호수아 남전도회 임원
(회장: 장진 부회장: 이호남)
12. 9 : 성탄축하 음악예배, 헨델의 메시아전곡
(지휘: 서문욱)
12.19 : 멕시코 고아원에 성탄 선물 전달
12.22 : 모범구역장 전도상 시상
12.30 :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

1985년

1. 1 : 예산총액 1백60만달러
1. 10 : 흑인성가대 초청예배
1. 11 : 송정명목사 남미선교여행
1. 13 : 사우스베이지교회 이기홍목사 파송예배
한인남, 오수남장로 원로장로 추대식
1. 20 : 에디오피아에 구제금 전달
2. 3 : 스티브임집사 2세교육기금 10만달러 헌금
2. 10 : 흑인사회 장학금 5천달러 전달
3. 2 : 토요학교 개교
3. 2 : 송정명목사를 수석부목사 임명
3. 3 :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이기홍목사)
3. 8 ~ 3. 9 : 나사렛청년회 수양회
강사: 이중용목사
3. 9 : 한흑친선모임 (장소: 캄튼시청 마틴루터킹 광장)
3. 17 : 이민사회 가정문제 세미나
강사: 윤흠 (소셜워커)
3. 30 : 정완기목사 (고등부지도) 사임
4. 1 ~ 4. 3 : 제6회 중고등부 청소년 복음화 집회
「Come to Me」
강사: 박정찬목사
(로체스타 한인연합감리교회)
4. 9 ~ 4. 24 : 임동선목사 구라파 순회 선교집회 인도
4. 22 ~ 4. 23 : 교사전체 수양회. 강사: 이정근목사
4. 30 : 2부 성가대 지휘자 서문욱 집사 사임
5. 1 : 심방목사에 김건태목사 부임
5. 15 : 장한 어머니에 금남이집사
5. 18 : 한글학교 야외수업 및 운동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5. 24 ~ 5. 25 : 특수반 수양회
(장소: 에스더 수양관)
6. 2 :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
강사: 유용규박사, 양은순선생
6. 7 ~ 6. 8 : 평신도 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6. 16 : 임재순사모 「이민목회자의 아내」 출간
6. 22 : 교구대항 운동회 (장소: 그리피스 공원)
6. 24 ~ 6. 27 : 유년주일학교 어린이여름캠프
(장소: 에스더 캠프장)
6. 24 ~ 7. 6 : 한글학교 학생 모국방문
6. 29 : 교육관 건축기금마련 야드세일
6. 30 : 고등부지도 교역자 채현철전도사 부임
7. 1 : 성가대지휘 윤한두목사 부임
7. 1 ~ 7. 2 :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학생 교사 방문
7. 3 ~ 7. 6 : 대학부 수양회. 강사: 김요셉전도사
7. 7 : 한국 기독교선교 100주년 남가주 여성 대회 예배
강사: 강원용목사 (서울경동교회)
7. 13 ~ 7. 14 : 제1회 신앙강좌 (전도강연)
강사: 김형석교수 (연세대)
7. 26 ~ 7. 28 : 구역장 제직훈련
강사: 박도재목사 (서울영도교회)
7. 27 : 에스더여전도회, 교육관 건축기금 마련 야드 세일
7. 28 : 장학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광락장로)
7. 30 ~ 8. 4 : 창립 15주년 부흥성회
강사: 정진경목사 (신촌성결교회)
8. 4 : 창립 15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정진경목사
장로취임: 오수훈, 김용일, 서완석, 윤근섭
장로장립: 김동규, 백형권, 조인식, 최만삼
안수집사취임: 조영일, 임헌권, 장진, 엄문섭
안수집사: 한부일, 신상우, 변기영, 김영재,
홍성환, 현용수, 박승원, 조병헌,
김중훈, 이석현, 최창진
권사취임: 박확실, 이복덕, 한정현, 조동희,
김신대, 서영희
8. 4 : 채현철전도사 목사안수
(미 남침례회 안디오교회)
8. 5 ~ 9. 5 : 중고등부학생 섬머스쿨
8. 11 : 88년 세계복음화대회 나성지역 연합 부흥성회
8. 14 ~ 8. 17 : 중등부 여름 수양회
8. 14 ~ 8. 18 : 창립 15주년 기념선교 및
교회 성장 세미나
(초청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구라파 선교사)
8. 24 : 대학부 「코이노니아의 밤」
8. 25 : 오렌지카운티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석태운목사)
8. 28 ~ 8. 31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8. 31 : 교육관 헌금 작정 106만 달러
9. 6 ~ 9. 8 : 모세남전도회 주최 신앙간증집회.
강사: 전영규목사 (서울등대성결교회)
9. 17 ~ 9. 20 : 창립 15주년 모국 농어촌 교역자
초청 세미나 (장소: 서울 성결회관)
9. 23 : 멕시코 이재민에 5천달러 전달
9. 27 : 가정생활 특별강좌. 강사: 유용규, 양은순
10. 6 : 선교 100주년 축하음악회 (장소: 윌튼극장)
11. 3 : 재일한국인 지문날인거부 서명운동
11. 5 : 전도폭발 제1기 훈련시작. 강사: 송정명목사
11.10 :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온성철 부회장: 조상희)
11.10 : 한나여전도회 임원
(회장: 조동희 부회장: 오상숙)
11.14 ~ 11.17 : 청소년부흥회 「Come & See」.
강사: 유재신목사 (카나다토론토대학)
11.19 ~ 11.29 : 창립 15주년 성지순례
순례강사: 임동선목사
12. 1 : 한국학교주최 우리말 이야기 대회
12. 1 : 제4대 독일주재선교사에 안동호목사 임명
12. 1 : 교사훈련 세미나. 강사: 안임숙전도사
12. 1 : 교육관 건축계획 세부안 발표
(4층 면전 37,300 스퀘어피트)
12. 1 : 안동호목사를 제4대 독일주재선교사로 임명
12.21 : 멕시코 고아원 방문
12.22 :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 구호
12.29 : 85년도 성경읽기대회 수상자 시상
박완순권사 (10회)
12.29 : 85년도 전도 및 구역봉사상 시상
12.31 : 안용식목사 (대학부지도) 사임

1986년

1. 1 : 채현철목사 고등부지도 부목사로 임명
김건태목사 교구목사로 임명
1. 1 : 조갑수목사 (대학부지도) 부임
1. 9 ~ 1. 11 : 신년제직수련회
강사: 박수복목사 (그라나다힐 교회)
1. 19 : 공산권선교를 위한 특별집회
강사: 곽선희목사 (한국소망교회)
2. 1 : 에스더여전도회 교육관 건축기금마련 야드세일
2. 22 ~ 5. 3 : 청소년 주말학교 개교
2. 23 : 이원희목사 밸리지교회 담임목사로 임명
2. 23 : 청소년문제 법률세미나. 강사:민병수 변호사
3. 2 : 주일예배 (1,2,3부)에 2천성도 출석
3. 7 ~ 3. 8 : 연합성가대 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3. 16 : 한나여전도회 교육관 건축헌금 1만달러
3. 20 ~ 3. 22 : 모세남전도회 주최 춘계특별신앙강좌.
강사: 김형석교수 (연세대)
3. 26 ~ 3. 28 : 청소년부흥집회「Come to Me」
강사: 김상복목사
3. 30 : 부활절 음악예배 고난과 부활
(지휘: 윤한두목사)
4. 7 ~ 7. 31 : 제2기 전도폭발 훈련
4. 17 ~ 4. 20 : 학원 복음화대회
강사: 임동선목사, 김상복목사
4. 26 : 동양선교교회 개정 헌법 발효
4. 26 : 지교회 운영규정 제정
5. 10 : 임재순사모 1986년도 밀알상 수상
5. 11 : 아주사 신학대학원 본교회 분교 제1회 졸업
5. 11 : 장한 어머니에 한병선권사
5. 17 : 야외 미니운동대회 (교구별)
(장소: 그리피스공원)
5. 19 ~ 5. 21 : 제1회 주부대학 개설
5. 27 : 박수복목사 파송 (뉴욕지교회 담임목사)
5. 30 ~ 5. 31 : 특수반(지체장애자) 수양회
강사: 강형모전도사
6. 6 ~ 6. 7 : 상락전도회 수양회
강사: 임병택목사
6. 8 : 밸리지교회 (담임: 이원희목사) 창립예배
6. 8 : 장학위원회 위원 임명 (위원장: 조인식)
6. 9 : 한흑커뮤니티지도자 회의
6. 21 : 에스더여전도회 교육관 건축기금 마련 야드세일
6. 23 ~ 6. 26 : 어린이 여름 캠프
6. 28 : 홍성호집사를 선교사 (평신도)로 임명
6. 29 : 강신욱목사 (중등부지도) 사임
6. 29 : 사라여전도회 교육관 건축헌금 2만달러 헌금
7. 1 ~ 7. 12 : 한글학교 모국방문
7. 2 ~ 7. 5 : 대학부 여름 수양회
강사: 석태운목사
(오렌지카운티지교회)
7. 7 ~ 7. 17 : 청소년 어린이 여름캠프
(장소: 에스더 수양관)
7. 13 : 교육관 건축업자 선정, 총 공사비 274만1천달러
7. 20 : 교육관 기공예배
7. 20 : 중고등 대학생 교육장소 LACC로 이전
7. 22 ~ 7. 26 : 창립 16주년 부흥성회
강사: 이만신목사 (서울중앙성결교회)
7. 27 : 창립 16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만신목사
장로취임: 김경태, 이성은, 이건기
장로장립: 탁찬효, 신상우, 조상희, 조정현,
김광돈
안수집사취임: 이영세
안수집사: 황명준, 계춘영, 임스티브, 이고명,
심상수, 김해룡, 황규일, 엄창웅
권사취임: 천희완, 강순남, 이예환, 김유단,
조태운, 배종년, 김재숙, 오상숙,
백계선
8. 9 : 쌍파울로 지교회 목사에 이두용목사 파송
8. 10 : 현용수전도사 (장년부지도) 임명
8. 10 : 홍성호선교사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파송
8. 13 ~ 8. 16 : 중등부 여름수양회
(강사: 채현철목사)
8. 14 ~ 8. 18 : 제2회 선교 및 교회성장 세미나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8. 28 : 교육관 기공예배
9. 4 ~ 9. 20 : 임동선목사 중국선교여행
9. 7 : 한글학교 교사 및 학부형 세미나
강사: 수지오선생
9. 14 ~ 12.28 : 장년주일학교 개강
9. 17 ~ 9. 21 : 한국 농어촌 교회 초청 세미나
9. 26 ~ 9. 27 : 사라여전도회 수양회
강사: 김건태목사
10. 10 ~ 10.11 : 연합평신도 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10. 19 : 18명 학생 장학금 지급
10. 25 : 비젠차 한인교회 지교회 체결
10. 26 : 온타리오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최지원목사)
10. 27 ~ 11. 8 : 임동선목사 한국선교대회 집회인도
11. 8 : 당회장배 본 지교회 친선배구대회
11. 9 : 중국방문단의 선교보고, 간증 찬양예배,
설교: 임동선목사
11. 15 : OMC 협력회 설립준비위원회 모임
11. 16 : 이정근목사 밀라노지교회 선교사 파송
11. 16 : 1987년 모세남전도회 임원
(회장: 백영두 부회장: 김상정)
11. 20 ~ 11.23 : 청소년부흥집회「Come & See」
강사: 이상현박사
11. 23 : 상락전도회 임원 (회장: 김병숙 부회장: 이득애)
11. 23 : 여호수아남전도회 임원
(회장: 조영일 부회장: 김창하)
11. 29 : 모범 구역장 전도상 시상
11. 30 : 임마누엘 축구선수단 (코치 이영무집사) 간증과
찬양의 밤
11. 30 : 사라여전도회 임원
(회장: 권옥엽 부회장: 복희슬로운)
11. 30 : 에스더여전도회 임원
(회장: 조희순 부회장: 황미자)
12. 8 : 안동호목사 독일 4대 선교사로 파송
12. 14 : 불우 흑인위해 식품전달
12. 14 :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참가 제1회 성탄축하
합동음악예배
12. 14 : 뉴욕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창립 예배
12. 18 : 멕시코 고아원 방문
12. 20 : 월드미션대학 설립위원회 구성
12. 21 : 나사렛청년회 임원
(회장: 스테판 하 부회장: 김양수)

12. 28 : 봉사상 모범구역장상 시상식
봉사상 오순명권사, 최순덕권사

1987년

1. 1 : 조갑수목사 선교 부목사 임명
1. 15 ~ 1. 17 : 신년 제직 수련회
강사: 김석규목사 (산호세제일교회)
1. 18 : 상락 남전도회 임원
(회장: 이정식목사 부회장: 임응률장로)
1. 22 : OMC 협력회 창립총회
2. 4 : 제3기 전도폭발 훈련 시작
2. 6 ~ 2. 8 : 모세 남전도회 주최 김형석교수 초청
신앙강좌. 김형석교수에 모국 장학금
1만5천달러 전달
2. 13 ~ 2. 14 : 성가대 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2. 15 : 한흑공동예배, 톰 브래들리 시장 신앙간증
2. 22 : 교회 묘지연구위원회 발족
2. 22 : 청소년부모를 위한 특별강좌
강사: 송정호선생 (KYC 카운슬러)
3. 1 : 청소년 어린이문제 전담 상담
3. 6 ~ 3. 7 : 교구 구역지도자 산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3. 30 : 각 자체기관 명칭을 전도회에서 선교회로 변경
3. 31 : 「동양선교헤럴드」를 OMC협력회의
기관신문으로 승인
4. 12 : 제1차 선교세미나. 강사: 조갑수목사
4. 13 ~ 4. 15 : 제8회 청소년복음화대회
「Come to Me」'87
강사: 문대연목사
4. 17 ~ 4. 18 : 사라 한나 에스더 여선교회 합동수양회
강사: 차윤순전도사
4. 25 : 당회는 당회장의 정년후 5년간 계속 시무 결정
4. 26 : 선교위원회 역대 선교부장 연석회의,
OMC선교정책 초안작성
5. 1 : 이태종전도사 (청년부담당) 임명
5. 5 ~ 5. 20 : 임동선목사 브라질 지교회 준공 및
임직예배 참석
5. 8 ~ 6. 6 : 교사훈련 세미나
5. 10 : 장한 어머니상에 김병희권사
5. 18 ~ 5. 25 : 각기관 야외예배 및 친목회
5. 29 : 여호수아남선교회 주최 간증집회
강사: Dr. Pency Collette (내가 본 천국 저자)
5. 30 : 한국학교 교사 건축에 2천달러 지원
6. 5 : 교사훈련 세미나
강사: 이계조원장, 이정근목사
6. 7 : 1부예배시간 변경. 오전 8시30분을 오전 8시로
6. 14 ~ 10.31 : 교육관 모금저금통 저금
6. 20 : 의사선교회 창립
(회장: 조정현장로 총무: 한승수집사)
6. 27 ~ 7. 12 : 제4차 한글학교 모국방문
6. 28 ~ 7. 24 : 대학생 동남아 단기 선교훈련
(태국, 필리핀)
7. 11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창립총회 (회장: 임동선목사)
7. 12 : 임동선목사 남미선교여행 사진전
7. 22 ~ 7. 25 : 창립 17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김상구목사(시애틀한인장로교회)
7. 26 :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장로취임: 임진수
장로장립: 황종구, 김여근, 김명균
권사취임: 김재영, 헬렌캘리, 정인규, 최순덕,
박경애, 김옥자, 유순임, 장춘호
집사안수: 김상정, 오명엽, 스티브임, 이영이,
임원희, 이영송, 도무삼, 김홍일,
전길성, 신재권, 한상범, 주창국
7. 31 : 알젠틴동양선교교회 자매교회 설립
(담임 김석환목사)
8. 1 : 리오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설립 (임삼용전도사)
8. 2 : 한국 수재민돕기 특별헌금
8. 9 : 쌍파울로 지교회 이두용목사 파송
8. 16 : 사회복지제도 안내 (김신옥사모)
8. 23 : 청소년 어린이 문제 상담 (담당 박은혜선생)
9. 1 : 교역자 임명
강선자전도사 (여자성도)
김진광전도사 (고등2부)
최진기전도사 (중등부)
9. 12 : 에스더 여선교회 교육관 건축기금 모금 바자회
9. 27 : 제1회 찬송가 중창 경연대회
9. 29 : 한국 명지대학교회와 자매결연
10. 4 :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설교 임동선목사)
10. 11 : New Life 공부 시작 (10주과정)
10. 16 ~ 10.18 : 모세남선교회 주최 곽규석목사
간증집회
10. 17 : 대학부 멕시코 티화나시 선교방문
11. 1 : 임동선목사 가주 부지사로부터 한흑관계개선
공로표창
11. 12 : 한나여선교회 임원
(회장: 김옥자 부회장: 김희숙)
11. 12 : 사라여선교회 임원
(회장: 권옥엽 부회장: 복희슬로운)
11. 14 : 각 교구별 친선운동대회
11. 20 ~ 11.21 : 평신도 산상수양회
(강사 임동선목사)
12. 6 : 에스더여선교회 임원
(회장: 조지현 부회장: 김영실)
12. 13 : 제2 모세 남선교회 임원
(회장: 김광돈 부회장: 이병주)
12. 13 : 김광락장로 노인복지기금 1만5천달러 헌금
12. 14 : 뉴욕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12. 17 ~ 12.19 : 대학생부흥집회 「Come & See」
강사: 홍성철목사 (보스턴소망교회)
12. 20 : 갈릴리청년회 새 임원 (회장: 이종흠)
12. 22 : 이정근목사 밀라노 4대 선교사로 파송
12. 23 : 멕시코 고아원에 성탄선물 전달
12. 27 : 나사렛청년회 임원
(회장: 김양수 부회장: 김종천)
12. 27 : 봉사상 모범구역장상 시상

1988년

1. 1 : 심신경목사 협동목사 임명
1. 8 : 당회원 산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1. 10 : 임동선목사 설교집 「절망의 극복」개정판 출판
1. 14 ~ 1. 16 : 신년제직 수련회
강사: 김흥수목사(시카고훼로쉽교회)
1. 17 : 성탄헌금 2만달러 멕시코 빈민촌 등 지원
1. 22 : 홍성호선교사 가족 파푸아 뉴기니아 출발
1. 24 : 성인교회학교 교역자 및 그룹리더 교육

강사: 조갑수목사
1. 24 : 남가주스포츠선교회 창립예배
강사: 조종남목사
1. 30 : 교육관 개관예배 (4층건물 3만6천스퀘어피트)
1. 31 : 유년 중고대학생 교육관 입당예배
2. 7 : 가나청년회 임원
(회장: 임승표 부회장: 유희범)
2. 19 ~ 2. 20 : 교구 구역지도자 산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2. 27 : 교육관개관기념 당회장배 교회 기관별 배구대회
2. 28 : 「동양선교헤랄드」를 「선교헤랄드」로 명칭 변경
3. 1 : 알라스카지교회 설립 (유영준목사)
3. 2 : 제5기 전도폭발 훈련 (16주)
3. 18 ~ 3. 19 : 봄맞이 어린이 실내캠프
3. 20 : 모국순회 선교사에 이두용목사 임명
3. 20 : 한주간 출석교인 6천명
3. 22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서부지역협의회
(회장 임동선목사)
3. 27 : 유타로간지교회 창립예배
3. 31 ~ 4. 2 : 제9회 청소년복음화대회
「Come to Me」
강사: 김요셉전도사
4. 3 : 임동선목사 할리웃 부활절 새벽예배 설교
4. 13 : 선교대학 설립위원회 모임
(임동선, 이천영, 송정명)
4. 15 : 가정통신 성경부 산상수련회
4. 16 : 헌신자를 위한 모임
4. 16 : 무료건강진료 (장소: 아드모아 강당)
4. 17 : 사회복지제도 상담
김신옥사모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사회복지전공)
4. 28 ~ 4. 30 : 모세 1.2남선교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김중기목사 (연세대 교수)
5. 1 : 중부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윤한두목사)
5. 1 : 전도사 임명. 전길성전도사 (대학부)
안미원전도사 (유아부)
5. 1 : 아프리카 어린이 합창단 초청공연
5. 6 ~ 5. 7 : 상락여선교회 산상수련회
강사: 이정근목사
5. 7 : 학부모를 위한 대학진학 세미나
강사: 이병우박사 (UCLA 신입생자문위원)
5. 14 : 나사렛 청년의 밤
5. 16 : 강해 설교 세미나. 강사: 데니스 레인목사
5. 20 ~ 5. 22 : 학원선교 전도집회
강사: 김의환목사, 박희민목사
5. 21 : 한글학교 야외수업 및 운동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5. 22 : 임동선목사 영국 웨슬레회심 25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5. 22 : 성가대 지휘자 백경환집사 임명
5. 25 : 의사선교회 (회장: 조정현) 한국근육 디스트로피
협회에 5천달러 전달
5. 29 : 당회 상조회 설립 초안작성
6. 3 ~ 6. 4 : 제직하기 특별수련회
강사: 현성초목사 (성도교회)
6. 4 : 새교우 환영예배
6. 5 : 남미(파라과이) 원주민 선교헌금 2만5천달러 전달
6. 7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회장: 임동선목사)
6. 17 ~ 6. 18 : 여선교회 산상수양회
강사: 이필숙전도사
6. 27 ~ 7. 7 : 한글학교 제5차 모국방문

7. 9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현용수
김진광, 윤기성)
7. 17 : 제5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예배
(1기부터 모두 124명 수료)
7. 23 : 교구별 친선 경기대회 (장소: 그리피스 공원)
7. 24 : 한글교육의 목적과 방법 세미나
강사: 수지오 (호바트 초등학교 교감)
7. 27 ~ 7. 30 : 창립기념 부흥성회
강사: 김상복목사 (벌티모어벧엘교회)
7. 30 : 장한 어머니에 문유심권사
7. 31 : 창립 1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김상복목사
장로취임: 정중섭, 김석환
장로장립: 김지수, 김성곤
권사취임: 김정애, 금남이, 이종임, 박옥순,
정연숙, 강원례, 진선희, 강복순
집사안수: 허 심, 김학준, 이찬봉, 김종성,
정봉모, 이한길, 조세훈, 노성찬,
황덕성, 김창하, 박호성, 원석복,
한승수
안수집사 취임: 정홍수, 이기성
8. 14 : 임동선목사 한국 북한선교회 집회인도
8. 17 ~ 8. 20 : 고등1부 및 중고 2부 합동하기 수양회
강사: 제임스 리 전도사
9. 1 : 김 강전도사 (1,2학년) 임명,
김부연전도사 (3,4학년) 임명
송상현전도사 (5,6학년) 임명,
임성진전도사 (한글학교) 임명
손경윤전도사 (9,10학년) 임명,
김문주전도사 (11,12학년) 임명
9. 20 : 선교대학 설립위원회 모임
(임동선, 송정명, 이중용, 조갑수, 한건수)
9. 24 : 대학부 코이노니아의 밤
10. 1 : 황은철전도사 (선교부) 임명
10. 2 : 한글학교 이야기대회
10. 26 : 신학대학 이사 30명 인준
10. 28 : 구역지도자 특별수련회 (심야기도)
10. 30 : 제1 모세 남선교회 임원
(회장: 조상희 부회장: 백윤조)
10. 30 : 의사선교회 암예방을 위한 건강 세미나
11. 4 ~ 11. 9 : 전도폭발 지도자 Clinic 전미주 및
캐나다 목회자 등 70명 참가
11. 6 : 한나여선교회 임원
(회장: 노영자 부회장: 백미섭)
11. 11 : 메시아 대연주회
(지휘 백경환, 장소: 임마누엘교회)
11. 13 : 제2 모세 남선교회 임원
(회장: 이성은 부회장: 장 진)
11. 13 : 에스더여선교회 임원
(회장: 김명자 부회장: 김미영)
11. 17 ~ 11. 19 : 대학부 집회 「Come & See」
강사: Bill Majors
(한국기독실업인협회 선교담당)
11. 20 : 사라여선교회 새 임원
(회장: 복희슬로운 부회장: 정인규)
11. 25 : 새신자 총동원 헌신예배 (설교 임동선목사)
11. 26 : 멕시코 고아원에 추수감사절 선물전달
11. 27 : 여호수아남선교회 임원
(회장: 김창하 부회장: 이광휘)
11. 27 : 나사렛청년회 주최 경로잔치

11. 28 : 월드미션대 창립이사회 (이사장 임동선목사)
12. 1 ~ 12. 3 : 모세 1,2 남선교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김선운목사
(필라델피아 헌팅턴밸리 장로교회)
12. 9 ~ 12.10 : 평신도 산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12. 10 : 임동선당회장 성역 40주년 기념 및 은퇴예배
12. 11 : 소련 알메니아 지진구호금 1만달러 전달
12. 18 : 갈릴리청년회 임원 (회장: 오기열)
12. 18 : 동양선교교회 및 지교회 합동성탄축하예배
12. 22 : 멕시코 빈민촌에 성탄선물 전달
12. 22 : 백동영목사 독일선교사로 파송
12. 25 : 성탄헌금 등 7만3천달러를 지진복구, 고아원, 교도소 등 전달
12. 28 : 이두용목사를 로간지교회 목사로 임명
12. 28 : 전도상 모범구역장상 시상

1989년

1. 12 ~ 1. 14 : 제직수련회
강사: 김창인목사(서울충현교회)
1. 21 : 토요학교 개강 (4~12학년생)
1. 23 : 주일학교 교사팀 남미지역 교사훈련 출발
1. 28 : 음악부 수양회
강사: 김종일목사(가나안한인교회)
2. 8 : 상락남녀선교회 상락학교 개강
2. 12 : 남미선교교사 훈련단 선교보고의 밤
(설교 황은철전도사)
2. 22 : 한글학교 명칭을 한국학교로 변경
2. 22 : 한국의 명지초등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 26 : 제1차 선교세미나
강사: Dr. Paul E. Pierson
(훌러신학선교대학원장)
3. 1 :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창립
3. 3 : 너서리학교 개학 (2세반~4세)
3. 19 : 수난주일 음악예배 십자가상의 칠언 (지휘 백경환)
3. 19 : 한국학교 학부모회 임원
(회장: 임경희 부회장: 김영애)
3. 23 ~ 3. 25 : 제9회 청소년집회「Come to Me」
강사: 배영박사
(미조리대 교육철학교수)
3. 26 : 부활절 칸타타「보라 영광의 왕」(지휘 최병삼목사)
3. 27 : 유타 로간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3. 27 : 월드미션대학 개교예배 및 특강 (설교 김계용목사)
4. 21 : 신임교사훈련 제4차 강좌
강사: 유의영박사 (칼스테이트 LA 교수)
4. 23 :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담임 석태운목사)
새성전 입당예배
4. 28 : 월드미션대학 특별강연. 강사: 맥가브런 박사
5. 1 : 최임규전도사 임명
5. 4 : 오케스트라 창단 (지휘 백경환집사)
5. 6 : 한국학교 야외수업 및 운동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5. 27 : 교구별 친선 운동대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6. 4 : 청년부 신앙강연회
강사: 오재명박사 (창조과학회)
6. 4 : 행정목사에 임병택목사 임명
특수반 김민구전도사 임명
6. 6 : 제3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회장: 이기홍목사)
6. 7 ~ 6. 9 : 바울 임동선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
「이민교회 성장과 세계선교」
강사:이상현목사, 김상복목사,
유의영박사, Dr. Paul Pierson,
Dr. Clyde Cook
6. 11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관 목사안수예식
(이성원전도사, 안명설전도사, 김용식전도사)
6. 18 : 동남아시아 및 남미에 미주대학생 (KCM)
하기 단기 선교 파송예배
6. 24 : 나사렛 '89 예술제
6. 26 ~ 6. 29 : 어린이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6. 30 ~ 8. 30 : 미주학생선교회 (KCM) 동남아,
남미 하기대학생 선교훈련
7. 3 ~ 7. 14 : 한국학교 제6차 모국방문
(단장 조준구장로)
7. 22 : 새교우 환영예배 친교의 밤 (말씀 임동선목사)
7. 25 : 교회 지정묘지로 Rose Hill 과
Hollywood Hill로 지정
7. 27 ~ 7. 30 : 창립 19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이병희목사 (휴스턴한인교회)
7. 30 :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병희목사
장로장립: 김상정, 임스티브
권사취임: 백현님, 변봉실, 서월아, 신상정,
신무희, 계정자, 이경순, 염혜경,
장정숙
집사안수: 이천준, 정화관, 이기성, 임승광,
이병주, 이종흠, 정형조, 김경수,
오흥삼, 이 조, 강성환, 장 진,
변광우, 오홍덕
7. 30 : 담임목사 청빙 결정에 대한 공동총회
8. 3 ~ 8. 17 : 임동선목사, 소련 및 동구라파
선교여행
8. 4 : 김흥수목사 청빙을 철회
8. 13 : 김도일전도사(유년부) 임명
8. 13 : 모국수재의 연금 1만6천달러 전달
8. 18 ~ 8. 20 : 한국섬지방 선교 헬리콥터 기금 마련
선교특별집회
8. 20 : 중국 왕청교회 교회당 증축금 2천달러 보조
9. 10 : 후임 당회장 결정에 관한 임시공동총회
(이병희목사)
9. 11 ~ 9. 13 : 모세 1,2 남선교회 주최 추계 신앙강좌
강사: 박조준목사(서울갈보리교회)
9. 15 ~ 9. 16 : 음악부 수양회. 강사: 정명소전도사
9. 17 : 영어예배위원회 모임
(당회장, 김용서, 온성철, 백영두, 김중완)
10. 8 ~ 10.14 : 임동선목사 구라파지역 지교회
집회인도
10. 22 : 여호수아 남선교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유덕용목사 (소록도교회)
10. 25 : 20주년 교회사 편찬위원회 구성
10. 29 : 한국교회 학부모세미나
「이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사: 이춘배선생 (케네디고교카운슬러)
10. 29 : 바울 남선교회 임원
(회장: 노수정 부회장: 이영이)
11. 1 : 이성원목사를 부목사로 임명
11. 3 ~ 11. 8 : 제10차 국제전도폭발 클리닉
11. 5 : 모세 남선교회 임원

(회장: 조정현 부회장: 홍성환)
11. 5 : 상락남선교회 임원 (회장: 오수남 부회장: 최경호)
11.10 : 송정명, 이중용목사 사임
송정명목사 평안교회 담임목사 취임
이중용목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
11.12 : 한국학교 이야기 대회
11.12 : 전체 주일학교 교사 위로의 밤
11.12 : 파푸아 뉴기니아 위클리프선교회 선교보고
11.12 : 에스더여선교회 임원
(회장: 정영희 부회장: 김영실)
11.15 : 상조회 발기총회 초대회장 오수남장로
11.16 ~ 11.18 : 대학부집회「Come & See」
강사: 오대원목사
(한국에서 25년 선교사)
11.19 : 상락여선교회 임원
(회장: 오순명 부회장: 이득애)
11.19 : 한나여선교회 임원 (회장: 오상숙 부회장: 백미섭)
11.19 : 여호수아남선교회 임원
(회장: 이기성 부회장: 이종대)
11.19 : 공산권 선교시찰 사진전 (글, 사진: 조영근장로)
11.19 : 안용식목사(교육담당)임명
11.20 : 샌프란시스코 지진 피해 한인교회에 5천달러 보조
11.26 : 디모데 남선교회 임원
(회장: 주창국 부회장: 엄창웅)
11.29 : 남선교회 이름을 변경
모세1을 모세로 (51~55세)
모세2를 바울로 (45~50세)
여호수아 남선교회를 여호수아남선교회
(41~45세)로
디모데남선교회(35~40세)로
12. 1 ~ 12. 2 : 하반기 구역지도자 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12.10 : 천사합창단 음악예배 (지휘 이귀임)
12.13 : 이병희 2대 담임목사 부임
12.15 ~ 12.16 : 평신도 산상수련회
강사: 임동선목사
12.17 ~ 12.19 : 중등부 및 2부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
(장소: 에스더 수양관)
12.18 : 멕시코 고아원 양로원에 위문품 전달
12. 2 : 티화나 동양선교교회 (담임 정현호 목사) 설립
12.21 ~ 12.23 : 고등 1부 겨울 수양회
강사: Loven Son 전도사
12.24 : 나사렛청년회 임원
(회장: 박제환 부회장: 샘임)
12.24 : 성탄축하 메시야 연주회
(지휘 백경환집사, 장소: 윌튼극장)
12.26 : 대학생연합 수양회 및 개회예배
(말씀 임동선목사)
12.31 : 교회 20년 공로상수상 오해훈, 오철훈, 김용서, 한건수, 임스티브, 이성호, 노수정, 김보근
12.31 : 모국선교교회 173개

1990년

1. 1 : 임동선목사 원로목사 추대
이병희목사 2대 담임목사 취임
1. 1 : 이성원목사 대학부 담당 부목사로 임명
황재룡전도사 청년부담당으로 임명
1. 15 : 이두용목사 로간지교회 부임
1. 15 : 백동영목사 독일지교회 부임
1. 21 : 임동선원로목사 추대예배 및 이병희담임목사 취임예배
1. 25 : 당회원수련회. 주제「세계선교의 나아갈 길」
강사: Ralph Winter 박사
2. 4 : 브라질 선교예배
(설교: 다미방 아마존 티쿠나족 선교사)
2. 17 : 홍성호선교사를 위한
「Family Mission Banquet 90」 개최
2. 25 : 에녹남선교회 임원
(회장: 온성철 부회장: 이찬봉)
3. 8 ~ 3. 15 : 이병희목사 휴스턴한인교회
제11차 국제전도폭발 Clinic 집회인도
3. 11 : 전교인 센서스(인구조사)에 적극 참여
3. 10 ~ 3. 31 : 제1차 선교세미나
강사: 조갑수목사
3. 25 : 여호수아 남선교회 이민 생활강좌
강사: 박송자선생(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4. 1 : 홍동섭목사를 심방목사로 청빙
4. 4 : 에스더 수양관 매각
4. 8 : 홍성호선교사 사역을 돕기 위한 선교의 밤
(대학부 주관)
4. 19 ~ 4. 21 : 청소년복음화대회「Come to Me」
강사: 노창수목사
4. 22 : 엔지양 돕기 특별헌금 1만달러 전달
5. 6 : 신입교사를 위한 특별강의
강사: 박은혜선생(연령별 학생이해)
5. 10 ~ 5. 12 : 바울남선교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박종순목사(서울충신교회)
5. 12 : 초중고학생 컴퓨터 강좌. 강사: 김영실, 최두수
5. 13 : 장한 어머니에 임재순사모
5. 19 ~ 5. 21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회장: 석태운목사)
5. 20 : 반룡일교 집회
강사: 김의환목사(나성한인교회)
5. 25 : 신임교사를 위한 강의
강사: 김문자전도사, 송창현전도사
5. 26 : 동양선교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의 관계정립 연구 위원회 모임
5. 30 : 김철현목사 독일지교회 임명
정봉은목사 밀라노지교회 임명
5. 31 : 최지원목사 온타리오 동양선교교회 사임
6. 1 : 안영호 행정목사 부임
6. 1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황재룡, 성충경)
6. 2 : 에스더 여선교회 주최 아마존 지역교회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6. 3 : 한국학교 학부모 세미나
강사: 김정혜선생(LA교육국 자문관)
6. 3 :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계만목사
6. 22 : 사라여선교회 수양회. 강사: 이병희목사
6. 24 : 밸리동양선교교회 홍순도목사 취임예배
(설교 이병희목사)
6. 29 ~ 7. 14 : 한국학교 제8차 모국방문
6. 30 : 이정우전도사 사임
7. 1 : 시온동양선교교회 (담임 이성원목사) 개척
7. 4 : 교회창립 20주년기념 야외예배
(장소: 그리피스공원)
7. 12 ~ 7. 25 : 임동선목사 아프리카 선교여행
7. 14 : 창립 20주년 기념「천지창조」대연주회

(지휘 백경환)
7. 15 : 벧엘성서 졸업 및 헌신예배
7. 20 : 나성비디오 성서 통신대학 개강예배
7. 22 : OMC 제1회 청년 장학금 지급
(전재호, 최애리, 이승준)
7. 26 ~ 7. 29 : 창립 20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림인식목사(노량진장로교회)
7. 29 :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림인식목사
장로취임: 노재희, 백윤조, 엄한광, 김기성
장로장립: 홍성환, 김중훈, 장 진, 김영재
안수집사 취임: 김영욱
안수집사 안수: 채승희, 진병엽, 한긍리, 이창석, 이법웅, 김채광, 김대호, 민병득, 김영만, 오상헌, 최영철, 오기열, 김인승, 이광휘, 박제임스, 박창국, 오윤화
권사취임: 홍영숙, 최성자, 차래옥, 전성실
권사시무: 김순례, 박은동, 황영숙, 송대순, 홍기영, 신봉효, 조규경, 조현희, 최경희, 이영숙, 박 옥, 방기복
7. 29 :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패 증정 임동선목사 등 43명
8. 2 ~ 8. 4 : 의사선교회 티화나 동양선교교회 방문
8. 5 ~ 9. 30 : 이단종파 여름 특별 강좌
8. 10 : 교회학교 전체교사를 위한 특강
강사: 이상훈박사 (서울신학대학 교수)
8. 18 : 범죄추방 남가주지역 크리스찬 궐기대회
강사: 임동선목사
8. 31 : 김 강전도사 사임
9. 1 : 손경윤전도사(고등부)임명
9. 8, 15, 22, 29 : 제3차 선교 세미나
9. 23 : 인도네시아 복음신학대학 선교중창단 찬양 및 간증예배
9. 23 ~ 10. 6 : 임동선목사 한국 및 유럽 집회 인도
9. 26 : 임병택목사 독일지교회 파송
9. 30 : 모국 수재의연금 4만5천달러 전달
10. 8 : 알라스카지교회 유영준목사 사임
10. 14 :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방송 찬양과 간증의 밤
10. 22 ~ 10. 24 : 모세선교회 주최 추계 신앙강좌
강사: 김선도목사 (광림감리교회)
10. 27 : 윤치원목사 중국선교 보고 및 사진 전시회
10. 31 : 새해 예산총액 4백53만달러로 결정
11. 2 ~ 11. 3 : 에녹선교회 주최 간증집회
강사: 이한빈장로
11. 15 ~ 11. 17 : 대학부 부흥집회「Come & See」
강사: 박성일전도사
11. 18 : 에녹선교회 임원
(회장: 김상정 부회장: 임천권)
11. 18 : 가나청년회 임원
(회장: 이무곤 부회장: 박준영)
11. 18 : 갈릴리청년회 임원
(회장: 강순곤 부회장: 김양수)
11. 25 : 디모데선교회 임원
(회장: 유정현 부회장: 이기성)
11. 25 : 여호수아선교회 임원
(회장: 이종대 부회장: 신재권)
11. 25 : 바울선교회 임원
(회장: 장 진 부회장: 조영일)
12. 1 : 이병희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이사장 피선
12. 2 : 당회장 초청 전체 교사 격려의 밤
12. 2 : 신앙간증집회
강사: 강영우교수(한국최초의 맹인박사)
12. 9 : 교회학교 모범교사 표창
12. 13 : 선교부, 멕시코에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
12. 16 : 한국노인아파트 건립 특별헌금 (2만 1천달러)
12. 16 : 모세선교회 임원
(회장: 김용일 부회장: 김종성)
12. 17 : 사라여선교회 임원
(회장: 복희슬로운 부회장: 정인규)
12. 17 : 알라스카 지교회 이중용목사 취임예배
12. 27 : 어린이 교회학교 90년 교사의 밤 개최
12. 27 ~ 12. 29 : 중등부 겨울 수양회
(Forest Home, Forest Falls)
강사: 서정인 전도사

1991년

1. 5 ~ 1. 11 : 명지국민학교 방미단과 학습교류
1. 6 : 이정배장로 원로장로 추대
1. 6 : 스티브임장로 수양관 구입기금 3만달러 헌금
1. 18 :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 강사: 손희영선교사
1. 30 : 교회분규해결 7인 위원 (조영근, 오해훈, 김경태, 온성철, 김재권, 김중완, 김명균) 선임
1. 30 : 중고등부 한글어부 담당에 황은철전도사 임명
2. 3 : 의사선교회 임원 (회장: 김지수 부회장: 한승수)
2. 3 : 당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담임목사에 9개항의 건의문 전달
2. 10 : 두란노「경배와 찬양」집회
2. 15 ~ 2. 16 : 음악부 수양회. 강사: 박재훈목사
2. 24 : After School & Nusery 설립결정
3. 1 ~ 3. 2 : 구역지도자 수련회. 강사: 이병희목사
3. 3 : 한국어 중고등부 시작
3. 17 : 한주간 출석교인 7천명
3. 17 : 성인교회학교 (연령별 성경공부) 시작
3. 18 : 월드미션신학대학원 가주 정부 정식인가
3. 24 : 한국학교 학부형 세미나
강사: 전정재박사 (칼폴리 대학)
3. 29 : 라스베가스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박용운목사
3. 31 : 부활절 축하음악예배「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4. 7 : 여호수아선교회 임원
(회장: 김충일 부회장: 신재권)
4. 7 : 디모데선교회 임원
(회장: 박창국 부회장: 오상헌)
4. 7 : 가나, 갈릴리통합청년회 임원
(회장: 김양수, 부회장: 강 찬, 원미경)
4. 13 : 홍성호선교사를 위한 Mission Banquet 개최
4. 24 : 안영호목사 사임. 행정목사 임시대행에 김건태목사
교회 수습 9인 위원회 구성
(김광락, 조영근, 노수정, 온성철, 김상정, 성기윤, 신윤철)
황재룡목사를 전임 부목사로 임명.
홍동섭목사 사임
4. 30 : 이병희담임목사 사임
5. 3 : 장한 어머니에 홍기영권사
5. 7 ~ 5. 11 : 전도대회 전도학교
5. 11 : 한국학교 그리피스공원에서 야외수업 및 운동회
5. 12 : 전교우 40일 특별금식기도. 교회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위하여
5. 19 : 제2교육관 (구예식장) 198만달러에 구입

5. 29 : 윤치원목사를 중국순회선교사로 임명
5. 30 : 백경환성가대지휘자 사임
5. 31 ~ 6. 1 : 소그룹지도자 세미나
6. 1 : 김건태행정담당목사를 수석부목사로 임명
6. 1 : 교구 및 행정담당 전도사에 임성진전도사 임명
6. 7 ~ 6. 8 : 신임교사 훈련 및 기존교사 특강
강사: 안용식목사
6. 9 : 교역자 임명
교구심방 임성진전도사, 유년부 김용창전도사,
초등부 박현이전도사, 특수부 황은미전도사,
AWANA 홍경화전도사
6. 9 : 평신도 지도자 훈련 세미나
강사: Dr. Les Blank
6. 9 : 창립 21주년 기념 교구별 찬양경연대회
6. 13 ~ 6. 15 : 모세 바울선교회 특별성회
강사: 전가화목사 (믿음의 집)
6. 16 : 제2교육관 (전 웨스턴 예식장) 입당예배
6. 21 : 당회원수련회. 강사: 황성수목사
6. 24 ~ 7. 6 : 한국학교 모국 명지초등학교 방문
6. 25 : 6•25 참전 미재향 군인위한 특별헌금
(8천5백달러)
6. 30 : 이민가정과 자녀교육. 강사: 윤병열박사
7. 4 : 전교우 친선 야외예배
7. 7 : 한나선교회 임원 (회장: 백미섭 부회장: 박옥)
7. 20 ~ 7. 21 : 나사렛청년회 주최 뮤지컬「예수내안에」
7. 25 ~ 7. 27 : 창립 21주년 기념부흥성회
강사: 이성헌목사 (대구서문교회)
7. 28 : 창립 2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성헌목사
장로취임: 조준구
안수집사 취임: 김세웅
안수집사 신임: 김용기, 김충일, 김희구, 박정수,
이명진, 유영종, 유정수, 한동열, 이경동
권사취임: 정득선, 백희옥
권사신임: 김옥저, 김현숙, 문순남, 온진환,
송의자, 백미섭, 오영희
7. 29 ~ 7. 30 : 소련 기독교의 실상과 선교전망
강사: 알렉세이 비치코프목사
(소련복음주의 기독교 침례회 부총재)
8. 1 : 서정인전도사(고등부) 복직
8. 12 ~ 8. 14 :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 18 ~ 8. 24 : 대학부 멕시코 여름 선교훈련
9. 1 : 주명훈목사 교구심방 부목사 임명
9. 10 : 송창현전도사(대학부) 임명
9. 6 : 한나 사라선교회 연합수련회. 강사: 황성수목사
9. 10 : 제5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이기홍목사)
9. 10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임삼용, 김성관)
9. 10 ~ 9. 13 : 월드미션대학교 특강
강사: 김종원목사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9. 14 : 대학부 총동문회
9. 15 : 테니스선교회 조직 (회장: 엄한광장로)
9. 19 ~ 9. 21 : 청소년을 위한 말씀과 찬양의 밤
강사: 김용식목사 (브라질선교사)
10. 1 : 노창수목사 영어예배부 목사로 임명
10. 6 : 한국학교 학부형 세미나 개최
강사: 김기성장로 (남가주한국학원 장학관)
10. 6 : 건축위원장에 김광락장로
10. 6 : 어바인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김성수목사
10. 7 ~ 10. 9 : 바울선교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김장환목사(수원침례교회)
10. 10 ~ 10.18 : 임동선목사 독일 밀라노 로마
집회 인도
10. 20 : 첫 영어예배 (담당 노창수목사)
10. 25 : 모세선교회 세미나. 강사: 이완재목사
10. 29 : 교구별 찬양 시상 대회
11. 3 : 한흑친선예배 흑인학생에 장학금 지급
11. 3 ~ 11. 6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최 신앙강좌
강사: 김동길교수
11. 8 ~ 11.13 : 제15회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Clinic
11. 17 : 리브가선교회 발족
(회장: 한정현 부회장: 박경애)
11. 21 ~ 11.23 : 대학생부흥집회「Come & See」
강사: 노창수목사
12. 1 : 바울선교회 임원 (회장: 조영일 부회장: 오윤화)
12. 8 : 지교회 성탄축하 연합음악예배
(설교 이기홍목사)
12. 8 : 에녹선교회 임원 (회장: 노재희 부회장: 채승희)
12. 8 : 여호수아선교회 임원
(회장: 박정수 부회장: 채홍인)
12. 8 : 가나 갈릴리 청년회 임원
(회장: 강 찬 부회장: 박병철)
12. 15 : 중부동양선교교회 김진광목사 취임식 및
윤한두목사 이임식
12. 15 : 한나선교회 임원 (회장: 박 옥 부회장: 오영희)
12. 15 : 디모데선교회 임원
(회장: 오상헌 부회장: 김인승)
12. 19 : 멕시코 티화나 선교교회 (정현호선교사)에
의료진료 및 성탄선물
12. 20 : 임동선원로목사에 당회의 의사진행과
회무처리를 위임
12. 20 : 이두용목사를 순회협동목사로 임명
12. 22 : 사라선교회 임원 (회장: 백희옥 부회장: 정인규)
12. 22 : 모세선교회 임원 (회장: 백영두 부회장: 진병엽)
12. 29 : 모범교사 시상 및 전체교사 격려의 밤

1992년

1. 10 : 선교예산을 50만달러로 책정
1. 5 : 에스더선교회 임원
(회장: 김영실 부회장: 오길순)
1. 10 : 임동선원로목사에 공동총회 의장과 제직회
의장 임무 취임
1. 11 : 경로대학 개교
2. 3 ~ 2. 5 : 모세남선교회 주최 신앙강연회
강사: 김형석교수 (연세대명예교수)
3. 1 : 사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 (담임 이기홍목사)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교회당 구입 감사예배
3. 13 ~ 3. 28 : 교회학교 신임교사 훈련 및 전체교사
세미나
3. 15 : LA 노숙자 위해 구호식품 전달
4. 1 : 조원하전도사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
4. 1 : 김용식전도사를 알젠틴 동양선교교회
선교사로 파송
강성구목사를 독일 카이저 슬라우튼
동양선교교회 목사로 파송
4. 1 : 교회 헌법을 교단형태로 개정하기로 가결
4. 2 : 전반기 학습 세례예식거행

4. 2 ~ 4. 5 : 성전건축을 위한 부흥성회
강사: 정필도목사(부산수영로교회)
4. 5 : 도서실확장 개관예배
4. 11 : 홍성호선교사지원 대학부 제5회 선교만찬회
4. 12 : 한주간 출석교인 8천명
4. 14 ~ 4. 15 : 어린이 부활의 잔치
4. 16 ~ 4. 18 : 청소년복음화대회 「Come to Me」
강사: Dr. Ellen Rass (한국선교사)
4. 19 : 부활절 음악예배 (지휘 최병삼목사)
4. 26 : 임동선목사, 75년만의 개신교 최초 러시아 부활절예배에 설교
4. 29 : 4•29 폭동때 제직들이 성전보호위해 철야 근무
5. 3 : 폭동피해자 헌금 (3만달러)
5. 3 ~ 5. 30 : 지교회에서 폭동 피해자헌금
5. 3 : 유권자등록 실시
5. 3 : 학부모 입학세미나
강사: 김주희박사 (칼스테이트 롱비치 교수)
5. 7 : 장한 어머니에 송대순권사
5. 31 : 4•29 재난 성도를 위한 기도회
(8월까지 피해자에 30만달러 지원)
5. 18 ~ 5. 29 : 임동선목사 여주성결교회 60주년 기념성회 인도 및 로마 밀라노 독일지교회 방문
5. 31 : 월드미션대학 제1회 졸업식
5. 31 : 주명훈목사 사임
6. 4 : 시애틀 지교회에 김건태목사를 파송
6. 7 : 교포 초청 총동원 새벽기도회 (설교 임동선목사)
6. 28 : 총동원 전도를 위한 간증예배
6. 28 : 청소년 오케스트라 춘계연주회
(지휘 정운철목사)
7. 1 ~ 7. 14 : 한국학교 모국방문
7. 10 : 김건태목사 시애틀 OMC 파송예배
7. 19 : 7.19 총동원 교포초청 큰 잔치,
모두 6부 예배로 1만5천명 초청
윤복희, 김영일, 김차순 출연, 새신자 141명 등록
7. 26 :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동원목사
원로장로 추대: 조웅래
장로취임: 김덕영
장로장립: 조영일, 노성찬, 박승원
안수집사 취임: 한규환, 박덕훈
안수집사 신임: 박창섭, 이장윤, 김영호, 방영구, 김권집, 최종원, 정영식, 김청익, 유치홍, 이태식, 김형근, 채홍인, 김진호, 전영식, 이재진, 김삼열, 곽건준, 임승천, 강모세
권사취임: 장례옥, 홍정혜, 정삼례, 지우성, 최옥현, 김경순, 구선화, 안석희, 임금화, 공정자, 조정간, 김재한, 성병현, 이정심, 장영자, 조애나, 이덕자, 김성자, 진화숙, 노영자, 홍송자, 유종엽
7. 26 : 교구찬양대회
8. 6 ~ 8. 8 : 제6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이기홍목사)
8. 13 : 당회,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대학원 분교 설치 가결
8. 16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임성진, 김용식, 조해환, 이법웅, 지금섭, 황은철)
8. 18 : 월드미션대학 주정부로부터 BA 학위수여 인가
9. 1 : 새신자 담당목사에 임성진목사 임명
송창현전도사 대학부 전도사 임명
정운철목사를 성가대 지휘자 및 심방목사로 임명
전길성목사를 심방목사로 임명
석보욱목사를 협동목사로 임명
9. 1 : 정운철목사 부목사 임명
전길성목사 부목사 임명
9. 20 : 태풍 앤드류피해자에 1만4천달러 전달
9. 27 : 월드미션대학 모스크바 분교 개교 예배
9. 28 :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후원의 밤
10. 2 : LA 성인교육회 한인직업교육센터 설치
10. 4 : 마라나타교회 안병오교주 규탄 서명
10. 4 ~ 10.11 : 유아교육 건강 세미나
강사: 안임숙전도사
10.10 : 에녹 모세선교회합동 산상수련회
강사: 홍순도목사
10.25 : 한흑교류예배. 강사: Rev Hashaw
10.25 : 소말리아 빈민구제금 전달
10.29 ~ 10.31 : 제15회 대학생부흥회
「Come & See」
강사: 김요셉목사
11. 5 : 황은철목사를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
11. 8 : 가을철 학습세례 예식
11.22 :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지휘 강동호)
11. 8 ~ 11.13 : 국제전도폭발 Clinic 실시
12. 6 : 성탄축하 지역교회 연합음악회
12.10 : 멕시코 티화나 성탄선물
12.13 : 상락복지상조회 노인대학 발기모임
12.13 : 성탄축하 메시아연주회 (지휘 정운철목사)
12.27 : 431, 433 N. Western Ave의 건물을 26만5천달러에 매입

1993년

1. 11 : 경로대학 개교 (교육기간 1년)
1. 13 ~ 1. 20 : 임동선목사 남미5개교회 집회 인도
1. 17 : OMC-TV개국 Ch. 18 주일 오전 6:30-7:00
1. 29 ~ 1. 30 : 제직수련회
강사: 김삼환목사(서울명성교회)
1. 29 ~ 1. 30 : 제1차 영어사용교사훈련
강사: Justin Suh 목사
2. 7 : 한국학교 설날맞이 잔치
2. 14 : 영어예배 1부로 나누어
1부: 오전 10시 2부: 오후 12시 30분
2. 21 : 주광조장로 (주기철목사 막내아들) 간증집회
2. 26 ~ 3. 13 : 황재룡목사, 조영근장로
서울대형교회 교구조직 및 운영실태 연구
2. 27 : AWANA 올림픽에 출전, 스파키팀 1등 차지
3. 14 : 선교회 대항 찬양경연대회
4. 7 ~ 4. 21 : 임동선목사 러시아 선교집회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지역)
4. 11 : 부활절 칸타타 (지휘 김동호)
4. 22 ~ 4. 24 : 모세 선교회 주최 춘계 신앙강좌
강사: 민경배교수 (연세대)
4. 25 : 비디오 성서대학 개강
5. 1 : 이법웅목사를 모스크바 신학교 학무처장으로 임명
5. 2 : 성인 오케스트라 찬양예배 (설교 정운철목사)
5. 5 : 월드미션대학 I-20 Form 인가
5. 15 : 장한 어머니에 강순례권사

5. 23 : 월드미션대학 제2회 학위수여식
5. 23 ~ 6. 9 : 임동선목사 구라파교역자 세미나 및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참석
6. 2 ~ 6. 3 : 제7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석태운목사)
6. 18 ~ 6. 19 : 제1회 아버지 수양회
강사: 전길성목사
6. 20 : 애나하임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윤기성목사
6. 20 : 황은미전도사 사임
6. 20 : 임동선목사 신앙간증집(증보판)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출간
6. 27 : 뉴욕지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파송 (이경복목사)
러시아 빠르잔스크 지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파송 (윤치원목사)
6. 27 : 달라스 OMC 지교회 청원수락 (석보욱목사)
7. 1 ~ 7. 14 : 한국학교 모국방문
7. 3 : 전교인 친선 야외예배 (장소: 베테란스공원)
7. 4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송창현, 최진기, 배창직, 신동수)
7. 5 ~ 7. 15 : 임동선목사 몽고 선교여행
7. 9 ~ 7. 10 : 어린이교회학교 '93 교사훈련
강사: 유영익목사 (워싱턴제일침례교회)
7. 14 ~ 8. 11 : 대학부 파푸아 뉴기니아 여름단기선교
7. 16 : 431 N. Oxford Ave 건물 구입
7. 22 ~ 7. 24 : 창립 23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박태희목사 (서울성락성결교회)
7. 25 : 창립 23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박태희목사
안수집사 취임: 김영수, 이인검
안수집사 신임: 강일영, 정한석, 이종용, 유승주, 곽병재, 박 영, 전용석, 박태은, 오기헌, 안용대, 박창문
권사취임: 이덕희, 이금헌, 박덕조, 강금성, 송도순, 조명화, 한복순, 정말상, 문경숙, 이영애, 이덕순, 곽광례, 임은화, 채은희, 김축환, 김명려, 정순자, 남상인, 현정희, 윤종화, 함순화
7. 23 ~ 7. 24 : 러시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
7. 25 : 창립 23주년 기념 할리웃 경찰서 자녀장학금 지급
7. 30 : 한흑 합동예배, 흑인 학생에 장학금 지급
8. 1 : 송창현목사 부목사 임명
최진기목사 부목사 임명
8. 4 ~ 8. 8 : 대학부 멕시코지역 여름단기 선교
8. 8 ~ 8. 22 : 나사렛청년부 러시아 여름 단기선교
9. 1 : 교역자 보직변경
조갑수목사 모스크바동양선교교회 개척목사
안용식목사 대기목사
노창수목사 제1교육목사 (영어예배 겸임)
전길성목사 행정목사 (제2교육목사 겸임)
9. 2 : 미중부 수재지역 복구비 8433.50달러 전달
9. 4 ~ 9. 18 : 디모데선교회 남미지역 (파라과이, 아마존, 브라질, 아순숀) 여름단기선교
9. 17 ~ 9. 19 : 여선교회 연합수양회
강사: 노창수목사
10. 1 : 김명삼목사 부목사 임명
10. 14 ~ 10. 16 : 한국어 중고등부 청소년 부흥회 (빛과 소금 '93)
강사: 노창수목사
10. 29 ~ 10. 30 : 가나, 갈릴리선교회 수양회
강사: 전길성목사
11. 5 ~ 11. 10 : 제20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강사: 김만풍목사, 이원석목사, 전길성목사
11. 6 : 당회, 박광철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가결
11. 12 ~ 11. 13 : 대학부, 영어예배 합동부흥회
강사: David Gibbons (볼티모어 한인교회 영어목회 담당)
11. 14 : 가을철 성례전 (성찬식, 학습, 세례식)
11. 21 :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지휘 박준림)
12. 1 : 기도신학 특별강좌
강사: 웨슬레 듀엘목사 (OMC 선교회 총재)
12. 2 ~ 12. 4 : 나사렛 기독청년부흥회
강사: 김세윤목사 (총신대)
12. 5 : 로마한인교회 성가대초청 음악예배
12. 5 : 사랑의 빵 발대예배 (회장: 임동선목사)
12. 6 : 4705, 4709 Elmwood Ave, LA, CA 90004의 대지 14500스퀘어피트를 40만달러에 구입
12. 12 : 메시아 대연주회 (지휘 정운철목사, 장소: 본당)
12. 16 : 조갑수목사, 러시아 선교 책임자로 임명
12. 16 : 동양선교교회 25년사 발간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 조영근장로)
12. 19 : 핸드벨, 천사합창단 성탄축하 예배 (설교 임동선목사)
12. 19 ~ 12.23 : 청소년부 겨울 수양회
강사: 강찬기전도사
12. 26 : 박광철목사 제3대 담임목사 취임식 (설교 이기홍목사)
12. 27 ~ 12.31 : 얼바나 선교대회. 강사: 송창현목사
12. 29 : 4705~4709 Elm Ave 건물구입

1994년

1. 1 : 교회목표 「새로와 지는 해」
1. 6 : 이원희목사 협동목사 임명
1. 17 ~ 1. 29 : 밸리지진 피해 한인지원
1. 26 ~ 1. 28 : 제직수련회
강사: 김수웅장로 (서울온누리교회)
2. 13 : 대학부 학부모초청 합동예배 및 떡국잔치 (말씀 박광철목사)
2. 13 : 영어중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2. 14 ~ 3. 21 : 임동선목사 유럽 4개국 순회 집회 인도
2. 17 : 조갑수선교사 조화진선교사 모스크바 현지부임
2. 19 : 바울 선교회 특별강연회. 강사: 김득룡목사
2. 20 : 한국학교 한국의 날 행사
2. 25 ~ 2. 26 : 교구지도자 수련회
강사: 박광철목사
2. 26 : AWANA 올림픽에 출전
3. 11 : 제1교육 지도자 세미나. 강사: 박광철목사
3. 12 : 총동원 새벽기도회
3. 24 :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5주년 행사
강사: 김의환목사(나성한인교회)
3. 27 : 핸드벨연주단 음악예배 (지휘 이혜경)
4. 1 ~ 4. 2 : 청소년부흥회 「Come to Me'94」
강사: Miles McPherson

(청소년 전문목회자)
4. 3 : 부활절 칸타타 (지휘: 박준림)
4. 7 ~ 4. 19 : 임동선목사 러시아 선교집회 인도
4. 10 : 1993년 전도상 및 신구약성경쓰기 완료자 표창
4. 24 : 나사렛 청년회 총동원 전도주일예배
5. 1 : 레닌그라드 4중주단 초청 음악예배
5. 1 :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임성진목사)
5. 1 : 뉴필하모닉 현악4중주단 초청 특별음악예배
5. 7 : 한국학교 야외운동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5. 13 ~ 5. 21 : 교육부 신임교사 훈련
강사: 박광철목사
5. 15 : '94 교구찬양대회
5. 19 ~ 5. 21 : 모세선교회 주최 춘계 신앙강좌
강사: 이원설박사
(한국 기독교연맹 이사장)
5. 27 ~ 5. 28 : 교구지도자 수련회
강사: 최요한목사 (CRC교단 총무)
5. 29 : 월드미션대학교 제 3회 학위수여식 명예목회학
박사 김석규목사
6. 1 : 노창수목사 사임
6. 5 : '94 성경암송대회
6. 17 ~ 6. 18 : 제2회 아버지 수양회
강사: 전길성목사
6. 19 ~ 6. 22 : 한국어 중고등부 여름수양회
(장소: 남가주기독교수양관)
6. 19 ~ 6. 22 : 영어부 중고등부 여름수양회
(장소: David Lim)
6. 19 ~ 6. 23 : 대학부 여름수양회
강사: 황인철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6. 21 ~ 6. 22 : 제8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이기홍목사)
6. 25 : 6•25 상기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박광철목사)
6. 27 ~ 6. 29 :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7. 1 : 강일준목사 부목사(교육담당)로 임명
이청근목사 부목사(교구담당)로 임명
7. 3 ~ 7. 26 : 임동선목사 한국 농어촌 교회
부흥집회 인도
7. 4 : 전교우 체육대회
7. 6 : 김영희전도사 중국선교사로 임명
7. 23 ~ 8. 7 : 나사렛청년회 로마 독일 단기 선교
인솔 노창수목사
7. 24 : 교회 식당운영 (봉사부주관)
7. 29 ~ 7. 31 :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캠프
7. 30 : 「선교헤랄드」 발행 (「동양선교헤럴드」 명칭 변경)
7. 28 ~ 7. 30 : 기념부흥성회
강사: 장영춘목사(뉴욕퀸즈장로교회)
7. 31 :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장영춘목사
안수집사 신임: 한경수, 홍동성, 김종준, 김동원,
김강일, 임승표, 송성훈
권사취임: 정옥희, 박경선, 김성모, 김인곤,
황금수, 서순옥,이명순, 양은숙, 김숙자,
박영자
7. 31 : 명지초등학교 학생 본교회 방문
8. 7 : 1.5세 및 2세를 위한 여름 음악회
9. 1 : 허번목사 부목사(선교부)로 임명
이태종전도사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
9. 10 ~ 9. 15 : 디모데선교회 단기선교
아프리카,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이디오피아
9. 30 ~ 10. 1 : 한국어 청소년 부흥회 '94 빛과 소금
강사: 김삼열목사
9. 30 ~ 10. 1 : 어린이교회학교 교사 부흥회
강사: 양승현목사
10. 20 ~ 10.22 : 나사렛 '94. 강사: 이재학목사
10. 23 :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창립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10. 28 ~ 10.29 : 코리아타운 준경찰서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11. 4 : 4651, 4653, 4655, 4657 Oakwood 건물구입
11. 4 : 이천영목사 교회장 거행
11. 13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윤경호)
11. 17 ~ 11.19 : 대학생부흥회 「Come & See」
(말씀 박광철목사)
11. 20 :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장엄미사 (지휘 강동호)
12. 1 : 송상현전도사 부임 (대학부담당)
12. 11 : 성탄축하 음악예배 (천사합창단, 핸드벨 찬양단)

1995년

1. 1 : 교회목표 「성장하는 교회」
1. 1 : 동양선교교회 개정헌법 발효
1. 1 : 이요나단목사 영어예배부 전담목사로 임명
1. 1 : 통일대비 북한 20교회 설립운동
1. 10 : 제1기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
1. 15 : 구역장상, 봉사상, 전도상시상
1. 27 ~ 1. 28 : 제직 및 교구지도자 수련회
2. 1 : 박형준전도사 부임
3. 5 : 사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3. 11 : 총동원 새벽기도회 (말씀 박광철목사)
3. 18 : 한국학교 특별강좌
강사: 장태한교수 (UC 리버사이드)
3. 28 : 월드미션대학 학술 세미나
강사: 이영지박사 (훌러신학교 교수)
4. 5 : 417 N. Oxford Ave 건물구입
4. 11 ~ 4. 15 : 제2기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
4. 17 : 임동선목사 본국 장병 4천명 합동 세례식
미주인솔단장으로 출발
4. 19 ~ 4. 28 : 파라과이 기독연합 선교원 및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선교방문
4. 23 : 중고등부 학부모회세미나. 강사: 김철호전도사
4. 23 : AWANA 교회대항 성경퀴즈대회에서
SPARISS 출전 1등
5. 6 : 대학부 제4회 선교의 밤
5. 6 : 한국학교 야외수업 및 운동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5. 7 : 교회 서점 (Book Corner)오픈
5. 21 : 교구찬양 경연대회
6. 4 : 월드미션대 제4회 학위수여식
6. 11 :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담임 윤경호목사) 창립
기념 및 취임예배
6. 16 : 아버지 수양회 (장소: 에로헤드 스프링스)
6. 23 : 청소년부, 대학부 음악회
6. 25 : 제9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박광철목사)
6. 26 ~ 6. 27 :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선교대회
강사: Dr. Peter Beyerhans
(독일 튀빙겐신학대학원 교수)
7. 2 ~ 7. 10 : 임동선목사 독일 베를린 집회인도
7. 3 ~ 7. 15 : 한국학교 고국방문
7. 4 : 창립 25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7. 7 ~ 7. 8 : 청소년부흥회「Come to Me'95」
강사: Miles McPherson
7. 17 ~ 7. 27 : 부흥사경회 준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박광철목사)
7. 27 ~ 7. 29 : 창립 25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강사: 정근두목사 (서울탄포리교회)
7. 30 :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정근두목사
안수집사 취임: 박명관, 전홍배
안수집사 신임: 이충식, 김국한, 함재목, 윤여춘, 김형남, 채희길, 배영하, 한영길, 김두환, 전완수, 박준영, 조일성
권사취임: 배귀례, 양승렬, 문은자, 김옥용, 민금주, 문동숙, 문숙희, 김기옥
7. 30 : 「복음의 샘」 발행 (「선교헤럴드」 명칭 변경)
8. 1 : 김성학목사 부임 (대학부)
8. 6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최선호, 이정남, 이재현, 강찬기)
8. 22 ~ 8. 23 : 영어 한국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 Mike Devito
8. 24 : 제1회 당회장배 교역자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9. 1 : 전길성목사 사임
9. 8 ~ 9. 10 : 영어사역 수양회
강사: Dr. Michael Anthony
9. 17 : 전교인 성경암송축제
9. 24 : 이태종전도사 목사안수식
10.13 ~ 10.14 : 한국어 청소년 부흥회
강사: 서정인목사
10.26 ~ 10.29 : 나사렛 디모데선교회 주최 말씀의 잔치
강사: 김성일장로 (이태원감리교회)
11. 5 : 여선교회 연합헌신예배
강사: 양춘길목사 (오렌지한인교회)
11. 9 ~ 11.11 : 제18회 대학생부흥회
「Come & See」
강사: Rev. Gary Parett
11.17 ~ 11.18 : 교사대학
11.24 ~ 11.26 : 영어사역부「Life Mapping」수양회
강사: J. Sam Simmons
12. 1 : 김경환목사 부임
정진우목사 부임(청년부담당)
12. 6 : 강일준목사 행정목사로 임명
12.10 ~ 12.15 : 임동선목사 남미지역교회 부흥회 인도
12.17 : 정기공동회의 담임목사 신임투표

1996년

1. 1 : 목회방향「훈련의 해」
1. 5 ~ 1. 19 : 임동선목사 한국집회 인도
1. 12 : 임병택목사 아리조나 OMC 부임
2. 10 : 주님과 만나는 40일 새벽 기도회 (인도 박광철목사)
2. 23 2. 25 : 제직 및 구역장 수련회
강사: 하용조목사 (서울 온누리교회)
3. 1 : 강일준목사를 행정 및 선교목사로 임명
이요나단목사를 영어사역 교육목사로 임명
3. 2 : 남선교회, 교역자 체육대회
3. 6 : 이청근목사 샌디에고 지교회 담임목사 임명
3. 6 청년부 주최 수요 결혼 예비교실
강사: 박상은사모
3. 8 : 구역장과 담임목사의 만남
3. 28 : 월드미션대학 개교 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강사: Ralph Winter 박사
3. 31 : 415 N. Oxford Ave 건물 구입
4. 1 ~ 4. 3 : 어린이 초청 부활의 잔치
4. 5 : 부활절 칸타타
4. 7 : OMC 라디오 방송 AM 1190,
수요일 오전 11:30~12:00
4. 11 ~ 4. 14 : 모세바울선교회주최 춘계신앙강좌
강사: 박은조목사 (서울영동교회)
4. 16 ~ 5. 9 : 박광철목사, 교역자 성지 세미나 및 서울신길성결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참석
5. 12 : 나사렛청년부 주최 경로잔치
5. 18 : 영어예배 부흥회
5. 19 : 교구 성가경연대회
5. 26 : 월드컵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설교 조천일목사)
6. 2 : 월드미션대학 제5회 학위수여식
6. 5 : 동부동양선교교회를 지교회로 승인
(담임 김건태목사)
6. 7 ~ 6. 8 : 성전건축과 선교비를 위한 바자회
6. 9 : 청년초청 큰 잔치 (말씀 박광철목사)
6. 22 : 티화나 예수초청 선교대회. 강사: 임동선목사
6. 23 :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LA지역 준비 선교대회 (설교 이재환선교사)
6. 25 ~ 6. 27 : 제10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이중용목사)
6. 26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박형준, 이승인, 장성일)
6. 28 ~ 6. 30 : 여선교회 연합수련회 및 헌신예배.
강사: 이필재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7. 1 : 박형준목사를 부목사 임명
7. 3 ~ 7. 9 : 박광철목사,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창립기념 부흥성회 인도
7. 8 ~ 7. 22 : 청소년부 도미니칸 공화국 선교여행
7. 10 : 초등, 소년부 섬머캠프
(장소: Sa Ha Le Lodge)
7. 19 ~ 7. 20 : 가정생활 특별세미나
강사: 황은철목사, 도은미사모
7. 19 ~ 7. 21 : 영어사역 여름 수양회
강사: David Gibbons
7. 22 ~ 7. 25 : 임동선목사 박광철목사
제3차 시카고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7. 25 ~ 7. 27 : 창립 26주년 기념 부흥 성회
강사: 홍정길목사(남서울은혜교회)
7. 28 :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홍정길목사
원로장로 추대: 성기윤, 조영근, 김광락
안수집사 신임: 김래현, 박정언, 신부남, 오재선, 최헌진, 한춘석
권사취임: 김영선, 김정주, 문태정, 송정님, 유영애, 임정자, 정효숙, 조순자, 한금자, 홍명주
7. 28 ~ 8. 2 : 청년부 단기 멕시코 단기 선교
8. 9 ~ 8. 16 : 임동선목사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여행
8. 11 : 장성일목사 하와이 선교사 훈련원에 파송
8. 17 ~ 8. 31 : 나사렛 러시아 단기 선교 여행
8. 20 ~ 8. 26 : 한국어 고등부 멕시코 엔시나다 여름 선교
8. 23 ~ 8. 24 : 한국어 중등부 멕시코 엔시나다

여름 선교
9. 3 : 영어회화반 개강. 강사: Sharon Bencutt
9. 8 : 창립 26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할리웃 경찰 자녀)
9. 22 : 영어 사역 야외 예배
10. 5 : 2세들의 한국어 교육 세미나
10.13 : 동부동양선교교회 창립예배 (담임 김건태목사)
10.11 ~ 10.13 : 한국어청소년 부흥회 "빛과 소금" '96
10.13 : 이승인목사 시애틀지교회 담임목사로 임명
10.17 ~ 10.20 : 디모데선교회 주최 말씀의 잔치
강사: 최일도목사 (다일교회)
11. 1 : 뉴욕지교회 폐쇄
11. 1 : 한진목사를 부목사로 임명 (교육부)
11. 9 : 청소년 부흥회「Come to Me」
11.15 : 대학부 부흥회「Come & See」
강사: 신태현목사
12. 1 : 정우송목사 부목사로 임명
12. 9 : 신학교 장학금 후원 전교인 모금만찬
(말씀 임동선목사)
12.15 : 정기공동회의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 신임투표
12.22 : 교육부 우수교사 수상자 발표

1997년

1. 1 : 목회방향「화목과 성숙」
1 15 : 5인장로, 장로복귀 등 소송
1. 6 ~ 1. 18 : 신년축복 새벽기도회
(인도 박광철목사)
1. 15 : OMC TV 방송 CH 18
매주일 오전 7:00 ~7:30
1. 19 : 김명삼목사 사임, 강선자전도사 사임
1. 23 ~ 1. 25 : 제직 및 교구지도자 수련회
강사: 오정현목사(남가주사랑의 교회)
2. 1 : 423, 427 N. Oxford Ave 건물구입
2. 12 ~ 3. 29 : 사순절 연쇄 금식기도
2. 16 : 한국학교 민속의 날 행사
2. 16 : 영어사역 수양회. 강사: Rev. Ryun Chang
2. 23 : 북한선교 간증예배
(설교 박세록장로 (평양제3병원 개원))
3. 13 ~ 3. 16 : 임동선목사 대구 서문교회 집회인도
3. 21 : 청년부 열린예배기념 소리엘 초청 Concert
3. 30 : 부활절 음악예배 살아계신주 (지휘 홍순태)
3. 31 ~ 4. 4 : 청소년부 봄방학 선교훈련
(장소: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보호구역)
4. 11 : 총동원 새벽기도회 (설교 박광철목사)
4. 20 : 한국학교 교내 이야기 대회
4. 24 ~ 4. 26 : 모세 바울선교회 춘계신앙강좌
강사: 이문식목사
(남북나눔운동본부 기획실장)
4. 27 :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헌금
4. 27 : 교구 찬양 경연 대회
5. 8 ~ 5. 10 : 성경적 믿음생활 세미나
강사: 장영출목사 (전도협회 회장)
5. 11 : 김경환목사 사임
5. 11 : 「복음의 샘」봄호 발간
5 25 ~ 5. 26 : Single 부모 수련회
강사: 변명혜전도사
5. 21 ~ 5. 30 : 임동선목사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 참석
6. 1 : 소망부 야외예배 (장소: Castle Lake)
6. 1 : 월드미션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예배
명예인문학박사 김도규
6. 15 : 이유식부목사 부임 (행정)
박종각부목사 부임 (심방)
6. 22 : 제11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총회장: 강두호목사)
6. 22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김덕규, 김진국, 노명섭, 황선익, 조영근)
6. 25 ~ 6. 29 : DC, LA 97 청소년 선교대회
(장소: LA Convention Center)
6. 25 ~ 7. 13 : 임동선목사 남미지교회 순방집회
6. 30 ~ 7. 12 : 한국학교 천사합창단 모국방문
7. 13 : 영어사역부 이요나단목사 사임
7. 24 ~ 7. 26 : 창립 27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이지춘목사 (산호세제일침례교회)
7. 27 : 창립 2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이지춘목사
안수집사: 이세훈, 신동순
협동안수집사: 구경훈
권사: 임옥분, 이광숙, 김문자, 조민자, 정경혜,
김정희, 김영애, 임경희
협동권사: 임순희
8. 1 : 동양선교교회 장학 규정 발효
8. 3 : 김성학목사 영어사역부목사로 임명
8. 6 ~ 8. 19 : 대학부 브라질 단기 선교
8. 17 : 북한실정 및 선교보고 예배. 강사: 유용석장로
8. 21 : 제3회 당회장배 교역자 자녀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8. 24 : 동양선교교회 도서관 인터넷 개방
9. 7 : 중고등부 멕시코 선교훈련보고
(설교 김철호전도사)
9. 21 : 교회 소송보고 임시공동회의
9. 21 : 핸드벨콰이어 워크숍. 강사: Rudy Rodriguez
9. 27 : WMU 장학금 모금 및 여호수아 선교회원
친목 야유회
10. 1 : 이태규목사 영어예배부 목사로 임명
10.15 : 김학진목사 부임 (청년부)
정진우목사 사임 (청년부)
10.23 ~ 10.26 : 추계 신앙강좌 말씀의 잔치
강사: 방선기목사
(주식회사 이랜드 사목)
10.24 ~ 10. 2 : 임동선목사 한국에서 집회인도
11. 3 : 월드미션대 가을학기 학술세미나
강사: 조종남박사 (전 서울신학대 학장)
11.21 :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구노 장엄미사 (지휘 최명용)
12. 5 : 청소년 오케스트라 성탄축하 음악예배
(지휘 김승주집사)
12. 8 : 홍남표 부목사 부임 (교구담당)
12. 8 ~ 12.28 : 전도 폭발 새벽 집회 인도
박광철목사
12.14 : 천사합창단, 핸드벨콰이어 성탄축하
찬양예배 (설교 한진목사)
12.19 : 성탄축하 찬아예배 헨델의 메시야 (지휘 강동호)

1998년

1. 1 : 선교방향「나가거나 보내자」
1. 5 ~ 1. 17 :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설교 박광철목사)
1. 11 : 조영덕전도사 대학부 담당임명
1. 19 ~ 2. 27 : 40일 연쇄 금식기도

1. 22 ~ 1. 24 : 제직수련회
강사: 이필재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2. 1 :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2. 8 : 황선익목사 모스크바주재 선교사 임명
2. 15 : 교구지도자 수련회. 강사: 박광철목사
2. 27 : 3.1절기념 및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구국 기도회
강사: 최성규목사 (순복음인천교회)
2. 28 : 갈릴리선교회 주최 결혼한 젊은 가정을 위한 세미나
강사: 박상은사모
3. 1 : 한국학교 교사와 학부모 매너교육
강사: Sunny Park
3. 1 ~ 3. 20 : 임동선목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유럽 지교회 순방
3. 3 ~ 3. 4 : 제1회 예수꾼 만들기 세미나
강사: 최남수목사(예수꾼 만들기 저자)
3. 8 : 젊음 대축제「Come to Me」
3. 8 : 70주간 예수꾼 만들기 수료
3. 8 : 이성은장로 소천 교회장 거행
3. 26 : 월드미션대 개교 9주년 학술세미나
강사: 김세윤박사 (훌러신학교 교수)
4. 6 ~ 4. 11 :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박광철목사)
4. 16 : 부모교육학교 개강
강사: 이상은 (기독교가정상담훈련원장)
4. 18 : 마리아여선교회 주최 교회주변 주민 점심식사 초대
4. 23 ~ 4. 25 : 모세바울선교회 주최 춘계 신앙강좌
강사: 김형태목사 (서울연동교회)
5. 13 : 조갑수목사 소천 교회장 거행
5. 15 ~ 5. 28 : 임동선목사 쌍파울로 원주민 지역 집회인도 및 총회 참석
5. 17 : 교구찬양축제
5. 18 ~ 5. 26 : 박광철목사 브라질 세계복음선교 연합회 총회 참석
5. 30 : 갈릴리 젊은 부부 선교회 모임
강사: 김용창목사 (월드미션대 교수)
5. 31 : 한국어 중고등부 합동 순결 서약식
6. 13 : 루디아선교회 한인선교사 및 멕시코 노숙자를 위한 바자회
6. 26 ~ 6. 27 : 제 2차 부부 사랑의 캠프
강사: 박광철목사
7. 5 : 세계의료센터 황성주박사 간증집회
7. 11 : 전교인 체육대회 (장소: 그리피스공원)
7. 12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김재선, 이주형, 임기태, 주영세)
7. 12 : 한국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별 세미나
강사: 김용창목사
7. 16 : 범죄 추방 캠페인 집회
7. 20 ~ 7. 23 : 창립기념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박광철목사)
7. 23 ~ 7. 25 : 창립 28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김인중목사 (안산동산교회)
7. 26 :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김인중목사
안수집사: 이용훈, 이효성
협동안수집사: 윤응섭, 마사웅
권사: 김말례, 김춘혜, 이영덕, 이인숙, 이경자
협동권사: 김순복
7. 26 : 북한선교 소위원회 구성
8. 6 ~ 8. 9 : 디모데 제2차 멕시코 단기선교
8. 7 : 박광철담임목사 사임
임시당회장에 임동선원로목사
8. 8 ~ 8. 14 : 청소년부 멕시코 고아원 여름 봉사
8. 20 : 당회장배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8. 23 : 안수집사회 조직 (회장: 한긍리집사)
8. 30 : 모국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금 (5만달러)
9. 10 ~ 9. 13 : 에스더선교회 내적치유축제
강사: 김정현선교사
9. 11 : LA 기독상조회에서 등불노인대학 개강
9. 12 : 건강박람회
10. 2 ~ 10. 3 : 성전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선교회 연합바자회
10. 7 ~ 10.16 : 임동선목사 논산훈련소 세례식 집례 및 개포교회 집회인도
10.18 : '98 장학금 수여대상자 14명 선정
10.22 ~ 10.24 : 디모데선교회 추계신앙강좌
강사: 강영우박사
주제「역경을 축복으로」
11.16 ~ 11.19 : 영적전쟁 세미나
강사: 홍성건목사
(한국예수전도단 대표)
11.20 ~ 11.21 : 청소년부 추수감사절 멕시코 선교봉사
11.22 : 부부초청 교구지도자 격려의 밤 (말씀 임동선목사)
11.22 : 한국학교 학부모회 세미나
강사: 유의영박사 (칼스테이트 LA)
11.29 : 중미지역 홍수피해지원 특별헌금 (1만5천달러)
11.30 : 박형준목사 (선교) 사임
한진목사 (교육) 사임
유순자전도사 사임
이양섭전도사 사임
12. 1 : 박종각목사 (행정) 임명
이유식목사 (심방, 선교) 임명
김학진목사 (교육, 청년) 임명
엄재헌전도사 (행정관리) 임명
12. 5 : 안수집사회 신앙강좌
강사: 백운주목사 (월드미션대 교수)
12. 6 : 이태종목사 알라스카지교회 담임목사로 임명
12. 6 : 제4회 성탄음악제
12. 9 : 부부 초청 교구지도자 격려의 밤 (말씀 임동선목사)
12.16 : 이청근목사 샌디에고 지교회 사임.
임병택목사 취임
12.18 : 성탄절 칸타타 (지휘 홍순태)
12.20 : 교구지도자 및 우수구역장 시상
12.27 :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당회
12.28 : 모국 수재의연금 5만달러 보냄
12.31 :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 격려의 밤

1999년

1. 1 : 사역목표「배가운동」
1. 10 : 에스콘디도 지교회 설립
1. 10 : 황득룡, 이환호목사를 협동선교사로 임명
1. 11 : 헌법개정 9인위원회 구성
1. 13 : 영어예배부 멕시코 티화나 1일 선교여행
1. 15 ~ 1. 16 : 제직수련회
강사: 안정삼장로 (쌍파울로 OMC)
1. 18 :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모임
1. 24 :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어린이 선교 공연단 방문
1. 29 :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섬주민을 위한 99 자선음악회 (장소: 수정교회)

1. 31 : 성가대 연합 특별 세미나. 강사: 김희영박사
2. 5 : 신년교사 훈련 교육 세미나. 강사: 서정인목사
2. 7 : 임은희전도사 주일학교 유년부전도사
이인검전도사 선교전도사로 임명
2. 11 ~ 2. 13 : '99 신년부흥성회
강사: 이정익목사 (신촌성결교회)
2. 14 : 제8회 한국학교 한국의 날 설날맞이 잔치
2. 23 ~ 4. 3 : 사순절 40일 연쇄 금식기도
2. 28 : 한국학교 교사 세미나. 강사: 장태숙
3. 1 : 숀리목사 영어예배부목사로 임명
3. 14 : 남미파라과이 선교보고 (설교 조영근목사)
3. 19 ~ 3. 20 : 디모데 선교회 주관 멕시코 감옥
단기선교 (인솔 임동선목사)
3. 25 ~ 3. 28 :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만찬, 축하예배
3. 26 : 중보기도 세미나 및 훈련. 강사: 정우송목사
3. 29 ~ 3. 31 : 어린이 교회 학교 부활의 잔치
3. 30 : 무료 영어 공부 시작
강사: Sharon Bedcutt
4. 2 : 교역자 및 당회원 특별 산상기도 (랜초이바라)
4. 4 ~ 4. 9 : 청소년부 학생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 선교
4. 18 : 「새롭게 하소서」 간증집회
5. 4 ~ 5. 7 : 세계선교대회 추죄
「2천년대를 향한 세계 한인교회 전략」
강사: Dr. Robert Logan,
Rick Warren 목사
5. 4 ~ 5. 7 : 제13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5. 9 : 장한 어머니 표창 홍재은, 이태영권사
5. 10 : 본당 개조공사 시작
5. 15 ~ 5. 27 : 임동선목사 논산군인세례식 등
한국 선교집회
5. 16 : 교구찬양축제
5. 21 : 터키 이의홍선교사 파송
5. 31 : 이유식목사 사임
6. 13 : 제1회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수료예배
7. 1 : 정운철목사 (교구 심방) 부임
7. 11 : 헌법 개정 임시공동총회
7. 22 ~ 7. 24 : 창립 29주년 기념부흥사경회
강사: 지용수목사 (창원양곡교회)
7. 25 :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강사: 지용수목사
원로장로: 노재희
장로취임: 신병모
장로장립: 한긍리, 김세웅, 이 조, 한승수,
강모세
안수집사: 금재연, 송석주
권사취임: 성명희, 이재희, 한안나, 김민희,
임정숙, 김명희, 조지현
7. 31 : 교육부훈련교육 세미나
강사. Ron Chu (교사훈련교육 전문 사역자)
8. 2 ~ 8. 14 : 청년부 중국단기 선교여행
(인도 김학진목사)
8. 5 ~ 8. 25 : 영어목회 아프리카 가나 단기 선교
8. 8 : 북한난민보호 UN 청원 서명운동
8. 8 ~ 8. 14 : 중고등부 멕시코 단기선교
8. 10 : 동양선교교회 장례규정 발효
8. 12 : 이정배장로 소천
8. 15 : 한국 수재민돕기 헌금 (1만 6천달러)
8. 30 ~ 8. 31 : 월드미션대학교 개강부흥회
강사: 박희민목사 (나성영락교회)
9. 4 ~ 9. 6 : 영어목회 수양회
강사: Rev. Michael Patterson
9. 12 : 모국수재헌금 2만1천달러 전달
9. 12 : 터키 지진 피해자 특별헌금
9. 25 : 건강박람회 (의사선교회, 굳사마리탄 병원 등)
9. 25 : 청소년 오케스트라 3회 연주회 (지휘 김승주)
9. 30 : 김철호전도사 사임
10. 6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최 김혜자권사 간증집회
10. 18 : 월드미션대 학술 세미나
강사: 정장복교수 (장로회신학대 대학원장)
10. 21 ~ 10.24 : 성전개축 기념을 위한 말씀의 잔치
강사: 최영기목사
(휴스턴서울침례교회)
11. 7 : 가을 유아세례 및 학습 세례
11. 21 :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찬양 칸타타)
11. 26 : 안수집사회 주최 신앙강좌 (설교 이준재박사)
11. 27 ~ 11.28 : 성가대연합 헌신예배
강사: 홍춘만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12. 8 : 부부초청 교구지도자 격려의 밤
12. 12 : 동성연애 특권법 폐지 서명운동
12. 12 : 아프리카 선교보고 예배 (설교 이석규 선교사)
12. 12 : 교구지도자 우수구역자 및 특별상
12. 12 : 특별 40일 연쇄 금식기도 새 천년, 새 헌신,
새 부흥을 위한 창립 30주년 금식기도
12. 19 ~ 12.22 : 영어중고등부 겨울 수양회
(장소: 빅베어)
12. 25 : 성탄 축하 음악예배 (크리스마스 칸타타)
12. 26 : 골프선교회 상락회 장학금 지급

2000년

1. 1 : 사역목표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1. 1 : 동양선교교회 사역장로 직무 규정 시행
1. 1 : 수석부목사에 박종각목사 임명
1. 1 : 주인석목사 부임 (교육부)
1. 3 ~ 1. 15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1차 새벽기도회
주제: 부흥 2000 타오르게 하소서
주영광 위해
1. 5 : 공동회의, 5인장로 복권
1 16 : 이정근목사 담임목사 동의안 부결
1. 16 : 터키선교보고 예배 (설교 이인검전도사)
1. 16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실행위원장에
김성곤장로 임명
총무 강모세장로 회계 한긍리장로
1. 21 ~ 1. 22 : 제직 수련회
강사: 김남수목사
(뉴욕순복음교회 담임)
1. 22 : 김여근장로 교회장 거행
1. 23 : 영어예배부 독자재정체제
1 30 : 캘리포니아 결혼보호법안 유권자 등록
1. 30 : 헌법개정위원회 모임
2. 1 : 김용식목사 콜롬비아 보고타 OMC 담임목사 파송
2. 6 : 교회 자료실 담당에 이인검전도사 임명
2. 6 : 한국학교 제9회 한국의 날 설날 잔치
2. 13 : 김성학목사 (영어목회) 사임
위문석목사 (한국어 중고등부) 사임
2 26 : 안수집사회 신앙강좌. 강사: 이완재박사

3. 1 : 케빈 조목사를 영어예배부 목사 임명
3. 3 : 모스크바 선교 신학대학 레잔분교에 건축비 1만5천달러 지원
3. 5 : 월드미션대학교 헌신예배
강사: 김충남목사 (순복음산호세교회)
3. 7 ~ 5. 9 : 월드미션 평신도 훈련원 개설
3. 8 ~ 4. 22 : 사순절 연쇄 금식기도
3. 12 : 남가주한국학교 살리기운동에 5만달러 지원 결정
3. 12 : 새 가족 환영 만찬
3. 12 : 새 천년 기념 열린 찬양예배
3. 14 : 북한의약품 (50만달러 상당) 선적
3. 19 :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신생자 전도운동
3-4월 신생자를 기도로 품는 달
4-5월 신생자 작정의 달
6-7월 신생자 접촉의 달
7월 23일 신생자 초청의 날
3. 23 ~ 3. 26 :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위한 춘계 심령대부흥회
강사: 고석희목사 (뉴욕지구촌선교교회)
3. 26 : 오레곤 OMC에 반만열목사 담임목사 취임
3. 27 : 월드미션대학 학술세미나
강사: 문상익박사 (콩코디아교회 부총장)
3. 31 : 조영덕전도사 (대학부) 사임
3. 31 ~ 4. 1 : 대학부 멕시코 단기선교
4. 1 : 청소년 담당 교역자 김은철목사,
도서관 사서 고임중
사무실직원 주문경
4. 1 : Harrison Yazzie 목사를 미국 나바호 원주민 선교사로 임명
4. 10 ~ 4. 22 : 신생자 작정준비 새벽기도
4. 16 : 창립 30주년을 맞아 남아공화국 프레토리아 한인교회 (담임 이상훈목사)를 지교회로 허락
4. 17 ~ 4. 19 : 어린이 부활잔치
5. 1 : Internet-Based Multi Media Ministry
5. 5 : 청소년 오케스트라 4회 정기연주회 및 남가주한국학교 후원음악회
5. 4 : 임동선목사 남아프리카 유럽 선교집회 출발
5. 15 ~ 5. 27 : 선교부, 창립 30주년 기념 성지훈련
5. 15 ~ 5. 27 : 제14차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터키, 이스라엘)
5. 21 :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 (8명)
터키 이의홍선교사를 본교회 선교사로 파송
5. 23 : 레잔 신학교 졸업식 (12명)
5. 26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심야기도회
5. 30 : 김순권박사 북한 옥수수 심기운동 선교지원
6. 1 : 밸리 동양선교교회 김희헌 담임목사 취임
6. 1 : 이명수목사를 멕시코시 선교사로 임명
6. 4 : 월드미션대학교 제9회 학위 수여식
6. 11 : 전도폭발 27기 수료 및 28기생 모집
6. 14 : 백영두 백미섭 선교사 파푸아 뉴기니아로 출발
6. 25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목사 안수식 (엄재헌, 백우철)
7. 9 : 엄재헌목사 (사무장 및 심방) 임명
7. 15 : 외부인사초청 기념만찬회 및 장학금 수여식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7. 15 : 영어목회 Family Chapel Jazz Night
7. 16 :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호 「복음의 샘」 발행
7. 21 :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천지창조」공연 (지휘 김승주집사)
7. 23 : 임시공동총회에서 제4대 담임목사에 송정명목사 만장일치 결정
7. 23 : 창립 30주년 기념 신생자 총동원 전도주일
강사: 임동선목사, 하덕규집사, 정영숙집사, 장욱조목사
7. 27 ~ 7. 29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강사: 송정명목사 (미주평안교회)
7. 28 : 북한의료 선교 3차분 (25만달러 상당) 전달
7. 30 :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임동선목사 설교 "잊을 수 없는 세 말씀"
7. 30 :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원로장로: 한건수, 김상정
장로장립: 정봉모, 김채광, 이병주, 전용석
안수집사 취임: 구경훈, 마사웅
안수집사: 김삼중, 남상헌, 노인호, 안광석, 안의식, 오용기, 윤태중, 이병인, 이상용, 최수남, 홍성식, 전광일
권사취임: 김찬조, 신애자, 엄귀자, 윤경흥, 이청자, 전순자, 정혜숙, 한영숙, 홍순옥, 윤창섭
7. 30 : 창립 30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 일반 및 교역자 장학금 23명에 지급
7. 30 : 창립 3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8. 1 : 박종각행정목사 사임, 새 행정목사에 황재룡목사 임명
8. 2 ~ 8. 14 : 청년부 중국단기선교
8. 3 : 제6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장학금 4천달러 전달
8. 5 ~ 8. 27 : 영어예배부 아프리카 가나 단기 선교
8. 7 ~ 8. 17 : 대학부 멕시코 오하까지역 여름 단기 선교
8. 11 ~ 8. 26 : 청년부 러시아 모스크바 레잔지역 단기 선교 실시
8. 14 ~ 8. 18 : 청소년부 멕시코 로자리또 지역 여름 단기 선교
8. 20 : 열린 예배 준비위원회 발족 (황재룡, 정우송, 한승수)
8. 25 ~ 8. 27 : 찬양 세미나. 강사: 박서윤목사
9. 3 : 영어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기 시작
9. 3 : 월드미션대학교 기도후원회 (회장 오광찬장로)
9. 3 : 주일예배시간 변경
1부예배: 오전 8시
2부예배: 오전 9시 45분
3부예배: 낮 12시
4부예배: 오후 2시(영어예배)
저녁예배: 오후 4시
9. 10 : 성인교육부 수료식
9. 17 : 로마한인교회 (담임 한평우목사) 성가단 미주 순회 공연
9. 21 : 북한의약품 (50만달러 상당) 선적
9. 24 : 지하철 버스파업 교통봉사
9. 24 : Jubilee Night 어린이 금요예배 시간
9. 29 ~ 10.17 : 로마한인교회 (담임 한평우목사) 성가단 성전건축위해 미주순회
9. 30 : 김학진목사 (청년부, 교구담당) 사임
조주영목사 (영어중등부담당) 사임
10. 1 : 임성진목사 월드미션대학교 교무처장 취임
10. 1 :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사무총장 북한선교보고
10. 1 : 김용식목사 (청년부, 교구담당부목사) 부임
10. 5 : 터키 지진 성금 1만달러를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 전달

10.13 ~ 10.15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최 전도간증 집회. 강사: 김기동집사
10.15 : 30주년 교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장로)
10.15 : 비디오 조사위원회
10.15 : 로마한인교회 성전건축헌금
10.16 : 월드미션대학교 학술세미나. 강사: 최상준박사
10.18 : 임동선목사 논산훈련소 5천명 세례식 집례
10.22 : 미주이산가족 상봉 서명운동
10.27 ~ 10.29 : 디모데 여호수아 선교회 주최
2000 말씀의 잔치
강사: 홍춘만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 장로교회)
10.31 : 뉴욕 중앙 OMC 손주영목사 지교회 종결
11. 5 : 영어목회 9주년 기념행사 홈커밍의 날 개최
11. 5 : 2000년 감사실시 (위원장 임스티브장로)
11. 5 : 영어목회 9주년 기념행사 가족 부모 자녀초청 Home Coming
11.11 : 한국어 중고등부 「빛과 소금」전도대회
11.14 : 건강박람회 굳사마리탄 병원과 공동주관
11.19 : 유타 OMC 담임목사로 손주영목사 부임
12. 7 : 찬양과 경배 세미나
강사: 최 혁목사 (뉴저지포도나무교회)
12.10 : 공동 회의에서 2001년 신임 임직자 결정
피택장로: 오재선, 원석복, 정영석, 최종원
신임권사: 윤경자, 이금자, 이복실, 이숙자, 이정순, 이정순, 조명희, 주화순, 최기미자, 최삼중자, 최운동, 함규자
피택안수집사: 강광희, 김석명, 김성권, 김용환, 라철삼, 박태호, 박 환, 양승달, 이길홍, 이도원, 이종수, 이진희, 차귀동, 최영진, (취임) 유대선
12.13 : 부부초청 교구지도자 격려의 밤 (말씀 임동선목사)
12.17 : 교구지도자 우수 교구총무 구역자 시상
12.17 : 캐나다 밴쿠버 포트 무디 동양선교교회를 지교회 설립, 남윤희목사 파송
12.18 ~ 12.31 :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12.24 : 성탄절 헌금 8만달러를 불우 이웃돕기 위해 사용
12.28 : 남가주 한국학원에 특별헌금 5만달러 전달
12.31 : 송정명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취소

2001년

10.14 : 공동회의, 강준민목사(로고스교회 담임)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 통과
12. 1 : 4대 강준민담임목사 부임
12. 2 : 4대 강준민담임목사 취임예배
12. 3 ~ 12.23 :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기도의 부흥을 통해 축복받게 하소서」

역대 당회장

	성 명	재임 기간	현재 근황	비 고
제1대 당회장	임동선	1970.07.26-1989.12.11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창립자
임시 당회장	임동선	1989.01.01-1990.01.21		
제2대 당회장	이병희	1990.01.21-1991.04.23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목사	사임
임시 당회장	조웅래	1991.04.23-1991.06.01		당회서기
임시 당회장	김건태	1991.06.01-1991.12.20		수석부목사
당회 의사진행회무 위임	임동선	1991.12.20-1993.12.25		
제3대 당회장	박광철	1993.12.26-1998.08.07	조이펠로쉽교회 담임목사	사임
임시 당회장	임동선	1998.08.07-2001.11.30		
제4대 당회장	강준민	2001.12.01-현재		

역대 목사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임동선	창립목사	70.07.26 98.08.07	90.01.21 01.11.30	OMC 원로목사	창립자
황재열		71			은퇴
정하경		71			
김성선		71			
이종만		71		부름교회	
피원균		72.06.11		오클라호마 한인제일장로교회	청년회
오봉운	협동목사	74.01.06	81.01.04		별세
이천영	협동목사	74.01.06	94.11.05	77년 2월 원로목사 추대	별세
김창호	협동목사	74.01.06		로고스한인감리교회	
김상규	부목사	74.01.06	75.08	안디옥장로교회	
박장균	협동목사	75.08.17	77.10.23	중앙교회	
박용장	협동목사	77.05.01	79.12.30	81년 필그림교회 개척	96년 별세
허경삼	부목사	78.01.01	79.01.28	오렌지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	
송정명	부목사	79.03.02	89.11.30	평안교회 담임	선교, 행정, 수석
이기홍	부목사	79.03.19	84.12.31	사우스베이 원로목사	85.3 사우스베이 창립
이요한	부목사	79.10.10	80.10.12	시카고 한인교회	교육목사
이중용	부목사	80.02.28	89.11.30	아리조나 OMC 담임목사	교육목사
석태운	부목사	80.06.22	81.02.27	세리토스 OMC 담임목사	독일선교사
이원희	부목사	81.01.01	84.02.09	85.12.08 까지 독일선교사	교육부, 독일파송 (84.2)
	지교회	86.02.23	90.08.31	밸리 OMC 담임목사	94년 별세
오태상	협동목사	81.01.01	88.09.08		별세
정완기	부목사	81.03.01	85.03.31	갈릴리제일장로교회	중등부 목사, 구역
안용식	부목사	82.06.30	93.10.31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교육부, 행정
석인열	부목사	82.07.11	82.09.12		
임병택	부목사	82.11.01	90.09.26	샌디에고 OMC 담임목사	행정, 심방
손주영	부목사	83.01.23	84.07.08	유타지교회 담임목사	교육부
이정식	협동목사	84.03.31	현재		동양선교교회
강신욱	부목사	84.11.04	86.06.08	의사, 생수의 강 교회 담임	중등부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김건태	부목사	85.05.01	92.07.12	한미중앙교회 담임	심방, 교구, 시애틀
윤한두	부목사	85.07.07	88.02.28	한국내 교회 시무	음악목사
채현철	부목사	86.01.01	88.08.31		고등부
조갑수	부목사	87.01.01	93.10.31	99.05.19 별세(교회장)	선교부
현용수	부목사	88.01.01	91.04.30	쉐마교육연구원	성인교육부
심신경	협동목사	88.01.01	89		
차재완	부목사	89.01.01	91.04.30		교구
김종엽	협동목사	89.01.01	89	은퇴목사	
윤치원	협동목사	89.01.01	89	별세	선교
이성원	부목사	89.07.01	90.06.30	OMC 협동목사	대학부
이병희	2대담임	89.12.13	91.04.23	라성세계복음교회 담임	
홍동섭	부목사	90.04.01	91.04.24		
안영호	부목사	90.06.03	91.04.24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	행정
계 만	협동목사	90.12.19		브라질	3개월조건부
황재륭	부목사	91.04.24	93.01.31		교구
		00.08.01	현재		(재부임)행정
주명훈	부목사	91.09.01	92.05.03		교구, 심방
노창수	부목사	91.10.01	94.06.30	캐나다	영어예배, 교구
이두용	협동목사	91.12.20	93.09	은퇴	
석보욱	부목사	92.08.13	93.09	달라스 지교회 파송	
임성진	부목사	92.08.16	94.06.30		한글학교, 새신자
	협동목사	99.10.01	현재	WMU 신학교 교무처장	
정운철	부목사	92.09.01	94.06.30		심방, 음악목사
	부목사	99.07.01	현재		(재부임)교구, 심방
전길성	부목사	92.09.01	95.09.30	크로스로드 담임	심방, 행정
변순복	부목사	92.09.01	92.10.01		
송창현	부목사	93.07.04	94.09	부산수영로교회 부목사	대학부
김명삼	부목사	93.10.01	97.01.19	캐나다	교구, 심방
박광철	3대담임	93.12.26	98.08.07	조이펠로쉽교회 담임목사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최진기	부목사	94.01.01	94.06.30		교육부
강일준	부목사	94.07.01	96.10.31	밸리한양장로교회 담임	교육,행정, 선교
이청근	부목사	94.07.01	96.03.06	한국내 사역	교구, 심방
허 번	부목사	94.09.01	95.12.31	포모나한인교회	선교부
이태종	부목사	94.09.01	95.10.31	알라스카 OMC 담임	청년부
이요나단	부목사	95.01.01	97.07.13	추수한인교회	영어사역부 담당
김성학	부목사	95.08.01	99.11.30	팀사역	대학부, 영어예배
김경환	부목사	95.12.01	97.05.11	(( )) 담임목회	교구, 행정
정진우	부목사	95.12.01	97.10.05	한국	청년부
박형준	부목사	96.07.01	98.11.30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새가족, 선교부
한 진	부목사	96.11.01	98.11.30		교육목사
정우길	part time 목사		98.11.30	한국	새신자부
김영배	part time 목사		98.11.30		성인교육부
정우송	부목사	96.12.01	현재		교구, 심방
정수일	part time 목사		97.06.30	한빛교회	한국어고등부
한상균	part time 목사		97.08.31		
이유식	부목사	97.06.15	99.05.31	나성한인교회 부목사	행정
박종각	부목사	97.06.15	00.07.30	헌츠빌장로교회	교구, 심방, 행정
김학진	부목사	97.10.05	00.09.30	한국, 사랑의 교회	청년부
홍남표	부목사	97.12.08	현재		교구, 심방
주인석	부목사	00.01.01	01.05.31	오렌지한인교회 교육목사	교육부
이태규	부목사	00.07.01	현재		영어예배
김은철	부목사	00.07.01	현재		교육부
엄재헌	부목사	00.07.09	00.12.31		관리직
김용식	부목사	00.10.04	현재		청년부
정종원	부목사	01.07.01	현재		열린예배
조관호	부목사	01.08.01	현재		선교부
강준민	4대담임	01.12.01	현재		

역대 전도사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김효순		71.01.01			
박노훈		72.02.13			고등부
이중용		75.01.30	80.02.28	아리조나 OMC 담임	교육목사 임명
박동원		75.07.13		훌린트장로교회 (MI)	
조갑부		75.07.13	84.03.31		
신덕수		74.06.09	78.02.12		
조성신		76.01.04	77.12.31	침례교단 목사	
안미원	협동	76.06	93.10.31		
송정명		77.01.09	78.07.11	평안교회 담임	부목사임명
신정도		77.01.09			
이요한		78.01.01	79.10.10	시카고, 목회	목사안수
안용식		79.03.31	82.06.30	임마누엘선교교회담임	목사안수
홍강숙	협동	80.01	81		
함정희	협동	80.01.01	91.06.01		장년부
안임숙	파트타임	82.01.31	01.06.30		주일학교
이창헌		84.01.01	84.06.23	북부콜로라도한인교회	
이승림		84.01.01	84.09.29		
최성순	협동	84	85		
최진기		84.01.01	89.01.01		
이원열	협동	84.01.01	84.08.04		명예전도사
강선자		84.02	97.01.19		
강형모		84.09.29	86.08.31		중등부
김진광		84.10.07	88.03.31	중부 OMC	목사안수, 고등2부
채현철		85.06.09	85.12.31		고등부 지도
이성원		86.01.01	89.06.11	OMC협동목사	대학부 지도
김신근	협동	86	90년까지		
현용수		86.08.10	87.12.31	목사, 쉐마교육연구원	장년부
장문자		86.09.07	91.05.30		유년주교
이애경		86.12.20	90.11.30	알라스카 OMC사모	유년부
이태종		87.04.25	90.11.30	알라스카 OMC	청년부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송창현		87.09.29	93.07.04	부산 수영로교회	유년주교
이정우		87.09.29	90.06.30	샌디에고, 목사	유년(어와나)
전길성		88.05.01	90.12.31	크로스교회 담임	대학부 담당
김문주		88.09.01	90.06.30	한국 거주, 교수	고등1부
손경윤		88.09.01	91.07.31	아름다운침례교회 (TX)	고등2부
송상헌		88.09.01	89.12.20	남가주비전교회 담임	소년부
김부연		88.09.01	89	별세	초등부
김 강		88.09.01	90.06.30		
임성진		88.09.01	92.08.16	목사, 월드미션대학 학감	한국학교
황은철		88.09.01	92.11	브라질 OMC 담임	선교부, 한국어고등
서정인		89.01.01	92.12.01	오렌지한인교회 교육목사	중등부
최임규		89.05.01	91.04.30	미주성산교회 전도사	사무실
정민구		89.06.01	93.02.28	멕시코 선교사	특수반(소망부)
김도일		89.08.13	91.05.30	한국, 신학교 교수	유년부 전담
김영배	협동	89.07.01	현재	93.04부터 full time	특수기사
임삼용	.	89.07.01	91.09.22	별세, 아리조나 OMC	도서관
김은영		90	96		
황재릉		90.01.01	90.06.20	OMC 행정목사	청년부
지미리		90.04.25	94		고등부
백은숙		90.05.30	93.10.31		대학부
방수잔		90.12.01	93.04.30		소년부
정성훈		90.01.01	96		소년, 청년부, 주일
김신근		91.01.01	91.04.30		교구, 심방
이정훈		91.01.01	91.04.30	알라스카 거주	대학부
김용식	수습	91.02.24	92.09.30	콜롬비아 OMC 담임	교구
조원하	수습	91.02.24	92.06	중국선교사	교구
박현미		91.06.01	92.07.01		유년부
김용창		91.06.01	92.02.28	샬롬센터	초등부, 중고등부
김현미			92.07.31	한국, 사랑의 교회	초등부
황은미		91.06.01	93.04.30	브라질, 목사 사모	특수부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홍경하		91.06.01	93.10.31	빌라델피아	어와나
김철호		91.06.01	99.09.30		고등부
한재우		91.09.01	94.07.31	세리토스OMC부목사	2부중등부
지금섭	수습	91.10.01	92.08.16	별세	교구
이법웅	수습	91.10.01	92.09.01		모스크바지교회개척
김순심	수습	91.10.01		콜롬비아 보고타OMC	
이구일			92.11.30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사무실
박세헌		92.12.01	93.12.31	나성영락교회 대학부목사	한국어중등부
김기숙		93	96		
양아경		93	96		
함정희	협동	93	96		
한희숙		93	현재		특수부
박세훈					
오기열		93.01.01	94		장년부
이창용		93.05.01	93.07.31	필리핀	
이태종		94.09.01	95.10.31	목사, 알라스카 OMC	청년부
송상헌		94.12.01	95.05.31	남가주 비전교회	대학부
최진기		94			
이애경		94.11.01	95.07.31	이태종목사 사모	소년부
변명혜		94	98.08.31	베데스다 신학교수	유아부
장성일		94	96.06.21	하와이 YWAM 선교사	성인교육부
김중배		94	99.05.31		소년부, 어와나
공강국		94	96.12.31		한국어 중등부
한제교		94	97.05.31		어와나
배세진			97.08.31		한국어 고등부
남윤희			97.11.30	터어키선교사 목사	새신자부
유순자		95.01.01	98.11.30		심방
박형준		95.02.01	96.06.26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새신자부
이양섭		96.11.30	98.11.30	나성한인교회전도사	심방
명경호		96.02.01	96.08.31		초등부

성 명	구 분	부임일자	사임일자	현재 근황	비 고
정수일		96	97	샌디에고 제일	성인교육부
이길용		97	00.12.31		소년부
오혁진		96.03.01	96.12.31		
정홍준		97	99.04.30		한국어고등부
황창림		97	99.06.30		초등부
공홍기		97.12.01	98.01.31		
박 탐		97.10.01	00.01.31		영어고등부
이다니엘			98.02.28		영어중고등부
송 치			98.09.30		
조영덕		98.01.11	00.05.02	나성빌라델비아교회	대학부
조항목		98	00.07.31	로간 OMC	한국학교
김추자		98.11.15	현재	OMC	병원선교
엄재헌		98.12.01	00.07.09	목사안수	관리
임은희		99.02.07	01.08.01	한양장로교회 교육전도사	유년부
이태규			현재	OMC EM	영어예배
이승인			96.10.13	시애틀 OMC 담임	한국학교
석희정			현재		유아부
한민석					음악디렉터
임주원			00.12.31		초등부
전 철			사임		대학부
이정민			현재		초등부
위문석			사임		한국어고등부
조주영			사임		영어중등부
노영희		01.10.01	현재		유치부
홍의용		01.10.01	현재		소년부
양승모			01.08.30		어와나
김제이슨		01.10.01	현재		영어고등부
이피터		01.10.01	현재		영어중등부
최용준		01.10.01	현재		한국어청소년부
유현철		01.10.01	현재		영어대학부
김창국		01.10.01	현재		한국학교

역대 시무장로

성 명	장립 및 취임일	현재 근황	비 고
김용서	71.07.25	임마누엘선교교회 원로장로	
한건수	71.07.25	OMC	00.07.30 원로장로추대
명재덕	71.07.25		
박천흠	72.07.30		
김주영	72.07.30	나성영락교회 장로	
오해훈	73.07.29	미주성산교회 장로	
한인남	73.07.29	미주성산교회 장로	85.01.13 원로장로추대
이경택	73.07.29	별세	
홍순웅	77.07.28	타교회	
이재권	77.07.28	타교회	
김몽학	79.07.29	별세	
강영구	79.07.29	뉴욕 거주	
박계로	79.07.29	목회	
조웅래	79.07.29	OMC	92.07.26 원로장로추대
김병곤	80.08.28	타주 거주	
김재권	80.08.28	OMC	
오수남	80.08.28	미주성산교회 장로	85.01.13 원로장로추대
오철훈	80.08.28	미주성산교회 장로	
이정배	82.07.25	별세	91.01.06 원로장로추대
정문섭	82.07.25	OMC	
김중완	82.07.25	미주성산교회 장로	
노수정	82.07.25	OMC	
성기윤	82.07.25	OMC	원로장로
조영근	82.07.25	OMC, 목사안수	96.07.28 원로장로추대
신윤철	83.07.31	타교회	
안정현	83.07.31	미주성산교회 장로	
조규철	83.07.31	OMC	
김광락	84.06.31	별세	96.07.28 원로장로추대
온성철	84.06.31	임마누엘선교교회 장로	
이성호	84.06.31	미주성산교회 장로	

성 명	장립 및 취임일	현재 근황	비 고
황재륭	84.06.31	OMC 행정목사	
방조영	84.06.31	미주성산교회 장로	
유문규	84.06.31	미주성산교회 장로	
백영두	84.06.31	위클리프선교사	파푸아 뉴기니아
윤근섭	85.08.04	밸리동양선교교회	
서완석	85.08.04	타교회	
김용일	85.08.04	타교회	
오수훈	85.08.04	미주성산교회 장로	
백형권	85.08.04	OMC	
조인식	85.08.04	OMC	
김동규	85.08.04	사우스베이 동양선교교회	
최만삼	85.08.04	별세	
김경태	86.07.26	별세	
이성은	86.07.26	별세	
이건기	86.07.26	OMC	
탁찬효	86.07.26	미주성산교회 장로	
신상우	86.07.26	OMC	01.07.29 원로장로추대
조상희	86.07.26	OMC	
조정현	86.07.26	임마누엘선교교회 장로	
김광돈	86.07.26	OMC	
임진수	87.07.26	OMC	01.07.29 원로장로추대
황종구	87.07.26	미주성산교회 장로	
김여근	87.07.26	별세	
김명균	87.07.26	미주성산교회 장로	
정중섭	88.07.31	OMC	
김석환	88.07.31	타교회	
김지수	88.07.31	미주성산교회 장로	
김성곤	88.07.31	OMC	
김상정	89.07.30	OMC	00.07.30 원로장로추대
임스티브	89.07.30	OMC	

성 명	장립 및 취임일	현재 근황	비 고
노재희	90.07.26	OMC	99.07.25 원로장로추대
백윤조	90.07.26	OMC	01.07.29 원로장로추대
엄한광	90.07.26	OMC	01.07.29 원로장로추대
김기성	90.07.26	OMC	
홍성환	90.07.26	OMC	
김중훈	90.07.26	미주성산교회 장로	
장 진	90.07.26	OMC	
김영재	90.07.26	미주성산교회 장로	
조준구	91.07.28	타교회	
김덕영	92.08.26	타주 거주	
조영일	92.08.26	OMC	
노성찬	92.08.26	OMC	
박승원	92.08.26	OMC	
신병모	99.07.25	OMC	
한긍리	99.07.25	OMC	
김세웅	99.07.25	OMC	
이 조	99.07.25	OMC	
한승수	99.07.25	OMC	
강모세	99.07.25	OMC	
정봉모	00.07.30	OMC	
김채광	00.07.30	OMC	
이병주	00.07.30	OMC	
전용석	00.07.30	OMC	
오재선	01.07.29	OMC	
원석복	01.07.29	OMC	
정영식	01.07.29	OMC	
최종원	01.07.29	OMC	

역대 시무권사

연 도	성 명	비 고
75	김재순, 이옥엽, 장갑성	시무취임
	강금자, 김병숙, 김보근, 손소봉	권사취임
76		
77		
78		
79	강봉순, 김덕순, 김성심, 김효수, 문유심, 박완순, 오순명, 원준옥, 이득애, 조옥녀, 최용숙, 한귀순, 이옥조	권사취임
80	구혜경, 이항순, 최경자	권사취임
81	박화진, 장세정	권사취임
82	권옥엽, 김순애, 김영숙, 김옥인, 황관오	신임권사
	권길완, 박선희, 박영애, 박채련, 안우경, 이상숙, 이안재, 최복례, 허을순	권사취임
83	성인호, 윤자혜	권사취임
84	복희슬로운, 이경옥, 이윤월, 한복덕	권사취임
85	박확실, 이복덕, 김신애, 장정애, 서영희, 조동희, 한정현	권사취임
86	천희완, 강순남, 이예환, 백계선, 김유단, 조채운, 배종년, 김재숙, 오상숙	권사취임
87		
88	금남이, 김정애, 박옥숙, 이종임, 정연숙, 진선희, 강원례, 강복순	권사취임
89	백현님, 변봉실, 서월아, 신상정, 신무희, 계정자, 이경순, 염혜경, 장정숙	권사취임
90	홍영숙, 최성자, 차래옥, 전성실	권사취임
	김순례, 박은동, 황영숙, 송대순, 홍기영, 신봉효, 조규경, 조현희, 최경희, 이영숙, 박 옥, 방기옥	시무권사
91	정득선, 백희옥	권사취임
	김옥저, 김현숙, 문순남, 온진환, 송의자, 백미섭, 오영희	시무권사
92	장례옥, 홍정혜, 정삼례, 지우성, 최옥현, 김경순, 구선화, 안석희, 임금화, 공정자, 조정간, 성병현, 이정심, 장영자, 조애나, 이덕자, 김성자, 진화숙, 노영자, 홍승자, 유종엽	권사취임

연 도	성 명	비 고
93	이덕희, 이금헌, 박덕조, 강금성, 송도순, 조명화, 한복순, 정말상, 문경숙, 이영애, 이덕순, 곽광례, 임은화, 채은희, 김축환, 김명려, 정순자, 남상인, 현정희, 윤종화, 함순화	권사취임
94	정옥희, 박경선, 김성모, 김인곤, 황금수, 서순옥, 이명순, 양은숙, 김숙자, 박영자	권사취임
95	문은자, 문동숙, 배귀례, 양승열, 민금주, 문순희, 김기옥, 김옥용	권사취임
96	김영선, 김정주, 문태정, 송정님, 유영애, 임정자, 정효숙, 조순자, 한금자, 홍명주	권사취임
97	임옥분, 이광숙, 김문자, 조민자, 정경혜, 김정희, 김영애, 임경희	권사취임
98	김말례, 김춘혜, 이영덕, 이인숙, 이경자	권사취임
99	조지현, 김명희, 김민희, 한안나, 성명희, 임정숙, 이재희	권사취임
00	윤경홍, 윤창섭, 김찬조, 홍순옥, 한영숙, 신애자, 전순자, 엄귀자, 이청자	권사취임
01	이금자, 이복실, 이숙자, 이정순(1), 이정순(2), 조명희, 주화순, 최기미자, 최삼중자, 최운봉, 함규자	권사취임
2001년 현재 협동권사	이교봉, 이정숙, 황성조, 강봉익, 노귀연, 백명원, 노흥복, 조경희, 고귀동, 임은점, 강순례, 손정희, 안종순, 홍재은, 한옥순, 서대복, 김상주, 박논세, 박희임, 조순애, 조춘희, 김대복, 김봉태, 송옥희, 송용점, 이은복, 박덕희, 김영복, 손홍심, 심옥선, 권정옥, 유청난, 허순덕, 김복임, 윤응숙, 심성례, 고독재, 강인자, 이옥순, 서용옥, 김혜연, 황성조, 김애순, 유정숙, 김창례, 김형도, 최정분, 정귀녀, 정복순, 홍정혜, 황금수, 김순복, 강애순, 방연옥, 이귀임, 이정순, 송정숙, 김인과, 오재순, 이송자, 정순옥, 박용숙, 박임수, 이덕중	

역대 안수집사

연 도	성 명	비 고
73	홍미현(당회록 기록)	
80	김중완, 김광락, 이성호, 김광돈, 성기윤, 노수정, 조영근, 온성철, 안정현, 조규철, 김여근, 김명균, 김수문, 김동규, 원덕영, 황종구, 최만삼	
81	원재수, 김봉한, 이원열, 유문규, 한병철, 정상근, 이용선, 김종성, 신윤철	
82	최상집, 이근무, 탁찬효, 황재룡, 조상희, 조인식, 김주환, 전송택, 오정택, 이인근, 전순관, 김영규, 김창무, 김탁제, 천덕홍	
83	백중용, 백형권, 이호남, 정만혁, 김지수	
84	강중경, 김성곤, 김찬규, 남상수, 이성원, 조정현, 주 은	
85	조영일, 임헌권, 장 진, 엄문섭	취임
	한부일, 신상우, 변기영, 김영재, 홍성환, 현용수, 박승원, 조병헌, 김중훈, 이석현, 최창진	안수
86	이영세	취임
	황명준, 계춘영, 이고명, 심상수, 김해룡, 황규열, 엄창웅	안수
	최 철, 방병선, 임응율	협동안수
87	오명엽, 김상정, 임스티브, 이영이, 임원희, 이영송, 도무삼, 김홍일, 전길성, 신재권, 한상범, 주창국	안수
	한수송, 김성주, 정흥수, 이기성	협동안수
88	김학준, 황덕성, 노성찬, 한승수, 김종성, 김창하, 조세훈, 이찬봉, 이한길, 원석복, 허 심, 박호성, 정봉모	안수
	정흥수, 이기성	취임
	황한기, 송민섭, 김영욱, 신명철	협동안수
89	이천준, 정화관, 이기성, 임승광, 이병주, 이종흠, 정형조, 김경수, 오흥삼, 이 조, 강성환, 장진재, 변광우, 오흥덕	안수
	구자일, 김세웅, 박덕훈	협동안수
90	채승희, 진병엽, 한긍리, 이창석, 이법웅, 김채광, 김대호, 민병득, 김영만, 오상헌, 최영철, 오기열, 김인승, 이광휘, 박제임스, 박창국, 오유환	안수

연 도	성 명	비 고
90	조원하, 최영근, 이영대	협동안수
91	김세웅	취임
	김용기, 김충일, 김희구, 박정수, 이명진, 유영종, 유정수, 한동열, 이경동	안수
92	한규환, 박덕훈	취임
	박창섭, 이장윤, 김영호, 방영구, 김권집, 최종원, 정영식, 김청익, 유치홍, 이태식, 김형근, 채홍인, 김진호, 전영식, 이재진, 김삼열, 곽건준, 임승천, 강모세	안수
	김영수	협동안수
93	정한석, 이종용, 유승주, 곽병재, 박 영, 이인검, 전용석, 박태은, 박창문, 오기헌	
94	한경수, 홍동성, 김종순, 김동원, 김강일, 임승표, 송성훈	안수
95	전홍배, 박명관	취임
	김형남, 함재목, 김국한, 배영하, 전완수, 윤여춘, 한영길, 이충식, 김두한, 박준영, 조일성, 채희길	안수
96	김래현, 박정언, 신부남, 오재선, 최현진, 한춘석	안수
97	이세훈, 신동순	안수
98	이용훈, 이효성	안수
99	금재연, 송석주	안수
2000	마사웅, 구경훈	취임
	윤태중, 전광일, 이병인, 최수남, 김상중, 오용기, 안의식, 이상용, 안광석, 남상헌, 홍성식, 노인호	안수
2001	유대선, 최영진	취임
	강광희, 김성권, 라철삼, 박태호, 박 환, 양승달, 이길홍, 이종수, 차귀동	안수

2001년 현재 협동안수집사	한수송, 한상준, 신장덕, 정의웅, 유대선, 심대복, 윤응섭, 이평재, 김유진, 오정수, 이승직

역대 서리집사

연 도	성별	성 명
71		김병숙, 박천흠, 김주영
76	남	강영구, 김동규, 김여근, 김제휘, 성기윤, 안정현, 오수남, 은수복, 장은모, 정형조 최만삼, 한병철, 허 혁
	여	김신애, 김송자, 김옥인, 김옥태, 김희숙, 박길복, 오순명, 온진환, 이순정, 이소연, 이영순, 이항순, 임종년, 정인규, 장정애, 최남숙, 최정호, 한정선, 홍윤경
77	남	김낙제, 김중훈, 김영재, 김몽학, 김몽한, 김탁제, 김주환, 김창무, 김영규, 김주훈, 박유재, 박광원, 신재권, 이명선, 유천근, 조병헌, 하윤호, 최준헌
	여	김난영, 김유단, 김옥래, 김정자, 강을규, 강은희, 노영자, 신숙자, 이정숙, 이문자, 오영애, 오영희, 오에스더, 원영숙, 조병희, 조순자, 최근숙, Mrs. 슬로운
79	남	강순식, 계춘영, 구한모, 김 광, 김복문, 김성택, 김용목, 김익환, 김재수, 남상수, 노재금, 박승원, 박영원, 박재호, 박효순, 백중용, 변광우, 변기영, 슬로운, 신윤철 안원삼, 엄창웅, 오정택, 윤종규, 윤주환, 이덕우, 이만열, 이명진, 이석현, 이응선, 이호남, 임승광, 장수영, 전송택, 전순관, 정만혁, 정우선, 조상희, 천덕홍, 한상현, 홍익표, 황덕성
	여	강봉순, 강은희, 권옥엽, 김근주, 김근준, 김금순, 김명자, 김미영, 김영애, 김인순, 김재복, 김정애, 김정옥, 김정자, 김지화, 김생경, 김연숙, 김혜숙, 박수자, 박영순, 박정혜, 박혜옥, 박화진, 박확실, 변사숙, 변순자, 신무희, 신순자, 안복희, 염실근, 염혜경, 원재향, 윤공순, 윤혜식, 이길자, 이영숙, 이원재, 임경희, 장경옥, 장순이, 전창연, 정을림, 정중수, 정혜화, 천장숙, 천희완, 최명숙, 최순덕, 헬렌겔리, 탁매자, 편애진, 하순희, 한복덕, 한을순, 홍기영, 홍승란
80	남	백형식, 이찬봉, 김정남, 백천웅, 이영송, 김오덕, 심상수, 임기수, 오명엽, 김지수, 김인수, 한정현, 최영철, 황규일, 강제봉, 윤희구, 이평재, 추재덕, 주 은, 김치용, 박영철
	여	백현님, 이영숙, 이원필, 김신자, 이정애, 심순희, 이영란, 최민숙, 김영실, 주숙희, 한효숙, 임문애, 장인국, 김선해, 이종임, 조춘희, 백기공, 김애리, 김영자
81	남	강종원, 김상정, 김용만, 김해룡, 김홍일, 김희구, 남만희, 박효종, 백동현, 서문욱, 선우작, 손재후, 신상우, 오수길, 윤락흠, 원만복, 이고명, 조세훈, 이장윤, 이재교, 이지교, 이창우, 주석만, 주창국, 최창진, 황명준, 황수엽, 현용수, 조정현, 김정일, 배우건, 김종태, 김경택, 전병철, 김광철, 고행수, 박정수, 허 심, 윤영교

연 도	성별	성 명
81	여	김경자, 김선희, 김성경, 김은순, 김정인, 김쥬디, 김희숙, 남 경, 박묘종, 박 옥, 박행자, 선우승자, 손성애, 신상정, 오선길, 오희자, 원주영, 이경순, 이복덕, 송명신, 이순영, 이순자, 이연순, 이영애, 이혜숙, 임영자, 장정숙, 조양숙, 조정간, 주승환, 최경희, 홍복현, 황영숙, 정영수, 배상평, 김병연, 박경애, 박주혜, 장준호, 현정희, 김영선, 김영자
82	남	임스티브, 강중경, 유병철, 이홍범, 최옥환, 장문석, 한부일, 손봉남, 이중근, 도무삼, 장문관, 김재용, 최세형, 신종욱, 이성원, 홍성호, 김광제, 오흥삼, 오흥덕, 오흥도, 이명철, 이태식, 김지항, 이기철, 이기원, 고형규, 배석원, 이상윤, 이동명, 황윤성, 박노정
	여	김추자, 남상인, 남인경, 김인순, 김 준, 박진홍, 박명성, 금남이, 백정희, 노진등, 백경순, 신정순, 이덕자, 이세란, 이경희, 금봉숙, 정현경, 이영숙, 오현숙, 김대훈, 오경옥, 오애숙, 조희순, 현복희, 최흥인, 홍혜선, 정연숙, 임우조으, 강윤희, 서영예, 오임순, 도근희, 김말례, 문춘복, 박필례, 신정원, 정금자, 윤성희, 장순희, 양은순, 이선양, 김영옥, 김영순, 유희자, 김정실, 김화자, 박영주, 주진희, 유순금, 나순옥, 김재한, 이복순, 이미희, 서문희, 황아자, 조정희, 이정순
83	남	김영수, 김자량, 김정기, 김평천, 박호성, 송기봉, 원석복, 윤석창, 권오진, 홍순식, 강세원, 김대호, 임규동, 유정현, 이용청, 박형준, 김중식, 김재길, 김창하, 이동규, 배궁조, 차호석, 김능화, 서재철, 박태형, 김진봉, 김인승, 임승천, 윤영선, 이환우, 방영구, 조상윤, 강성환, 김권집, 민경혁, 김국진, 윤상덕, 염헌맥, 한승수
	여	이복희, 이덕희, 김정은, 이덕휘, 문경숙, 권홍숙, 송의자, 하혜숙, 양숙녀, 이정연, 박석영, 백정미, 서인복, 김천애, 정정미, 백계선, 김경애, 강경혜, 배을종, 차정자, 김문자, 김규현, 고덕유, 백의자, 노진동, 김상남, 김근수, 박재옥, 조성근, 방정규, 송대순, 홍현숙, 이명숙, 이영덕, 김문자, 윤현수, 전선순, 황일선, 김정희, 최복순, 노지연
84	남	윤형배, 최무홍, 현용규, 홍정택, 한규환, 정명철, 곽건준, 김성덕, 장기수, 김형남, 라철삼, 이재훈, 장희수, 이법웅, 이기택, 유승주, 장 진, 임헌권, 김시구, 최진규, 감수신, 정봉모, 남주웅, 이원준, 정순복, 박창섭, 최용하, 신재권, 이경훈, 오상현

연 도	성별	성 명
84	여	장례옥, 김현숙, 양연경, 최경순, 한영숙, 이덕조, 김화실, 강혜영, 강귀순, 강금성, 이은미, 장영선, 김춘경, 나진숙, 안남이, 유옥숙, 이경순, 조민자, 홍옥련, 이은향, 한승향, 유종엽, 이희숙, 장영자, 이춘자, 한애덕, 김창희, 유광자, 백병화, 김을출, 김혜숙, 김영숙, 정순자, 오정순, 이정순, 강순덕, 김숙진, 박경선, 김정은, 신봉례, 김영자, 이정희, 김순례, 김상희
85	남	장종호, 조인권, 이 조, 한긍리, 강현수, 유광열, 채승희, 민병용, 김태을, 김은석, 오기열, 진병엽, 김영만, 민병득, 고형소, 김병곤, 이천준, 이종철, 정기성, 박두준, 오경열, 오영훈, 이해봉, 김영준, 송경섭, 김호희, 안용대, 이종흠, 이도원, 한 영, 김원택, 김영찬, 쟌 나이므스
	여	김명옥, 김준정, 배정옥, 오재영, 김순례, 홍기화, 채은혜 김정자, 원옥열, 조희순, 조규경, 이청자, 장순자, 김정례, 김금자, 성병헌, 이갑덕, 오명애, 오정희, 이경수, 조수명, 진화숙, 김순실, 윤진영, 김소진, 민유자, 고영자, 임혜경, 권은순, 이광숙, 김기란, 이인덕, 엄숙영, 서순옥, 원효성, 박승란, 유기옥, 이명옥, 김보현, 송옥저, 임정숙, 송혜숙, 이은영, 김순열, 엄선희, 곽정란, 이은화, 김순자, 김경숙, 이은경, 구선화
86	남	김형돈, 제임스박, 홍경완, 김성길, 윤여춘, 정화관, 홍연용, 홍정인, 김영남, 염헌맥, 박신철, 김효일, 송성훈, 이광휘, 이연용, 김석훈, 윤태균, 강영찬, 강모세, 김성원, 배재성, 임승표, 임승진, 김금석, 이경구, 이원태, 이종대, 김정모, 마장섭, 이기녕, 이한길, 이하유, 서상철, 김종성, 백영일, 홍우영, 엄범현, 신동석, 김태현, 박태은, 남순극
	여	조상옥, 정인식, 정미석, 조미숙, 김미혜, 박세자, 윤영란, 박경애, 박복희, 황선미, 최임규, 주영임, 김인순, 김영희, 홍수정, 이을성, 김숙자, 송인순, 이장순, 이정심, 임길순, 김부연, 이은영, 안선심, 김혜경, 강은희, 민혜성, 김경희, 유연옥, 강승애, 김창희, 김진수, 이윤상, 이현실, 김제인, 이인숙, 박현숙, 임영자, 배옥희, 김춘희, 김명숙, 이영선, 문수남, 이정희, 최정순, 백희자, 홍순옥, 김혜정, 신명희, 방금열, 윤종화, 정경혜, 김경순, 김옥선, 변봉실, 김병희, 신기화
87	남	차인호, 김웅길, 최승천, 이용훈, 유영종, 김용기, 조원창, 김동성, 안광국, 정찬석, 송용채, 조영갑, 채철원, 전영식, 신순군, 오선과, 정봉현, 김광표, 전용석, 유보현, 안기천, 심춘길, 엄창석, 하웅철, 안유현, 정봉일, 김동윤, 전완수, 박석명, 홍윤범, 박갑영, 하용호, 신상건, 박동진, 임남진, 원창희, 백경준, 김대현, 손종기, 최옥현, 김생수, 박남수, 공덕봉

연 도	성별	성 명
87	여	이옥준, 정현영, 이영자, 차정숙, 김은한, 김혜숙, 최영숙, 홍엄순, 황정례, 임영모, 이강님, 권금옥, 유옥주, 김명려, 강순례, 김정옥, 장순덕, 이행초, 정복순, 김승림, 안경자, 정정자, 송정욱, 조현주, 채복녀, 전은희, 신후금, 김한실, 김복순, 전예선, 유문희, 안혜순, 심재희, 임석진, 박명언, 이덕주, 윤 경, 강혜경, 임상순, 조명화, 이영수, 김정희, 유혜정, 박화자, 서옥향, 박재희, 유명자, 서일업, 곽광례, 김근옥, 최정순, 이양미, 백은주, 황호신, 신순녀, 현정희, 인선옥, 김옥순, 김의자, 원형기, 이경옥, 윤경원, 정경자, 정순제, 황화미, 김영희, 장종심, 최미경
88	남	강동익, 강명권, 강일환, 곽병재, 권병규, 권용의, 금재연, 김 강, 김경인, 김덕복, 김도일, 김병서, 김상중, 김성룡, 김승철, 김양수, 김영실, 김영호, 김주연, 김진승, 김충일, 김해연, 김형근, 박정진, 박창문, 백형룡, 신부남, 신화점, 심상태, 안좌희, 오동열, 오석희, 유치흥, 유희범, 윤태현, 윤형원, 이사안, 이성식, 이언영, 이영진, 이영찬, 이장연, 이재남, 이정길, 이종기, 이종용, 이창석, 이형수, 임낙주, 임승일, 장현봉, 조문연, 차은종, 최순학, 최영찬, 탁찬보, 아스테반, 한동열, 한영수, 현창갑, 홍길산, 홍덕표, 홍두화, 홍문기, 홍석구, 홍임표, 오철환
	여	강경화, 강영숙, 강현애, 강현혜, 곽정규, 권오유, 금혜숙, 김광자, 김명순, 김명희, 김수연, 김숙자, 김영옥, 김은희, 김정숙, 김지화, 김진수, 박은동, 박효순, 서배선, 서순옥, 신동신, 신수잔, 신은석, 안경자, 안규옥, 안석희, 원순식, 원시정, 원형기, 유영자, 윤부사자, 이경자, 이덕순, 이두련, 이명희, 이성애, 이순임, 이옥준, 이용남, 이크리스틴, 임금화, 임영자, 장규희, 전경옥, 조정옥, 조춘자, 조태숙, 최순란, 최순원, 탁준실, 한지선, 홍명옥, 홍명주, 홍석례, 홍석자, 오선수
89	남	감현대, 고찬유, 김성배, 김경철, 김정수, 김재필, 김호일, 남왈희, 문정현, 박범전, 박세현, 박창훈, 박태길, 백경환, 신명희, 신정수, 김승철, 안성국, 양성철, 오기헌, 윤여춘, 이경동, 이병호, 이용명, 이재덕, 이진희, 임헌학, 정병모, 정융광, 정한석, 조원하, 조재환, 조학규, 차영호, 차원형, 채정목, 채홍인, 최영훈, 박태호, 안영현, 정기만, 이재진, 홍성호, 황국동
	여	감정숙, 김명자, 김미혜, 김복순, 김봉은, 김사라, 김성란, 김영숙, 김옥래, 김우원, 김정실, 김정희, 김화자, 김희선, 남정순, 문동숙, 박미원, 박순화, 박중희, 백낙경, 신용순, 신화순, 신해령, 안경희, 안순임, 안준이, 양영옥, 엄귀자, 오갑순, 오순우, 윤옥윤, 윤주해, 이갑순, 이경애, 이금헌, 이명화, 이선영, 이양문, 아이버슨, 이영숙, 이옥자, 이현양, 이활란, 임복녀, 임정언, 임혜련, 장명해, 장영숙, 장옥순, 전경희, 전소명, 정병순, 정삼례, 정상희, 정에스더, 정정희, 조선화, 조일순,

연 도	성별	성　　명
89	여	주선애, 주필순, 지우성, 차현미, 채낸시, 최순복, 최옥현, 최인회, 최정복, 최정순, 하현숙, 한경자, 한명순, 한복순, 한영숙, 한영해, 황금수
90	남	강순곤, 고대석, 공강국, 공윤준, 기획광, 김기선, 김규환, 김병구, 김승수, 김재천, 김행진, 김형준, 김홍선, 노문원, 노훈조, 박덕훈, 박상욱, 박 영, 박용길, 박인옥, 박재화, 박정언, 박태서, 박한성, 배용환, 송준석, 송석주, 송성준, 송형섭, 안광석, 안성규, 안세권, 엄치영, 유은식, 유치호, 윤래식, 윤태중, 이광익, 이경석, 이규한, 이근우, 이만수, 이무곤, 이범수, 이상영, 이재항, 이재현, 이청하, 이학진, 전익열, 전희정, 정윤걸, 정종수, 정지수, 조재한, 조용한, 지우성, 채희길, 최영진, 최헌진, 최형기, 한경수, 한춘식, 홍순식
	여	강한나, 공영숙, 김경난, 김경자, 김경전, 김경희, 김명화, 김미경, 김미애, 김미원, 김성숙, 김성모, 김신애, 김양숙, 김영숙, 김옥녀, 김인숙, 김은미, 김은환, 김자영, 김정순, 김정순, 김찬조, 김해월, 김헬렌, 김현선, 김효중, 김희숙, 노 연, 노윤민, 박경란, 박경자, 박미리, 박미희, 박상례, 박숙희, 박영순, 박옥순, 박은희, 박인자, 박지윤, 박혜리, 배선혜, 백점예, 리사신, 손경직, 송현옥, 심봉례, 안재광, 안준이, 양승렬, 엄원분, 오영옥, 오영주, 유명자, 윤래식, 윤진숙, 이귀향, 이순옥, 이숙자, 이신욱, 이영숙, 이오경, 이옥자, 이의경, 이점순, 이정용, 이춘영, 임영숙, 임영애, 전병순, 전소명, 전인숙, 전인자. 정삼례, 정숙효, 정혜란, 채 선, 채재선, 최순란, 하교숙, 한규자, 홍인실, 홍효순, 황은미, 이명실
91	남	송기출, 김재훈, 민병환, 오시권, 박제환, 정재욱, 박준영, 이영곤, 김중선, 김영민, 권우기, 김종우, 양효성, 문병남, 박창영, 김성균, 김종순, 강순용, 김진해, 조기열, 윤충현, 강규성, 서용원, 문병규, 홍종우, 손준석, 손준석, 염동승, 강규성, 임창윤, 김종대, 주인식, 정인교, 최성규, 김두환, 노인호, 차원형, 심정웅, 권중용, 황인희, 이용식, 김정국, 이재영, 한동섭, 노성호, 이상용, 신재관, 김찬수, 강 찬, 송성건, 홍연호, 김동규, 신명웅, 송신복, 조일성, 홍경하, 김중칠, 김국한, 조상윤, 박준호, 민병환, 조내경, 김영욱, 김희길, 김인국, 김성열, 강창문, 정영창, 이명일, 이영창, 임봉순, 강광희, 함용직, 박원복, 윤충현, 박철생, 최인규, 민해집, 김영국, 권중용, 우정소, 신동호, 염 영, 최제임스
	여	박선자, 오경애, 민정희, 김정실, 김혜미, 김은주, 권미경, 정정희, 김영련, 한금자, 윤영숙, 송혜진, 공영이, 주효주, 이순자, 유영애, 김창희, 임선숙, 임은화, 임금화, 염인숙, Helen Cho-McTutosh, 최원숙, 오영란, 이성란, 이문희, 유명연, 이진숙, 차현미, 차현선, 심미순, 권영순, 김미화, 이치자, 노정자, 이연옥, 한혜경,

연 도	성별	성 명
91	여	이선례, 백숙자, 이필례, 이현숙, 곽순옥, 임미혜, 송미애, 강혜진, 김옥분, 조혜경, 홍정애, 이 숙, 김기옥, 황근실, 명정향, 정홍순, 김상은, 조영애, 김일선, 이민숙, 김정삼, 방선미, 배길순, 권인매, 조재숙, 박영주, 민성옥, 김재숙, 차현미, 차현선, 김정순, 고재순, 강혜연, 이경자, 정기보, 이옥경, 김카니, 이미자, 김혜숙, 이윤자, 임정숙, 강정순, 함문희, 박연숙, 노지현, 김경옥, 정현순, 이지향, 오정희, 오은주, 이용선, 최정자, 민난부느, 고명희, 권용순, 우영자, 신희수, 명란순, 홍효순, 최희숙, 박금정, 손경직, 염신자, 이성현
92	남	강희만, 고바우, 권석태, 김강일, 김경원, 김광찬, 김글렌, 김기수, 김덕수, 김대주, 김두석, 김두일, 김명신, 김에드워드, 김영균, 김영균, 김정주, 김종석, 김종선, 김준경, 김진철, 김호창, 김희영, 박현철, 박홍근, 백태종, 소병무, 송균안, 신동순, 신사식, 안용갑, 안종익, 양승열, 염명일, 염이태, 오천근, 오의명, 원등웅, 유동민, 윤민상, 윤재실, 이국한, 이기현, 이대현, 이봉근, 이봉천, 이삼열, 이수길, 이윤종, 이재영, 이진봉, 이태경, 이희영, 임석규, 임춘식, 장기철, 정광식, 정영모, 정용호, 조규식, 조규태, 조병용, 조성일, 조택현, 차광배, 천명열, 천현만, 최윤진, 한태환, 함재목, 허만석, 허만선, 현연섭, 홍성식, 홍용범, 황동석
	여	고명주, 고현주, 국명숙, 강엘리스, 권미숙, 권인애, 권진숙, 김경선, 김경자. 김경혜, 김경혜, 김규순, 김말수, 김명순, 김병옥, 김복순, 김선자, 김양희, 김연희, 김영순, 김정심, 김정애, 김창옥, 김충자, 김형순, 김화란, 문태정, 문혜진, 민성옥, 박금정, 박미숙, 박석수, 박수견, 박순희, 박춘자, 방선미, 배귀례, 배정옥, 서기순, 서애신, 소미숙, 손순자, 송순자, 신용순, 신경자, 신성희, 신정현, 신종순, 심미순, 안금덕, 안명숙, 안옥자, 안천혜자, 염신자, 염혜주, 오상기, 윤경자, 윤재연, 윤정아, 원복순, 원진수, 원재향, 이기남, 이덕희, 이미자, 이사연, 이애선, 이애옥, 이영미, 이우섭, 이인숙, 이재옥, 이재원, 이주연, 이창희, 이춘자, 이화경, 이혜숙, 이현숙, 이희선, 임혜숙, 장지숙, 전수경, 전인순, 정래현, 정송금, 정영숙, 정태현, 조경자, 조귀출, 조금주, 조순호, 조영애, 조옥자, 조완희, 진영자, 천한나, 천효수, 최명자, 최종숙, 최필수, 한진희, 한현숙, 허미연, 허희숙, 현소은, 홍명순, 홍양희, 홍영자, 홍영화, 홍정애, 황혜경
93	남	강공수, 강동호, 고우석, 고창업, 권헌주, 권혁준, 김강석, 김성주, 김영격, 김용식, 김정환, 김부영, 김희춘, 남에드워드, 노종걸, 박귀홍, 박윤수, 박응수, 박봉우, 박삼용, 박용치, 박준흠, 서정준, 성광수, 성원식, 손경진, 양학봉, 엄승현, 엄진섭, 엄한치, 오영환, 유재룡, 이두영, 이신우, 이종현, 이준홍, 이창규, 장덕환, 정순복, 정한영, 전홍배, 조남준, 지금용, 최성윤, 최덕희, 최 영, 한성덕, 한종수, 한창기, 현극수

연 도	성별	성 명
93	여	고상단, 고재숙, 고옥재, 공정남, 계옥이, 권모니카, 김계선, 김금자, 김민자, 김리사, 김연희, 김윤숙, 김순옥, 김영옥, 김윤희, 김정숙, 김태숙, 남은혜, 남창선, 노남희, 문정순, 문태정, 박경옥, 박논수, 박병숙, 박영선, 박경숙, 박경희, 박서분, 박선형, 박영애, 박옥자, 서문희, 서영미, 서정열, 성명희, 신애자, 신용순, 양순옥, 임스칼렛, 엄필선, 엄현주, 유근수, 유영애, 윤정희, 이귀자, 이명자, 이순섭, 이이순, 이정순, 이지혜, 이충애, 이해진, 임수경, 장연옥, 장순덕, 장혜숙, 전순자, 정순옥, 정정화, 조기화, 조순옥, 조순자, 조영철, 조혜경, 전금자, 지용숙, 최남숙, 최복순, 최봉선, 최정섭, 한신귀, 한인옥, 홍진희
94	남	강정구, 고광옥, 구자경, 구자정, 김규복, 김병두, 김봉수 김승천, 김에드워드, 김영진, 김영환, 김원철, 김재형, 김철용, 박시화, 박정진, 박황표, 서명인, 소병걸, 송기환, 송병호, 안병호, 오철수, 윤석영, 윤정림, 이경헌, 이상일, 이용경, 이용석, 이정호, 이제은, 임춘택, 전의웅, 최광명, 한경일, Peter Kim
	여	강정숙, 구명헌, 구진경, 길선희, 김디아나, 김난식, 김부자, 김성희, 김수향, 김순이, 김문자, 김영주, 김옥빈, 문순옥, 박남순, 박인순, 박정숙, 박희숙, 방미정, 백소희, 변영옥, 서삼순, 서선희, 송병애, 안현아, 윤명화, 윤인선, 이복순, 이민자, 이상미, 이선자, 이순자, 이순희, 이엘리사, 이은자, 이인기, 이종순, 이종연, 이혜경, 임명희, 임현희, 임힐다, 정선주, 지성자, 최은희, 황빅토리아, Laurie Kim,
95	남	안의식, 윤승철, 공영식, 신현국, 최주연, 이응철, 안태준, 김찬희, 원정재, 최종열, 장원영, 이현규, 이영호, 구명헌, 구자정, 이동열, 윤창섭, 계병덕, 박재우, 박부노, 박은우, 강은수, 김동원, 김삼수, 김승권, 김영수, 남스티브, 마사웅, 박준림, 유용호, 이영호, 이종택, 정용우, Larry R. Schmadeka, 권창환, 정광혁, 김유진,
	여	이준자, 박영란, 윤미선, 전의희, 김민희, 이영애, 함태옥, 서경숙, 방덕순, 이종순, 최주연, 신명자, 이기옥, 박미숙, 이명자, 김신옥, 계옥주, 박종희, 최영예, 주화순, 이복실, 박성순, 김계희, 김금애, 김영숙, 김희원, 남영희, 마정순, 박은미, 배영자, 성선혜, 성수경, 유경실, 유월선, 윤은남, 이경희, 이길자, 이난영, 이문숙, 이봉희, 이재희, 정명신, 정성숙, 남충희, 안정현, 이헬렌, 김복숙, 권은미, 윤희종
96	남	
	여	
97	남	
	여	

연 도	성별	성 명
98	남	김재신, 김정옥, 조찬일, 현장섭, 권혁천, 노용호, 오태영, 박규범, 김주훈, 한기남, 김종국, 조경호, 유성환, 김용인, 김항덕, 김민석, 공이규, 황종현, 김진수, 문각종, 김용환, 김전수, 황수원, 강신호, 김영호, 이재성, 이영해
	여	김미경, 안남분, 현영자, 박 진, 권혜경, 정영자, 정명자, 이옥희, 최영자, 유순자, 박선이, 김흥순, 박승자, 송민기, 박민옥, 홍옥희, 김영애, 윤영실, 엄재희, 조민숙, 유필숙, 김남선, 이윤하, 한영희, 윤정순, 황문희, 김영혜, 문경화, 김전수, 강경희, 김복희, 송진희, 박병수, 김의숙, 이금례
99	남	강병목, 강현석, 구본철, 김성주, 김우섭, 김원중, 남대우, 문경덕, 박은형, 박형진, 성선기, 신보영, 유형우, 윤병수, 이경섭, 이제복, 인 호, 임광선, 전형만, 정창국, 최지형, 허 석, 홍성혁, Jimmy 강, David 김, 이종옥
	여	강혜전, 구인숙, 김계자, 김미숙, 김윤희, 김윤희, 김재용, 박귀임, 박송학, 박연화, 박영옥, 박은경, 박은하, 서 Jenny, 신민지, 심선희, 왕영혜, 유명숙, 유옥주, 유현옥, 유호선, 윤미도, 이경희, 이두선, 이미아, 이영애, 이영희, 이재란, 이진선, 인경희, 임영복, 전경화, 전영철, 정성순, 조정선, 최경자, 최경자, 한춘옥, 허혜옥, 홍향희,
2000	남	강준영, 강호문, 고창우, 공광헌, 금상연, 김 Peter, 김길식, 김수현, 박상원, 박성수, 박은형, 백기동, 백운각, 오정화, 오헌석, 오헌석, 유은영, 이영택, 이치재, 이희익, 임기석, 전용수, 전용수, 전장근, 전중하, 주상돈, 주수호, 주우인, 최왕성, 한인식, 홍순태
	여	강륭기, 강정희, 강준영, 강지선, 고성아, 공창옥, 금문자, 김 Grace, 김나경, 김선자, 김수연, 김숙자, 김신옥, 김정희, 김진희, 박옥희, 박용자, 박지수, 박지수, 박현희, 백봉님, 백혜영, 안옥순, 오경애, 오영희, 오영희, 오정선, 오정화, 오혜선, 오혜선, 유영선, 유현옥, 이봉순, 이상연, 이영자, 이옥희, 임경화, 전경화, 전수열, 전영희, 전영희, 전현인, 정복희, 정수희, 정연희, 정영옥, 정현숙, 주은령, 최영심, 최에스더, 최윤경, 한춘옥, 홍극출, 홍영희,

연도별 세례자 및 유아세례자

1970년 11월 22일

<세례>
김준호, 함순화, 임승혜(3명)
<유아세례-헌아>
이철우, 김준원, 한케넷, 박선영, 이기동(5명)

1971년

1.춘계 (1971년 4월 11일)
<세례> 김정우 (1명)
<헌아> 문현섭 김영순 이 룻(?) 김종건 고애리스 명사무엘 윤재크린(7명)
2.추계<헌아, 세례> 1971년 11월 21일
<세례> 유천근, 유행원, 김수영, 강선희, 최은귀(5명)
<헌아> 오다니엘, 이빌립, 노은선, 김케넷(4명)

1972년

1.춘계 (1972년 4월 2일)
<세례> 이순정, 권숙경, 유제화, 김관오, 김근준(5명)
<헌아> 유명민, 김수산, 장덕영, 문경섭, 신다윗, 이영석, 이은주(7명)
2.추계(1972년 11월 26일)
<세례> 윤자혜 최병오(2명)
<헌아> 한혜원 장재서 배모세 배다윗(4명)

1973년

1.춘계 (1973년 4월 22일)
<세례> 김옥태 최창호 이창우 최순자 김신연 김궁자 김기찬 허혁(8명)
<헌아> 노태영 찰스유 김미란 최리사 최창규 김용미 찰스김 한정훈 한지연 박미선 김미경 미쉘김(12명)
2.추계(1973년 11월 18일)
-명단 없음-

1974년

1.춘계(1974년 4월 14일)
-명단 없음-
2.추계(1974년 11월 24일)
-명단 없음-

1975년

1.춘계(1975년 3월 30일)
-명단 없음-
2.추계(1975년 11월 23일)
-명단 없음-

1976년

1.춘계(1976년 4월 11일)
-명단 없음-
2.추계(1976년 11월 14일)
-명단 없음-

1977년

1.춘계(1977년 4월 10일)
-명단 없음-
2.추계(1977년 11월 20일)
-명단 없음-

1978년

1.춘계(1978년 3월 26일)
-명단 없음-
2.추계(1978년 11월 19일)
-명단 없음-

1979년

1.춘계(1979년 4월 15일)
<세례> 23명
<유아세례> 10명 명단은 없음
2.추계(성례주일 10월 7일 1979년)
<세례> (14명)
계용순 김성실 김진황 손경민 송창현 이기태 이의치 이하우 장정숙 최복순 최희원 한혜경 황명준 황영숙
<유아세례> (8명)
김Paul 노진아 선우Peter 심리사 안영진 이성국 최스티븐 추Paul

1980년

1.춘계(1980년 4월 6일)
<세례> 총20명
김진국 김일영 이대범 송주현 송기봉 최욱한 이고명 (남7명)
김명기 이영진 유재순 김미화 유성희 송의자 유혜자 이미선 이귀연 이형창 이갑덕 조수명 이덕자 (여13명)
<유아세례> 총7명
최영진 임현진 원경훈 원정훈(남4명)
김명진 조은혜 이제니퍼(여3명)
2.추계 (성례주일: 1980년 10월 5일 / 추수감사절: 1980년 11월 16일)
<세례>
김경숙 김병숙 장주연 박영자 금태숙 잭켈리 임성숙 양숙녀 정금호 정순옥 정숙자 오영옥 김화자 이창헌 이승림 최영희(16명)
<유아세례>
강에스더 김그레고리헨 김지영 김대릭 신여호수아 임진우 김승권 주제인(8명)

1981년

1.춘계(1981년 4월 19일)
<세례>
김영옥 김광제 김영수 김영자 장문석 장봉숙 금영숙
김인덕 김영찬 김경숙 서영해 김경복 박복용 임인경
이병덕 윤미경 이지수 오정규 신윤정 오주화 이정우
홍경하 이형인(23명)
<유아세례>
김충만 김현희 변문선 이요셉 이은호 이은정 김사라
이미선 김호이 박지영 김형민 이성아 권상혁 장세영
박경은 장한영 김사라 백여호수아 이크리스티나
박준규(20명)
2. 추계(1981년 10월 4일)
<세례>
금재연 최석호 최옥경 주성철 황규문 황경숙 고용자
장광훈 장옥선 장익훈 문경숙 박호성 박석영 윤희중
김전희 함선주 이정희 배석원 배현준(19명)
<유아세례>
안성진 오다니엘 안영미 황언정 차지미 장현진 이재은
박성열 이진숙(9명)

1982년

1.춘계(4/11/82)
<세례> (30명)
김기복 김덕복 최은희 박정순 유종엽 유승주 안영기
안병인 양정임 장현봉 장규희 안현주 채승희 방영구
양용철 정철환 임성실 윤희경 채은희 채영희 채영주
채영숙 노진동 신의숙 배진양 김수전 배정옥 김명화
방정규 송대순
<유아세례> (12명)
장줄리 김수지 다니엘현김 황인선 김수진 다니엘성수최
김수성 고다니엘 김재미 남은우 전애리 김진영
2.추계(10/24/82) – 성례주일
<세례>
박창섭 박경선 김준경 강영찬 강정식 김현숙 이창섭
김영만 김태수 박태호 함선심 김영진 지태경 조헬렌
김광덕 강순덕 이순일 임정희 김숙희 관건준 김정연
구선화 민병한 나경주 서상천 이조 이청자 안옥자(28명)
<유아세례>
금잔디 갇데이빗현 장한나 김재니 김수성 유로이스
이상헌 강나오미 임유진 홍은혜 송그레이스 김영욱
이창용 곽주원 김경천 고보경 김형선 전제니퍼(18명)

1983년

1.춘계(1983년 4월 3일)
<세례>
한기태 한춘근 한긍리 한명균 윤여춘 윤경란 김채광
김명희 안규옥 이혜경 신미원 송성건 이인숙 조상희
심상언 이덕조 이원태 이인숙 김경순 성병현 조왕하
강자순 김종신 김소진 윤덕례 한지선 박신방 탁숙영
이순자 이두련 김용훈 이은형 송상현 김묘희(34명)
<유아세례>
박대우 유재은 김진 폴정 박기선 서정환 김선교 김주은
댄김 나다니엘백 샬린양 사무엘오 황해나 김얼 윤수잔
김다니엘 황규원 김정수 정재경 고현주(20명)

2.추계(1983년 10월 16일)
<세례>
김명소 김주희 김주연 이영곤 신상건 김정숙 이영수
이광희 민유자 김오순 박명림 민병욱 아종심 정혜숙
이천호 이규섭 임진옥 김덕중(18명)
<유아세례>
손모세 김유진 신경 김수정 정훈 박아브라함 정명
안요셉 전애령 장우영 이데이빗 강기민 최유진
강여운 엄벤자민 김피터 황언석 주엔젤라(18명)

1984년

1.춘계(1984년 4월 22일)
<세례>
조성환 임종칠 이선실 김성광 박은하 심용섭 홍등미
윤혜준 이로리 유형숙 윤혜정 김준우 전용석 김성언
김중대 김정산 김찬수 김원우 주영복 정종훈 윤정숙
김귀순 유해영 윤희경 한종유 홍성권 심지영 키드덕
선이몽도 전중석 오준규 김미원 유보현 ( )선영
김영수 채천용 장주현(37명)
<유아세례>
김그로리아 허서연 김선경 홍서연 오민규 김형선
현은진 이하진 금나리 김로잘린 오영일 신샤론
김한나 김선균 장부현 이순우 오은애 김용휘
신앤드류 채한나 채성은 이은경 김아멘다 윤소현
이삼성 한은정 전성준 김은정 이다니엘 한결천 원소연
김미지 홍수현 이기헌 윤엘림(35명)
2.추계(1984년 10월 14일)
<세례>
김윤배 이무섭 방선경 임승표 이석원 심춘길 심재희
백형용 제임스박 김재인 박세자 윤정희 최광수
현동희 남창희(15명)
<유아세례>
임동진 전태휘 캐롤라인이 정혜련 스테파니조 조경진
김영석 김진영 황종성 원광훈 폴오 엄지혜(12명)

1985년

1.춘계(1984년 4월 7일)
<세례>
고국현 신선영 노종걸 노남희 박갑영 이묘숙 백은숙
김천녀 선우욱 홍명자 조용갑 조현수 조상은 윤달선
김복자 공덕봉 신현정 홍연호 김숙희(19명)
<유아세례>
편줄리아 노승권 안근화 안원진 정재훈 김성수 김앤디
김신디 이결 남궁담 송엘렌 김지연 박에스더(13명)
2.추계(1985년 10월 14일)
<세례>
이수희 채재혁 정기상 오종근 오철환 오선수 한기정
이진희 김광표 권계숙 박진상 박진성 김청자 서옥향

홍윤범 현희선 김연경 하웅철 하현숙 최석자 김형순
정선숙 황호신 임여식 최수란 이순옥 장정우 최형진
변두현 김정희(30명)

<유아세례>

채희태 배한나 박제인 김헬렌 김이삭 고동현 송민식
남희우 엄지니 홍예현 김지민 강브라이언(12명)

1986년

1.춘계(1986년 3월 23일)

<세례>

박국현 이혜순 이효은 윤종혁 주병석 윤종한 한춘석
정삼례 김규환 이명연 홍문기 채홍인 김창희 곽광례
이광순 탁혜영(16명)

<유아세례>

차망희 이유선 김지나 유유경 이원호 권지숙 곽주영
이현지 조바나 강지용 김영 전노아 김태혁 전병희
원명훈 김하나 김기욱 김기목 이채린 김선영 정데이빗
정크리스티 김마가렛 제이슨영호 한에스더 엘리스리
김다니엘 김에스더 김사무엘 박사무엘(30명)

2.추계 (10/5/86)

<세례>

황국동 황금수 오갑수 이덕수 최도우 최명보 오동열
조정애 노윤민 이은자 조정미 이정안 이영자 김순보
김복천 이숙경 김동우 박창영 이종용 이재억 홍재수
김분돌 이혜란 김양수 김충일 김복순 신정수 박기인
곽근호 유경주 (홍?)종우(31명)

<유아세례>

김명수 이신애 최혜영 배조셉 신희수 정마이클
김상한 최한욱 신현주 주선혜 노정원 안명진 윤빌립
이준(14명)

1987년

1.춘계 (4/19/87)

<세례>

이정희 강영혜 권순희 조진욱 이승훈 윤진숙 김을순
이상영 최형기 김동식 김피터 한경수 곽미련 김다이안
이혜경 문정현 박태윤 원동웅 심윤섭 심계웅 이정호
문동숙 안성규 마성화 김윤식 김경희 황문희 김정순
유은식 유승연 유형서(31명)

<유아세례>

한길현 이메리 김명철 임한나 김경진 조카니 이윌리암
박루씰 김진영 강기현 오영준 김데이빗 김아이렌 김지훈
양진아 김민욱 이크리스토퍼 송마이클 송아람 노윤택
김형인 원희선 (22명)

2.추계 (10/11/87)

<세례>

윤상익 강병열 손 승 민준기 조한준 김재용 강승우
박용치 박옥자 차재빈 표미연 김지영 천명열 조성욱
이정순 이숙범 전규호 전계숙 이필례 김규일 한금자
곽성규 정선애 송석주 김 민 신정재 이기남 이삼열
이인숙 이정홍 안순임 이계선 정병모 김용자 임향재
임애리 (36명)

<유아세례>

송수정 강지혜 이지혜 박민경 김영수 이의섭 강성훈
박준영 오은진 지사라 김조엔 안재영 김용권 곽주봉
이사무엘 박다롱 서혜원 홍충만 김나영 임은진 엄데이빗
노다니엘 (22명)

1988년

1.춘계 (4/10/88)

<세례> 43명

이재환 이억렬 황순형 황석 원지영 원성훈 이춘옥
신기택 오영주 윤태중 이용진 이선임 박인옥 박옥순
정기만 정정희 채희길 채선 박민선 장근영 박복연
한복순 송태미 최윤자 이선예 윤광희 이상복 이항숙
강동섭 강영섭 남궁혜원 신성호 김성교 원석봉(?)
안광석 이옥자 이희숙 이근호 강순용 강복희 이연옥
이혜경 홍효순

<유아세례> 25명

임희종 이신지 김수진 이경미 윤모니카 오지영
정아더 백진아 김태진 미진조 존슨 유유니스 안태열
이상민 정현진 황보브라이언 손케빈 김필립 박효동
홍석찬 천은영 박은정 안윤 안수진 김미선 안죠나단

2.추계 (10/9/88)

<세례> 29명

이생금 조순옥 조성일 송윤현 현반니 한재우 박경숙
유치호 유지나 이원순 이보옥 오진미 오진은 김명선
김명자 윤태정 최영란 김경란 한명수 김두환 윤영숙
김해월 공윤준 이만수 이옥자 박준태 김경훈 정수경
정재욱

<유아세례> 14명

송낙훈 박세오 정데레사 정에스더 김선준 이수잔나
김필승 이지혜 정나영 이윤주 양진성 김현식 김승현
정제니퍼

1989년

1.춘계 (1989년 3월 26일)

<세례>

김조자 이봉도 문장석 권득주 권금자 김룡 이정이
황근 민은기 김문희 안예용 조병호 조경아 허영
허기영 김성욱 임정백 이정자 이기학 김무생 강경은
신사식 양승렬 신경자 이재영 이현숙 방선진 조경완
정성한 정일선 강홍섭 정재연 박창은 강경덕 조명숙
조성호 성진용 데비드엔시나(38명)

<유아세례>

이지섭 민영주 차영은 김수현 이용훈 김의진 강원정
임샛별 이선희 김현경 오미정 염경훈 염경아 강지은
김한나 이용희 김진호 임영진 조은정 안제니 임희재
이유민 김기영 최은영 조병화 유연동 박세준 박세강
이주희 조알더 우현진 송현식 노승원 강소영 배아브라함
(35명)

2.추계 (1989년 10월 15일)

<세례>

전영주 전남주 송옥희 김현수 최응선 홍난영 정제철
김유림 백선희 유태규 김진열 김신화 강봉임 진주섭

윤태윤 김진만 김정금 권진숙 정영모 최정준 임태순
김선희 김희정 이용수 최병준 김규석 이진용 이진경
그리이스킴(29명)

<유아세례>

윤호상 최바다 김케빈 이정의 송낙영 송낙준 강대용
김혜화 정승리 한우성 김하남 유지은 이학원
패트리시아남 황에스더 앤드류남 강미치엘(17명)

1990년

1.춘계 (4/15/90)

<세례>

안미애 안용갑 정유진 김성욱 황성근 문성록 권우기
원상숙 강신복 박준홈 진영자 오성원 문태정 이현숙
이혜영 권미경 이혜승 김미경 조경선 김영기 서보선
김선자 이옥희 소병무 소미숙 이두희 이진희 이일연
서성원 김태훈 한영숙 이재영 조성희 Kimi Lee,
Sara Im, Kenny Park, Tina Kim, Heidi Kang 이경림
케시리 박장희 심경아(42명)

<유아세례>

임병협 강다현 최선하 김찬미 안세라 현재명 계민정
이주경 방종현 강지현 이찬의 오태윤 한수정 이성원
박아름 김진수 김연수 제니퍼소, Josephin Park
Deborah Park 임상석 임우석(22명)

2.추계 (11/25/90)

<세례>

최준희 전신혜 이효경 박선호 노영조 장경운 김영애
도은주 최희진 오재영 최수정 민승기 김태훈 진수진
남상천 김행진 신동순 신용순 박범진 이두영 남애숙
이영희 홍성태 홍재희 김은정 허상복 홍은옥 홍창희
지인자 김선자 조경선 윤경자 김지숙 김윤숙 최종열
김연오 이종택 이길자 천장미 천영민 최차석 엄한신
윤크리스티나 김상준 이세나 전경희 표미애 임남진
이명지(50명)

<유아세례>

장캐롤라인 김지희 윤이삭 김테드 김기주 조병미
천용 임희성 황에스더 박벤자민 안동선 안미선
강사랑 백용준 장보문 장재호 최수진 최유진 정현준
와타나판크리스 박성원 최지민 신성훈 허현경(24명)

1991년

1.춘계 (4/7/91)

<세례> 39명

임상우 심재광 김현희 유희숙 조의성 조혜순 이의명
유현경 이주선 윤재연 노광택 김영순 이효준 최성림
박미보 김정운 이윤종 전지희 이남훈 이장호 이현주
정민경 조성현 임연 임제니 피터김 이효성 이문숙
최종호 최종현 전정희 신태호 이동호 이두호 윤연숙
최승현 최인숙 정원용 이화성

<유아세례> 18명

정유미 조셉최 박사라 이진경 박희수 이명희 서동혁
임규희 김임경 염지수 이나래 이나영 박향기 성혜원
한만억 신민영 송지현 정아영

2.추계 (11/24/91)

<세례> 20명

이춘근 임미자 한신귀 한종수 현소은 김명숙 노현호
박봉우 박귀종 안수경 안병태 이준자 진미자 이위숙
홍지희 서윤채 김영숙 엄숭현 엄현국 정재윤

<유아세례> 9명

송낙천 송미영 이준 박태미 김은정 강문정 박여호수아
권혁진 이진건

1992년

1.춘계 (4/12/92)

<세례> 33명

강승연 김석명 박승자 조명환 조혜봉 강봉순 강윤희
강앨리스 구자경 김남이 김미숙 김미자 김수진 김순이
김재천 김희춘 박경희 박소연 서경숙 신수진 안의식
양귀종 오천근 이금돌 이종련 임명화 김수진 김인규
박대우 임수경 조명희 차정화 최윤진

<유아세례> 17명

송승배 오미혜 이용원 강원철 박천하 방종혜 임병진
김영아 박빈 박준 성예나 엄준애 유지성 정책클린
차루카스 홍지민 홍지영

2.추계 (11/8/92)

-명단 없음-

1993년

춘계 (4/11/93)
추계 (11/14/93)

1994년

춘계 (3/27/94)
추계 (11/6/94)

1995년

춘계 (4/2/95)
추계 (11/5/95)

1996년

1.춘계 (3/24/96)
2.추계 (11/10/96)

<세례>

이준서 배순완 배현정 유경상 이옥련 김윤희 정훈
유순자 도은주 박경애 곽재혁 김선숙 (12명)

<유아세례>

박세형 배상준 배소연 정은진 고범석 노예슬 이승주
이승욱 김건식 박세준 Hae Ran Hong-Tucker
황도형 이현민 김소영 강다예 (15명)

1997년

1.춘계 (3/16/97)

<세례>

박귀임 박건웅 김재점 안성옥 이병례 김나영 김혜정 전소영 이민선 이영선 정성호 한상문 현하나 한기주 민태경 김채순 John D. Gimbert (17명)

<유아세례>

김주희 방진우 정예진 배영민 한지영 김은성 한형민 한승혁 최선용 (9명)

2.추계 (11/2/97)

<세례>

김창규 김옥진 탁남례 곽윤기 곽삼순 박옥희 이지연 김종호 이재니 정재화 강자순 David Youn (12명)

<유아세례>

Kevin Kong 손기훈 김하늘 (3명)

1998년

1.춘계 (3/29/95)

<세례>

윤상혁 이상건 유창호 왕영혜 Kimberly Dunfee Richard Dunfee 박지수 정해욱 정숙기 이혜진 차혜숙 김윤분 박기현 조광범 백혜자 (15명)

<유아세례>

김정인 이슬기 김단비 김정우 구하은 김하영 목예린 김예지 공유미 이충헌 이정훈 김주희 (12명)

2.추계 (11/8/98)

<세례>

김동균 김지선 최영자 주우인 케서린김 김규진 안재인 윤인호 윤경희 폴박 쥴리김 제니퍼전 린다양 박창환 김기혁 (15명)

<유아세례>

Madeleine Hae-jin Hong-Tucker 이성우 김은민 인준환 주 윤 김예나 강산하 김은지 조하영 김하영 (10명)

1999년

1.춘계 (3/21/99)

<세례>

Sandra Baik 김정욱 전수열 지상문 최상열 김우리 이채린 최미진 서정민 황정미 김은미 윤정식 박영수 신은석 (14명)

<유아세례>

허 철 한예진 김요셉 조 진 정예나 홍지선 김주아 주예지 (8명)

2.추계 (11/7/99)

<세례>

김범식 최순남 강은정 Jennifer Kim 서영학 서능자 임정자 (7명)

<유아세례>

김현정 배진우 윤영선 김하선 박지은 (5명)

2000년

1.춘계 (4/2/00)

<세례>

안영옥 이기창 박희성 박병수 박기순 강자혜 강태수 김숙희 강호운 (9명)

<유아세례>

송낙현 방유진 김소망 오에스더 최지윤 홍강인 강성훈 노승민 정예일 강형묵 김효성 박종원 김고은 엘리어트김 김선홍 (15명)

2.추계 (11/5/00)

<세례>

윤옥진 조복애 박삼규 최경호 라수련 박금자 백점예 서동진 이영나 이윤인 (10명)

<유아세례>

신진아 이해나 정준영 김민지 김예은 김주원 문원호 김예희 유지나 최예진 (10명)

2001년

1.춘계 (4/1/01)

<세례>

강윤아 고영근 김재진 박흥식 손법지 오희수 이귀이 이상훈 이순복 이순자 이인호 한경희 김도연 김령회 김혜진 박창수 백정숙 백현민 오경호 최성필 최옥분 장의승 (22명)

<유아세례>

Jasmin Kim, Joshua J. Kim, Jason D. Kim, Jonathan Kim, Shaun Park, Joshua Pyo (6명)

2.추계 (11/4/01)

<세례>

허정미 정현주 진형석 유순신 변정녀 박창숙 (6명)

<유아세례>

박준수 강재석 황지혜 이진수 이은수 양갈렙 정성남 박효은 (8명)

연도별 교인 출석 집계표 (매월 11월말 기준)

	장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쥬빌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어와나	한국학교	소망부	영어사역부	총 계
1970	107			49												156
1971	161			48					23							232
1972	182			65					25							272
1973	306			96					48							450
1974	374			114					40							528
1975	470			116					38							624
1976	491			118					58							667
1977	587			225					43							855
1978	636			243					99							978
1979	750			380					105	55						1,290
1980	1,002			450					160	50						1,662
1981	1,350			540					195	70						2,155
1982	1,513			620					255	70						2,558
1983	1,550			620					290	105						2,565
1984	1,800			680					290	115						2,885
1985	1,999			705					345	78						3,128
1986	2,116			950					403	95						3,564
1987	2,245			820					375	145						3,585
1988	2,440			930					425	190						3,985
1989	2,550			979					391	241						4,161
1990	2,988			1,426					478	256						5,148
1991	2,539			753					429	184				17		3,922
1992	2,659			991					491	155				14		4,310
1993	2,683			758					377	140				15		3,973
1994	3,265			681					295	109	110	188	450	11		5,109
1995	2,786	67	94	155	177	195	73		457	88	105	131	250	22	112	4,712
1996	2,445	37	89	137	164	193	75		425	88	138	122	454	19	84	4,470
1997	2,563	41	93	145	171	190	61		460	150	149	180	430	19	105	4,757
1998	2,132	43	62	112	152	160	120		380	85	117	160	340	18	135	4,016
1999	2,185	45	50	75	90	124	118	100	358	76	136	155	257	25	153	3,947
2000	2,004	48	52	65	98	133	130	50	272	74	108	120	258	19	103	3,534
2001	1,897	44	50	62	85	103	115	50	281	68	72	77	293	23	103	3,323

연도별 교역자 및 제직 증감표

(매년 11월말 기준)

	목사				당회원	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총제직
	담임	원로	목사	협동		시무	원로	사역	협동	휴무	풀타임	파트타임	시무	협동	안수	협동	남집사	여집사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	1	3	1	11	10					1	3	20	5			106	117	268
1980	1	1	3	1	16	14			2		1	3	23	5	17		120	125	317
1981	1	1	5	1	16	14			2		1	3	24	12	24		125	154	367
1982	1		8			20			12		1	3	16	37	36		141	232	501
1983	1	1	8	1	30	23			11		4		38	18	37		172	243	557
1984	1	1	7	2	34	29	1		11		8		41	27	36		193	289	682
1985	1	1	8	2	40	34	1		13		7		48	38	44		205	344	750
1986																			
1987	1	1	7	2	46	39	2		14		10		56	39	44		237	384	882
1988	1	1	7	1	52	46	2		17		19		67	52	68		317	518	1,116
1989	1	1	7	1	52	46	2		19		21		73	64	81		350	579	1,168
1990	1	2	8	1	61	51	3		15			22	89	79	98		366	646	1,442
1991		2	5		40	34	1		16		2	21	66	45	69	14	593	633	1,502
1992		2	6	2	42	37	2		10		2	21	66	20	69	8	517	524	1,523
1993	1	2	7	2	37	32	2		21		5	13	107	63	82	11	463	647	1,495
1994	1	1	6	1	32	30	2		19		5	11	105	63	82	11	461	638	1,440
1995	1	1	7	1	30	29	5		19		4	10	115	86	103	10	470	684	1,537
1996																			
1997	1	1	8		22	22	4		17		3	10	117	54	97	10	302	460	1,128
1998		1	6		21	21	4		14		3	13	127	68	113	12	309	490	1,203
1999		1	6		21	21	5		14	(공로1)	4	13	127	68	113	12	309	490	1,203
2000		1	8		18	18	10	10	12	1	3	12	135	64	101	11	335	560	1,300
2001	1	1	9		14	14	9	15	10	2	2	12	215	2	108	11	312	497	1,223

교회 재산 현황 (2002년 1월 기준)

위 치	주 소	대 지	건 평
본당 (교회대지 및 건물)	424 N. Western Ave.,	57,050 Sq.ft	24,020 Sq.ft
제1교육관	452 N. Western Ave.,	14,101 Sq.ft	39,600 Sq.ft
제 2교육관 (제 2주차장)	456-466 N. Western Ave.,	14,000 Sq.ft	11,000 Sq.ft
새신자용주차장 (제 4주차장)	431-433 N. Oxford Ave.,	6,980 Sq.ft	
제 3주차장	470 N. Western Ave.,	7,540 Sq.ft	
제 5주차장	4705 & 4709 Elmwood Ave.,	14,500 Sq.ft	
제 6주차장	4651/53/55/57 Oakwood Ave.,	7,763 Sq.ft	
제 7주차장	417 N. Oxford Ave.,	6,750 Sq.ft	
제 8주차장	413 N. Oxford Ave.,	6,750 Sq.ft	
제 9주차장	469 N. Oxford Ave.,	6,750 Sq.ft	
제10주차장	415 N. Oxford Ave.,	6,750 Sq.ft	
제11주차장	407-417 N. Oxford Ave.,	24,000 Sq.ft	
Grace Apt.	423-427 N. Oxford Ave.,	6,221 Sq.ft	17,954 Sq.ft
샌디에고 지교회	1331 S. Orange St., Escondido	7,800 Sq.ft	
교회 전체 소유 면적		229,664 Sq.ft	92,574 Sq.ft

연도별 예산 및 실적

	예 산($)	증가율 (%)	실 적($)	증가율 (%)	실적율 (%)
1970	–	–	–	–	–
1971	15,000	–	10,000	–	66.7
1972	20,000	33.3	55,323	453.2	276.6
1973	48,400	142.0	70,000	26.5	144.6
1974	55,000	13.6	78,654	40.9	179.4
1975	118,400	11.5	134,594	36.4	113.7
1976	168,800	11.8	148,212	10.1	87.8
1977	200,000	18.4	192,522	29.9	96.2
1978	300,000	50.0	274,447	42.6	91.5
1979	374,400	24.8	416,087	51.6	111.1
1980	499,000	37.4	650,000	56.2	130.2
1981	675,730	35.4	678,606	4.4	100.4
1982	1,032,533	52.8	942,855	38.9	91.3
1983	1,156,400	12.0	1,004,647	6.5	86.9
1984	1,393,110	20.5	1,242,900	23.7	89.2
1985	1,636,000	17.4	1,463,712	17.8	89.5
1986	1,713,000,	4.7	1,500,153	2.8	86.6
1987	2,080,000	20.1	1,918,600	27.9	92.0
1988	2,853,000	37.2	2,658,100	24.1	93.2
1989	3,790,000	30.0	3,297,000	24.0	88.9
1990	4,080,000	10.0	3,759,600	13.8	92.0
1991	4,630,000	13.5	3,146,990	– 16.7	67.5
1992	4,110,000	– 10.0	3,300,000	10.1	80.3
1993	3,735,000	– 9.1	3,041,600	– 8.6	80.7
1994	4,032,000	8.0	3,069,000	2.8	76.1
1995	4,100,000	2.0	3,171,300	3.3	76.0
1996	4,250,000	3.6	3,259,000	2.8	76.7
1997	3,600,000	– 15.3	3,270,555	0.4	90.8
1998	3,750,000	4.1	2,957,888	– 9.1	78.9
1999	3,900,000	3.9	2,940,732	– 0.6	75.4
2000	4,000,000	2.5	2,937,677	– 0.2	73.4
2001	4,100,000	2.5	2,915,669	– 0.7	71.1

선교, 교육 예산 및 실적 집계

	선 교 부			교 육 부		
	예 산($)	실 적($)	달성율(%)	예 산($)	실 적($)	달성율(%)
1979	58,260	50,511	86.7	32,051	32,896	102.8
1980	65,740	64,249	97.7	68,480	43,227	63.1
1981	95,840	109,367	114.1	78,630	69,075	87.8
1982	104,300	129,000	123.7	98,400	90,272	91.7
1983	146,200	176,408	120.7	168,800	136,594	80.9
1984	208,200	213,870	102.8	218,460	152,481	69.8
1985	284,600	288,245	101.3	240,400	142,564	59.3
1986	266,200	291,446	109.5	187,600	141,186	75.3
1987	308,000	293,829	95.4	200,500	161,013	80.3
1988	384,300	397,686	104.0	200,300	205,332	103.0
1989	435,600	472,112	108.4	324,000	274,107	84.6
1990	535,600	488,090	91.2	372,000	274,329	73.7
1991	570,000	441,167	77.4	410,000	268,610	65.5
1992	380,100	334,959	88.1	471,800	435,517	92.3
1993	450,000	449,031	99.8	320,000	270,930	84.7
1994	469,000	447,216	95.4	332,600	239,820	72.1
1995	524,000	444,637	84.9	304,440	200,330	65.8
1996	592,400	462,881	78.1	383,500	257,719	67.2
1997	451,800	416,469	92.2	321,700	228,401	71.0
1998	463,600	400,510	86.4	330,000	221,830	67.2
1999	475,400	404,325	85.0	574,200	407,305	70.9
2000	495,200	446,465	90.2	324,200	248,212	76.6
2001	513,200	471,200	91.8	329,800	212,349	64.4

연도별 각 선교회 임원 명단

1970년 11월 8일

1. 부인회
   회장: 명순봉 부회장: 하애도 총무: 원숙현
   서기: 오 에스더 회계: 오상숙

1970년 12월 6일

1. 청년회
   회장: 장동환 부회장: 김익자 총무: 명호순
   서기: 이성원 회계: 강대윤

1971년

1. 부인회
   회장: 김병숙 부회장: 김상옥 총무: 김재숙
   서기: 오 에스더 회계: 오상숙
1. 청년회
   회장: 장동환 부회장: 유천근, 김익자
   총무: 노수정 서기: 이성원 회계: 강선희

1972년

1. 부인회
   회장: 김상옥 부회장: 손소봉 총무: 김재숙
   서기: 김영희 회계: 백영자
2. 청년회
   회장: 김준호 부회장: 정영석, 김향숙
   총무: 오철훈 서기: 김영애 회계: 명호순

1973년

1. 부인회
   회장: 김재숙 부회장: 김경순 총무: 오상숙
2. 청년회
   회장: 오철훈 부회장: 김명균, 김향숙
   총무: 조성신 회계 명호순 서기: 조인식

1974년

1. 여전도회
   회장: 김은신 부회장: 김재숙 총무: 박영자
   서기: 오상숙 회계: 김희숙
2.청년회
   회장: 김명균 부회장: 이성천, 이승숙

1975년

1. 여전도회
   회장: 박현숙 부회장: 오상숙 총무: 김희숙
   서기: 김송실 회계: 성인호

1976년

1. 장년회
   회장: 조영근 부회장: 홍순웅 총무기획:김중완
   서부회계: 온수복
2. 여전도회
   회장: 이득애 부회장: 김희숙 총무: 최경남
   서기: 한정현 회계: 성인호

1977년

1. 장년회 (10/23/77)
   회장: 홍순웅 부회장: 김봉한
2. 여전도회
   회장: 한정현 부회장: 홍순주 서기: 함순화
   회계: 신숙자
3. 청년회
   회장: 김동규 부회장: 조규철, 오용애

1979년

1. 나사렛 청년회–1979.9월에 첫모임
   지도목사: 송정명
   회장: 강성환 부회장: 조보린 총무: 김인승
   회계: 금태숙
2. 청년회(회원수 : 60명)
   지도목사: 송정명
   회장: 최만삼 부회장: 박승원, 조지현
   서기: 조병현 회계 조병희
3. 에스더 여전도회(회원수: 40명)
   회장: 김희숙 부회장: 김재숙 총무: 오순자
   서기: 김정주 회계: 편애진
4. 한나 여전도회 (회원수: 55명) – 1979.2.15 분리
   고문: 이기홍목사
   회장: 한정현 부회장: 최경자 총무: 오천란
   서기: 임재순 회계: 성인호
5. 여호수아 남전도회(회원수: 35명) – 1979.9.16 창립
   고문: 이기홍목사
   회장: 오철훈 부회장: 황재룡 총무: 노수정
   서기: 박형건 회계: 김광돈
6. 모세 남전도회(회원수 30명)
   고문: 이천영목사, 박용장목사, 오해훈, 조영근
   회장: 홍순웅 부회장: 김봉한 총무: 강영구
   서기: 탁찬효 회계: 김중완
7. 간호원회(회원수: 55명) – 1979.6월 창립
   회장: 성인호 부회장: 신수잔 총무: 김영애
   서기: 윤공순 회계: 변순자
8. 상락회(회원수: 30명) – 1979.12.23 창립
   고문: 이기홍목사, 김몽학장로
   회장: 이천영목사
   부회장: 오태상목사

1980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 목사:송정명
   회장:강성환 부회장:조보린 총무:김인승
   회계:금태숙

2. 갈릴리 청년회
회장:김영재 부회장:조병헌 총무:박승원
서기:김금순 회계:김선혜
3. 에스더 여전도회(회원 수: 45명)
회장:김희숙 부회장:김재숙 총무:오순자
서기:이성호 회계:정중수
4. 한나 여전도회(회원 수: 60명)
회장:오순명 부회장:최경자 총무:권옥엽
서기:헬렌 켈리 회계:성인호
5. 여호수아 남전도회(회원 수: 40명)
고문:이기홍목사
회장:오철훈 부회장:황재륭 총무:노수정
서기:박형권 회계:김광돈
6. 모세 남전도회(회원 수: 31명)
고문:이천영목사
회장:김몽학 부회장:강영구 총무:김봉한
서기:신윤철 회계:유문규
7. 간호원회
회장:성인호 부회장:신수잔 총무:김영애
서기:김공순 회계:변순자
8. 상락회
고문:이기홍목사, 김몽학장로
회장:이천영목사 부회장:오태상목사, 하애도
총무:허심 회계:이항순

1981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 목사:송정명
회장:강성환 부회장:조보린 총무:김인승
회계:금태숙
2. 갈릴리 청년회
회장:임승광 부회장:김치용 총무:박영철
서기:김진봉 회계:박영규
3. 에스더 여전도회(회원 수: 45명)
회장:김희숙 부회장:탁매자 총무:김정주
서기:이성호 회계:오순자
4. 한나 여전도회(회원 수: 60명)
회장:오순명 부회장:권옥엽 총무:오천란
서기:헬렌 켈리 회계:김성심
5. 여호수아 남전도회(회원 수: 40명)
고문:이재권, 오철훈, 김재권, 김병곤장로
회장:정해선 부회장:노수정 총무:전송택
서기:정만혁 회계:박형건
6. 모세 남전도회(회원 수: 31명)
고문:
회장:조웅래 부회장:김중완 총무:신윤철
서기:주은 회계:온성철
7. 간호원회
회장:신수잔 부회장: 총무:김영애
서기:윤공순 회계:하순희
8. 상락회
고문:이기홍목사
회장:이천영목사 부회장:오태상 목사, 하애도
총무:허심 회계:김병숙, 윤혜자

1982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 목사:안용식
회장:김인승 회계:김혜경
2. 갈릴리 청년회
회장:박승원 부회장:황규일 총무:조병헌
서기:김선혜 회계:조병희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이성호 서기:김정주 회계:오순자
4. 한나 여전도회
회장:권옥엽
5.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장:백형권 부회장:조규철 총무:정우선
서기:정만혁 회계:박형건
6. 모세 남전도회
회장:박계로 부회장:김중완 총무:신윤철
서기:유문규 회계:온성철
7. 간호원회(회원수: 30명)
지도목사: 오태상목사
회장:신수잔 총무:김영애 서기:윤공순
8. 상락회(회원수: 80명)
회장:이천영목사 부회장:오태상목사
총무:허심 회계:김병숙

1983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 목사:안용식
회장:민경혁 부회장:김은희 총무:이태종
서기:최교희 회계:한부열
2. 갈릴리 청년회
회장:조병헌 부회장:엄창웅 총무:윤영고
서기:박승원 회계:김선혜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노영자 서기:김정주 총무:조지현
서기:이문자, 박행자
회계:최명숙, 오순자
4. 한나 여전도회
회장: 권옥엽 부회장:신무희 총무:복희슬로운
서기:헬렌켈리 회계:박경애
5. 여호수아 남전도회: 고문: 이재권 오철훈 김병곤
회장:김동규 부회장:황재륭 총무:이원열
6. 모세 남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7. 상락회
회장:김중완 부회장:신윤철 총무:온성철
서기:유문규 회계:조상희

1984년

1. 나사렛 청년회
회장:김수영 부회장:박신미 총무:김석훈
회계:노선용 서기:한부연(84년자료)

회장:임승표 부회장:노선용 총무:스티브하
회계:정애경 서기:박훈실(85년자료)

2. 갈릴리 청년회
회장:윤영교 부회장:홍성호 총무:김인승
서기:현용규 회계:유옥숙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노영자 부회장:강은희 총무:이영덕
서기:이문자 회계: 김미영

4. 한나 여전도회
회장:신무희 부회장:복희슬로운
총무:조동희 서기: 헬렌켈리 회계:박경애

5. 사라 여전도회(회원수: 56명)
회장:오순명 부회장:최용숙 총무:원준옥
서기:함정희 회계:김성심

6.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장:현용수 부회장:조인식 총무:장진
서기:조영일 회계:박형건

7. 모세 남전도회
회장:방조영 부회장:탁찬호 총무:백형권
서기:백영두 회계:조상희
간사: 정문섭, 김용일, 유문규. 온성철, 윤경민, 이근무

8. 상락회
지도목사:임병택 고문: 이천영 오태상
회장:최경호 부회장:이옥엽 하애도
총무:박채련 서기:이득애
회계:김병숙(김현숙)

1985년

1. 나사렛 청년회
고문목사: 송정명
회장:스티브하 부회장:이형인
회계:방수잔(85년당회자료)
회장: 부회장:최미경 총무:허윤수
서기:이귀연 회계:이명연(86년당회자료)

2. 갈릴리 청년회
회장:한승수 부회장:김인승 총무:임승천
서기:오상헌 회계:윤진영(85년당회자료)
회장:윤영교 부회장:홍성호 총무:김인승
서기:현용규 회계:유옥순(86년당회자료)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안복희 부회장:백미섭 총무:조병희
서기:심순희 회계:조지현

4. 한나 여전도회
회장:신무희 부회장:조동희 총무:오상숙
서기:헬렌켈리 회계:박경애

5. 사라 여전도회
회장:오순명 부회장:최용숙 총무:원준옥
서기:함정희 회계:김성심(86년당회자료)

6.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장:장진 부회장:이고명 총무:조영일
서기:김창하 회계:박형건

7. 모세 남전도회
회장:신윤철 부회장:신상우 총무:백영두
서기:조정현 회계:탁찬효
간사:정문섭,온성철,유문규,김용일,이동우,임진수, 백형권,홍성환,윤경민,김찬규

8. 간호원회
회장:성인호 부회장: 김영애 총무: 김순열

9. 상락회
고문: 이천영 오태상 임재순
회장:김병숙 부회장:하애도, 이득애
총무:박경자 서기:이경옥 회계:진선희
(86년당회자료)

1986년

1. 나사렛 청년회
고문목사: 이중용
회장:이성식 부회장:최미경(86년당회자료)
<87년당회자료>
지도목사: 강신욱(상반기), 채현철(하반기)
고문장로: 김석환 전도사: 최진기
상반기 회장:이성식 부회장:최미경
총무:김홍기 회계:김정희 서기:장문자
하반기 회장:허윤 부회장:길옥빈, 정애경
총무:스테반하, 이진수 회계:이지희, 배경애
서기:심상태, 김정희

2. 갈릴리 청년회
회장:김인승 부회장:이종흠 총무:오상천
서기:유광열 회계:강은희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이문자 부회장:조지현 총무:이혜숙
서기:심순희 회계:박행자

4. 한나 여전도회
회장:조동희 부회장:오상숙 총무:김옥자
서기:박옥 회계:장춘호(87년당회자료)

5. 사라 여전도회
회장:오순명 부회장:권옥엽 총무:원준옥
서기:함정희 회계:김성심(87년당회자료)

6.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장:엄문섭 부회장:조영일, 김성곤
총무:이호남 서기:김창하 회계:제임스박

7. 모세 남전도회
회장:온성철 부회장:조상희 총무:백영두
서기:이영이 회계:탁찬효(87년당회자료)

8. 간호원회
회장:성인호 부회장: 김영애 총무: 김순열

9. 남상락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1987년

1. 나사렛 청년회
고문목사: 이중용
회장:이성식 부회장:최미경

2. 갈릴리 청년회
회장:임승천 부회장:이도원

3.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4. 한나 여선교회
회장:조동희 부회장:오영희 총무:박옥
서기:노영자 회계:장춘호(88년당회자료)
5. 사라 여선교회
6. 여호수아 남선교회
회장:조영일 부회장:이호남 김창하
총무:엄문섭 서기:이광휘 회계:제임스박
7. 모세 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8. 간호원회
회장:성인호 부회장: 김영애 총무: 김순열
9. 상락 여 선교회
지도목사: 임병택 간사
고문: 임재순, 오남조, 오순명, 김재순
회장: 김병숙 부회장: 이득애, 하애도
회계: 김성심 서기: 강순남 총무: 박경자
(88년당회자료)
9. 상락회
고문: 이천영, 임재순, 임병택
회장:김병숙 부회장:이득애, 하애도
총무:박경자, 박완순 회계:진선희, 박확실
서기:이경옥, 이종림
감사: 임재순, 임병택(87년당회자료)
10. 상락 남 선교회-1988년 자료
지도목사:임병택목사
회장:이정식 부회장:심신경 임응율 허심
총무: 한부일 서기:공덕봉 회계:한부일

1988년

1. 나사렛 청년회
고문목사:안용식 부장장로:김석환 전도사: 이태종
회장:스테판하 부회장:김양수 신진숙
총무:심상태 서기:김정희 회계:Warren 윤
2. 갈릴리 청년회
고문목사:안용식
회장:이종홈
총무부장: 임승천 내무부장: 김인승
사업부장:정병모 신앙부장:오기열
3. 에스더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4. 한나 여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5. 사라 여전도회
회장:권옥엽 부회장:복희슬로운, 헬렌켈리
총무:정인규 회계:김영숙 서기:백희옥
6. 여호수아 남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7. 모세 제1남선교회
회장:신상우 부회장:장희수 총무:김중완
서기:김종성 회계:임진수
8. 모세 제2남선교회
회장:김광돈 부회장:이병주 총무:진병엽
서기:이성은 회계:이영이
8. 간호원회
회장:성인호 부회장: 김영애 총무: 김순열
9. 상락 여 선교회: 고문: 임재숙, 김병숙
회장:오순명 부회장:이득애, 진선희
총무:최용숙 서기:강순남 회계:김성심
10. 상락 남 선교회:
회장:심신경 부회장:임응율, 한부일
총무:한부일 회계:김금석 서기:한부일
11. 의사선교회: 고문목사: 임동선 지도목사: 조갑수
회장:조정현 부회장:장문석 회계:김홍일
총무:한승수

1989년

1. 나사렛 청년부
지도목사:안용식
전도사:이태종 부장장로:김석환
회장:김양수 부회장:송석주, 방수잔
총무:김삼열 서기:황보정애
회계:데비드정, 수잔나김
2. 가나 청년회
지도목사:안용식
전도사:이태종 부장:김석환
회장:임승표 부회장:유희범
총무:허윤 교육부장:송기출
섭외부장:이성식
3. 갈릴리 청년회
지도목사:안용식
고문:김석환
회장:이종홈 총무부장:임승천
내무부장:김인승 사업부장:강모세
신앙부장:오기열
4. 여호수아 남 선교회
지도목사:송정명
회장:이호남 부회장:김창하 이광휘
총무:이조 서기:이기성 회계:김충일
5. 에스더 여 선교회
6. 제2모세 남 선교회
회장:김광돈 부회장:이병주 총무:진병엽
서기:이성은 회계:이영이
7. 한나 여 선교회
회장:김옥자 부회장:김희숙 총무:노영자
서기:박옥, 온진환
회계:백미섭, 오순자
8. 사라 여 선교회
회장:권옥엽 부회장:복희슬로운
총무:정인규 서기:백희옥 회계:김영숙
9. 상락 남 선교회: 지도목사: 임병택 고문: 이천영
회장:심신경 부회장:오수남 총무:임응률

서기:최경호　회계:김응현
10. 상락 여 선교회
고문: 임재순, 김병숙
회장:오순명　부회장:이득애, 진선희
총무:최용숙　서기:강순남　회계:김성심

1990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목사:안용식
전도사:이태종　부장장로:김석환
회장:박제환　부회장:Sam임 Monica남궁
총무:김영삼　부총무:Douglas장
서기:김정환 김선영
회계:인명애 박지혜
2. 가나 청년회
회장:스태판 하　부회장:김재훈　총무:강순곤
회계:수잔나 김
3. 갈릴리 청년회
지도목사:안용식
부장장로:김석환
회장:김삼열　총무:김양수
4. 디모데 남선교회
회장:주창국　부회장: 엄창웅 김경수
총무:이기성　서기:조병헌　회계:오상헌
5. 여호수아 남선교회
회장:이기성　부회장:이종대 김충일
총무:신재권　서기:채홍인　회계:이덕주
6. 바울 남선교회
회장:노수정　부회장:이영이　총무:조영일
부총무:진병엽　서기:한동열　부서기:도무삼
회계:이병호　부회계:이병인
7. 모세 남선교회
회장:조정현　부회장:홍성환　총무:이병주
부총무:김창무　서기:진병엽　부서기:신봉균
회계:정봉모　부회계:신명희
8. 에녹 남선교회
회장:온성철　부회장:이찬봉　총무:김상정
부총무:임헌권　서기:오석희　회계:이종용
9. 상락 남선교회
회장:오수남　부회장:최경호 황명준
서기:이범수　부서기:이동규
회계: 김영호　부회계:이석현
총무:남왈희　부총무:김금석
10.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정영희　부회장:김영실　총무:박진홍
부총무:도근희　서기:이청자　부서기:이경희
회계:추영임　부회계:유영숙
11. 한나 여선교회
회장:오상숙　부회장:백미섭　총무:박 옥
서기:백명원　부서기:박경애
회계:오순자　부회계:김희숙
12. 사라 여선교회
회장:복희슬로운　부회장:정인규
총무:문순남　서기:백희옥　부서기:이덕순
회계:김영숙　부회계:조정간
13. 상락 여선교회
고문:임재순 김병숙
회장:오순명　부회장:이득애 진선희
총무:최용숙　부총무:변봉실
서기:강순남　부서기:이경옥
회계:김성심　부회계:박영애

1991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목사:황재룡
전도사:정성훈　부장장로:김석환
회장:강문종　부회장:안태준 황경숙
총무:김경환　부총무:원정제
서기:김길식　부서기:강미경　회계:이미경
2. 가나 청년회
회장:이무곤　부회장:박준　총무:공강국
3. 갈릴리 청년회
회장:강순곤　부회장:김양수　총무:이창석
4. 디모데 선교회
회장:유정현　부회장:이기성 이재진
총무:박태은　서기:박창국　회계:안용대
5. 여호수아 선교회
회장:김충일　부회장:신재권　총무:박정수
회계:채홍인　서기:김종준
6. 바울 선교회
회장:장 진　부회장:조영일 김세웅
총무:조영일　부총무:민병용
서기:제임스박　부서기:김대호　회계:이 조
7. 모세 선교회
회장:김용일　총무:이창석　부총무:이병주
서기:한긍리　부서기:진병엽　회계:한긍리
부회계:정봉모
8. 에녹 선교회
회장:김상정　부회장:임헌권　총무:이종용
부총무:오석희　서기:채승희　부서기:지금섭
회계:박창영
9. 상락 남선교회
회장:최경호　총무:박인옥　회계:문정모
10. 사라 선교회
회장:백희옥　부회장:정인규　총무:김진숙
서기:문순남　부서기:조현희　회계:조정간
부회계:김영숙
11. 상락 여선교회
고문:임재순 김병숙
지도목사:차재완
회장:오순명　부회장:이득애 진선희
총무:최용숙　부총무:변봉실　서기:강순남
부서기:이경옥　회계:김성심　부회계:박영애

1992년

1. 나사렛 청년회
   교역자:조갑수 정성운
   부장:노성찬　차장:김양수
   회장:원정재　부회장:장덕양 김현정
   회계:김경미　서기:오혜균 오미경
2. 가나 갈릴리 청년회
   지도목사:황재릉
   부장장로:김석환
   회장:강 찬　부회장:박병철, 권미경
   총무:김재훈　서기:이사화
   회계:조기화, 이헬렌
3.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오상헌　부회장:박태은 김인승
   총무:박창문　회계:이장연　서기:김삼열
4.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목사:안용식
   회장:박정수　부회장:채홍인 이영세
   총무:임승광　부총무:한영길
   서기:노훈조　부서기:이준홍　회계:이명진
   부회계:김진호
5. 바울 선교회
   회장:조영일　부회장:이 조 오윤화
   총무:김창하　부총무:유영종
   서기:박제임스　부서기:박 영　회계:최창진
6. 모세 선교회
   회장:백영두　부회장:진병엽　총무:이병주
   부총무:이창석　서기:김성용　부서기:이영이
   회계:김영욱　부회계:한긍리
7. 에녹 선교회
   회장:노재희　부회장:채승희　총무:이종용
   부총무:오석희　서기:박창영　부서기:김세영
   회계: 임헌권
8. 상락 남선교회
   회장:조웅래　부회장:박만영 남왈희
   회계:문정모
9. 한나 여선교회
   회장:박 옥　부회장:오영희　총무:노영자
   부총무:김영애　회계:남상인　부회계:현정희
   서기:장영자　부서기;신수잔
10. 리브가 여선교회
   회장:한정현　부회장:박경애　총무:정연숙
   회계:이인숙　부회계:홍송자
   서기:정춘호　부서기:백명원
11. 의사 선교회
   회장:한승수　부회장:곽건준　총무:이국한
   회계:강모세

1993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목사:조갑수
   회장:장덕양　부회장:이명원 김현정
   총무:황승희　부총무:전성수
   서기:김미정　부서기:김의숙
   회계:김현희 이미애
4. 가나 갈릴리 청년회
   지도목사:전길성
   회장:박준영　부회장:이사화 노남희
   총무:권헌주　회계서기:이영미
5.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엄창웅　부회장:박창문 김동원
   총무:김두환　회계:강모세　서기:배영하
6.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목사:안용식
   회장:임승광　부회장:이명진 김진호
   총무:한영길　부총무:양학봉
   서기:현연섭　부서기:박정언
   회계:이두영　부회계:공윤준
7. 바울 선교회
   지도목사:임성진
   회장:오윤화　부회장:이재현 김세웅
   총무:윤효진　부총무:윤경호
   서기:정영식　회계:한동열
8. 모세 선교회
   지도목사:정운철
   회장:장 진　부회장:이병주　총무:민병득
   부총무:이창석　서기:한춘석　부서기:이영이
   회계:김성용　부회계:김영욱
9. 에녹 선교회
   지도목사:조갑수
   회장:신윤철　부회장:이종용　총무:박창영
   부총무:송기봉　서기:채승희　부서기:문정현
   회계:김용기
10. 상락 남선교회
   고문:임동선 최경호 이정배
   지도목사:황재릉
   회장:조웅래　부회장:강영리 정한석
   총무:안성규　부총무:김웅현
   서기:오광찬　부서기:남준희
   회계:문정모　부회계:김용호
11. 에스더 선교회
   지도목사:황재릉
   고문:안미원　회장:김복순　부회장:이양미
   총무:김순열　부총무:이크리스틴
   서기:박금정　부서기:강승혜　회계:전은희
   부회계:김영숙
12.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온진환　부회장:김영애　총무:이영덕
   부총무:김축환　서기:김춘혜　부서기:신수잔
   회계:조민자　부회계:박영자
13. 리브가 선교회
   지도목사:노창수
   회장:김제숙　부회장:백명원　총무:김옥자
   서기:장춘오　부서기:김명려　회계:이인숙
   부회계:홍송자

14.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송창현
    회장:정인규　부회장:조현희　총무:김인광
    서기:문순남　부서기:이덕순　회계:조정간
    부회계:김영숙
15. 상락 여선교회
    지도목사:안용식
    고문:임재순 석쏘니아
    회장:김병숙　부회장:최용숙 전성실
    총무:장례옥　서기:함정희　부서기:서대복
    회계:한정순　부회계:김계자 강순례
16. 의사 선교회
    회장:곽건준　부회장:김동규　총무:황선호
    회계:강모세
17. 체육 선교회
    회장:한긍리　부회장:엄창웅 강모세
    총무:김두한　서기:한태환
    회계:이양미 백은주

1994년

1. 나사렛 청년회
    지도목사:조갑수
    회장:장덕양　부회장:이명원 김현정
    총무:황승희　부총무:전성수
    서기:김미정　부서기:김의숙
    회계:김현희 이미애
2.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 강선자
    회장:엄창웅　부회장:박창문 김동원
    총무:김두환　회계:강모세　서기:배영하
3.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목사:김명삼
    회장:한영길　부회장:박정언 양학봉
    총무:이두영　서기:차귀동　회계:엄승현
4.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윤경호
    회장:정영식　부회장:한동열 제임스박
    총무:김창하　부총무:신재권
    서기:김영만　부서기:채홍인
    회계:한동열　부회계:최창진
5. 모세 선교회
    지도목사:
    회장:이성은　부회장:이영이　총무:이경동
    서기:김세웅　회계:한경수
6. 상락 남선교회
    고문:임동선 최경호 이정배
    자문위원:이두종 이경출 최해식 이석현 임응율 남왈희
    회장:조웅래　부회장:정한석 조영근
    총무:이종경　부총무:신장덕
    서기:계수빈　부서기:김정환
    회계:공덕봉　부회계:김동선
7. 에스더 선교회
    지도목사:임성진
    회장:김준옥　부회장:김순열 백은주
    총무:원옥렬　부총무:곽순옥
    서기:박유혜　부서기:박금정
    회계:엄선희　부회계:전은희
8. 리브가 선교회
    회장:백명원　부회장:정연숙　총무:장춘호
    서기:김명려　부서기:김옥자
    회계:홍송자　부회계:
9.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송창현
    회장:정인규　부회장:조현희 김영숙
    총무:김인광　부총무:공정자
    서기:문순남　부서기:이덕순 김정숙
    회계:조정간　부회계:홍재은 김영숙
10. 상락 여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고문:임재순 함정희(감사)
    회장:김병숙　부회장:최용숙
    총무:박선남　부총무:박확실
    서기:강순례　부서기:서대복
    회계:안종순　부회계:김계자
11. 찬양팀
    지도목사:정운철
    부장:　차장:신동순
    총무:이태경
12. 체육 선교회
    회장:한긍리　부회장:신재권
    총무:김두환　서기:한영길　회계:한태환

1995년

1. 갈릴리 청년회
    지도목사:이청근
    회장:이사화　부회장:권창완 Helen Lee
    총무:윤승철　회계:
2.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전길성
    회장:이조　부회장:한동열 제임스박
    총무:한상범　부총무:이명진
    서기:김영만　부서기:신재권
    회계:김충일　부회계:이두영
3. 디모데 선교회
    지도목사:허 번
    회장:김두환　부회장:최헌진 강모세
    총무:박창훈　회계:오영환　서기:노종걸
4. 에녹 선교회
    지도교역자:김명삼
    회장:정문섭　부회장:박창영 김국한
    총무:한긍리　부총무:이창석
    서기:이종용　부서기:송균환　회계:문인실 부
    회계:문홍인
5. 모세 선교회
    지도교역자:허 번
    회장:노수정　부회장:조영일 한경수
    총무:김세웅　서기:한동열　회계:한경수

6. 남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일준
고문:임동선 최경호 이경출 이정식
자문위원:이두종 최해식 이석현 임응율 남월희 고희상
회장:조웅래 부회장:정한석 계수빈 정형조
총무:이제은 서기:신장덕
회계:최경호(겸)
7. 에스더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김준옥 부회장:김순열 백은주
총무:김복순 원옥렬
서기:박금정 임영숙
회계:엄선희 오재영
8.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김명삼
회장:함순화 부회장:조민자
총무:김춘혜 부총무:이청자
서기:현정희 부서기:남상인
회계:김숙자 부회계:유옥주
9. 리브가 선교회
지도교역자:유순자
회장:정연숙 부회장:장정숙 총무:홍송자
서기:문숙희 부서기:곽광례
회계:조경희 부회계:오영희
10. 상락 여선교회
지도교역자:유순자
고문:김병숙 회장:강복순 부회장:장례옥
총무:김옥저 부총무:임정자
서기:김계자 부서기:주보배 회계:안종순
부회계:김영애
11. 찬양팀
부장:홍성환 차장:신동순 총무:박태은

1996년

1. 가나 갈릴리 청년회
지도교역자:이청근
회장:이사화 부회장:김유진 윤희종
총무:정연희 서기:김종우 회계:김은주
2.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김경환
회장:강모세 실행위원:이장연 임승표 박창훈
회계:전완수 서기:이영호
3.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일준
회장:김경수 부회장:한영수 잔명
총무:안일진 서기:장승호 회계:이태경
4.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김명삼
회장:김영만 부회장:이명진 한상범
총무:김충일 부총무:박 영
서기:정화관 부서기:신재권 회계:남윤희
부회계:김영격
5. 모세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일준
회장:김재권 부회장:조영일 김세웅
총무:최종원 부총무:이영이
서기:정영식 부서기:강정구
회계:한동열 부회계:신동순
6. 에녹 선교회
지도교역자:박형준
회장:신상우 부회장:계춘영 총무:김국한
부총무:한긍리 서기:진병엽 부서기:문정현
회계:문인일 부회계:염창섭
7. 남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 박형준
고문:최경호 이경출 이정식 정한석
자문위원:이두종 최해식 이석현 황종현 공이규 고희상
회장:조웅래 부회장:계수빈 오철수 신장덕
총무:이제은 서기:박귀홍
회계:최경호(겸)
8. 에스더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김순열 부회장:원옥열 김준옥
총무:백은주 부총무:최필수
서기:엄선희 부서기:오소정
회계:박인자 부회계:김경란
9.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김명삼
회장:조민자 부회장:김춘혜 총무:이청자
부총무:박덕희 서기:염수정 부서기:이경자
회계:김숙자 부회계:이영덕
10. 리브가 여선교회
지도교역자:김경환
회장:장정숙 부회장:장춘호 총무:강애순
서기:김기옥 부서기:곽광례 회계:조경희
부회계:조순자
11.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강선자
회장:김영숙 부회장:조현희 문순남
총무:정말상 부총무:공정자
서기:정에스더 부서기:민금주 회계:정인규
부회계:홍재은
12. 상락 여선교회
지도교역자:유순자
고문:김병숙 회장:강복순 부회장:배현숙
총무:김옥저 부총무:임정자
서기:김은영 부서기:
회계:안종순 부회계:김계자

1997년

1. 가나 갈릴리 선교회
회장:권창완 부회장:김영혜 총무:김수현
2. 디모데 선교회
회장:송기상 총무:전완수 부총무:이장연
서기:강용희 부서기:박황표
회계:박황표 부회계:강용희
3. 여호수아 선교회
회장:안일진 부회장:엄승현 잔명

총무:이태경 서기:마사웅 회계:김희춘

4. 바울 선교회
   회장:이명진 부회장:김충일 정화관
   총무:이상용 부총무:채홍인 서기:안광석
   회계:엄문섭
5. 모세 선교회
   회장:조영일 부회장:김세웅 최종원
   총무:이조 부총무:오재선
   서기:함재목 부서기:신동순
   회계:한동열 부회계:김청익
6. 에녹 선교회
   회장:백성용 부회장:문인일 문정현
   총무:송기봉 부총무:박창영
   서기:한춘석 부서기:유대선
   회계:한긍리 부회계:서응석
7. 남상락 선교회
   고문:최경호 이경출 이정식 정한석
   자문위원:이두종 최해식 이석현 황종현 공이규 고희상 최영
   회장:조웅래 부회장:계수빈 오철수 신장덕
   총무:김승곤 서기:공덕봉 회계:박귀홍
8. 에스더 선교회
   회장:원옥열 부회장:백은주 엄선희
   총무:안연배 부총무:박유혜
   서기:오소정 부서기:전예선 회계:전은희
   부회계:이현석
9. 한나 선교회
   회장:김춘혜 부회장:이청자 총무:박덕희
   부총무:염수정 서기:이영덕 부서기:이준자
   회계:박행자 부회계:이경자
10. 리브가 선교회
   회장:장춘호 부회장:황금수 총무:박경애
   서기:김기옥 부서기:심성례 회계:조경희
   부회계:백미섭
11. 사라 선교회
   회장:조현희 부회장:문순남 총무:정말상
   서기:정에스더 부서기:홍명주 회계:정인규
   부회계:조순애
12. 여상락 선교회
   회장:최용숙 부회장:박확실 총무:심옥선
   부총무:서대복 서기:홍정혜 부서기:김계자
   회계:김은영 부회계:김애순

1998년

1. 갈릴리 청년회
2.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유식
   회장:송기상 부회장:임승표 이장연
   총무:노용호 부총무:이원석
   서기:김영호 부서기:이진희
   회계:이진희 부회계:김영호
3.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교역자:한 진
   회장:홍성식 부회장:엄승현 김희춘
   총무:김인승 서기:최원진 부서기:김순신
   회계:김전수
4.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이세훈 부회장:서범석 엄문섭
   총무 및 서기:이영해 회계:천종건
5. 모세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김세웅 부회장:최종원 이 조
   총무:이병인 부총무:김형남
   서기:전의웅 부서기:최수남
   회계:한동열 부회계:강광희
6. 바나바 선교회
7. 에녹 선교회
   지도교역자:홍남표
   회장:오광찬 부회장:임헌권 송균안
   총무:한춘석 부총무:김국한
   서기:윤대선 부서기:이종용
   회계:서응석 부회계:한긍리
8. 갈렙 선교회
9. 남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박형준
   고문:이경출 이정식 정한석 최경호
   자문위원:계수빈 고희상 공이규 오철수 이두종 이석현 최해식 최영
   회장:조웅래 부회장:신장덕 이삼열 황종현
   총무:이제은 서기:최태화 회계:박귀홍
10. 에스더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유식
   회장:박인순 부회장:송윤호
   총무:구연호 서기:이금선
   회계:김정희 천경자
11. 마리아 선교회
   지도교역자:한 진
   회장:전은희 부회장:안천혜자
   총무:김경선 서기:양순옥 부서기:이현숙
   회계:박선희 부회계:전예선
12.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김영배
   회장:김준옥 부회장:조명희 총무:김성숙
   부총무:이경희 서기:최운봉 부서기:장봉숙
   회계:신용순 부회계:강영혜
13. 루디아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양섭
   회장:이청자 부회장:이영덕 총무:전순자
   부총무:전선자 서기:정경혜 부서기:이경자
   회계:박행자 부회계:염수정
14. 리브가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양섭
   회장:백미섭 부회장:박 옥 총무:박 옥
   서기:김문자 부서기:김기옥 회계:박영자
   부회계:조춘희
15.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홍남표
   회장:황금수 부회장:박경애 총무:홍송자

부총무:한옥순 서기:조순자
부서기:조경희 회계:심성례 부회계:노홍복

16. 안나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문순남 부회장:정말상 총무:김경순
서기:김인곤 부서기:이복선
회계:조순애 부회계:정인규

17. 여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유순자
회장:최용숙 부회장:박확실 총무:심옥선
부총무:서대옥 서기:홍정혜 부서기:김계자
회계:김은영 부회계:김애순

1999년

1. 안수집사회
회장:한긍리 부회장:이경동 김세웅
총무:이조 이효성
서기:함재목 이용훈
회계:신동순 정용석
감사:강모세 김영욱 한춘석

2. 갈릴리 선교회
지도교역자:김학진
회장:권제임스 부회장:김범식 김은미

3.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임승표 부회장:임성길 노용호
총무:이진희 회계:강신목 서기:김영호

4.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교역자:홍남표
회장:이종수 부회장:이태경 전완수
총무:강용희 서기:박황표 회계:김재신

5.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유식
회장:김진호 부회장:최원진 총무:김경수
회계:마사웅

6. 모세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유식
고문:이건기 김성곤
회장:이병인 부회장:이조
총무:전의웅 부총무:김형남 서기:안광석
부서기:안의식 회계:한동열 부회계:김창웅

7. 바나바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장 진 부회장:이경동 총무:함재목
서기:전광일 회계:전광일

8. 에녹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신상우 부회장:정봉모 박창영
총무:김찬수 부총무:한춘석 서기:유대선
부서기:한규환 회계:서응석 부회계:문정현

9. 갈렙 선교회

10. 남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 홍남표
고문:이경출 이정식 정한석 최경호
자문위원:이두종 최해식 이석현 공이규 오철수
계수빈 최경화 신장덕
회장:조웅래 부회장:황종현 이삼열 박한기
총무:구자원 서기:이제은 회계:박귀홍

11. 에스더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박인순 부회장:이일순 총무:박혜란
회계:김정숙 부회계:구명헌 서기:홍마리아

12. 마리아 선교회
지도교역자:김학진
회장:안천혜자 부회장:이현숙 총무:양순옥
서기:정현숙 부서기:엄숙영 회계:박선희
부회계:이혜숙

13.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김준옥 부회장:조명희 김성숙
총무:최운봉 부총무:이경희
서기:이연순 부서기:김정순
회계:신용순 부회계:강영혜

14. 루디아 선교회
지도교역자:홍남표
회장:이영덕 부회장:이광숙 총무:전선자
부총무:김민희 서기:임정숙 부서기:강종숙
회계:함규자 부회계:유정숙

15. 리브가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김기옥 부회장:김영선 총무:김영선
서기:한금자 부서기:정순자
회계:한영숙 부회계:김정희

16.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강애순 부회장:최미선 총무:이정순
부총무:한옥순 서기:조순자 부서기:임옥분
회계:심성례 부회계:노홍복

17. 안나 선교회
지도교역자:홍남표
회장:정말상 부회장:김경순 총무:김인곤
서기:임금화 부서기:이복선 회계:조순애
부회계:공정자

18. 여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이유식
회장:김은영 부회장:김인숙 총무:안종선
부총무:서대옥 서기:홍정혜 부서기:강순례
회계:김애순 부회계:김계자

2000년

1. 안수집사회
회장:정영식 부회장:이경동 최종원
총무:김영만 송성훈
서기:함재목 금재연
회계:엄창웅 이용훈

2. 갈릴리 청년회
지도교역자:김학진
회장:김용환 총무:고창우

서기/회계:김진수
3. 디모데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임성길 부회장:박태호 정광혁
회계 및 서기:이원석
4. 여호수아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이장연 부회장:김재신 한태환
총무:정형만 서기:노용호 회계:박상춘
5. 바울 선교회
지도교역자:
고문:한승수 조항목
회장:마사웅 부회장:배영하 총무:김경수
회계:김성안 서기:김희춘
6. 모세 선교회
지도교역자:
고문:이건기 김성곤 이병인
회장:이조 부회장:박제임스 한동열
총무:안의식 부총무:오재선 최수남
서기:엄문섭 부서기:이길홍 이세훈
회계:안광석 부회계:박 환 이상용
7. 바나바 선교회
지도교역자:정우송
회장:김세웅 부회장:이병주 이경동
총무:최종원 부총무:이병인
서기:신동순 부서기:전의웅 회계:전광일
부회계:홍동성
8. 에녹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노재희 부회장:황국동 정봉모
총무:박창영 부총무:김찬수
서기:한춘석 부서기:김국환 회계:이승직
부회계:문정현
9. 갈렙 선교회
10. 남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
고문:조웅래 회장:이정식
부회장:황종현 공리규 박윤수
총무:최영 서기:오철수 회계:김동명
11. 에스더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이일순 부회장:박혜란 총무:전경화
서기:김미경 회계:김정숙
12. 마리아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이현숙 부회장:전은희 원옥렬
총무:김경란 정현숙
서기:김웅주 부서기:김계선
회계:백석자 부회계:박선희
13. 한나 선교회
지도교역자:박종각
회장:최운봉 부회장:김준옥 이연순
총무:안옥자 부총무:안준이
서기:한경자 부서기:김복순
회계:신봉례 부회계:신용순
14. 루디아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이광숙 부회장:임정숙
총무:심진영 부총무:박덕희
서기:이금자 부서기:박행자
회계:박세자 부회계:이숙자
15. 리브가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조춘희 부회장:한영숙
총무:김춘혜 부총무:정순자
서기:장영자 부서기:한안나
회계:한영숙 부회계:김영선
16. 사라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이송자 부회장:이정순
총무:홍미현 부총무:조순자
서기:황금심 부서기:최미선
회계:심성례 부회계:노홍복
17. 안나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김경순 부회장:김인곤 총무:임금화
서기:조순애 부서기:이복선
회계:이영희 부회계:공정자
18. 여상락 선교회
지도교역자:
회장:김은영 부회장:김인숙 총무:안종순
서기:홍정혜 부서기:이순자
회계:강순례 부회계:김대자

연도별 성가대 임원

성가대 임원 명단 (1970-1979)

	대장	차장	지휘	총무	반주
1970			이성원		강혜련
1971			김종일		임승혜
1972			박환철	심재현	
1973			박환철	심재현	배은산
1974		박환철		명호순	배은산
1975			박환철		배은산
1976	김용서		한병철		이길자
1977	강영구		한병철		이길자
1978			한병철		이길자
1979			서문욱		임승혜/박은혜

1부 성가대 임원 명단 (1980-2000)

	대장	차장	지휘	총무	피아노	올갠
1980	김여근		원덕영	황재릉	김남형	
1981	김여근		원덕영	황재릉	김남형	
1982	김여근		원덕영	황재릉	김남형	
1983	신윤철		이귀임	유광열/임성길	강혜영	
1984	오수훈		이귀임	최금숙	강혜영	
1985	오수훈		윤한두	이종금/이덕자	김미혜	
1986	백형권		윤한두	임성진/장정애	김미혜	
1987	조정현		최병삼	송성훈/강신옥	김미혜	이영경
1988	김석환		최병삼	송성훈/강신옥	김미혜	황미지
1989	백형권		최병삼		김미혜	황미지
1990	백형권		최병삼		김미혜	황미지
1991	백형권		최병삼	한영수/박민승	장영혜	문선미
1992	백형권	이한길	최병삼	오기헌/전인수	장영혜	문선미
1993	조영일	오기헌	정성훈	김석명/정송금	장영혜	심선희
1994	장 진	오기헌	박준림	김정주/고재숙	장영혜	심선희
1995	조영일	송성훈	박준림	김석명/함규자	장영혜	심선희
1996	함재목	김성권	홍순태	이진희/오영순	김영혜	심선희
1997	함재목	홍순태		강용희/강애순	김영혜	심선희
1998	이영이		홍순태	강용희/강애순	김영혜	심선희
1999	조영일	이영이	홍순태	이상용/조영애/서덕향	김영혜	심선희
2000	신병모	오기헌	홍순태	정 수 /홍신실	김영혜	심선희

2부 성가대 임원 명단 (1980-2000)

	대 장	차 장	지 휘	총 무	피아노	올 갠
1980	이성호		서문욱	최상집	이은경	
1981	정상근		서문욱	김지수	이은경	
1982	조규철		서문욱	김희숙		이은경
1983	조규철		서문욱	이호남/김희숙		이은경
1984	신윤철		서문욱	박승원/함순화	곽정란	이은경
1985	신윤철		윤한두	박승원/함순화	곽정란	이은경
1986	신윤철	조정현/김성곤	윤한두	심상수/오용애	곽정란	이은경
1987	조규철	김성곤/조병헌	윤한두	김홍일/장영자	곽정란	이은경
1988	조정현	김성곤/조병헌	백경환	김홍일/장영자	강혜영	황영지
1989	백영두	조병헌/김홍일	백경환		강혜영	황영지
1990	백영두	조병헌/김홍일	백경환		강혜영	황영지
1991	이성호	김홍일/주창국	정운철	박범전/조민자	강혜영	문선미
1992	김성곤	이영이	정운철	김청익/조민자	강혜영	박미선
1993	엄한광	김청익	정운철	김종준/전예선	강혜영	정기향
1994	임진수	김청익	정운철	안명준/김효정	이선영	정기향
1995	조규철	김청익	김종만	김강일	유은석	원연실
1996	이한길		김종만	한영길/정에스더	곽정란	심미선
1997	이한길		김정호	쟌 명/김경자	유은석	원연실
1998	김청익		최명용		나정혜	이지영
1999	김성곤	김청익	최명용	정 학/정예선	이호준	이지영
2000	임진수	김종준	최명용	한태환/차영윤	이호준	임세은

3부 성가대 임원 명단 (1983-2000)

	대 장	차 장	지 휘	총 무	피아노	올 갠
1983	안정현		서석근	조병헌/이선양		
1984	방조영		김병곤	조병헌	김순자	김남형
1985	방조영		윤한두	조병헌/안부희	박현옥	김남형
1986	오수훈		윤한두	주창국/김진수	임향빈	
1987	김경태		윤한두	정송수/정영희	임향빈	
1988	백영두		백경환	안용대/추영임	임향빈	
1989	김지수		백경환		임향빈	
1990	김지수		백경환		곽정란	
1991	임진수		백경환	박창훈/안경희	곽정란	김영규
1992	장 진	안용대	강동호	박태은/유옥주	곽정란	문선미
1993	조규철	이재진	강동호	박태은/김순열	우경인	김희경
1994	조준구	오상헌	강동호	박창훈/양순옥	김은하	박미선
1995	백영두	천홍배	강동호	이태경/임영숙	김은하	안수진
1996	천홍배		강동호	노종걸/이민자	김은하	안수진
1997	정봉현		강동호	문삼열/남문요	박은하	강혜전
1998	이창석		김규삼	김유진/김민희	박은하	강혜전
1999	조규철	이창석	이형준	박형진/김교회	박은하	강혜전
2000	조규철	이창석	최왕성	김찬희/이미영	박은하	강혜전

4부 성가대 임원 명단 (1994-2000)

	대 장	차 장	지 휘	총 무	피아노	올 갠
1994			박준림	박창훈	박용주	
1995		박태은	박준림	배철원/박은미	박용주	
1996						
1997						
1998			이귀임		임정선	
1999			이귀임	정혜숙	임정선	김경미
2000	조영일	정봉모	이귀임	정송금	임정선	임세은

역대 주일학교 임원

	교육본부					영아부		
	목사	부장	차장	총무	회계	전도사	부장	차장
1980	임동선	안정현		김성택			노영자	
1981	이중용	안정현		홍성호			노영자	
1982	이중용	김몽학		홍성호			노영자	
1983	이중용	김몽학		홍성호			이경희	
1984	이중용	조규철		현용규			이경희	
1985	이중용	유문규		현용규	윤진영	안임숙	조병희	
1986	이중용	유문규		조상윤	박은영		임영자	
1987	이중용	유문규		조상윤	조상옥		임영자	
1988	이중용	유문규		조상윤	조상옥		임영자	
1989	이중용	오수훈		조상윤	조상옥		김혜경	
1990	안용식	오수훈		조상윤	조병희		최경희	
1991	안용식	오수훈		조상윤	조병희		최영준	김선혜총무
1992	조갑수	노재희		김경수	김형선		백윤조	오영순총무
1993	조갑수	노재희	김경수	이영진	박영란			장정숙
1994	최진기	신상우	김경수	전완수	박영란			장정숙
1995	강일준	노재희	김경수	전완수	박영란			장정숙
1996	강일준							
1997	한 진							황금수
1998	한 진	조준구	엄문섭			황금수		김경란
1999	김학진		엄문섭	노인호				장정숙
2000	김학진		엄문섭	노인호				장정숙
2001	주인석	강모세	엄문섭/이효성	심재현			강모세	장정숙

역대 주일학교 임원(계속)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	부장	차장	전도사	부장	차장	전도사	부장	차장
1980					이형미			김성택	
1981	박임순	조병희			임성숙			김성택	
1982	박임순	조병희			조은옥			홍성호	
1983	안미원	조병희			장문자			조소양	
1984		조병희			도근희			엄애경	
1985	안임숙	박석영, 홍기화		안임숙	도근희, 조상옥			장문자, 한진호	
1986	안임숙	박석영, 홍기화		안임숙	전재희, 조상옥		김문자	장문자, 한진호	김영란
1987	안임숙	박석영, 홍영장		안임숙	전재희, 채윤자		김문자	김강, 신진숙	김영란
1988	안임숙	최경희		안임숙	전재희		김문자	김 강	
1989	안미원	최경희	윤경홍	안임숙	전재희		김문자, 김강	이현수	신진숙
1990	안미원	노재희		안임숙	백윤조		김동일, 김문자	김덕영	
1991	안미원	노재희		안임숙	김용식		김문자	김덕영	
1992	안미원	노재희	김세웅	안임숙	백윤조	엄문섭	김용창	김덕영	임승광
1993	안미원		이영세	안임숙		강모세	정민구		곽건준
1994	변명혜		이영세	안임숙		강모세	임은희		전용석
1995	변명혜		이영세	안임숙		오상헌	임은희		강모세
1996	변명혜			안임숙			임은희		
1997	변명혜		장봉숙	안임숙		김강일	임은희		이효성
1998	변명혜		장봉숙	안임숙		김강일	임은희		이효성
1999	석희정		장봉숙	안임숙		김강일	임은희		이효성
2000	석희정		임성길	안임숙		김강일	임은희		이효성
2001	석희정		이진희	안임숙		노인호	임은희		이용훈

역대 주일학교 임원(계속)

	초 등 부			소 년 부		
	전도사	부장	차장	전도사	부장	차장
1980		홍성호				
1981		조소양				
1982						
1983		조상윤				
1984		조상윤				
1985		김석훈, 정애경		최진기	김은희	
1986	최진기	김석훈, 정애경	이명연	최진기	방수잔	이은영
1987		김석훈, 정애경	이명연	이애경	방수잔, 박동진	오혜균
1988	송창현	김호일, 유회범		이애경	방수잔, 박동진	
1989	송창현, 김부연	이성식, 유회범		이애경, 송상현	박동진, 오혜균	
1990	김 강	조준구		이애경, 정성훈	김요섭	
1991	정성훈	조준구		방수잔	엄한광	
1992	김현미, 정민구	조준구	변광우	방수잔	엄한광	이광휘
1993	김용창		엄문섭	장수잔		이광휘
1994	김용창		엄문섭	김중배		김창하
1995	김용창		엄문섭	이애경		박창국
1996						
1997	황마리아나					
1998	황마리아나		전영식	이길용		배영하
1999	황마리아나		구경훈	이길용		배영하
2000	임주원		홍성식	이길용		배영하
2001	이정민		박태호			배영하

역대 중,고등,대학부, 청년부 등 임원

1979년

중등부 부장:김동규, 총무:박광원, 지도전도사:안용식
고등부 부장:김재권, 총무:박영원, 지도전도사:안용식
대학부 부장:이재권, 지도목사:이요한

1980년

중등부 부장:김동규, 총무:김영재
고등부 부장:이원열, 총무:최만삼, 지도전도사:안용식
대학부 부장:김광락, 지도목사:이요한
청년부 부장:최만삼
장년부 부장:박계로

1981년

중등부 부장:김동규, 총무:김영재
고등부 부장:이원열, 총무:최만삼, 지도전도사:안용식
대학부 부장:김병곤, 지도목사:이원희
청년부 부장:이재권
장년부 부장:박계로, 총무:김광돈

1982년

중등부 부장:오수훈, 총무:김영재, 지도목사:정완기
고등부 부장:정문섭, 총무:최만삼, 지도전도사:안용식
대학부 부장:김병곤, 지도목사:이원희
장년부 부장:박계로

1983년

중등부 부장:오수훈, 총무:김영재, 지도목사:손주영
고등부 부장:김병곤, 총무:황재룡, 지도목사:안용식
대학부 부장:김재권, 지도목사:정완기
장년부 부장:정문섭

1984년

중등부 부장:백영두, 총무:한승수, 지도목사:강신욱
고등부 부장:김재권, 총무:임승광, 지도목사:정완기
대학부 부장:안정현, 지도목사:안용식
장년부 부장:김몽학

1985년

중등부 부장:이성호, 총무:한승수, 지도목사:강신욱
고등부 부장:안정현, 총무:임승천, 지도목사:채현철
대학부 부장:황재룡, 총무:김영재, 지도목사:안용식
장년부 부장:김몽학, 총무:김광돈

1986년

중등부 부장:최만삼, 총무:한승수, 지도목사:채현철
고등부 부장:조규철, 지도목사:채현철
대학부 부장:황재룡, 전도사:이성원, 지도목사:조갑수
장년부 부장:김몽학, 총무:김광돈,임원희

1987년

중등부 부장:최만삼, 총무:강영찬(1),김상남(2)
지도교역자:최진기
고등1부 부장:안정현, 총무:김영재, 지도교역자:채현철
고등2부 부장:김동규, 총무:이종흠, 지도교역자:김진광
대학부 부장:황재룡, 총무:전길성, 지도교역자:이성원
청년부 부장:김석환, 지도:안용식목사
장년부 부장:김용일, 총무:임원희,제임스박,
지도교역자:안용식

1988년

중등부 부장:오수훈, 총무:강영찬, 지도:최진기전도사
고등1부 부장:방조영, 총무:김영재, 지도:손경윤전도사
고등2부 부장:임진수, 총무:이종흠, 지도:김문주전도사
2부중고등부 부장:장진, 총무:한종유, 지도:송창현전도사
대학부 부장:황재룡, 총무:전길성, 지도:이성원전도사

1989년

중등부 부장:유문규, 총무:임승표, 지도:서정인전도사
고등1부 부장:조정현, 총무:한상범, 지도:손경윤전도사
고등2부 부장:임진수, 총무:이종흠, 지도:김문주전도사
2부중등부 부장:김영애, 총무:김충식, 지도:송창현전도사
2부고등부 부장:장진, 총무:송윤현, 지도:송창현전도사
대학부 부장:방조영, 총무:박승원, 전도사:전길성

1990년

중등부 부장:유문규, 총무:임승표, 전도사:서정인
고등1부 부장:조정현, 총무:한상범, 전도사:손경윤
고등2부 부장:임진수, 총무:이종흠, 전도사:김문주
2부중등부 부장:김영재, 총무:김충식, 전도사:송창현
2부고등부 부장:장진, 총무:송윤현, 전도사:송창현
대학부 부장:방조영, 총무:박승원, 전도사:전길성

1991년

중등부 부장:조규철, 총무:Duane Kim, 전도사:찰스김
고등부 부장:김석환, 총무:김인승, 전도사:손경윤, 서정인
대학부 부장:조정현, 총무:박승원, 전도사:송창현
3부중고등부 부장:장진, 총무:이기성,송윤현, 전도사:한재우
한국어중고등부 부장:임진수, 총무:이범웅, 전도사:황은철

1992년

고등부 부장:김석환, 차장:김인승, 총무:스테판하,
지도:서정인, 최진기,한재우
대학부 부장:조정현, 차장:한승수, 총무:이종흠, 오영애,
전도사:송창현, 홍경하, 백은숙

1993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김석환, 차장:박호성
2부중등부 차장:황덕성, 총무:이준홍, 전도사:김철호

2부고등부　차장:박제임스, 총무:스테판하
3부중고등부　차장:이기성, 총무:송윤현, 전도사:지미한
한국어중고등부　차장:박영, 총무:방성일, 전도사:박세헌
대학부　부장:정중섭, 차장:이종흠, 총무:오영애,
전도사:송창현
청년부　부장:조정현, 차장:한승수, 총무:김양수

1994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엄한광, 차장:박호성, 전도사:김철호
영어중등부　차장:황덕성, 총무:김두일
영어고등부　차장:박제임스, 총무:조일성, 전도사:김철호
한국어중등부　차장:유영종, 총무:강준수, 전도사:공강국
한국어고등부　차장:박영, 총무:노승한, 지도:정수일목사
대학부　부장:노재희, 차장:이재진, 전도사:송상현
청년부　부장:노성찬, 차장:강모세, 총무:박제환,
전도사:이태종

1995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노성찬, 차장:한상범, 총무:조일성,
전도사:김철호
중고등부　차장:황덕성, 김충일, 총무:조일성,
전도사:김중배,김철호
한국어중등부　차장:임승표, 총무:이노웅, 전도사:공강국
한국어고등부　차장:박영, 총무:유인곤, 지도:정수일목사
대학교회학교　부장:엄한광, 차장:이재진, 지도:김성학목사
청년교회학교　부장:임진수, 차장:제임스박, 총무:김명심

1996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김병곤, 차장:김세웅, 총무:조일성,
지도:김철호
중고등부　부장:황덕성, 김충일, 총무:조일성,
지도:김중배,김철호
한국어중등부　차장:임승표, 총무:박제환, 지도:공강국전도사
한국어고등부　차장:송성훈, 총무:최태욱, 지도:김용창전도사
대학교회학교　부장:김여근, 차장:이재진, 지도:김성학목사
청년교회학교　부장:엄한광, 차장:박제임스, 지도:정진우목사

1997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김성곤, 차장:김세웅,
지도:김철호전도사
중고등부　차장:전완수,임승표, 지도:김중배,김철호전도사
한국어중등부　차장:박정언, 지도:정홍준전도사
한국어고등부　차장:송성훈
대학교회학교　부장:장진, 차장:한승수, 지도:김성학목사
청년교회학교　부장:조영일, 차장:박제임스, 지도:김학진목사

1998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장진, 차장:김세웅, 지도:김철호전도사
중고등부　차장:임승향, 전완수, 지도:김중배,김철호전도사
한국어중등부　차장:전용석, 지도:김영훈전도사
한국어고등부　차장:전용석, 지도:정홍준전도사
대학교회학교　부장:김성곤, 차장:한승수, 지도:조영덕전도사
청년교회학교　부장:조상희, 차장:이한길, 지도:김학진목사
특수교회학교　부장:백윤조, 차장:채홍인, 지도:한희숙전도사
특별활동학교　부장:김여근

1999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김세웅, 차장:정화관,
지도:김철호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차장:전완수, 한승향, 지도:김중배,김철호전도사
한국어중등부　차장:오상헌, 지도:김영훈전도사
한국어고등부　차장:정화관, 지도:정홍준전도사
대학교회학교　부장:이병주, 차장:김충일, 전도사:조영덕전도사
청년교회학교　부장:조상희, 차장:이한길, 지도:김학진목사
소망부　부장:백윤조, 차장:임헌권, 지도:한희숙전도사

2000년

청소년교회학교　부장:김세웅, 지도:양승모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차장:한승향,전완수, 지도:양승모전도사
한국어중등부　차장:오상헌, 지도:정운성전도사
한국어고등부　차장:정화관, 지도:위문석전도사
대학교회학교　부장:강모세, 차장:김충일, 지도:조영덕전도사
소망부　부장:백윤조, 차장:채홍인, 지도:한희숙전도사

역대 선교부 임원

년도	교역자	부장	차장	선교위원회	위원장
1971		임동선		황재열 정하경 김성선 이종만 명재덕 김효순 김상옥	임동선
1972		임동선		황재열 김용서 한건수 김상옥 김복근	임동선
1973		김용서		이경택 장갑성 김택일 김병숙 하애도 장동환 이성원	김용서
1974		한건수	이경택	손소봉 김용서 오해훈 김재순 김택일 손진창 문유심 장갑성 송득현 이인근 하애도	한건수
1975		김주영	홍순웅	김재순 문유심 손소봉 오해훈 이인근 장갑성 이성원 장세정 원재수 최용숙 권정숙	김주영
1976		한건수	홍순웅		
1977					
1978					
1979	송정명				
1980	송정명	이재권	황종구		
1981	송정명	오해훈	황종구		
1982	송정명	조웅래	성기윤		
1983	송정명	성기윤	이성호, 김명균		
1984	송정명	강영구	이성호, 김동규		
1985	송정명	오해훈	주 은, 김성곤	송정명 오해훈 노수정 신윤철 김광락 유문규 황재륭	
1986	송정명	온성철	한부일, 주 은	송정명 신윤철 유문규 황재륭 온성철 백형권 백영두 조정현 탁찬효	
1987	조갑수	방조영	한부일, 주 은	조갑수 방조영 황재륭 이성호 백영두 백형권 조정현 탁찬효 조규철 김명균	조규철
1988	조갑수	성기윤 백형권(모국) 신윤철(해외) 방조영(국내) 이성호(특수)	주 은, 이영세 현용규(모국) 황윤성(해외) 김효일(국내) 정영식(특수)	조갑수 성기윤 황재륭 이성호 백영두 백형권 김명균 신윤철 방조영 이건기 탁찬효	신윤철

년도	교역자	부장	차장	선교위원회	위원장
1989	조갑수	성기윤 황종구(모국) 황재륭(해외) 조상희(국내) 김명균(특수)	김상정, 김종성 한승수, 이경동(모국) 황윤성, 도무삼(해외) 김호일, 강세원(국내) 주창국, 장문석(특수)	조갑수 성기윤 신윤철 방조영 이건기 탁찬효 황종구 이정배 조규철 온성철 정문섭	이정배
1990	조갑수	성기윤 황종구(모국) 임스티브(해외) 조상희(국내) 김명균(특수)	김종성, 도무삼 한승수, 이경동(모국) 황윤성, 홍석구(해외) 김호일, 박호성(국내) 주창국, 장문석(특수)	조갑수 성기윤 신윤철 방조영 이건기 탁찬효 황종구 이정배 조규철 온성철 정문섭	이정배
1991	조갑수	김용서 임스티브(모국) 이건기(국내) 김광락(해외) 김광돈(특수)	김종성 도무삼 황윤성 변광우 정봉모 이법웅 김영화 오상헌 이영이 민병득 김창하 엄문섭 최창진 조원하 이기성 홍석구 이고명 한승수 오윤화 김충일	조갑수 이건기 탁찬효 황종구 조규철 온성철 김용서 성기윤 백형권 임스티브 장 진	성기윤
1992	김건태	조영근 홍성환(미국) 백형권(국내) 백영두(해외) 임스티브(특수)	민병득 김충일 김영욱 오상헌 박창국 엄문섭 김진호 유정수 이광휘 이경동 한승수 변광우	김건태 김용서 조영근 신윤철 온성철 백형권 김광돈 이건기 임스티브 김상정	온성철
1993		김광락	민병득(모국) 김진호(국내) 이경동(해외) 한승수(특수)	선교목사 김광락 노수정 한건수 조영근 온성철 김상정 김광돈 김석환 노성찬	김재권
1994	전길성	김광락	한동열(모국) 김영만(국내) 이경동(해외) 한승수(특수)	전길성 한건수 노수정 백형권 김광돈 김여근 노성찬	김광락

년도	교역자	부장	차장	선교위원회	위원장
1995	허 번	노수정	원석복(모국) 이 조(국내) 오기헌(해외) 유영종(특수)	허 번 전길성 김재권 성기윤 조영근 이성은 김기성 조영일 노성찬	노수정
1996		백영두	오기헌 이 조 이인검 전영식		백영두
1997	박형준	신상우	최종원(모국) 이경동(국내) 김두환(해외)	박형준 김기성 홍성환 스티브임 이성은 조상희 조준구 장 진	신상우
1998	박형준	신상우	최종원(모국) 이경동(국내) 김두환(해외)	박형준 김기성 홍성환 스티브임 이성은 조상희 조준구 장 진	신상우
1999	이인검	임진수	최종원(모국) 이경동(국내)	이인검 임진수 최종원 이경동 박 환 라철삼 정영식 임승표	임진수
2000	이인검	조상희 홍성환(국내)	정봉모 임승표(해외)	이인검 조상희 정중섭 김성곤 엄한광 한승수 강모세 정봉모 임승표 신재권	조상희
2001	이인검	정봉모	이용훈(모국) 박 환(국내) 임승표(해외) 신재권(특수)	황재릉 이인검 정봉모 한긍리 김세웅 김채광 강모세 김기성 임승표 박 환 이용훈	정봉모
2002	조관호	정봉모	임승표 박 환	황재릉 조관호 정봉모 한긍리 김세웅 김채광 강모세 김기성 오재선 임승표 박 환	정봉모

동양선교교회 지교회 주소록

지역	번호	교회명 및 주소	교역자 및 사택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LA지역	1	Cerritos O.M.C.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Rev. Andrew T. Suk (석태운)	(C)562-402-2919 (F)562-924-7170 (H)714-527-0324
	2	Valley O.M.C. 밸리 동양선교교회 15059 Saticoy St. Van Nuys, CA 91405	Rev. Hee H. Kim (김희헌)	(C)818-786-5555 (F)818-786-2233
	3	Midcity O.M.C. 중부 동양선교교회 6236 Woodruff Ave. Lakewood, CA 90713	Rev. Jin Gwang Kim (김진광) 17702 Stark Ave. Cerritos, CA 90703	(C)562-804-4575 (F)562-402-9450 (H)562-402-9450
	4	Anaheim O.M.C. 애나하임 동양선교교회 520 W. South St. Anaheim, CA 92805	Rev. Paul K. Yoon (윤기성) 13213 Rose St. Cerritos, CA 90703	(C)714-956-2118 (F)714-956-1815 (H)562-926-8259
미국지역	5	Arizona O.M.C.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 1230 E. Guadalupe Rd. Tempe, AZ 85283	Rev. Samuel C. Lee (이중용) 311 N. Carriage Lane Chandler, AZ 85224 arizonasam@yahoo.com	(H)480-857-9771 602-565-2758 (C)480-831-5566 (F)480-962-5218
	6	Logan O.M.C. 로간 동양선교교회 12 S. 200 W. Logan, UT 84321	Rev. Hang Mok Cho (조항목) 173 W. 700 N. #C Logan, UT 84321	(H)435-755-0101
	7	Utah O.M.C. 유타 동양선교교회 1240 E. 5600 S. Salt Lake City, UT 84121	Rev. Joo Y. Sohn (손주영) 1134 E. Hemingway Dr. Salt Lake City, UT 84121	(C)801-261-2558 262-2668 (F)801-261-2550
	8	Alaska O.M.C.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570 W. 53rd. Ave. Anchorage, AK 99518	Rev. Tae Jong Lee (이태종) 10041 Eshamy Bay Dr. Anchorage, AK 99515	(C)907-561-1303 (F)907-677-2515 (H)907-344-2364 (Cel)907-727-3232
	9	San Diego O.M.C. 샌디에고 동양선교교회 1331 S. Orange St. Escondido, CA 92025	Rev. Byung T. Lim (임병택) 852 Avenida Ricado #341 San Marcos, CA 92069 scheong1@san.rr.com	(C)760-233-1370 (H)760-738-8003 213-507-0886

지역	번호	교회명 및 주소	교역자 및 사택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LA지역	10	Downey O.M.C. 다우니 동양선교교회 10335 Paramount Bl. Downey, CA 90241	Rev. Kitae Yim (임기태) 15515 Sunset Blvd. #209 Pacific Palisades, CA 90272 ktyim@juno.com	(C)562-773-0855 (H)310-459-8791 (Cel)213-447-8151
	11	New Jersey O.M.C. 뉴저지 동양선교교회 Larch Ave. & W. Fort Lee Rd. Bogota, N.J. 07603	Rev. Seung H. Lee (이승환) 627 Division Ave. Carlstart, NJ 070723	(C)973-471-3899 (H)201-842-8846
	12	Oregon O.M.C.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740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8	Rev. Paul Manyoul Bahn (반만열) 7247 SW 152nd Ave. Beaverton, OR 97007	(C)503-627-9920 (H)503-643-4400 (F)503-579-4048 (Cel)503-560-7540
	13	Colorado O.M.C.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100 Morningside Dr. Colorado Springs, CO 80911	Rev. Kyung Ho Yoon (윤경호) 374 Kenwood Circle Colorado Springs, CO 80910	(H)719-635-9500 (C)719-393-7139 719-271-2757
	14	Seattle O.M.C. 씨애틀 동양선교교회 15318 SE. Newport Way Bellevue, WA 98006	Rev. Seung In Lee (이승인) 4727-164th S.E. Bellevue, WA 98006	(C)425-746-2411 (H)425-562-1508
카나다	15	Pt. Moody O.M.C. 포트 무디 동양선교교회(벵쿠버) 2208 St. Johns St. Pt. Moody BC V3H 2M4 Canada	In Soo Kim (김인수 전도사) #207-561 Cottonwood Ave. Coquitlam, BC V3J2R9 CANADA	(H)604-936-5473 (C)604-761-8042
유럽지역	16	Milano Kroean Church 밀라노 한인교회	Rev. Chang Bohm Choi (최창범) Via Amendola 10 20089 Rozzano(MI) Italy	(C)011-39-02-272-3551 (H)011-39-02-575-04293 (F)011-39-02-575-04295 (Cel)011-39-0335-317489
	17	Rome Korean Church 로마 한인교회 Via Lugnano in Teverina N. 9 Scala e. int.11 00181 Roma, Italy	Rev. Pyung W. Han (한평우) Via Deruta 90, sc/B int.12 00818 Roma, Italy garamh@tin.it	(C)011-39-335-233-172 (H)011-39-06-780-2845 (Cel)011-39-348-339- 1726
	18	Milano Mission Church 밀라노 선교교회 Via Porro Lambertenghi 28. 20159 Milano, Italy	Rev. Sang Yun Park (박상연) Viale Casiraghi 491/39 20099 Sesto s. Giovanni, Milano, Italy	(C)011-39-0348-339-1726 (H)011-39-02-240-9091

지역	번호	교회명 및 주소	교역자 및 사택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유럽지역	19	Wurzburg Korean Church 뷔츠부룩 한인교회 Zeller Str. 36 97082 Wurzburg. Germany	Rev. Sung Koo Kang (강성구) Richard str 12. 97074 Wurzburg, Germany kangjohannes@hanmail.net	(H)011-49-931-784-5763 (F)011-49-931-784-6057
	20	Moscow O.M.C. 모스크바 동양선교교회 CPO Box 867 Moscow. 101000 Russia	Rev. SunIk Hwang (레일라) 6th Entrance, 5th Loor, 43/2 Chertanovxkaya St. Moxcow. 113570, Russia	(C)011-7095-493-5688 (Cel)011-7902-131-9248
	21	Partizansk O.M.C. 빠르티잔스크 동양선교교회	692880 Russian. Primorski Krai Partizansk, st.Bokzalnaya 7-a Oriental Mission Church Rev. Hwang Sung Kook (황성국) hwangsk58@hosanna.net	(C)011-7-423-630-5221 (H)011-7-423-630-7261
남미지역	22	Sao Paul O.M.C.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R. Mamore, 71 bom Retiro Sao Paulo, Brazil CEP 01128-030	Rev. Moses E. Hwang (황은철) R. Prates 425 Apt 61 Bom Retiro, Sao Paulo Brazil imosp@sti.com.br	(C)011-5511-228-0382 (F)011-5511-3326-9310 (H)011-5511-3315-0197
	23	Rio O.M.C. 리오 동양선교교회 (브라질) R. Jose Higino 484 Tijuca Rio de Janeiro Brazil		(C)011-55-213-392-9856
	24	Argentina O.M.C. 알젠틴 동양선교교회 Victor Martinez 1857 (1406)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Rev. Pedro O.M. Kwon (권오묵) pedro_kwon@yahoo.co.kr	(C)011-541-924-8065
	25	Paraguay Korean United Church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Cnel. Irrazabel. 787 Asuncion. Paraguay	Rev. Doo Ho Kang (강두호) iuc@iuc.org.py	(C)011-59521-226-054 (F)011-59521-213-809 (H)011-59521-206-244 011-59521-962-827
	26	Bogota O.M.C. 보고타 동양선교교회 Carrera 27 #73-25 Bogota, Colombia	Rev. Yong Sik Kim (김용식) Calle 94A #16-90 #702 Bogota, Colombia	(H)011-571-618-4444 (C)011-571-231-0952 033-398-7799 573-398-7799
	27	Guayaquil O.M.C. 과야낄 동양선교교회 La Cuarta #505 y Las Monjas Urdesa Ceutral Casilla No. 09-06-2066 Guayaquil. Ecuador	Rev. Jae Sun Kim (김재선) 10 Agosto #606 y chile Esquina 6 piso Dep #2 Guayaquil, Ecuador ecuakim@yahoo.co.kr	(H)011-5934-251-3377 (F)011-5934-232-9412

지역	번호	교회명 및 주소	교역자 및 사택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호주	28	Tyrannus Mission Church 두란노선교교회 180 Liverpool Rd Ashfield NSW 2131, Australia	Rev. Ki Tae Song (송기태) 110 North at Ashfield NSW 2131, Australia	(C)011-61-2-9716-6739 (H)011-61-2-9716-6739
	29	Sydney O.M.C. 시드니 동양선교교회 Cnr Abuklea & Herrig R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Rev. Byoung Kil Choe 2/2-4 Nile Close Marsfield NSW 2122, Australia choe21c@hanmail.net	(C)011-61-2-9876-1827 (H)011-61-419-123-622 011-61-2-9876-1827
아프리카	30	Africa Mission Community Church 아프리카선교교회 P.O. Box 12494 Hatfield Pretoria 0028, South Africa	Rev. Sang Hoon Lee (이상훈) isang@icon.co.za	(C)011-27-12-348-4509 (Cel)011-27-83-436- 1151
	31	Khuma Mission Church #5, Mokgethi Street, Khuma location, Stilfontein, 2570, South Africa	Rev. Joseph E. Lee (이은원) P.O. Box 6811 Flamwood, 2572 Republic of South Africa ywam@lantic.net	(H/F)011-270-18-489- 3857 (Cel)011-27-82-968- 3944

동양선교교회 선교사

지역	번호	선교사	선교지	전화 및 팩스번호
미국	1	Harrison Yazzie P.O. Box 607 Chinle, AZ 86503	대 상: 북미 나바호 인디언 지 역: Arizona Navajo 교 회: Chinle Grace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선교사)	(H)928-674-3188 (Cel)928-265-1766
	2	안맹호 (Maeng Ho Ahn) P.O. Box 818 Rapid City, SD 57709	대 상: 북미 수우인디언 지 역: 사우스 다코타 선교회: DANA Christian Mission danamiss@rushmore.com	(H)605-718-0541 (F)605-718-0542
남미	3	이명수 (Myung Soo Lee) APDO Postal 20-017 San Angel C.P. 01001 Mexico, D.F.	대 상: 멕시코 지 역: 멕시코 시티 선교회: 멕시코 선교교회	(H)011-525-550-0618 011-525-044-5101 011-525-044-2312

지역	번호	선교사	선교지	전화 및 팩스번호
남미	4	김재록 (Jae Rok Kim) 848 S. Gramercy Dr. #207 L.A., CA 90005	대　상: 쿠바 지　역: 비랑, 까삐루, 마이시, 산타 고를스, 브론손에스콘디도	(H)213-739-2959
아시아	5	김영희	대　상: 지　역: cnkyh@hanmail.net	
	6	조바나바 426-1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89 2층	대　상: 지　역: 선교회: korwem@hanmail.net	
	7	최영희 (Grace Choi) C/Peter giles P.O. Box 358 Chiang Mai 50000, Thailand	대　상: 지　역: 선교회: WEC	
	8	함상배	대　상: 지　역: 선교회: OMF mhwam@dreamwiz.com	
	9	김주연	대　상: 지　역:	
	10	황등룡	대　상: 지　역:	
	11	이환호	대　상: 지　역:	
	12	Ezra Sargunam No. 1 Second Street Ormes Road, Kilpauk, Madras-600010, India	대　상: 인도 지　역: 마드리스 선교회: ECI	(O)011-91-44-6413178 (F)011-91-44-6411803
기타	13	이의홍 Denizevleri Mah. Kirkpinar Sok. No:4, Celik Apt. D:4 Atakum, Samsun 55200 Turkey	대　상: 터키 지　역: 삼순 선교회: 터키문화센타(Agape House) agape777@hanmail.net	(T)011-90-532-317-4501 (T)011-90-533-556-1085
	14	남윤희 Denizevleri Mah. Kirkpinar Sok. No:4, Celik Apt. D:4 Atakum, Samsun 55200 Turkey	대　상: 터키 지　역: 안탈리아 선교회: 터키문화센타(Agape House)	(H)011-90-362-438-2235 (C)011-90-536-376-2265

지역	번호	선교사	선교지	전화 및 팩스번호
기타	15	장성일 P.O. Box 61700 Honolulu, Hawaii 96839	대 상: YWAM 전도훈련학교 지 역: 하와이 선교회: YWAM	(H)808-988-7015 (F)808-988-5618
	16	이인검 C.P.O Box 867 Moscow, 101000, Russia	대 상: 모스크바, 레쟌 신학교 지 역: 러시아	(Cel)011-7095-109-2862 7095-214-8142
	17	손귀목 Sohn Gui Mog P.O. Box 2610 Astana, 473000 Kazahstan	대 상: 지 역: 카작스탄 sgmkaza@hotmail.com	(C)011-7-3172-22-92-73 (O)011-7-3172-77-43-29
	18	홍성호, 현숙 Steven & Holly Hong SIL, Box 180 Uka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대 상: 타바섬 원주민 지 역: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회: 위클리프 s-h.hong@sil.org.pg	(H)011-675-737-4528
	19	백영두, 미섭 Adam & Mie Peak S.I.L. Box 424 Uka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대 상: 선교본부 지 역: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회:위클리프 a-m.paek@sil.org.pg	(H)011-675-737-4570
	20	박서윤 2221 W. Olympic Blvd. L.A., CA 90006	대 상: 케냐(아프리카) 지 역: 에바다 찬양선교회	(O)213-389-2671 (F)213-386-8417

역대 봉사위원회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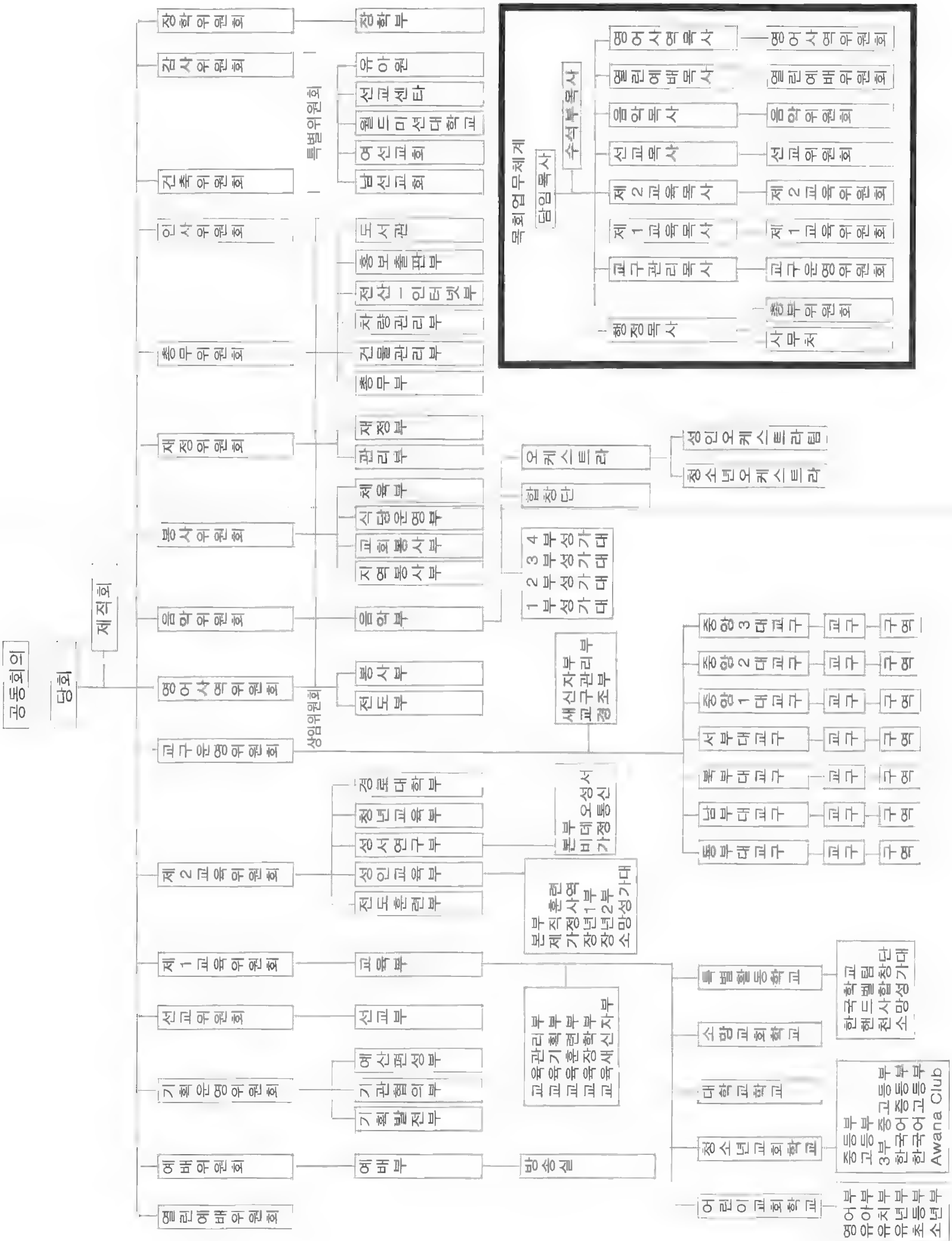
	예 산	증가율 %
1980	김용서	오수남, 김재휘/김창무(경조), 남상수/엄창웅(체육)
1981	조웅래	김중완, 노상도/김명균(경조), 남상수/엄창웅(체육)
1982	홍순웅	김중완, 오수남/김명균(경조), 남상수/엄창웅(체육)
1983	한인남	김봉한, 한건수/황종구(경조), 방조영/최상집(체육)
1984	오수남	김명균, 한인남/황종구(경조), 홍순웅/최상집/이원열(체육)
1985	김용서	원재수, 한병철, 서완석/김중완(구제), 노수정/오정택(생활지도), 김광락/조인식/한긍리(체육)
1986	박계로	원재수, 한건수/김주완(구제), 이재권/오정택(생활), 김석환/엄문섭(체육)
1987	김몽학	이인근, 조영일, 조상희/원재수(구제), 오수훈/김찬규(생활), 김석환/이호남(체육)
1988	김용서	원재수/엄문섭, 백형권/홍성환(구제), 신윤철/임스티브(생활지도), 김명균/이영이(체육)
1989	황재룡	김주환, 백형건/이영이(구제), 황종구/엄창웅(생활지도)
1990	김상정	김주환, 백형건/이영이(구제), 황종구/엄창웅(생활지도)
1991	오해훈	노성찬, 이명진, 홍성환/이영이/이창석(구제), 황종구/박승원/이법웅(생활)
1992	조인식	오정택, 엄문섭, 이태식, 장정숙, 김현숙, 이명진, 이영세, 이영송, 한경수, 김해룡, 이병주, 이찬봉, 강성환
1993	백형권	이명진(구제, 봉사), 최종원(운영, 관리)
1994	노수정	백윤조, 홍성환, 조준구, 조영일, 노성찬
1995	김성곤	김성곤/이경동(지역), 문병조/한규환(교회봉사), 신상우/이명준(식당), 조준구/한상범 (체육)
1996		
1997		
1995	이건기	한동열(식당), 김영욱(교회), 임승표(지역)
1999	백형권	한동열(식당), 최창진(교회), 곽병재(지역)
2000	이 조	한동열(식당), 김국한(교회), 최창진(지역)
2001	정중섭	한동열(식당), 김동원(교회), 김희구(지역)

교구 편성표

중앙 1대교구	중앙 2대교구	중앙 3대교구	동부 대교구
HIGHLAND 1	WILTON 2-1	SILVERLAKE	ONTARIO 1
HIGHLAND 2	WILTON 2-2	MARIPOSA	WALNUT
HANCOCK PARK 1	WILTON 2-3	NORMANDIE 1	HACIENDA 1
HANCOCK PARK 2	WILTON 2-4	NORMANDIE 2	HACIENDA 2
MELROSE 1	WILTON 2-5	DOWNTOWN 1	HACIENDA 3
MELROSE 2	WESTERN 1-1	DOWNTOWN 2	FULLERTON
MELROSE 3	WESTERN 1-2	DOWNTOWN 3	ORANGE
SANTA MONICA 1	WESTERN 1-3	DOWNTOWN 4	MONTEREY PARK 1
SANTA MONICA 2	WESTERN 2-1	DOWNTOWN 5	MONTEREY PARK 2
SANTA MONICA 3	WESTERN 2-2	VERMONT 1	
VAN NESS 1	WESTERN 2-3	VERMONT 2	
VAN NESS 2	WESTERN 3-1	HOOVER 1	
VAN NESS 3	WESTERN 3-2	HOOVER 2	
WILTON 1-1	LOS FELIZ 1	HOOVER 3	
WILTON 1-2	LOS FELIZ 2		
WILTON 1-3			
WILTON 1-4			

서부 대교구	남부 대교구	북부 대교구
BURBANK 1	CERRITOS	GLENDALE 1
VALLEY	CERRITOS	GLENDALE 2
GRANADA HILLS	NOR/DOW	GLENDALE 3
NORTHRIDGE	TOR/GAR1	ARCADIA 1
WOODLAND HILLS	TOR/GAR2	PASADENA 1
WOODLAND HILLS	CURVER CITY 1	PASADENA 2
AGOURA HILLS	CURVER CITY 2	LA CRESCENTA 1
BEVERLY	SOUTH 1	LA CRESCENTA 2
	SOUTH 2	LA CANADA 1
	SOUTH 3	LA CANADA 2

교회 조직표 <2001년 기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연혁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성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 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
1989. 3. 1 : 임동선목사 학장으로 취임
1989. 3. 1 : 이원희목사 학감으로 부임
1989. 3. 27 : 신입생 32명으로 개강하고 Donald A. McGaveran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0. 3. 1 : 학감으로 김기철목사가 부임하다
1991. 3. 18 : 신학석사(M. Div., M.A.)가주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1. 9. : Quarter제에서 Semester제로 변경하다.
1992. 1. 1 : 학감으로 이정근목사 부임하다.
1992. 5. : 학교 교가 제정하다 (임동선 작사, 박재훈 작곡).
1992. 5. 31 :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2. 8. 18 : 대학 학부 인가 취득, 이에 따라 학교 이름을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하고
대학원은 세계선교대학원으로 하다.
1992. 9. 27 :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5. 10 : 미 이민국에서 I-20 Form 발행을 허가하다.
1993. 5. 23 : 제2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3. 6. 29 : 종합대학교로 개편하고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 11 : 총장에 임동선목사, 부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목사를 선임하다.
1994. 5. : 가주 교육국 정기감사를 받아.
1994. 5. 29 : 제3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4. 10. 9 : 목회학 박사 학위 주 정부 인가 취득하다.
1995. 1. 1 : 부총장에 박광철목사를 선임하다.
1995. 6. 4 : 제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5. 9. 20 : 가주 교육국 확인감사를 통과하다.
1996. 6. 2 : 제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6. 7. 2 : 동양선교교회와 미주성결교회가 신학교 공동운영에 상호 합의하다.
1997. 6. 1 : 제6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7. 6. 2 : 한국 목회신학연구원과 월드미션대학교가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하다.
1998. 6. 7 : 제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8. 12.10-11 : 주정부 교육국 감사를 필하다.
1999. 3.25-28 :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6. 6 : 제8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9. 7. 1 : 주정부 완결인가(Full Approve)취득하다.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1999. 10. 1 : 학감(교무처장)에 임성진목사를 선임하다.
2000. 2. 24 : 대학원장에 안용식목사를 선임하다.
2000. 6. 4 : 제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0. 12. 12 : 제1회 평신도대학 수료식을 거행하다.
2001. 1. 15 : 부총장에 Mr. McKenna목사를 선임하다.
2001. 2. 15 : AABC로부터 Application Status(신청자자격)을 부여받다.
2001. 6. 3 : 제10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2002. 1. 15 : 관리 부총장에 강준민목사를 선임하다.
2002. 6. 2 : 제1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신학대학원 졸업생 현황 및 모집학과

본교는 10회에 걸쳐 1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과정별 졸업생수와 사역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졸업생수

과 정	B.A.	M.A.	M.Div	계
졸업생수	96	22	69	187

◆ 사역현황

과 정	목회	선교	진학	기타	계
졸업생수	102	21	36	28	187

◆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A.	신학과	64	2	대졸
M.Div	목회학과	96	3	대졸
D.Min	목회학과	40	3	M.Div, 졸업+목회3년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15	1학기	고졸
	원장자격증	18		

동양선교교회 도서관 역대 사업

1983. 1월 OMC 도서관 발족 –
장서 400권 (구교육관 2층)
1988. 9월 제 1 교육관 3층으로 도서관 이전 (1,780 sqft)
1990. 11월 제 1회 교회도서관 세미나 개최
(동포 이민교회 계몽사업)
9월 제 1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실시(성인)
1991. 9월 제 2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실시
(성인, 청소년)
1992. 2월 제 2 교육관으로 도서관 이전
(3,300sqft: 현위치)
2/21–3/7 도서기증 캠패인 주간
(Fundraising: 현금–$6,000/
기증도서 – 850권)
10월 제 3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실시
(성인, 청소년, 영어 부문)
1993. 1월 OCLC Library online system 도입 (영문서적)
10월 제 4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실시
(성인, 청소년, 영어 부문)
1994. 1월 Coin–operated copy machine 설치
3월 OCLC CJK 방식도입
1995. 4월 Book shelves 지진 대비 Panels 설치
7월 도서관 사무 자동화를 위한
새 Computer(pentium)구입
8월 도서관 Office 칸막이 및 구조 변경
9월 제 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실시
12월 도서관 자동화를 위한 Program 을 구입
영어와 한국어 서적의 재 분류 시작
(DDC에서 LCC로)
1997. 9월 제 6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실시
1998. 1월 OCLC new workstation 사용 시작
2000. 7월 동양선교교회 도서관을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으로 이양
(재정적인 지원은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12월 월드미션대학교 제 9회 졸업기념 사업으로
Computer 2대와 Printer 2대 기증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Computer를 3대로 증설

동양선교교회 도서관 역대 임원

1984	부장: 최만삼, 김용일	사서: 김성자	장서 수:약 4,000권		
1985	부장: 이건기	사서: 김성자	장서 수:약 4,500권		
1986	부장: 정중섭	차장: 이고명	사서: 김성자		
1987	부장: 정중섭	차장: 이고명	사서: 김성자		
1988	부장: 정중섭	차장: 이고명, 오명엽			
1989	부장: 정중섭	차장: 남상수, 임헌권	장서 수:약 22,000권		
1990	부장: 정중섭	차장: 남상수, 임헌권	장서 수:약 23,000권		
1991	부장: 정중섭	차장: 남상수			
1992	부장: 정중섭	차장: 곽건준			
1993	부장: 김용일	차장: 이영송			
1994	부장: 정중섭	차장: 이영송			
1995	부장: 조영근	사서: 김정자, 이선희			
1996	부장: 김성곤	직원: 김정자, 이두열			
1997	부장: 김기성	사서: 이선희			
1998	부장: 김기성	사서: 이두열, 김소아			
1999	부장: 정문섭	준사서: 김소아			
2000	부장: 정중섭	차장: 오광찬	사서:고임중	장서 수:약 48,000권	잡지:33종

동양선교교회 부설 로스앤젤레스 기독상조회 연혁

1989. 11. 15 :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에서 동양선교교회 상락회 상조부 창립
1990. 6. 1 : 이름개명: 동양선교교회 상락복지상조회로 개명
1991. 7. 15 :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대의원 및 임원을 선출
1992. 1. 19 : 1992년도(제4회)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
1993. 1. 19 : 대의원 추가 선출함정병수, 조정현, 임병갑
1994. 1. 26 : 회칙에 의하여 임기만료로 대의원 선출
1994. 1. 26 : 임원개선
고문: 박광철, 전길성, 임스티브, 최경호, 오수남
명예회장: 임동선
회장: 조웅래 부회장: 정한석, 조영근 총무: 안성규 감사: 함정희, 조인석
1994. 7. 21 : Los Angeles Christian San Jo Foundation법인체 설립인가 받음
1994. 10. 7 : 회장사임: 조웅래
회장취임: 조영근
1996. 4. 27 : (법인)로스앤젤레스 기독상조회 이사회 창립 총회를 갖음
이사장: 임동선 부이사장; 정문섭, 온성철 상임이사: 조영근
1997. 10. 27 : C-4 I.R.S.로부터 Tax Examption통보받음
1998. 5. 30 : 건강세미나 개최
1998. 9. 11 : 등불대학 개강. "등불" 창간호 발간
1998. 9. 17 : IRS로부터 C-3 허가 받음 (연방정부로부터)
1990. 8. 30 : "등불" 2호 발간이후 2002년 현재 7호 발간
1999. 11. 2 : D조 운영 시작 (A조: 1000명, B조: 1000명, C조: 1000명, D조: 100명)
1999. 11. 30 : "등불" (창립10주년 기념호) 발간
2000. 4. 25 : 정기이사회
(이사) 임동선, 이건기, 김기성, 장 진, 조영일, 신병모, 한긍리, 김세웅, 이 조,
(선출이사) 황종현, 이정식, 강일영, 정한석, 조웅래, 안성규, 정문섭
(공헌이사) 조인석, 오철수, 온성철
(명예이사) 조영근, 최경호
이사장: 임동선 부이사장: 온성철, 정한석 상임이사: 정문섭
회장: 정문섭
부회장: 이건기
감사: 조인석, 한긍리
사무당담: 이정원

헌법

차 례

제1편 총 칙

제2편 교회 교리

제3편 성도의 성약

제4편 정 치

제1장 교 회

제25조 교회의 정의
제26조 교회의 구별

제2장 교 인

제27조 교인의 정의와 구분
제28조 교인의 의무
제29조 교인의 권리
제30조 교인의 자격정지
제31조 교인의 복권

제3장 교회의 제직

제32조 교회 제직의 지위
제33조 교회 제직의 구분

제4장 교역자

제1절 목사

제34조 목사의 자격
제35조 목사의 지위
제36조 목사의 직무
제37조 목사의 칭호
제38조 목사의 청빙
제39조 목사의 안수
제40조 목사의 임기와 정년
제41조 목사의 휴무
제42조 목사의 사임

제2절 전도사

제43조 전도사의 자격
제44조 전도사의 임명
제45조 전도사의 칭호와 구분
제46조 전담 전임 전도사의 직무
제47조 전도사직의 유효

제5장 평신도 제직

제1절 장로

제48조 장로의 자격
제49조 장로의 직무
제50조 장로의 칭호
제51조 장로의 선임
제52조 장로의 임직
제53조 전입 장로의 시무 취임
제54조 장로의 시무 임기
제55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제56조 장로의 휴무
제57조 장로의 복직

제2절 집사와 권사

제58조 집사의 구분
제59조 집사의 직무
제60조 집사의 자격
제61조 서리집사의 선택과 임기
제62조 안수집사의 선택
제63조 안수집사의 칭호
제64조 권사의 직무
제65조 권사의 자격
제66조 권사의 선택
제67조 권사의 임직
제68조 권사의 칭호
제69조 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제6장 회 의

제1절 공동회의

제70조 구성과 조직
제71조 공동회의의 회집
제72조 공동회의의 결의사항

제2절 제직회

제73조　제직회 회원
제74조　제직회의 결의사항
제75조　제직회의 조직
제76조　제직회의 회집

제7장 당 회

제77조　당회의 조직
제78조　당회의 권한
제79조　당회장
제80조　당회의 직무
제81조　당회의 개회성수
제82조　당회의 회집
제83조　당회록 기록

제8장 지역 및 자매교회

제84조　지역교회 및 자매교회

제9장 선교 연합 기구

제85조　선교 연합 기구

제5편　재 산

제86조　교회재산의 정의
제87조　부동산의 소관
제88조　재산의 관리
제89조　기타재산의 관리
제90조　건물 및 시설의 관리
제91조　비품의 사용 및 보관 관리

제6편　권징 및 포상

제92조　권징 및 포상의 목적

제1절 포상

제93조　포상의 의미
제94조　포상의 대상

제2절 징계

제95조　징계의 의의
제96조　징계의 목적
제97조　범죄
제98조　책벌
제99조　징계의 절차

제7편　헌법 및 제규정의 수/개정

제100조　개정 및 수정

부 칙

전 문

복음주의 신앙을 같이 하는 30여명의 교우가 주후 1970년 7월 26일 926 South Irolo St., Los Angeles 에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해 전력하기로 하다.

제1편 총 칙

제1조:

1. 본 교회는 기독교 동양선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Oriental Mission Church라 한다.

2. 본 교회 주소는 미국 Los Angeles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지역교회 또는 자매 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본 교회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성결의 은혜를 얻게 하는데 있다.

제3조: 본 교회는 상기의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본 교회는 세계 선교사업을 수행한다.
2. 복음주의 신앙노선에 입각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한다.
3.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친교사업과 봉사사업을 실시한다.
4. 각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제4조: 본 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신앙노선을 따라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유지하며, 이에 준한 연합기구를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편 교회 교리

제5조: 우리가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믿는 복음주의로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한다.

제6조: 신구약 성서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다.

제7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이시며 그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영생하시며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와 인자와 공의와 사랑이 무한하시며 변치 않으신다.

제8조: 하나님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제9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물을 주관케 하셨으니 모든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낳았으며, 한 동포요, 한 형제이다.

제10조: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선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 타락하여 원죄를 갖게 되었고 부패하여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11조: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의 공로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으되 오직 죄는 없으시다.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원죄까지 속죄하시고 부활하사 몸으로 승천하여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제12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이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어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보혜사로서 신자를 가르치시며 인도하며 능력을 주시사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하시는 신이시다.

제13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되는것이다.

제14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함을 표하는 예식이요, 성찬은 우리의 속죄 제 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즙을 받는 예전이다.

제15조: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집합체이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성례전을 거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의 주를 대망하는 거룩한 공해이다

제3편 성도의 성약

제16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입어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킨다.

제17조: 우리는 죄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일생을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한 길로 걸을 것을 약속한다.

제18조: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예배의식과 권징과 교리를 지지하고 온 세계의 영혼 구원과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즐거이 규칙적으로 헌금할것을 약속한다.

제19조: 우리는 기도생활을 힘쓰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교육과 친척과 이웃을 죄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며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고 성실한 약속과 태도로 모범을 보이며 모든 잡담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심한 노여움을 피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찬양과 감사하는 말을 하며 하늘 나라갈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0조: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보살피고, 겸손과 사랑으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기도로 도우며, 질병과 불행이 닥쳤을 때 서로 돕고 예의 바른 언행을 가짐으로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자중한다.

제21조: 무릇 음식 중에 자기에게 해롭다고 인정하는 것들(주초, 마약 등)은 단연히 거절하고 유익한 것만 이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22조: 혼인은 인간의 중대하고 성스러운 일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나니 가급적 신자와 결혼 할 것을 약속한다.

제23조: 이혼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간음한 이유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남일녀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일남 일녀의 가정 윤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4편 정 치

제1장 교 회

제25조 교회의 정의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예배와 성례전의 집행,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전파, 성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세상에 봉사를 하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의 신앙 공동체이다.

제26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유형(가시) 교회와 무형(비가시) 교회가 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요,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해 있는 교회이다.

제2장 교 인

제27조 교인의 정의와 구분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일체의 분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한 신자로서 당회는 이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유아 세례 교인: 입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시에 세례를 받은 자.

2.구도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교인 명부에 기록이 된 자.

3.학습교인: 구도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여 학습 예식을 마친 자.

4.세례교인: 학습 받은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세례 문답과 세례를 받은 자. 단, 본교회의 세례는 직례로 한다.

5.입교교인: 세례 교인 및 유아 세례 교인으로 16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식을 마친 자.

제28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아래의 의무를 갖는다.

1. 공예배의 출석과 헌금
2. 교회 치리에 대한 복종

제29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1. 세례 교인의 성찬 참여권
2. 입교 교인의 공동 총의 회원권

제30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제31조 교인의 복권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고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고, 실종교인이 된 자는 1년을 경과한 후에 라야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제3장 교회의 제직

제32조 교회 제직의 지위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를 섬기우기 위하여 제직을 두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양육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직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 택할 것이고 그 제직을 선정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제33조 교회 제직의 구분

교회 제직은 사역상 교역자와 평신도 제직으로 하고 교역자는 목사와 전도사이며 평신도 제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다.

제4장 교역자

제1절 목 사

제34조 목사의 자격

목사(또는 안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및 경력

1)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 기관에서 신학의 학업 (목회학 석사, M. Div.)을 졸업한,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27세 이상된 자.

2) 신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전담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중 2년 이상의 교역 경험과 졸업후 1년 이상의 전담교역 경험을 가진 자.

3) 선교 연합회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이나 기관에서 실시한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기본 자격

1) 신앙

신앙이 진실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는 소명이 확실한 자.

2) 인격

말과 행위가 진실하고, 복음에 합당하고 깨끗하여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으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회나 사회에서 비판을 받지 않는 자.

3) 지도력

교수의 능이 있고 교회를 치리 할 지도 능력이 있는 자.

4)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을 가진 자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5) 재물

재물에 청렴하고 더러운 이를 탐내지 않는 자.

제35조 목사의 지위

목사는 안수례를 베풀어 세운 성직으로(딤전 4:14, 5:22)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 (렘 3:5, 벧전 5: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다. (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다. (딛 1:9, 딤후 1:11)
4. 목사는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딤후 4:5, 엡 4:11)
5.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고전 4:1-2, 눅 12:42)
6.목사의 호칭은 존귀한 것으로 사직하거나 파직되지 않는 한 평생 존속된다.
7.목사는 선교 연합회에 소속한다.

제36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아래의 직무를 갖는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다. (교훈권)
2. 세례와 성찬을 집례한다. (성례권)
3. 축복기도와 안수를 한다. (축복권)
4. 장로의 협력을 받아 치리한다. (치리권)

제37조 목사의 칭호

목사는 그 사역과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칭호가 구분된다.

1.담임목사: 교회의 청빙법에 따라 청빙을 받고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이다.

2.부 목 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직임에 따라 전담 부목사(수석 또는 담당 부목사)로 호칭할 수 있다.

3.선교목사: 본 교회가 인정하는 외국 선교단체에서 본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나, 또는 본 교회가 외국이나 타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목사.

4.전도목사: 학원, 병원, 양로원, 국내외 개척지, 군대, 산업기관, 타민족 선교 등 전도차 파송한 목사.

5.협동목사: 본 교회에 속해서 자원하여 목회에 협력하는 목사.

6. 기관목사: 본 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

7. 공로목사: 본 교회에서 시무 중 특별한 공로가 있어 은퇴 후에 교회가 추대한 목사.

8. 무임목사: 사역임무가 미정 중에 있는 목사.

9. 원로목사: 교회를 창립한 목사로서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또는 15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로 추대한 목사. 원로목사는 당회에 발언권을 가지며 사례금을 정할 수 있다.

10. 설교목사: 설교자로 일정기간 청빙받은 목사.

제38조 목사의 청빙

교역자를 청빙할 때에는 본 교회와 신앙을 같이하는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청빙받을 담임목사와 교역자는 본 교회의 청빙내규에 합당한 자라야 하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후보를 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거쳐 청빙예정서를 보내어 본인의 내락을 받은 후 공동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 청빙서를 보내어 청빙수락서를 받는다. 단, 승인과 동의는 재석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에서 투표로 천거한다.

2.부목사: 담임목사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3. 협동목사 및 설교목사: 담임목사가 당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39조 목사의 안수

본 교회는 전도사 중 목사고시 자격이 구비된 자에게는 재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교 연합회에 목사 안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0조 목사의 임기와 정년

목사의 임기와 정년은 다음과 같다.

1.목사의 시무정년은 65세로 한다.

2.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다. 단, 신임 담임목사가 부임하였을 때에는 사의를 표하고 신임을 묻는다.

제41조 목사(교역자)의 휴무

시무 중에 있는 목사(교역자)가 휴양이나 신학연구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시무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유할수 있다. 단, 안식년 휴무는 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목사의 사임

1. 자의 사임

목사가 자의로 시무사임의 청원을 하면 당회의 결의로 허락한다.

2. 권고 사임

목사가 임직 서약을 위약하거나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또는 기

타 사정으로 시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권고사임은 공동회의의 투표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전도사

제43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신학 학업을 수업하고 있는 자 또는 졸업을 한 자로서 25세 이상된 무흠 입교인으로서 5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제44조 전도사의 임명

전도사는 당회가 임명한다. 전도사 지망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된 출신기관 또는 신학 교육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영적, 인격적,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소견
2. 지도력에 대한 소견
3. 신앙의 경험과 전도의 사명에 대한 소견

제45조 전도사의 칭호와 구분

전도사는 그 직임과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담 전임 전도사

교회 사역의 일정 분야를 담당하여 시무하는 전도사. 예) 교육전도사, 행정 전도사, 교구 전도사 등.

2. 수습 전도사

목사 안수를 위하여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전도사.

3. 학생 전도사

신학 교육(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으로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자.

제46조 전담 전임 전도사의 임무

전담 전임 전도사는 당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

1. 예배를 맡아 주관한다.
2. 설교한다.
3. 성경을 가르친다.
4. 결혼예식, 장례예식을 주관한다.

제47조 전도사직의 유효

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서 재임명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외부로부터 전입한 전직 전도사도 이에 준한다.

제5장 평신도 제직

제1절 장 로

제48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35세 이상된 자.
3. 직업이 정당한 자.
4.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자.
5.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6. 안수집사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7. 성경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학식이 있는 자.
8. 6개월 이상의 장로 교양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
9.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합당한 자.

제4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로 목사를 협력하여 다음의 일 한다.

1.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2. 교인들이 신앙 생활을 돌보며 교리를 바로 알도록 지도한다.
3. 목사를 도와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4.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 권면한다.
5. 담임 목사의 위임이 있을 때나 유고 시에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할 수 있다.
6. 본 교회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제50조 장로의 칭호

장로는 칭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무장로

본 교회의 당회원으로 시무하고 있는 장로

2. 협동장로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온 장로로서 입회 12개월 후에 당회의 결의로 교회 사역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장로

3. 사역장로

본 교회에서 시무한 장로로 정년 이전에 시무가 정지된 교회사역에 봉사하고 협력하는 장로

4. 원로장로

본 교회 시무 장로 또는 사역 장로로서 정년 은퇴한 장로.

제51조 장로의 선임

1.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로의 선임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면 된 후보를 공동회의에서 투표자 2/3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3. 당회의 후보 지명 투표는 3회로 하며 2/3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52조 장로의 임직

투표에서 피선된 자는 6개월 이상 당회가 정한 교양 교육을 받고 고시를 시취한 다음 선교 연합회의 소장 절차를 따라 인수한다.

제53조 전입장로의 시무 취임

다른 교회로부터 전입해 온 장로는 교회 입회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시무 취임 피선의 자격을 갖는다. 이때 피선 받은 자는 본 교회의 교리와 치리의 소정 교육을 받은 후 고시에 시취 해야 한다.

제54조 장로의 시무 임기

1. 장로의 시무 연령은 65세를 정년으로 한다.
2. 시무 장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시무 임기 3년을 마친 장로는 일년을 휴무하며 9년까지만 시무할 수 있다.

4. 휴무 후에 재 시무 투표는 공동회의의 투표자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제55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1.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의로 사임할 수 있다. 또한 장로가 과오가 있거나 시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직과 권고 사직

장로가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로 사직을 할 수 있고 또 당회가 결의하여 권고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시무를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 1년 이상 휴무할 수 없다.

1. 시무장로가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일년 이상 휴무한 장로는 자동 사직으로 한다.

3. 이유없이 당회에 6개월 이상 연속 결석 시는 자동 휴무로 한다.

제57조　장로의 복직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1/3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하면 아래와 같이 조처한다.

1.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당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2.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 사직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사직 장로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4.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잔여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51조에 준한다.

제2절 집사와 권사

제58조　집사의 구분

집사는 서리집사와 안수집사로 구분을 하며 서리집사는 1년 임시직이고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다.

제59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초대교회가 사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웠던 것과 같이 교회의 택함을 받아(행 6:4)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여,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60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딤전 3:8),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행 6:4)로서 아래의 요건이 있는 자라야 한다.

1. 25세 이상된 자로 무흠 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한 자.

2. 본 교회의 교리와 신앙노선 및 치리에 순복하는 자.

3.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자.

4. 직업이 정당하고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자.

5. 디모데전서 3:8-10에 해당하는 자.

6. 소정의 집사 교육을 받은 자.

제61조　서리집사의 선택과 임기

서리집사는 당회장이 당회와 합의하여 선택하고 임기는 1년이다.

제62조　안수집사의 선택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행 6:1-6) 서리 집사로 안수하여 교역자를 조역 토록 하여 교회의 성장발전을 이루게 할 것임으로 그 선택의 기본은 집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천하여 공동회의에서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득표로서 한다.

1. 30세 이상 된 자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서리 집사로 본 교회에 2년 이상 시무한 자.

3. 소정의 안수집사의 교육을 받은 자.

제63조　안수집사의 칭호

안수집사의 칭호는 아래와 같다.

1. 시무 안수집사

안수받고 교역사역에 현재 시무하고 있는 안수집사.

2. 협동 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온 안수집사로 본 교회 입회 후 당회가 결의하여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안수집사. 단 교회 입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시무 취임 피선의 자격을 갖는다.

제64조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3.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65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무흠 입교인으로 7년 이상된자.

2. 연령이 50세 이상된 자.

3.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치리에 순복하는 자.

4.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제66조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천하여 공동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67조 권사의 임무

권사는 교회에서 임직한다. 권사는 피택 받은 후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가 시취 임직한다. 단, 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제68조 권사의 칭호

권사의 칭호는 아래와 같다.

1. 시무권사: 현재 취임하여 시무하고 있는 권사.

2. 협동권사: 전입한 권사로서 입회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당회의 결의로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권사. 협동권사 1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시무 권사로 시무케 한다.

제69조 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 사임 또는 사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 때에 자의로 시무를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 또는 사직

권사로서 과오가 있거나 덕이 되지 못하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 또는 사직케 할 수 있다.

제6장 회 의

제1절 공동회의

제70조 구성과 조직

공동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으로 하며 의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된다.

제71조 공동회의의 회집

공동회의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이 하며 일시,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1. 정기 공동회의

매년 1회 연말에 개최한다.

2. 임시 공동회의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의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 사항이 있을 때

3. 개회성수

한 주일 전에 필히 소집 공고를 하고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제72조 공동회의의 결의 사항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단 예산 초안을 상당 부분 고쳐야 할 때에는 제직회가 조정하는 조건부로 승인한다.

3. 제직 선거

4. 기타 공동회의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 사항

제2절 제직회

제73조 제직회 회원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원로 목사, 협동 목사, 시무 장로, 원로 장로, 협동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교회 입회 12개월 후에 당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4조 제직회의 결의 사항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결산 및 예산 수립

3. 구제비에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기타 중요사항 및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75조 제직회의 조직

제직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회장

당회장이 된다.

2. 서기

회장이 추천하여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3. 감사

모든 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2명 이상 상당수의 감사를 선출한다.

4. 부서

교회 및 제직회 부서는 필요에 따라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6조 제직회의 회집

제직회의 회집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제직회의 소집은 제직회장이 한다.

1) 정기 제직회

매월 1회

2) 임시 제직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교회 제직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제직회의 개회 성수는 출석한 회원수로 하고 소집 광고를 1주전에 한다.

제7장 당 회

제77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장로 중 한 사람을 서기로 한다.

2. 당회 조직은 입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첫 조직시에는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제78조 당회의 권한

1. 당회는 치리회로서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다.

제79조 당회장

1.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가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가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대리 당회장을 할 수 있다. 단,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3. 담임목사가 유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목사를 청빙할 때 까지 임시 당회장을 둔다. 임시 당회장은 수석 부목사, 당회 서기, 당회원 순으로 한다.

제80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영적 지도와 관리

1) 교회의 신성 유지와 성결 유지를 위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한다.

2) 교인의 신앙 정도를 살피기 위하여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관장한다.

2. 인사관리

1) 교역자의 청빙과 임명 및 평신도 제직의 임직과 직임의 임명

2) 교회 사무직원의 임명 및 교회 각 기관의 인사 임명과 인준

3. 재정의 감독

1) 재정 출납의 규제와 헌금 수입의 방안 관리

2) 교회 모든 기관과 단체의 헌금 감독

4. 치리와 행정

1) 교인과 교회 제직의 포상과 징계 및 해벌에 관한 일

2) 본교회의 내규와 규정의 제정 및 교회 소속기관의 지도 감독

5. 재산관리

1) 교회의 건물, 토지, 가옥들의 부동산의 관리

2) 교회의 동산 및 이에 준한 재산의 관리

6. 감사

1) 재정 감사

2) 행정 감사

제81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자와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82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정기 당회

월 1회의 월례회

2. 임시 당회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3분의 1이상의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단, 임시 당회 안건은 사전에 공시된 것만 한다.

제83조 당회록의 기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들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을 요한다.

제8장 지역교회 및 자매교회

제84조 지역교회 및 자매교회

교회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지역교회를 설립하거나, 자매교회를 둘 수 있다. 지역교회 및 자매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는 별도 당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선교 연합기구

제85조 선교연합기구

교회의 선교 전략과 공동사업을 협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 대표들로 구성되는 선교 연합회에 참여한다.

제5편 재 산

제86조 교회 재산의 정의

동양선교교회의 재산은 본 교회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동산이나 부동산은 헌납 즉시 본 교회가 그 소유권을 갖는다.

제87조 부동산의 소관

본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은 동양선교교회의 유지 재단에 소속된다.

제88조 재산의 관리

본 교회의 재산은 당회로 관리케 한다.

제89조 기타 재산의 관리

재단 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본 교회의 재산도 본 교회의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90조 건물 및 시설의 관리

교회의 건물은 당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와 교회 모든 기관의 합법적 집회만 사용한다. 비록 교회 내의 부서라 할지라도 상례적인 집회 이외는 당회의 사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91조 비품의 사용 및 보관 관리

교회의 비품의 사용 및 보관 관리는 해당 교역자와 관리부가 한다.

제6편 권징 및 포상

제92조 권징과 포상의 목적

권징과 포상의 목적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권선징악으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룩하고 가꾸는데 있다.

제1절 포 상

제93조 포상의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끝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나, 지상교회는 역시 사회성을 가졌은 즉, 성도들에게 선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주님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여 사람들에게 모본을 삼도록 한다.

제94조 포상의 대상

교역자나 평신도가 선교 및 전도 사업, 또는 교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포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징 계

제95조 징계의 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이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즉 범죄한 일반 교인이나 제직을 권고하며 책벌하는 것이다.

제96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게 회개를 촉진하여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제97조 범죄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일반 교인이나 제직의 신앙과 행위, 또는 당회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
2.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
3.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거나 부덕스럽게 하는 것.

제98조 책벌

1. 심판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는 판결로서 벌을 정한다.
2. 심판으로 정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가. 교인에게 과하는 벌
- 1) 권계
- 2) 견책
- 3) 수찬 정지
- 4) 출교

나. 제직에게 과하는 벌

단, 이 벌은 교인에게 주는 벌을 단과 또는 병과 할수 없다.
- 1) 시무 정지
- 2) 시무 해임
- 3) 정직
- 4) 면직

제99조 징계의 절차

모든 징계의 대상자와 사안의 징계는 규정에 의하여 책벌한다. 이를 위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편 헌법 및 제 규정의 수/개정

제100조 개정 및 수정

헌법 및 시행 세칙 또는 제 규정의 개정과 수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헌법 개정 및 수정의 발의

가.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결의 또는 제직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회에 헌의하거나, 또는 당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발의를 할 수 있다.

나. 당회는 헌법 개정 및 수정을 위하여 헌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1) 당회는 9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단 위원장은 목사로 한다.

2) 헌법 개정 위원회는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당회에 제의한다. 당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공동회의에 회부한다.

3) 공동회의는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가결하여 의장이 이를 즉시 공포 시행한다.

2. 시행 세칙의 제정, 개정 및 수정 발의

헌법 개정 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당회의 결의하여 시행한다.

3. 제 법규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수정 발의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수정도 전항에 준한다.

부 칙

1. 1979 년 1월 공동회의에서 통과 됨.

이 헌법의 개정은 교회 협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헌법에 규정한 교회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본 교회의 당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헌법 개정은 공동회의에서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1983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3. 1984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4. 1985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5. 1987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6. 1993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7. 1995년 1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8. 2001년 2월 공동회의에서 개정됨.



동양선교교회 30년사 집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들어 쓸 수있는 주의 종 임동선목사님을 미국까지 인도하셨고, 노동과 유학을 통해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를 창립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동양선교교회입니다.

처음 30년사 집필에 대한 요청을 받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낮고 부족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반세기를 언론의 외길만 걸어 왔을 뿐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에 걸쳐 있었던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내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30년사의 기록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랑으로 가는 이민교회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역사서여야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주위의 격려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단지 역사 편찬의 작은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사의 집필 방향은 우선 신앙적이며 은혜스러운 내용을 가득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혁적이면서도 인물사에 촛점에 맞추면서 교회사를 써나갔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연대별로 잘 기술하고 담임목사님과 모든 당회원, 성도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나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항상 객관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내용중에 교회내의 더 많은 선교단체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한 제직들의 활동이 기술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꽃을 피워나가는 세계속의 교회입니다. 이민사회에 모세와 같은 신앙과 지도력을 가지신 임동선원로목사님, 새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준민목사님이 새 천년 새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부흥 성장의 때에 맞추어 30년사가 출간하게 된 것을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30년사 편찬을 위한 김성곤장로님의 한결같은 기도와 사명, 열성이 참으로 특별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찬위원님의 팀웍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동양선교교회 30년사가 문서사역과 복음전파, 미주 이민교계에 대한 이해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병용 언론인

동양선교교회 30년사 편찬을 마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동양선교교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한으로 30년사를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0년 5월3일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이해 10월 민병용집사님을 집필자로 결정하고 2001년 1월 편집위원을 선정함으로 본격적인 출판을 준비했음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편찬위원 이인검전도사는 목사 안수후 러시아 선교지로 떠나고 전영식, 금재연, 이태식집사님 등과 함께 매주 수요일, 주일예배후 정례회의와 작업을 해왔고 특별히 그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30년사의 집필을 위해 민병용집사님께서는 주보, 공동회의록, 제직회, 당회록, 교회신문 등을 분류, 정리하는데 1년이상을 매진했고 각계 1백20여명을 인터뷰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30년사는 신학적인 것보다 사도행전과 같이 객관적이고 기록적, 인물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의 교회 분규로 초창기 성도들이 많이 본교회를 떠났음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봉사하시는 원로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음에 특별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진들을 수집, 정리, 입력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이태식집사님께 이루 말할수 없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밤잠을 줄여 교정작업을 맡아주신 이영세, 이호연 부부집사님, 30년 주보 복사를 해주신 심진영집사님, 20년사 준비와 「동양선교헤럴드」, 보도사진 정리와 자문을 해주신 조영근목사님, 사진촬영을 맡아주신 이창우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사는 새벽마다 기도해주신 여러 성도님들, 열심히 자료수집을 위해 애써주신 편찬위원들,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신 당회, 임동선원로목사님과 강준민담임목사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의 지원, 아울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뤄졌다고 믿습니다.

다시한번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곤 장로
동양선교교회 30년사 편찬위원장



동양선교교회 30년사 편찬위원들

동양선교교회 30년사

발행처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U.S.A.
(323)466-1234
www.omc.org

발행일 2002년 7월

발행인 강 준 민
편집인 김 성 곤
집필자 민 병 용
기 획 전 영 식, 금 재 연
사 진 이 태 식
출판위원 황재룡, 조영근, 스티브임, 한긍리, 김세웅,
정영식, 원석복, 김영욱, 한동열, 이용훈,
홍성식, 박형진, 전완수

편 집 지브라디자인
인 쇄 삼화인쇄주식회사

선교하는 교회
MISSION
•
교육하는 교회
EDUCATION
•
봉사하는 교회
SERVICE



동양선교교회
The Oriental Mission Church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323.466.1234 Fax.323.466.0816
www.omc.org